

몰몬경



학생 교재
종교 121~122

몰몬경 학생 교재

종교 121~122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발행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표지 미술

풍요 땅에 계신 그리스도, 사이먼 듀이, © 2003 IRI

의견이 있거나 정정할 사항을 발견하면,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Seminaries and Institutes of Religion Curriculum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08 USA
이메일: ces-manuals@ldschurch.org

여러분의 성명, 주소, 워드, 스테이크 명칭을 기재해 주십시오.
교재 제목을 반드시 기입하신 후에 의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2009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 1/07

번역 승인: 1/07

*Book of Mormon Student Manual*의 번역

Korean

32506 320

목차

장

소개	1	36 힐라맨서 5~9장	267
1 우리 종교의 종석	3	37 힐라맨서 10~12장	273
2 니파이전서 1~5장	11	38 힐라맨서 13~16장	280
3 니파이전서 6~11장	18	39 제3니파이 1~7장	287
4 니파이전서 12~15장	25	40 제3니파이 8~11장	294
5 니파이전서 16~18장	33	41 제3니파이 12~14장	301
6 니파이전서 19~22장	41	42 제3니파이 15~17장	311
7 니파이후서 1~3장	48	43 제3니파이 18~19장	316
8 니파이후서 4~8장	57	44 제3니파이 20~22장	322
9 니파이후서 9~10장	64	45 제3니파이 23~26장	330
10 니파이후서 11~16장	71	46 제3니파이 27~30장	336
11 니파이후서 17~24장	80	47 제4니파이	340
12 니파이후서 25~27장	91	48 물문서 1~6장	347
13 니파이후서 28~30장	100	49 물문서 7~9장	353
14 니파이후서 31~33장	106	50 이터서 1~5장	360
15 야곱서 1~4장	112	51 이터서 6~10장	368
16 야곱서 5~7장	121	52 이터서 11~15장	374
17 이노스~물문의 말씀	129	53 모로나이서 1~6장	381
18 모사이야서 1~3장	135	54 모로나이서 7장	387
19 모사이야서 4~8장	141	55 모로나이서 8~9장	394
20 모사이야서 9~17장	148	56 모로나이서 10장	400
21 모사이야서 18~24장	155		
22 모사이야서 25~29장	162	부록	
23 엘마서 1~4장	169	물문경 판과 기록	406
24 엘마서 5~7장	177	니파이인 기록 작성자들	407
25 엘마서 8~12장	183	물문경 판의 증인들	408
26 엘마서 13~16장	190	리하이 가족의 추정 여행 경로	409
27 엘마서 17~22장	197	물문경 쪽수 및 기간	410
28 엘마서 23~29장	204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막대기	411
29 엘마서 30~31장	212	옴나이서부터 모사이야서에까지 포함된 사건에 대한 서술	412
30 엘마서 32~35장	221	의로움과 간악함의 주기	413
31 엘마서 36~39장	231	이스라엘의 흠어짐에 대한 약사	414
32 엘마서 40~42장	241	이스라엘의 집합	415
33 엘마서 43~51장	247		
34 엘마서 52~63장	255	주제 색인	416
35 힐라맨서 1~4장	261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는 몰몬경에서 그분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배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History of the Church, 4:461; 몰몬경 소개) 확인했다. 여러분이 몰몬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성신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에 인류의 구속주로서 구주께서 하시는 신성한 역할에 대해 증거해 줄 것이다.

몰몬경은 이 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복음이 회복되기 시작한 시기에 개종하여 이후에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 된 팔리 피 프랫(1807~1857) 장로는 처음으로 몰몬경을 읽었을 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나는 큰 기대를 안고 그 책을 펴서 표제지를 읽었다. 그런 다음, 이 책이 어떻게 발견되었고 번역되었는지에 관해 쓴 몇몇 증인들의 간증을 읽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책 본문을 순서대로 읽기 시작했다. 온종일 읽었다. 먹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밤이 되자 잠자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자는 것보다는 읽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책을 읽자, 주님의 영이 임했다. 나는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ed. Parley P. Pratt Jr. [1938],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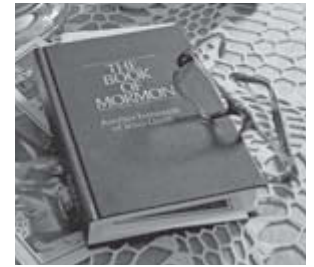
현대 선지자들은 모든 후기 성도가 몰몬경을 읽고 또 읽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여러분 각자가 [몰몬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몰몬경을 몇 번 읽었는가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영이 더욱 풍성하게 임하고, 여러분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겠다고 굳게 다짐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간증이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가슴 설레는 참된 간증”, 리아호나, 2005년 8월호, 6쪽)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몰몬경을 공부할 때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들려주었다.

“저는 [몰몬경이] 간결하고 진귀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저는 누구든, 어디서든, 몰몬경을 읽고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통찰력은 두 번, 심지어 세 번 읽은 후에 왔으며 일상 생활에서 제가 처하는 일들에 적용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리아호나, 2005년 5월호, 7쪽)



패커 회장이 간증한 것처럼

여러분이 몰몬경을 꾸준히 읽을 때 영감이 찾아올 것이다.

이 교재의 목적

이 학생 교재는 여러분이 몰몬경을 읽고 공부할 때 보충 자료로 쓸 수 있으나 몰몬경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 교재에는 “모든 경전을 [자신]에게 비유하[는]”(니파이전서 19:23 )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선지자들의 통찰과 영감 받은 권고가 실려 있다. 여러분의 학습 습관을 평가하고, 여러분이 몰몬경을 읽고 학습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교재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가능한 학습 방법에는 (1) 읽으면서 교재 참조하기, (2) 몰몬경에서 몇 장(章)을 읽고 난 후 교재 읽기, 또는 (3) 경전을 읽기 전에 교재를 살펴보면서 지정된 장들에 대한 이해력 강화하기가 있다.

책 구성

이 학생 교재는 몰몬경 전체를 다루며 총 5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소개, 해설, 학습 질문(질문 상자 안에 있음), 생각해 볼 점, 제언 과제이다.

소개

각 장이 시작될 때 나오는 간략한 소개에는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주제가 나오며, 성구에 나오는 교리와 원리가 언급된다.

해설

해설은 성구에 나오는 교리와 원리들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해설을 주의 깊게 읽으면, 물문경 선지자들의 영감 받은 메시지들을 더 깊이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다. 우리 시대 선지자들이 경전에 나오는 진리를 현대 상황과 세상적으로 성행하는 여러 정세와 추세에 어떻게 비유하는지 볼 수 있다.

해설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교회 관련 출판물이 자주 인용된다.

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2004),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2001), 경전 안내서(인터넷 사이트 www.scriptures.lds.org에서 볼 수 있음), Topical Guide, Bible Dictionary.

학습 질문

해설 부분에서 아래와 같이 회색 상자 안에 있는 학습 질문을 볼 수 있다. 이 질문들은 특정 구절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사이야서 18:21~29

엘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29절)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는가?

생각해 볼 점

생각해 볼 점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읽은 것 중 몇 가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경전을 상고함으로써 귀중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했다. “교리와 원리에 관해 숙고하고 기도할 때 성신이 우리 마음과 가슴에 속삭입니다. 경전에 묘사된 사건을 [살펴볼 때] 새로운 통찰력이 생기고 개인이 처한 상황과 관련된 원리가 마음에 스며들 것입니다.”(리아호나, 2001년 1월호, 21쪽) 경전 일지 또는 별도로 공책을 준비하여 이 질문들에 대한 답과 물문경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점들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언 과제

각 장이 끝나는 부분에 추가 과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경전에 나오는 진리를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이 만약 물문경 종교 교육원 과정에 등록했다면, 교사가 수업시간에 이 과제 중 일부를 다룰 것이다. 이 과제는 제안 사항이며, 여러분의 개인적 필요 사항과 성신의 지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정보

이 학생 교재는 www.ldsces.org에서 다른 형태로도 이용할 수 있다. 장애가 있어서 이 교재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교사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

성구 익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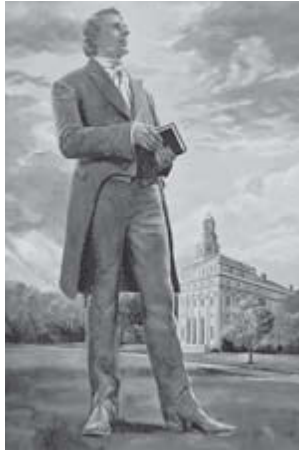
이 교재에는 성구 익히기 기호(📖)가 포함되어 있다. 이 기호는 성구 익히기 구절을 나타낸다. 세미나리 시간에 학생들은 교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정된 성구 100개에 정통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100개 성구 익히기 구절 중 하나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그것을 나타내는 기호(📖)를 보게 된다.

제 1 장

우리 종교의 종석

소개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형제들에게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History of the Church*, 4:461; 몰몬경 소개)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썼다. “[몰몬경은] 약 2천 년 전에 신약전서 기록들이 한 권으로 엮어진 이후 가장 놀랍고도 중요한 종교 기록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참으로 이 기록이 잃어버린 명백하고 귀중한 성경의 진리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더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완전히 회복되는 길과 재림과 함께 찾아올 복천년이라는 승리의 날을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몰몬경을 세상에 나온 가장 놀랍고도 중요한 종교 기록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1997], 9~10)

몰몬경 공부를 시작할 때 그 안에 담긴 위대한 진리들을 찾아본다. 몰몬경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속죄의 실재성을 증거한다. 더 나아가 몰몬경은 이스라엘 집과 맺은 하나님의 성약을 확고히 하고 우리가 그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경전을 연구한다면 여러분은 이 후기에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더욱 깊이 있고 힘 있는 간증을 얻게 될 것이다.

해설

표제지

• 몰몬경 표제지는 “니파이의 판에서 취한 판 위에 몰몬의 손으로 기록한 기사”라는 말로 시작된다. 그 아래에 몰몬의 아들이자 몰몬경의 선지자인 모로나이가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두 단락이 이어진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몰몬경 표제지는 기록이 담겨 있는 판 맨 마지막 쪽 왼쪽

면에서 발췌한 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그 언어는 본문과 동일한 히브리어(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임)였습니다. 이 표제지는 저나 과거에 살았던 누군가, 혹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현대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History of the Church*, 1:71)

“장차 정한 때에 …… 나아오게 하려 함이라”

• 몰몬경 표제지 첫 단락에서는 이 성스러운 기록이 “장차 정한 때에 …… 나아[올]” 것이라고 선언한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몰몬경이 출현한 시기를 생각해 보면 복음이 회복되는 일에서 몰몬경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간증했다.

“몰몬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하는 …… 강력한 증거는 주님께서 회복의 시간표를 만드실 때 어느 시점에 몰몬경을 출현시키기로 계획하셨는지를 눈여겨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일어난 사건은 첫번째 시현이 전부입니다. 그 놀라운 시현을 보고서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참된 본질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시키실 일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몰몬경은 바로 그 다음에 출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몰몬경이 출현한 시기는 신권이 회복되기 전이었습니다. 그 책은 교회가 조직되기 며칠 전에 출판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의 세 등급, 해의 왕국의 결혼, 또는 죽은 자를 위한 사업 등 위대한 교리의 윤곽이 계시로 알려지기 전에 그들이 읽어야 할 몰몬경을 먼저 받아보았습니다. 그 일은 신권 정원회와 교회 조직에 앞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주님께서 이 성스러운 기록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4~5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는 몰몬경이 우리 시대를 위해 쓰였다고 설명했다. “몰몬경의 주요 저자들은 자신의 기록이 그 세대 사람들보다는 주로 미래 세대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모로나이는 우리 세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너희가 지금 있는 것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몰몬서 8:35)’(*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6~7쪽)

•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몰몬경을 우리 생활에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그들이 우리 시대를 보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있는 것을 기록했다면, 우리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몰몬경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주님은 몰몬(또는 모로나이 또는 엘마)에게 이 내용을 기록에 포함하도록 영감을 주셨을까? 나는 이 부분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6쪽)

엘 톱 페리 장로는 몰몬경을 읽을 때 실천해야 할 중요한 습관을 제안했다. ‘몰몬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대체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 이 저자들은 이런 이야기나 사건을 기록에 포함시켰을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8쪽)

하나님의 은사로 번역된 몰몬경

- 금판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몰몬경 표제지) 번역될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몰몬경 번역에 관해 몇 가지 놀랄 만한 사실을 전했다.

“이 기적과 같은 번역 방법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 귀중한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

초기에 조셉의 서기로 일한 에머 스미스는 1856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몰몬경을 번역할 때 일부는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남편은 문장을 하나씩 정확히 글자 그대로 불러 주었으며 후 발음을 모르는 고유명사나 긴 단어가 나오면 철자까지 알려 주었습니다. 당시에 남편은 제가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도 철자가 틀리면 멈추라고 말하고는 바로 고쳐 주었습니다. 사라(Sarah) 같은 이름도 처음에 남편이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철자를 불러 주었고, 그런 뒤에 제가 다시 남편에게 발음해 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어떤 이유에서건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에는 늘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멈췄던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이어갔습니다. 한번은 갑자기 번역을 멈추더니 창백해진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머,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나요?” 제가 “네.” 하고 대답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몰랐어.] 내가 착각한 게 아닌가 걱정했다요.” 당시에 남편은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역사 지식이 부족했습니다.(Edmund C. Briggs, ‘A Visit to Nauvoo in 1856,’ *Journal of History*, Jan. 1916, p. 454) ……

선지자는 수년간 글을 배워 왔지만 금판을 번역하던 당시에도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했다고 에머는 말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 논리 정연하고 고급 어휘를 구사하는 편지는 구술하거나 쓰지도 못했습니다. 몰몬경 같은 책을 구술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번역하는 일에 제가 직접 참여하긴 했지만 누구에게나 그렇듯 그 일은 제게도 놀랍기만 했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입니다.(같은 책)“(A Treasured Testament,” *Ensign*, July 1993, 62-63)

몰몬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맺으신 성약을 확인한다

-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맺으신 성약을 기억하신다는 사실도 증명한다. 경전 안내서에는 이스라엘 집과 이스라엘의 흠어짐과 집합에 대한 설명이 실려 있다.

“구약전서에서, 주는 이삭의 아들이며 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창 32:28; 35:10).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 자신, 그의 후손, 또는 구약 시대에 그 후손이 한때 소유하였던 왕국을 지칭할 수도 있다. ……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아브라함의 손자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다. 그들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또는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알려져 왔다. ……

“**이스라엘의 흠어짐:** 주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그들의 의롭지 못함과 모반 때문에 흠어지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도록 하셨다. 하지만 주는 또한 그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 나라들 가운데로 흠어지게 하심으로써 그러한 나라들을 축복하셨다. ……

“**이스라엘의 집합:** 이스라엘 집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마지막 날에 함께 집합될 것이다(신약개조 1:10). 주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들을 집합시키실 것이다.”(경전 안내서, “이스라엘”)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은 조상에 대한 지식과 주의 성약에 따라 집합한 이스라엘 집의 일부이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이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즉”(교성 103:17)

• 후기에 이스라엘이 집합할 때 물몬경이 담당하는 역할에 관해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지금까지 있었던 기록과 앞으로 있을 모든 기록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한 기록으로는 물몬경이 가장 중요한 책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는 책이며, 택함 받은 자손이 집합한다는 교리를 명백하고도 완전하게 밝힌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책은 후기에 행하실 그분의 위대한 사업이 참되고 신성함을 증명한다. 이 책에는 영원하고도 충만한 복음이 담겨 있으며, 또한 이 책 자체가 신성한 기록임을 스스로 증거한다. 진정으로 개종한 모든 사람은 내면에서 느껴지는 성신의 계시를 통해 물몬경이 오늘날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생각이자 뜻이고 음성임을 안다. 물몬경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며, 우리가 지금까지 목격했듯이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는 힘은 바로 물몬경에서 발휘된다. 실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물몬경이 없다면 후기에 주님의 백성이 집합하는 일은 중단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은 이 책에서 나오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여서 참된 양우리로 나아온다. 니파이 백성의 경전인 이 책이 후기에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1985], 554)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시킨다

• 표제지에 따르면 물몬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에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진리를 확신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는 물몬경의 부제는 이 가장 중요한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부제에 담긴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최근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들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물몬경’이라는 표제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는 부제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유다의 막대기인 구약전서와 신약전서, 그리고 에브라임의 막대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물몬경은 이제 둘 중 하나를 깊이 연구하면 다른 하나에 이끌리고, 한쪽에서 배우면 다른 한쪽에서 깨닫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

읽혀 있습니다. 이 두 경전은 참으로 우리 손에서 하나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성도의 벗, 1983년 1월호, 82쪽)

•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성약(testament)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했다. “우리는 새 성약(covenant) 곧 물몬경을 기억합니까?(교성 84:57 참조) 성경에는 구약전서와 신약전서가 들어 있습니다. 성약(testament)이라는 영어 단어는 언약(covenant)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희랍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님께서 물몬경을 ‘새 성약(covenant)’이라고 부르셨을 때 이를 뜻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몬경은 참으로 예수의 또 하나의 성약(testament) 또는 증거(witness)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근에 물몬경 표제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testament)’이라는 말을 덧붙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4~5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이렇게 권고했다. “물몬경을 읽을 때, 이 책의 중심 인물인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여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으십시오.”(*리아호나*, 2000년 1월호, 82쪽)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언약(covenant)을 하나 맺으시며 타락한 인간에게 맺는 마지막 손길로서 마지막 성약(testament)을 주셨습니다. 즉, 마지막 시대를 위해 그분께서 베푸신 사랑과 자비를 증거하는 마지막 기록을 주셨습니다. …… 그 성약(testament)과 결정적인 증거(witness), 곧 인간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 번 주신 새 성약(new covenant)’이 바로 물몬경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필 퍼슨 © 1986년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에게는 물몬경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 약속들은 그분의 독생자, 곧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에 초점을 두며, …… ‘그가 모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하여 중재하실 것[이요,] 또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니파이후서 2:8~9]

“인류 역사 막바지에 다다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구원하기에 능하신 자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하며, 그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더야 합니다.] …… 이것이 길이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이름이 하늘 아래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니파이후서 31:19~21]

“우리가 이 일을 잘 수행하는 데 이만큼 도움이 되는 책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 이토록 신성하게 만들어지고 보존된 책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세상에 나온 책 중에서 기록이 출현할 미래 경륜의 시대 전체를 바라보며 쓴 책은 몰몬경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품는 사랑이 담긴 몰몬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새로운 성약’입니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8~10)

몰몬경 표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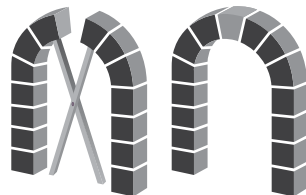
표제지에 기록된 사실 중 어떤 부분이 이 책의 기이한 특성을 증거하는가?

몰몬경은 어떻게 종석이 되는가

•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을 “우리 종교의 종석”(History of the Church, 4:461; 몰몬경 소개)이라고 밝혔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종석이 담당하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종석이란 아치 중앙에 놓는 돌입니다. 종석은 다른 돌들이 제자리에 있도록 받쳐 줍니다. 종석을 떼어 내면 아치는 무너져 버립니다.

몰몬경은 세 가지 면에서 우리 종교의 종석입니다. 몰몬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석이며, 우리 교리의 종석이고, 간증의 종석입니다.”(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6쪽)



•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은 몰몬경이 우리 교리의 종석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몰몬경은 종석입니다. 왜냐하면 몰몬경은 영원한 원리와 가르침을 한데 묶어 주며 기본적인 구원의 교리를 완성시키기 때문입니다. 몰몬경은 거룩한 경전들 중에서도 왕관에 박힌 가장 중요한 보석과 같습니다.



몰몬경이 종석이 되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모로나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진지하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몰몬경이 참됨을 명백하게 증거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마치

사슬을 이루는 여러 고리 중 잠금 장치를 푸는 핵심 고리와도 같습니다.

몰몬경이 참되다는 확실한 증거를 받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조셉 스미스가 받은 거룩한 부름과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를 본 사건에 대한 영적 증거를 얻습니다. 또한 몰몬경에 대한 확실한 간증이 자리잡을 때, 몰몬경이나 성경과 마찬가지로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 역시 참된 경전이라는 증거를 필연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었고, 살아 있는 선지자가 끊임없는 계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인도한다는 진리를 확증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진리를 알 때 그밖에 충만한 복음에 담긴 구원의 원리까지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우리 종교의 종석”, 리야호나, 2004년 1월호, 3~4쪽)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 1841년 11월 28일 일요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영 회장의 집에서 십이사도와 함께 평의회를 열었다. 여러 주제를 놓고 사도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조셉 스미스는 “다른 어떤 책보다 [몰몬경]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History of the Church, 4:461; 몰몬경 소개)고 선언했다.

•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몰몬경이 참된 것과 그릇된 것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몰몬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몰몬경에 담긴 역사 및 우리의 신앙을 고취시키는 이야기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 가르침을 이해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몰몬경을 공부하고 교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세상에서 유행하는 많은 거짓 이론과 인간의 철학에 맞서 그 잘못을 밝혀내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 몰몬경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 사이에는 분별력과 통찰력, 확신, 영성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몰몬경은 훌륭한 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Jesus Christ—Gifts and Expectations,” *Ensign*, Dec. 1988, 4)

• 제일회장단의 매리온 지 롬니(1897~1988) 회장은 몰몬경을 공부하여 영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은 경험을 나누었다. “몇 년 전에 제가 변호사 일을 시작했을 때, 가족들 마음이 그리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신앙을 잃을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로 일하고 싶었지만 제 간증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컸으므로 작은 일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 보십시오. 저는 매일 아침 하루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30분 동안 몰몬경을 읽었습니다. 물론 다른 표준 경전도 읽었지만 지금은 몰몬경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9년 동안 계속 매일 몇 분씩 몰몬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영과 조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Conference Report, Apr. 1949, 36)

무엇을 배우느냐는 읽는 이에게 달려 있다

• 몰몬경을 읽는 일에는 놀라운 축복을 불러오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을 읽는 사람에게는 큰 책임도 따른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몰몬경을 읽을 때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신성한 책에서 무엇을 얻느냐 하는 문제는 대개 읽는 사람의 마음가짐, 즉 소망과 배우려는 준비 자세, 그리고 주님의 영으로 전달되는 빛에 얼마나 마음을 기울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리야호나*, 2006년 5월호, 77쪽)

몰몬경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얻는 방법

• 니파이 판에 기록을 새긴 마지막 선지자는 몰몬의 아들 모로나이였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모로나이는 몰몬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책이 성스러운 경전이라는 증거를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모로나이서 10:3~5[10]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몰몬경을 읽고 그것이 참된지 알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 진실한 마음으로 몰몬경을 읽더라도 즉시 간증을 얻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이 위대한 기록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간증이 자라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모로나이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간증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처음으로 몰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저는 제가 읽은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내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나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모로나이서 10:4)라는 약속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이해했고, 그대로 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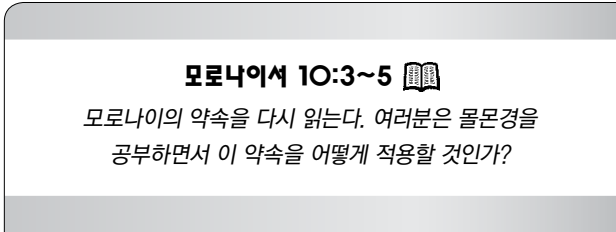
저는 즉시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서 강렬한 경험을 하기를 기대했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느낌을 받았으며 저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

간증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 압니다. 오히려 간증은 엘마가 말한 것처럼 신앙의 씨앗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의 신앙을 강하게 하리라.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이것이 좋은 씨앗인 줄 내가 아노니, 이는 보라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함이라 할 것임이니라.’(엘마서 32:30) 여러분이 씨앗을 잘 가꾸면 그것은 자라나겠지만, 씨앗을 잘 가꾸지 않으면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엘마서 32:37~41 참조)

몰몬경을 반복해서 읽고도 아직 강력한 증거를 얻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큰 영광 중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찼으나 “이를 알지 못[한]”(제3니파이 9:20) 몰몬경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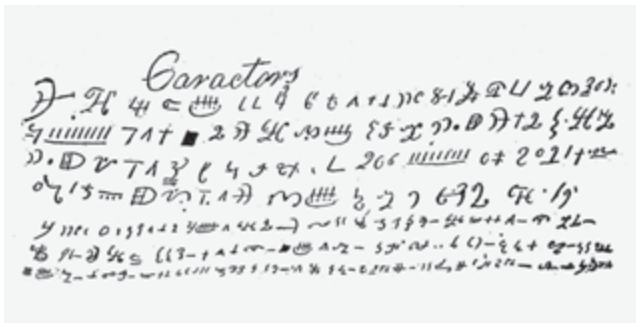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음 성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이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해지도록 할지니, 이는 사람이 그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달음질함이 요구되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또 그는 부지런할 필요가 있나니, 그로써 그가 상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모든 일은 반드시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하느니라.’(모사이야서 4:27)”(리아호나, 2005년 5월호, 6, 8쪽)



몰몬경에 대한 외적 증거

- 몰몬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책의 기원에 대해 지리학적, 문헌학적, 또는 고고학적 증거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있다. 이런 증거들이 종종 매력적이고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몰몬경의 신성과 진실성은 그런 발견으로는 확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이러한 발견에만 의존하여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증거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그 책에 대한 진실성과 정당성에 대한 증거는 고고학이나 인류학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증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더라도 말입니다. 어휘 연구나 역사적 분석으로 확증할 수는 있어도 그 역시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몰몬경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방법은 바로 그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 책의 기원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어 본 사람들은 오관을 초월하여 그 책이 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며, 영원한 복음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가 실려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 확신시키려’(몰몬경 표제지) 나온 책임을 알게 됩니다.”(“신앙의 네 모퉁잇돌”, 리아호나, 2004년 2월호, 5~6쪽)



몰몬경을 통해 오는 축복

-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몰몬경이 어떻게 교회 회원들을 영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지 설명했다.

“[몰몬경을 읽어 보면] 사람과 국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할 때에는 번성하고 성장하지만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할 때에는 쇠퇴하여, 의로움으로 지지하지 않는 한 무력과 죽음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저는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각자가 [몰몬경을 읽는다면] …… 삶과 가정에 주님의 영이 더욱 풍성하게 임하고, 여러분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겠다고 굳게 다짐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간증이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가슴 설레는 참된 간증”, 리아호나, 2005년 8월호, 5~6쪽)

-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개종을 일으키는 몰몬경의 힘에 관해 말하며 칠십인인 에프 버튼 하워드 장로가 나눈 경험을 들려주었다.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선교부 지역에 살던 셀리아 크루즈 아얄라 자매는 한 친구에게 몰몬경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얄라 자매는 몰몬경을 예쁜 포장지에 싸고, 이 선물을 친구에게 전해 주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이 자매는 지갑은 물론 포장한 몰몬경까지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얄라 자매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니다.

‘크루즈 씨께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당신을 해치려 한 일을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일로 제 인생은 바뀌었고, 계속 변해 갈 것입니다. 그 책[몰몬경]은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꿈을 꾸고는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여기 5페소를 돌려 드립니다. 도저히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신에게서 빛이 나는 듯했습니다. [당신을 해치지 못하고] 그냥 달아난 것은 바로 그 빛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저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절 알아보지 못하겠죠. 그뻬 당신의 형제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 제가 사는 이곳에서 저는 주님을 찾고 그래서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가야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책에 써 놓은 글을 읽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요일 밤부터 그 책을 읽었는데 아직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도 용서를 구합니다. …… 그 포장된 선물을 보고 처음에는 팔아 넘길 물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인생을 모두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부디 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빕니다.

‘보이지 않는 친구로부터’

이것이 바로 개종을 일으키는 물몬경의 힘입니다.”(Ensign, May 1996, 42)

물몬경 판과 기록들

- 부록(406쪽)에서 “물몬경 판과 기록” 도표를 참고한다. 이 도표에는 각 선지자가 쓴 기록과 어느 판에 어느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열거되어 있다.

니파이인 기록 작성자들

- 부록(407쪽)에서 “니파이인 기록 작성자들” 도표를 참고한다. 이 도표에는 각 기록자와 그가 쓴 책이 나와 있다.

물몬경이 참됨을 증거한 증인들

-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주님께서 항상 그분 사업의 신성함을 증거할 증인들을 세우신다고 설명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복음을 계시해 주시고 인간에게 신권과 신권 열쇠를 부여하심으로써 경륜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분은 몸소 제정하신 증인의 법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 율법은 바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고린도후서 13:1; 신명기 17:6; 19:15; 마태복음 18:15~16)하는 것입니다.

계시된 진리로 새로운 경륜의 시대를 열거나 그런 메시지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세상에 경고할 때, 아무도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아담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륜의 시대에는 항상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증인이 함께 증언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심판의 날에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해버린 일에 대해 핑계대지 못할 것입니다.”(Mormon Doctrine, 2nd ed. [1966], 436)

- 히버 제이 그랜트(1856~1945) 회장은 물몬경의 증인들이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어떤 사람이 살인 혐의로 재판관을 받는데, 모범 시민 열두 명이 살인이 벌어진 상황을

아는 대로 증언하고 그 증언에 대해 반대 증언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세상 어느 법정에서도 그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물몬경에 관한 지식을 얻었다고 증언한 조셉 스미스의 증언과 세 증인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책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번역되었음을 선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올리버 카우드리와 데이비드 휘트머, 마틴 해리스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났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선포한 사실과 이 책의 신성함을 증거하라는 명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죽는 날까지 굳게 증언을 지켰으며, 또한 명을 받은 대로 증언했습니다. 몇몇은 파문을 당했지만 여덟 증인 역시 조셉 스미스가 번역한 판을 보고 만져 보았다는 증언을 지켰으며 죽을 때까지 그 증언에 충실했습니다. 온 세상이 쏟아붓는 불신으로도 그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의 말을 반박할 만한 증언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Conference Report, Apr. 1929, 128) (부록 408쪽에 나오는 “물몬경 판의 증인들” 참고)

- 1829년 6월에 물몬경을 직접 보고 만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중 몇 명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충실하게 남지 못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식은 신앙을 통해 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금판을 보지 않더라도 그것에



새겨진 말씀이 참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 증인이나 여덟 증인처럼 금판을 보고 만져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금판을 보고 만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교회에 충실히 남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보는 일은 대단한 경험이지만 신앙과 영이 증거하여 구주의 신성함을 알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대단한 일입니다.[요한복음 20:29 참조]”(리아호나, 2002년 7월호, 48쪽)

증인들

세 증인이 서술한 경험과 여덟 증인이 서술한 경험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몰몬경 판의 증인들


- 부록(408쪽)에 나오는 “몰몬경 판의 증인들”을 참고한다. 이 도표에는 세 증인과 여덟 증인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 장소, 판을 목격한 당시 나이, 직업, 침례 정보, 사망 일자 및 장소가 제시되어 있다.

생각해 볼 점

- 몰몬경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가?
- 몰몬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것을 정죄하지 말지니라”(몰몬경 표제지)는 말을 지키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왜 모든 교회 회원은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가?

제언 과제

- 몰몬경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짧게 요약해서 적어 본다. 자신이 쓴 답을 몰몬경 표제지에 나오는 모로나이가 쓴 목적과 비교해 본다.
- 모로나이서 10:3~5절 에 나오는 약속을 분석하고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얻거나 강화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결정한다.

소개

1995년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가족을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고 설명하며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벗, 1998년 10월호, 24쪽)고 선포했다. 니파이는 부모님인 리하이와 새라이아를 비롯한 자신의 가족에 대해 기록했다. 이 “훌륭하신 부모”(니파이전서 1:1)는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가르침으로 가족을 양육하고 인도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하늘의 시현을 본 아버지 리하이는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하고, 가족은 안전한 곳을 찾아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결국 낯선 곳을 찾아오라는 위험하고도 힘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시 돌아가야 했다. 충실한 아들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랐으나 다른 아들들은 거역했다. 이 가족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고자 노력할 때 그들이 보인 모범이 어떻게 지침이 될 수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면서 물문경 초반부를 읽어 본다.

해설

니파이전서: 니파이의 다스림과 성역

- 니파이전서 서문은 [물문경] 원판에 있던 내용이며, 니파이전서 전체를 요약한다. 몇몇 장에 앞서 삽입된 짧은 소개(예: 모사이야서 9장과 엘마서 21장 참조)를 포함하여 물문경에 나오는 모든 서문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받은 원판에 있던 것이다. 각 장 앞부분에 있는 짧은 요약은 독자들이 내용을 쉽게 파악하도록 돕기 위해 나중에 추가되었다.
- 물문경을 엮은 편집자로서, 어느 부분을 요약 기록에 포함시킬지 결정하는 일은 물문에게 어려운 문제였다.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사항이 기록을 선별하는 기준이 되었다. 첫째, 주님께서는 물문에게 “주께서 …… 명하신 것들을 기록”하라고 명하셨다.(제3니파이 26:12) 둘째, 물문은 우리 시대를 보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미 알았다.(물문서 8:34~35) 따라서 물문이 편집할 내용을 결정할 때 이 두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문경을 구성하는 각 책의 분량과 그 책에서 다룬 연대를 비교해 보면 배울 점이 있다. 부록(410쪽)에 나오는 “물문경 쪽수 및 기간” 도표를 참고한다.

니파이전서 1:1. 많은 고난을 겪었으나 은혜를 크게 입었나니

- 니파이는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기록했지만 주님께 받은 축복도 많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니파이의 기록에는 니파이가족들이 수없이 시련을 겪었지만 주님께 충실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시련을 견뎌 냈다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니파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알게 되었기에(니파이전서 2:16 참조) 자신이 크게 은혜를 입었다고 느꼈으며, 하나님의 힘을 의뢰한 것이 그에게 의지가 되었다.(니파이후서 4:19~26) 니파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이 겪은 많은 역경이 어떤 맥락에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Boyd K. Packer, “Conversation with Teachers” [an evening with President Boyd K. Packer, Feb. 29, 2008], 7, www.ldscs.org 참조)

반면 레이맨과 레뮤엘을 비롯해 물문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은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억하기 위해 자주 역경을 겪을 필요가 있었다. 선지자 물문은 슬픈 마음으로 이 원리를 다시금 확인했다. “이러므로 주께서 많은 고난으로 자기 백성을 징계하지 아니하시면, 참으로 그가 사망과 공포와, 기근과 온갖 역병으로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그를 기억하지 아니할 줄 우리가 알게 되리라.”(힐라맨서 12:3)

니파이전서 1:2. “애굽인의 언어”

- 니파이전서 1장 2절에서 우리는 리하이와 니파이가 그들의 역사를 금판에 기록할 때 “애굽인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70년이 지난 후에 베냐민 왕도 아들들에게 “애굽인의 언어”를 가르쳤는데, 이것은 금판에 쓰인 언어였을 뿐 아니라 낯선 판에 쓰인 언어이기도 했다.(모사이야서 1:1~4) 물문경에서 “개정된 애굽어”라는 용어는 물문서 9장 32절에만 등장한다. 개정된 애굽어는 리하이와 니파이가 사용하던 언어에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용어로 보인다. 리하이와 니파이 시대로부터 약 천 년이 지난 후, 모로나이는 물문서 9장 32~33절에서 리하이와 니파이가 사용하던 애굽어와 히브리어가 그의 시대에 이르러 변경되었다고 언급했다.

니파이전서 1:4.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경고한다

- 주전 약 605년에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유다 왕국은 세계 정벌을 나선 바벨론에 통치권을 빼앗긴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저항했지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여호야김은 죽었거나 사로잡혀 끌려갔다. 바벨론은 여호야김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통치자로 임명했다. 그때는 유다 백성들이 심히 사악하고 부도덕과 부패가 만연한 시기였다. 곧, 리하이가 살던 시대의 상황이 그러했다는 뜻이다.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얼마 후인 주전 약 587년, 시드기야는 다시 한 번 바벨론에 대항하지만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에 더 큰 멸망을 초래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의 잔류민 대부분이 포로로 잡혀가 그 후 70년간 바벨론에서 억압된 삶을 살았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리라고 유다 백성에게 외쳤던 리하이의 예언은 그렇게 성취되었다.



필 파슨스 © IRI

- 니파이는 백성들 사이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다고 기록했다. 우리는 예레미야, 오바댜, 나훬, 하박국, 스바냐가 모두 동시대에 유다 왕국에서 증언하던 선지자임을 안다. 예레미야 35장 15절에는 주님께서 백성들을 경고하시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유사한 언급이 나온다.(또한 역대하 36:15~16 참조)

니파이전서 1:16~17. 두 가지 기록

- 리하이 가족이 예루살렘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여행을 떠나고 30년이 지난 후에 니파이는 기록을 작성한다.(니파이전서 19:1~5; 니파이후서 5:28~31 참조) 그 기록은 부친의 기록을 요약하며 시작되는데, 니파이전서 1~8장이 바로 그 부분이다. 물론이 요약한 리하이의 기록은 잃어버린 116쪽 원고에 들어 있었다. 그 원고는 “리하이서”라 불리던 판에서 일부를 번역한 것이었다.(교성 10편 머리말; 10:42; 41쪽에 나오는 니파이전서 19:1~6 해설 참조)

니파이전서 1:20. “주의 친절하신 자비”

-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주의 친절하신 자비”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저는 주님의 자비가 실재적인 것이며 그런 일이 무작위로, 혹은 단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느 때에 그분의 친절하신 자비를 베푸시는지를 보면 주님의 자비를 분별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친절하신 자비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받는 지극히 개인적이며 개별적인 축복입니다. 또한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며, 보호와 확신, 인도, 사랑이 깃든 친절, 위안, 지지 및 영적 은사[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사람의 자녀들의 상태에 따라 그의 자비를’(교성 46:15) 적합하게 베푸십니다.

…… 구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시는 한 가지 방법은 그분의 풍성하고 친절하신 자비를 통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나 시험에 직면할 때 우리는 신앙의 은사를 받고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이 두 가지는 주의 친절하신 자비입니다. 또한 회개와 죄의 용서, 그리고 양심의 평안은 주의 친절하신 자비입니다. 신체적인 한계와 영적인 어려움을 뚫고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끈기와 불굴의 정신은 주의 친절하신 자비입니다.”(리아호나, 2005년 5월호, 99~100쪽)

니파이전서 1장 20절에서 우리는 니파이가 주님께서 어떻게 의인들을 구원하시는지 알려주는 데 집중하며 나머지 기록을 이어가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니파이전서 전체에 걸쳐 되풀이되는 이 주제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니파이전서 2:5~10.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홍해 해안으로 여행하다

- 예루살렘에서 홍해까지 거리는 약 290킬로미터로, 고대에는 약탈자들이 자주 출몰하고 기온도 높은 불모지였다.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리하이 가족은 “사흘을 여행”했다.(니파이전서 2:5~6 참조) 즉,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임시 거처를 마련했던 레무엘의 골짜기에 이르기까지는 적어도 12일에서 14일이 걸렸다는 뜻이다.(409쪽 부록에 나오는 “리하이 가족의 추정 여행 경로” 지도를 참고한다.)



스토프 스나우 © 1981 IRI

니파이전서 2:6~10. 주께 감사드리다

• 주님의 인도와 보호에 감사하는 리하이의 마음은 장막을 치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에서 드러난다. “그는 돌 제단을 쌓고 주께 제물을 드리며,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느니라.”(니파이전서 2:7) 리하이의 이 행위는 물몬경에서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 희생 제물과 번제를 드린 여러 사례 중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다.(니파이전서 7:22; 모사이야서 2:3~4 참조)

리하이는 제물을 드린 후 곧바로 아들들에게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진심을 다해 감사를 드리고 순종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그리고 만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외에는 사람이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거나 어느 누구에게도 그의 진노가 불붙지 아니하느니라.”(교성 59:21)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겸손과 감사로 가득 찬 기도를 드리라고 당부했다. “저는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혹은 ‘주님께 저렇게 말씀드렸다’ 하고 이야기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주님께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하게 인도와 지시를 구하고 간청하십시오. 기도는 간절한 마음과 충만한 감사로 드려야 합니다.”(“Be Strong in the Lord, and in the Power of His Might” [CES fireside for young adults, Mar. 3, 2002], 3, www.ldscs.org)

니파이전서 2:11~15. 불평

• 사탄이 우리에게 불평하도록 부추기는 한 가지 이유는 살아 있는 선지자들과 영감 받은 지도자와 부모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다. 칠십인인 에이치 로스 위크먼 장로의 가르침에 따르면 “불평에는 세 단계가 있으며, 각 단계는 다음 단계로 이어져 불평하는 사람은 불순종이라는 길로 서서히 추락해” 나간다. 첫째, 불평할 때 사람은 의심하기 시작한다. “먼저 자기 마음에 의심을 품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을 옮겨” 심는다. 둘째, 불평하는 사람은 “가르침 받은 대로 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기 시작[한다.] …… 그렇게 그들은 불순종하는 핑계를 [늘어놓는다.]” 핑계를 대다 보면 세 번째 단계인 “계명 지키기를 게을리하는 나태한 상태”에 이르고 만다.

위크먼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이러한 태도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받기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명령을 받고 그것을 게을리 지키는 자, 그는 정죄를 받느니라.’(교성 58:29) ……

살아 있는 선지자들이 주신 계명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계명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 계명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닌지 의문이 생기십니까? 지금 왜 그 계명에 따를 수 없는지 재빨리 핑계가 떠오릅니까? 그 계명을 상기시켜주는 사람들이 불만스럽고 불편하십니까? 그 계명을 지키기를 게을리하십니까? 사탄의 기만을 주의하십시오. 불평을 주의하십시오.”(리아호나, 2002년 1월호, 99~100쪽)

니파이전서 2:16

니파이가 불평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증거를 이 구절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가?

니파이전서 2:20. 계명을 지킬진대 변성할 것이요

•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벨슨 장로는 경전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에만 그 땅의 백성들이 변영할 것이라는 [약속이] 서른세 번”(성도의 벗, 1985년 7월호, 17쪽)이나 나온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경전에서 변영이라는 단어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측면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다른 의미도 품고 있다.

또한 변명한다는 것은 시련을 겪지 않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다. 리하이 가족 중 충실한 이들도 계명을 지켰지만 많은 고난을 겪었다.(니파이전서 15:5; 18:15~17; 니파이후서 2:1~2 참조)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변명하게 해 주신다고 가르쳤다. “하나님 왕국에 머무는 사람, 이 백성에게 진실된 사람,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순수하고 흠없이 지키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사람이며, 받들어 주시고 지지해 주실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던 땅에서 변명하게 됩니다. 그가 자유를 누리든 감방에 감금되어 있던 상관도 없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복음 교리, 238쪽)

니파이전서 3:7. 📖 “내가 가서 …… 행하겠나이다”

- 러셀 엠 넬슨 장로는 니파이전서 3장 7절에 대해 설명하며 이렇게 가르쳤다. “저는 영감 받은 신권 계통을 통해 부름이 주어질 때에는 의문 부호가 아니라 감탄 부호를 찍어야 한다고 배워 왔습니다.”(성도의 빛, 1984년 7월호, 84쪽)

- 칠십인인 도널드 엘 스타헬리 장로는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순종할 때 얻는 힘에 대해 가르쳤다. “우리의 연령과 일상을 살아가는 터전에 관계없이 매일 복음 원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은 그 점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성가신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 주실 것입니다.’”(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82쪽)

-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와 신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누구이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든, 영생이라는 축복을 얻기에 합당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에는 절대 우리가 해내지 못할 일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위해 신앙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가족”, 성도의 빛, 1998년 10월호, 14~15쪽, www.ldscs.org)

니파이전서 3:15. “주께서 살아 계심 같이”

-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니파이는 하나님을 동반자로 삼았습니다. 만일 니파이가 늦쇠판을 얻지 못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므로 늦쇠판을 얻든지, 아니면 목숨을 내놓든지 하는 것이 니파이가 받은 책임이었습니다.”(성도의 빛, 1982년 7월호, 52~53쪽)

니파이전서 3:19~20; 5:11~14

늦쇠판에 무엇이 담겨 있었기에 리하이 가족과 후손에게 그렇게 중요했던 것일까?

니파이전서 4:6. “영에 의해 이끌려”

- 영에 이끌리기 위해서는 때때로 용기가 필요하다. 많은 경우에 세상의 논리와 이론은 주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행동 방식을 제시할 것이다. 칠십인인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는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권고했다.

“정당한 위험이라면 기꺼이 감수하십시오. 우리는 이성과 논리, 사실과 수치가 지배하는 시대에 삽니다. 이런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다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신앙보다 우위를 차지한다면 아주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내린 훌륭한 결정들을 되돌아볼 때, 논리나 이성으로만 판단했다면 대부분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

니파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논리에 반하는 일이라도 하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니파이전서 4장 6절에서 알 수 있듯이 니파이는 해야 할 일을 미리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

니파이가 만약 이성에만 귀를 기울였다면 니파이와 형제들은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종종 우리가 이성과 논리에 너무 주의를 기울인 나머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거룩한 도시 성벽 바깥에서 기다리기만 하는 자신을 발견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Trust in the Lord” [CES fireside for young adults, May 1, 1994], 3, www.ldsces.org)

니파이전서 4:10. 라반을 죽이라는 명을 받은 니파이

• 니파이처럼 의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는 일에 과연 어떤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 조셉 스미스(1805~1844)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어떤 때에는 ‘너희는 모조리 전멸시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통치하는 원리입니다. 왕국의 자녀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계시로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비록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오랜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 일이 왜 정당인지 까닭을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한다면 모든 훌륭한 것들이 더해질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주셨고 더불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혹 그 소망이 하나님 왕국의 질서를 일부분만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혐오스럽게 여겨지는 것이라 해도 실제로는 옳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내리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5:135)

• 어떤 사람들은 니파이의 경우처럼 주님께서 이미 명하신 말씀을 거스르는 어떤 일을 하도록 주님의 영이 일러 주었다며 잘못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현재 따르는 계명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지시하지 않는가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해롤드 비 리(1899~1973) 회장은 주님께서 그러한 지시를 주실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신다고 가르쳤다. “주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과 다른 명을 주실 때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분의 선지자에게 계시하실 것이며, 그 외에는 누구에게도 계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Stand Ye in Holy Places* [1974], 159)

• 주님께서 라반에게 목숨을 잃지 않고 낫쇠판을 넘겨줄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두 번은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라반은 거짓말과 도적질을 했으며, 게다가 적어도 두 번이나 살인을 범하려 했다. 도적질과 살인을 피한 일은 둘 다 죽음으로 벌 받아 마땅한 일이었다.(출애굽기 21:14; 22:2; 신명기 24:7 참조) 주님께서 리하이와 그의 후손들이 경전 기록을 소유하기를 바라셨으므로 “한 사람이 죽[어야]”(니파이전서 4:13) 했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셨다. 낫쇠판은 니파이 백성과 물레크 백성에게 축복이 되었을 뿐 아니라 금판 기록에도 일부 포함되었다.(예: 이사야 인용 부분과 지노스의 비유) 물론 많은 수많은 백성과 민족들의 삶에 축복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니파이가 라반에 맞서 영의 음성에 따라던 일에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걸려 있었다.



원본: 리하이, 교회 기록 보관소 제공

니파이전서 4:30~37. 약속의 고결성

• 조렘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 주인 라반이 아니라 니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떨기 시작하더니 …… 도망하[려]” 했다.(니파이전서 4:30) 그러나 니파이가 그 종에게 리하이의 아들들과 함께 광야로 간다면 해치지 않을 것이며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약속하자마자 조렘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조렘이 니파이 형제들과 함께 머물겠다고 맹세했을 때에도 “그에 관한 [니파이 형제들의] 두려움은 그쳤다.”(37절) 조렘과 니파이는 고결한 사람에게서 발휘되는 힘을 보여 주었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영적인 힘의 기초로서 고결성이 필수 덕목이라고 지적했다. “성품의 기초는 고결성입니다. 합당한 성품은 영의 지시에 따르는 능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의로운 성품은 곧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느냐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하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또는 어떤 목표를 성취했는지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런 성품은 여러분을 신뢰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의로운 성품은 영적 힘의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의롭다면 시련과 시험을 겪을 때, 아무리 험겨워 보이는 일에서도 지극히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7쪽)

니파이전서 4:33. 맹세

- 물론경에는 맹세를 하는 내용이 자주 나온다. 맹세는 니파이 시대와 그 문화권에서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 “맹세에 구속력이 있다는 원리는 어떤 단언을 확증하기 위해 최종으로 신성한 권위자에게 호소하는 행위라고 언급한 [히브리서 6장 16절]에 근거를 둔다. 맹세로 약속을 하거나 고발을 할 때 전능하신 이의 이름을 건다. 즉, 가장 확고하고 엄숙한 방법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이런 원리에 따라, 최고 권위자에게 호소한 그 맹세는 항상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구속력 있는 것이었다. 이런 행동 원리 때문에, 한 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른 한 편에서는 이교도 신들을 걸고 호소하는 행위가 경전에서는 충성심에 대한 시험으로 간주된다.”(William Smith, ed., *A Dictionary of the Bible* [n.d.], “Oath,” 467; 또한 15쪽에 나오는 니파이전서 4:30~37 해설 참조)

- 한 학자는 고대에 맹세가 발휘하던 힘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서구 독자들에게는 니파이가 조램에게 한 맹세가 발휘하는 엄청난 효력이 놀라울 뿐입니다. 협약을 맺는 몇 마디 말을 들은 조램은 즉시 유순해졌으며, 마찬가지로 조램이 ‘그 때로부터 이후로는 [니파이 형제들과] 함께 머물겠다고 …… 맹세[하자마자] …… 그에 관한 [니파이 형제들의] 두려움은 그쳤[습니다].’(니파이전서 4:35, 37)

맹세라는 것이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가장 신성하고 어길 수 없는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점을 안다면 이런 반응은 이해가 됩니다. ‘아랍인들은 설사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맹세를 깨뜨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유목민에게 그보다 더 강력하고 신성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조건을 건 요구였다면 도시에 사는 아랍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권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두인족에게 맹세는 신성한 것입니다. 거짓으로 맹세하는 사람에게는 화 있을 것이며,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훼손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벌금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맹세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구속력 있고 엄숙한 맹세가 되려면 풀잎 하나라도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내 목숨을 건’ 또는 (흔하지는 않지만) ‘내 머리의 목숨을 건’ 맹세보다 더 엄중한 유일한 맹세는 바로 *wa hayat Allah*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또는 ‘주께서 살아 계심같이’라고 말하는 맹세입니다. 이는 고대 히브리어 *hai Elohim*과 정확히 일치하는 아랍어입니다. 오늘날에는 도시 하층민들이 자주 쓰는 말이 되었지만, 고대에는 대단히 엄중한 말이었으며 사막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찰스 엠] 다우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베두인족 방식대로 제 대답을 확인했습니다. 목숨을 걸겠다는 …… 그의 말에 ……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더 중요한 일에서는 유목민들도 그런 말을 쓰지만 작은 일에서는 당신의 목숨을 걸고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로젠블랫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않은 맹세는 맹세가 아닙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생명”까지 거는 맹세도 흔한 일입니다.’

따라서 니파이가 자신을 경계하던 조램을 즉시 진정시킬 방법은 그 셈족에게 어느 누구도 감히 깰 수 없는 가장 엄중한 맹세 즉, ‘주께서 살아 계시고 또 내가 살아 있음같이’(니파이전서 4:32)라고 말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Hugh Nibley, *An Approach to the Book of Mormon*, 2nd ed. [1964], 104~5)

니파이전서 5:9~10, 17

리하이이는 그 신성한 기록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그 일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모범은 여러분이 경전을 공부하는 데에 어떤 훌륭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니파이전서 5:10~22. 낫쇠판

- 낫쇠판은 한 권의 고대 경전이다. 성경과 후기 성도 경전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처럼 그 판은 리하이 가족과 장차 미래에 살 주민들에게 가치 있는 물건이었다.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물론경 성구를 언급하며 낫쇠판과 그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눗쇠판은] ‘유대인의 기록(니파이전서 3:3)이며, 태초부터 전해 내려온 수많은 예언이 담긴 기록이고 그중 일부는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이었습니다. 눗쇠판에는 모세 율법과 모세 오경, 니파이인 조상의 족보가 실려 있었습니다.(니파이전서 3:3, 20; 4:15~16; 5:11~14)

눗쇠판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전서보다 더 많은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니파이전서 13:23) 지노크와 니움, 지노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예언이 들어 있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실려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중 많은 기록에는 니파이 백성에 관한 여러 일들이 예언되어 있었을 것입니다.(니파이전서 19:10, 21; 니파이후서 4:2, 15; 제3니파이 10:17)

니파이인들에게 눗쇠판이 지니는 가치는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눗쇠판이 있었기에 그들은 언어를 보존하고(니파이전서 3:19), 문명 사회를 이룩하고, 조상의 종교를 알 수 있었습니다.(니파이전서 22:30) 이와 반대로



제리 톰슨 © IFI

리하이가 떠난 지 약 11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인도되어 나온 물레크인들은 눗쇠판과 같은 기록이 없었기에 곧 배도와 불신앙에 빠졌으며 언어와 문명과 종교를 잃고 쇠락했습니다.(옵나이서

14~18절)

눗쇠판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선지자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 내려와 니파이 백성이 보존했습니다.(모사이야서 1:16; 28:20; 제3니파이 1:2) 주님께서는 그 기록을 세월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고 본래의 광채를 유지한 채 장차 정한 때에 출현시키실 것이며, 거기에 기록된 경전 말씀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앨마서 37:3~5; 니파이전서 5:18~19)”(Mormon Doctrine, 2nd ed. [1966], 103)



제리 톰슨 © IFI

생각해 볼 점

- 레이맨과 레뮤엘이 불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니파이후서 2:11~13 참조) 니파이는 왜 아버지를 지지했는가?(16, 19절 참조) 여러분이 불평하는 사람인지 주님의 종을 지지하는 사람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 니파이의 신앙이 위대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증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니파이가 어떻게 그런 신앙을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제언 과제

- 눗쇠판을 얻기 위해 리하이 가족이 치른 희생을 생각해 보고, 우리 시대에 물문경을 출현시키기 위해 치러야 했던 희생과 비교해 본다.(교성 135:6 참조) 친구나 가족 한 명과 함께 경전이 지닌 가치에 대해 토론하고, 그 귀중한 기록을 잘 활용하기 위해 어떤 일을 기꺼이 하겠는지 이야기해 본다.

제 3 장

니파이전서 6~11장

소개

니파이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할 목적으로 기록을 작성했다.(니파이전서 6:3~4 참조) 니파이전서 6~11장을 공부하면서 니파이의 기록이 어떻게 이 목적을 성취시키는지 알아본다. 특히 생명나무 시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주의 사명을 증거하는지 주목한다. 니파이는 의로운 소망을 품고 가까이 순종한 대가로 이 시현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도 니파이처럼 소망과 행위를 주님의 뜻에 일치시킨다면 “성신의 권능으로”(니파이전서 10:19)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성취시키는지 설명했다. “물론경은 ……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 [물론경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그분의 신성과 구속주의 필요성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간증합니다. 또한 타락과 속죄에 대해 증거하며,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니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가르침을 포함하여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를 증거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의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며 성도로서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제일회장단 메시지: 물론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도의 벗*, 1988년 5월호, 3쪽)

- 벤슨 회장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구주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예수께서 지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는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자 위대한 여호와이시고, 창세 이전에 죽임을 당하신 양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셨고 현재도 그러하십니다.”(“Five Marks of the Divinity of Jesus Christ,” *Ensign*, Dec. 200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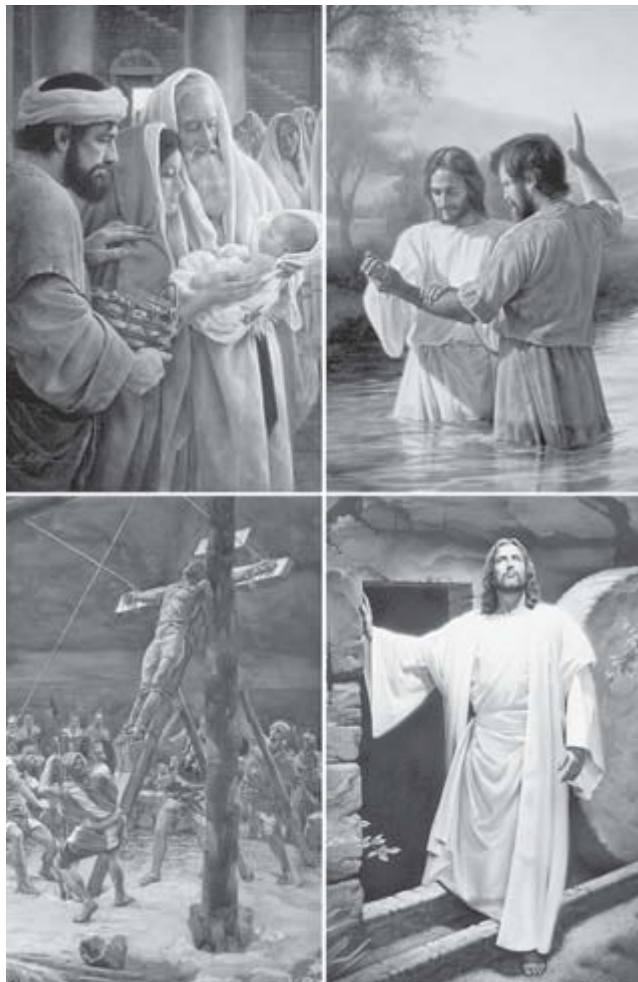
니파이전서 7:1. “주를 위해 자손을 생육하라!”

- 리하이의 아들들과 이스마엘의 딸들은 결혼하여 “약속의 땅에서 주를 위해”(니파이전서 7:1)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것이다. 의로운 가족은 주님의 신성한 목적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1998년 10월호, 24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부모가 되는 신성한 모형을 따를 때 기쁨을 얻는다고 간증했다.

“우리의 운명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즉, 남자는 완전한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법적으로 합당하게 결혼한 여자와 함께 신성한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할 때 아기가 잉태되고, 아기는 그 연약한 통로를 지나 필멸의 삶으로 태어납니다.



© 1987 그레그 케이 올슨

해설

니파이전서 6:4. “오직 나의 뜻하는 바는”

- 니파이가 기록을 작성한 동기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와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에스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물론경이 이 중요한 목적을 어떻게

‘세상이 지음을 받기 전’(교성 49:17)부터 이 신성한 모형이 계획되고, 복음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우리는 필멸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옵니다. 이것이 ‘위대한 행복의 계획’(앨마서 42:8)입니다. 우리가 설계한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형을 따른다면 행복과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Children of God [BYU Women’s Conference, May 5, 2006], 5~6)

니파이전서 7:2. 에브라임 지파인 이스마엘

- 때때로 물몬경은 “요셉[의] 막대기”(에스겔 37:19) 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교성 27:5)라 일컬어진다. 리하이는 므낫세의 후손(앨마서 10:3 참조)이며 이스마엘은 에브라임의 후손이다. 야곱의 예언(창세기 48:16; 49:22 참조)은 이스마엘(에브라임)의 가족이 리하이(므낫세)와 함께 미대륙으로 왔을 때 성취되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에라스투스 스노우(1818~1888) 장로는 이스마엘 혈통이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누구든지 물몬경을 주의 깊게 읽어 본 사람은 요셉 지파의 남은 자들이 미대륙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또한 리하이가 늦쇠판에 기록된 조상의 기록을 연구하다가 자신이 므낫세 혈통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점도 알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은 먼저 번역했지만 이후에 도둑맞은 116쪽에 리하이의 기록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또한 조셉은 리하이 기록을 요약한 내용이 니파이가 직접 기록한 니파이전서에 실려 있으며, 니파이는 므낫세의 혈통이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에브라임의 혈통이며, 그의 아들들이 리하이 가족과 결혼했고 리하이의 아들들은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창세기 48장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한 야곱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후손은 이 미대륙에서 함께 번창해 갔습니다.”(Daniel H. Ludlow, *A Companion to Your Study of the Book of Mormon* [1976], 199)

- 부록(411쪽)에 나오는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막대기” 도표를 참고한다.

니파이전서 7:10~12
레이맨과 레뮤엘이 잊어버린 영적인 경험은 무엇인가? 우리는 기억해야 할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니파이전서 7:14. 선지자를 거부한 결과

- 니파이는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으며, 그 결과 주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님의 백성이 그분의 선지자를 거부하면, 선지자는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고 재앙이 찾아온다.(니파이전서 3:17~18; 힐라랜서 13:24~27 참조) “영이 사람과 함께 애쓰시기를 그치시면 그때 신속한 멸망이 이르나니”(니파이후서 26:11) 노아의 시대에도 그러했고(모세서 8:17 참조) 니파이인이나(물몬서 5:16 참조), 야벳인에게도(이더서 15:19 참조)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 후기에도 그런 경고가 주어졌다.(교성 1:33 참조)

니파이전서 7:15. “당신들이 원할진대”

- 레이맨과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포로처럼 억지로 사로잡혀서 약속의 땅으로 떠난 것이 아니었다. 니파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대답으로 “당신들이 원할진대”(니파이전서 7:15)라는 기본적인 교리를 언급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각자 선택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가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결정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영원한 결정은 반드시 영원한 결과를 낳습니다.”(“완전에 이르는 길”,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112쪽)

니파이는 형들과 형들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완악함과 불순종으로 눈이 어두워져 리하이와 니파이에게 반항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곧 멸망한다는 리하이의 예언이 사실임을 깨닫지 못했다. 성경에 따르면, 리하이 무리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은 바벨론인에게 포위당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고” “성벽이 파괴되었으며” 시드기야의 군대는 뿔뿔이 흩어졌다.(열왕기하 25:1~7 참조) 레이맨과 레뮤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면 사로잡혀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리하이와 니파이를 따를 것을 선택했기에 그들은 과실과 들꿀이 풍성한 풍요라는 땅에 이르러 기쁨을 누리고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준비를 할 수 있었다.(니파이전서 17:3~6 참조)

니파이전서 7:17~19. 결박에서 풀려나다

• 칠십인인 진 알 쿡 장로는 니파이처럼 우리도 신앙으로 기도할 때 결박에서 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니파이, 엘마, 앰올레크]이 자신의 힘을 믿기보다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힘에 의존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결박을 끊고 풀려나게 만드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울 때 우리의 기도는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Receiving Answers to Our Prayers [1996], 18)

니파이전서 8:4~35. 생명나무 시현

• 다음 표에는 니파이가 부친의 꿈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이 나와 있다.



리하이의 꿈에 나오는 상징(니파이전서 8장)	니파이가 받은 해석(니파이전서 11~12장)
흰 열매가 달린 나무(10~11절 참조)	하나님의 사랑. 그분은 아들을 우리 구주로 보내심으로 사랑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11:21~25 참조; 15:22에서 “생명나무”라 칭함)
더러운 물이 흐르는 강(13절; 12:16 참조)	지옥의 깊이. 사악한 자들은 이곳으로 떨어진다.(12:16 참조; 15:27에서 “더러움”이라 칭함)
쇠막대(19절 참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생명나무로 인도한다.(11:25 참조)
어둠의 안개(23절 참조)	악마의 유혹. 이것으로 눈이 멀어진 사람들은 길을 잃고 나무를 찾지 못한다.(12:17 참조)
공중에 서 있는 크고 넓은 건물(26절 참조)	세상의 헛된 상상과 교만(11:36; 12:18 참조)
나무에 이르는 길에 들어섰지만 중간에 길을 잃은 사람들(21~23절 참조)	니파이는 꿈에서 다음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보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를 …… 쫓아낸” 허다한 무리(11:28) •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신 모습을 보고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들(11:31~33 참조) • 어린 양의 열두 사도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크고 넓은 건물 안에 함께 모인 허다한 무리(11:34~36 참조) • 서로 대적하여 싸우려고 함께 모인 니파이인과 레이맨인(12:1~4, 13~15 참조) • 교만 때문에 레이맨인에게 정복당하고 믿지 않음에 빠져든 니파이 백성(12:19~23 참조)
나무보다 크고 넓은 건물에 가고 싶어한 사람들(26~27절, 31~33절 참조)	
쇠막대를 굳게 잡은 채 나아와 열매를 먹은 사람들. 이들은 조롱하는 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30절, 33절 참조)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얻는 사람들(15:36 참조)

니파이전서 8:10~12; 11:8~25.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상징하는 생명나무

•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생명나무가 구주와 그분의 속죄를 상징한다고 가르쳤다. “영은 생명나무와 그 귀한 열매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한다고 분명히 밝혀 주었습니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The Messianic Message of the Book of Mormon* [1997], 160)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맞본다는 것은 속죄가 가져오는 축복을 맛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한다. “생명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니파이전서 11:25 참조) 자녀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의 구속주로 주신 점에서 가장 심원하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한복음 3:16) 하나님의 사랑을 취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와 그에 따른 해방과 기쁨을 취하는 것입니다.”(*리아호나*, 2000년 1월호, 7쪽)

니파이전서 8:20. “협착하고 좁은 길”

•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곧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셨다.(요한복음 14:6) 칠십인인 로웰 엠 스노우 장로는 구주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간증했다.

“삶은 교차하는 많은 길과 오솔길로 가득합니다. 따라가야 할 길이 너무 많고,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조셉 스미스—역사 1:5] 하고 외치는 음성이 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다양하고 엄청난 대중 매체들이 우리 개인 공간에 범람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는 넓은 길로 내몰기 위한 것입니다.

이 중 어떤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며, 여러 갈래 길 중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조셉 스미스처럼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음성과 길]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들 모두가 다 그릇된 것인가? 만일 그들 중 어느 하나가 옳다면, 그것은 어느 것이며, 나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조셉 스미스—역사 1:1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길에 표시를 하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여정에서 모든 지점을 분명하게 보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길은 협착하고 좁으며, ‘생명과 빛 영원한 곳’[찬송가, 195장]으로 인도합니다.”(*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96쪽)

니파이전서 8:23~33. 우리는 쇠막대를 굳게 붙잡고 있는가?

•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쇠막대를 굳게 붙잡는다는 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쇠막대를 굳게 붙잡기 위해서는 오늘 저녁 우리가 이야기한, 생수를 얻는 세 가지 방법[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기]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해야 합니다.

…… 이 세 방법을 규칙적으로 실행하면 생수는 멈추지 않고 흐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쇠막대를 굳게 붙잡는다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과 저는 쇠막대를 굳게 붙잡기 위해 매일 경전을 읽고 공부하며 연구하고 있습니까?”(“A Reservoir of Living Water” [CES fireside for young adults, Feb. 4, 2007], 10–11, www.ldsces.org)

•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런(1917~2008) 장로는 쇠막대를 “굳게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쇠막대를 놓쳤을 때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여러분은 안개와 어둠, 즉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쇠막대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쇠막대를 느슨하게 잡다가 그 길에서 실족하게 되면 회개하고 다시 잡을 때까지 한동안 어둠 속에서 쇠막대를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0년 1월호, 91쪽)

니파이전서 8:24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을 묘사한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인가?

니파이전서 8:26~27. “크고 넓은 건물”

• 크고 넓은 건물은 생명나무이신 구주와 대립한다. 칠십인인 글렌 엘 페이스 장로는 하나님의 표준과 크고 넓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대조시켰다.

“그 크고 넓은 건물에 조금씩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오랜 슬픔과 고난으로 이어질, 순간적 만족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계명은 무자비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는 물론 내세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에서 오는 축복과 그 크고 넓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과 파티를 즐기기로 했을 때 얻는 기쁨을 비교해 보십시오. 지적인 유머에서 오는 기쁨과 술에 취해 어리석고 추하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직도 부끄러워 불이 붙어지는 우리의 충실한 자매들과, 이미 오래 전에 부끄러움 따위는 잊어버리고 이제 여러분까지 그런 상실에 끌어들이려는 여인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을 들어올리는 것과 끌어내리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생활 속에서 개인적인 계시와 인도를 받는 능력에 비교하여 온갖 가르침의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는 것과 그 크고 넓은 건물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비교해 보십시오.”(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44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는 물질을 소유하는 일에 집착하는 것은 크고 넓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오늘날 그 크고 넓은 건물에서 흘러 나오는 소리는 세상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라고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차가 세 대 정도는 들어가는 차고가 달린 큰 집에, 그 옆에는 여행용 차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옷, [DVD 겸용] 텔레비전 여러 대, 최신형 컴퓨터, 그리고 새 차를 원합니다. 종종 우리는 미래에 필요한 것을 대비하려는 계획 없이 빚을 내어 이러한 물건들을 구입합니다. 이런 순간적인 만족은 결국 파산법원이 과도한 업무를 떠맡고 가족들은 재정 부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 뿐입니다.”(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35쪽)

- 리하이의 시현에서 멸시와 조롱을 일삼는 자들은 열매를 취한 사람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비웃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크고 넓은 건물에서 조롱을 퍼붓는 사람들이 보이거나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신앙의 방패를 들어올리라고 말했다. “우리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상한 사람이나 그릇된 길에 빠진 사람으로 보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크고 넓은 건물’이 비좁고 낡은 삼류 호텔임을 깨닫게 될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합니다. (니파이전서 8:31~33 참조) 그들이 하는 손가락질을 참아 냅시다. 욕하는 사람들을 욕하지 말고,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맙시다.(교성 31:9 참조) 그보다는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아낼 신앙의 방패를 온 힘을 다해 들어올립시다.”(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102쪽)



리아호나 제공 그림 ©

니파이전서 8:37. “애정 깊은 부모의 정감”

-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녀를 대할 때 리하이의 모범을 따르라고 권고했다. “우리 또한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당부할 만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선택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합당성이 자녀들의 의로움에 따라 판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리하이는 레이맨과 레뮤엘이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기를 거부했다고 해서 그 열매를 따 먹는 축복을 놓치지 않았습시다. 때때로 부모는 자녀가 실수를 하거나 방황할 때 자신이 실패했다고 여깁니다. 최선을 다해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보살핀다면 그 어떤 부모도 실패자가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과 기도와 노력은 자녀의 유익을 위해 성별될 것입니다.”(리아호나, 2004년 5월호, 88쪽)

니파이전서 9:1~5. “한 현명한 목적”

- 니파이는 자기 백성의 세속적인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백성의 종교사를 담을 다른 기록을 만들라고 지시하셨다. 이 두 기록의 차이점과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1. 니파이전서 9장 1~5절은 작은 판에서 직접 가져온 기록이다.
2. 니파이가 말한 이 판은 작은 판을 지칭한다.
3. 니파이가 말한 그 판 또는 다른 판은 큰 판을 지칭한다.
4. 큰 판은 주전 약 590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5. 작은 판은 그보다 20년 후인 주전 약 570년에 만들어졌다.

6. 니파이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두 번째 기록(작은 판)을 만들라고 명하신 이유를 니파이전서 9장 5절에 설명해 두었다.
7. 큰 판은 주전 570년부터 주후 385년까지를 다루며, 왕들과 전쟁과 역사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다.
8. 작은 판은 주전 570년부터 130년까지를 다루며, 니파이 백성의 성역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

니파이는 기록을 두 개나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한 현명한 목적을 위한 것”(니파이전서 9:5)임을 믿었다.(133쪽에 나오는 물몬의 말씀 1:7 해설 참조)

•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1915~1994) 장로는 우리도 니파이처럼 이유를 알지 못할 때에도 순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때때로 우리는 순종하라는 권고를 받지만 그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 말고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 니파이는 현명한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시에 따랐습니다. 니파이가 순종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온 세상 인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대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씨앗을 돌밭에 심는 것과 같아서 결국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성도의 빛, 1979년 4월호, 78쪽)

니파이전서 9:6. “주는 …… 모든 것을 아시는도다”

•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다고 간증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진정으로 믿으면서도 반드시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계시를 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믿지는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기는 하지만 그분의 전지적 능력을 의심하여 실제로 미래를 보실 수 있는지조차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며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 만물은 그 영광을 위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나타나며, 계속하여 주 앞에 존재’(교성 130:7)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 …… 모든 것이 [그분의] 눈 앞에 나타[납니다.]’(교성 38:2) 그분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고 만물은 나와 함께 있나니, 이는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이니라.’(모세서 1:6)

하나님께서 지니신 지식의 범위를 규정 짓는 말은 경전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크냐! 이는 그가 모든 것을 아시며, 그가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음이라.’(니파이후서 9:20)”(If Thou Endure It Well [1996], 46)

니파이전서 10:11~14. 이스라엘의 흠어짐에 대한 약사

•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이스라엘이 왜 흠어졌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왜 흠어졌습니까? 그 답은 분명하고 명백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은 복음을 거부했고, 신권을 더럽혔으며, 회교를 저버렸고, 왕국을 떠났기 때문에 흠어졌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신했으며, 거저 신들을 숭배했고, 이방 나라의 모든 길을 따라 행했습니다. …… 이스라엘은 배도했기 때문에 흠어졌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사악함과 모반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땅의 모든 나라에 있는 이방인 가운데로 흠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집합하는 데 관계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는 요소는 주님께서 예전에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이] 믿고 받아들이며 그에 따라 생활하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회개하고, 침례 및 성신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포함됩니다. 또한 복음을 믿고, 교회에 가입하여 왕국으로 들어오는 일도 그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신권을 받고,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받고, 해의 왕국의 결혼 의식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리던 모든 축복을 받는 일입니다. 또한 지정된 장소 또는 경배의 땅으로 모이는 일도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택함 받은 자손의 흠어짐과 집합에 관해 이런 개념을 알고 나면 이와 관련된 예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1985], 515)

• 이스라엘의 흠어짐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부록(414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흠어짐에 대한 약사”를 참고한다.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부록(415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집합”을 참고한다.

니파이전서 10:17~19. 성신의 권능으로 배우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우리가 성신의 권능으로 복음 진리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님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려면 성신의 은사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 은사를 활용할 때 우리는 교리를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하게 됩니다. 계시로 받은 진리는 계시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전 연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리아호나, 2001년 1월호, 21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영을 해치는 일은 무엇이든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님의 영은 대개 조용하고, 섬세하며, 미세한 방법으로 우리와 교통합니다. ……”

표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 때문에 성신이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면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즐기는 어떤 것 때문에 성신이 우리에게서 떠난다면 그런 오락은 분명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저속하고 무례하며 조심성 없는 것을 견디지 못하므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영을 밀쳐 내는 일이므로,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리아호나, 2006년 5월호, 29~30쪽)

니파이전서 10:17~19; 11:1~8

니파이의 경험을 보면 계시를 받기 위해 어떤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니파이전서 11:16, 26. 하나님의 낮추어 오심

• 낮추어 오심은 자발적으로 지위나 위엄을 낮추어 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칠십인이었던 제럴드 앤 런드 장로는 이 단어가 구주께서 필멸의 세상으로 오신 일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언급했다. “신회의 구성원이자 아버지의 장자이며, 창조주요, 구약의 여호와이셨던 예수께서 이제 그분의 신성과 거룩한 지위를 버리고, 모든 영광과 존엄을 벗으시고, 완전히

육신의 부모에게 의지하는 무력하고 작은 아기의 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화려한 지상 궁전으로 오셔서 온 몸을 보석으로 감싸기보다는 초라한 마구간으로 오셔야 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랍니다. 천사가 니파이에게 ‘하나님의 낮추어 오심을 보라!’ 하고 말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Jesus Christ, Key to the Plan of Salvation* [1991], 16)

생각해 볼 점

- 리하이의 생명나무 시현에 등장한 많은 인물들을 생각해 본다. 나무에 도달하여 열매를 취하고 충실히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 경전을 공부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는 일은 어둠의 안개 속에서도 험착하고 좁은 길에 머무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 “하나님의 비밀[을] …… 성신의 권능으로” 이해하도록 “부지런히 찾[기]”(니파이전서 10:19) 위해 어떤 방법을 실천할 수 있을까?

제언 과제

- 리하이의 꿈에 나오는 상징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리하이의 꿈을 이루는 여러 상징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시각화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
- 쇠막대를 굳게 잡은 사람들만이 나무 열매를 취했다. 여러분이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속죄의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매일 경전 공부를 할 계획을 개인적으로 세워 본다.
- 니파이는 여호와께서 필멸의 세상으로 낮추어 오심을 보았다.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요한복음 1장 1~13절에 나오는 구주의 탄생 기사를 읽는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이 새로 깨달은 점을 일지나 경전에 기록한다.



제리 톰슨, © 1987 FRI

제 4 장

니파이전서 12~15장

소개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우리 마음에 의로운 소망을 심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에 대해 말씀했다. “경전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라는 구절보다 더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 메시지는 없습니다.”(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24쪽) 니파이는 ‘부친이 보신 것들을 …… 주께서 …… 알려 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니파이전서 11:1) 구하라는 권유에 따랐다. 니파이의 의로운 소망은 보상을 받았다. 그는 리하이의 시현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유사한 내용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이제까지 있었던 일과 세상 끝까지 모두 시현으로 보고 기록으로 남겼다.(니파이전서 14:18~30 참조) 이 시현은 신약전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요한의 시현과 유사하다. 니파이의 시현을 공부하면서 역사 속 사건으로 이미 성취되었거나 앞으로 성취될 구체적인 예언을 찾아본다. 배도, 복음의 회복, 선의 궁극적인 승리는 특히 중요하다.

해설

니파이전서 12:11.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것이니라”

- 흰색은 깨끗함과 의로움, 거룩함을 상징한다.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은 구주와 같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다.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곧 순결함을 입는 것이요, 순결함이 그 사람의 특성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한 깨끗함은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 존 테일러(1808~1887) 회장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면전에 설 만큼 충분히 합당해지려면 주님의 교회에 속한 회원이 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씀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스스로를 주님의 추종자라 말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한다고 공언하지만,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우리 옷을 희게 만들지 않는 한, 그 공언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온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목표인 하나님의 시온은 마음이 청결하고 삶이 청결하며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영광과 승영을 상속받을 준비가 되려면 반드시 그곳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모두에게 쓸모 없는 일일 뿐입니다. …… 복음을 받아들이고 ……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울리고, 모임에 참석하여 주님의 만찬인 성찬을 취하고, 크게 비난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생활하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올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마음과 양심이 청결하지 않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축복, 또한 선지자들이 증언하는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 [2001], 113~114쪽)



니파이전서 12~14장. 개요

- 다음 표는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기까지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데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기까지 일어난 사건 순서	
	니파이 백성의 멸망(니파이전서 12:19~23 참조)
	니파이 백성의 기록이 보존됨(니파이전서 13:35, 40 참조)
	이방인들이 약속의 땅을 발견함(니파이전서 13:12 참조)
	이방인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함 (니파이전서 13:13~16 참조)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기까지 일어난 사건 순서



약속의 땅에서 일어난 국제 전쟁(독립 전쟁; 니파이전서 13:16~19 참조)

주님께 귀를 기울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집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음(복음이 회복됨; 니파이전서 14:1~2 참조)



새 경전 출현(니파이전서 13:35~40; 14:7 참조)

그리스도 교회 회복(니파이전서 14:10~17 참조)

© Comstock.com

니파이전서 13:1~9. 크고 가증한 교회

-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바로 그 시기에 악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의 왕국을 세웁니다.”(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6:364)
-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크고 가증한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악마의 교회와 크고 가증한 교회라는 명칭은 이름이나 성격에 관계 없이, 다시 말해 정치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혹은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민족적, 국가적, 종교적 성격을 띤 어떤 조직이든 인간을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서 멀어지게 하여 하나님 왕국에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모든 …… 조직을 일컫는 데 사용됩니다.”(*Mormon Doctrine*, 2nd ed. [1966], 137~138)
- 한 저자는 크고 가증한 교회가 하나 이상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역사상 알려진 어떤 교회나 종교 단체도 단일 조직으로서 크고 가증한 교회의 필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 이방인들 사이에서 조직되었을 것이며,

경전이 전파되는 과정에 개입하고 통제를 가했을 것이며,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연합하여 정치 권력을 이용해 그들이 만든 종교적 견해를 강요하고, 온 땅을 지배하며, 큰 부와 성적 부도덕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끝이 다가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떠한 단일 교파나 종교 단체도 이 모든 설명에 정확히 들어맞는 곳은 없습니다. 바벨론은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매개자와 이념과 교회를 동원하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

초기 기독교에서 크고 가증한 교회 역할을 한 역사 속 매개자를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매개자는 첫 번째 세기 후반에 생겨났을 것이며 두 번째 세기 중반 무렵에는 이미 많은 일들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이 시기는 기독교 역사에서 사각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주요 역사 자료가 가장 빈약하게 보존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약 시대 기독교에 관한 훌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빛이 사라지고 격심한 분쟁 소리만 여기 저기서 희미하게 들립니다. 백여 년이 지나 다시 빛을 밝혔을 때, 우리는 누군가가 알맹이를 모두 재배열했으며 초기 시절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기독교가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Stephen E. Robinson, “Warring against the Saints of God,” *Ensign*, Jan. 1988, 38~39)

니파이전서 13:4~9
크고 가증한 교회와 관련된 일반적인 특징을 나열해 본다.
이런 지식은 속임을 피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니파이전서 13:12. “이방인 가운데서 한 사람”

-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이 사람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밝혔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이방인 가운데서 한 사람’(니파이전서 13:12)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어 미대륙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럽인들은 이

풍요로운 새 땅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한 이 일이 영감 받은 행동이었다고 증언한 그 사람은 물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을 열고 저를 바다로 보내셨으며, 그 일을 하도록 열정을 주셨습니다. 제 계획을 들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며 저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신께서 제게 영감을 주셨다는 사실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Jacob Wasserman, *Columbus, Don Quixote of the Seas*, pp. 19-20)”(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577)



•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콜럼버스를 주님께 영감 받은 사람이라 칭하며 존경을 표했다. “여러 비평가들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비난합니다. 저는 콜럼버스보다 먼저 이 서반구에 온 사람들이 있다는 주장을 논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찾고자 신앙으로 불을 밝혀 들었고, 그 과정에서 미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당시에 아무도 가 본 적 없는 곳이었던 먼 미지의 바다 너머 서쪽으로 항해하기 위해 그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선원들이 쏟아내는 불평과 폭동에 가까운 저항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자주 기도로 인도를 구하며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스페인 국왕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 콜럼버스는 자신의 항해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 전파를 위한 것이었다고 반복해서 역설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위협에 맞서는 불굴의 힘을 보여 준 그에게 우리가 존경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성도의 빛, 1993년 1월호, 52쪽)

니파이전서 13:12~19. 미국 역사에 함께한 주님의 손길

•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은 미국이 건국된 일을 복음의 회복과 연관하여 설명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후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지상에 건설하고자 그분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 위대한 미국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국가의 기초를 놓으심으로써 그 길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당시 전 세계 군주 국가를 지배하던 엄중한 법률과 편견 속에서 그분의 위대한 왕국이 세워질 토대는 마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Gospel Doctrine*, 5th ed. [1939], 409)

•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회복을 준비하시기 위해 어떻게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모든 사람이 종교 면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하셨는지 말씀했다. “[미대륙을 발견하고] 100여 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그러한 신성한 느낌으로 인도를 받아 미대륙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인도되어, 그들은 영감 받은 권리장전으로 모든 시민을 위한 종교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14년 후, 1805년 12월 23일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태어났습니다. 회복을 위한 준비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90쪽)

니파이전서 13:20~29

니파이는 일부가 제해진 책에 대해 언급했다.
 그 책은 무엇인가? 없어진 부분에는 무엇이 실려 있었나?
 그 일부가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니파이전서 13:20~29. 성경에서 제하여진 명백하고 귀한 진리

•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명백하고 귀한”이란 말에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경에서 …… 잃어버린 부분은 ‘명백하고 극히 귀한’ 부분이었습니다. 간결하고 분명하여 ‘사람[들이] …… 이해하기’ 쉽다는 의미에서 명백하며, 순수함과 심오한 가치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영원한 중요성을 띠는 의미에서 귀합니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1997], 5)

• 한 교육가는 경전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성경 원본은 아주 초기에 사라진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신약전서가 그런 듯합니다. 20세기 초 가장 위대한 문헌학자 중

한 사람인 프레드릭 케년 경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몇몇 책의 원본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습니다. 교회 초기에 없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저자 중 어느 누구도 그 책들을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케년이 한 지적은 우리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독자들을 이끌어 줄 성경 원본이 수 세기 동안이나 존재하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초기 기독교 교회가 세워진 당시 몇십 년 동안에도 원본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니파이전서 13장 21~29절에서] 천사는 손과 눈이 일으키는 사소한 오류, 즉 필사하는 사람이 실수로 글자나 단어 몇 개를 잘못 표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천사는 음모를 품은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편집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니파이전서 13:27~28] ……

천사가 한 말을 읽으면서 우리는 세상에 완전한 성경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파되기도 전에 이미 많은 부분이 극심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기 기독교 시대에 많은 부분을 계획적으로 훼손한 일 외에도 성경 원고는 손과 눈이 만든 잘못으로 서서히, 그리고 비교적 미약하긴 하지만 끊임없이 변경에 시달렸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원문 편집 과정에서 불시에, 심각하게, 그리고 주도면밀하게 훼손되거나 (2) 필사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변형이 서서히 퍼져 나갔습니다.”(Robert J. Matthews, *A Bible! A Bible!* [1990], 74~75)

조셉 스미스는 “인간의 구원을 다루는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성경에서 삭제되었거나 성경이 편집되기 전에 분실[되었다.]” (*History of the Church*, 1:245)고 가르쳤다. 또한 성경이 “원작자들의 손에서 직접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정확했지만 “무지한 번역자, 부주의한 필사자, 또한 부패한 성직자들이 계획적으로 많은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History of the Church*, 6:57)



니파이전서 13:32~40. 명백하고 귀한 부분이 회복되다

-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은 교회의 표준 경전이 어떻게 잃어버린 진리를 회복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는지 말씀했다.

“사도 요한은 한 천사가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지상에 내려올 그때를 시현으로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모로나이이며, 그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났습니다. 모로나이 천사는 조셉에게 고대 기록이 새겨진 금판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려 주었습니다. 그 후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이 판을 번역했고, 그렇게 몰몬경이 출판되었습니다. 몰몬경은 여러 세기 전, 미대륙에 살았던 두 민족에 관한 기록입니다. 몰몬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들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몰몬경이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는 점입니다. 타락, 속죄, 부활,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귀중한 진리가 몰몬경을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회복 이전에 하늘은 수세기 동안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지상에 선지자와 사도들이 존재하게 되어, 하늘이 시현과 계시로 다시 열렸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받은 많은 계시가 교리와 성약으로 알려진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신권 체계를 가르치는 가치 있는 자료로서 여러 원리와 의식들에 관한 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값진 진주라는 경전이 또 있습니다. 값진 진주에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계시로 받은 모세서와 더불어 이집트 두루마리를 구입하여 번역한 아브라함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을 통해 우리는 모세와 아브라함, 에녹과 다른 선지자들에 대해 더 알 수 있고, 또한 창조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을 많이 배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태초부터, 곧 아담 시대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에게 가르쳐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리아호나*, 2006년 5월호, 67~68쪽)

- 또한 조셉 스미스 역 성경도 명백하고 귀한 많은 진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셉 스미스 역은 “1830년 6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영어로 된 흠정역 성경의 개정 또는 번역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 번역을 하였으며 그것을 선지자로서의 그의 부름의 일부로 간주하였다. ……

조셉 스미스 역은 성경에서 잃어버린 명백하고 극히 귀한 것들 가운데서 몇 가지를 회복시켜 주었다.(니파이전서 13장) 비록 이것이 교회의 공식적인 성경은 아니지만, 이 역본은 많은

흥미로운 통찰을 하게 해 주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귀중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신성한 부름과 성역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경전 안내서, “조셉 스미스 역”; 또한 니파이후서 3:11 참조; *History of the Church*, 1:238)

주님의 교회에서 계속되는 계시를 통해, 명백하고 귀한 복음 교리와 원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대회 보고 및 주님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쓴 영감 받은 글들은 명백하고 귀한 복음 진리를 이해하는 데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니파이전서 14:7. “한 가지 크고 기이한 일”

• 경전에서는 복음이 회복되고 교회가 조직된 일을 “한 가지 크고 기이한 일”(니파이전서 14:7; 제3니파이 21:9)이라고 묘사한다. 문맥상 크다라는 단어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뜻을 나타내고, 기이하다라는 말은 놀랍고 이해를 초월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일은 영원히 지속될 행위 또는 업적을 말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는 교회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위대한 조직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가 놀라운 조직인 이유는 충실한 성도들을 위해 교회가 수행하는 역할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충실한 성도들이 하는 일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기이한 일에서 핵심을 차지합니다. 그 모든 놀라운 일에 대한 증거는 바로 여러분입니다.”(*리아호나*, 1995년 1월호, 32쪽)

니파이전서 14:10~14

니파이는 후기의 교회 회원에 관해 무엇을 예언했는가?

니파이전서 14:14. 의와 권능으로 무장하였더라

•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의로움이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살핍시다. 경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위해서 무기가 아닌 ‘의[로] …… 무장’(니파이전서 14:14;

또한 베드로전서 4:17; 교성 112:25)하고 주님의 영광이 백성 위에 부어질 그날을 바라며, 체로 쳐서 선별하고 영적, 수적 성장을 이룩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순결하고 시험을 견뎌내 자신을 증명해 보인 백성(교성 100:16; 101:4; 136:31 참조)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주 네 하나님은 행하고자 그 마음에 품은 것을 행하지 않음이 없[습니다.]’(아브라함서 3:17)”(*성도의 빛*, 1988년 7월호, 9쪽)

• 맥스웰 장로는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키는 것이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데 필수 요소가 된다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회원들이 지켜야 할 한 가지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니파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니파이는 ‘온 지면에 흩어진’ 주님의 성약의 백성이 장차 ‘큰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할]’(니파이전서 14:14)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약속은 더 많은 회원들이 더욱 성도다워지고 그들의 행위가 더욱 성결해져야만 비로소 성취될 것입니다.”(*성도의 빛*, 1992년 1월호, 37쪽)

니파이전서 14:18~30. 계시자 요한의 기록

• 니파이전서 14장 18~30절에는 사도 요한이 쓴 신약전서 마지막 책인 계시록이 언급되어 있다. 니파이는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보았지만 기록하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것은 요한에게 부여된 임무였기 때문이다. 26절에는 몰몬경 중 인봉된 부분이 언급되어 있다.(인봉된 부분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니파이후서 27:7; 제3니파이 26:7~11; 이터서 4:7을 참조한다.)

니파이전서 15:2~11. “마음이 완악하여”

•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완악한 마음이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말씀했다.

“니파이는 ‘사람이 주께 묻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든’(니파이전서 15:3) 부친의 예언을 형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니파이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며 신앙으로 주님께 구한다면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알려지리라’(니파이전서 15:11)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계속 계시를 거절하고, 우리의 배움을 현재의 경전에 나오는 언어 자체만을 파고들어 공부하는

것으로 제한한다면 우리는 엘마가 말했듯이 '더 적은 분량의 말씀(엘마서 12:11)만을 이해하는 데 그칠 것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계시와 영감을 구하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부지런히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성신의 권능으로 펼쳐[진다]'(니파이전서 10:19)는 영감에 찬 니파이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Scripture Reading and Revelation," *Ensign*, Jan. 1995, 7)



•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레이맨과 레뮤엘도 니파이와 그의 부친이 알았던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우리가 완전한 신앙을 행사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모인다면 회장은 오늘이라도 벗겨질 수 있으며, 다음 주나 다른 어느 때에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Teaching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sel. Joseph Fielding Smith [1976], 9)

"하나님께서서는 조셉에게 주신 계시가 무엇이든 십이사도에게도 모두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미약한 성도라도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 즉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3:380)

니파이전서 15:12~13. 유대인과 이방인

• 물문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 문제에 도움이 되는 설명을 했다. "리하이와 니파이는 인간을 두 부류 즉,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었습니다. 유대인은 유다 왕국 민족이거나 그 후손이며, 그 외 모든 사람은 이방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전에 따르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복음의 충만함을 받은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조상이 예루살렘에서 왔고 유다 왕국에 속해 있었으므로 그들 역시 유대인인 레이맨인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1985], 556)

맥콩키 장로는 또한 회복에 큰 역할을 할 이방인이 누구인지도 밝혔다. "조셉 스미스가 물문경을 나아오게 한 그 이방인이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은 바로 레이맨인과 유대인에게 구원을 전파할 이방인들입니다."(*The Millennial Messiah* [1982], 233)

니파이전서 15:13~16. 복음이 회복되는 후기

•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역사에 회복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선언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위대한 인류사에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나간 모든 시대는 지금 이 시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금은 잃은 것을 되찾는 시기이자,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 시대는 온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집이 세워진 산으로 와서 주님의 방법을 구하고 배우며 주님의 길을 걷는 때입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후로 지금 이 위대한 날에 이르기까지 수세기를 한데 엮는, 역사의 정점입니다."(*리아호나*, 2000년 1월호, 89쪽)

니파이전서 15:12~20. 이스라엘의 집합

•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부록(415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집합"을 참고한다.

니파이전서 15:24. 하나님의 말씀과 불화살

•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받는 축복에 대해 말씀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축복을 얻는 법을 배울 뿐 아니라 유혹에 굳건히 맞설 힘을 얻는다. "리하이는 꿈에서 어둠의 안개 속을 헤쳐나가도록 길을 인도하는 쇠막대를 보았습니다. 쇠막대를 굳게 잡은 사람들은 더러운 강물을 피하고, 금단의 길로 떨어지지 않으며, 멸망으로 이어지는 낯선 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후 리하이의 아들 니파이는 쇠막대가 상징하는 바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레이맨과 레뮤엘이 '쇠막대는 무엇을 뜻하느냐?'라고 묻자 니파이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약속에 유의하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굳게 붙들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겠고, 유혹이나 대적의 불화살도 그들을 이겨 눈멀게 하여 멸망으로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니이다.(니파이전서 15:23~24) (“말씀의 힘”,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87쪽)

니파이전서 15:32~35. “그들의 행위에 대해 심판받기 위하여”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우리가 하는 행위가 어떻게 우리 존재를 결정짓는지 말씀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행위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성경과 현대 경전에는 최후의 심판 때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행실이나 행위, 마음 속 소망에 따라 보상받을 것이라 가르치는 성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구절에서는 우리가 도달한 위치에 따라 심판받는다 설명을 덧붙입니다.

선지자 니파이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최후의 심판을 설명했습니다. ‘만일 그들의 행위가 이제까지 더러움이었다면 그들이 필연 더러운 것이라. 또 만일 그들이 더럽다 할진대 필연코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거할 수 없으리니’(니파이전서 15:33) 이에 모로나이는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몰몬서 9:14; 또한 요한계시록 22:11~12; 니파이후서 9:16; 교성 88:35 참조) 이와 똑같은 원리가 ‘이기심’이나 ‘불순종’ 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격과 일치하지 않는 기타 모든 개인적인 특성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엘마는 최후의 심판 때 악한 자들이 놓이게 될 ‘상태’에 대해 가르치면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위와 생각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우리가 흠 없이 발견되지 못할 것이요 …… 이러한 참담한 상태에서 우리가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할 것이요’(엘마서 12:14)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최후의 심판이 단순히 선행과 악행의 총합 즉, 우리가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행위와 생각에 따른 최종 결과 즉,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판정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라도 통과 의례를 치르듯 시늉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에서 요구되는 계명과 의식과 성약은 하늘의 어느 예금 계좌에 적립해야 할 예금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존재가 될 방법을 보여 주는 하나의 계획입니다.”(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0쪽)

니파이전서 15:34~35. 영혼의 중국의 상태

- 선과 악, 빛과 어둠, 하나님 왕국과 악마의 왕국은 뚜렷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 사탄을 따르는 더러운 이들에게는 지옥이라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따른 의로운 사람들은 그분 왕국에서 화평과 영광을 누린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처할 중국의 상태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 거(합)” 사람들과 “쫓겨(날)” 사람, 이렇게 단 두 부류로만 나눌 수 있겠는가?(니파이전서 15:35)



이 질문을 풀어 줄 실마리는 교리와 성약 76편 43절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그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나타내신 후에 그를 부인하는 멸망의 자식들 외에는 자기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을 구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중국의 상태에는 구원받는 사람과 함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혹은 멸망의 자식들로 나뉜다. 구원받는 사람은 영광의 등급 중 한 곳에 들어가도록 허락된 사람이다. 교리와 성약 76편에서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라는 세 가지 영광의 등급 명칭과 더불어 누가 하나님 왕국의 각 장소에 들어가기에 합당한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님 왕국 안에서는 세 가지 영광의 등급 모두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멸망의 자식들은 왕국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들이다.

생각해 볼 점

- 영감과 계시가 생활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한 니파이의 모범을 여러분은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경륜의 시대에 복음의 회복을 준비하셨는가?
- 여러분은 “대적의 불화살”을 어떻게 정의하겠는가? 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불화살에 공격 받고 있는가?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불화살을 더욱 잘 이겨내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

제언 과제

- 다음 중 한 가지 질문을 선택해 짧은 글을 작성한다.
 1.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생명나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2. “크고 가증한 교회”는 무엇을 뜻하는가?
 3. 니파이전서 13장은 신앙개조 제8조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소개

똑같은 상황에서도 왜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는가? 리하이의 가족이 그런 경우다. 시련을 겪는 동안 가족 중 일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한 반면, 나머지는 신앙이 부족했으며 불평과 반항을 일삼았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 불평하고 반항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대처해 나가면서 성장하고, 신앙이 더욱 강해져야 한다. 니파이전서 16~18장을 읽으면서, 리하이 가족이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으며, 이들이 충실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또한 반역과 불순종으로 겪게 된 고난에 주목한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리하이 가족의 경험과 비교해 보고,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충실할 수 있을지 본받을 점을 찾아본다.

해설

니파이전서 16:2. “죄인은 진리를 심하다고 여기나니”

- 니파이는 불순종하는 형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도록 돕기 위해 진리를 선언했다. 사악하여 영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종종 영감에 따라 그들을 바로잡고 징계하려는 사람에게 도리어 화를 낸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비록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하나님께서 가장 부드러운 방법으로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다소 거친 방법으로도 나타내십니다. 예를 들면 진리가 ‘바로 그 중심까지 베[어 내는]’(니파이전서 16:2)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는 그 영혼에게서 교만을 잘라내는 고통스러운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34쪽)

니파이전서 16:7~8. 결혼의 중요성

- 리하이와 이스마엘 가족 사이에 맺어진 결혼에 대해 읽어 보면 리하이가 주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니파이전서 16:8 참조) 결혼은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한 계획에서 중심이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결혼에 대한 주님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1998년 10월호, 24쪽)

니파이전서 16:10, 26~29. 리아호나

-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리아호나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우리 시대의 성령에 비유했다.

“주님께서 리아호나를 마련하셨으며, 리하이 가족은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를 여행하는 도중에 그것을 받았습니다.(앨마서 37:38; 교성 17:1 참조) 이 나침반 혹은 지시기는 리하이 일행들이 가야 할 길(니파이전서 16:10 참조), 즉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곧바른 진로’(앨마서 37:44)를 가리켰습니다. 리아호나에 있는 지침들은 여행자들이 ‘거기에 쏟는 신앙과 부지런함과 주의에 따라’(니파이전서 16:28) 작동했으며 가족들이 다투거나 무례하거나 게으르거나 부주의할 때에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니파이전서 18:12, 21; 앨마서 37:41, 43 참조)



나침반은 또한 리하이 가족이 ‘주의 길에 관하여 …… [더욱 잘] 이해’(니파이전서 16:29)하는 방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리아호나의 주요 목적은 길고 힘든 여행을 하는 동안 방향과 가르침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시기는 실제 도구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 내면의 영적 상태를 외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부지런함이라는 원리에 따라 작동했습니다.



고대에 리하이가 축복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각자도 필멸의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영적 나침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침례와 확인을 받고 구주의 교회에 들어왔을 때 성신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신권 권세로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 확인 받았으며, '진리의 영 [즉,]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한복음 14:17)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의 영을 끊임없이 동반하도록 노력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인생 길을 따라 꾸준히 나아가갈 때 리하이가 리아호나를 통해 인도를 받은 것처럼 성신으로부터 인도를 받습니다. '이는 보라,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길로 말미암아 들어서고 성신을 받으면, 그것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 줄 것임이라.'(니파이후서 32:5)

리아호나가 리하이 가족을 위해 작동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신은 우리의 신앙과 부지런함과 우리가 기울이는 주의에 따라 우리 삶에 작용합니다.”(리아호나, 2006년 5월호, 30~31쪽)

니파이전서 16:29

이 구절에서 “작은 수단”이란 무엇을 지칭하는가? 여러분의 삶에서 영향을 받은 영적인 작은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니파이전서 16:18. “좋은 강철로 만들어진” 활

• 한 경전 학자는 몰몬경에 나오는 강철 사용에 대해 이렇게 해설했다. “몰몬경 문화에서 금속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만한 중요한 주제입니다.[John Sorenson, *An Ancient American Setting for the Book of Mormon* (1985), 277~288 참조] …… 몰몬경에서 금속 무기와 갑옷에 대해 명확히 언급된 부분은 다섯 군데입니다. 그중 두 군데에는 근동 지역의 무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차고 있던 검은 칼날이 극히 귀한 강철(니파이전서 4:9)로 되어 있었고, 니파이의 활도 ‘좋은 강철(니파이전서 16:18)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원전 6세기 초에 근동 지역에 강철(침탄 처리한 철) 무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로버트 매딘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늦어도 기원전 7세기에 접어들 무렵에 지중해 동부 지역 대장장이들은 철을 유용한 물질로 가공하기 위해 침탄(저탄소강 표면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탄소 성분을 스며들게 하는 처리-유희인)과 담금질이라는 두 가지 방법에 숙련되어 있었다.’[“How the Iron Age Began,” *Scientific American*, Oct. 1977: 131](William J. Hamblin and A. Brent Merrill, “Swords in the Book of Mormon,” in *Warfare in the Book of Mormon*, ed. Stephen D. Ricks and William J. Hamblin [1990], 345~346)

니파이전서 16:21~25. 활을 부러뜨린 경험

•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중대한 교훈은 종종 고난을 겪은 후에 얻는다고 말씀했다. “니파이도 활이 부러져서 분명히 어느 정도는 화가 났겠지만 이 괴로움도 극복할 수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대가족이 먹을 음식을 구하고 있었을 뿐인데 왜 부러진 활과 또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경험을 하면서 니파이는 가르침을 얻는 위대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가르침을 얻기 전에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If Thou Endure It Well* [1996], 128)

•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역경을 겪을 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합당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며 계명에 순종하고 있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주신 …… 시험을 겪는 분들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시련이 동시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런

시련을 겪는 것이 아니라면 그 시련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더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신다는 증거입니다.(잠언 3:11~12 참조) 따라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영원한 유익을 위해 스스로를 연단할 수 있도록 성장과 이해력과 동정심을 자극하는 경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현재 위치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그 노력은 대개 곤경과 고통을 수반합니다.”(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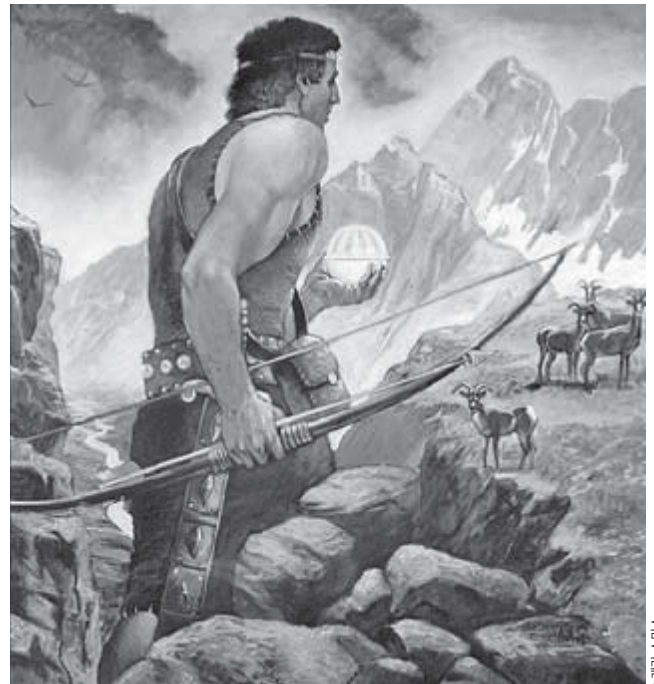
- 니파이가 활을 못쓰게 되자 리하이 일행은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몇몇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부정적인 것에 마음을 쏟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시련을 겪을 때에도 주님께 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저는 필멸의 세상에서는 아무런 답도 얻을 수 없을 일에 대해 “왜?” “만약 그랬다면?” “하기만 했더라도” 하며 매달리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께 위안을 받으려면 신앙을 행사해야 합니다. 왜 나란 말인가? 왜 우리 가족인가? 왜 하필이면 지금인가? 이런 물음은 대개 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영성을 저하시키고 신앙을 해칩니다.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돌려 이 세상의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며 더 큰 이해력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견딜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데 시간과 힘을 쏟아야 합니다.”(리아호나, 1999년 1월호, 14~15쪽)

- 레이맨과 레뮤엘은 불평하고 투덜대는 일이 천성처럼 굳어진 듯 하다. 리하이마저도 낙담한 나머지 불평하기에 이르렀다. 칠십인 회장단의 매리온 디 행크스 장로는 니파이가 이 위기에 대처한 모습에서 그의 훌륭한 성품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니파이는 주위에서 나무를 구해 활과 화살을 만들고 물매와 돌로 무장하고 나서 ‘나의 부친께 말씀드리기를, “양식을 얻기 위해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하였[다]고 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니파이는 부친께 가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분의 종이십니다. 저는 양식을 얻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여쭙어 봐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말한 것입니다. 니파이는 직접 무릎 꿇고 기도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직접 그 일을 책임지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을 인생에 대한 참으로 중요한 교훈으로 여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는 그러한 교훈이 가득합니다. 충분히 힘이 있고 겸손하며 대장부다운

아들이 신앙이 흔들리는 아버지에게 가서 ‘하나님께 여쭙어 봐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말한 것은 어쩌면 그 아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즉, 지혜롭게 신뢰해 줄 때 그 사람이 더욱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리하이가 하나님께 여쭙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리하이의 지도력은 회복되었습니다.”(Steps to Learning, 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of the Year [May 4, 1960], 7)



니파이전서 16:23. 리하이를 신뢰하는 니파이

- 아버지인 리하이가 불평하는 말을 내뱉은 후에도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나아가는 니파이의 행동에서 우리는 위대한 겸손을 엿볼 수 있다. 니파이는 여전히 아버지를 존경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아버지에게서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원리를 가르치며 한 가지 경험을 나누었다.

“얼마 전에 제 사무실로 찾아온 한 청년이 제게 축복을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열여덟 살쯤 된 그 청년은 몇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도덕적 문제는 없었으나 여러 가지 생각과 걱정으로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청년은 축복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축복해 달라고 말씀드려 본 적이 있나요? 아버지께서도 교회 회원이시지요?’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로 신권을 받으셨지만 거의 저활동 회원이십니다.’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까?’ 하고 묻자 청년은 ‘예, 벤슨 형제님.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세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신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세요. 교회에 잘 나가지도 않으시고, 십일조를 제대로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분이십니다. 충실한 가장이시고 자상한 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당히 기회를 보아서 아버지께 가장의 축복을 해 주시지 않겠느냐고 여쭙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그러면 아버지가 엄청 놀라실 텐데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저도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해 보겠습니다.’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에 그 청년은 다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벤슨 형제님, 저희 집에 정말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청년은 벽차오르는 감정을 간신히 억누르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적당한 기회가 와서 아버지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아, 정말 내가 축복해 주길 바라는 거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셨으면 해요!” 그런 다음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벤슨 형제님, 아버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해 주셨어요. 축복을 하는 동안 어머니는 내내 곁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버지께서 축복을 마치셨을 때 저희 가족은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성도의 벗, 1978년 2월호, 45~46쪽)

니파이전서 16:34. “네이훴이라 하는 곳”

• 히브리어로 *nahom*[네이훴]은 아마도 “위안”이라는 뜻으로, “누군가를 측은히 여기고 위로하다”라는 뜻의 *Naham*[네이함]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을 것이다. *Ensign*(엔사인)에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고고학적으로 네이훴이라는 명칭이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후기 성도로 구성된 한 연구 단체는 최근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 끝에 위치한 예멘에 있는 한 장소가 물몬경에 기록된

리하이의 여정에 등장하는 한 지명과 관련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워렌 애스턴, 린 힐튼, 그레고리 위트가 발견한 돌 제단을 살펴본 고고학자들은 그 연대를 적어도 기원전 700년은 될 것이라 추정했다. 이 제단에는 ‘네이훴’이 리하이 시대 이전에 아라비아 반도에 존재해온 실제 장소임을 증명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News of the Church,” *Ensign*, Feb. 2001, 79)



니파이전서 17:4. 이 여행은 왜 8년이나 걸렸는가?

• 얼마서 37장 39~43절에서 얼마는 여러 번 리아호나가 작동을 멈추었기 때문에 리하이 가족은 “곧바른 진로로 여행하지 못하였고” “여행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고 기록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신앙을 행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리아호나는 작동하지 않았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이 걸렸을 여행이 왜 그토록 오래 걸렸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다.(부록, 409쪽에 있는 “리하이 가족의 추정 여행 경로” 지도를 참고한다.)

니파이전서 17:6. 실제 풍요 땅이 갖춘 환경적 조건 열두 가지

• 리하이 가족은 풍요 땅 곁에 있는 “바닷가에 이르러 심히 기뻐[했다.]”(니파이전서 17:6) 풍요 땅은 분명 비옥한 땅이었을 것이다. 다음은 실제로 풍요 땅이 갖춘 열두 가지 환경적 조건이다.(Warren P. and Michaela Knoth Aston, *In the Footsteps of Lehi: New Evidence for Lehi's Journey across Arabia to Bountiful* [1994], 28~29에서 찾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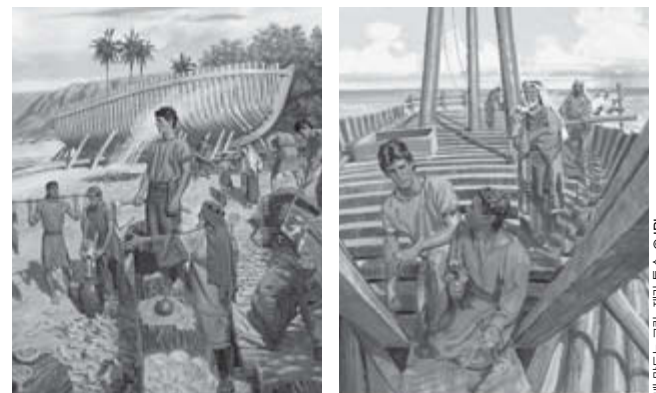
1. 일 년 내내 공급되는 맑은 물
2. “[풍성한] 과실과 또한 들꿀”(니파이전서 17:5~6; 18:6)
3. 리하이 가족이 장막을 친 곳(니파이전서 17:6)과 주변 넓은 지역(17:5, 8)에 펼쳐진 비옥한 땅
4. 사막 내부에서 해안가까지 적당한 접근성
5. 니파이가 “산”이라고 말할 정도로 높이 솟아 있고, “자주 기도”하러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는 산(18:3; 또한 17:7 참조)

6. 니파이의 형제들이 니파이를 “깊은 바다에” 던지려 했을만한 절벽(17:48)
7. 배를 건조하고 진수하기에(18:8) 적합한 해안선(17:5)
8. 니파이가 연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광석과 부싯돌(17:9~11, 16)
9. 항해에 적합한 배를 건조할 만큼 충분히 큰 재목(18:1~2, 6)
10. 배를 바다로 출항시키기에 적합한 바람과 해류(18:8~9)
11.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지역
12. 네이훔에서 “거의 동쪽”(17:1; 또한 16:34 참조)에 위치함

리하이 가족의 추정 여행 경로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가 편집한 Encyclopedia of Mormonism, 제1권 (1992), 1:144에 나오는 지도를 개작했음(09쪽 부록에도 있음)



배 © 1988년 리하이 가족의 여행

니파이전서 17:23~34.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 니파이는 광야를 여행한 경험이 고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한 일과 아주 유사하다고 보았다.(니파이전서 17:13, 23, 30, 41~42) 한 저자는 모세가 출애굽을 인도한 일과 관련하여 몰몬경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 언급했다. “성경에 대한 소위 일급 비평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을 빠져나온 기적이 구약전서에 기록된 대로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했다.(출애굽기 14:19~20, 26~31; 16:4, 15; 17:5~6; 민수기 21:6~9 참조) 그러나 몰몬경은 이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입증한다.(니파이전서 17:23, 26, 28, 29, 30, 41) 이 기적에 대해 니파이가 알던 지식은 라반의 늦쇠판에 새겨진 실제 기록에서 왔으므로(니파이전서 5:11) 후기 성도는 그 성경 기록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로써 몰몬경은 다시 한 번 그와 짝을 이루는 경전인 성경을 증거하는 역할을 해냈다.”(Daniel H. Ludlow, *A Companion to Your Study of the Book of Mormon* [1976], 115)

니파이전서 17:7~19. 행동으로 나타난 니파이의 신앙

• 배를 지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니파이가 반응한 방식을 살펴보면 그가 지닌 훌륭한 신앙을 통찰할 수 있다. 다른 선지자들도 주님께서 주신 과업을 벅차게 여긴 경우가 있다.

니파이전서 17:19~46

니파이는 레이맨과 레뮤엘을 가르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 나온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가?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한 일 중에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하는 사건이 있다면 무엇인가?

니파이전서 17:45. 영적 메시지를 감지하는 예민한 감각

• 레이맨과 레뮤엘은 천사를 보고 나서도 왜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들이 동생 니파이처럼 그 여행에 대한 영적 확신을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니파이후서 2:16 참조) 니파이는 그들이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원인을 “죄악을 행하는 데는 재빠르다”(니파이전서 17:45)는 데서 찾았다.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은 영을 받는 데 필요한 합당성을 휴대 전화에서 신호를 받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했다.

“요즘은 통신 수단으로 휴대 전화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신호가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터널이나 계곡이나 다른 방해 요인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은 작고 조용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그 음성은 ‘모든 것을 꿰뚫고 속삭이며 파고[듭니다.]’[교성 85:6] ……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데, 이는 우리가 ‘감각이 없[기]’[니파이전서 17:45]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 사각지대 즉, 신성한 메시지가 차단된 장소나 상황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는 분노, 외설물, 범법, 이기심 및 기타 영을 거스르는 온갖 상황들이 포함됩니다.”(리아호나, 2004년 5월호, 67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영적 대화를 이렇게 설명했다.

“성신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보다는 느낍니다. 그 음성은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교성 85:6]으로 묘사됩니다. 영의 속삭임을 ‘들었다’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느낌이 들었다.’ 하고 표현합니다.

계시로 오는 말씀은 듣기보다는 느끼는 언어입니다. 니파이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도 완악했던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감각이 없어 그의 말씀을 감지할 수 없었나이다.’[니파이전서 17:45]”(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60쪽)

• 레이맨과 레뮤엘은 “감각이 없어” 성신의 말씀을 “감지”할 수 없었다.(니파이전서 17:45)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런(1917~2008) 장로는 영적인 무감각은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님의 교회에 속한 일부 회원들이 성신의 은사로 누리는 ‘특권을 외면한 채 생활’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가 됩니다. 회원 중에는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긴 나머지 성신의 영향력이 차단되어 영적 속삭임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란스럽고 분주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꼭 영적인 삶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 일들이 영적인 일들을 밀어냅니다.

어떤 이들은 죄를 범했기에 영적으로 둔화되어 감각이 없고, 또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안주하여 더 발전하거나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소망이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말할 수 없이 큰 은사인 성신의 연단하는 영향력에 마음을 연다면, 새롭고 영광스러운 영적 차원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들 눈에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시야가 들어올 것입니다. 탁월하고 귀중하며, 영혼을 키워주고 생각을 넓혀주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마음을 채워 주는 성령의 일들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리아호나, 2003년 5월호, 27쪽)

니파이전서 17:45

이 구절을 살펴보고 주님께서 다른 때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실지 생각해 본다.

니파이전서 18:9. 춤과 노래

• 어떤 사람들은 니파이전서 18장 9절을 읽고 주님께서 춤과 노래를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기도 한다. 니파이는 그들이 춤과 노래에 그치지 않고 “대단히 무례하게 말하기”(니파이전서 18:9) 시작했을 때 정도에서 벗어났다고 두 번 언급했다. 무례하다는 말은 과격하거나 저속하거나 거칠다는

뜻이다. 주님께서는 적절한 춤과 노래(시편 149:1~4; 교성 136:28 참조)는 허용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들 구절에서 춤과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한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사탄은 춤과 음악을 이용하여 우리를 타락시키고 영을 잃게 할 수 있다.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듣는 음악과 춤추는 방식에 대해 경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권고했다.

“여러분이 듣는 음악을 신중히 선택하십시오. 음악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지 주의하십시오. 영을 물러가게 하거나, 부도덕을 조장하거나, 폭력을 미화하거나, 추하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 음악을 듣지 마십시오.

춤은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잘못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춤을 출 때 상대방과 신체를 완전히 밀착하는 일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자세나 동작을 취하지 마십시오. 복장, 몸차림, 조명, 가사, 음악 등이 주님의 영이 함께할 수 있는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무도회를 계획하고 그러한 무도회에만 참석하십시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20~21쪽)



니파이전서 18:25. 말

• 서반구에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전에 말이 있었는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고고학적 발견으로 이 주제는 새롭게 조명되었다. “가장 최근 지질 시대에 쌓인 퇴적물에서, 현존하는 말과는 조금 다르게 작고 열등한 종의 말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화석이 북쪽 에솔즈 만에서부터 남쪽으로는 파타고니아까지 거의 미대륙 전역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에스파냐 정복 시대에 이르러 그 대륙에서 말이 완전히 멸종해 야생이든 가축용이든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이 멸종과 함께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유럽에서 야생 말을 들여왔을 때 기후와 먹이 및 기타 환경 조건이 상당히 잘 맞았던 남미와 텍사스 평지에서 그 수가 급속히 불어난 일이다. 앞서 말한 그 말들이 미대륙 전역에 대규모로 서식했던 일과 그들의 완전한 멸종, 그리고 다시 말을 들여왔을 때 환경에 완벽히 적응한 일은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아직도 지리적 분포에 관해 풀리지 않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New Americanized Encyclopedia*, Vol. 5, p. 3197)(Joy M. Osborn, *The Book of Mormon—The Stick of Joseph*, 2nd ed. [2001], 164)

생각해 볼 점

- 니파이는 어떤 성품을 지녔기에 주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면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물론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까지도 돈독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 성신의 속삭임을 무시하거나 그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제언 과제

- 리아호나의 목적과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짤막한 글을 써 본다.
- 다음 각 참조 성구에 나오는 교리나 원리를 찾아 적는다.

니파이전서 16:28 _____

니파이전서 17:13~14 _____


니파이전서 17:45~46 _____

니파이전서 18:15~16 _____

- 니파이전서 7장 16~18절에서 니파이가 풀려난 경험을 니파이전서 18장 11~20절에 나오는 경험과 비교한다. 그런 후 다음 질문에 답한다.

1. 신앙도 의로움도 변한 게 없는 동일한 인물인 니파이가 첫 번째 경험에서는 즉시 풀려나고 두 번째 경우에는 나홀이나 지난 뒤에 풀려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니파이전서 18장에서 어떤 일이 있고 나서야 니파이가 풀려나게 되었는가?

소개

낫쇠판을 연구하던 중 니파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관한 여러 예언을 접하게 된다. 이 중에는 이사야, 지노크, 지노크, 니움의 기록도 있었다. 니파이는 그의 백성들에게 예언을 읽어 주었다. 또한 그의 백성과 장차 이 기록을 읽게 될 사람들을 설득하여 구속주를 믿게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작은 판에 예언 중 일부를 포함시켰다.(니파이전서 19:18, 23~24 참조 )

니파이전서 19~22장을 공부하면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 주는 증거를 찾아본다. 니파이는 흠어진 이스라엘이 결국 복음의 충만함으로 회복되어 함께 모이게 되리라는 예언을 기록했다. 더 나아가 마지막 날 큰 사악함이 땅을 뒤덮을지라도 “의인들은 [주님의 보호 아래 있으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파이전서 22:17)고 가르쳤다. 주님께서 “[백성들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기]”(니파이전서 21:16) 때문에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어느 때에도 그분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으며 오늘날에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다.

해설

니파이전서 19:1~6. 두 가지 판

• 니파이는 자신이 만든 두 가지 판에 대해 기록했다. (니파이전서 9장 참조) 니파이의 큰 판에는 그의 백성에 대한 기사가 자세히 실려 있었고, 작은 판은 성스럽고 종교적인 기록이다. 니파이전서 19장 1~6절에서 “첫 번 판”과 “다른 판”은 니파이의 큰 판을 말한다. 또한 “이 판”은 니파이의 작은 판을 지칭한다.(133쪽에 나오는 몰몬의 말씀 해설 참조)



권 원, © 1982 IRI

니파이전서 19:7~9. 세상은 그를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

• 니파이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백성들이 그분을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해 매질하고 짓밟을 것이라고 기록했다. 그들에게 구주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분은 “아무 쓸 데 없[는 존재로 여겨져] …… 사람에게 밟힐 뿐이[었다.]”(마태복음 5:13)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그와 똑같은 치명적인 생각을 하는지를 지적했다. “많은 현대인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마태복음 22:42)라는 질문에 슬프게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22쪽)

• 또 다른 때에 맥스웰 장로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구주에 대한 간증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중심은 인류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계시된 대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니파이전서 19:9) 판단하거나 ‘그를 [단지] 사람이라 생각’(모사이아서 3:9)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하찮게 여길지라도 우리에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며 구주이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극히 사소한 문제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뭐라고 말하든 별로 상관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는 중대한 문제입니다.”(성도의 빛, 1984년 7월호, 29쪽)

니파이전서 19:10~16. 지노크, 니움, 지노스

• 니파이는 지노크와 니움과 지노스의 말을 인용했다. 이들은 구약 시대 선지자이며, 낫쇠판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들의 예언이 상세하게 새겨져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선지자들이 주전 600년 이전에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메시아의 삶과 성역, 그리고 이스라엘 집의 운명에 대해 명백하게 말했다.(또한 힐라맨서 8:19~20 참조) 몰몬경에 언급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 선지자에 대해서나 그리스도에 관한 이들의 예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다.

니파이전서 19:11

물리적 재앙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은 아니지만,
이 구절에서 말하는 자연 재해의 목적은 무엇인가?

니파이전서 19:21~24. ㉒경전을 자신에게 비유하기

• 니파이는 백성들에게 경전을 읽어 주고 “모든 경전을 [그들에게] 비유”했다.(23절 ㉒) 우리에게 “유익과 배움”이 되도록 어떻게 경전을 자신에게 비유할 수 있을까?(23절 ㉒) 경전을 우리 생활에 유익하게 적용하는 데 다음 질문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특정한 사건이나 원리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 레이맨과 레뮤엘이 모반한 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어떤 가르침을 얻는가? 니파이가 보여준 순종을 통해 나는 충실함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나?

이런 특정한 상황에 있거나 이러한 어려움이나 문제에 처할 때 나라면 어떻게 대처할까? 내 성격에서 어떤 결점이나 강점을 찾을 수 있나? 나는 리하이의 가족 중 광야에서 불평한 이들을 닮았는가, 아니면 니파이나 샘을 닮았는가? 상황이 힘들어지면 나는 불평하는가,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 사건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자녀들을 대하시는 방법에 대해 무엇을 배우는가? 경전에 나오는 인물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 무엇을 배우는가? 이 특정한 개념이나 원리, 사건은 왜 경전에 포함되었을까?

니파이전서 20~21장. 이사야의 기록 소개

• 니파이가 이사야서 48~49장(니파이전서 20~21장)을 그의 기록 중 이 부분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니파이전서 19장 21절에서 찾을 수 있다. “또 [주님께서]는 정녕 옛 선지자들[이사야 포함]에게 그들[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에 관하여 모든 것을 보여 주셨으며, 또한 그는 많은

자들에게 우리[미대륙에 있는 니파이인]에 관하여 보여 주셨느니라.”

니파이전서 20~21장 개관

선지자들(이사야 포함)은 “그들” 즉, 유대인을 보았다.

선지자들(이사야 포함)은 “우리” 즉, 니파이인을 보았다.

니파이전서 20장(이사야서 48장)은 “그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 관한 내용이다.

니파이전서 21장(이사야서 49장)은 “우리” 즉, 미대륙에 있던 니파이인들에 관한 내용이다.

주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유대인들을 보여 주셨다.—니파이전서 20장(이사야서 48장)

주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니파이인들을 보여 주셨다.—니파이전서 21장(이사야서 49장)

• 니파이가 그의 기록 중 많은 부분에 이사야의 기록을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인가?(니파이후서 12~25장)

니파이는 이사야를 인용한 첫 부분에서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소서. 이스라엘 집의 한 남은 자들, 꺾어져 나온 가지인 당신들이여, 당신들은 이스라엘 온 집을 위하여 기록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당신들 자신에게 비유하여 당신의 형제들, 곧 당신들이 꺾어져 나온 바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당신들도 소망을 갖도록 하소서. 이는 이같이 선지자가 기록하였음이니이다”(니파이전서 19:24)

이사야의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타락한 세상에 사는 남자와 여자에게 희망의 참된 근원이자라는 점을 증거한다. 결과적으로 니파이는 구주를 증거하는 이사야의 기록에서 수백 개의 구절을 인용했다. 한 학자는 “몰몬경에 인용된 이사야의 기록 425개 절 중에서 391개 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또는 그분의 사명에 대한 내용”(Monte S. Nyman, “Great Are the Words of Isaiah” [1980], 7)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니파이는 이사야의 간증이 자신의 간증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둘 다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니파이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리고 이제 나 니파이는 이사야의 말을 더 기록하노니, 이는 내 영혼이 그의 말을 기뻐함이라. 이는 내가 그의 말을 나의 백성에게 비유할 것임이요, 내가 그것을 나의 모든 자손들에게

보낼 것임이니, 이는 내가 나의 구속주를 본 것같이 그가 진실로 나의 구속주를 보았음이니라.

또 내가 그를 본 것같이 나의 동생 야곱 역시 그를 보았느니라. 그런즉 내가 그들의 말을 나의 자손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나의 말의 참됨을 증명하리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세 사람의 말로써 내가 내 말을 확립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많은 증인을 보내시니, 그는 그의 모든 말씀을 입증하시느니라.”(니파이후서 11:2~3)

이사야의 기록에 대한 가장 위대한 증언은 구주께서 직접 하셨다. 니파이 백성에게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마땅히 이 일을 상고하여야 하느니라. 참으로 한 가지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이 일을 부지런히 상고하라. 이는 이사야의 말이 위대함이라.

이는 정녕 그가 이스라엘 집에 속한 내 백성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하여 말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불가불 이방인에게도 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또 그가 말한 모든 것이 그가 한 말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리도다.”(제3니파이 23:1~3; 기율임체 첨가)

• 이사야의 생애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사야의 예언은 아직도 성취되고 있는 중이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사야는 주전 약 740~701년에 예언을 했다. 그의 생애 동안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은 변영했으며 우상숭배가 팽배했다. 백성들의 간악함은 영적 쇠퇴와 정치적 위기를 초래했다.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은 대 앗수르 제국에 통치를 받는 무력한 속국이 되었다. 수많은 이스라엘 북 왕국 백성들이 앗수르인에게 사로잡혀 가는 등, 사실상 이스라엘의 흠여짐은 이사야가 살아 있을 때 시작되었다.

이사야는 사악함이 야기하는 결과에 대해 반복해서 경고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상속의 땅에서 쫓겨나 흠여지고 성약에 따르는 축복을 상실하리라는 것 등 이스라엘 집에 내려질 재앙을 예언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오직 메시아를 통한 구속에서만 희망을 얻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다. 이사야의 예언 중 많은 부분은 절정의 시기와 복천년 때 구주께서 지상에 오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후기에 이스라엘이 집합하고 복음 성약이 회복될 일에 관해 상세하게 언급했다.

• 이사야의 기록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니파이가 이사야의 기록 일부를 자신의 기록에 넣기로 했을 때, 그는 많은 독자가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점을 알았다. 니파이 시대에 살던 백성들 중에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이들이 많았다. 이에 대해 니파이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1. 그들은 “유대인 가운데 예언하는 방식”을 몰랐다.(니파이후서 25:1)
2. 그들은 “예언의 영으로 충만”(4절)하지 않았다.
3. 그들은 “유대인의 것의 방식을 좇아 가르침을 받지”(5절) 않았다.

현대 독자들에게는 니파이가 제시한 이유 외에도 다른 어려움이 있다.

1. 이사야의 기록은 대부분 시 형식을 취한다. 시에 담긴 아름다움과 깊이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쉽사리 번역될 수 없다.
2. 이사야의 예언은 사실상 중의적인 표현이 많다. 따라서 그 예언들은 역사적으로 여러 시기에 다양한 상황에서 성취될 수 있다.
3. 이사야는 상징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다. 그가 언급한 사물이나 사건은 당대에 국한된 것이어서 현대에 사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 의미가 감추어지도록 비유를 사용하여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셨듯이 이사야도 듣는 사람이 가볍게 이해하기보다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했다.

• 이사야의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사야의 기록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이들은 다음 세 가지 기본 지침이 도움이 될 것이다.

1. 다른 경전을 공부한다. 이사야의 기록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은 경전에서 직접 얻을 수 있다. Bible Dictionary(영문 성경사전)에는 “오늘날 독자들이

이사야를 이해하는 데 물론경과 교리와 성약보다 더 뛰어난 해설서나 안내서는 없다.”(“Isaiah,” 707)고 나온다. 이 두 경전에는 이사야의 기록을 해석한 내용뿐 아니라 이사야의 말을 밝혀 줄 교리와 예언이 실려 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현대 경전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2. 예언의 영을 구한다. 니파이가 말했듯이 니파이 시대에 “예언의 영으로 충만”(니파이후서 25:4)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사야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모든 이들은 마음으로 깨우치고, 그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작용했던 똑같은 영,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요한계시록 19:10 참조)을 지니고 읽을 수 있도록 성신을 통해 계시를 구해야 한다.



© 1989 그레그 케이 몽슨

3. 부지런히 연구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후기 성도들이 이사야의 기록을 진지하게 연구하며 몰두하도록 격려했다.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이사야도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젓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이사야 28:9~10)’”(“Ten Keys to Understanding Isaiah,” *Ensign*, Oct. 1973, 83)

니파이전서 20:1~2. “그들이 스스로를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거니와”

- 니파이전서 20장 1~2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집을 꾸짖는다. 그들은 자신이 주님의 성약의 백성이며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성 안에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다. 이사야는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가르쳤다.(18~22절 참조)

니파이전서 20:10. “고난의 풀무”

- 극도로 높은 열을 가하면 금속은 정제되고 불순물이 없어진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우리 각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해 정제되고 정화될 수 있다고 말씀했다. “우리 대부분은 경전에서 말하는 ‘고난의 풀무’(이사야 48:10; 니파이전서 20:10)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우한 가족을 돌보는 일에 매여 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결혼 혹은 자녀 양육과 같은 의로운 목표를 상실하거나 뒤로 미뤄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장애와 소외감, 미숙함, 우울 등의 감정에 빠져 힘겨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공의와 자비를 통해 주시는 이러한 경험을 겪으면서 우리는 정제되고 성결하게 되며, 그분께서 바라시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2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세 차례에 걸쳐 큰 수술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성결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말씀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뇌, 그리고 명상을 통해 주님께서 저에게 삶의 교훈을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지속적이고 격렬한 고통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훌륭한 정화제로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 주님의 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한다면 그분의 영으로 인도 받을 것이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분의 뜻을 힘써 행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시여, 제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배우기 원하시나이까?’와 같은 직접적인 질문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매우 중대한 그 시기에 경전을 공부하면서 휘장은 얹아졌고, 저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생애에 기록된 것과 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이, 네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역경과 네 고난은 잠시 뿐이리니,

그리고 나서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 너는 너의 모든 원수를 이기리라.’(교서 121:7~8)

저는 영을 통해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확신과 함께 평안과 위로를 받았으며, 절망이 드리운 어두운 순간은 복음이 발하는 빛으로 금세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끔 저는 제가 배워야 할 교훈을 확실히 배웠으며 더 이상 고통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러한 간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결하게 되는 그 시험 과정을 주님의 시간에 따라 주님의 방법대로 견뎌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리아호나, 2001년 1월호, 6쪽)

니파이전서 20:14, 20. 바벨론

- 다른 거대한 고대 제국과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부와 영광을 거머쥐자 도덕적 몰락과 사악함과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 바벨론의 타락은 너무나 광범위해서 그 이름 자체가 세상적, 영적 사악함과 사탄의 왕국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메데에게 명하여 사악함에 빠진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하셨다.(이사야 13:17~22 참조)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주전 약 538년에 메데와 바사 연합군이 거대한 유프라테 강에 댐을 건설한 뒤 강바닥을 행군하여 건너고 바벨론 성벽 아래를 뚫고 지나 와서 도시를 점령하여 왕국을 멸망시켰다. 이사야가 바벨론을 언급할 때는 실제 왕국뿐 아니라 영적 바벨론이라는 의미도 포함된다. 이사야는 그의 시대에 있던 [왕국] 바벨론이 멸망하는 광경을 시현으로 생생하게 목격했는데, 이는 바벨론 백성들의 간악함이 몰고온 결과였다. 따라서 이사야가 예언에서 언급한 바벨론이라는 용어는 후기의 영적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에 내려질 심판을 상징하는 말이다.(교성 1:16 참조)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아가[라]”(니파이전서 20:20)는 이사야의 권고는 교리와 성약에서 더 명확해진다. “주의 기구를 메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 바벨론”인 사악함에서 떠나 깨끗해져야 한다.(교성 38:42; 133:5, 14)

니파이전서 21:13~16. 여인이 자식을 잇을 수 있는가?

-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여인이 젖을 먹이는 어린아이를 잇을 수 없는 것처럼 구주께서 우리를 잇으신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적인 표현은 시온의 자녀를 보살피고 구속하는 부모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라면 누구나 그렇듯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이 고난을 겪을 때 자비를 보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니파이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안과 자비는 세상 그 어떤 부모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점을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혹 어떤 어머니는 젖먹이를 잇을 수도 있는 반면(모든 부모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듯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구속하신 자녀들과 시온의 구원을 위해 맺으신 성약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세심한 보살핌과 성약을 기억하게 하는 고통스러운 방편은 로마인들이 그분의 손에 박은 못자국입니다. 이 못자국은 바로 구대륙에 있던 그분의 제자들과 신대륙에서 그분께 모여든 니파이인들과 후기에 세워진 시온에 있는 우리에게 그분께서 세상의 구주이시며, 친구의 집에서 상처를 입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시입니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1997], 84)

니파이전서 21:23. 양육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 니파이는 주님께서 흠어진 이스라엘을 보살피기 위해 이방인 국가를 세우실 것이라고 설명했다.(니파이전서 22:6~9 참조) 이 예언이 성취되는 한 과정으로서 이방 나라인 미국에서 복음이 회복되었다.(교성 109:60 참조) 복음은 사람의 자녀들에게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회복시켜 주고(교성 66:2 참조) 전 세계에 흠어져 영적 기근을 겪는 이스라엘(아모스 8:11~13 참조)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기호”(니파이전서 21:22)이다. 복음의 회복에 관한 이 비유는 세상 사람들의 영적 건강을 보살피기 위해 가지고 나아가갈 “기름진 것의 잔치”를 나타낸다.(교성 58:6~11 참조)

니파이전서 22:4. “바다의 섬들”

• 한 학자는 “바다의 섬들”이 뜻하는 바를 이렇게 설명했다. “니파이가 바다의 섬들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 집의 다른 잔류민이 거주할 곳을 지칭할 뿐 아니라 거의 확실히 미대륙이라고 널리 알려진 커다란 땅을 지칭한 말이며 당시에 그와 그의 백성이 그 ‘바다의 한 섬’ 위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말이다.(니파이후서 10:20~21)”(Daniel H. Ludlow, *A Companion to Your Study of the Book of Mormon* [1976], 121)

• 이스라엘의 흠어짐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부록(414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흠어짐에 대한 약사”를 참고한다.

니파이전서 22:6~9. “한 강한 나라”와 “기이한 일”

• “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 한 강한 나라를 세우[시리라]”(니파이전서 22:7)고 언급된 부분은 1776년 당시 미국을 말한다.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선언이 포함되어 있다. 이 수정 조항들은 1791년 12월 15일에 비준되었다. 미국 헌법을 통해 현대 세계에 종교의 자유가 최초로 뿌리를 내렸다.

• 니파이전서 22장 8절에서 니파이는 후기에 “이방인들 가운데 기이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성약을 “땅의 모든 족속”(9절)에게 알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권 열쇠를 회복하는 일이 이 위대한 일에 포함된다.

7절에 언급된 사건은 8절에 기록된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다. 국가가 종교를 강압하는 나라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복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의 자유를 법으로 공표하고 시행하는 나라가 있어야 했다. 조셉 스미스는 헌법 수정 조항이 비준된 지 불과 14년 후인 1805년에 태어났다.

니파이전서 22:6~12. 이스라엘의 집합

•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부록(415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집합”을 참고한다.

니파이전서 22:10~12. “그의 팔을 드러내사”

• 니파이는 하나님께서 “만국의 목전에 그의 팔을 드러내[실 것이라]”(니파이전서 22:11)고 말했다. 이사야도 이와 유사한 언급(이사야 52:10)을 했다. 팔은 힘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팔을 드러내[신다]”는 말은 그분의 권능을 온 세상에 보이시리라는 의미를 비유로 나타낸 표현이다.

니파이전서 22:13~17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의로운 사람들이 사탄에게 지배받지 않도록 지켜 주는 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니파이전서 22:17, 22. “의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나니”

• 니파이는 마지막 시대에 재앙이 있을 동안 의인들은 주님의 손길로 보호받을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파이전서 22:17, 22)고 기록했지만, 반면에 사악한 사람들은 아무런 보호도 약속받지 못한다. 브루스 알 맥퉁키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다가오는 황폐의 시기에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받을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명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안전을 약속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성도의 벗, 1979년 10월호, 144쪽)

니파이전서 22:24. “외양간의 송아지”

•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복천년 시기에 자라날 어린이들은 “오늘날 세상에 만연한 죄와 유혹 없이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의로움 가운데서 성장할 것”(The Way to Perfection [1970], 299)이라고 가르쳤다.

• 방목장이나 산에서 자란 송아지와 축사에서 기른 송아지가 어떤 점이 다를지 깊이 생각해 본다. 방목장에서 자란 송아지는 곳은 낱씨, 포식 동물, 그리고 가끔 먹이와 물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는 등 온갖 자연의 힘에 의해 지배받는다. 반면, 축사나 외양간에서 기른 송아지는 곳은 낱씨와 포식 동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니파이는 “의인들이 반드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인도[될] …… 때가 속히 오나이다.”(니파이전서 22:24)라고 가르쳤다.

한 경전학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재림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외양간에서 송아지를 기르듯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송아지는 잘 통제된 환경에서 여러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받습니다.(말라기 4:2; 니파이전서 22:24) 그와 마찬가지로 복천년 때 어린이들은 ‘죄 없이 자라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교성 45:58) 별의 영광의 요소가 사라지고 사탄은 결박될 것이며(요한계시록 20:1~3; 니파이전서 22:26; 교성 101:28) 환경이 더욱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Monte S. Nyman and Farres H. Nyman, *The Words of the Twelve Prophets: Messages to the Latter-day Saints* [1990], 145)

니파이전서 22:26. 사탄은 어떻게 결박될 것인가?

• 니파이는 복천년 동안 사탄이 어떻게 결박될 것인지를 경전에서 명확하게 설명했다.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 중요한 구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기록했다.


“사탄을 결박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탄은 어떻게 결박될까요? 현대에 받은 계시에는 ‘그리고 그 날에 사탄은 어떠한 사람도 유혹할 힘을 가지지 못[한다.](교성 101:28)고 나옵니다. 사탄이 더 이상 인간을 악으로 이끌어 가지 못하도록 그에게서 권능을 거두어 간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선을 저버리고 사악한 사탄을 따르기를 거절할 만큼 사람의 마음이 의로움으로 굳건해져서 더 이상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된다는 뜻일까요? 분명히 후자일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에게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그들을 유혹할 권리와 권능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늘의 하나님 면전에서 결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결박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도 선택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천년 동안 사탄은 어떻게 결박될까요? 바로 백성들의 의로움으로 사탄은 결박될 것입니다.”(*The Millennial Messiah* [1982], 668)

생각해 볼 점

- 니파이전서 19장 18절에서 니파이는 그의 백성을 “설득하여 그들의 구속주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니파이가 말한 기록의 목적을 기억하면 여러분의 개인 경전 공부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 니파이전서 21장 16절을 읽고, 구주께서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신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신다고 확신하는 데 이 구절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제언 과제

- 니파이는 지노크, 니움, 지노스의 예언을 인용했다. (니파이전서 19:10 참조) 이들은 구약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였으나 성경에는 이들의 예언이 나오지 않는다. 경전 색인이나 경전 안내서를 활용하여 지노크와 지노스가 한 다른 예언을 몇 가지 찾아본다. 이들의 예언은 니파이 백성에게 어떤 특별한 중요성을 띠는가?(제3니파이 10:16 참조) 또한 이 예언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니파이전서 19장 21~24절  해설(42쪽) 부분에서 각 단락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에 답해 본다.
- 절정의 시기에 세상은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니파이전서 19:7, 9)했다. 오늘날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지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본다. 이러한 세상의 영향력에 맞서 싸우고 구주에 대한 간증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단락으로 요약해서 써 본다.

제 7장

니파이후서 1~3장

소개

리하이가 자녀들에게 남긴 마지막 충고와 권고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하다. 그는 아들 야곱에게 창조와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관계를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가르쳤다. 아들 요셉에게는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 대한 예언적 선언과 더불어 후기에 그와 이름이 같은 조셉 스미스 이세를 통해 복음이 회복될 것이라 증언했다. 후기에 복음이 회복되리라는 예언이 성취된 점과 구원의 계획에 관해 자세히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간증이 더욱 커질 것이다.



개리 린 © IRI

해설

니파이후서 1:5~11. “자유의 땅”

-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미대륙이 복음 회복을 위해 성별된 자유의 땅이라는 점을 간증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합중국 건국 지도자들의 출현과 그들의 정부 수립을 복음 회복에 필요한 위대한 서막으로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이천 년 전에 이 약속의 땅을 방문하셨을 때 하신 말씀을 다시 상기해 봅시다. ‘이는 그들이 이 땅에 세워져 아버지의 권능으로 자유로운 백성이 되어, 이러한 일들이 …… 이루어지게 함은 아버지 안에 있는 지혜임이라.’(제3니파이 21:4) 자유의 땅인 미대륙은 주님께서

후기에 회복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실 근거지로 예비된 곳입니다.”(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4쪽)

- 칠십인인 에두아르도 아얄라 장로는 이제 충실한 회원이 사는 곳이면 어디서든 복음을 통해 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족과 국가는 세상이 진보함에 따라 그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서리가 내리는 고산 지대이든, 온난한 계곡이든, 강가든, 사막이든 우리 교회 회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변함 없이 이러한 기본 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그들 덕분에 다른 사람들도 축복을 받습니다.”(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30쪽)

니파이후서 1:10~11

주님께서는 리하이의 자손들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을 때 “흠여지게 되고 매맞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니파이후서 1:13~23. “지옥의 잠”에서 깨어나라

- 주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일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으며 이전에 얻은 빛과 진리를 잊어버리게 만든다.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 위험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다. “불순종에 따른 한 가지 결과로,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끊어지면서 모든 감각을 마비시켜 버릴 만큼 충분한 양의 영적 마취제가 생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진리에 대한 간증이 서서히 무너져내릴 뿐 아니라 빛 가운데 걷는 느낌이 어땠는지 그 기억도 망상처럼 …… 여겨지기 [시작합니다.]”(“A Life Founded in Light and Truth,” *Brigham Young University 2000~2001 Speeches* [2001], 81)

니파이후서 1:22. 영원한 멸망

- 니파이후서 1장 22절 말씀은 사악한 자의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소멸되거나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 영혼은 본질적으로 영원하며,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육신은 부활할 것이다.(앨마서 11:43~44 참조)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니파이가 언급한 영혼이 멸망한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했다.

“멸망이란 소멸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 배웠기 때문에 영혼이 소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지상에 태어난 모든 영혼은 부활과 불멸을 얻으며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은 소멸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멸망당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주님 면전에서 추방되고 빛과 진리로부터 잘려 나가 승영하는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입니다.”(*Doctrines of Salvation*, comp. Bruce R. McConkie, 3 vols. [1954~1956], 2:227~228) 사악함은 더 높은 등급의 영광으로 부활한 기회를 파멸시킨다.(교성 88:30~31 참조)

니파이후서 2:2. 고난을 성별하사 유익이 되게 하시리라

- 니파이후서 2장 2절에서 리하이이는 고난을 견뎌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교성 98:3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고난을 지상 생활의 목적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게 되는지를 설명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어려움과 역경을 인생의 목적이라는 맥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기 위해 이곳에 보내졌습니다. 모든 것에는 반대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대되는 것과 어려움을 겪어 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칠 때 배우고 성장합니다.”(*리아호나*, 2003년 5월호, 97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우실 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신다고 설명했다. “모든 일이 잘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시련이 동시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런 시련을 겪는 것이 아니라면 그 시련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더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신다는 증거입니다.(잠언 3:11~12 참조) 따라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영원한 유익을 위해 스스로를 연단할 수 있도록 성장과 이해력과 동정심을 자극하는 경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현재 위치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그 노력은 대개 곤경과 고통을 수반합니다.”(*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16쪽)

니파이후서 2:4.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것”

- 구원이란 “육체적 및 영적 사망 모두에서 구함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적 사망에서 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사망에서 또한 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신앙은 율법 및 복음의 의식들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의 생활에서 나타난다.”(경전 안내서, “구원”)

-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를 통해 구원의 계획은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렇다고 모든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보상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엘마가 증거했듯이 “누구든지 오고자 하는 자는 와서 생명의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경고도 덧붙였다. “누구든지 오고자 아니하는 자는 오도록 강제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에게 회복되리라.”(엘마서 42:27)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구원은 거저 주어진다. 무엇을 믿고 어떤 삶을 선택하든지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니파이후서 2:6~30. 창조, 타락, 속죄

-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창조, 타락, 속죄의 상관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통찰을 나누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희생을 믿는 참되고 충만한 신앙은 구원에서 필수 요소이며, 타락이라는 교리를 참되게 받아들이고 믿지 않고서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타락이 없었다면 구속주나 구주는 필요없었을 것입니다. 불멸과 영생이 모두 타락에서 출발하므로, 이 타락에 대한 신앙은 동시에 창조라는 교리를 참되게 받아들이고 믿지 않고서는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죽음에 없는 불멸 상태로 창조하지 않았다면 타락 역시 있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속죄도 구원도 모두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에서 창조와 타락과 속죄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 세 가지가 서로 엮여 하나의 전체를 이룹니다.”(*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1985], 82)



- 다른 자리에서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또한 이렇게 설명한 바 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 중에 영원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사건은 …… 창조와 타락과 속죄입니다.

만물이 물질적으로 창조된 일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창조, 타락, 속죄라는 세 가지 영원한 진리가 어떻게 불가분한 관계로 얽혀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 이 가운데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각 원리는 모두 다른 두 원리와 연결됩니다. 또한 이 세 가지를 모두 알지 못하면 그 어느 한 가지도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

그러나 타락이 있었기에 속죄가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행한 범법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타락이 없었다면 속죄는 물론 그에 따르는 불멸과 영생도 없었을 것입니다. 속죄가 있기에 구원이 온다는 사실이 확실하듯, 타락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온다는 사실도 확실합니다.”(“그리스도와 창조”, 성도의 빛, 1983년 9월호, 22쪽)

니파이후서 2:5~6. “율법으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니”

- 의롭게 됨이 의미하는 바는 “죄에 대한 형벌에서 사면되어 죄가 없다고 선언되는 것이다. 사람은 구주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그의 은혜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신앙은 회개와 율법 및 복음의 의식에 대한 순종에 의해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인류가 회개하여 의롭다 함을 얻거나 또는 그들이 얻게 될 형벌에서 사면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경전 안내서, “의롭게 됨, 의롭게 되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물문경에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했다.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니파이후서 2:5)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모사이아서 2:21 참조)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문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은 이미 타락하였으므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하[니라.]’(엘마서 22:14) ‘무한한 속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세상의 죄를 위하여 충분할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엘마서 34:12; 또한 니파이후서 9:7; 엘마서 34:8~16참조) ‘그러한즉 구속은

거룩하신 메시아 안에서 거룩하신 메시아를 통하여 임하니 …… 그는 죄를 위한 희생으로 자신을 바치사 …… 율법의 목적에 부응하시[느니라.]’(니파이후서 2:6~7)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는 이유는] ……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입니다.]’(니파이후서 25:26)”(성도의 빛, 1989년 1월호, 74쪽)

니파이후서 2:8.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

- 브루스 시 하펜 장로는 칠십인 정원회로 부름 받기 전에 속죄는 단순히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속죄는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기이한 힘이다. “저는 한때 회개하기를 거절하지만 나중에 짓값을 치러서 공의의 율법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해의 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가 하는 의문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해의 왕국의 삶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공의의 율법을 충족시키는 것보다 더 높습니다. 짓값을 치른다고 해서 죄를 회개할 때에만 얻는 그런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공의는 균형과 질서의 율법이며, 우리가 대가를 치르든지 그분께서 치르시든지 둘 중 한 가지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그분의 권유를 거절한다면, 우리가 직접 공의를 충족시킨다 해도 여전히 신성한 도움과 진정한 회개를 통해 일어나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 뿐입니다. 이 두 가지 힘은 협력하여 우리 마음과 삶을 영속적으로 변화시킬 힘을 발휘하므로 우리는 해의 영광의 삶을 살 준비가 됩니다.”(*The Broken Heart: Applying the Atonement to Life's Experiences* [1989], 7-8)

-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우리가 진 빛을 청산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자비에 대해 느끼는 바를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없는 공덕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체를 받았을 뿐 아니라 육신으로도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하고 죄 없는 삶을 사셨고, 따라서 공의의 요구에서 자유로우셨습니다. 사랑, 동정심, 인내, 순종, 용서, 겸손을 포함해 그분의 모든 성품은 완전했고, 또한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의

자비가 공의에 진 우리의 빛을 대신 갹습니다.”(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42쪽)

니파이후서 2:11~13
왜 반대되는 것이 필요한가?

니파이후서 2:11~14.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이라”

•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반대되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더욱 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생은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때로 그런 어려움은 쓰라리고 참기 힘듭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아무런 시련도 겪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거스르는 일일 것입니다.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이 꼭 필요(니파이후서 2:11)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이 바로 우리 힘의 근원입니다.”(리아호나, 2004년 5월호, 80쪽)

• 에스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반대되는 것이 있기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경에서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이 꼭 필요(니파이후서 2:11)하다고 가르치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반대되는 것이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해야 좋은 나쁜든 결과가 생깁니다.

물론경에는 사람이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힘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다’(니파이후서 2:27)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악마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있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악마는 우리도 자기처럼 비참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계명을 주십니다. 악마는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 우리가 이러한 계명을 어기도록 유혹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저주받기를 원하는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비참해지기를 원하는가? 이

양쪽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우리의 소망과 생각과 행동에 따라 선택합니다.”(성도의 빛, 1988년 7월호, 6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반대되는 것이 어떻게 행복과 관련이 있는지 설명했다. “참으로 선택이 없다면, 다시 말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고 반대되는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의지가 없고 서로 반대되는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구분도 없이 ‘혼합되어 하나(니파이후서 2:11)가 될 것이라는 리하이의 비유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땅도 ‘그 창조의 목적에 아무 목적 하는 바가 없[을]’(니파이후서 2:12) 것입니다. 도덕적 선택의지를 현명하게 사용하지 않는 한, 적어도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따라서 참된 행복도 느낄 수 없습니다.”(One More Strain of Praise [1999], 80)

니파이후서 2:15.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의 나무

•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를 설명했다. “타락과 관련한 경전 기록에는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하나는 영생을 상징하는 생명의 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은 필멸과 그에 관계된 모든 것이 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비유로 나타냅니다.”(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86)

니파이후서 2:15. 무엇이 금지되었는가?

•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모세서를 살펴보면 주님께서 아담에게 그 열매를 따 먹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경 기록상으로는 주님께서 아담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 것을 금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모세서에서 보듯이 원본에서는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서 그 상태로 머물고 싶다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며, 그러나 [열매를] 먹고 죽음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1966], 4:81)

니파이후서 2:15~16, 26~27. 스스로 행하는 존재

• 하워드 더블류 헌터(1907~1995) 회장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택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선택하고 배울 자유를 누리면서 지상 생활에서 계속 성장하고 진보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새로운 육신의 주인이 되어 그 육신을 다스리며 우리 신앙과 의지를 행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대에 받은 계시를 통해 우리는 지금은 잊혀진 오래 전에 사탄이 우리의 독립성과 선택의지를 빼앗으려 했으며, 바로 이 순간에도 그런 시도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참으로 사탄은 아버지께서 제안하신 선택하는 자유를 강렬하게 반대했으며, 너무 강력히 반대했기에 요한은 계시록에서 그 일을 ‘천국 전쟁’(요한계시록 12:7)으로 묘사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억압하려 했으며,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소중한 은사 즉, 우리 모두가 얻기를 소망하는 신성한 미래와 승영을 선택할 자유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수호하려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용기가 있었기에 우리는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영원한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우리가 필멸의 세상에 올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아셨듯이(예레미야 1:5 참조) 문자 그대로 그분의 영의 자녀인 우리를 아셨고, 우리 믿음과 종교적 확신에 관하여 자신이 나아갈 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루시퍼를 이기시고, 후에 지상에서 아담이 타락하여 생긴 결과와 모든 인류에게 닥칠 죽음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자녀들(은) …… 선악을 분별하며 영원히 자유롭게 되었으며] ……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

이 선택의지라는 은사와 그 무한한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는 강압과 전면 대결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득과 안내와 오래 참음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권유와 친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행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가 지닌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해 주시며 행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며 도움 기회를 간절히 구하시지만 우리 선택의지를 침범하여 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선택의지를 침범하는 일은 그분의 신성한 성품과는 상충됩니다.”(성도의 빛, 1990년 1월호, 22쪽)

니파이후서 2:17~18. “하나님의 한 천사가 …… 악마가 되었나니”

•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은 루시퍼가 어떻게 권세있는 위치에서 추락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루시퍼는 반역으로 쫓겨나 사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모든 거짓의 아비인 악마라. 사람들을 속이며 눈멀게 하며, 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모세서 4:4) 그러므로 한때 하나님의 천사로 권세를 지니고 하나님 면전에 거하던 그는 하나님과 아들 앞에서 내쫓겼습니다.(교성 76:25 참조) 이 때문에 하늘에서는 크게 슬퍼했습니다. ‘여러 하늘이 그를 위하여 울었음이라-그는 루시퍼니, 아침의 아들이더라.’(교성 76:26)”(리아호나, 2007년 1월호, 5쪽)



출처: © 1999 IRI

니파이후서 2:22.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 아담의 타락

•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어떻게 모든 것이 아담의 타락과 연관되는지 설명했다. “그 후에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필멸하는 육신을 얻고, 출산과 사망이 시작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필멸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담은 필멸하는 육신을 받습니다. 그는 ‘땅 위에 첫 육신’입니다. 또한 아담의 타락은 모든 창조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도 필멸하는 상태로 타락합니다. 사망이 세상에 있게 되고 필멸 상태가 지배하고 출산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위대하고도 영원한 목적이 전진합니다.”(“그리스도와 창조”, 성도의 빛, 1983년 9월호, 30쪽)

“필멸 상태와 출산과 사망은 모두 타락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

무한하신 창조주께서는 태초에 지구와 인간과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 타락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이 타락으로 만물의 상태가 변했습니다. 만물은 타락하거나 변할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모든 생명체는 현재 우리보다 높은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 사망과 출산은 아직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성도의 벗, 1983년 9월호, 23쪽)

니파이후서 2:22~23. 죄와 범법은 어떻게 다른가?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죄와 범법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죄와 범법의 차이점을 생각하노라면 ‘우리는 사람이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음을 믿는다.’(기울입체 첨가)는 신앙개조 제2조의 신중한 표현이 떠오릅니다. 법률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분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살인같은 행위는 근본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범죄입니다. 반면, 면허증 없이 운전을 하는 등 기타 행위는 단지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범죄가 됩니다. 이렇게 구분해 볼 때 타락을 초래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나쁜 죄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범법이었습니다. 죄와 범법이 언제나 차이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구분이 타락의 상황에서는 의미심장해 보입니다.”(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73쪽)

니파이후서 2:22~23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 아담의 타락이 반드시 있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니파이후서 2:22~25.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요”

•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타락이 반드시 있어야 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창조 과정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살게 하면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들은 살과 뼈로 된 육신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아직 필멸 상태가 아니었기에 성장하거나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갖지 못하였[으며]’(니파이후서 2:23) 인생의 시련을 경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 아담과 이브는 천국 상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 하나님의 영의 아들과 딸들에게 육신을 마련해 주라는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 아담과 이브의 타락은 필멸의 창조를 초래했으며, 혈액 순환과 다른 여러 가지 변화와 더불어 그들에게 꼭 필요한 변화가 신체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과 그들의 후손은 부상과 질병과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33쪽)

•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아담과 이브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타락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덧붙여 설명했다.



© 1988 조셉 브러거

“무지한 상태를 벗어날 것을 선택한(니파이후서 2:23~25 참조) 아담과 이브는 범법을 했기에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를 기독교에서는 타락 또는 아담의 범법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면전에서 분리되었으며, 선택의지를 받고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

아니하게’(니파이후서 2:26) 되었습니다. 따라서 타락은 곧 영적 죽음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녀를 낳는 위대한 능력을 받았으므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세기 1:28)는 계명을 지킬 수 있었고, 후손을 통해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도 역시 모두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니파이후서 2:22~26 참조) 그러나 아담과 이브의 후손은 그 범법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에 대해서는 결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이브의 범법 때문에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일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예수님께서 구주이자 구속주로서 속죄 희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월적인 속죄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영혼은 죄를 용서받고 죄가 씻겨져서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니파이후서 9:6~9; Talmage, *Articles of Faith*, p. 89 참조) 그러나 이러한 용서는 회개와 개인적인 의로움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성도의 벗, 1989년 1월호, 13쪽)

• 브리검 영(1801~1877) 회장과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계획 중 일부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들[아담과 이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정면으로 도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주님의 계명 한 가지를 범했으며, 그 범법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범법을 하리라는 사실을 아셨으며, 그들의 행위는 이미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 [1954], 103)

“아담은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담이 그 열매를 취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와 다른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올 수 있도록 문을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

아담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곳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 영의 상태로 하늘에 머물며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Joseph Fielding Smith, Conference Report, Oct. 1967, 121-122)

모세서 5장 10~11절을 보면 아담과 이브 역시 타락에 따른 결과로 얻는 축복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개념들을 이해했다.

“내 눈이 열렸고” 그들은 선과 악을 알았다.(10절)

“육체로 내가 하나님을 뵈을 것임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10절)

“우리가 …… 후손을 [가질 것이요]” 출산하는 능력이 생겼다.(11절)

“선과 악[을] …… 알게 되었다.” 아담과 이브는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능력을 갖게 되었다.(11절)

“우리의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 알게 되었다.”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11절)

니파이후서 3:4~5. “주의 성약이 참으로 컸도다”

•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는 구약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주께서 …… 찾아오셨다.”(조셉 스미스 역 성경, 창세기 50:24)고 나온다. 리하이가 증언한 대로 요셉은 “진실로 우리의 날을 보았다.”(니파이후서 3:5) 이 말은 요셉이 리하이와 그의 후손의 시대를 보았고 장차 하나님께서 “뛰어난 선견자”(7절) 즉, 그와 이름이 같은 위대한 선지자(15절)를 세우시리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뜻이다. 요셉은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성약에 따라 이 마지막 시대에 땅의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집의 다른 잃어버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의 후손들에게 먼저 부름을 줄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다.(Bible Dictionary, “Joseph,” 716~717; 경전 안내서, “요셉, 야곱의 아들” 참조) 주님께서는 요셉과 맺으신 성약을 지키셨으므로, 우리가 의롭게 생활한다면 우리와 맺으신 성약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리하이의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셉과 맺으신 성약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분의 성약을 지키신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다.

니파이후서 3:6~9. “뛰어난 선견자”

• 선견자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숨긴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도록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은 사람(모세서 6:35~38)[이다.] 그는 계시자이며 선지자이다(모사이아서 8:13~16). 물론경에서 암몬은 선견자만이 특별한 해석기, 즉 우림과 둠뎀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모사이아서 8:13; 28:16). 선견자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안다. 고대에는 선지자가 종종 선견자라 불리웠다(삼상 9:9; 삼하 24:11).

조셉 스미스는 마지막 날의 위대한 선견자이다(교성 21:1; 135:3).”(경전 안내서, “선견자”) 니파이후서 3장 6절에 언급된 “뛰어난 선견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후손인 선지자 조셉 스미스이다.



© 1994 몰몬




• 브리검 영(1801~1877) 회장은 조셉 스미스가 비단 애굽의 요셉 시대뿐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알려진 “뛰어난 선견자”였다고 간증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오래 전에 영원에 관한 회의에서 조셉 스미스는 세상의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아들에게서 신권 열쇠와 권능의 충만함을 받을 사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지켜보셨고,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의 조상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대홍수 때, 대홍수 때부터 에녹, 에녹부터 아담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켜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뿌리에서부터 조셉 스미스의 출생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그의 가계와 혈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감리하도록 영원한 계획 하에 예임되어 있었습니다.”(Discourses of Brigham Young, 108)

•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선견자 조셉 스미스가 이전에는 세상으로부터 가려졌던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몇 가지 예를 제시했다.

1. 우주의 범위와 크기에 대한 계시(모세서 1:33; 교성 76:24 참조 )
 2. 하나님의 주요 목적에 대한 계시(모세서 1:39 참조 )
 3.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관한 계시(교성 93:29 참조)
 4. 인간의 운명에 관한 계시(교성 84:38 참조 )
 5.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개인적으로 관여하신다는 계시(엘마서 18:32 참조)
 6. 구주의 속죄가 미치는 무한한 영향력에 관한 계시(니파이후서 9:7; 교성 88:6 참조)
-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100~101쪽 참조)

니파이후서 3:6~15. 요셉의 예언

• 다음 도표는 애굽의 요셉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하여 어떤 구체적인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니파이후서 3장에 기록된 예언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건
“한 선견자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리니, 그가 내 허리의 열매들에게 뛰어난 선견자가 되리라”(6절)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 이세가 “선견자, 번역자, 선지자[라] …… 일컬음을”(교성 21:1) 받을 것이며, 조셉이 이 경륜의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지명되었다고 말씀하셨다.(교성 110:16; 112:32 참조)
“그가 네 허리의 열매 가운데서 높이 여김을 받으리라.”(7절)	몰몬경에 등장하는 백성의 후손 수백만 명이 조셉 스미스를 회복의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가] 네 허리의 열매[를] …… 위하여 한 가지 일을 …… 할 것인즉 이는 그들에게 큰 가치가 있으리니”(7절)	리하이의 자손 중 많은 이들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복음 빛으로 축복을 받았다.
“[그는] 내가 그에게 명하는 일 이외에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요”(8절)	조셉 스미스의 인생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그는 성역 초기에 몰몬경을 번역하라는 명을 받았다. “너는 이 판을 번역하는 은사를 가졌나니, 이것은 내가 네게 부여한 첫 은사라. 그리하여 나는 이에 대한 내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네가 다른 아무 은사를 요구하지 말 것을 명하였노라. 이는 그 일을 마치기까지 나는 다른 아무 은사도 네게 허락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교성 5:4)
“그가 모세와 같이 크게 되리니”(9절)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 조셉 스미스는 이스라엘을 집합시킬 열쇠를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한 것같이 그들을 인도할 사람 하나를 나의 백성을 위해 일으키리라.”(교성 103:16) 이는 조셉이 모세와 닮은 여러 가지 면 중 하나이다.
“그에게 내가 권능을 주어 네 허리의 자손들에게 나의 말을 가져다주게 하며”(11절)	조셉 스미스는 리하이의 자손에게 그들 조상의 기록을 번역해 주었으며(교성 3; 5; 10편 참조) 이와 더불어 여러 계시도 전해 주었다.
“네 허리의 열매가 …… 함께 자라 거짓 교리들을 무너뜨리며”(12절)	몰몬경과 여러 현대 계시는 성경에 있는 많은 복음 원리와 교리에 관해 명백하고 권위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교성 20:8~15; 42:12 참조)

니파이후서 3장에 기록된 예언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건
“연약함으로부터 그가 강하게 되리니”(13절)	농장에서 일하는 비천한 소년이 회복의 선지자가 되었다.
“그를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이 좌절될 것이다.”(14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제3니파이 21:10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보호받았다.(교성 121:16~22 참조)
“그의 이름은 나를 따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의 부친의 이름을 따를 것이며”(15절)	조셉 스미스 일세의 셋째 아들인 조셉 스미스 이세는 부친을 따라 이름 지어졌다.(조셉 스미스—역사 1:4 참조)
“이는 주께서 그의 손으로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실 일[복음과 복음 의식들이 나의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15절)	조셉 스미스는 주님의 의식과 교회를 회복하여 영생을 얻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니파이후서 3:12. 물문경과 성경이 “함께 자라”

•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물문경과 성경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설명했다. “구약전서와 신약전서 …… 그리고 …… 물문경은 이제 둘 중 하나를 깊이 연구하면 다른 하나에 이끌리고, 한쪽에서 배우면 다른 한쪽에서 깨닫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 두 경전은 참으로 우리 손에서 하나입니다.”(성도의 빛, 1983년 1월호, 8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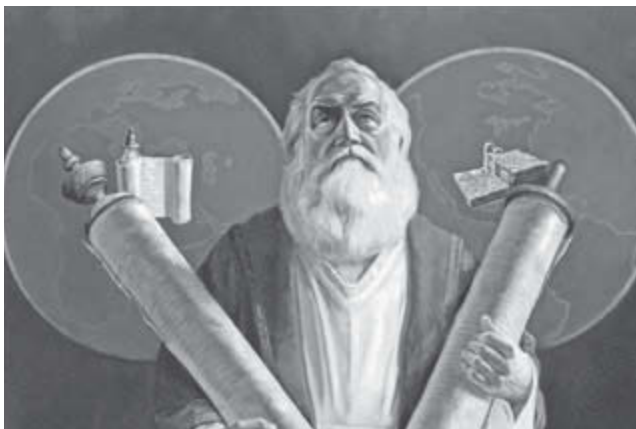
그것을 선포하게 하리라.’ 즉, 물문경을 기록한 사람은 물문이지만 물문의 기록은 사실 니파이 백성 중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에서 가져왔습니다. 물문은 그 기록들을 한 권의 책으로 편집했고, 조셉 스미스가 이 책을 번역하여 레이맨인에게 전하게 했습니다.”(*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1985], 426)

생각해 볼 점

- 창조와 타락과 속죄는 어떤 면에서 서로 연관되는가?
- “지옥의 잠”(니파이후서 1:13)이라는 말에서 사탄의 술책에 대해 어떤 점을 알 수 있는가?
-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우리 미래의 모습은 우리가 겪는 시련, 역경, 고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니파이후서 2:2 참조)

제언 과제

- 창조, 타락, 속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글을 한 단락 써 본다.
- 니파이후서 2장 5~10절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은 우리와 다른 믿음을 따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면 어떻게 말하겠는가?
- 니파이후서 3장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직접 관련이 있는 예언을 여섯 가지 이상 찾아 적어 본다.



니파이후서 3:18. 언급된 각 백성은 누구인가?

•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니파이후서 3장 18절에 언급된 백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밝혀 주었다. “주님께서 하신 다음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또 내가, 보라, 내가 그로 하여금 네 허리의 열매[레이맨인]를 위하여 네 허리의 열매[니파이인]가 기록한 것을 기록하게 하고, 네 허리의 대변자[조셉 스미스]로

소개

죽음을 앞둔 리하이이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계명을 지키면 번성할 것이지,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면 주님 면전에서 끊어지리라고 약속했다.(니파이후서 4:4 참조) 주님께서는 니파이가 성역을 시작한 초기 때에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니파이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길대 번성할 것이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리니, …… [그 땅은] 참으로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이라고 말씀하셨다.(니파이전서 2:20) 이와 더불어 주님께서는 니파이의 형들이 니파이를 거역하면 “주의 면전에서 끊어지게 되리라”(니파이전서 2:21)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은 레이맨과 레뮤엘을 따르는 반역자들에게서 니파이 백성이 떠나갔을 때 성취되었다.

우리 모두는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니파이후서 4~8장에는 훌륭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잘 나타난다. (1) 리하이가 손자 손녀들을 축복할 때, (2) 니파이의 반성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리나온 주님에 대한 찬양, (3) 니파이인과 레이맨인이 분리될 때, (4) 이스라엘의 집합과 흠여집에 관한 야곱의 가르침에서 특히 그러하다.

해설

니파이후서 4:3~11. 리하이가 가족을 축복하다

• 리하이이는 죽음을 맞기 전에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 우리 시대 주님의 종들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계속 강조한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한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1998년 10월호; 또한 교성 68:25~29 참조)

후기 성도 부모들은 대부분 이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리셀 벨라드 장로는 가족을 중시하는 우리의 면모가 자녀 양육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가족을 중심에 두는 우리 후기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자녀를 진정으로 우리 영의 형제 자매로서 지극히 존중하고,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시간을 바쳐 헌신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42쪽)

니파이후서 4:5

이 구절에서 우리는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중요한 원리를 배우는가? 부모들은 이 원리에서 어떻게 용기와 신앙을 얻을 수 있을까?

니파이후서 4:7~10. 레이맨과 레뮤엘의 자녀들

• 하나님께서는 리하이가 레이맨과 레뮤엘의 자녀들에게 준 자비로운 약속을 성취하셨으며, 그 성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물론경에서 우리는 레이맨과 레뮤엘의 자녀들에게 준 리하이의 약속이 성취된 예를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다.(엘마서 17~26장; 힐라맨서 5~6장; 13~15장 참조) 후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레이맨과 레뮤엘의 자녀들에게 준 리하이의 자비로운 약속을 계속 성취하고 계신다.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가 가족에게 진리에 대한 간증을 전하고자 충실히 노력하면 그 힘은 몇 배로 커질 것이고 시간도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족들에게서 그런 증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남미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런 증거를 보았습니다. 선교사 수백 명이 제 눈을 깊숙히 바라보며 악수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셔서 리하이와 새라이아의 후손인 그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는 확신으로 거의 압도될 정도였습니다. 숨을 거둘 무렵, 리하이이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간증을 전했으며 그들을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리하이와 그 밖에 다른 선지자들의 간증과 경전에 기록된 간증을 거부했을 때 리하이의 후손들은 무서운 비극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선교사들의 눈과 얼굴을 보면서 리하이의 성약의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리아호나, 1996년 5월호, 64쪽)

니파이후서 4:15~16. “나의 영혼이 경전을 기뻐하며”

• 본부 초등학교 회장인 쉐릴 시 랜트 자매는 니파이후서 4장 15절에 효과적으로 경전을 읽는 세 가지 방법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 방법은 첫째, 경전을 기뻐하고 둘째, 경전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셋째, 경전 말씀을 우리 삶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몰몬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 ‘나의 영혼이 …… 기뻐하며’ 저는 이 구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지식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지만 경전을 기뻐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경전에서 무엇을 얻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경전을 읽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인생에서 현재 제가 선 위치, 제가 겪는 일들, 그리고 태도, 이 모든 것이 제가 경전에서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경전을 사랑하며 경전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진리를 마음에 소중히 간직합니다. 격려와 인도, 위로와 힘, 저에게 필요한 해답을 얻으면서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삶이 더욱 밝게 보이고, 제 앞에 길이 열립니다. 경전을 읽을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확인합니다. 확실히 경전은 제게 기쁨입니다. 해남반 어린 소년이 말한 것처럼 ‘저는 경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둘째, ‘나의 마음이 이를 깊이 생각하며.’ 저는 마음속에 경전 말씀을 간직하는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경전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영은 제게 화평과 위안을 줍니다. 제가 얻은 지식은 저를 인도하는 지침이 됩니다. 저는 순종에서 비롯된 자신감을 얻습니다. ……

[셋째,] 물론 저는 니파이처럼 경전을 기록하지는 않지만 경전을 읽고 배운 원리대로 생활할 때, 그 경전 구절들은 제 삶에 기록됩니다. 그 구절들은 제 행동을 다스리며, 자녀들이

보고 따르도록 제 행동에 기록됩니다. 저는 경전에서 배우는 원리를 토대로 의로운 삶을 사는 전통과 유산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76~77쪽)

니파이후서 4:15~35. 니파이의 시편

• 시편은 “영감받은 시 또는 찬송가”(경전 안내서, “시편”)이다. 고대 히브리 시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가슴 깊이 주님께 부르짖는 니파이의 시편인 니파이후서 4장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 시편은 소리 내어 읽어야 한다. 니파이의 시편에 담긴 영을 느끼기 위해 소리 내어 읽어 본다.

니파이후서 4:17~18. 우리는 죄와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

• 우리는 몰몬경 전체에서 니파이가 지닌 의로움과 고난 중에 보여준 충실함,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니파이도 “오 나는 곤고한 자로다! …… 나는 나를 그처럼 쉽게 괴롭히는 유혹과 죄로 인하여 에워싸였도다.”(니파이후서 4:17~18) 하고 부르짖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이렇게 가르쳤다. “인간은 완전에 근접할수록 시야가 더욱 맑아지고 기쁨이 더욱 커지며 마침내 삶에서 악을 극복하고 죄에 대한 모든 욕망을 잃게 됩니다.”(*History of the Church*, 2:8) 우리라면 아마도 사소한 잘못으로 여겼을 만한 문제를 니파이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 비통해하며 그 어떤 죄의 흔적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바랐다.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은 니파이의 모범을 통해 우리는 약점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회개하라는 계명과 주님의 구속에서 발휘되는 힘을 활용하라는 권고를 받는 이유를 상기시켰다.

“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은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셨을까요? 그분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영원한 율법을 범하리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으리라는 약속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는 특권을 유지하려면 크든 작든 우리가 어진 모든 율법에 대해 공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심판의 날에 공의가 적용되어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갈 것입니다.[니파이후서 9:8~10; 2:5 참조]

이러한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과 그분의 대속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계명에 순종하며, 끝까지 견딘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회개를 통해 발휘되는 구속 권능을 온전히 활용하여 더 큰 화평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혼란과 낙담을 느낀다면 회개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영적 인도를 구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율법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 온전한 회개를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범법으로 생기는 모든 영적 고통은 회개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심각한 죄에서 발생하는 일부 신체적인 결과는 현세에서는 회개로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현명하게 처신하여 주님께서 정하신 의로움의 경계 안에서 잘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리아호나, 2001년 1월호, 31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인간은 누구나 유혹에 약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는 성향이 있지만, 우리는 각자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의지를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쳤다.

“어쩌면 어느 격언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타고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인간은 유혹에 약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는 성향이 있어서 문제에 대해서 선택할 수도 없고 선택의지도 없다는 뜻일까요? 우리 교리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혹에 쉽게 굴하고 휩쓸리는 성향과는 무관하게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습니다. 인간의 선택의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침해를 입는 것은 인간의 자유입니다. …… 우리 모두는 선택의지를 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 우리 대부분은 몸에 가시를 지닌 채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가 더 잘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심각합니다. 누구나 이런저런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듯하지만, 어떤 부분이 연약하든 우리에게는 우리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의지와 힘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위와 생각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으며, 따라서 우리의 선택의지로 우리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나이나 처지가 되면 ‘난 그렇게 타고났어.’ 하는 주장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은 행동이나 생각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필멸이라는 약점이 영원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 방해되지 않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성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니파이후서 2:2 참조) 물려받은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들이는 모든 노력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유익한 영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바울이 ‘육체에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세 차레에 걸쳐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린도후서 12:9]라고 대답하셨습니다.”(“Free Agency and Freedom,” Monte S. Nyman and Charles D. Tate Jr., ed., *The Book of Mormon: Second Nephi, the Doctrinal Structure* [1989], 13~14)

니파이후서 4:28~35

니파이는 자신의 약점과 죄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니파이가 보인 어떤 모범을 활용해 볼 수 있을까?

니파이후서 5:5~9. 우리는 악을 멀리 해야 한다

• 니파이와 그를 따른 사람들처럼 악에서 멀어지기 위해 실제로 도망을 해야 할 때가 있다. 니파이와 함께 가려 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경고와 계시를 믿는 자들”(니파이후서 5:6)이었음에 주목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현대 선지자들이 전하는 경고와 계시에 귀 기울이는 이들은 영적으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악으로부터 멀리 달아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악의 세력들이 곳곳에 퍼트려 놓은, 우리를 타락시키려는 힘에 오염되지 않을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 따름으로써 유덕하고, 생산적이고,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경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영감에 찬 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

세상에 퍼진 악을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아십시오. 조만간 사탄은 완전히 패하고, 그 악행으로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신앙과 끊임없는 순종으로 그 계획을 찾을 때 그분께서는 그 계획 중 일부를 알려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한 행동에 따른 결과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여러분이 이 필멸의 생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변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오는 개인적인 인도를 구하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 인도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생활하십시오. 따라야 할 길을 확실히 알지 못하여 비틀거리고,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미십시오.”(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00, 102쪽)

니파이후서 5:11, 13. “우리가 심히 변성하였나니”

• 니파이후서 5장 11, 13절에서 니파이는 그의 백성이 양 떼와 소 떼를 기르고 곡물을 경작하며 심히 변성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번성을 부나 세상의 물질과 같이 눈에 보이는 축복과 연관지어 때가 많다. 히버 제이 그랜트(1856~1945) 회장은



진정한 번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다. “제가 번성이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은 금전적인 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번성이란 ……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 가고, 간증이 자라며, 복음대로 생활하고 가족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힘이 더욱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참된 의미의 번성입니다.”(Gospel Standards, comp. G. Homer Durham [1941], 58; 또한 James E. Faust 인용, Conference Report, Oct. 1998, 74; 또는 Ensign, Nov. 1998, 59)

•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은 야에코 세키 자매가 나눈 경험을 인용하여 십일조를 내면 어떻게 진정한 번성을 누리게 되는지를 설명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일본 알프스 국립 공원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 저는 넷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 조금 피곤하여 나무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 저는 우리 가족이 처한 재정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답답해져서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완전한 십일조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희생해 왔습니다.

언제 저희 가족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저희의 짐을 가볍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웃으며 노는 남편과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 문득 저는 제가 풍성한 축복을 받았으며 하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축복은 제 가족이라는 증거를 영으로부터 받았습시다.”(리아호나, 1999년 1월호, 59쪽)

니파이후서 5:10~18, 26~27. “행복하게 살았더라”

•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고 설명했다.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을 추구한다면 그 끝은 행복일 것입니다. 그 길은 덕, 올바름, 충실, 거룩함,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134~135)

•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행복에 대해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주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니파이는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또 ……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더라.’(니파이후서 5:27) 이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저는 제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제가 줄 수 있는 어떠한 사랑의 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행복은 의로운 생활을 할 때 옵니다.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느니라.’(앨마서 41:10) 죄는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이기심은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욕심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에 따르는 삶에 있습니다.”(“Fast-Paced Schedule for the Prophet,” Church News, Apr. 20, 1996, 3)

니파이후서 5:20~25. 저주를 받은 레이맨인

• 니파이후서 5장 20~25절에는 레이맨인에게 내려진 저주에 관해 적어도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다.

1. 어떤 저주를 받았는가?

20절을 보면 그 저주는 “주의 면전에서 끊어[지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2. 무엇 때문에 저주 받았는가?

21절에 따르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다. 아담이 타락한 날 이후로 악이 초래하는 결과는 주님 면전에서 끊어지는 것이었다.(니파이전서 2:21; 니파이후서 4:4; 9:6; 엘마서 9:13; 이더서 10:11 참조)

3. 레이맨인에게 내려진 표시는 무엇인가?

또한 21절에는 이렇게 나온다. “그들이 나의 백성[니파이인]에게 피임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주 하나님께서는 검은 빛깔의 피부로 그들[레이맨인]에게 임하게 하셨더라.” 이 별은 사악함이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후에 엘마는 이에 대해 이와 똑같은 이유를 제시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레이맨인들의 피부는 …… 어두웠으니, …… 그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전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섞여서 그들의 멸망을 초래할 그릇된 전통을 믿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엘마서 3:6, 8) 경전 곳곳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주님의 경고(신명기 7:2~3; 고린도후서 6:14 참조)를 볼 수 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을 때 의로운 사람이 주님께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신명기 7:4; 열왕기상 11:4; 교성 74:5 참조)

일부는 레이맨인에게 내려진 어두운 피부가 바로 저주라고 오해하기도 했다.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어두운 피부는 저주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레이맨인들의 피부가 어두운 색이 된 이유는 그들을 니파이인과 구분하고 그 두 민족이 서로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두운 피부는 [저주 그 자체가 아니라] 저주를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주는 바로 주님의 영이 거두어진 상태입니다. ……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더 이상 이들의 피부를 저주의 표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 이 개종자들은 주님의 영과 함께하며,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1966], 3:122~123)

4. 저주가 초래한 결과는 무엇이었나?

마지막으로 24절에서 우리는 저주 즉, 주님 면전에서 끊어진 결과 그들이 “악행과 간교가 가득한 게으른 백성이 되었음” 알 수 있다.

한 가지 위대한 축복은 오직 백성들이 사악할 때에만 저주가 효력이 있다는 점이다.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더 이상 그들을 따르지 아니[함]”(엘마서 23:18) 것이다. 회개하고 주님의 영을 누린 의로운 레이맨인도 얼마든지 있다. 그중 한 사람은 선지자가 되었다.(힐라맨서 13:5 참조)


니파이후서 6:1~3. 권세로 가르친 야곱

• 야곱은 하나님께 권능과 권세를 받아 가르쳤다. 야곱은 형 니파이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의 거룩한 반차의 방식을 좇아 성임되었고” (거룩한 신권을 받고 “성별되었다.”)(니파이후서 6:2; 또한 니파이후서 5:26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또한 야곱이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가 부지런함을 다하여 너희를 권면하였고, 나의 부친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쳤으며, 세상의 창조로부터 기록된 모든 일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하였음이라.”(니파이후서 6:3; 기율임체 첨가 복음은 항상 이러한 방식에 따라 가르쳐졌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이와 같이 개인적인 간증을 전하고,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경전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가르쳐집니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1997], 65)

•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니파이 백성이 행한 신권이 어떤 “반차”에 따른 것이었는지 설명했다. “니파이 백성은 요셉의 후손이었습니다. 리하이는 낫쇠판을 읽던 중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따라서 리하이를 따라 서반구로 이동한 사람들 중에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기에 니파이 백성은 리하이 시대로부터 구주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시기까지 모든 일을 멜기세덱 신권의 반차에 따라 행하였습니다.”(Answers to Gospel Questions, 1:124)

니파이후서 6:4~18. 유대인 역사를 설명한 야곱

• 야곱은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임할 일에 관하여”(니파이후서 6:4) 가르치기 위해 이사야의 말을 인용했다. 야곱의 백성도 이스라엘 집의 일부였기에 그는 이사야의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적용했다.(5절 참조) 이 내용 중 일부는 니파이가 후기에 남을 리하이의 후손들에게 적용한 구절과 일치한다.(6~7절과 니파이전서 21장 22~23절 비교) 이처럼 같은 예언을 다른 상황에 적용한 일은 영의 인도를 받아 “경전을 …… 비유”한 예가 된다.(니파이전서 19:23 ; 니파이후서 11:8 참조)

니파이후서 6:6~11. 이스라엘의 흠어짐과 집합

- 이스라엘의 흠어짐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부록(414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흠어짐에 대한 약사”를 참고한다.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부록(415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집합”을 참고한다.

니파이후서 6:11~12

고대 이스라엘과 후기 이방인들에게는 모두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가? 이들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니파이후서 7:10~11. 자신의 불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

- 이사야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대답은 물론 “없다”이다. 그는 이어서 “[자신의 불빛과 [자신이] 켜 불꽃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은] …… 슬픔 중에 누우리라.”(니파이후서 7:11)라고 말했다. 많은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주님보다 더 신뢰한다. 이들은 자기 팔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빛을 따른다.(교성 1:19~20; 133:70~74 참조)
- 구주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켜 불빛으로 그분의 빛을 대체하려는 시도는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제3니파이 18:24 참조)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은 “거짓 교리를 복음 진리인 것처럼 위장하여” 자기 자신의 빛에 의지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경고했다. 스미스 회장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교만의 등불 아래서 [경전을] 읽고, 제멋대로 해석하며, 스스로 법이 되고, 자기 행동을 자신이 심판하려 하는 자만심에 가득 찬 사람”(Gospel Doctrine, 5th ed. [1939], 373)이라고 말했다.

니파이후서 8장. 후기에 있을 집합

- 니파이후서 8장에는 후기에 이스라엘이 집합한다는 이사야의 예언이 인용되어 있다.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며

“그의 광야로 에덴 같게”(3절)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들의 질책을 두려워 말라”(7절)고 권고하셨으며 “주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올 것”(11절)이라고 약속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손 그들로”(16절) 그들을 덮으실 것이다. 이 약속은 이사야의 다른 예언과 함께 고대 백성들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해 이사야가 남긴 이 예언이 성취되는 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선조들은 …… 주님께서 그들의 방어벽이자 안식처요 구원이 되심을 알았으며,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신앙으로 강화되어 그들의 독립을 소중히 여기고 겸소한 생활과 정직한 노동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후마저도 온화해졌으며, 겸손하고 지치지 않는 노력으로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났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가 언급한 마지막 날이 그들이 사는 시대임을 알았으며, 이 마지막 시대에 관해 이사야가 전한 두 가지 놀라운 예언을 통해 그들의 신앙은 새로워졌습니다. 이 둘 중 하나는 이사야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이사야 35:1)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반복하여 ‘나 여호와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이사야 51: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는 통나무집과 당면한 현실 외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와 그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미가 4:1~2)라고 한 미가의 예언이 성취될 그날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목격했습니다.”(*This Nation Shall Endure* [1977], 42)

-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인들이 집합하는 일에 관해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물리적인 집합보다 영적인 집합이 먼저 일어난다고 가르쳤다. “유다는 정해진 때에 옛 예루살렘 땅에 집합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합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교회에 들어오고 아브라함의 성약을 거룩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대로 그들이 새롭게 받아들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유대인 혈통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모이는 일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영적 집합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 서막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모인 백성 가운데 일부는 적절한 시기에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왕국으로 모이고, 예루살렘 땅에 은혜를 가져다줄 성전을 건축하는 데 일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치적 집합은 영적 집합이 아니며, 주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1985], 519~520; 또한 511, 564~565 참조)

생각해 볼 점

- 니파이후서 5장 5~8절에서 주님께서 니파이에게 “광야로 도망하[라]”고 경고하셨다. 여러분 생활에 니파이의 상황과 유사한 면이 있는가? 친구들이나 오락, 직장, 학교, 또는 대중 매체가 여러분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들로부터 떠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측면이 있는가?

- 니파이후서 8장 3~16절에는 이스라엘 집에 속한 이들이 “집합”할 때 받게 될 여러 가지 축복이 제시되어 있다. 여러분은 이들 중 어떤 축복을 경험했는가? 어떤 축복을 계속 구할 수 있을까? 그 축복을 받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제언 과제

- 니파이후서 4장 15~35절을 읽으면서 니파이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본다. 니파이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거나 실제로 적용한 구체적인 원리를 찾아본다. 영의 인도에 따라 여러분이 찾은 진리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적는다. 읽으면서 영의 속삭임을 받고 마음속에 결심한 일들을 적어도 좋다.
-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권고했다. “삶에서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과도한 집착을 조심하십시오. 편협한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발전하려 노력하면서 여러 훌륭한 영역을 넘나들며 관심을 넓히십시오.”(“Four Imperatives for Religious Educators” [address to Church Educational System religious educators, Sept. 15, 1978], 3) 니파이후서 5장 10~18, 26~27절을 읽고 배울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삶에 적용할 때 여러분이 세상에 더 훌륭하게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될 원리들을 찾아본다.

소개

누구나 주변에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깊은 슬픔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계획을 알기에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물론경에서 선지자 야곱은 속죄가 없다면 우리가 죽을 때 육신과 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설명하면서 속죄를 통해 얻는 위대한 축복을 가르쳤다. 야곱은 우리 구원을 위해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했다. 그는 구주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친절히 위로하시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시는지 설명했다. 주님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따를 때 우리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속죄의 영향과 축복을 생각해 본다.

해설

니파이후서 9:1~3. 속죄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라

-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기뻐하는 마음 중심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곱은 ‘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그분의 성약의 백성’을 건지실 것이라고 간증했으며, 그 능하신 하나님이 곧 ‘구주이자 …… 구속주이시며 야곱의 능한 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록하고도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가르침, 특히 이사야 기록에 담긴 내용을 강조한 이유는 당시에 그가 가르친 사람들과 미래에 기록을 읽을 독자들에 ‘주께서 이스라엘의 온 집과 맺으신 바 주의 성약에 관하여 알게’ 하고, 모든 세대의 부모에게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들 위에 내리실 축복으로 인하여 [그들이]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들] 머리를 들’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성약과 그토록 기뻐할 이유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세상의 구주이자 구속주,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르신 속죄 희생입니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1997], 66~67)

니파이후서 9:2

집합에서 중요한 일부분인 유대인은 무엇에게로 회복될 것인가?

니파이후서 9:5~6. 자비로운 계획에서 중심이 되는 속죄

-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구주께서 하시는 주요 역할과 온 인류에 미치는 그분의 영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상에 선포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길 데 없는 삶의 실재와 그분의 위대한 속죄 희생의 무한한 가치에 관해 간증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상에 살았고 또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그토록 심오한 영향을 미치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위대한 여호와였고 신약의 메시아이셨습니다. ……

그분은 자신의 위대한 속죄 희생을 기억하도록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체포되어 무고한 혐의로 징죄받고 폭도들의 원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은 지상에 살게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한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온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의 삶이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지도 않았고 갈보리에서 끝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간증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장자였고 육신을 입은 독생자였으며 세상의 구속주이셨습니다.”(“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쪽)

•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은 속죄 권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언했다.

“구원은 속죄를 믿고 받아들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속죄를 받아들여려면 그것을 더욱 온전히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속죄에서 발휘되는 권능으로 우리 성품은 완전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배움의 길을 나아갑니다.

그분께서 치르신 속죄 희생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그분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문자 그대로 속죄(Atonement)는 그분과 ‘하나(at one)’가 되는 것입니다. 속죄의 본질과 그 영향력은 참으로 무한하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으며 너무 심오하여 필멸의 인간이 지닌 지식과 이해 수준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속죄가 가져온 궁극적인 축복, 곧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거룩한 면전에 거하고, 환하게 웃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따뜻하게 집으로 맞아 주시고, 끝없는 사랑의 품에 안아 주시는 축복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면전에 있기에 합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 이 경험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훌륭하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을 위해 대가 없이 치르신 위대한 속죄 희생이야말로 우리가 승영하여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그분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위대한 속죄는 우리 개개인과 모두에 대한 구주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자비, 인내, 은혜, 공평, 오래 참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로 가득한 사랑입니다.”(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9, 22쪽)

니파이후서 9:7. 무한한 속죄

•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셀 엠 벨스 장로는 속죄가 무한하다는 점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무한하며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가 끝없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점에서 무한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통 정도가 무한했기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속죄는 시간 면에서도 무한하여 그 전까지 상징으로 행해졌던 동물 희생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범위 면에서도 무한하여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 행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자비를 누리는 사람 숫자도 무한하며,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무한한 세계에까지 영향이 미칩니다. 속죄는 인간이 가늠하는 그 어떤 측량이나 육신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무한한 것입니다.

필멸의 어머니와 불멸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만이 그러한 무한한 속죄를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 유일무이한 장자의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셨기에 예수께서는 무한한 존재이셨습니다.”(리아호나, 1997년 1월호, 35쪽)

니파이후서 9:6~9
 아픔은 속죄가 없다면 우리 영과 육신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는가?

니파이후서 9:10. “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심이 얼마나 크냐”

•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속죄를 이루신 구주의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 “기이하고도 장엄하며 영원한 계획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께서는 속죄 희생을 통해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신성한 권능으로 무덤에서 승리하여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구속주이자 온 인류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성도의 빛, 1985년 7월호, 58쪽)

니파이후서 9:15~16.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러우리라”

• 십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며 우리가 이룩해야 할 깨끗한 상태를 설명했다. “성경이나 현대 경전에는 최후의 심판 때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와 행동과 마음속 소망에 따라 보상 받는다고 가르치는 구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에 덧붙여 우리가 이룩한 상태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설명이 담긴 구절들도 있습니다. 선지자 니파이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최후의 심판을 설명했습니다. ‘만일 그들의 행위가 이제까지 더러움이었다면 그들이 필연 더러운 것이라. 또

만일 그들이 더럽다 할진대 필연코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거할 수 없으리니(니파이전서 15:33) 이에 모로나이는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될 때가 오느니라.'(몰몬서 9:14; 또한 요한계시록 22:11~12; 니파이후서 9:16; 엘마서 41:13; 교성 88:35 참조) 이와 똑같은 원리가 '이기심'이나 '불순종' 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격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개인적인 특성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엘마는 최후의 심판 때에 악한 사람들이 처하게 될 '상태'에 대해 가르치면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위와 생각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우리가 흠 없이 발견되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참담한 상태에서 우리가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할 것'(엘마서 12:14)이라고 설명했습니다."(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0쪽)

•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외설물을 예로 들어 이 똑같은 원리를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누구라도 이 악에 사로잡힌 이가



있다면, 조용한 방에서 무릎을 꿇고 이 사악한 악마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도덕한 오점은 평생, 심지어 영원토록 남을 것입니다. 니파이의 동생 야곱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이렇게 되리니 모든 사람이 이 첫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그리하여 그들이 불멸의 것이 되었을 때,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로울 것이요,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러우리라.'(니파이후서 9:15~16)"(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62쪽)

니파이후서 9:18. "세상의 십자가를 견디고"

•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십자가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다. "세상의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한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박해자나 무관심한 구경꾼이 있을 수 있고, 교회 회원이라 하여 배척(혹은 공격)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Wherefore, Ye Must Press Forward [1977], 110)

니파이후서 9:20.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 Lectures on Faith에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창조물 중 극히 일부도 구원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그분의 창조물에게 그들을 영생을 받는 상속자로 만들어 줄 이해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개념이 인간의 마음속에 없었다면 애초에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일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1985, 51~52)

•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우리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그분의 사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아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여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새로운 것을 배우며 권태로움[지루함]을 달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에, 사실 우리에게는 모두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처럼 보이는 '하나의 영원한 일'에서 그분은 신성한 기쁨을 느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적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창조물을 늘리고 발전시키면서 끊임없이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종의 박사후과정 연구원(박사 학위 취득 후 전문 지식과 기술을 익히기 위해 약 5년간 학문 연구를 하는 사람-옮긴이)처럼 지금도 더 많은 핵심 진리와 지극히 중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계신다는 그릇된 개념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이 개념이 옳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알고 계셨던 특정 진리를 재구성하고 약화시키고 와해시킬 만한 새로운 진리, 그분이 알지 못했던 사실을 매 순간 새롭게 발견하실 것입니다. 예언은 단순한 예측에 불과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구속에 관한 잠정적인 계획도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은 끊임없이 수정되는 계획이 아니라 변함없이 진행 중인 계획입니다.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All These Things Shall Give Thee Experience [1979], 14~15, 21)

니파이후서 9:21~24.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 브리검 영(1801~1877) 회장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주께서 들어시는 노력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이렇게 언급했다.
 “이것이 구원의 계획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지상 생활을 마친 후에 자신의 행위와 충실함에 맞는 여러 왕국과 영광이 있는 아버지의 거처에서 한 왕국을 상속받아 기쁨을 누리게 될 때까지 그분의 사업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의 영광의 율법에 순종하여 그 영광을 받을 것이며, 어떤 이들은 달의 영광에, 또 어떤 이들은 별의 영광에 거할 것입니다.”(*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 [1954], 56)



니파이후서 9:25~26. 율법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탈매지(1862~1933) 장로는 우리가 저야 할 책임에서 지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죄란 율법을 범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무심결에, 또는 무지한 상태에서조차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에 대해 경전에 나오는 교리에 따르면, 인간이 저지르는 범법 행위는 그 사람이 한 의로운 행위를 판단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율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 심판 받습니다. 더 높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율법의 요건이 완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식 없이 지은 죄 즉, 무지한 상태에서 범한 율법에 대해서는 구주의 희생을 통한 속죄로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인은 정죄받지 않을 것이며, 복음 원리를 배울 기회를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Articles of Faith*, 12th ed. [1924], 58)

•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처할 상태를 명확히 밝혔다.

“계획을 알지 못한 채 필멸의 삶을 사는 이들을 위해 방편이 예비되었습니다. ‘주어진 율법이 없는 곳에는 형벌이 없으며, 형벌이 없는 곳에는 정죄가 없[나니], …… 속죄로 인하여 …… 그들이 그의 권능으로 구제 받음이라.’(니파이후서 9:25)

죽은 자를 위한 구속이라는 거룩한 사업이 없다면 이 계획은 불완전하고 참으로 불공평할 것입니다.”(“The Play and the Plan” [CES fireside for young adults, May 7, 1995], 4, www.ldscs.org)

•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는 복음의 법을 얻지 못한 이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속죄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미치므로 책임질 수 있는 연령에 이르지 않은 어린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한 번도 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 등 복음에 대한 지식이나 받아들일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풍성한 방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215)


니파이후서 9:28. “자신이 현명하다 생각하며”

•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신앙보다 지적 능력에 더 의지할 때 발생하는 잘못에 대해 설명했다.

“지적 능력만이 지식을 얻는 유일한 원천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영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성령으로써,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신의 은사으로써 …… 지식을 너희에게 주시리니’(교성 121:26)

우리를 비판하고 비하하는 인본주의자들, 소위 지성인들의 말은 단지 이 약속에 대한 무지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영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음성을 구하고 그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이성과 정신 작용으로만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성신의 권능을 통해 오는 지식을 부정합니다. ……

세상의 궤변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대부분 부정적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힘을 북돋우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을 약화시키고, 인간의 약점을 강조하고, 성스러운 것을 비하하기를 자청하는 영악한 사람들이 파 놓은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Be Not Afraid, Only Believe” [CES fireside for young adults, Sept. 9, 2001], 4, www.ldscs.org)

니파이후서 9:29  **“학식을 얻음은 좋으니라”**

•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배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훌륭한 것들에 대해 설명했다. “여러분 앞에는 커다란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쟁이 격심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받을 수 있는 교육은 모두 다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교육을 통해 자격을 갖추면 더 훌륭한 기회를 얻습니다. 수많은 기회가 기다리는 세상에 나아가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대학에 가고 싶고, 또 능력이 된다면 가십시오. 대학에 갈 마음이 없다면 직업 학교나 실업 학교에 가서 기술을 연마하고 능력을 키우십시오.”(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49쪽)

니파이후서 9:34. “거짓말하는 자에게 화 있나니”

• 니파이후서 9장 34절과 그밖에 몇몇 구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죄의 심각성을 가르친다.(잠언 6:16~19; 교성 63:17~18; 76:98, 103 참조)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했다.

“우리는 정직을 믿습니다.[신앙개조 제13조] ……


우리 모두는 정직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정직이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말하고 진실되게 이야기하며 진실대로 생활하고 진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

…… 정직은 우리 생활에서 도덕적인 나침반이 됩니다. ……

정직은 한 가지 원리이며, 우리에게는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할 수 있는 도덕적 선택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지가 있으나, 궁극적으로 각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결코 속일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경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문을 지키시는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시니라. 그가 아무 종도 거기 두지 아니하시며 그 문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 다른 길이 없나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이므로 그가 속임을 받을 수 없음이니라.’[니파이후서 9:41]

진실을 말하는 데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의로 한 사소한 거짓말로 시작하여 점점 거짓말이 늘어납니다. 판단을 그르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양심에 달린 문제입니다. ……

……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흠치는 일은 죄악이요 기만하는 일은 잘못된 행동이며, 거짓말은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치욕이 된다는 진리를 모범과 교훈으로 가르칩시다.’”(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41~44쪽)

니파이후서 9:29~38 

야곱은 우리에게 어떤 죄를 경고했는가?
이러한 죄들이 그토록 심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니파이후서 9:41. “문을 지키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라

•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우리가 언젠가 구주 앞에 서서 우리 삶을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했다. “수년 전에 행해진 한 연구가 생각납니다. 청소년들이 곧고 좁은 길로 계속 나아가려면 어떤 영향력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연구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영향력이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중요한 영향력으로는 부모, 신권 고문, 청년 고문, 스카우트 지도자, 또래 집단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연구 전면에 나타난 지극히 중요한 한 가닥의 황금실을 발견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 황금실은 바로 우리 각자가 언젠가는 주님께 우리의 행위를 낱알이 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문을 지키시는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시니라. 그가 아무 종도 거기 두지 아니하시며 그 문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 다른 길이 없나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이므로 그가 속임을 받을 수 없음이니라.’[니파이후서 9:41]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영원한 관점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더 커다란 영적인 힘과 결의가 있었습니다. 구주 앞에서 우리 행위와 청지기 직분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그에 부응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온전히 보호 받습니다.”(“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리아호나, 2001년 6월호, 6~7쪽)

•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예수께서 친히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며 다른 어느 누구도 대신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어떤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야곱은 니파이후서 9장 41절에서 곧고 좁은 길에 대해 이야기하며 ‘문을 지키시는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시며, 예수께서는 ‘아무 종도 거기 두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속임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직접 강조했습니다. 다른 면에서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다른 누군가에게 위임하지 않는 이유는 신성한 공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아실 수 있는 그런 일들 즉, 그분의 양들이 삶에서 조용히 용기를 내는 순간, 아무도 모르게 행한 친절한 봉사, 그리고 완전한 심판이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칭찬'받을 길이 없는 마음속 생각들을 모두 아시는 그리스도야말로 신성한 자비를 가장 잘 실현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For the Power Is in Them . . . [1970], 37)

맥스웰 장로는 덧붙여 이렇게 설명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지기를 자청하셨으며, 우리를 환영하고 싶은 마음만큼이나 우리를 증명하고자 하는 신성하고도 깊은 열망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무 중도 거기 두지 아니하[십니다.]'(니파이후서 9:41) 지금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그날에 그분께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며 기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Notwithstanding My Weakness [1981], 124)

니파이후서 9:50~51. "돈 없이 사라"

•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돈 없이 사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설명했다. "구원은 단지 선택된 소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은 사도와 선지자들이나 에녹 시대 성도들, 또는 그리스도 시대 순교자들만을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신앙개조 제3조)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그들 모두에게 그에게로 나아와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권하시며, 또 그는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는 검거나 회거나, 매향이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또 그는 이방을 기억하시나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니라.'(니파이후서 26:33)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원한 초청은 이렇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이사야 55:1) 왜냐하면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것'(니파이후서 2:4)이기 때문입니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71~1973], 3:416~417)

니파이후서 10:3. "그리스도가 그의 이름이 되리라"

• 한 천사는 야곱에게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계시로 알려 주었다. "그리스도(그리스어) 및 메시아(히브리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는 아버지의 장자이다.(히브리서 1:6; 교성 93:21) 그는 육으로는 아버지의 독생자이다.(요한복음 1:14; 3:16) 그는 여호와이며(교성 110:3~4)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의 위대한 부름에 예임되었다. 아버지의 지시 아래, 예수는 지구와 그 위의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요한복음 1:3, 14; 모세서 1:31~33)"(경전 안내서,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어	그리스어	영어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Bible Dictionary, "Christ," 633 참조)
여호수아	예수	구주(Bible Dictionary, "Jesus," 713 참조)

니파이후서 10:6~8. 흠어짐과 집합은 먼저 영적인 면에서 일어난다

• 야곱은 죄악 때문에 유대인이 흠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니파이후서 10:6 참조) 이와 유사하게 그는 집합의 순서도 강조했다. 야곱은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날이 이르면"(7절) 집합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먼저 영적으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흠어지고 집합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왜 흠어졌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하고도 명백하며, 일말의 의혹도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신권을 더럽혔으며, 교회를 저버리고 왕국을 떠났기 때문에 흠어졌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외면하고 거짓 신들을 숭배했으며, 모든 이방 나라의 방식대로 행했기 때문에 흠어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브라함의 성약을 저버리고 거룩한 의식을 밭 아래 짓밟았으며, 그들의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주 예수 곧 여호와의 거부했기 때문에 흠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흠어진 이유는 배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집합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집합은 고대에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모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조화를 이루는 삶에 바탕을 둥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회개하고,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교회에 가입해 왕국으로 들어오는 일도 집합을 하는 한 과정입니다. …… 그리고 지정된 장소 또는 경배의 땅으로 모이는 일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1985], 515)

•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집합에 관한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집합에 관한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표적을 주[리니], …… 내가 그들의 오랜 분산에서 내 백성을 모아들여,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그들 가운데 내 시온을 다시 세울 [것이라].’[제3니파이 21:] 몰몬경이 출현한 일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집합시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성약을 성취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는 표적입니다.[창세기 12:2~3; 26:3~4; 35:11~12 참조] 우리는 이 집합에 관한 교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합니다. 우리는 휘장 이편과 저편에서 주님의 선택된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도우며 이 교리를 실천합니다.”(*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80쪽)

• 브루스 알 맥퉁키 장로는 성도들이 집합할 장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모든 나라에 거하고, 모든 언어를 말하며,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주님의 성약의 백성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집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시로 받았습시다. ……

멕시코 성도가 집합할 장소는 멕시코입니다. 과테말라 성도가 집합할 장소는 과테말라입니다. 브라질 성도가 집합 장소는 브라질입니다. 온 땅 사방에 걸쳐 집합이 이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 각 나라가 바로 그 민족이 집합할 장소입니다.”(*Conference Report, Mexico and Central America Area Conference 1972*, 45)

• 이스라엘의 흠여집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부록(414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흠여집에 대한 약사”를 참고한다.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부록(415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집합”을 참고한다.

니파이후서 10:20~22. 그들의 형제들에게서 갈라져 나오다

•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속한 여러 민족을 시시로 세상의 다른 지역으로 인도해 내셨다고 가르쳤으며,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다.(니파이후서 10:20~21 참조) 그들은 혈통으로도 형제이며, 신앙으로도 형제다. 주님께는 이 모든 꺾어진 가지를 위한 목적이 있으시며 그분은 각 무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두 아신다. 몰몬경에는 이들 중 적어도 세 민족이 언급되어 있다. 리하이 무리, 야렛인(이더서에 기록됨), 물레크인이 그 세 민족이다.(모사이야서 25:2; 힐라맨서 6:10; 8:21) 고대 이스라엘 북 왕국에서 잃어버린 지파나 다른 곳으로 인도된 또 다른 무리들처럼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이 더 있을 것이다.(야곱서 5:20~25 참조)

생각해 볼 점

-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이 집합하도록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가?
-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왜 중요한가? 주님의 속죄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삶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속죄가 무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제언 과제

- 속죄가 육체적, 영적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지 깊이 숙고하면서 니파이후서 9장 4~7절을 읽는다.
- 니파이후서 10장에는 후기에 높이 들리울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을 받은 한 나라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10장을 읽으면서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을 찾아본다.
- 니파이후서 10장을 읽고, 최후의 구속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는지 기술한다.

니파이후서 10:11~14

자유에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가?


소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물문경을 읽는 많은 사람이 부딪히는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대부분 [독자들은] 물문경 내용을 쉽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읽어 내려간다 싶을 때쯤 어떤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 이야기 중간 중간에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한 장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르면 특별한 목적 없이 단지 가벼운 호기심만으로 읽던 사람들은 마치 길을 가다가 장애물이나 검문소를 만난 것처럼 넘기 힘든 장벽을 서서히 느끼면서 보통은 도중에 그만둡니다.

여러분도 거기서 그만두고 싶겠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읽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비록 그 내용을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어려운 부분을 읽어 내려가십시오. 대충 훑어 읽으면서 여기저기에서 개념만 막연하게 파악하는 정도일지라도 계속 읽으십시오. 낱말만 보는 것에 지나지 않더라도 계속 읽으십시오.”(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64쪽)

니파이와 야곱은 둘 다 이사야의 기록을 우리에게 “비유”해야 한다고 말했다.(니파이전서 19:23 ; 니파이후서 6:5) 그러나 이사야 시대에서 100년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살던 니파이 백성조차도 이사야의 기록을 어려워했다.(니파이후서 25:1~4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미대륙에 있는 니파이 백성을 방문하셨을 때 “이사야의 말이 위대[하다]”고 가르치셨으며, 그들에게 “마땅히 이 일을 상고하여야 하느니라. 참으로 한 가지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이 일을 부지런히 상고하라.”라고 말씀하셨다.(제3니파이 23:1; 42쪽에 나오는 니파이전서 20~21장 해설 참조)

여러분이 이사야 기록의 맥락과 중의적 성격과 상징을 이해하는데 다음 해설이 도움이 될 것이다.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야 기록에 대한 많은 정보는 성경 주석에만 실려 있고 물문경 주석에는 실려 있지 않다. 따라서 니파이후서 12~24장을 공부할 때 이사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LDS Bible(후기 성도판 성경) 각주에서 이사야 2~14장 부분을 활용한다. 여러분은 이사야 기록을 이해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영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 시간을 두고 연구와 기도를 거듭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어 마침내 이사야 기록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해설

니파이후서 11:1~3. 니파이, 야곱, 이사야—특별한 세 증인

•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는 이 위대한 세 선지자들의 간증이 지니는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가르치고 확증하는 주님의 방법은 늘 하나 이상의 증언을 내세우는 것이었으며, 특히 성약에 관한 일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분의 권고는 항상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되었습니다. 참으로 영감 받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손을 통해 세상에 나온 물문경도 ‘세 사람에게 이 판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여질 것이라. …… 또 세 증인의 입으로 이 일이 확립되리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

나중에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 마틴 해리스가 이 세 증인이 되었습니다. ……

성약에 관한 이와 똑같은 원리에 기초하여, [물문경 기록] 초기에도 물문경의 신성한 기원뿐 아니라 그 자체의 신성을 증거한 특별한 세 증인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초기 증인들은 니파이와 야곱, 이사야이며, 이들의 간증이 이 고대 기록 초반부에 그토록 눈에 띄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

…… 우리가 아는 것은 니파이의 작은 판 기록 중에서 복음을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육신을 입으시기 전 그리스도에 대해 이 위대한 세 증인, 곧 니파이와 야곱과 이사야가 개인적으로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들이 외치는 교리적 및 예언적 발언은 물문경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지를 시작 단계부터 분명하게 밝힙니다. ……

니파이의 작은 판이 기록되고, 보존되고, 번역된 주 목적은 때가 충만한 경륜의 시대에 이들 세 증인의 간증이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기록은 작은 판 총 [143]쪽 중에서 135쪽에 달하는 분량을 차지합니다. 초반부에 기록된 니파이와 야곱과 이사야의 간증을 다 읽었을 즈음에 우리 안에는 니파이가 말한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해 굳건한 토대가 구축되어 있을 것입니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1997], 33~35)

니파이후서 11:4.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 이사야는 상징이나 예표를 자주 사용했다. 니파이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표하다라는 단어는 “형상이나 형태, 모형, 또는 유사성을 통해 나타내 보이다”(Noah Webster’s First Edition of an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828 [1967])라는 뜻이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거나 상징한다. 경전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끊임없이 증거하고 가르친다. 흠 없는 숫양을 제물로 희생하는 것도 예표를 나타내는 한 예이며, 이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모세서 5:7; 또한 레위기 1:3~5 참조)이다. 성찬 빵과 포도주는 속죄 희생을 나타내는 상징 또는 예표이다.(모로나이서 4:3; 5:2 참조)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분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는 이러한 예표는 우리가 구속주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과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니파이후서 11:4~7

니파이는 자신의 영혼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의 참됨을” 증명하기를 기뻐한다고 말했다.(4절) 니파이가 어떠한 일을 기뻐했는지 몇 가지를 찾아본다.

니파이후서 11:5. “사망에서 건지시는”

•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불멸을 약속받았다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고 믿지만 그 엄청난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불멸에 대한 확신은 우리 신앙에서 필수 요소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종교의 근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와 선지자들의 간증, 곧 그분께서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간증입니다. 우리 종교와 관련된 그 밖의 것들은 모두 이 원리에 부수될 뿐입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117쪽)

그 영화로운 성역 중 모든 것 가운데서도 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 밖의 것들은 모두 이 원리에 부수된다’고 말하며 우리 종교의 근본 원리로서 구주의 사망, 매장, 부활에 대한 간증을 사용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사망에서 건지시는 크고도 영원한 계획’(니파이후서 11:5)이라고 부른 것에서 구주의 부활이 그 중심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리아호나, 2000년 7월호, 17~18쪽)



니파이후서 12~16장. 물몬경에 실린 이사야의 기록

• 니파이후서 12~24장은 낫쇠판에 실린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이다.(이사야 2~14장과 비교) 니파이가 이 내용을 포함시킨 이유는 자기 백성의 미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에 관해 자신이 직접 받은 계시를 증명할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니파이 백성은 이스라엘의 꺾인 가지로, 다른 곳에 옮겨 심어졌지만 니파이는 이사야의 기록을 통해 주님의 자비로운 계획이 어떻게 그들에게도 적용되는지를 보여주었다. 니파이는 이 예언을 읽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들어올리고 만인을 위해 기뻐[할]”(니파이후서 11:8; 또한 2절 참조) 것이라고 여겼다.

니파이는 자신과 동생 야곱이 앞서 가르친 것과 더불어 이사야의 말을 우리에게 “비유”하라고 거듭 권고했다. (니파이전서 19:23 ; 니파이후서 6:5; 11:8 참조) 우리는 경전에 기록된 사건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이에 비슷한 점을 인식함으로써 경전을 우리에게 비유할 수 있다. 또한 경전에서 가르치는 원리를 파악하려 노력하는 가운데 경전을 우리에게 비유할 수 있다. 그렇게 배운 원리는 우리가 하는 결정에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사야는 니파이 시대(주전 740~700년)보다 100여 년 앞선 시기에 기록을 남겼다. 이사야 기록은 시간 면에서 볼 때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먼 일이지만, 니파이 백성들은 현대 독자들이 조셉 스미스의 계시와 예언에 가까운 것보다 훨씬 더 이사야 기록과 밀접했다. 이스라엘의 흠어짐과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실 주님의 자비로운 계획에 대한 이사야의 영감에 찬 예언에서 영향을 받은 니파이는 메시야에 관해 자신이 기록한 간증과 예언에 덧붙여 이사야 기록의 주요 부분을 포함시켰다. 이사야 인용 부분은 네 가지 중요한 주제 즉, (1)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필요성, (2) 이스라엘 집과 맺으신 하나님의 성약과 약속, (3)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 (4) 후기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다룬다.

• Bible Dictionary(영어 성경 사전)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이 표준 경전에 인용되었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이사야의 기록은 선지자들이 남긴 모든 기록 중 가장 많이 인용된다. 예수님을 비롯하여 바울과 베드로, 요한(요한계시록에서는 [구약의]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이사야를 자주 인용했다. 마찬가지로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에도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이사야를 인용한 부분이 많다. 주님께서는 니파이 백성에게 ‘이사야의 말이 위대함이라’라고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 집과 이방인에 관해 이사야가 말한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가르치셨다.(제3니파이 23:1~3) ……

오늘날 독자들이 이사야를 이해하는 데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보다 더 훌륭한 해설과 지침을 제공하는 책은 없다. 이 두 책을 더 잘 이해할수록 이사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사야를 더욱 깊이 이해할수록 구주의 사명은 물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맺으신 성약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더욱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Isaiah,” 707: 43쪽에 나오는 니파이전서 20~21장 해설 참조)

니파이후서 12:1.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

•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았으며 마지막 날 그들이 처할 운명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몰몬경에 인용된 이사야의 말씀은 이스라엘 온 집에 전하는 것이기도 하다.(니파이후서 6:5; 제3니파이 23:1~2 참조)

니파이후서 12:2

“산들의 꼭대기”라는 말은 왜 중요할까?
주님께서 친히 방문하시고 그분의 선지자들을
가르치셨던 높은 장소에는 어떤 곳이 있을까?

니파이후서 12:2. “주의 집의 산”

• 이사야가 본 것들 중 중요한 일부 사건이 일정 기간이 흐른 후 지상의 또 다른 장소, 곧 후기의 시온이며 유다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본부를 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중심으로 성취되기(“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그랜드 리차즈(1886~1983) 장로는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이사야는 후기에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서는 주님의 집의 산을 보았습니다. ……

제가 보기에 이 예언은 바로 여기에 이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서 참으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역사상 다른 어떤 건물도 이 성전만큼 그분의 방법을 배우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걷기 위해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든 곳은 없었습니다.”(Ensign, June 1971, 98)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산들의 꼭대기”가 성전을 지칭한다며 그 말의 의미를 확장시켰다. “후기에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은 주님의 산에 지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언덕이든 계곡이든 평지이든 관계 없이 그분의 산이란 그분께서 영의 권능으로 친히 오셔서 그분의 백성과 이야기를 나누실 장소이기 때문입니다.”(The Millennial Messiah [1982], 275)

• “주의 집의 산”(니파이후서 12:2)으로 예언된 장소인 미대륙은 일찍이 그 땅을 발견하고 정착한 이래로 많은 사람이 이주해 온 땅이다. 이사야는 “모든 나라가 그리로 흘러갈 것이라”(니파이후서 12:2)고 예언했다. 19세기에 유럽에서

있었던 대이주를 비롯해 오늘날까지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계속 이주하고 있으며,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여러 기관,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람들로 채워지며 축복 받고 있다. 많은 후기 성도는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해 온 이들 가운데서 자신의 조상을 찾는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 회원은 물론 비회원들도 세계 각지로부터 솔트레이크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본부 지역을 끊임없이 방문하고 있다. 많은 교회 회원이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반년마다 열리는 연차 대회에 직접 참석하는가 하면, 세계 각국에서 현대 통신 수단으로 대회 말씀을 시청하고 청취한다.

니파이후서 12:3. “시온에서 율법이 나아갈 것이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임이니라”

•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시온에서 율법이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간다는 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리처드 블라피

“옛 예루살렘은 ……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이 될 것이며, 그 성으로부터 모든 백성에게 그분의 말씀이 전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륙[미대륙]에 시온성, 곧 새 예루살렘이 건설될 것이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이 나아갈 것입니다. ……

…… 이 두 도시 즉, 시온 땅에 있는 도시와 팔레스타인에 있는 도시가 모두 복천년 동안 하나님 왕국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구원의 교리, 3권, 59, 62쪽)

• “시온에서 율법이 나아갈 것이요”(니파이후서 12:3)라는 표현은 예언이 어떻게 한 가지 이상의 일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훌륭한 예이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성전에 인접한 이 놀라운 건물[컨퍼런스센터]에 대해 깊이 생각하노라면 이사야가 한 위대한 예언이 떠오릅니다.

‘또 마지막 날에 그 일이 이루어니 그때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질 것이며 모든 나라가 그리로 흘러갈 것이라.’ ……

저는 이 예언이 유서깊고 훌륭한 솔트레이크 성전에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예언이 이 장엄한 대회장과도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과 간증에 더불어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이 연단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리아호나, 2001년 1월호, 82쪽)

니파이후서 12:4. 평화의 시대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마침내 지상에 찾아올 평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그 시기가 되기 전에는 왜 평화가 없었지 그 이유를 설명했다. “많은 민족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미가 4:3)이라는 구약의 예언에서 위안을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할]’(4:2) 때 찾아오는 평화의 시기에만 적용됩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도처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0년 7월호, 83쪽)

니파이후서 12:5~9. “야곱의 집이여”

• “야곱의 집”이란 개인적인 의로움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성약의 이름을 받은 위대한 축복사인 야곱의 후손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남 왕국과 북 왕국은 하나님 대신 이방신을 숭배하였으므로 시기는 달랐지만 결국 모두 멸망했다. 그들은 “동방에서 채워[졌으며]”(니파이후서 12:6) 또는 영어 성경 이사야 2장 6절 각주 a에 따르면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같이” 거짓 신들에 대한 “이교도의 믿음과 가르침으로 채워지고 교육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적인 우선순위를 위해 주님의 복음을 저버렸다. 그들은 마음을 부와 간악한 일에 두었으며 여러 우상을 숭배했다.

니파이후서 12:9. 천한 자와 큰 자

• “천한 자[평범한 보통 사람]도 절하지 아니하고 큰 자도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오니”(니파이후서 12:9)라는 구절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부터 높은 계층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큼 겸손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니파이후서 12:11~22. “사람의 교만한 눈길”

-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국민이 “낮아지겠[으며]”(니파이후서 12:12) 그들의 “교만한 눈길”(니파이후서 12:11)이 그칠 것이다. 주님의 날 즉, 재림이 임하면 그분의 영광이 그들을 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13~22절에는 그날 일어날 상황을 나타내는 몇 가지 상징들이 나온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가진 물건이나 그릇된 숭배나 배교가 일어난 높은 산과 언덕, 망대와 성벽으로 만들어진 인공 요새, 아름다운 선박 또는 쾌락의 배로 그날의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요컨대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가진 세상의 보화는 주님이 오시는 면전에서 부서질 것이다.(제3니파이 25:1; 말라기 4:1 참조)

-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겸손해지기를 배우는 일은 구주께서 모든 나라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실 위대한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저는 니파이후서 12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내게 직접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 그러자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마치 이미 밑줄이라도 그어져 있었던 것처럼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이렇게 되리니 그 날에 사람의 교만한 눈길이 낮아지고, 사람들의 거만함이 굴복되고 주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니파이후서 12:11)

이 구절은 주님께서 오실 날, 곧 우리 모두가 고대하며 우리 학생들이 이를 위해 준비하기를 바라는 그날을 설명합니다. 이 성구에 따르면 그날에는 자신을 특별하고 훌륭하게 여기던 우리 모두는 작아 보일 것이며,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

저는 이사야가 왜 저에게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그날을 내다보고 제 자신이 얼마나 주님께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면 도움이 되리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믿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께서 위대하고 고귀한 분이시며 우리 자신은 작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리아호나, 2004년 2월호, 14~15쪽)

니파이후서 13:1~15.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려진 형벌

- 니파이후서 13장에서 니파이는 마지막 날에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악한 이방인들의 궁극적인 멸망에 관해 이사야가 한 예언을 인용했다. 야곱의 집에 임하리라고 예언된 멸망이 결국 실현되었으며 재림 때 있을 멸망을 알려 주었다.

니파이후서 13:1. “의지하는 것과 의퇴하는 것”

- 그들은 포위되어 꼭 필요한 빵과 물이 고갈되어 갈 것이다. 니파이후서 13장 1절에 나오는 “의지하는 것과 의퇴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의퇴하는 모든 양식” 곧 생명의 떡이자 “의지하는 모든 물” 곧 생수이신 주님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찾아올 영적 기근을 암시한다.

니파이후서 13:2~3. “용사와 …… 능변한 연사”

- 사회적 신분(니파이후서 13장 2~3절에 11가지 부류가 언급되어 있음)에 관계 없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이 사로잡히게 된다.

니파이후서 13:4. “어린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 그들이 사로잡힌 중에 훈련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지위도 없는 어린 사람들이 니파이후서 13장 2~3절에 나오는 이들을 다스리도록 임명될 것이다.

니파이후서 13:6. “너는 의복이 있으니”

- 황폐한 무정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극도로 가난하고 절망에 빠진 나머지 의복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 지도자 권한을 줄 것이다.

니파이후서 13:7.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 나를 …… 통치자로 삼지 말라”

- 의복이 있다 하여 통치자로 임명된 사람도 굶주림과 고통을 완화시킬 힘은 없을 것이다.

니파이후서 13:8.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 주전 약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으며 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다.(경전 안내서, “연대표: 유다의 사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 197쪽 참조) 주후 약 70년에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했으며, 유대인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다.(경전 안내서, “연대표: 기독교 역사의 사건”,

199쪽 참조) 또한 주후 132~135년에 이사야가 말한 대로 그들은 확실히 “스스로 재앙을 보응으로 취하였[다].”(니파이후서 13:9)

니파이후서 13:9. “그들의 안색”

• 의로움과 간악함은 모두 태도와 외모에 영향을 미친다. 브리검 영(1801~1877) 회장은 이런 말씀을 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밝고 하늘의 예지로 빛날 것입니다.”(“Speech,” *Times and Seasons*, July 1, 1845, 956)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겪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은밀한 죄도 하늘의 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죄를 숨겨서 발각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을

곤경에 빠뜨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히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범법에 뒤따르는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거짓말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언젠가는 성격적 결함으로 드러날 것이며, 얼굴과 태도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Oct. 1951, 8)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가 너무 가중해서 얼굴을 붉히는 법도 없어서 버렸다고 기록했다.(예레미야 6:15 참조)

니파이후서 13:12. “너로 가르치게 하며”

•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니파이후서 13장 12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악마가 아버지를 가장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 자녀들에게 반항을 열심히 부채질하고 있기에 가정과 가족은 점점 파괴되어 갑니다. 이러한 상황에 관하여 물문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 백성으로 말할진대 아이들이 그들의 학대자요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도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산아 제한이나 낙태를 장려하는 위정자들의 말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백성이여,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로 가르치게 하며, 너의 지나는 길을 망치느니라.’”(니파이후서 13:12)(성도의 빛, 1971년 5월호, 20쪽)

니파이후서 13:16~24. “시온의 딸들”

•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시온의 딸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또한 니파이후서 13장에서는 이들에 대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설명했다. “교회 총관리 역원들은 남자든 여자든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한다는 표준을 제시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행실과 정숙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시온의 딸들’이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을 한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 매우 슬픈 일입니다. 이 표현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적용됩니다. 주님께서서는 고대 이스라엘에게 남자나 여자나 몸을 가리고 항상 순결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계명을 주셨습니다.”(*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66], 5:174; 또한 영어 성경 이사야 3:16~26 각주 참조)

니파이후서 14장. 시온은 구속받을 것이다

• 복천년에 시온은 구속되고 시온의 딸들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니파이후서 14:1. “일곱 여자 …… 한 남자”

• 수많은 남자들이 전쟁에서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여자들은 미망인이 되거나 자식도 없이 홀로 되어 극심한 빈곤을 겪을 것이다.

니파이후서 14:2. 그날에

• 히브리어로 가지라는 낱말은 종종 메시지를 상징한다.(예레미야 23:5~6 참조) 또한 깨끗해지고 구속받은 이스라엘 집의 의로운 무리를 지칭하기도 한다.(이사야 60:21; 니파이후서 3:5; 10:1; 야곱서 2:25 참조)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니파이후서 14:2)은 악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심판을 피해 개인적인 의로움으로 이스라엘 집에 속하게 된 이들을 지칭한다.

니파이후서 15장. 주의 포도원에서 들리는 노래

• 니파이후서 15장 1~25절에 묘사된 끔찍한 암흑과 배도는 간악한 이들이 멸망하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는 또한 같은 시기에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모으시고 희망을 안겨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다.(26~30절 참조)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니파이후서 15장에 묘사된 상황을 현대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했다.

“미래에 대한 시현이 모두 감미롭고 밝고 평화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모든 일은 언젠가는 이제까지 지상에 알려진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악과 위험과 황량함 속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동안 육욕적이고 음란하고 악한 사람들도 역시 자신의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부름과 택하심을 굳건히 지키는 동안 이 세상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타락과 절망이라는 심연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는 불길한 전조로 마음이 무거워져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악과 범죄와 육욕이 세상을 뒤덮는 모습을 봅니다. ……

우리는 모든 곳에서 가족을 파괴하고, 도덕과 품위를 조롱하며 음란하고 저속한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악의 힘이 뭉치는 것을 봅니다. ……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의 권능이 힘을 떨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업은 전진해 나갑니다. ……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중에도 계시와 시현과 예언이 있습니다. 은사와 표적과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하게 쏟아집니다.

그런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믿는 영혼은 …… 영원한 왕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및 거룩한 존재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다가올 일에 대하여 우리가 기뻐하면서도 두려워 떠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느껴집니까?

참으로 세상은 동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운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악하고 불경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겨나며, 작은 돌은 세상을 채울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날 것입니다.”(성도의 빛, 1980년 11월호, 104쪽)

니파이후서 15:18, 20~21. 죄에 대한 경고

• 니파이후서 15장 18절에서는 죄에서 비롯된 결과를 “수레 밧줄”에 비유했다. 죄책감에 빠진 사람은 “마치 짐승이 자기가 끌어야 할 짐에[또는 황소가 달구지에] 묶여 있는 것처럼 자기 죄에 묶여 있는” 사람이다.(영어 성경 이사야 5:18 각주 c)

해럴드 비 리(1899~1973) 회장은 죄가 어떤 면에서 짐과 같은지 설명했다. “만약 여러분에게 사람이 이생에서 짊어져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이생에서 짊어져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죄라는 짐입니다.”(리아호나, 1974년 3월호, 43쪽)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은 옳고 그름을 명확히 알고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세상적으로 인기 있는 것과 의로운 것 사이의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사가야 예언한 바와 같이 오늘날 많은 이들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이사야 5:20]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오는 계시는 좋으면 취하고 싫으면 무시하는 뷔페 음식이 아닙니다.”(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22쪽)

니파이후서 15:26. “먼 나라들에게 기를 드시고”

• 후기에 간악한 사람들이 파괴를 일삼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의로운 이스라엘을 모으고 보호하기 위해 기를 들어올리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반드시 이스라엘이 집합하고 지상 모든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사가야 말한 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약 125년 전, 뉴욕 주 세네카 군 페이에트라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주님은 온 만방에 보일 기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읽어 드린 선지자 이사가야의 예언[이사야 11:11~12]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기는 바로 마지막 시대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다시는 멸망되지 않고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도 않을 것입니다.[다니엘 2:44 참조] 이 사건은 구속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날 이래로 세상에 있었던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인류에게 그날 이후 일어난 다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구원의 교리, 221쪽)



피 © 리처드 리

니파이후서 15:27~29. 부싯돌 같은 말발굽, 회리바람 같은 차바퀴, 사자 같은 부르짖음

•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그랜드 리차즈(1886~1983) 장로는 니파이후서 15장 27~29절에 나오는 이사가야 예언에 쓰인 상징에

대해 설명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선교 사업에 쏟는 커다란 노력에 주목했다.

“위대한 집합의 시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사야는 기차가 달리고 비행기가 다니는 시대에 집합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

당시에는 기차도 비행기도 없었으므로, 이사야가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오해할 소지가 없는 분명한 말로 묘사했다. 현대의 기차를 ‘그들의 말발굽은 부싯돌같이 그들의 차바퀴는 회리바람같다[다]’는 표현보다 어떻게 더 잘 설명할 수 있었겠는가? 비행기 굉음을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자같다[다]’는 표현보다 어떻게 더 잘 설명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이사야가 ‘아무도 줄거나 잠자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가 풀리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신발끈이 끊어지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이러한 운송 수단을 통해 ‘그들이 빨리 신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실제로 ‘땅 끝에 있는 그들에게 휘파람을 부실 수 있었다. 이사야는 분명히 비행기를 시현으로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 구름 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이사야 60:8)”(Israel! Do You Know? [1954], 182)

니파이후서 16:1~13

이사야가 받은 부름은 현대 선지자가 받은 부름과 어떤 면에서 같은가? 선지자 부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니파이후서 16:1. 웃시야 왕은 누구인가?

- 웃시야는 남쪽 유다 왕국을 다스린 열 번째 왕이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가 반역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주전 약 767년에 16세 나이로 왕국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웃시야는 선지자 스가랴에게 조언을 구했으며 그 선지자의 말을 따랐다. 웃시야가 의로운 길을 따르는 동안 주님께서 그를 번영하게 하셨다.(열왕기하 15:34; 역대하 26:5 참조) 웃시야는 유다 왕국을 이끌고 현지 적군에 대항하여 몇 차례 성공적인 군사 작전을 펼쳤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강화하고 농경을 지원했다. 웃시야 통치 아래 유다 왕국은 번영을 누렸으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솔로몬 이후 그때까지 그 같은 번영은

없었다. 죽음이 가까워오자 웃시야는 주님의 종으로 권한을 받지 않은 신분으로 성전 제단에서 분향을 드리고자 했다. 그 때문에 그는 나병이 생겼다.(역대하 26:19 참조) 그 후로 주전 약 742년에 죽음을 맞이까지 웃시야는 나병 환자로 살았다.(Merrill F. Unger, *The New Unger's Bible Dictionary*, ed. R. K. Harrison and others [1988], 1322~1323 참조)

니파이후서 16장. 선지자로서 이사야가 받은 부름

- 이사야는 주님께서 자신을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신 일에 대해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형상과 용어를 이용하여 상징으로 설명했다. 부름을 받는 과정에서 이사야는 시현으로 여호와를 보고(니파이후서 16:1 참조), 천사의 성역을 경험하고(니파이후서 16:2~3, 6~7 참조), 그분의 영광과 대비되는 필멸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니파이후서 16:5 참조), 부정한 것에서 깨끗하게 되며 영적으로 강화되고 난 후에(니파이후서 16:6~8 참조) 그 부름을 받아들였다.

니파이후서 16:2. 스랍

- “스랍들은 하나님 면전에 거하며 그분께 끊임없이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는 천사들이다. ……

히브리어로 스랍(seraph)의 복수는 *seraphim*이다. …… 이 거룩한 존재들이 날개를 단 모습으로 그에게 보여졌다는 사실은 다른 이들이 본 시현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 스랍들이 ‘움직이며 행동하는 따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상징한다.(교성 77:4)(Bruce R. McConkie, *Mormon Doctrine*, 2nd ed. [1966], 702~703) 히브리어로 스랍은 기본적으로 “불타다”라는 뜻이며, 아마도 하나님 면전에 거하기 위해 필요한 깨끗해진 상태를 의미할 것이다.

니파이후서 16:4.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 “문기둥이 움직이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니파이후서 16:4) 흔들림과 연기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한다.(요한계시록 15:8 참조)

니파이후서 16:9~12. “너희가 과연 듣거니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으며”

- 백성들이 복음 진리를 “듣기 어려워” 하고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주님께서는 완악한 백성들이 대부분 이사야가 전파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에게 알려 주셨다. 백성들의 마음은 진리에 대해 “둔하고” 귀는 “무디기 때문에” 명확하게 전해지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으리라 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사야는 백성들을 진리에 대항하게 하라는 임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임무가 어려운 일이라는 충고를 들은 것이다. “어느 때까지니이까?”(니파이후서 16:11)라는 이사야의 물음에 주님께서는 “이 땅이 온전히 황폐하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백성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시간이 지속되거나, 땅이 존속하거나, 그 위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자가 있는 한”(모로나이서 7:36) 주님께서는 종들을 통해 그분의 구원 사명을 자비롭게 계속 이어가실 것이다.

니파이후서 16:13. 거룩한 씨

- 니파이후서 16장 13절에 나오는 십분의 일은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을 나타낸다.
- “거룩한 씨”는 충실하게 남은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들은 마치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에서 새 가지가 자라나듯이 흩어진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울 것이다.



브런드 데이,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생각해 볼 점

- 후기에 일어나는 위대한 일이 먼 나라들에 기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니파이후서 15:26 참조) 후기 성도로서 여러분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제언 과제

- 니파이후서 12장 1~4절과 15장 26~27절, 니파이후서 15장 해설(76~77쪽)에 나오는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의 가르침, 그리고 니파이후서 15장 26절 해설(77쪽)에 나오는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말씀을 읽는다. 후기에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께서 하신 일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축복이 되었는지 한 단락으로 작성한다.
- 이사야는 그의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니파이후서 16장 9~12절을 읽는다. 선지자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들음”으로써 여러분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한다. 그런 다음 그들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제 11장

니파이후서 17~24장

소개

니파이가 인용한 이사야의 기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 있는 해설과 여러분이 이해한 점을 바탕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과 시현을 공부한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삶과 사명,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사악한 이들에게 내려질 심판과 멸망으로 어떻게 그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이 준비되는지 살펴본다. 회복이 일어나는 상황을 묘사한 부분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이사야가 예언한 사악한 세상의 행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마지막 시대에 있을 죄악에 대해 예언한 부분을 찾아보고 그 내용을 파악한다면, 의로운 선택을 하고 사악한 사람들에게 내려질 큰 심판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설

니파이후서 17~24장. 개관 및 배경

- 이사야의 예언은 중의적 성격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한편으로 이 예언들은 선지자로서 이사야가 받은 부름과 당시 시대 상황과 배경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사야는 똑같은 사건들을 절정의 시기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건을 묘사하는 데에도 사용했다. 이사야가 어떤 역사적, 지리적, 정치적 맥락에서 예언했는지를 알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니파이후서 25:5~6 참조)

이사야가 예언했을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왕국, 즉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또는 에브라임)이 있었다. 그리고 수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 모두와, 또는 둘 중 한 왕국과 때로는 적국이었고 때로는 동맹국이였다.(경전 안내서, “연대표: 이스라엘의 사건”과 “유다의 사건”, 196~197쪽 참조) 다음은 이들 세 나라와 관련된 용어들이다.

국가	수도	영토 또는 지파	지도자
유다	예루살렘	유다	아하스, 다윗의 혈통
수리아	다메섹	아람	르신
이스라엘	사마리아	에브라임	베가, 르말리아의 아들



- 이사야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국력과 번영이 쇠퇴해 가던 시기에 성역을 베풀도록 부름받았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브라임)은 수리아와 서로 힘을 합쳐 앗수르 제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 동맹을 맺었다. 유다 왕국이 동맹을 거절하자 이스라엘과 수리아는 유다를 공격했다.(니파이후서 17:1 참조)

이사야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다 왕국이 정치적 동맹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아하스는 주님의 경고를 거절했다.(열왕기하 16:7~20 참조) 아하스는 앗수르 왕인 디글랏 빌레셀 2세(불)와 언약을 맺었으며, 유다는 수리아와 이스라엘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앗수르에 공물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다. 그러나 앗수르는 작은 왕국들을 서서히 멸망시켰다. 주전 732년에 먼저 다메섹(수리아)이 무너졌으며, 주전 722년에는 사마리아(이스라엘)가, 주전 701년에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의 모든 성이 차례로 앗수르에게 정복당했다.

이사야의 많은 예언과 마찬가지로 그의 시대에 성취된 예언이 한 가지 있었다.(열왕기하 16~18장 참조) 이는 고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서 드러난다. 니파이후서 17~24장(또한 이사야 7~14장 참조)을 각 장 소개와 함께 주의 깊게 읽어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우리가 기다리는 위대한 사건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에 앞서 일어날 심판과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계속 이어지는 세대와 이 중요한 기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성신의 역할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이 “복합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사야서에는 수많은 예언이 담겨 있는데, 예언이 성취된 것은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한 예언이 이사야 시대 사람들에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다음 세대에 일어날 상황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종종 상징적으로 절정의 시기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 그리고 그 동일한 예언이 또 다른 의미에서 구주의 재림에 해당하는 사건들이나 그 성취와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이들 예언이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신으로부터 계시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Scripture Reading and Revelation,” *Ensign*, Jan. 1995, 8)

니파이후서 17:2. 다윗의 집

- 니파이후서 17장 2절에서 “다윗의 집”은 다윗 왕의 후손이자 유다 왕국의 왕위 계승자인 아하스 왕을 지칭한다.
- 동맹이라는 말은 연합한다는 뜻이다. 수리아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인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
- “마음이 …… 흔들렸느니라”라는 표현을 통해 아하스와 그의 백성은 수리아와 에브라임이 동맹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니파이후서 17:3. 윗 못에서 만나

-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슥이라는 이름은 “남은 자들이 …… 돌아오리라”(니파이후서 20:21~22; 영어 성경 이사야 7:3 각주 a 참조)라는 의미가 있다.
- 니파이후서 17장 3절에 나오는 수로라는 말은 송수로를 의미한다. 아하스는 전쟁 중 적에게 포위될 때를 대비해 성의 물 공급을 점검했을 것이다.
- 세탁자의 밭은 빨래하는 장소를 말한다.

니파이후서 17:4. “연기 나는 부지갱이”

- 니파이후서 17장 4절에 르신과 베가를 “연기 나는 부지갱이”로 표현한 것은 불꽃이 다 타 버린 모습을 나타내며, 그들의 힘이 소진해 버렸음을 상징한다. 르신과 베가는 사실상 무력했으며 앗수르의 공격에 순식간에 무너졌다.

니파이후서 17:6. “유다를 쳐서”

- “그를 파하고”라는 말은 수리아와 에브라임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공격해 들어갈 것이라는 뜻이다.
- 다브엘의 아들은 수리아 사람으로, 수리아와 에브라임이 꼭두각시처럼 세운 예루살렘의 통치자였다.

니파이후서 17:8. “에브라임이 깨어져”

-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에 앗수르에게 속박되고, 그곳에 살던 많은 사람이(이들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로 알려졌다.) 사로잡혀 갔다. 다른 땅에서 온 포로들은 그 지역에 다시 정착하여 나중에는 남아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였고, 이들은 사마리아인으로 알려진다. 예언된 대로 “에브라임이 깨어져” 65년도 채 지나지 않아 에브라임은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니파이후서 17:9~14.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한 가지 표적을 주시리라”

- 히브리어로 처녀(*almah*)는 문자 그대로 “젊은 여성”을 의미하며, 처녀라는 뜻도 함축한다.



-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이름 중 하나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에서 온 말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명칭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표시로 주어졌다.(이사야 7:14 참조) 이사야가 임마누엘을 언급한 것은 역사적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고 예언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 이 명칭은 이사야 시대에 태어날 한 아이를 가리키는 말로서, 그 아이가 성년에 달하면 표적이 될 것이다.(니파이후서 17:16~19 참조) 좀 더 중요한 예언적 의미로 임마누엘은 예수께서 필멸의 몸으로 태어나실 사건에 대한 예언이라고 마태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마태복음 1:18~25 참조) 후기에 출현한 경전 속에도 이 이름이 나타난다.(니파이후서 17:14; 18:8; 교성 128:22 참조) (더 알고 싶다면 경전 안내서, “임마누엘”, 244쪽을 참조한다.)

-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은 아하스 왕에게 그가 주님께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는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 말이 어떻게 구주에 대한 또 하나의 예표와 그림자가 되는지 설명했다. “많은 이사야의 기록이 그렇듯 이 예언에도

중의적인 혹은 아주 유사한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다. 가장 직접적인 의미는 이 시기 즈음에 아들 하나를 낳은 순결하고 선량한 여성인 이사야의 아내에 초점을 둔다. 이 아이는 장차 예수



© 1987 그레그 케이 울슨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써 이루어질 이 예언의 더욱 위대한 성취를 암시하는 예표이자 그림자이다. 이사야의 아내가 왕족 혈통이었으며 그 아들도 다윗 가계에 속한 왕족 혈통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이 중의적 예언에 담긴 상징적 의미는 한층 더 중요해진다. 다윗의 가장 위대한 후손으로, 문자 그대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실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위대한 임마누엘이시라는 사실을 예시하는 예표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분의 명칭 임마누엘은 후기에 그대로 전해져 교리와 성약 128편 22절에 구주를 부르는 명칭으로 사용된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1997], 79)

주제	이사야 7:14~17 (니파이후서 17:14~17)	이사야 8:3~7 (니파이후서 18:3~7)	마태복음 1:21
어머니	처녀가	(이사야의 아내가/ 여선지가)	(마리아가)
임신	임태하여	임신하여	날으리니
아들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들을 낳으리라	아들을
이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 바스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Donald W. Parry, Jay A. Parry, Tina M. Peterson, Understanding Isaiah (1998), 74.

니파이후서 17:16~22. 에브라임과 수리아의 멸망

- 이사야는 유다에게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반면, 아하스를 대적한 “네가 미워하는 땅”인 북 왕국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니파이후서 17:16) 당시 북쪽의 두 왕은 앗수르인에게 죽임을 당했다.

- 에브라임과 수리아 두 나라는 앗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이었다. 수리아는 주전 732년에, 에브라임은 주전 722년에 차례로 멸망했다. 홀런드 장로가 지적한 대로(82쪽에 나오는 니파이후서 17:14 해설 참조) 실제로 이사야 시대에 태어난 그 아이는 유대인의 율법에 도덕적 책임을 질 나이로 정해진 12살이나 13살쯤 되었을 것이다.

니파이후서 17:20. 머리와 수염을 미시리니

- 머리와 수염을 미는 일은 가족이 상을 당했을 때 애도를 표하는 관습이었다. 그러나 포로의 머리와 수염을 강제로 미는 것은 당사자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이자 포로임을 구별하는 수단이었다.

니파이후서 17:22. “버터와 꿀”

- 버터와 꿀이 고급스러운 물품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땅은 앗수르의 침략을 받아 황폐해진 상태였다.(니파이후서 17:23 참조) 따라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땅에서 먹을 곡식이 없어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족처럼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버터와 꿀은 염소나 양에게서 나오는 요구르트를 굳힌 것과 근방에서 찾을 수 있는 천연 벌꿀 같은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니파이후서 18장. 주님의 도구로 쓰인 앗수르

- 니파이후서 18장에서는 17장에 소개된 역사적 사건들이 계속 이어진다. 다시 말하지만 이사야는 유다에게 동맹을 맺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가 예언한 대로 동맹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라는 메시야의 약속이 그들을 위해 성취될 것이었다. 앗수르가 공격해 왔지만 유다는 살아남았다. 이사야는 유다에게 그들이 계시로 받은 계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과 관행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자신의 기록을 마쳤다.

니파이후서 18:1. 마헬살랄하스바스

- 이사야의 아들 이름인 마헬살랄하스바스는 “멸망이 임박했다”라는 뜻이다.(니파이후서 20:6 참조) 이 이름은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오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 같다.(영어 성경 이사야 8:1 각주 d 참조)

니파이후서 18:3. 여선지자

- 여선지자라는 말은 이사야의 아내를 지칭한다. 그녀에게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을 것이며, 니파이후서 17장 14절에 기록된 예언은 그녀의 아들로 맨 처음 성취되었을 것이다.

니파이후서 18:4.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 “그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라는 말은 이사야의 아들 마헬살랄하스바스가 두 살 정도 되었다는 뜻이다. 주전 732년 경에 수리아와 사마리아(이스라엘) 북부 지역이 앗수르에게 멸망당했다.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까지는 완전히 정복당하지 않았다.

니파이후서 18:6~7.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 물”

-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 물”(니파이후서 18:6)과 “세차고 많은”(7절) 강물에 담긴 대조적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설이 있다. “이사야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물 즉,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근처에서 잔잔하게 흐르는 실로아 물과, 종종 통제력을 잃고 세차게 흐르는 큰 강인 유브라테 물을 묘사한 후 서로 대조했다. 실로아 물은 잔잔하고 아름다운 반면 유브라테는 위험하고 파괴적이다. 실로아 물을 마시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만, 유브라테 물에 휩쓸려 가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한다. 두 가지 물에 대한 이사야의 표현은 상징적이다. 전자는 생명의 물에 비유되는 예수, 곧 하늘의 왕이시며 후자는 규모가 큰 파괴적인 군대를 이끌고 [홍수처럼] 땅을 덮어 …… 그 주민을 멸할’(예레미야 46:8) 앗수르 왕이다. 유다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실로아 물로 비유되는 예수를 거절하자 주님께서서는 제방을 범람하여 온 땅을 파괴로 뒤덮을, 거센 강물로 비유되는 앗수르 왕을 그들에게 보내셨다.”(Donald W. Parry, Jay A. Parry, Tina M. Peterson, *Understanding Isaiah* [1998], 83)

니파이후서 18:8. “목에까지”

- “목에까지”라는 상징적 표현은 앗수르 왕이 유다 땅을 예루살렘까지 정복할 것임을 나타낸다. 주전 701년 경에 앗수르는 이미 수도[예루살렘 성]를 제외한 유다 전역을 멸망시켰다.

니파이후서 18:8, 10.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 앗수르가 유다를 정복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진 듯했지만 임마누엘 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에서 보호되었다.(니파이후서 18:10) 성벽 너머로 화살 하나도 넘어가지 못한 이 기적 같은 사건은 이사야 37장 33~36절에 묘사되어 있다.

니파이후서 18:14. 성소와 “걸림돌”

-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임마누엘”에는 구원과 정죄 둘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오실 때, 그분은 의로운 사람들을 위한 성소가 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복음을 안식처 삼아 화평과 안전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반역과 불순종을 일삼은 무리에게 그분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또한 뒷과 울무)가 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에게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분개하고, 그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정죄받고 속박되고 끌려갈 것이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71~1973], 3:292~293)

니파이후서 18:17. “주를 의지하고, 기다리며”

-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매일, 때로는 매시간, 심지어 매 순간 고통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 갇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고통에 시달릴 때 받은 놀라운 권고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아들이야, 네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이다. 네 역경과 네 고난은 잠시 뿐이니,

그러고 나서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 너는 너의 모든 원수를 이기리라.’(교성 121:7~8)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 때 구주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십시오.’(이사야 8:17; 니파이후서 18:17)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이사야 40:31) 치유는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주님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리아호나*, 1999년 1월호, 17쪽)

니파이후서 18:19. “신접한 자들[과] 주절거리[는] 마술사”

- 그 암흑 시기에 사람들은 주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죽은 사람의 영에 의지하고자 했다. 주절거리며 중얼거리리는 마술사라는 말은 스스로 죽은 사람과 접신했다고 믿는 무당들이 시끄러운 소리로 중얼거리며 말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니파이후서 19장.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났고”

- 앗수르인들은 이스라엘(에브라임)과 수리아 연합군을 급습하여 다메섹을 무너뜨리고, 후에 갈릴리라고 불린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차지했다.(열왕기하 15:27~31 참조) 니파이후서



19장 1절에는 이 사건을 “어둠”을 몰고 온 “고통”이라고 표현했다. 나머지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에 닥친 이러한 침략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큰 빛”(니파이후서 19:2)이 비칠 것이라는 말로 이곳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다. 스블론과 납달리 지파가

배정받은 땅은 북 이스라엘, 즉 갈릴리였으며 이곳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성역을 베푸신 주요 장소였다. 마태와 요한은 메시아께서 갈릴리 지역에 거주하신 사실을 목격했으며, 이사야의 예언은 그렇게 성취되었다.(마태복음 4:12~16; 요한복음 1:5 참조)

니파이후서 19:6~7. “정사가 그 어깨 위에 있을 것이며”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니파이후서 19장 6~7절에 나오는 이사야 예언의 성취가 속죄와 복천년 시기 둘 다와 관련이 있다고 기록했다. “정사가 궁극적으로 그분 어깨에 있을 것이라는 말은 온 세상이 언젠가는 그분이 만주의 주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거룩한 주권자 및 대제사로서 지니신 위엄과 신성한 예복을 갖추시고 이 땅과 그분의 교회를 친히 통치하시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임을 확증하는 말이다.

정사와 그것에 관한 짐이 그분 어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질 짐은 크게 가벼워지리라는 사실에서 모든 사람은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죄(또는 적어도 여기에서는
 우리의 현세적 짐)를 그분 어깨로 가져가신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이사야가 남긴 또 다른 예언이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80)

니파이후서 19:6~7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각 명칭은 구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더해 주는가?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다양한 명칭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설명을
 했다.

“그분은 ‘경이로운 모사’로서 하늘 심판대에서 우리
 마음속 동기를 변호하시는 우리의 증보자요 중재자가
 되실 것이다. 일찍이 이사야는 (그리고 니파이는) ‘주께서
 변호하러 일어서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라고
 상기시켰다.[니파이후서 13:13] 후기 경전에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사요 대변자이신 그분께서 지니신 크나큰
 연민을 생각해 보라.

‘아버지께 대한 변호자가 되는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는
 아버지 앞에 너희 문제를 변호하고 있나니—

아뢰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자요 아무 죄도
 범하지 아니한 자가 겪은 고난과 죽음을 보시옵소서. 당신
 아들의 흘린 피를 보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영광을
 얻으시려고 주신 자의 피로소이다.

그러하온즉 아버지여, 나의 이름을 믿는 이 나의 형제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내게 나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느니라.[교성 45:3~5]

물론 이사야가 지적한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중재자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이시기도 하다.[모사이야서 3:10; 모로나이서
 10:34; 모세서 6:57 참조] 심판하는 그분의 역할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러 내려오실
 것이라고 되풀이한 아빈아다이의 말에서 훨씬 더 커다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모사이야서 13:28; 또한 모사이야서 13:34; 15:1;
 엘마서 42:15 참조] 이것은 마치 하늘의 그 거대한 법정에 앉은
 재판관께서 재판대에 선 죄 지은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대신 짊어지라고 하고 싶지 않았기에 직접
 판사복을 벗고 지상에 친히 내려와서 그들이 받을 매질을 몸소
 받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께서 자비로운 재판관이시라는 사실은
 그분께서 모사요, 증보자요, 변호자이시라는 사실만큼이나
 아름답고 경이롭다.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과 힘, 전능하심,
 대적할 수 없는 영향력을 나타낸다. 이사야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이 저지른 죄와 범법의 결과를 항상 극복하실 수 있으며,
 이스라엘 자녀들을 억압하고자 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승리하실
 것을 보았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그리스도께서 무수한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부활을 통해 육신의 생명을 회복하시는 아버지,
 영적으로 그분에게서 난 아들과 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며, 신성한 권세를 위임받아 아버지(엘로힘)를
 대신하여 행하시는 분이라는 기본 교리를 강조하는 말이다.
 모든 사람은 그분에게서 나서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구해야 한다.[모사이야서 5:7 참조]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장차 왕께서
 오실 때에는 인간의 마음이나 세상 여러 민족 사이에 더 이상
 전쟁은 없으리라는 사실에 기뻐한다. 이 왕은 평화로운 왕이자
 예루살렘이 될 도시인 살렘의 왕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시대를
 불문하고 필멸의 상태에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며, 그분의 복천년과 복천년 이후에 있을 영광의 왕국에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80~82)

니파이후서 19:11~12. “그의 손은 여전히 뻗어 있느니라”

- “르신의 대적”은 앗수르인을 말한다.
- “그의 손은 여전히 뻗어 있느니라” 이는 대부분 의로운 진노를 표현하는 말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자비의 손길을 뜻하기도 한다.(니파이후서 28:32; 야곱서 6:4~5 참조)

니파이후서 19:18~19. “불을 지필 뿔감”

- 니파이후서 19장 5절에 나오는 피묻은 전쟁 갑옷은 “큰 빛”(2절)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평안을 준비하기 위한 불의 연료이다. 이와는 반대로 18~19절에 나오는 불을 지필 뿔감은 그들의 형제조차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과 그 사악함을 의미한다.

니파이후서 20장. 앗수르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 앗수르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적해 승리하도록 허락되기는 했지만 그들 역시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니파이후서 20장에는 앗수르의 운명에 관한 예언이 담겨 있으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사야는 앗수르가 펼친 몇 가지 성공적인 군사 작전을 언급했고(9절 참조) 결국 유다를 침략해 승리하리라고 예언했으며 앗수르에게 무너질 유다의 여러 성들의 이름까지도 거론했다.(28~32절 참조) 그렇지만 앗수르인들은 결국 실패했고, 이스라엘과 앗수르 양쪽이 모두 완전히 멸망한다고 묘사되어 있다.(15~19절 참조) 또한 이스라엘과 앗수르의 멸망은 후기를 포함해 어느 시대나 악한 사람은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하나의 예표이다.

니파이후서 20:5~6. “나의 분노의 막대기”

- 자비로운 주님께서서는 거듭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게 하신다. 백성들이 선지자를 거절했을 때 주님께서서는 앗수르를 그분의 백성을 벌하는 막대기로 사용하셨다. 그 목적을 이루시고 나서 주님께서서는 또 다른 나라, 즉 바벨론의 손으로 앗수르의 사악함을 벌하셨다.(니파이후서 20:12 참조)

니파이후서 20:12~14

모세서 4장 1~4절을 이들 구절과 비교해 본다. 이사야가 대적에 대해 가르치는 데 앗수르 왕은 어떻게 하나의 모형이 되는가?

니파이후서 20:12~15. “도끼가 …… 자기를 자랑하겠느냐?”

- 주님께서서는 앗수르가 자루를 권 주인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도끼와 같다고 비유하셨다. 도끼(앗수르)는 스스로 힘을 발휘할 수 없으며 그의 통치는 끝날 때가 되었다.

니파이후서 20:16~19. 악한 사람들은 하루 사이에 멸망할 것이다

- 이사야는 앗수르의 멸망을 재림 때 있을 사악한 이들의 멸망을 나타내는 예표와 투영으로 사용했다.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 구절을 읽는 이들에게 재림의 맥락과 어떻게 연관시켜 이해해야 할지를 가르쳤다. “이사야는 재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쯤레가 소멸되니라.’ 또한 포도원을 정화하는 불타는 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 불로]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그리고 이렇게 기록은 계속된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인간의 사악함이 만연하고 그 악이 너무 커서, 비교적 극소수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 날’, 곧 불타는 날, 모든 썩어질 것들이 소멸되는 날, 남은 자가 적을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이사야 10:17~21) 그들은 주님의 재림 이후에 집합할 것이다.”(*The Millennial Messiah* [1982], 315~316)

니파이후서 21장. 이새의 가지

- 주님께서서는 이사야의 시야를 열어 후기에 관한 중대한 진리를 가르치셨다. 모로나이처럼(몰몬서 8:34~35 참조) 이사야도 우리 시대 상황과 주님께서 어떤 사건들로 위대한

복천년의 날을 다가오게 하실지를 보았다. 이사야가 남긴 많은 예언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복음이 회복되는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다.

니파이후서 21:1~5, 10. 줄기, 가지, 어린 가지

• 1823년 9월 21일,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이사야 십일 장을 인용하며 이르기를, 이것은 바야흐로 성취되려 하고 있다고 하였다.”(조셉 스미스—역사 1:40)

이새의 줄기는 누구이며, 그 줄기에서 자라날 어린 가지는 누구를 말하는가?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교리와 성약 113편 1~4절에서 답하셨다. 그렇지만 각 상징 용어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여 깊이 생각하며 기록을 읽어야 한다.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복천년 때에 그 가지는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 (예레미야 23:3~6) 이 말씀은 복천년 동안 세상을 친히 다스리실 왕은 다윗의 집에서 자라날 가지일 것이라는 뜻이다. …… 그분은 주 여호와이시며, 우리가 그리스도라 부르는 분이시다.”(*The Promised Messiah: The First Coming of Christ* [1978], 193)

니파이후서 21장 1절에는 후기에 세워질 주님의 왕국에 관한 추가 견해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한데 엮여 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어린 가지가 나올 것이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날 것이라.” 후기에 받은 계시는 이 어린 가지가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한 종”(교성 113:4)을 의미한다고 밝힌다.

후기의 종이라는 개념은 니파이후서 21장 10절에서 시적으로 반복되는데, 이번에는 “이새의 뿌리”라고 나온다. 이 뿌리는 “마지막 날에 기호가 되고 나의 백성들의 집합을 위하여 신권과 왕국의 열쇠”(교성 113:6)를 쥐게 될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 한 사람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다. 마찬가지로 그의 뒤를 이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모든 선지자도 이새의 뿌리이다.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같은 느낌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여기 언급된, 신권이 회복되고 왕국 열쇠를 받았으며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 백성들의 집합을 위하여 기를 들어올린

선지자를 조셉 스미스라 말한다고 해서 잘못을 범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한 종이요, 부분적으로 에브라임의 후손 또는 요셉 집의 후손인 동시에 이새의 후손이니, 그에게 많은 권능이 놓여 있다’(교성 113:4~6)고 한 그 종은 조셉 스미스가 아닌가? 무한하신 이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의 의미를 알 것이다.”(*Millennial Messiah*, 339~340)

니파이후서 21:9.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하늘에서 부어 주시는 지식을 얻는 것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성신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지식을 키우며, 신권 교리를 이해하는 일이 포함된다고 가르쳤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지식이 급증하는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 자녀를 위한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는 그에 필적할 만한 지식의 확장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학위나 기술이 아니라 더 많은 의로움과 계시입니다.

저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이사야 11:9; 니파이후서 21:9)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날을 열망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주님께서 ‘후기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식을 부어내려 주[실]’(교성 121:33) 것이라는 영감에 찬 말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마음이 이 세상 일에 지나치게 얽매어 있고 사람의 명예를 갈망’(121:35)하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의의 원칙’(121:36)을 배우고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은 권세 있는 사람을 걷어차며 ‘성도를 박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느’(121:38)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는 충실한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네 영혼을 적시리라.

성신은 변하지 않는 네 동반자가 될 것이요, 네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무궁토록 네게로 흘러 오리라.’(교성 121:45~46)(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38쪽)

니파이후서 21:10~16. 후기에 일어날 집합

• 1823년 9월 21~22일, 모로나이 천사는 다섯 차례에 걸쳐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방문했다. 그중 네 차례에 걸친 방문에서 다른 여러 가르침 중에서도 이사야 11장을 인용하며 그 예언이 바야흐로 성취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셉 스미스—역사 1:40 참조)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데 필요한 신권 열쇠를 받았다.(교성 110:11 참조)

니파이후서 21:11. 두 번째 집합

•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이스라엘 집이 두 번째로 집합하는 시기는 마지막 시대를 위해 특별히 예비되었다고 가르쳤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분의 손을 다시 펴사, 그분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앗수르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그리고 바드로스에서, 그리고 구스에서, 그리고 엘람에서, 그리고 시날에서, 그리고 하맛에서, 그리고 바다의 섬들에서 도로 찾으시며, 그들 가운데 이방인의 충만함을 나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죄가 거두어질 때 확립하리라 약속하신 성약을 그들과 세우실 것입니다. …… 이스라엘 집에서도 유다 집에서도 이러한 성약이 확립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지상에 계실 때 성약을 맺자고 그들에게 제의하셨지만 그들은 그분과 그 제의를 거절했으며, 그 결과 그들은 꺾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그들과 어떠한 성약도 맺지 않으셨습니다. ……

그리하여 이 택함 받은 백성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의를 거절한 후에 구원의 전령들은 그들에게 ‘보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돌이키리니’라고 말했으며, 이방인들이 이 성약을 받았고, 그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 꺾인 그 자리에 접목되었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1:313)

니파이후서 22장. 찬양의 노래

• 니파이후서 22장에는 복천년에 있을 감사와 찬양을 담은 두 찬가가 실려 있다. 이 노래에는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이 담겨 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위해 간증과 감사와 사랑을 나눌 것이다. 후기 성도 찬송가 48장에 나오는 “주는 나의 빛”이라는 노래는 이사야 12장 2절에 나오는 표현에 바탕을 둔다.

니파이후서 22:3.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틴(1917~2008) 장로는 생수의 근원이 누구를 일컫는지 밝혔다. “주님께서는 진리에 대한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불타는 갈증을 해소해 줄 생수를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들에게 경전과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여 충만한 복음을 제공하고 회복된 복음 진리에 관한 간증을 전하여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이 복음 지식이 든 잔을 마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어 갈증이 해소될 것입니다.”(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19쪽)

니파이후서 23장. 바벨론의 멸망

•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과 그 고귀함이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편화된 사악함을 생생한 시현으로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력을 모아 바벨론을 멸망시키라고 명하셨다.(니파이후서 13:2~6 참조) 주전 538년, 고레스 대왕이 이끄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유브라테 강을 둑으로 막고 강바닥으로 진군해 와서 바벨론 성벽 아래에 이르러 성을 탈환하고 그 제국을 무너뜨린 일이 그 명령에 대한 응답이었다. 영적인 의미에서 바벨론이라는 용어로 비유된 표현을 생각해 볼 때 이 사건의 의미는 더욱 명확해진다. 이사야 역시 자신의 예언에서 바벨론이라는 용어를 마지막 시대에 세상 전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은 “거룩하게 된 자들”(니파이후서 23:3)인 후기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세상의 악(바벨론)을 물리치라는 명령이다.



출처: 니파이후서 17~24장

니파이후서 23:6. “주의 날”

•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악한 사람을 벌하고 의로운 사람을 보존하실 주님의 심판을 일컫는 데 자주 사용되었다. 주님께서는 그날을 준비하라 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준비 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교성 38:30)

니파이후서 24:4~20. 루시퍼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

• 니파이후서 24장에서 주님께서는 이사를 통해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악한 이들을 징죄하셨다. 이사는 이스라엘 집에 존재하는 악 때문에 커다란 심판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심판은 다른 나라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멸망에 대한 이사의 시현과 예언을 통해 열국 가운데 고통을 가져오는 주요 세력으로서 대적이 담당하는 역할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예언자의 권세를 통해 우리는 루시퍼가 결국 실패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니파이후서 24:12. 루시퍼

• 성경과 물문경에서 루시퍼라는 이름이 사용된 곳은 이사가 14장 12절과 니파이후서 24장 12절 밖에 없다. 교리와 성약 76편 25~28절에서 우리는 루시퍼(“빛을 품은 자”라는 의미)가 전세에서 사탄의 이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반하였으므로 사탄은 “하나님 앞에 권위를 지닌”(25절) 자였던 위치에서 떨어져 “멸망이라 불리”(26절)게 되었다.

이사는 루시퍼의 교만과 그가 하늘에서 떨어진 일(니파이후서 24:12~19 참조)을 바벨론의 야망과 궁극적인 멸망(4절 참조)을 나타내는 예표로 삼았다.

바벨론과 그 통치자들에 대한 이사의 설명은 또한 복천년 동안 사탄이 결박되어 열국에 대해 아무런 힘도 행사하지 못할 그날을 암시하는 예표와 투영이다. 사탄은 복천년 이후 잠시 풀려나겠지만 결국은 필멸의 땅의 역사가 끝남과 동시에 모든 권능을 잃을 것이다. 사탄과 멸망의 아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날 것이다.

-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사탄의 성격에서 하늘에서 추락한 원인이 된 치명적인 결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전세의 천국 회의에서 ‘아침의 아들’(니파이후서 24:12~15; 또한 교성 76:25~27; 모세서 4:3 참조) 루시퍼가 추락한 원인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

천국 회의에서 루시퍼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지하는 아버지의 계획과 경쟁하며 제안을 내놓았습니다.(모세서 4:1~3 참조) 그는 다른 모든 이를 뛰어넘는 영광을 원했습니다.(니파이후서 24:13 참조) 간단히 말해서 루시퍼의 교만한 욕망은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교성 29:36; 76:28 참조)” (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4~5쪽)

니파이후서 24:12~20

루시퍼는 어떤 방법으로 땅의 열국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알렸는가? 루시퍼가 한 행위는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생각해 볼 점

- 니파이후서 17~19장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면에서 마지막 날에 이를 핵심 목적이 되는지를 살펴본다.
- 마지막 시대의 심판에 관한 이사의 경고 중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재림은 어떤 면에서 “크고”도 “두려운”가?

제언 과제

- 여러분이 이사야를 인용한 이 장들과 그 해설을 주의 깊게 읽고 공부했다면, 이제 후기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고, 오늘날 우리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언적 통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따로 종이를 준비해서 적어 본다. 다음에 나오는 각 성구에서 주요 주제를 찾아본다.

니파이후서 17~18장 _____

니파이후서 19장 _____

니파이후서 20:12~19 _____

니파이후서 21:10~14 _____

니파이후서 22장 _____

니파이후서 23장 _____

니파이후서 24장 _____

소개

니파이는 자신이 인용한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 예언과 같은 해설을 덧붙였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구주의 역할, 마지막 시대에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커다란 악, 약속된 회복이 가져오는 축복에 관한 니파이의 통찰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 예언된 회복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몰몬경이 출현한 일은 중요한 부분이었다. 여러분은 니파이의 기록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위대한 사업을 알게 되도록 준비된다는 사실과 더불어 여러분이 용서받기 위해 속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다.

해설

니파이후서 25:1~8. 이사야 기록을 이해할 수 있는 도움말

- 이사야 기록을 이해할 수 있는 도움말을 보려면 42쪽에서 나오는 니파이전서 20~21장 해설을 참조한다.

니파이후서 25:4. “예언의 영으로 충만한”

-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예언의 영”이라는 말의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사를 얻을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설명했다.

“교회 회원이면 누구나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선지자는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예수에 대한 간증이 곧 예언의 영이라고 가르쳤다. 자신을 자유롭게 할 진리를 깨우치는 일은 모든 교회 회원이 받은 특권이자 의무이다. 계시를 받지 않는 한 이 진리를 깨우칠 수 없다. ……”

교회 회원은 예언과 계시의 영을 지닐 수 있도록 성신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나 회원이 교회를 인도하도록 계시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2 vols. [1953], 2:217~218)

니파이후서 25:9~30:18. 유대인, 리하이의 후손, 이방인에게 주는 니파이의 가르침

- 다음 개관은 니파이후서 25~30장에 대한 요약으로, 니파이가 세 부류 즉, 유대인과 리하이의 후손과 이방인에게 가르친 내용이다.

유대인에게 전하는 니파이의 메시지(니파이후서 25:10~20)

- 예루살렘의 멸망. 바벨론에 사로잡혀 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옴.(10~11절 참조)
-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저버림. 십자가에 못박히심과 부활.(12~13절 참조)
- 주후 70년과 주후 135년에 또다시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14절 참조)
- 그 후에 유대인이 흩어짐.(17~20절 참조)

리하이의 후손들에게 전하는 니파이의 메시지(니파이후서 25:21~26:11)

- 니파이의 기록은 보존되고 전해 내려질 것임. 요셉의 자손이 보존될 것임.(25:21 참조)
- 니파이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함. 모세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25:23~30 참조)
- 표적이 있는 후 멸망이 일어남. 그리스도께서 니파이 백성을 방문하심. 니파이 백성에게 임할 멸망.(26:1~11 참조)

이방인에게 전하는 니파이의 메시지(니파이후서 26:12~29:14)

- 예수는 그리스도이심.(26:12~13 참조)
- 마지막 시대에 관한 예언(26:14~29:14 참조)
 1. 몰몬경 출현(니파이후서 27장 참조)
 2. 몰몬경의 가치(니파이후서 28장 참조)
 3. 몰몬경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주는 경고(니파이후서 29장 참조)

요약(니파이후서 30:1~8)

- 이방인에게(1~3절 참조)
- 리하이의 후손에게(4~6절 참조)
- 유대인에게(7~8절 참조)

니파이후서 25:13. “그의 날개를 고치시고”

-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단지 범법에 대한 용서뿐 아니라 삶의 모든 고난까지도 치유하는 속죄의 영향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해리 워드슨 © IRI

“[구주께서는] ‘날개를 고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구속주께서 베푸시는 치유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는 오늘, 합당하게 살았지만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짊어지게 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구주의 가르침

속에 내재된 원리에 기초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시련은 심각한 신체적 장애일 수도 있고, 고질적인 병고, 아니면 날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치르는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고, 죄에 빠진 다른 사람 때문에 느끼는 번민일 수도 있으며, 여러 형태의 악의 남용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는 주님께서 정해 주신 상황 속에서 늘 위안을 찾을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7쪽)

니파이후서 25:15~17. 유다가 되돌아오다

• 월포드 우드럽(1807~1898) 회장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예언으로 주어진 임무 즉, 고국으로 집합해 그 땅을 소유하고 예루살렘에 위대한 성전을 재건하라는 임무를 성취해 나가면서 위대한 축복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유다의 집이여, 이것이 위대한 엘로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을 때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위대한 미래와 운명이 놓여 있으며, 그 운명이 실현되는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택함 받은 왕족의 자손이며,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 퍼붓는 억압 속에서 1,800년 동안 여러분을 한 민족으로 특별히 보존하셨습니다. …… 여러분의 왕이신 실로를 만나볼 때 여러분은 그분을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정해졌으며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고국으로 집합하여 도시와 성전을 재건하면, 이방 나라들은 참으로 군대를 함께 모아 여러분을 대적하여 싸울 것입니다. …… 그러나 이 시련이 닥쳐올 때, 모세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해 내실 것이며, 실로께서 내려와 여러분 한가운데에서 그

싸움에 동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을 알아볼 것이며, 유대인의 고난은 끝날 것입니다.”(Matthias F. Cowley, Wilford Woodruff: History of His Life and Labors, 2nd ed. [1909], 509~510에서 인용)

니파이후서 25:17~20
 니파이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기이하고도 가장 기이한 일”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니파이후서 25:17. “기이하고도 가장 기이한 일”

• 이사야 29장 14절에도 나오는 “기이하고도 가장 기이한 일”이라는 표현은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 회복됨을 일컫는다. 니파이후서 27장에서 우리는 회복을 하는 데서 몰몬경이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알 수 있다. 이사야는 몰몬경이 약 2,000년간 지속된 배도의 암흑을 없애며, “지혜로운 자와 학식있는 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을]” 헛되게 만들 것이라고 예언했다.(니파이후서 27:26)

•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이 기이하고도 가장 기이한 일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 몇 가지를 언급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은 1820년에 동이 텅습니다. 그 해에 진지하고 신앙이 돈독한 한 소년이 숲 속으로 들어가 자신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를 구하려고 소리 높여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응답으로 영광스러운 시현이 열렸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어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2천여 년 동안 닫혀 있던 휘장이 걷히고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어서 고대에 신권을 소유했던 이들이 안수함으로써 먼저 아론 신권이, 그 다음에 멜기세덱 신권 순으로 거룩한 신권은 회복되었습니다. 티끌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말하는 또 하나의 성약이 세상의 위대한 구속주인 하나님의 아들의 실재와 신성에 대한 두 번째 증인으로 출현했습니다.

신성한 권세의 열쇠가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죽음으로도 폐할 수 없는 성약 안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해 가족을 인봉하는 데 필요한 열쇠가 포함되었습니다.

들은 처음에는 작고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꾸준히 성장하여 굴러 나아가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리아호나, 2000년 1월호, 89쪽)

니파이후서 25:19. “그의 이름은 ……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임이니라”

•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몰몬경에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근원으로 명백히 인정하고 경배한다는 점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과 일찍이 고대 미대륙에서 그리스도를 경배하던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다. 또한 신약 시대 성도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직접 세우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며, 아담은 바로 그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모세서 6:52 참조) 따라서 시대를 막론하고 성도들은 니파이가 “하나님의 아들”(니파이후서 25:19)이라고 간증한 예수 그리스도를 힘과 구원을 얻는 근원으로 바라본다.

니파이후서 25:20~21.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되는 니파이의 기록

• 주님께서는 니파이에게 기록을 작성하라고 명하셨다. 니파이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기록하라고 명하셨음을 알았으며, 또 무엇을 기록해야 할지를 알았다. 기록해야 하는 이유를 항상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는 “그 기록들이 보존되어 미래 세대에게 전해져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Robert J. Matthews, *Selected Writings of Robert J. Matthews: Gospel Scholars Series* [1999], 356)



© 1988 몰몬

니파이후서 25:22. 우리는 몰몬경을 기꺼이 받아들이냐에 따라 심판 받는다

•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몰몬경을 공부하는 중요성과 그 공부를 게을리하면 어떤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가 이 책[몰몬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영원한 결과가 결정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축복 아니면 정죄, 둘 중 하나입니다.

모든 후기 성도는 몰몬경 연구를 평생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몰몬경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전 생애에 영적 및 지적 통합을 얻을 기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몰몬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우고 쇠막대를 굳게 붙잡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A Witness and a Warning* [1988], 7~8)

니파이후서 25:23. 은혜의 교리

•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와 사랑을 통해 얻는 신성한 도움 또는 힘을 말한다. “인류가 불멸하는 상태로 부활하여 모든 사람이 무덤으로부터 영생에 이른 상태에 맞는 몸을 받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속죄 희생으로 가능해진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이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속죄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써 선행을 행할 힘과 도움을 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이다. 그렇지 않고 그들 자신에게만 맡겨진다면 선행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은혜는 곧 남자와 여자가 모든 노력을 다한 후에 영생과 승영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아담이 타락한 결과로, 또한 인간의 약점과 결점 때문에 모든 영혼에게는 신성한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받는 사람이 온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은혜만으로는 충분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니파이후서 25:23)이라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 원리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요한복음 15:1~11)에 잘 나타난다.(또한 요한복음 1:12~17; 에베소서 2:8~9; 빌립보서 4:13; 교성 93:11~14)(경전 안내서, “은혜”, 231~232쪽 참조)

•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은혜의 영향력과 은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에게 중요한 교리가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 후기 성도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한다고 비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난에 대해 물몬경에 나오는 두 선지자의 말로 대응합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자손[을]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부지런히 수고 함이니,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라.'(니파이후서 25:23)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 일이란 참으로 회개(앨마서 24:11 참조)하고 침례를 받으며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 너희가 만일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니,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모로나이서 10:32)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그 후에 남은 날 동안 불가피하게 죄를 지으며 살 때 무조건 구원받는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는 죄 중에 구원받지 못합니다.(앨마서 11:36~37 참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신성한 구원의 계획을 통해 매주 새롭게 회개하고 정결해짐으로써(제3니파이 9:20~22 참조)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힐라맨서 5:10 참조)"(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60쪽)

니파이후서 25:26.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은 회복으로 얻은 지식을 통해 구주 안에서 참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가르쳤다.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비난합니다. 우리가 전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몇 가지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지식은 옛 전통, 곧 제한된 이해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거의 끝없이 이어진 인간들의 토론 결과로 도출된 교의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앙과 지식은 이 경륜의 시대에, 위대하신 우주의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마주한 한 선지자의 간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분들께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그 선지자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지자는 그 위대한 시현에 대해 공개적으로 분명하고 당당하게 간증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세상의 구속주를 시현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이를 통해 얻은 지식은 분명하고 명료했습니다. 현대 계시에 기반을 둔 이 지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니파이가 한 말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가]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고자]'(니파이후서 25:26) 한다는 것입니다."(리아호나, 2002년 7월호, 102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일을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하라는 명령과 연관시켜 설명했다.

"제가 가장 큰 감동을 받고 또한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 니파이가 말했듯이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든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니파이후서 25:26)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교성 107:23)이 되는 일보다 더 숭고한 목적과 더 큰 특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가장 큰 걱정도 바로 그 책임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짧지만 강하고 절제된 표현으로 우리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경전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린도전서 9:14)라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가르침과 간증뿐만 아니라 제 생활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 존재 자체가 이 사업의 신성함을 반영해야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만에 하나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과 이 교회에 대한 사랑, 또는 사도라는 거룩한 직분에 대한 존경심에 누를 끼친다면 저는 그 일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31쪽)

니파이후서 25:28.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도자를 따르라

• 칠십인인 찰스 디디에이 장로는 간증을 강화하기 위해 구주와 지상에 있는 주님의 지도자가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단 간증이 생긴 후에는 마치 불이 연소하기 위해 연료와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그 간증에 양식을 주고 공들여 가꾸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타 없어져 소멸해 버릴 것입니다. 간증이 사그라들면 곧이어 우리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

불행하게도, 간증을 얻은 후 그것을 부인하며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간증을 얻기 위해 따라야 할 단계가 있듯이 그와 정반대로 할 때 간증을 부인하거나 잃게 되는 단계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계시의 문이 닫힐 것입니다. 겸손해지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복음 의식에 참여하지 말고 세상의 관습을 따르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을 따르지 말고 비판하십시오.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거나 그 권고를 따르지 말고 그 말씀을 자신의 기호에 맞게 마음대로 해석하십시오. 계명에 순종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활하십시오.”(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74쪽)

니파이후서 26:11. “주의 영이 항상 사람과 함께 애쓰시지는 아니하실 것임이라”

•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위스린(1917~2008) 장로는 성신과 늘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다른 모든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성신의 은사]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을 교회 회원으로 확인하기 위해 신권 소유자들이 확인 안수를 할 때 여러분은 ‘성신을 받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성신이 무조건 여러분의 변함없는 동반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전에서는 주님의 영이 ‘항상 사람과 함께 애쓰시지는 아니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확인 안수를 받으면 성신을 동반할 권리를 받지만, 이 권리는 오직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고 합당할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당연히 받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리아호나, 2003년 5월호, 26~27쪽)

니파이후서 26:15~16. 티끌에서 말할 것임이니라

• 니파이는 이사야 29장 4절을 쉬운 말로 풀어서, 그의 백성이 멸망할지라도 “멸망당할 자들이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말할 것이요, 그들의 말하는 것이 티끌에서 나직이 날 것이며, 그들의 음성이 친밀한 영을 가진 자 같을 것임이라.”(니파이후서 26:16)라고 설명했다. “친밀한 영”은 원래 사람에게 속삭이는 영, 또는 죽은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 명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의미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세상을 떠난 사람이 무덤을 넘어 이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쓰이던 말이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수세기 동안 “티끌 속에 잠[들어 있던]”(니파이후서 27:9) 니파이 백성의 목소리는 이제 물몬경 책장을 통해 “티끌에서 나서” 속삭이고 있는 것이며, 조셉 스미스는 글자 그대로 “땅에서” 물몬경을 꺼냈다.(이사야 29:4; 조셉 스미스—역사 1:51~52 참조)



니파이후서 26:20~30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는 커다란 범법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런 범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어떤지 생각해 본다.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니파이후서 26:22. “그는 아마 줄로 목을 매어 그들을 이끌기를”

• 카를로스 이 에이시(1926~1999) 장로는 칠십인으로 봉사할 때 아마 줄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떻게 끊을 수 없는 억압의 멍에가 되는지를 설명했다. “처음에 작은 잘못은 아마 실 한 가닥과 같아서 쉽게 끊어서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처음 가닥에 한 가닥씩 얽히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점점 여러 가닥이 얽히고설켜 거의 끊어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새뮤얼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이라는 사슬은 너무나 작아서 깨뜨리기 어려울 만큼 강해지기 전까지는 알아채지 못한다.’(*The Road to Somewhere: A Guide for Young Men and Women* [1994], 88)

니파이후서 26:29. 사제술이라는 죄

- 니파이는 사제술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세상을 위한 빛으로 세[울]”(니파이후서 26:29) 때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이는 예수께서 니파이 백성에게 “나는 너희가 치켜 들 빛이니”(제3니파이 18:24)라고 가르치신 말씀과 대조된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그런 사제술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 모두에게서 생겨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자든 여자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정한 교회 교리를 선언하며, 자신의 거짓 복음을 퍼뜨리고, 교회 기본 교리에 도전하는 내용을 다루는 심포지엄과 서적과 잡지 출판을 후원함으로써 추종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고, 출판을 하는 사람들과 자기들에게 선동되는 사람들의 영원한 복지를 전혀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이들을 조심하십시오. 물론경에 나오는 니허와 코리호어처럼 그들은 꾀변술에 의지해 다른 사람을 속여 자신들의 견해를 풀어놓습니다. ……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을 위한 빛으로 세워 이익과 세상의 칭찬을 얻으려 [할 뿐] …… 시온의 복리를 구하지 아니합니다.’”(니파이후서 26:29)(*리아호나*, 2000년 1월호, 74쪽)

니파이후서 26:33. “그는 그들 모두에게 그에게로 나아[오도록] …… 권하시며”

-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은 우리에게 왕국 안에서 편견을 버리고 서로 형제 자매처럼 일하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 “저는 우리 모두가 문화, 인종, 언어에서 오는 차이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저는 경험을 통해 어떠한 신앙과 영성에도 민족과 신분에 우월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영적 화평은 인종이나 문화나 국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헌신하고 복음 성약과 의식을 지키고자 결심할 때 얻는 것입니다.”(*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62쪽)

-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복음이 가져오는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똑같이, 완전하고도 무한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아들이나 딸 중 어느 한쪽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녀 모두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속죄와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예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한마음으로 돌아보셨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 병을 고쳐 주셨으며 남자와 여자 모두를 가르치셨습니다.

…… 예를 들면, 신앙과 회개와 침례와 성신의 은사는 성별에 관계 없이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요구됩니다. 성전 성약과 성전 축복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일과 영광은 그분의 자녀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모세서 1:39 참조) …… 그분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영생의 자질”*, *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89쪽)

니파이후서 27장. 주님께서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 이사야의 기록 중 니파이가 마지막으로 인용한 부분(이사야 29장)에서는 후기에 일어날 복음 회복에 관한 많은 중요한 예언이 성경 기록에는 빠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사야 29장을 낯쇠판에 새겨진 똑같은 장(니파이후서 27장)과 주의 깊게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명백하고 극히 귀한” 부분들이 “제하여[졌다는]”(니파이전서 13:26~27) 사실을 알 수 있다.

1. 후기 상황에 대한 예언(니파이후서 27:1 참조)
2. 이사야가 마지막 시대에 출현하리라 예언한 한 “책”(6절)

3. “그 책은 봉해지리니”(7~8절)
4. 몰몬경이 출현하는 데 모로나이와 조셉 스미스가 한 역할(9~10절 참조)
5. “책”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의 참됨을 증거”할 “세 증인”(12~13절)



© 1987 Greg K. Olsen

대적은 다가오는 회복에 대한 이러한 예언을 제거함으로써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여, 사람의 자녀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니파이전서 13:27) 하고자 교묘히 계획했음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니파이후서 27:1~2. “죄악에] …… 취할 것이라”

-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오늘날 사회에 만연한 큰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염려를 표했다.

“저는 교회사에서, 또 세계사에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교할 만한 시대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현재 우리를 둘러싼 불의와 악행을 능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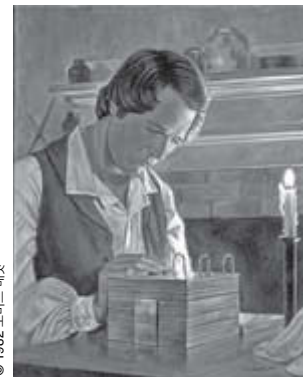
불경하고 음란하며 신성을 모독하는 말들이 도처에 만연합니다. 예전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행과 도착 행위들이 어두운 곳에 숨어 있었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난무하며 심지어 법으로 보호받기까지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이 그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온 세상에 퍼져 있으며 우리 가운데서

자행됩니다.”(“The One Pure Defense” [an evening with President Boyd K. Packer, Feb. 6, 2004], 4, www.ldsces.org)

니파이후서 27:7~11. “보라 그 책은 봉해지리니”

-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아직 계시되지 않은 경전, 특히 몰몬경에서 아직 우리가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받아야



© 1982 포버트 배렛

할 경전 기록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예녹의 기록(교성 107:57 참조)과 사도 요한의 모든 기록(이디서 4:16 참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들의 기록(니파이후서 29:13 참조), 그리고 몰몬경 판에서 봉해진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 봉해졌던 바 책의 말씀이 지붕 위에서

읽혀질 날이 오나니,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 읽혀질 것이며, 또 이제까지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있었고, 장차 지구의 종말까지 있을 모든 일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밝혀질 것이라.’(니파이후서 27:11) 지금은 네 권으로 엮어진 간편한 경전을 들고 다니지만 언젠가 더 많은 경전이 출현하면 우리는 작은 수레에 책을 가득 담아 끌고 다녀야 할지도 모릅니다.”(A Wonderful Flood of Light [1990], 18)

니파이후서 27:12. “세 증인이 …… 그것을 볼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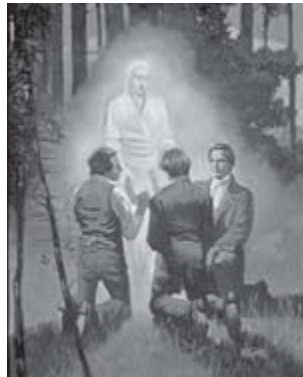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세 증인의 강력한 증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찰했다. “몰몬경의 증인으로 택함 받은 세 사람은 올리버 카우드리와 데이비드 휘트머와 마틴 해리스입니다. 그들이 쓴 ‘세 증인의 증언’은 1830년 이래 교회에서 1억 부 가량 발행해 온 몰몬경에 실려 있습니다. 이 증인들은 자신이 ‘이 기록이 실려 있는 판을 보았[으며]’ ‘그 판 위에 새긴 것을 보았[음]을 엄숙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이 기록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번역[되었]으며’ …… 그의 음성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였[다]’ 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진지한 말로써 선포하거니와, 하나님의 한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는 앞에 놓으매, 우리가 그 판과 그 위에 새긴 것을 보았나니, 우리가 보고 이러한 것이 참됨을 증거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것인 줄을 우리는 아노라.’”(리아호나, 1999년 7월호, 41쪽)

- 부록(408쪽)에 나오는 표 “물몬경 판의 증인들”을 참조한다. 이 표에는 세 증인과 여덟 증인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니파이후서 27:13. “몇몇” 사람이 더 그 판에 대해 “증거”할 것이다

- 금판을 목격한 세 증인에 더하여 여덟 명이 그 판을 보고 증언하도록 부름 받았다.(물몬경 앞부분에 나오는 “여덟 증인의 증언” 참조; 또한 408쪽 부록에서 각 증인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표 “물몬경 판의 증인들” 참조)



자료: 워너클 8861

니파이후서 27:15~19. “그 책을 [학자에게] 주실 [것이라]”

-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마틴 해리스를 보내 한 학자를 만나게 하라고 지시하셨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1823년 9월 21~22일에 모로나이가 처음으로 조셉 스미스를 방문했을 때 니파이후서 27장에 기록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조셉이 그 예언을 성취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해진 책의 말씀이 학자에게 건네진다는 이 구절은 번역되기에 앞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조금도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으시고, 또한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구원 받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온유한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습니다.’”(“Letter IV. To W. W. Phelps,” *Messenger and Advocate*, Feb. 1835, 80) 이 예언은 1828년에 마틴 해리스가 찰스 안톤이라는 “학자”를 찾아갔을 때 성취되었다.(조셉 스미스—역사 1:63~65 참조)



원민원 워터키, © IRI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안톤 교수와 있었던 그 한 가지 사건을 이 세상의 학식 있는 사람들이 물몬경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로 확장하여 바라보았다. “[니파이후서 27장 20절에 그들이라는 복수형 대명사가 사용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은 단지 안톤 교수만을 언급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는 아닐지라도 대체로 물몬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의 학식 있는 사람 대다수가 보이는 마음가짐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물몬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읽지 않으며, 그들에게는 이 책이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출현한 기적을 비롯해 여러 기적들을 부인하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The Book of Mormon: A Great Answer to ‘the Great Question,’” Monte S. Nyman and Charles D. Tate Jr., eds., *The Book of Mormon: First Nephi, The Doctrinal Foundation* [1988], 9)

니파이후서 27:20. “나는 나 스스로의 일을 할 수 있나니”

-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주님께서 그분의 일에 맞서는 모든 반대를 마침내 어떻게 물리치실 것인지를 설명했다. “하나님께서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분 앞에 공존하는 영원한 지금에 사십니다.(교성 130:7 참조) 그분의 신성한 계획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분은 마음에 품으신 일을 확실히 행하시기 때문입니다.(아브라함서 3:17 참조) 그분은 시작부터 끝을 아십니다!(아브라함서 2:8 참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행할 수(니파이후서 27:21)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훌륭히 계획해도 선택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일이 많아 그 계획을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0쪽)

- 그보다 앞선 다른 말씀에서 맥스웰 장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택의지를 무력하게 만들지 않으시고도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속죄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다른 사항도 결국은 이와 같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의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니파이후서 27:20~21 참조) 인류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실수에 대해 모든 준비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목적을 인간의 도덕적 선택의지를 취소하지 않으시고도 성취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제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교성 64:32 참조)”(성도의 빛, 1991년 1월호, 16쪽)

니파이후서 27:21. “내 스스로 정한 때에”

-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신앙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신뢰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사는 제때에 이루어져야만 하느니라.’(교성 64:32)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순되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그분이 정하신 때에 대해 시험을 받습니다!”(성도의 빛, 1991년 7월호, 88쪽)

맥스웰 장로는 또 다른 말씀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신뢰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당신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소서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Glorify Christ” [an evening with Elder Neal A. Maxwell, Feb. 2, 2001], 7, www.ldscs.org)

니파이후서 27:35. “원망하였던 자들은 교리를 배우리라”

-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제시된 진리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교리를

배우게 될 것인지를 설명했다. “그것이 바로 몰몬경이 있는 목적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스스로 진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짓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몰몬경을 통해 복음의 충만함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연결되지 않는 구절과 모호한 성구에 자기 신앙의 토대를 둔 사람들, 그리고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내용에 의문을 품거나 불평하던 사람들이 온전한 교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속죄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또는 유아 침례, 신권, 영의 은사, 배도와 복음 회복과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 더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이 새로운 증거를 통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The Millennial Messiah* [1982], 174~175)

생각해 볼 점

- 은혜로 구원받는 일과 관련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니파이후서 25:23)
-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보면 교만과 재물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그들의 영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는가?
- 니파이는 니파이후서 27장에 나오는 증인들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니파이가 언급한 서로 다른 증인들을 찾아본다.(12~14절 참조) 여러분을 포함해 교회 모든 회원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증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14절 참조)

제언 과제

- 가족이나 신뢰하는 친구에게 선지자 니파이가 선언한 은혜의 교리를 설명한다.
- 후기에 주님께서 행하실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니파이후서 27:26)에 대한 이사야 예언이 성취된 것과 관련하여 말씀이나 가정의 밤 공과를 준비한다.

소개

니파이후서 26장에서 먼저 제시되었던 몇 가지 주제와 가르침이 니파이후서 28장에서 더욱 강화된다. 니파이는 후기에 널리 팽배할 몇 가지 거짓 가르침과 믿음에 대해 경고하고 미혹되어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쳤다. 니파이후서 29장을 읽으면서 마지막 시대에 만연한 거짓 교리와 거짓 교회, 교만을 극복하는 데 몰몬경 출현과 회복이라는 놀라운 일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본다.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들이 지니는 특징과 그들이 회개하고 의롭게 생활하며 그분을 섬길 때 받는 축복을 계속 생각해 본다.

해설

니파이후서 28:1. “영이 나를 강권하시는 대로”

- 니파이는 마지막 시대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라는 영의 “강권”하심을 느꼈다. 강권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필요에 따라 어떤 일을 하거나 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영의 강권하심을 받은 다른 예들도 있다.(니파이전서 4:10; 앨머서 14:11; 제4니파이 1:48; 교성 63:64 참조)

니파이후서 28:2. 이 책은 “큰 가치가 있으리라”

- 니파이후서 28장 2절에 언급된 책은 몰몬경이며 니파이후서 26~27, 29장에서 니파이가 언급한 것과 동일한 책이다. 니파이가 우리에게 “그 책[은] …… 큰 가치가 있으리라”고 말한 이유는 마지막 시대에 있을 상황 때문이다. 에스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몰몬경의 위대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지 가르쳤다.

“몰몬경의 주요 기록자들은 저마다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한다고 간증했습니다. ……

“그들이 우리 시대를 보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기록했다면, 우리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몰몬경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주님은 몰몬(또는 모로나이 또는 앨마)에게 이 내용을 기록에 포함하도록 영감을 주셨을까? 나는 이 부분에서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 ……

…… 몰몬경에서 펄박과 배도의 역사를 읽으며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또한 몰몬경에는 물질주의와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길 때 생기는 위험이 다른 어떤 책보다도 더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으며, 우리는 이 책에서 큰 힘과 위안과 보호를 얻는다는 사실을 어느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6~7쪽)

니파이후서 28:6~9. “거짓되고 헛되며 어리석은 교리”

- 니파이는 사탄이 가르치며 계속해서 사용할 “거짓되고 헛되며 어리석은 교리”(니파이후서 28:9) 몇 가지를 밝혔다. 니파이후서 28장 6~9절에 나오는 각 표현은 영적으로 위험한 철학이 담겨 있다. 현대 선지자들은 이러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그에 대해 경고했다.

“내일 우리가 죽으니 먹고 마시고 즐겨위하라.”(7절)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 경고했다.



제리 톰슨, © IRI

“일시적이지만 고의적으로 행하는 방탕한 생활에는 ‘먹고 마시고 즐겨위하라. ……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매로 몇 번 치실 것이요(니파이후서 28:8)라는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 인생에 대한 냉소적이고 천박한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죄 범하는 것’(8절)을 결코 의롭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형벌을 감해 달라고 애원하거나 실랑이를 벌일 수 있는 어느 하급 법원의 판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의도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한 그 순간에 어떤 선행을 할 수 있었는지도 아십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일을 행하지만 더 많은 것이 요구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경우여라도 그것은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앨머서

39:4; 교성 82:3 참조) 게다가 곧고 좁은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성도의 빛, 1989년 1월호, 36쪽)

“하나님(은) …… 작은 죄 범하는 것은 의롭다 하시리라.”(8절) 교리와 성약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다. “무릇 나 주는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할 수 없느니라. 그러할지라도 회개하고 주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용서받으리라.”(교성 1:31~32)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죄를 경험해 보면 인생이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난 뒤에 더 잘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악마가 퍼뜨리는 사악한 거짓말입니다. 일격을 가하면 뼈가 부러진대거나 어떤 화공 약품을 혼합하면 폭발하여 피부를 태운대거나 하는 일을 직접 체험하여 배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상처를 입어도 치료만 된다면 정말 더 잘 된 일입니까? 그런 일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아는 현명한 사람들의 경고에 주의할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잘 하는 일입니다.”(성도의 빛, 1994년 4월호, 31쪽)

“거짓말도 조금 하고”(8절).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거짓말을 조금 해도 된다는 유혹을 물리치라고 권고했다. “니파이는 그 당시 백성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일삼는 행태도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를) …… 믿는다.’(신앙개조 제13조)고 말하기는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작은 거짓말과 작은 속임수와 작은 도둑질,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리려는 유혹을 물리치는 일은 많은 사람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 이런 유혹들을 극복하십시오. 정직이라는 순전한 미덕을 통해 강해하십시오.”(성도의 빛, 1993년 1월호, 52쪽)

“하나님은 우리를 매로 몇 번 치실 것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으리라”(8절).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은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한 가지 속임수는] 일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계획적인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그런 교리는 없습니다. 귀가 솔깃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것은 사악하고 그릇된 관념입니다. 이것은 신속하게 회개하면 성전 축복이나 선교 사업과 같은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범법하도록 우리를 설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니파이는 이미 이 어리석은 교리를 예견했습니다.

‘또한 많은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그는 작은 죄 범하는 것은 의롭다 하시리라. …… 이에는 아무 해가 없나니 이 모든 것을 행하라. 이는 내일 우리가 죽음이라. 또 만일 우리에게 죄 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매로 몇 번 치실 것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으리라 하리라.’[니파이후서 28:8]

…… 우리의 모든 성약은 의식을 받으며 맺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해야 하며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되어야 합니다. 오직 충실함을 통해서만 우리의 의식과 성약들은 이 신성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 계획적인 회개라고 부르는 그릇된 관념은 속임수라는 요소를 포함하지만 약속의 성령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리아호나, 2001년 1월호, 56쪽)

니파이후서 28:14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시험에 직면하는가?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니파이후서 28:19~22. 악마가 사용하는 책략

- 앞서 사탄이 조장하는 거짓 교리를 규명한 것처럼 니파이는 “악마의 왕국”(니파이후서 28:19)이 선동하는 몇 가지 책략도 알려 주었다. 현대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사탄이 사용하는 술수를 계속해서 밝혀 왔다. 감리 감독단의 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은 대적의 공격이 실재한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사탄의 능력과 영향력과 결의에 관해 매우 구체적인 경고를 들어 왔습니다. 이천오백여 년 전에 니파이는 여러분에게 다칠 역경과 혼란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니파이후서 28장에 나오는 이 성구를 아십니다. [니파이후서 28:20~21]

저는 이 구절이 참됨을 압니다. 그날이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의 아들에 기초한 자신의 가치관을 널리 퍼뜨리고 굳게 세우는 데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가치관은 ‘내일 우리가 죽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니파이후서 28:7)라는 생각과 ‘지옥은

없다(니파이후서 28:22)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기심과 방종, 즉흥적인 쾌락에 기초를 둡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또래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파괴적인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는 문화는 마약, 성관계, 술, 외설물, 나태함, 그리고 기타 영성을 파괴하는 여러 행위들로 난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간청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말씀드립니다. 도덕적인 죄를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압니다. 용납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그러한 행동을 피하시기를 간청합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제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여러분은 기도할 때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신권 형제들에게”,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58~59쪽) (“Becoming You” [CES fireside for young adults, Nov. 3, 2002], 4, www.ldsces.org)

“그들은 충동을 받아 노하게 되어”(니파이후서 28:19).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1915~1994) 장로는 상대방을 이용하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탄이 후기에 쓰는 책략 중 하나가 사람들 가운데 증오심을 일으키는 것임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우리 이웃의 결점을 놀려대거나 그것을 이용하고 여러 방면에서 서로 흠을 들추어내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물몬경에서는 모든 분노와 악의, 탐욕, 증오가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 우리가 늘 보는 뉴스 매체에 묘사된 내용을 보면 사탄이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 보도라는 명목으로 우리는 종종 탐욕, 강탈, 성폭력 범죄, 그리고 기업 간에, 운동 선수 간에, 또는 정치가 사이에서 오가는 모욕에 관한 생생한 장면, 다시 말해 원색 그대로 묘사된 장면들에 온통 휩싸여 있습니다.”(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19쪽)

“달래며, 속여 가서 육신에 속한 안전에 거하게 하리니”(니파이후서 28:21). 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은 오늘날 세상에 만연한 욕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니파이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니파이후서 28:21~22)라고 말하며 달래고

피고 구슬리는 것이 [사탄의] 영업 기술이라고 설명합니다. 사탄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온갖 형태의 부도덕 즉, 외설물과 부적절한 언어, 복장, 행동 등을 하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그런 사악한 행동을 하면 정서적으로 번민하게 되고, 영성과 자기 존중심을 잃으며, 선교사가 되거나 성전에서 결혼할 기회를 잃고, 심지어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사탄은 또한 우리가 마약, 술, 담배, 기타 중독에 빠지는 행위를 하도록 꾀어서 우리를 자신의 노예로 만들고자 합니다.”(리아호나, 2001년 1월호, 52~53쪽)

“지옥은 없다 …… 나는 결코 악마가 아니니 이는 악마란 없는 것임이라”(니파이후서 28:22). 끊임없이 계속되는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가 바로 악마란 없다는 말이다. 제일회장단의 매리온 지 롬니(1897~1988) 회장은 다음과 같은 간증으로 사탄의 실재를 확인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치명적인 거짓말은 악마가 세상에 없다는 어리석은 교리와 똑같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탄은 이 두 가지 거짓말을 지어낸 장본인입니다. 그 말들을 믿는 것은 그에게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굴복으로 이제껏 인간은 파멸의 길로 이끌려 왔으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후기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며, 사탄은 강력한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과 인류와 의로움 앞에 가장 큰 대적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과 악마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경전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성도의 빛, 1971년 12월호, 12쪽)

니파이후서 28:28~30. “우리가 [경전을] 넉넉히 가졌[다고] …… 말할 자에게 화 있을진저!”

• 니파이는 물몬경이 니파이후서 28장에 언급된 거짓 교리와 철학을 깨뜨리러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 노[할]”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가졌은즉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하지 않다”(28~29절)며 말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하늘을 단히게 하고, 살아 있는 선지자의 필요성을 무시하며, 성신의 권능을 부인하는 행위다. 니파이는 이러한 태도를 기르는 이들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조차 빼앗기게 될 것임이니라.”(30절)



크레그 케이 울슨, © 1990 IRI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성경에서 부족한 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창세 이래로 인류가 받은 많은 가르침이 현재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 우리 친구들 중에는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용감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하늘로부터 한 조각 계시도 구할 만한 신앙이 없었던 백성에게도 이러한 주장은 타당합니까? 지금 가진 모든 지식을 수백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어느 다른 민족의 신앙에 빚지고 있는 백성에게도 옳은 주장입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말씀하셨고 어떤 부분은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성경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까? …… 하나님께서 그 책에 담긴 내용을 주신 후에 다시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신 부분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2:18)

• 주님께서 현대에는 과거처럼 “말씀하실 수 없다”고 말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해 한계를 정하는 행위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현대에 계시가 필요함을 이렇게 설명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끌던 백성들보다 우리를 덜 사랑하십니까? …… 우리에게는 그분의 인도와 가르침이 덜 필요합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개의치 않으십니까? 아니면 목소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영원히 휴가를 떠나셨습니까? 그분은 주무십니까? 이 모든

질문이 이치에 어긋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리아호나*, 2002년 3월호, 4쪽)

니파이후서 29:2. 물몬경은 “올려 나아갈” 것이다

• 에스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교회 회원들이 회복에 관한 진리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니파이후서 29장 2~3절에 나와 있듯이 “올려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받은 주요 임무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모든 반대에 일일이 대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중국에는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신앙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주님께서 물몬경이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내 백성에게 기호가’ 되며,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올려 나아갈’(니파이후서 29:2)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특히 선교사로서 우리는 물몬경을 세상 끝까지 ‘올려 나아[가게]’ 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몬경은 우리가 적용해야 할 훌륭한 표준입니다. …… 물몬경은 훌륭한 구도자를 찾기 위한 위대한 도구입니다. 물몬경에 실린 내용은 ‘세상에 기쁨이 되는’(니파이전서 6:5) 것이 아닙니다. …… 이 책은 훌륭한 체입니다.”(*성도의 빛*, 1975년 8월호, 41쪽)

•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물몬경 덕분에 어떻게 한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는지를 보여 주는 다음 이야기를 나누었다.

“[물몬경]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해 본 수백만 사람들의 삶에 훌륭한 감명을 주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럽에서 만난 분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분은 여행 중에 우리 선교사 두 명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분을 가르치기 위해 약속을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분은 약속 정하기를 계속 미루다가 마침내 듣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선교사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가 진리를 말한다는 확신이 들기도 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물몬경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세상적인 사람이며 결코 울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분은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머리로 이해되던 것이 마음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분의 인생관과 생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주님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지금은 그분이 사랑하게 된 대업을 위해 고귀하고 거룩한 부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1년 1월호, 62쪽)

- 부록(411쪽)에 나오는 표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막대기”를 참고한다.

니파이후서 29:3. 또 다른 경전이 출현하다

• 사탄은 사람들이 오직 성경에만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는 생각으로 몰몬경을 거절하도록 만들어 몰몬경을 불신하게 만들려 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몰몬경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이상하게 여길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진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몰몬경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더 받기를 반대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하나의 성경! 하나의 성경! 우리에게는 하나의 성경이 있으니 더 이상의 성경이 있을 수 없도다’ 하고 신실한 척 외치는 이 반대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엄하게 꾸짖습니다. ‘하나의 성경, 우리에게는 하나의 성경이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의 성경이 필요하지 않다 말할 너 어리석은 자여, ……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말을 더 받게 될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느냐?’(니파이후서 29장)”(Mormon Doctrine, 2nd ed. [1966], 719)

니파이후서 29:6~9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목적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니파이후서 29:7~14. 두 민족의 간증

•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니파이후서 29장 7~8절에 언급된 두 민족이 누구를 말하는지를 설명했다. “이것은 예언에 따라 오늘날 이방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증인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에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여러 민족에도 똑같이 적용하십니다. 안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레트 호켄, © 1986 IRI

만일 주님의 말씀을 선택된 증인 두 사람이 확증한다면, 두 선택된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민족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다른 한 민족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후자는 구대륙에서

유다 족속이라 불렸으며 신대륙에서는 요셉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이 두 민족의 간증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1권, 261쪽)

니파이후서 29:12~13. 아직 나아오지 않은 더 많은 기록

•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아직 나아오지 않은 다른 기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라고 간증했다. “잃어버린 경전은 앞으로 나타날 보화입니다. 현존하는 경전에서 이런 경전은 스무 권 이상 언급됩니다. 아마도 가장 놀랍고도 방대한 기록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가 남긴 기록일 것입니다.(니파이후서 29:13 참조)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증거인 귀중한 몰몬경을 통하지 않고는 곧 나타날 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째 증거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세 번째 기록이 합쳐질 때 진리의 삼부작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말도 역시 하나로 모일 것인즉(14절)이라고 완전하신 목사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의 모든 경륜의 시대를 하나로 다 융합하는 가운데(교성 128:18 참조) ‘한 무리와 한 목자가(니파이전서 22:25) 있을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68쪽)

- 성스러운 기록들이 한데 모이는 일은 몰몬경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다. 니파이후서 29장 12~13절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 가르친다. 몰몬경에서 이 이후에 나오는 예로는 야렛인의 기록을 갖고 돌아온 립하이 왕과 암몬(모사이야서 22:14; 28:12, 14 참조), 그들 자신의 기록을 갖고 돌아온 립하이 왕과 암몬(모사이야서 7:1~2, 17~33; 8:1, 3~4 참조), 역시 자신의 기록을 갖고 돌아온 엘마의 무리(모사이야서 25:1~6 참조)가 있다.

니파이후서 30:7~8.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것어요”

• 브루스 알 맥쿱키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뒤따르리라 예언된 유대인의 개종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이렇게 되리니 흠어진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것어요, 그리하여 그들이 그 땅 위에 모여들기 시작하리니(니파이후서 30:7) 옛적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보인 신랄함은 그쳤습니다. 이제는 많은 이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아니지만 위대한 랍비로 받아들입니다. 몇몇은 참된 교회로 나와 이미 집합한 에브라임의 남은 자들과 그 친구들과 더불어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이 진리로 돌이키는 위대한 개종은 그들의 메시아가 재림하신 이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극심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의 손과 당신의 발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니이까[?] …… 그때야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상처들은 내가 나의 친구들 집에서 입은 상처니라. 나는 들리웠던 자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할 것임이니라.’(교성 45:51~52; 또한 스가랴 12:8~14; 13:6 참조)(Mormon Doctrine, 722~723)




로버트 배럿, © IRI

니파이후서 30:11~18
복천년에는 환경 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생각해 볼 점

- 니파이후서 28장을 읽고, 사탄의 거짓 교리와 가르침 중 어떤 것들을 더 알게 되었는가?
- 여러분은 추가된 경전으로 회복된 복음 교리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커졌는가?
- 물문경을 주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어떤 방법으로 증거하는가?

제언 과제

- 니파이후서 28장 2~14절에 설명된 거짓 교리와 믿음을 최대한 많이 찾아 적어 본다.  그 옆에 거짓 교리를 반박하는 참된 교리를 적는다. 여러분이 제시한 참된 교리를 뒷받침하는 경전 구절을 찾아서 적는다.
-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물문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를 가정의 밤에서 설명한다.

제 14 장

니파이후서 31~33장

소개

니파이의 기록 마지막은 그가 “그리스도의 가르침”(니파이후서 31:2, 21; 32:6)이라고 정의한 내용을 다룬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몰몬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단순하고 직접적입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에 초점을 두며, 끝까지 견디고 굳건히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발휘하는 강한 영향력은 바로 명백함과 단순함에서 나옵니다. ……

……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고도 아름다우며 한 가지에 집중하여 명백하고 완전합니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1997], 49~50, 56)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집중하여 생활하도록 노력한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성신이 함께하며 인도를 받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찾을 것이다.

해설

니파이후서 31:2. “그리스도의 가르침”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니파이후서 31장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설명했다. “주님의 모든 가르침 또는 그중 어떤 가르침이라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몰몬경과 신약, 후기 경전 곳곳에 널리 사용된 이 엄청나게 광범위하고 아름다운 표현은 좀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니파이가 여기서 단수로 표현했다는 데 주목해 봅시다. 니파이가 기록을 마치며 전한 간증과 구주께서 나중에 니파이 백성 가운데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만 정확하게 집중하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구체적으로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이라고 선언한 그 가르침입니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49)

니파이후서 31:4~10. “그가 그들 앞에 본을 보이심이니라”

• 인간은 죄 사함을 위해 침례 받아야 하지만 거룩하며 죄가 없으신 구주께서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모범을 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셨다고 설명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문의 좁음과 그 길의 협착함’을(니파이후서 31:9) 보여 주시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

“필멸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이행하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겸손하도록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침례의 물로 나아오도록 초대 받았습시다. 주님은 그분의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증거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신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니파이후서 31:4~9 참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를 때, 우리는 회개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우리 마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죄를 인식하고 범법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제3니파이 9:20 참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겠다고 성약합니다.”(*리아호나*, 2001년 1월호, 8쪽)

니파이후서 31:6~10

우리는 구주를 따르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니파이후서 31:13. “마음의 뜻을 다하고, …… 위선(을) …… 행함이 없이”

• “마음의 뜻을 다하고”라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진실한 의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마음을 쏟는다는 뜻이다. 제일회장단의 매리온 지 롬니(1897~1988) 회장은 시늉만 하는 위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악마를 성내게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화평의 대가”, *성도의 빛*, 1984년 2월호, 6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린(1917~2008) 장로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정말로 복음대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는 마음속으로나 남이 보지 않을 때 하는 행동에서는 주님의 가르침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눈에만 충실해 보이도록 그냥 의로운 체 합니까?”

혹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조셉 스미스—역사 1:19]하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의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앞에서만 순종하는 척 합니까?

주님은 겉모습에 속지 않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며, 주님께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과 어두운 실제 이면은 감춘 채 겉으로만 밝은 척 하는 사람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며], ‘외모[사무엘상 16:7]를 보지 않으심을 압니다.’(*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16쪽)

니파이후서 31:13~14, 17. “불[의] …… 침례”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물로 침례 받아야 하며 영으로도 침례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다.(요한복음 3:5 참조) 물의 침례에 이어 반드시 영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이 영의 침례는 때로 불의 침례로 불린다. 매리온 지 롬니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성신의 은사를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한 불의 침례입니다.(누가복음 3:16 참조) 또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요한복음 3:5)”(*Ensign*, May 1974, 92)

•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확인을 받았다 하여 그 사람이 영의 침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침례를 받은 후에 우리 각자는 신권 권세를 소유한 사람에게 안수로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 확인 받고, 성신을 받았습시다.(교성 49:14 참조) 확인을 받을 때 하는 ‘성신을 받으라’는 말은 영의 침례를 받기 위해 노력하라는 지시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죄 사함과 성신을 받을 목적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모래 주머니가 침례 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의 침례는 사실상 침례 중 절반에 불과하며 다른 반쪽, 곧 성신의 침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5:499)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해 침수로써 침례를 받았습시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영으로, 영에 잠김으로써 침례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 불과 성신에 의하여 …… 죄 사함’이(니파이후서 31:17) 임합니다.”(*리아호나*, 2006년 5월호, 29쪽)

• 칠십인인 린 에이 미컬슨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이 바로 불의 침례라고 설명했다. “구주께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바쳐 속죄하셨기 때문에 성신은 불의 침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신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청결하게 하는 힘은 더러운 죄를 태웁니다. 결심을 하는 즉시 청결하게 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12쪽)

니파이후서 31:15~16. 아버지의 음성

•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 몇 안 되는 경우 중 한 번은 그분께서 이렇게 증거하셨다. “그러하도다, 내 사랑하는 자의 말이 참되고 신실하도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니파이후서 31:15) 그분은 뒤이어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으리라”(20절)고 말씀하셨다. 니파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 성스러운 말씀을 통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중 하나는 바로 “끝까지 견디는 그[는] 영생을 얻으리라”(제3니파이 15:9)라는 약속임을 알 수 있다.

니파이후서 31:15~16. “끝까지 견디어라!”

• “끝까지 견디어라!”라는 말은 생애 동안 참을성 있게 역경을 견뎌 나가야 한다고 권고할 때 자주 사용된다. 조셉 비 워스런 장로는 끝까지 견디는 일은 또한 삶을 마칠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께 충실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끝까지 견디는 일은 신앙을 갖고, 회개하며, 침례와 성신을 받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로 들어선 후에 그 길을 계속 나아가간다는 교리입니다.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온 마음을 쏟아야 하며, 물몬경의 선지자 아멜레카이가 가르친 바와 같이 우리는 ‘그에게로 와서, [우리]의 온 영혼을 그에게 예물로 드리고, 금식과 기도를 계속하며 끝까지 견[디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사심같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음나아서 1:26]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일은 우리 삶을 복음이라는 토양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교회에서 계속 활동 회원으로 생활하며, 겸손하게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을 하고, 성약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견디는 사람들은 균형이 잡혀 있고, 한결같고, 겸손하고, 꾸준히 발전하고, 간사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간증은 세상적인 동기에 기초를 두지 않으며 진리와 지식, 경험과 영에 바탕을 둡니다.”(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101쪽)

니파이후서 31:17~20. 침례,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

•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침례가 교회에 들어오는 관문일 뿐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 반드시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가르쳤다. “주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첫째, 인간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사도행전 4:12) 둘째,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나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으로서 필수 의식인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성도의 빛, 1976년 2월호, 97쪽)

니파이후서 31:19~20. 힘써 앞으로 나아가라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그리스도께 나아오기 위해서는 일생 동안 꾸준히 순종하며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은 정해진 출발점이나 종점이 있는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발전하고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중 첫 단계로, 우리는 반드시 지식을 얻고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또한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과 성역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분께 나아오려면 끊임없는 순종과 우리의 생각, 동기, 대화, 행동에서 예수님과 같이 되고자 애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는 길에서 ‘힘써 앞으로 나아가[며]’(니파이후서 31:20)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는 기대를 하고,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부지런히 그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하면 받는다는 확신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두드리면 열리리라는 기대를 하고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교성 88:63 참조)“[“우리 눈 앞에 경전이 있으므로”, 리아호나, 2006년 4월호, 17~18쪽]

니파이후서 31:20; 32:3.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니파이후서 31:20)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우리 마음을 호화로운 만찬을 드는 일에 비유한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원하고 그에 순종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마음껏 먹는 것은 맛보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음식을 즐기는 것입니다. 기쁘게 탐구하고 충실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경전을 연구할 때 그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할 때 그 말씀은 ‘육의 마음판에’[고린도후서 3:3] 새겨져 성품 중 일부가 됩니다.”(리아호나, 2001년 1월호, 21쪽)

우리는 흡족히 취할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설명했다. “물론경에 나오는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부인하지 않[아야]’(니파이후서 25:28) 합니다. ……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야]’(모로나이서 10:32) 합니다. …… 우리는 경전과 그분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해야]’(니파이후서 31:20) 합니다.”(A Witness and a Warning [1988], 51)

-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기 위해서는 마치 음식을 흡수해서 소화시킴과 같은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고자 한다면 경전을 연구하며, 상고하고, 우리 생각과 행동에 적용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리아호나, 1999년 1월호, 15쪽)
- 이보다 최근에 전한 말씀에서 헤일즈 장로는 경전을 흡족히 취하는 일이 우리 생활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거나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낮은 길로 빠져 헤매게 되며 개인과 가족, 민족으로서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티끌에서 나는 음성으로, 주님의 선지자들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전을 꼭 붙들라고 외칩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그에 따라 행하며, 삶에 적용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기십시오. 말씀을 건성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경전은 우리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교성 68:4]입니다.

만일 구주께서 오늘날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과거 지상에 계실 때 가르치신 것처럼 경전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 ‘정경을 연구하[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한복음 5:39]라는 그분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그 증언은 성신께서 주시는데, 이는 ‘성신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모로나이서 10:5]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영화로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랄 때, 우리는 경전을 탐구합니다. 그분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면 그분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26~27쪽)

니파이후서 32:2~3. 📖 “천사의 방언”

- 성신과 불의 침례를 받고 나면 성신께서는 우리에게 “천사의 방언으로 말[할]” 능력과 어휘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에게 찬양을 외칠” 수 있게 된다.(니파이후서 31:13) 천사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반드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우리가 성신의 영향력을 받아 말할 때 곧 천사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니파이는 천사들이 성신의 권능으로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천사의 방언으로, 즉 쉽게 말해 성신의 권능으로 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조용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비둘기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능이 있을 것입니다.”(“성신의 은사: 모든 회원이 알아야 하는 것”, 리아호나, 2006년 8월호, 21~22쪽)

니파이후서 32:3~5. “너희가 …… 행하여야 할 …… 모든 것”

- 물론경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니파이후서 32:3) 주시리라는 약속이 들어 있다. 칠십인인 더블류 룰프 카 장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광야에서 리하이 가족을 인도한 리아호나처럼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길을 보여 주는 개인적인 리아호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길이 쉽다고 하여 게으르지 마시다. 신앙을 발휘하고 성스러운 경전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살아 있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이 전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취합시다. 신앙과 근면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합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모든 것을 알려 주는 영적인 리아호나가 되기 때문입니다.”(리아호나, 2004년 5월호, 37쪽)

-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매일 규칙적으로 경전을 공부하여 성신과 함께하는 일이 유익하고도 중요하다고 확언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다른 간단한 방법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준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십시오. 매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경전을 충실히 연구하면 성신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8쪽)

- 칠십인인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는 경전은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성신을 동반할 수 있게 해 준다고 가르쳤다. “여러분은 선교 사업과 장래 직업,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혼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전을 읽고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실제로 인쇄된 문자와 같은 형태로 응답을 받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약속된 대로 성신은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니파이후서 32:5]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전을] 읽으면서 뚜렷한 느낌과 속삭임을 받을 것입니다.”(리아호나, 2002년 7월호, 50쪽)

니파이후서 32:8~9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은 기도는 하나님께 이르는 생명줄이라고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상에 두셨을 때, 기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시대에 사람들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기][창세기 4:26]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세대를 내려오면서 인간은 기도를 하며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필요 사항을 해결해 왔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기도를 통해 더 높은 힘의

근원에 다가서지 않고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와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 근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니파이후서 32:9; 제3니파이 20:31 참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지식과 이해, 사랑과 동정심을 지니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리아호나, 2002년 7월호, 62쪽)

니파이후서 33:1~4. 마음에 전함이라

- 십이사도 정원회의 앨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복음을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니파이후서 33:1) 전한 예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헝클리 회장님은 영으로 가르치라는 지시를 하시면서 이 목표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중요한 결과를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는 …… 우리 교사들이 주님과 이 귀한 사업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전하도록 책에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말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붙을 것입니다.’[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7), 619~620]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겠다는 결심이 ‘불붙게’ 하는 것이 우리가 좇아야 할 목표입니다.”(리아호나, 2000년 1월호, 97~98쪽)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말씀을 듣는 이들은 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니파이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성신의 권능으로 말할 때에는 성신의 권능이 [메시지를]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전함이라.’(니파이후서 33:1) 영의 권능은 메시지를 마음에 전할 뿐, 반드시 마음속에 넣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설명하고, 실물 공과를 하고, 설득하고, 간증할 수 있으며, 위대한 영의 권능으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메시지의 내용과 성신이 보내는 증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허용할 경우에만 마음속에 스며들 것입니다.”(리아호나, 2007년 9월호, 17쪽)

니파이후서 33:10~11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분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더
이롭게 활용할 수 있을까?

니파이후서 33:11.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받은 임무 중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우리가 받은 주요 임무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모든 반대에 일일이 대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중국에는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신앙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만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면 너희가 판단하라—이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큰 영광으로, 이것이 그의 말씀임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요, 너희와 내가 그의 심판대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설 것이며, …… 내가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도록 주께로부터 명하심을 받았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니라.’(니파이후서 33:11)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알고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41쪽)

니파이후서 33:11. 심판대

• 니파이는 자신이 심판대에서 우리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흥미롭게도, 야곱과 모로나이도 매우 비슷한 말을 했다.(야곱서 6:13; 모로나이서 10:27)

생각해 볼 점

• 끝까지 견디는 일에서 힘써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니파이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니파이후서 32:9)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를 가장 잘 따를 수 있을까?
- 니파이의 마지막 간증에서 가장 감명 깊은 부분은 무엇인가?(니파이후서 33:10~14 참조)

제언 과제

- 이 장에 대한 해설을 읽고 나서 여러분의 개인 경전 공부와 기도 습관을 평가해 본다. 습관을 평가해 본 결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니파이후서 32:3, 9 참조) 니파이의 가르침과 좀 더 일치하도록 여러분의 경전 공부에 필요한 변화를 추구한다.
- 니파이후서 31~33장을 읽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니파이후서 31:2)에 대한 니파이의 설명을 바탕으로 가정의 밤 공과를 준비한다. “이것이 길이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이름이 하늘 아래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니파이후서 31:21)라는 니파이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개

야곱 시대에 니파이 백성들은 교만과 엄청난 부 때문에 많은 죄, 특히 부도덕한 행위에 빠지게 되었다. 선지자 부름을 받은 야곱은 막중한 책임을 느껴 이러한 죄악을 비난했으며 담대하게 회개를 외쳤다. 여러분은 언제 선지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분명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았는가? 신권 지도자가 영적 징계를 하기 위해 신성한 명령을 할 수 있음을 안다면 여러분은 현대의 선지자들이 점점 더 사악해져 가는 세상에 던지는 경고의 목소리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야곱은 니파이 백성에게 그들이 범한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가르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을 구주께 돌이키게 했음을 주목한다. 야곱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와 연약함을 극복할 힘이 있다고 가르치며 이렇게 말했다. “어찌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말하[지] …… 아니하랴” 속죄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부활과 내세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야곱서 4:12) 그런 후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되는 구주의 선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키울 수 있다.

해설

야곱서 1:2~8. 야곱이 기록한 목적

- 야곱이 그의 형 니파이와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작은 판에 기록을 계속해 나갈 준비를 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야곱에게 있던 의도를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야곱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전하는 데 특히 굳은 의지가 있었던 것 같다. 구주의 속죄에 대한 간증을 전하는 데 그가 할애한 지면을 볼 때 야곱은 이 기본 교리를 가장 성스러운 가르침이자 가장 위대한 계시로 여긴 것이 분명하다.

야곱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많은 계시와 많은 예언의 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올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알았음이라.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백성들을 설득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게 하고자] …… 그들 가운데서 부지런히 일하였나니, ……

그런즉 우리는 ……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며 그의 십자가를 감내하고 세상의 모욕을 견디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야곱서 1:6~8]

물문경을 기록한 선지자 중에 성향으로 보나 개인적인 간증으로 보나 야곱처럼 충실하게 설득하려 노력한 사람은 없다. 그는 세상이 주는 칭찬을 경멸했고, 끈고, 강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교리를 가르쳤으며,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았다. 물문경 안에서 야곱이 보인 모범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호하기 위해 십자가를 감내하고 세상의 모욕을 견디겠다는 한 청년의 결심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광야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였던 야곱은 레이맨과 레무엘의 사악함 때문에 비탄에 잠겨 지내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덤에 묻힌 일을 겪은 어린 시절을 포함해 결코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1997], 62~63)

야곱서 1:9~19. 니파이와 니파이인 왕들의 치세

- 니파이는 형들에게서 떨어져 나와(니파이후서 5장) 그의 백성 가운데서 한 왕국을 세웠는데 이들은 니파이인이라 불렸고, 형들은 이후에 레이맨인으로 알려졌다. 마지못해서이긴 하지만 니파이는 첫 번째 왕이 되었다.(니파이후서 5:18~19 참조) 니파이는 그의 시대를 “나의 다스림”(니파이전서 10:1)이라 말하며 왕의 치세라 했다. 뒤를 이은 두 번째 왕과 다른 왕들도 모두 니파이라 일컬어졌다.(야곱서 1:11~15 참조) 왕들의 통치와 세속적인 역사는 주로 니파이의 큰 판에 기록되었다.(예이름서 1:14; 옴나이서 1:11; 물문의 말씀 1:10 참조)

주전 600년부터 주후 421년까지 니파이 백성의 역사를 이끈 주요 지도자들

판사치세	교회 역년	왕, 재판사, 또는 통치자	시대 또는 교회를 이끈 지도자	군 지휘관
	주전 600년	니파이(니파이후서 5:18~19)	니파이(니파이전서 1:1~3; 19:1~4)	니파이(니파이후서 5:14; 야곱서 1:10)
	주전 544년	임명된 기타 왕들(야곱서 1:9)	야곱(니파이후서 5:26; 야곱서 1:1~4, 17~18)	
	주전 544~420년		이노스와 여러 선지자들 (이노스서 1:22, 26)	
	주전 399년	“주께 대한 신앙의 용사들”(예이롬서 1:7)	예이롬과 주님의 선지자들 (예이롬서 1:1, 10~11)	“주께 대한 신앙의 용사들” (예이롬서 1:7)
	주전 361년		움나이(움나아서 1:1~3)	
	주전 317년		애메이론(움나아서 1:4~8) 케미시(움나아서 1:9)	
	주전 279~130년	모사이야 일세(움나아서 1:12~23) 베나민(움나아서 1:23~25; 물몬의 말씀)	아빈아돔(움나아서 1:10~11) 아멜레카이(움나아서 1:12) 베나민과 거룩한 선지자들 (물몬의 말씀 1:16~18; 모사이야서 1~6장)	모사이야 일세(움나아서 1:12~23) 베나민(움나아서 1:23~25)
	주전 124년	모사이야 이세(모사이야서 1:15)	모사이야 이세(모사이야서 6:3)	
	주전 122년		엘마 일세(모사이야서 25:19; 26:28)	
1	주전 91년	엘마 이세(모사이야서 29:44)	엘마 이세(모사이야서 29:42)	엘마 이세(엘마서 2:16)
9	주전 83년	니파이하(엘마서 4:17, 20)		
18	주전 74년			모로나이(엘마서 43:17)
19	주전 73년		힐라맨 일세(엘마서 37:1; 45:20~23)	
24	주전 68~67년	페이호렌(엘마서 50:39~40)		
32	주전 60년			모로나이하(엘마서 62:43)
36	주전 56년		시블론(엘마서 63:1)	
39	주전 53년		힐라맨 이세(엘마서 63:11)	
40	주전 52년	페이호렌 이세(힐라맨서 1:1, 5)와 페이쿠메나이(힐라맨서 1:13)		
42	주전 50년	힐라맨 이세(힐라맨서 2:1~2)		
53	주전 39년	니파이 일세(힐라맨서 3:37)	니파이 일세(힐라맨서 3:37)	

판사치세	교회 역년	왕, 대판사, 또는 통치자	시대 또는 교회를 이끈 지도자	군 지휘관
62	주전 30년	시조렘(힐라맨서 4:18; 5:1)		모로나이하에 대한 마지막 언급(힐라맨서 4:18)
66	주전 26년	시조렘의 아들(힐라맨서 6:15)		
?	?	시에조렘(힐라맨서 6:39; 9:23)		
92	주후 1년	레이코니우스 일세(제3니파이 1:1)	니파이 이세(제3니파이 1:1~2)	
	주후 16년			기드길도나이(제3니파이 3:18)
	주후 30년	레이코니우스 이세(제3니파이 6:19)		
	?		니파이 삼세?(제4니파이 소개)	
	주후 110년		아모스 일세(제4니파이 1:19~20)	
	주후 194년		아모스 이세(제4니파이 1:21)	
	주후 305년		엠마론(제4니파이 1:47)	
	약 주후 321~335년		몰문(몰문서 1:1~3)	
	주후 326년			몰문(몰문서 2:2)
	주후 385년		모로나이(몰문서 6:6)	

야곱서 1:15. 첩이란 무엇인가?

- 구약에서 첩은 “첫 번째 아내 이후에 맞아들인 아내들을 말한다. 말하자면 신분 체계에서 첩이라 불리지 않는 아내와는 지위가 동등하지 않은 아내이다.”(Bruce R. McConkie, *Mormon Doctrine*, 2nd ed. [1966], 154) 첩은 아내와 똑같이 보호받았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을 한 경우에는 순결의 법을 어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교성 132:34~43 참조) 그러나 몰문경 시대에는 주님께서 첩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야곱서 2:27; 모사이야서 11:2 참조)

야곱서 1:18. “제사와 교사로 성별되었음이라”

-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야곱서 1장 18절에 언급된 교사와 제사가 어떤 것인지 의미를 명확히 했다. “니파이인들은 리하이 시대부터 구주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실 때까지 멜기세덱 신권을 행사했습니다. 니파이는 ‘야곱과 요셉을 성별하여’ 니파이인 땅에서 제사와 교사로

일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제사[들]과 교사[들]이라는 복수 용어(영어 몰문경에는 priests and teachers로 되어 있음- 옮긴이)가 쓰인 것으로 보아 이것은 일정한 신권 직분을 뜻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권고하는 일반적인 임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66], 1:124)

야곱서 1:19. “주께 대하여 우리의 직분을 영화롭게 하[였다]”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신권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부름을 수행할 때 위엄 있게 행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며, 모든 사람의 눈에 존경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게 일하며, 부름을 확장하고

강화하며, 그 부름을 통해 하늘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취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부름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순히 그 부름에 관련된 봉사를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장로는 장로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인지 배운 다음 그대로 행함으로써 장로라는 부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집사, 교사, 제사, 감독 등 신권 직분을 지닌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리아호나, 2005년 5월호, 54쪽)

야곱서 1:19: 2:2. “백성들의 죄가 우리의 머리 위에 돌아오게 되고”

- 교회에서 지도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엄중한 책임이 있다. 야곱은 지도자가 자신이 이끌어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한다면 그 지도자는 그들의 죄에 대해 일부분 책임을 지게 된다고 가르쳤다. 제일회장단의 휴 비브라운(1883~1975) 회장은 야곱이 묘사한 책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존 테일러 회장은 언젠가 신권 형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부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구원할 수도 있었을 사람들에게 대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 만약 제가 죄를 짓거나 태만하여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받지 못하게 된다면, 제 자신이 고통 받는 것은 물론 의심할 여지 없이 제 사랑하는 사람들도 저와 함께 고통받게 됩니다. 제가 교회의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 선교부 회장, 또는 총관리 역원으로서 받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맡은 지역 내에서 우리가 이끌어야 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가르치고 인도하고 도와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그들이 길을 잃었다면 주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Oct. 1962, 84)

야곱서 2:8~10. “하나님의 엄격하신 명대로” 훈계하며

- 야곱은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는 말씀”(야곱서 2:8)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기쁜 말씀”(9절)을 전하기보다는 유감스럽게도 “이미 상처를 입은 이들의 …… 상처를 더 크게” 할 주제를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엄격한 명령을 주님께 받았다.(9절) 신권 지도자가 교회 회원에게 회개를 외칠 때, 가끔은 직설적이고 도전적인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진리를 가르칠 때 세심함과 담대함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어려운 도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사실 야곱은 죄를 말해야만 하는 것과 그 죄를 언급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언어에 대해서 해명하는 데 열 개 절에 달하는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듣는 사람의] 영혼의 복리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소망과 염려로 짓눌리[며](야곱서 2:2~3) 그런 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곱에 대해 알아가다 보면 그가 다른 방식으로 말한 것을 읽고 놀랄 것입니다.

이들 구절에서 느껴지는 슬픈 어조, 곧 글자 그대로 그의 비통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은 늘 그랬듯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에 꾸준히 충실하기 위해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참으로 내가 너희 마음의 간악함에 관하여 너희에게 증거해야만 하는 일은 나의 영혼을 슬프게 하며, 나로 하여금 나를 지으신 이의 면전에서 부끄러움으로 움츠러들게 하는도다. ……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엄격한 명령으로 말미암아, 불가불 너희의 범죄를 따라 너희를 훈계하여, 이미 상처를 입은 이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대신, 그들의 상처를 더 크게 하며, 상처를 입지 아니한 이들은, 하나님의 기쁜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즐거워하는 대신, 단검을 맞아 그들의 영혼이 찢림을 받고 그들의 섬세한 마음이 상처를 입게 하여야 함이,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도다.’(야곱서 2:6~7, 9절)

이토록 담대하고 강하게 전파하면서 야곱이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죄가 있는 사람이 느꼈을 고통과 거의 똑같은 고통으로 마음 아파했음을 느끼지 못했다면, 우리는 야곱의 말을 그 자체로서 들여다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언급할 때는 항상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분의 모습은 왜 그렇게도 ‘슬픔의 사람’이었던 적이 많을까요? 계명은 지켜야 하며, 죄를 지으면 꾸짖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담대한 꾸짖음 속에도 연민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가장 엄격한 선지자라도 반드시 깊이 연민하는 감정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Jacob the Unshakable,” *Heroes from the Book of Mormon* [1995], 39~40)

- 십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신권 지도자가 영으로부터 “강권하심”을 받아 훈계하고 경고할 때, 교회

회원은 자기가 받는 훈계와 지시에 따라 실천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했다.

“지난 주에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과 함께 4월 연차 대회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즐겁게 들으라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저를 연예인쯤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때] 정원회의 다른 한 분이 저희 대화에 동참했습니다. ‘어느 훌륭한 성직자 이야기가 떠오르는군요. 한 신자가 “오늘 설교 정말 즐거웠어요.” 하고 말하자, 그 성직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신 겁니다.””

이번 4월 연차 대회에서 제가 외설물에 대해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제게 말씀이 ‘즐거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말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 말씀에서 즐거운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나눈 이런 대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차 대회에서 총관리 역원이 전하는 메시지는 주님의 사업을 진척시키고자 영의 인도를 받아 준비한 말씀이지, 회중을 즐겁게 하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은 영감을 주고, 교화하고, 목표를 제시하고, 바로잡기 위해 전하는 것입니다. 회중들이 주님의 영을 느끼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배우며 그 말씀과 관련하여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영을 통해 알게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입니다.”(“The Dedication of a Lifetime” [CES fireside for young adults, May 1, 2005], 1, www.ldscs.org)

야곱서 2:12~19.  “너희가 부를 구하기에 앞서”

• 야곱은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을 그들의 부유함 때문에 정죄하지는 않으시며, 모든 정죄는 교만 또는 그들의 풍족함을 오용한 데서 비롯된다고 가르쳤다.(야곱서 2:13~14 참조) 니파이 백성 중 일부는 하나님보다도 부를 그들 삶의 중심으로 삼았다. 그들이 형제들을 돕지 않고 핍박한 것은 부를 추구하는 이러한 마음 때문이었다.(18~19절 참조)



© Photospin

•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관해 깊은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고했다. 노력하면 얻을 수 없는 것이 거의 없겠지만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만 할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추구하십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겨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무엇이나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 노력한다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거의 얻을 수 있습니다. 부를 얻고자

노력한다면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삼기 전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 즉, 부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부를 추구한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인간을 몰락시키는 것은 황금이 아니라 그것을 손에 넣으려는 동기입니다.”(Treasures of Life [1962], 174~175)

•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일생에 걸쳐 추구해야 할 일에 관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덧붙였다.

“우리 자녀나 그들의 자녀가 알아야 할 점은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명성이나 무명이나, 또는 부냐, 가난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택은 선과 악 사이에서 하는 것이며, 이것은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이러한 교훈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행복은 결코 물질로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물질을 무릅쓰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얻었다 해서 반드시 부와 명예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명성이나 소유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인생은 매일 수없이 되풀이되는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이러한 작은 선택들은 다발이 되어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뚜렷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에서 결정적인 시험은 명성과 무명, 또는 부와 가난 사이에서 선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내리는 가장 큰 결정은 선과 악 사이에 있습니다.”(성도의 빛, 1981년 4월호, 32~33쪽)

야곱서 2:17. “너희 재물을 후히 나누어”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는 금식 헌금으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다. 교회 지도자들은 회원들에게 헌금을 후하게 내도록 권고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린(1917~2008) 장로는 헌금을 얼마큼 해야 하는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우리는 얼마큼 금식 헌금을 내야 합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가난한 이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내는 헌금 양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참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아 온 우리가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릴 수 있을까요? 후한 금식 헌금을 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우리 마음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부름 받았을 때 제 워드 감독이셨고 훗날 교회 제일회장단 일원으로 봉사하신 매리온 지 롬니 회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풍성하게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은 성장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만 주지 마시고 자신의 복리를 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산과 시간을 충분히 바침으로써 여러분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Ensign, July 1982, 4)”(리아호나, 2001년 7월호, 91쪽)

야곱서 2:20~22. “마음이 교만하였음으로”

• 교만은 때때로 마음속에 있는 큰 죄로 불린다. 그것은 전세에서 사탄이 저지른 죄였다.(이사야 14:12~14; 모세서 4:1~2 참조) 또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반복하여 경고하신 것처럼 교만은 실패와 파멸로 이어진다.

“네가 유혹에 들지 아니하도록 교만을 조심하라.”(교성 23:1)

“이는 땅이 무르익는 그 시각이 가까이 왔고 그 날이 곧 이를 것임이니, 모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그루터기같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간악함이 지상에 있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을 태워버리리라.”(교성 29:9)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 모든 거만함과 교만함에 대해 훈계를 받으라. 이는 그것이 너희 영혼에 올무가 임하게 함이니라.”(교성 90:17)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교성 101:42)

야곱서 2:20~21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일이 어떻게 “모든 육체를 창조하신 이에게 가증”한 일인지 보여 주기 위해 야곱이 가르친 진리는 무엇인가?

야곱서 2:23~30. 복수 결혼

• 야곱은 주님께서 니파이인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도 복수 결혼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가르쳤다. 야곱은 주님께서 다르게 명하지 않는 한 남자는 오직 한 아내만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야곱서 2:27~30 참조)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우리 시대에 복수 결혼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 교회는 일부다처제를 행하지 않으며 이와 아무런 관련도 없음을 밝힙니다. 그들은 이 교회의 회원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 교회를 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 사회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이 법을 어기고 있음을 압니다. 그들은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교회는 당연히 이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회원이 복수 결혼을 한다면 그들은 이 교회에서 내리는 가장 큰 징계인 파문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의 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법도 어긴 것입니다. 신앙개조에 나오는 다음 조항이 우리에게 구속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복종할 것과, 법률을 순종하고 존중하며 지지할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제12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세상의 법은 어기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

한 세기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서는 복수 결혼을 금하도록 그분의 선지자 윌포드 우드럽에게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복수 결혼은 이제 주님의 법에 어긋납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일부다처를 허용하는 국가에서도 교회는 결혼이 반드시 일부일처여야 한다고 가르치며 복수 결혼을 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1~72쪽)



야곱서 2:28. 순결

•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순결의 법을 가르치면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했다. “결혼 관계 밖에서 어떠한 성적 행위, 즉 옷을 입었건 안 입었건, 다른 사람의 신성하며 은밀한 신체 부위에 어떤 형태로든 의도적인 접촉을 하는 것은 죄이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 내에서 이러한 감정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것도 범법입니다.”(성도의 벗, 1955년 1월호, 38쪽)

스코트 장로는 부부 관계는 하나님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 단언했으며, 동시에 성적인 부도덕을 저지르면 반드시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다고 경고했다.

“영원한 결혼 성약 밖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은밀한 행위는 주님의 목적을 해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서는 이를 금하셨습니다. 신성한 결혼 성약 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관계는 주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 외 다른 방법으로 경험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 정신과 영에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지금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나중에는 심각한 피해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성적 부도덕은 정신을 복돋우고, 깨우치며, 힘을 부여하는 성신의 모든 영향력을 가로막는 장애가 됩니다. 성적 부도덕은 강력한 육체적, 정신적 자극을 일으킵니다. 머지않아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을 불러일으켜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은 이기심을 야기하고 잔학 행위, 낙태, 성적 학대, 강력 범죄와 같은 공격적인 행위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극은 동성에

행위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사악하며 절대적으로 잘못된 행동입니다.”(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38쪽)

야곱서 2:31~35. “많은 이들의 마음이 찢려 깊은 상처를 입고 죽었도다”

• 많은 니파이인 남편들은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녀에게 신뢰를 잃었다. 순결의 법을 어기면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죄의 결과가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다.

“음란과 부정은 사생아 출산과 같은 과문을 일으키며 끝없는 괴로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가족을 풍비박산하게 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너무나 많은 결혼생활이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거나 이미 그 실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번째 계명을 지키는 일은 참으로 생명을 지키는 방패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출애굽기 20:14 참조) 그 방패를 내리거나 손에서 놓친다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하늘의 축복을 잃게 됩니다. 그러한 축복들이 없다면 어떠한 개인이나 국가도 오랫동안 변영할 수 없습니다.”(리아호나, 2002년 1월호, 90~91쪽)

야곱서 3:1~2

야곱은 버림을 받거나 고난을 겪더라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을 것이라 말했는가?

야곱서 3:10. 나쁜 모범이 미치는 영향

• 자녀는 주변 사람들이 보인 모범을 통해 끊임없이 배운다. 불행히도 의롭지 못한 모범은 젊은이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칠십인인 본 제이 페더스토운 장로는 이렇게 경고했다. “성인들과 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님의 부친(오스카 윌터 맥콩키)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어길 경우, 우리의 청소년들은 그 후 어찌면 열 배나 백 배 더 심각하게 계명을 어길 수 있으며 우리가 어긴 작은 계명을 빌미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도 모른다고 조언하셨습니다.”(리아호나, 2000년 1월호, 16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교회에 속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몸소 신앙과 의로움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들이 확실한 자신의 간증이 있더라도 부모가 보이는 행동 때문에 그 신앙을 감지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당히 활동적으로 모임에 참석하는 후기 성도가 될 수 있겠지만, 복음에 따라 성실하게 생활하지 않고 회복의 참됨과 첫번째 시현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인도하는 신성한 힘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강력한 확신을 자녀에게 전해 주지 못할 경우, 애석하게도 우리 자녀들은 눈에 보이게 활동적으로 모임에 참석하는 후기 성도가 되지 못할지도 모르며, 혹은 때로는 그 비슷하게도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홀런드 자매와 저는 한 훌륭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은 순전히 종교적 신앙을 찾기 위해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쫓아다녀 보기도 하고 동방에서 시작된 여러 종교들을 살펴본 뒤에 마침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친은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활동하지는 않으셨어요. 할아버지는 교회에 대해 늘 냉소적이셨습니다.’ 그 가족의 신앙은 냉소적인 할아버지에게서 불가지론자인 아들에게, 그리고 손자에게 그렇게 이어졌고, 그 손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족에게 주신 것을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

고의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현명해지거나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유로 자녀를(혹은 다른 누구라도!) 충실하고 확고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 권리는 어떤 부모나 다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

눈에 떨 만큼 최대한 복음대로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이 성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자녀가 알도록 성약을 지키십시오. 신권 축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간증을 전하십시오! 지내다 보면 언젠가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일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버리십시오.”(리아호나, 2003년 5월호, 86쪽)

야곱서 3:11. “둘째 사망”

• 둘째 사망은 또한 영적 사망이라고도 한다. 경전 안내서에는 영적 사망이란 “하나님과 그의 영향으로부터의 분리”라고

설명되어 있다. 야곱이 언급한 영적 사망 또는 둘째 사망은 “필멸의 육신의 사망 후에 일어난다. 부활한 존재와 악마 및 그의 사자들 양쪽 모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복음의 빛과 진리에 의도적으로 거역한 자들은 영적 사망을 겪을 것이다. …… (엘 12:16; 힐 14:16~19; 교성 76:36~38)”(경전 안내서, “사망, 영적”)

야곱서 4:5.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경배하라

• 야곱의 기록은 우리에게 모세 율법과 구약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야곱서 4장 5절을 보면 야곱 시대 이전에 살던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각각 독립된 존재로서 알았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경배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야곱이 한 말에 따르면 모세 율법은 엄격한 계명과 법전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으며, 일부 현대 학자들도 같은 주장을 한다.



© 1985, p. 568

모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의로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성결하게 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

야곱서 4:10. “주께 권고하려 하지 말고”

• 제일회장단의 매리온 지 롬니(1897~1988) 회장은 “주께 권고”한다는 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는 교회 회원 중 많은 이들이 고의로 주님의 권고보다 인간의 설득이나 자기 생각을 따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권고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권고를 주님의 권고보다 앞세우기 쉽습니다. 사실 주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할 때에는 자신의 권고를 따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Seek Not to Counsel the Lord,” *Ensign*, Aug. 1985, 5)

야곱서 4:14~18. “뜻대를 지나쳐 바라봄으로써”

• 딘 엘 라슨 장로는 칠십인으로 봉사하면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리에 관한 단순한 기본 원리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서 크게 위협에 빠지게 되었으며
 ……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야곱서 4:14)에 매혹되어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간결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온
 사람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그릇된 생각을 품게 하는 꾀변과
 속물 근성에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지혜와
 신중함이라는 꾀대를 멀리 지나쳐 갔으며, 신앙에 기초가
 되는 기본 복음 진리라는 테두리 안에 머무는 일에서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영적 진리를 모호하게 만드는
 추론적이며 이론적인 문제에 깊이 빠져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참된 메시아의
 구속 사명에 대한 이해력과 신앙을 잃었으며, 인생의 목적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야곱의
 주장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11쪽)

-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오늘날 어떻게 하면 “꾀대를 지나쳐 바라보는” 일을 피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야곱에 따르면 선지자들이 말한 진리를 거절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끔찍한 맹목은 ‘꾀대를 지나쳐 바라봄으로써’ 생깁니다. 복음의 명백함, 선지자, 그리스도와 그분의 단순한 가르침을 지나쳐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때까지 기다린 일이 헛수고가 되며, 지금도 헛된 기다림만 계속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모든 것의 진정한 현재 모습과 진정한 미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On Being a Light” [address delivered at the Salt Lake Institute of Religion, Jan. 2, 1974], 1)

야곱서 4:14~15

야곱은 “꾀대를 지나쳐”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대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는가?(신명기 32:4; 힐라맨서 5:12 참조)

생각해 볼 점

- 야곱은 “주의 일”(야곱서 1:17)을 얻었다고 말했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할 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야곱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대해야 한다고 가르쳤다.(야곱서 2:21 참조) 이 가르침을 더욱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 순결의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즉각적인, 그리고 광범위한 결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계명인 이 순결의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어떤 일을 해 왔는가?
- “그의 손에서 권고를 얻기”보다 “주께 권고하려”(야곱서 4:10) 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언 과제

- 다음 성구에서 재정 문제에 관한 주님의 권고를 찾아 적어본다. 야곱서 2장 12~19절(12); 모사이야서 4:16~26. 이 권고를 활용하여 평생토록 따를 자기만의 재정 지침을 만들어 본다.
- 니파이가 야곱에게 작은 판에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 권고한 내용이 나오는 야곱서 1장 1~4절을 읽고, 여러분의 개인 역사 기록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소개

지노스가 말한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의 역사와 운명에 친히 관여하신다는 점을 알 수 있다.(야곱서 6:4 참조)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우리에게 야곱서 5장을 깊이 상고해 보라고 권고했다. “야곱서 5장에 나오는 지노스가 말한 비유는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위대한 비유 중 하나입니다. 이 비유는 물몬경에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음을 보여 주며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 없이는 그 누구도 이러한 비유를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물몬경을 읽는 이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흠어짐과 마지막 집합에 관해 그 책에서 전하는 진리를 무심코 지나치거나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1966], 4:141)

야곱은 이 비유를 기록하고 나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한 시렘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록을 마쳤다. 시렘의 주장이 악마의 속임수임을 야곱이 어떻게 증명했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오늘날에 있는 적그리스도에 맞서 자신을 굳건히 세울 수 있다.(야곱서 7:2~22 참조)

해설

야곱서 5장. 감람나무 비유

- 비유는 상징을 사용하여 교훈을 주거나 영적인 개념을 전달한다. 상징을 공부해 보면 이야기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비유는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를 이해할 때 가치를 얻는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는 지노스가 말한 비유의 주요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야곱이 기록한 이 비유는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

보강을 하고 가치를 치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등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이 쏟은 노력으로 이스라엘의 흠어짐과 집합에 관한 역사 개요가 한 장 전체에 걸쳐 설명되었지만, 그들이 하는 수고에는 속죄라는 한층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포도원 구석구석에서 가치를 자르고 접붙이기를 하여 접목하고 거름을 주지만 결국 그것은

그 가지들을 그들의 원나무에 다시 접붙이는 것, 즉 근원으로 다시 데려오는 것이라는 점이 바로 이 비유의 주요 주제입니다. 되돌아가고, 회개하고, 재결합하는 것, 즉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at-one-ment: 이것은 atonement[속죄]라는 단어를 풀어쓴 것임-옮긴이)이 이 비유에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 포도원 주인은 ‘스스로를’ 위하여 포도원과 그 열매를 보전하고자 하는 소망을 열다섯 차례 이상 표현했으며, 적어도 여덟 번은 깊은 슬픔을 표했다. ‘내가 이 나무를 잃게 됨은 내게 슬픈 일이라.’ 이 비유를 연구하는 한 학자는 ‘주님의 자비가 이토록 감명 깊게 인상에 남는’ 이야기는 쉽게 찾을 수 없으며, 탕자의 비유에 견줄 만하다고 말했다.

구속 사업이 늘 그렇듯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일은 분명 어렵고 힘든 일이며, 때로는 깊은 고통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야 하며, 물도 주고 키워서 가지치기도 해야 합니다. 또한 포도원 나무가 ‘심히 무성하게 자라’ ‘한 몸 같이 되며, 그 열매가 고르[게] 열리도록’ 끊임없이 접붙여 주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구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 아무리 멀리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분의 제자들은) 모든 경륜의 시대에 그들을 모으고, 치유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고자 애쓰십니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1997], 165~166)

- 이스라엘의 흠어짐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부록(414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흠어짐에 대한 약사”를 참고한다.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부록(415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집합” 을 참고한다.

야곱서 5:1. 지노스는 누구였나?

- 지노스는 히브리인 선지자이다. 그의 기록은 늦쇠판에는 실려 있으나 구약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지노스는 선지자 아브라함과 이사야 사이 어느 때인가 살았다.(힐라맨서 8:19~20 참조) 우리는 지노스가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시고 구속하신 일에 관해 증거했음을 안다.(니파이전서 19:10; 엘마서 8:19 참조) 지노스는 유명한 감람나무 비유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 비유를 읽으면 지노스가 선지자이자 선견자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야곱서 5장 참조)

야곱서 5:3.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가 너를 …… 가꾼 감람나무에 비유하리니”

• 감람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한 일이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지노스가 비유한 감람나무가 어떻게 이스라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상징하는지를 설명했다.

“한 저자는 이 장대한 상징 묘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전해 내려오는 한 전설에 따르면 생명나무는 감람나무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감람나무는 상록수다. 철마다 나뭇잎 색이 변하지도 않고 낙엽도 지지 않는다. 맹렬한 더위나 겨울 추위에도 끊임없이 생명력을 유지한다. 감람나무는 가꾸지 않으면 거칠고 제멋대로 자라며 쉽게 썩어 버린다.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 오랜 시간 인내심을 갖고 가꾼 후에야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세월이 흐른 뒤 죽은 듯 보이던 뿌리에서 종종 새순이 돋기도 한다. [비틀어진 나무 줄기를 보면] 장수와 생명력을 되찾은 고생의 흔적이 역력하다.’[Truman Madsen, “The Olive Press: A Symbol of Christ,” *The Allegory of the Olive Tree*, ed. Stephen D. Ricks and John W. Welch (1994), 2.]

리하이가 직접 가르쳤듯이 하나님의 넓고도 끝없는, 구속하는 사랑, 특히 그분의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감람나무만큼 강력하고 심오하게 나타낼 수 있는 상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163~164)



© 리처드 홀리브

야곱서 5:3~77. 지노스의 비유에서 상징적 요소

• 비유에서 모든 요소를 상징적 의미와 정확히 관련짓고자 너무 확장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 그 의미를 꼭 밝혀야 할 중요한 요소는 분명히 있다. 지노스의 비유 전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원리는 바로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 지니신 사랑 가득한 보살핌이다. 이에 더하여 다음 사항이 이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또한 414쪽 부록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흠어짐에 대한 약사”와 415쪽 부록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집합” 참조)

상징	의미
포도원	세상
가꾼 감람나무	이스라엘 집, 주님의 성약의 백성
들감람나무	이방인,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민족(비유 후반에 나오는 들가지들은 배도한 이스라엘을 나타낸다.)
가지	백성 무리
가꾼 감람나무의 뿌리	주님께서 자녀들과 맺으시는 복음 성약과 약속, 충실한 사람들에게는 힘과 생명을 제공하는 끊임없는 원천
나무의 열매	인간의 삶 또는 행위
돌레를 파고, 가지를 치고, 거름을 주는 일	자녀들이 순종하여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노력
가지를 옮겨 심음	백성들이 온 세상에 흠어짐, 또는 그들을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 오게 함
접붙이기	영적 거듭남을 통해 성약에 참여하는 과정
썩는 가지	간악함과 배도
가지를 불에 던져 넣음	하나님의 심판

야곱서 5:8~10. 가지를 접붙인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 접붙이는 과정을 살펴보면, 살아 있는 튼튼한 가지들 나무에서 잘라 다른 나무 줄기에 끼워 넣어 자라게 한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가지들은 주님께서 한 곳에서 이끌고 나와 다른 곳에 정착하게 하신 백성들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을 다시 접붙이는 일은 그들이 마침내는 “참 메시아에 …… 대한 지식”(니파이전서 10:14)에 이를 것임을 나타낸다.



야곱서 5:23~25. “내가 …… 다른 가지를 또 심었나니”

• 지노스가 가르친 비유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흩어진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이 비유에서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 원래 살던 땅에서 그들은 죽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지를 잘라 다른 땅에 옮기셨습니다. 그 가지는 바로 니파이인, 잃어버린 지파,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 이끌려 나온 다른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분께서는 그 가지들을 포도원 곳곳에 심으셨는데, 그 포도원은 곧 이 세상입니다.”(Answers to Gospel Questions, 4:204)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은 이스라엘이 온 세상으로 흩어진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믿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현재 많은 국가에서 복음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3년 1월호, 136쪽)

야곱서 5:41, 47, 49. “내 포도원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

• 주님께서는 “내 포도원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야곱서 5:41, 47, 49) 하고 세 차례나 물으셨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 질문을 되새겨 보면 하나님의 참

본성과 자녀들을 위해 쏟으시는 그분의 끊임없는 노력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대한 포도원 주인은 땅을 파고 거름과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가지를 치고 손질하며 옮겨 심고 접붙이고서도 결국은 가래와 전지 가위를 던지고는 눈물을 흘리며, 그 소리를 들을 모든 사람을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 포도원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잇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을 택하지 않고, 그분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복음’[로마서 1:]도 택하지 않는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72쪽)

야곱서 5:47~48. 영적인 뿌리를 자라게 하라

•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은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 전에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저는 우리가 몰몬경 야곱서 6장에 기록된 포도원 비유에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가지들이 그 뿌리를 이겼으므로, 보소서, 그것들이 뿌리의 힘보다 더 빨리 자라 힘을 빼앗았으니, 보소서, 내가 여짜옵거니와 이것이 주인의 포도원 나무들이 못 쓰게 된 까닭이 아니니이까 하니라.’(야곱서 5:47~48; 기율임체 첨가)

“우리 중 몇몇 [후기 성도들은] 이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수확을 가져다줄 뿌리를 발육시킬 노력은 하지 않고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풍성한 수확만을 원합니다. 뿌리를 키우기 위해 일하고 단련하는 등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정원을 가꾸고, 가족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길어 나르며, 나무를 자르고 울타리를 고치고, 조그마한 농장에서 일하는 것 등이 바로 가지가 나기 전에 뿌리를 내리게 한 중요한 일들이었음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부모님께서 뿌리와 가지의 관계를 이해하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뿌리를 깊게 내려 복지 사업에서 원하는 결실을 거두어야 하겠습니다.”(성도의 벗, 1979년 4월호, 74~75쪽)

감람나무 비유: 야곱서 5장

이스라엘의 흠어짐

그리스도 시대 이전(3~14절)



가꾼 감람나무
(이스라엘)가
죽어 간다.(3~4절)



주인이 가지를
치고 거름을
주자, 새 가지가
몇 개 자라나지만
끝부분은 여전히
죽어 간다.(4~6절)



주된 가지들을
잘라내고
들가지들을
접붙인다.
연한 가지들은
숨긴다.(7~14절)



시들어 버린 가지들은
불태운다.(7, 9절)



들감람나무
(이방인; 7, 9절)

원가지들은 포도원 가장 낮은 곳에 숨겨진다.



하나님께서서는 고대 이스라엘이 일으킨 배도를 보셨다. 그분은 선지자들을 보내 회개를 외쳤지만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간악한 이들이 멸망에 이르고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 이스라엘에 속한 몇몇 의로운 가지들은 온 땅에 흠어졌다.

그리스도 시대

(15~28절)



좋은 열매
(15~18절)



척박한 땅, 좋은
열매(20~22절)



더 척박한 땅,
좋은 열매(23절)



열매(이 가지는 다시 언급되지
않았다. 24절)



좋은 땅,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2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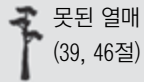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원나무)이 구원받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셨다. 흠어진 이스라엘 가지들도 니파이인과 레이맨인을 제외하고는 좋은 열매를 맺었다. 니파이인과 레이맨인은 일부는 좋았으나 일부는 나빴다.

대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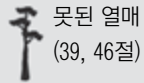
(29~49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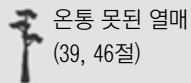
못된 열매
(29~37절)



못된 열매
(39, 46절)



못된 열매
(39, 46절)



온통 못된 열매
(39, 46절)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이스라엘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원나무)가 타락했지만 뿌리는 아직 온전했다. 흠어졌던 원가지도 역시나 타락했다.

이스라엘의 집합

복음이 온 세상에 나아간다.
(50~76절)

복천년(76~77절)



모든 나무가 한 몸이 되고
원열매를 맺는다.(74~76절)



원가지들이 자라고,
들가지들은 불에
던져진다.
(57~58, 65~73절)

흠어진 가지들은 원래 나무에 다시
접붙여진다.(52~53절)



원래 나무 가지들은 흠어진 나무에
접붙여진다.(54~56절)



나쁜 열매가 [포도원으로]
다시 들어올 때,
좋은 열매를 모아
거두고 포도원은
불태워진다.(77절)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은 복음을 깨끗한 상태로 회복시킨다. 그분들은 흠어진 이스라엘을 모으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한다. 의로움이 증가하자 간악한 이들은 멸망하여 마침내 악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오랫동안(복천년) 의로움이 번성한다. 악이 다시 세상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구분하시고 불로 땅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야곱서 5:62~75. “이번에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일하자”

• 딘 엘 라슨 장로는 칠십인으로 봉사할 때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이 마지막 수고에서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했다.

“[지금]은 주님과 그분의 종들이 지상 모든 백성에게 진리를 전하고 참된 정체성을 잃어버린 고대 이스라엘 후손들을 개심시키기 위하여 마지막 온 힘을 쏟을 때입니다.



야곱이 몰몬경에서 인용한 선지자 지노스는 이러한 노력을 포도원에서 가지를 치고 거름을 주고 마지막 날에 그 열매를 모으는 일꾼에 비유했습니다. 지노스는 구주를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했는데, 주인은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가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일하자. 이는 보라

끝이 가까워 옴이니, 이는 마지막으로 내가 나의 포도원을 손질할 때니라.’(야곱서 5:62)

여러분은 이 위대한 사업을 위한 기초가 놓였을 때 지상에 왔습니다. 복음은 마지막 때를 위해 회복되었습니다. 교회는 거의 세계 모든 곳에 세워졌습니다. 무대는 마지막 공연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마지막 일꾼 중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목에 씌워진 멍에입니다. 바로 이러한 봉사를 하도록 여러분은 선택되었습니다.”(성도의 빛, 1983년 7월호, 58쪽)

야곱서 6:10. “불과 유향의 못”

• “불과 유향의 못”이라는 표현은 경전에 여러 차례 반복된다.(요한계시록 19:20; 20:10; 니파이전서 9:16, 19, 26; 28:23; 야곱서 3:11; 6:10; 모사이야서 3:27; 엘마서 12:17; 14:14; 교성 76:36) 이 표현은 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심판 이후에 가게 될 장소나 죄 지은 사람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묘사하는데 쓰인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장소에 관해 현대 계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악한 사람]은 악마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불과 유향 못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교성 76:36)

정신적 고통에 관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스스로를 고문하고 정죄합니다. 그렇기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리니. 사람이 마음속에 느끼는 낙담의 고통은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처럼 격심합니다.”(History of the Church, 6:314)

야곱서 7:2, 4, 7
 시렘은 어떤 주장을 펼쳤으며, 그 방법은 어떠한가? 현대에는 이와 같은 주장과 방법이 어떻게 변형되어 사용되는가?

야곱서 7:1~23. 적그리스도 시렘

• 야곱서 7장에는 몰몬경 최초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212쪽에 나오는 엘마서 30장 6절 해설 참조) 뒤이어 나오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시렘은 “많은 언변의 능력”과 아침을 이용해 “그리스도는 없을 것이라”라고 가르쳤다.(야곱서 7:2, 4)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몰몬경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시렘 같은 이들이 품은 동기를 들춰 내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몰몬경에는 그리스도의 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몰몬경은 거짓 가르침을 뒤집어엎으며 ……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겸손한 사람들은 몰몬경을 통해 악마의 사악한 음모, 책략, 가르침에 맞서며 더욱 강해집니다. 몰몬경에 나타난 배도 형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들과 비슷합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몰몬경을 만들게 하시어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짓된 교육적, 정치적, 종교적, 철학적 개념을 똑바로 이해하고, 그에 대항하여 싸우는 방법을 알게 하셨습니다.”(성도의 빛, 1975년 8월호, 40쪽)

야곱서 7:2~4. 거짓에 속지 않는 방법

•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자문해 보도록 제안했다.

“1. 그것에 대해 표준 경전에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 …… 브리검 영 회장님은 몰몬경에 실린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며, 거짓 가르침을 떨치고 나오는 데에서 의심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2. 두 번째 질문입니다. 후기에 교회를 이끄는 선지자들, 특히 지금 계시는 교회 회장님은 그 주제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 곧 성신께 하는 질문입니다. …… 이 질문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가 깨끗하고 고결하며, 죄로 어지럽혀져 있지 않을 때에만 온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바른 길로 인도되고 있는지, 그릇된 길로 빠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원리는 인간의 마음에 그 참됨을 확신시킬 증거를 이미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

멸망을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끌려 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Conference Report, Oct. 1963, 16~17)

야곱서 7:13. “내게 표적을 보이라”

•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니라.]”(마태복음 12:39) 먼저 신앙을 행사하지도 않고 표적을 바라는 사람은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원리가 현대에 적용된 한 가지 예를 들려주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퀘이커 교도 한 명이 표적을 보여 달라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그가 또다시 표적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회중에게 그 사람이 간음을 범했으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제게 계시를 통해 누구든지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간음을 행하는 자라 말씀하셨다고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한 명이 외쳤습니다. ‘맞아요, 그 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내가 봤소.’ 나중에 그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5:268)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은 신앙을 쌓기 위해 표적을 구하는 약점에 대해 설명했다. “기적이나 표적, 시현을 계속 보아야만 교회에 굳건히 남아 있을 그런 후기 성도를 제게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며 쉽게 미끄러지는 길을 걷는 교회 회원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신앙은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충실하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순종할 때 확립됩니다.”(Conference Report, Apr. 1900, 40)



야곱서 7:13~20.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따른다

•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다. “신앙은 표적으로 인하여 오지 아니하며,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 것이니라.”(교성 63:9; 또한 10~12절 참조)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의로운 사람은 생활 속에서 그들의 신앙에 따라 표적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적은 신앙에서 나옵니다. 이미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표적을 통해 신앙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적이 주어지는 주된 목적은 사람들을 진리로 개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심한 사람에게 보상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

표적은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충실한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성스러운 선물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받은 표적에 대해 자랑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Mormon Doctrine, 2nd ed. [1966], 713~714)

야곱서 7:27. 잘 있으라(Adieu)

• 어떤 이들은 야곱서 7장 27절에 사용된 프랑스어 adieu(아듀: 작별인사를 고하는 표현-유품이)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한다. 한 저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물문경을 번역할 때] 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이 사용하던 언어 방식에 따라 어휘를 선택했습니다. 물문경 시대에 알려지지 않은 어휘들이 번역문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살던 당시 사전에서는 잘 있으라(*adieu*)라는 말이 '작별 인사. 친구와 헤어지면서 행복을 비는 마음을 표현하는 말[너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로 정의되어 있습니다.(Noah Webster, *An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828) 이 단어의 기원은 프랑스어에 있지만 19세기 초엽 뉴잉글랜드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Edward J. Brandt, “I Have a Question,” *Ensign*, Oct. 1985, 17)

생각해 볼 점

- 지노스가 말한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쏟는 노력에 대해 어떤 점을 알 수 있는가?
-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오늘날 후기 성도는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 포도원에서 열매를 수확하여 주인이 올 때를 위해 창고에 쌓아두는 종의 역할을 수행합니다.”(*Answers to Gospel Questions*, 4:142) 여러분은 주님을 도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선교 사업과 더불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 시렘이 사용한 술수가 오늘날 세상에서 왜 이토록 성공을 거두는 것일까? 그러한 술수에 맞서 자신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언 과제

- 지노스의 비유에 나타난 복음 원리를 찾아 일지에 기록한다.(야곱서 5장 참조) 그 원리를 야곱이 야곱서 6장 3~13절에서 강조한 복음 원리와 비교해 본다.
- 엘마서 30장 12~18절과 그 구절에 대한 해설(213쪽 참조)을 읽고, 야곱서 7장 2~13절에 나오는 시렘의 주장을 코리호어의 주장과 비교해 본다.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에 맞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친구나 가족에게 가르친다.
- 야곱서 7장 13절 해설 아래에 나오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표적을 요구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본다. 야곱서 7장 13~20절과 엘마서 30장 49~59절을 읽고, 표적을 요구한 대가로 시렘과 코리호어는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 비교해 본다. 교리와 성약 63편 7~12절을 읽고 신앙이 표적으로부터 오지 않는 이유를 간략하게 적는다.

소개

이노스서와 예이름서, 옴나이서, 몰몬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노스처럼 주님께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본다. 이노스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리하이-니파이 땅을 떠난 니파이인의 기사에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경고와 권고를 주시으로써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점이 잘 나타난다.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선지자를 따를 때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다.



© 1989 스킵스 노우

해설

이노스 1:1. “주의 교양과 훈계”

•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가르칠 때 몰몬경에 나오는 의로운 아버지들의 모범을 따르라고 권고했다.

“몰몬경에 나오는 의로운 아버지들은 아들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그들은 많은 것을 가르쳤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메시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곧 타락, 거둠, 속죄, 부활, 심판, 영생 등이었습니다.(앨마서 34:9 참조) 이노스는 자신의 부친이 의로운 사람임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그의 언어로, 또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나를 가르치셨음이라—이로 인해 내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어다’(이노스서 1:1)

몰몬경 속 인물들 중 주님께 관해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오직 세상적인 지식만을 배운 사람들은 교활하고 사악한 백성이 되었습니다.(모사이야서 24:5, 7 참조)

모든 진리의 가치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원의 진리는 가장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들은 이러한 진리를 간절하게 자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아버지인 우리도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까?”(성도의 빛, 1986년 1월호, 36쪽)

이노스서 1:2.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다

• 이노스는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씨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한 씨름은

성신의 영감을 받아 자신의 진정한 소망을 찾고 표현하기 위한 싸움을 말한다. 이렇게 기도하려면 헛된 말, 진부한 말이나 진심 없이 반복하는 말을 모두 버리고,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소망을 말로 쏟아내야 한다. 한 마디 한 마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음 성구처럼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로마서 8:26)



로버트 배럿 © IRI

이노스서 1:3~4

이노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용한 어떤 단어나 표현에서 진실함과 신앙이 드러나는가?

이노스서 1:3~15.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준비하라

•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이노스가 신앙을 강화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준비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여러분이 가족 안에서, 그리고 이 대회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이노스는 부친으로부터 복음 진리를 들었습니다.

둘째, 이노스는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이노소서 1:3]에 관한 부친의 가르침이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게 했습니다.

셋째, 이노스는 그러한 가르침이 참된지, 그리고 창조주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고자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노스는 ‘나의 영혼이 주렸던지라[이노소서 1:4]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강한 영적 소망이 있었기에 이노스는 구주로부터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을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성신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임이요[제3니파이 12:6]

넷째, 이노스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으며, 따라서 성령을 잘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이노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으신 이 앞에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그에게 부르짖었나니, 참으로 온종일 내가 그에게 부르짖었고, 그뿐 아니라 밤이 오매 내가 여전히 내 목소리를 높여 하늘에 이르게 하였더라.[이노소서 1:4] 그것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신앙은 빨리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노스는 자신의 기도 경험을 ‘하나님 앞에 가졌던 씨름[이노소서 1:2]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신앙이 생겼습니다. 성신의 권능으로 스스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 씨름하지 않고서는 이노스와 같은 신앙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보상은 그러한 노력을 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 여러분이 진실되게, 그리고 끊임없이 이와 같이 행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리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태복음 7:7)”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72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일을 비밀번호를 입력해 자물쇠를 여는 일에 비유했습니다. 그 일에는 단계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기도로 간구할 때마다 저는 그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하늘 금고 문은 오직 비밀번호로만 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첫 번째 잠금장치는 신앙이 있어야 열립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의로움으로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잠금장치는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 간구가 우리에게 옳은 것일 때 열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애타게

원하는 것이 있어 금고 문을 세차게 두드리면서 왜 문이 열리지 않는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금고 문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쉽게 열린다면 우리는 응석받이 아이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신 제 부탁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면서 저는 그분께서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부탁들을 돌이켜 볼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뿐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Insights,” *New Era*, Apr. 1978, 6)

이노소서 1:5~8. “이노스야, 네 죄가 사하여졌나니”

-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사람이 온전히 회개할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구속주께서는 회개라는 자비로운 길을 통해서 개개인에 대한 공의의 요구를



© 2000 IRI

충족시키시고 용서를 하실 수 있습니다.[앨마서 42:15 참조] 속죄의 영향력이 우리 삶에 온전한 기적을 이루게 하려면 완전한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속죄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지상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을 즐기는 분이 아니시라는 점을 알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시며 동정심과 이해심, 인내심으로 가득하신 용서하시는 아버지입니다.”(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74쪽)

이노소서 1:9~14. 다른 사람의 복리에 대한 간절한 바람

- 자신에게 내려진 속죄의 축복을 느낀 이노스는 자신의 백성인 니파이인의 복리를 위해 기도했으며, 그런 후에는 적인 레이맨인의 영적 복리를 위해서도 기도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개종한 이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느끼는 염려하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진정으로 개심한 사람은 단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뛰어넘는 일을 한다는 점을 경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구주의 속죄 회생에 집중됩니다. 이노스, 앨마 이세, 바울과 다른 사람들은 각자 개종한 때로부터 자신과 이웃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일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리아호나, 2001년 1월호, 8쪽)

이노스서 1:13~16

이노스는 니파이 백성이 멸망할 경우 주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기를 원했는가? 이러한 소망은 동족에 대한 그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노스서 1:10. “주의 음성이 다시 나의 생각 속에 임하여”

• 계시는 생각, 느낌, 감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온다.(교성 6:15; 8:2~3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주님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조용히 옵니다. 경전에는 영감의 음성이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

저는 영감이 소리보다는 오히려 느낌으로 더 많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어려운 문제를 마음속에 간직해 두고 열심히 생활하십시오. 그러한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조용히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응답은 번개처럼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말씀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교성 98:12) 여기저기에서 작은 영감으로 오기도 합니다.

경전을 읽는 가운데 오는 응답이 있는가 하면 연사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경우에는 응답이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영감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속삭임은 분명하여 오해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0년 3월호, 31~33쪽)

•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주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계시의 영이 처음으로 어떤 암시를 줄 때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수한 예지가 여러분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 홀연히 여러 생각이 떠오를 수 있으며, 그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면 같은 날, 혹은 오래지 않아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에 나타내 보이신 일들은 실현될 것이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계시의 원리

안에서 성장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3:381)

이노스서 1:23: 물문의 말씀 1:17. 날카로움으로 말하다

• 교회 지도자들은 때때로 교회 회원들에게 그들의 구원에 위협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직접적이고 날카롭게 경고해야 한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은 이 의무에 대해 청년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 “베드로, 야고보, 바울은 분명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외치고 위협을 경고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굽히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지도자인 우리는 쉬지 않고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만약 청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잘못된 일부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에게 올바른 길을 명백히 가르쳤다면 우리는 책망 받을 일이 없습니다.”(*Love versus Lust*, 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of the Year [Jan. 5, 1965], 6)

이노스 1:27. “나의 안식의 처소”

•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영원한 안식에 관해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의 의중에는 따로 정해 놓으신 시간 혹은 시기가 있으며, 그때 그분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 모든 사람을 해의 왕국의 안식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안식처는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곳이므로 그곳에 들어가 축복을 누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왕국의 율법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특정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이 안식처를 기쁨으로 받을 준비를 갖추 수 있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2:12)

에이롬서 1:5. “그들이 불경하거나 모독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

•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우리가 계속 깨끗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소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나이든 사람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가 깨끗하고 유덕한 말을 할 때 기뻐하심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시는 긍정적인 말과 고무적인 말, 옳은 일을 하게 하고 진리와 선을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말로 옵니다.

욕설을 하지 마십시오. 신성모독을 하지 마십시오. 소위 추잡한 농담을 피하십시오. 저속하고 더러운 말이 섞인 대화를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할 때 더 행복해지고, 그러한 모범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51쪽)

예이롭서 1:11. “마치 그가 이미 오신 것같이 장차 오실 그를 믿도록”

•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에 살았던 예이롭과 같은 참된 선지자들은 그분께서 오실 것과 그분의 속죄를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기록했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 말했다.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그의 거룩한 선지자들을 보내사,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에 이러한 일을 선포하게 하사, 이로써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는 자들 그들은 그들의 죄 사함을 얻고, **참으로 마치 그가 이미 그들 가운데 오신 것같이**, 심히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셨느니라.”(모사이야서 3:13; 기울임체 첨가)

아빈아다이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장차 올 일을 마치 이미 임한 것같이 말할진대**, 만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구속이 있을 수 없었으리라.”(모사이야서 16:6; 기울임체 첨가)



욘나이사 1:12~17. 기록에 등장하는 세 문명

• 이 짧은 기록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서반구에 있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세 무리에 대해 알게 된다. 첫 번째는 리하이 일행이다. 물문경에 나오는 기사 대부분이 그들과 그 후손에 관한 이야기이다.

물문경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무리는 제이라헤믈라 백성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며, 이들은 물레크의 후손으로 니파이 백성과 합류했다.(모사이야서 25:2 참조) 시드기야 왕의 아들인 물레크는 주전 587년 경,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미대륙으로 여행했다.(욘나이사 1:15 참조) 영은 니파이에게 경전 기록이 없으면 온 민족이 불신앙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으며 제이라헤믈라 백성은 이 말을 증명한

산증인이었다.(니파이전서 4:13 참조) 물레크인은 모사이야 왕이 다스리던 니파이인과 연합했다.(욘나이사 1:19 참조)

세 번째 무리는 야렛인으로, 이들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큰 탑”을 세운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왔다. 야렛 일행은 처음에 큰 민족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주전 600년에서 300년 사이 어느 시기에 큰 내전이 일어나 마지막 왕이었던 코리엔투머와 주님의 선지자 이더를 제외하고는 전멸했다.(이더서 15:29~34 참조) 이더가 그 기록을 마무리했으며, 코리엔투머는 이리저리 떠돌다가 제이라헤믈라 백성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아홉 달 동안”(욘나이 1:21) 살다가 숨을 거두었다. 야렛인들에 대해서는 모로나이가 이더서에 기록한 내용 외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욘나이 1:23~25. 작은 판을 받은 베냐민 왕

• 니파이전서에서 욘나이사까지 선지자들은 작은 판에, 왕들은 큰 판에 기록을 했다.(예이롭서 1:14 참조) 그런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아멜레카이는 작은 판을 베냐민 왕에게 주었다. 작은 판이 가득 찼기 때문이었다.(욘나이사 1:30 참조) 베냐민 왕 시대부터는 종교적인 내용과 역사적인 내용이 모두 큰 판에 기록되었다. 주전 130년 이후까지 작은 판에 추가된 기록이 없다. 모사이야서부터 제4니파이까지는 물론이 큰 판에서 요약한 내용이다.

욘나이사 1:26
아멜레카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는가?

욘나이사 1:26. “너희의 온 영혼을 그에게 예물로 드리고”

•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예물로 드린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가르쳤다. “진정한 개인적인 희생은 결코 짐승을 제단 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동물과 같은 본성을 제단 위에 놓고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67쪽)

같은 주제로 맥스웰 장로는 후에 이렇게 가르쳤다.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때, 여러분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리아호나, 2004년 5월호, 46쪽)

몰몬의 말씀. 니파이의 작은 판과 큰 판을 연결하는 다리

• 니파이인들이 새긴 기록에는 니파이의 작은 판과 큰 판이 있었다.(니파이전서 9:2 참조) 큰 판에는 주로 백성들의 세속적인 역사가 실려 있었고, 작은 판에는 성스러운 기록이 있었다.(니파이전서 9:2~4 참조) 니파이전서부터 옴나이서까지는 니파이의 작은 판에 기록된 내용이다. 모사이야서부터 제4니파이까지는 큰 판에 실려 있던 내용을 몰몬이 요약한 것이다.(22쪽에 나오는 니파이전서 9:1~5 해설 참조)



몰몬의 말씀 1:7. “주께서는 장차 이를 일을 모두 아시나니”

• 니파이는 리하이 일행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 30년이 지날 때까지 작은 판을 만들지 않았다.(니파이후서 5:28~31 참조) 그는 주님께서 왜 두 번째 기록을 만들라고 명하시는지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한 현명한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명하셨다고 믿는 신앙이 있었다.(니파이전서 9:5) 약 천 년 후에 선지자 몰몬이 니파이가 한 말을 되풀이했다. 몰몬은 니파이의 큰 판을 요약한 내용에 더해 “한 현명한 목적을 위하여” 니파이의 작은 판을 포함시키노라고 간증했다.(몰몬의 말씀 1:7)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을 번역할 때 몰몬이 요약한 니파이의 큰 판 내용부터 시작했다. 조셉 스미스가 116쪽에 달하는 내용에 대해 번역을 마쳤을 때 마틴 해리스는 조셉에게 그 원고를 가져가서 가족에게 보여 주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조셉은 마틴에게 그 원고를 주어도 될지 하나님께 세 차례에 걸쳐 여쭙었고, 마침내 허락을 받았다. 그 원고는 악인의 손에 넘어가 버렸으며(교성 10:8 참조) 잃어버린 원고 또는 잃어버린 116쪽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원고를 잃어버린 일로 주님께서 왜 니파이에게 작은 판을 기록하라고 명하셨는지, 왜 몰몬에게 영감을 주어 그 기록을 포함시키도록 하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졌다.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이미 번역을 끝낸 그 부분을 다시 번역하지 말고 니파이의 작은 판을 번역하여 그것을 대체하라고 명하셨다.(교성 10:30, 38~45 참조) 116쪽에서 번역한 내용은

주전 600~130년 즉, 리하이 시대부터 베냐민 왕 시대까지 해당하는 기록이었다. 작은 판도 마찬가지로 리하이부터 베냐민 왕까지, 주전 600~130년에 이르는 시기를 다룬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빼앗긴 116쪽에서 다른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시기의 내용을 두 번째 기록인 작은 판에 실도록 하셨다. 이로써 주님께서 이노스와 맺으신 성약 즉, “기록을 보존해”(이노스서 1:16) 주시겠다는 약속은 지켜졌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작은 판에서 번역되어 몰몬경에 포함된 내용은 잃어버린 116쪽에 있던 내용보다 더 많은 정보가 들어 있다고 단언했다.

“몰몬경에는 ‘한 현명한 목적을 위[해서]’ 니파이의 작은 판을 만들고 기록하고 보존하라는 말이 최소한 여섯 번은 나옵니다.(니파이전서 9:5; 몰몬의 말씀 1:7; 엘마서 37:2, 12, 14, 18 참조) 여러분과 저는 그 현명한 목적 가운데 가장 확실한 한 가지가 바로 앞서 말한 잃어버린 116쪽 원고를 대신한 것이었음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그보다 더 현명한 목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 더 현명한 목적에 대한 암시를 발견할 수 있는 열쇠는 교리와 성약 10편 45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조셉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보라, 니파이[의 작은] 판에는 나의 복음을 더 폭넓게 보게 하는 많은 기사가 새겨져 있느니라.’(기울임체 추가)

따라서 분명히 이것은 원고 116쪽을 가져왔으니 인쇄된 글 142쪽을 주겠다는 주고받기 식 거래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이 되돌려 받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태초부터 아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더 현명한 목적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 116쪽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작은 판에 실린 내용이 세 위대한 증인들[니파이, 야곱, 이사야] 각자가 남긴 선언 즉, 몰몬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세 사람의 위대한 교리적 목소리라는 사실을 압니다. ……

여러분은 사실 이들 세 증인에게 증언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작은 판의 유일한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A Standard unto My People” [Church Educational System symposium on the Book of Mormon, Aug. 9, 1994], 9~10; LDS.org under gospel library/additional addresses/CES addresses 참조)

-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능력에 대해 간증하며, 이것을 인식하면 그분을 믿는 우리 신앙이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지 설명했다.

“하나님의 실재성에 관한 교리를 제외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진리보다 더 기본이 되는 교리는 거의 없습니다.

“..... 하나님은 신의 속성을 완벽히 갖추셨으며, 그 중 하나는 바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창조물 중 극히 일부도 구원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그분의 창조물에게 그들을 영생을 받는 상속자로 만들어 줄 이해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개념이 인간의 마음속에 없었다면 애초에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일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Lectures on Faith*, Joseph Smith, Lecture 4, 11번째 단락)

그러므로 시작부터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All These Things Shall Give Thee Experience* [1979], 6~7)

몰몬의 말씀 1:10~11. 아멜레카이가 베냐민 왕에게 판을 넘겨 주다

- 아멜레카이가 베냐민 왕에게 넘겨준 판은 작은 판이었다. 큰 판은 기록자에게서 다음 기록자에게로 전해지면서 내용이 계속 추가되었으며, 주후 385년에 몰몬이 큰 판을 받아서 내용을 요약했다. 몰몬이 한 요약은 금판 또는 몰몬의 판에 기록되었다.

- 시대마다 기록된 몰몬경 장 수에 관해 배우기 위해 부록(407쪽)에서 “니파이인 기록 작성자들” 도표를 참조한다.

생각해 볼 점

- 속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제이라हे틀라 백성들의 언어는 본래 뜻과 떨어진 상태로 굳어졌다. 기록과 언어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능력을 실감한 적이 있다면 어떤 경험을 통해서인가?(133쪽에 나오는 몰몬의 말씀 1:7 해설 참조)

제언 과제

-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고 난 뒤 영적 성장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간략히 적어 본다.(129쪽에 나오는 이노스서 1:2 해설 참조)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새롭게 기억하기 위해 이 영적 경험에 관해 기록한 내용을 수시로 들여다 본다.
- 현대 선지자들이 영적인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우리에게 준 “날카로운” 권고는 무엇인지 친구와 함께 공부하고 토론한다.(131쪽에 나오는 이노스서 1:23; 몰몬의 말씀 1:17 해설 참조)
- 잃어버린 116쪽 이야기를 예로 사용하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에 품은 목적을 이루시는 그분의 능력을 가르치는 짧은 공과를 준비한다.

소개

베냐민 왕은 백성들 가운데 있던 거룩한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아 “그의 육신의 모든 힘과 그의 온 영혼의 능력을 다해” 일하여 “그 땅에 평화를 이루었[다.]”(몰몬의 말씀 1:18) 생을 마감할 때가 가까워 오자 베냐민 왕은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았다. 그 집회에서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통치를 정리하며 왕위 계승자로 아들 모사이야를 지명했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속죄에 대해 가르쳤으며, 니파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짚어질 것을 권면했다. 베냐민 왕의 말씀을 다룬 이 부분을 통해 여러분은 그가 추구한 이상, 즉 이웃에게 가까이 봉사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구주께 의지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 성장하고, 베냐민 왕이 가르친 원리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성약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해설

- 몰몬경을 구성하는 각 책의 분량과 그 책에서 다룬 연대를 비교해 보면 배울 점이 있다. 부록(410쪽)에 나오는 “몰몬경 쪽수 및 기간” 도표를 참고한다.

모사이야서 1:1~2. 모사이야서에서 서술 방식이 1인칭에서 3인칭 시점으로 바뀐다

- 이제까지 몰몬경 초반부 책들에서는 1인칭 시점에서 서술되었지만 모사이야서에 이르러 3인칭 시점으로 전환된다. 니파이전서부터 옴나이서까지는 니파이의 작은 판을 번역한 내용이며 원래 저자들이 기록한 그대로이다. 따라서 이 기록들은 1인칭 시점으로 쓰여졌다. 그러나 모사이야서부터 제4니파이까지는 모두 니파이의 큰 판을 몰몬이 요약한 내용이다. 원래 저자들이 기록한 것을 몰몬이 요약해서 옮겨 실었다.

모사이야서 1:3~10. 하나님의 비밀

- 몰몬경에서 “하나님의 비밀”(모사이야서 1:3)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구원 원리를 포함한다. 복음 원리가 불가사의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순종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비밀이란 신성한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진리, 곧 감추어진 성스러운 일이다. …… 오늘날에는 신권 회복, 죽은 자를 위한 사업, 교회 재조직과 관련된 그런

위대한 진리가 바로 ‘비밀’에 해당된다. 이러한 것들은 계시를 통해서가 아니면 알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Hyrum M. Smith and Janne M. Sjodahl, *The Doctrine and Covenants Commentary*, [1972] 개정판, 141)

모사이야서 1:4~7

베냐민 왕은 니파이 백성에게 경전 기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 했는가?

모사이야서 1:4~6. “애굽의 언어”

- 베냐민과 니파이(니파이전서 1:2 참조)와 모로나이(몰몬서 9:32 참조)는 모두 애굽어를 언급했다. 모사이야서 1장 4~6절에서 베냐민 왕은 아들들이 “애굽인의 언어”를 배워야 할 이유가 있었음을 명백히 밝혔다. 낫쇠판과 니파이 판에 담긴 계명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애굽인의 언어를 반드시 알아야 했다.(모사이야서 1:6 참조) 니파이 시대부터 모로나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애굽어는 니파이 백성에게 이어져 내려 갔다.(11쪽에 나오는 니파이전서 1:2, 358쪽에 나오는 몰몬서 9:32~34 해설 참조)

모사이야서 1:10. 새로운 왕, 모사이야

- 몰몬경을 자세히 읽어 보면 고대 이스라엘에 기원을 둔 수많은 전통과 관습을 발견하게 된다. 모사이야서 1장을 보면 모사이야가 니파이인 왕위에 오른 방식이 구약 시대에 행해지던 왕위 계승 방식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tephen D. Ricks, “King, Coronation, and Covenant in Mosiah 1~6,” John L. Sorenson and Melvin J. Thorne, ed., *Rediscovering the Book of Mormon* [1991], 209 참조)
- 몰몬경 시대와 구약 시대의 대관식은 다음과 같이 눈에 띄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다. (1)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믿음(모사이야서 1:9~10; 6:3, 5; 열왕기상 2:15; 열왕기하 15:5 참조) (2) 대관식 장소로 따로 마련된 성소(모사이야서 1:18; 열왕기상 1:39~45 참조) (3) 대관식 때 성스러운 유물이나 기타 물품 증여(모사이야서 1:15~16; 열왕기하 11:12 참조) (4) 기름 부음(모사이야서 6:3; 열왕기상 1:33~34 참조)(Ricks, *Rediscovering the Book of Mormon*, 210, 213~214 참조)

“또한 옛 왕이 죽기 전에 새 왕이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 이상적이었으며, 이 힘의 이동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성약을 맺거나 그 성약을 새롭게 하는 의식과 함께 일어났다.”(Ricks, *Rediscovering the Book of Mormon*, 216) 베냐민 왕의 경우, 백성들이 조금 나중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 하나님과 성약을 맺어 …… 그의 뜻을 행하며, …… 그의 계명에 순종하겠나이다”(모사이야서 5:5)라고 선언하는 순간 권능이 옮겨 갔다.

모사이야서 1:11~12. 베냐민 왕이 그의 백성에게 주고자 한 이름

• 베냐민 왕이 백성들을 불러 모은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이름을 하나 주기 위해서였다. 왕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고양시키고자 했다. 그와 많은 거룩한 선지자들은 여러 해 동안 백성들에게 전파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시켰다.(몰몬의 말씀 1:5~18 참조) 베냐민 왕은 말씀을 전하는 내내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이름을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쳤다. 그런 후, 모사이야서 5장 8~11절에 나와 있듯이 베냐민 왕은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모사이야서 2:9

주님을 더욱 잘 경배하기 위해 우리 각자는
베냐민 왕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모사이야서 2:17. ㉮ 봉사

• 하워드 더블류 헌터(1907~1995) 회장은 우리가 의로운 마음으로 모든 봉사를 행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봉사할 기회를



계속 찾으십시오. 현 상황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마십시오. ……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을 받는 것보다 의로움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현 상황이 아니라 봉사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매달 자신의 임무를 조용히 수행하는 성실한 가정 방문 교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에서 더 중요한 직책이라고

생각되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만큼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분들입니다. 보이는 모습이 가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여성들에게”, *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96쪽)

• 칠십인인 로버트 제이 휘튼 장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봉사가 어떻게 개인적인 개종의 깊이를 재는 척도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개종이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봉사하며 여러분이 받은 은사와 축복을 나누는 데 삶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심 없는 마음으로 친절과 봉사를 베풀 때 여러분의 영성은 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영원한 발전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즉 대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의 삶에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대하는 방식은 여러분의 개종을 가늠하는 잣대가 아닙니까? 교회에서 자신에 관련된 일만 하는 사람은 완전이라는 목표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봉사가 복음과 고귀한 삶에서 거의 전부를 차지합니다.”(*리아호나*, 2005년 5월호, 91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어떤 봉사를 해야 하느냐에 덧붙여서 우리가 왜 봉사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제가 생각하는 …… 마지막 동기는 봉사하는 이유 중에서도 가장 차원이 높습니다. 이러한 봉사를 경전에서 ‘가장 좋은 길’(고린도전서 12:31)이라고 일컬었습니다. ……

우리가 하는 봉사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봉사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85년 1월호, 14~15쪽)

모사이야서 2:21~24, 34. “그에게 빛졌느니라”

•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틴(1917~2008) 장로는 우리를 대신하여 빛을 청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표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늘 영생을 추구하는 데 우리 삶을 바쳐야 한다고 가르쳤다.

“어떻게 하면 구주께 진 빛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부채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그분이 지지도 않은 부채를 갚으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속죄가 있기에 우리 죄는 씻겨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교성 14:7 참조]

그러한 은사에 값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은사에 대해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경의 선지자 베냐민 왕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설혹 너희가 너희 온 영혼이 가질 능력이 있는 모든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할지라도 [또한] 너희 온 영혼을 다해 그를 섬긴다 할지라도 너희는 오히려 무익한 종일 것이니라.[모사이야서 2:20~21]'(리아호나, 2004년 5월호, 43쪽)

-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를 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우리가 겸손하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께서 베푸신 은혜를 아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곧 구주의 속죄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모든 일에 비추어 볼 때 은혜를 완전히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빛을 값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순종으로 그분의 크신 자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결코 그분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분은 그분이 받으신 큰 고통과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그분의 피를 흘리는 대가를 치름으로써 우리를 사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계명이 힘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그 계명을 기꺼이 지키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행위는 분명히 은혜를 모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교회 회원으로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정직하게 십일조를 바치지 않으며, 지혜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고 이 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제 멋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모를 때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됩니다."(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1:126)

모사이야서 2:25. 너희 몸은 "너희를 창조하신 이에게 속한 것이니라"

- 모사이야서 2장 25절은 주님께서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베냐민 왕의 가르침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린도전서 6:20)라는 바울의 가르침과도 일치한다.

모사이야서 2:34~41. 고의로 하나님께 거역하는 행위

-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해당 율법만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태에 처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자체로 심각한 죄가 된다. 고든 비헝클리(1910~2008) 회장은 그러한 거역에 대한 간단한 실례로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감독이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해 찾아온 한 자매에 대해 한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켰는지 묻자 그녀는 가끔 커피를 한 잔씩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감독님, 설마 그것 때문에 저를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진 않으시겠죠?' 감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집과 자매님 사이에 커피가 있는 한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성도의 빛, 1990년 7월호, 60쪽)

모사이야서 3:5, 17~18. 전능하신 주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 물론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 가운데 오직 베냐민 왕만이 전능하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이 말을 이렇게 정의했다. "그리스도는 곧 전능하신 주이십니다.(모사이야서 3:5, 17~18, 21; 5:2, 15; 요한계시록 19:6) 이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권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Mormon Doctrine, 2nd ed. [1966], 452)

모사이야서 3:7. 그의 고뇌가 것처럼 컷느니라

-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통을 일컬어 "속죄의 엄청난 무게"라고 표현했다.

"이 세상과 다른 여러 세상의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 '놀라셨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아셨으나 경험했기 때문에 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격심하고 가혹한 속죄 과정을 겪어보기 전에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고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것은 그분의 특별한 지성으로 상상한 그 이상으로 훨씬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하늘의 사자가 나타나 힘을 북돋아 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누가복음 22:43 참조)



켈 피슨 © 1987 IRI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축적된 죄의 무게가 완전하고, 죄 없고, 감수성이 강한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병고도 또한 속죄의 엄청난 무게 중 하나였습니다.(엘마서 7:11~12; 이사야 53:3~5; 마태복음 8:17 참조) 고통을 받은 예수님은 아버지께 그 시간과 그 잔이

자신에게서 물러가기를 간청한 것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적절한 인용으로 간청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마가복음 14:35~36)

여호와이신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창세기 18:14)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의 천사는 또한 당황해하는 마리아에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누가복음 1:37; 또한 마태복음 19:28; 마가복음 10:27; 누가복음 18:27 참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요청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통의 극치에서 그분은 혹시 수풀에 걸린 수양을 바라기라도 하셨겠습니까?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분의 고통, 무한대로 늘어난 그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그분은 이후에 십자가에서 영혼의 울부짖음을 토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았기에 터져 나온 울부짖음이었습니다.(마태복음 27:46 참조)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보인 숭고한 순종심을 그대로 간직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성도의 벗, 1985년 7월호, 78~79쪽)

• 한 경전 학자는 구주께서 겪으신 고통은 타락이 낳은 결과를 모두 짊어지는 무게였다고 설명했다. "예수께서는 가장 쓰라린 굴욕을 견뎌 내야 할 시간이 다가왔으며 그때로부터 숨을 거두는 순간에 터져 나온 그 위대한 외침에 이르기까지 지상에서 그분께 남은 것이라고는 육신에 가해지는 끔찍한 고문과 통렬한 정신적 고통뿐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온갖 고통이 움츠러드는 그분의 몸에 산처럼 쌓여야 했습니다. 그분의 영혼은 잔인하고 참담한 모욕이 안겨 주는 비참한 고통으로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고문과 영혼의 고통 속에서 그분의 신성한 영이 발하던 고귀하고도 청명한 빛은 짧지만 끔찍한 암흑을 겪어야 했습니다. 삶을 예는 듯한 아픔과 가장 무자비한 치욕, 그리고 모든 죄의 짐과 배도하고 타락한 인간 존재에 대한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이 모든 무게를 바로 그때 그분께서 견뎌야 하셨습니다."(F. W. Farrar, *The Life of Christ* [London: Cassell and Co., 1874], pages 622~23; Bruce R. McConkie, *The Mortal Messiah, Book 4* [1981], 126에서 인용)

모사이야서 3:17. "다른 아무 이름[도] 주어지지 아니하리니"

•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확언했다. "합당하게 성임 받은 그분의 사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위대한 왕인 임마누엘이시며 오늘날 아버지의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십니다. 그분의 길은 이 생애에서는 행복으로 인도하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야호나, 2000년 4월호, 2쪽)

모사이야서 3:19. 육에 속한 사람

• 육에 속한 또는 육으로 난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타고난 정체성에 내재하는 한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경전에서는 육에 속한이라는 말이 타락했거나 죄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인간은 죄 없이 태어났지만(교성 93:38 참조) 아담의 타락 때문에 타락한 세상에 오게 되었고 영적으로 사망하는 상태에 놓여(엘마서 42:9 참조) 하나님 면전에서 분리되었다. 선악을 알게 되고(모세서 4:11; 5:11 참조) 이 불완전한 상태로 살면서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고(로마서 3:23; 요한서 1:8, 10 참조) 그 결과 자신의 "타락"을 경험하게

된다.(모세서 6:49, 55 참조)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육에 속한 사람”이 된다.(앨마서 42:10, 12; 교성 20:20 참조) 따라서 속죄의 영향력으로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생활하여 합당해지지 않는 한(모사이야서 3:11~12, 19 [B] 참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다.(모사이야서 3:19 [B] 참조)

• 베냐민 왕은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쳤다.(모사이야서 3:19 [B] 참조)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연차 대회 말씀에서 이 과제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모사이야서 3:19) 버리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의로움과 예배, 기도, 경전 공부가 매우 중요합니다.”(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4쪽)

그보다 앞선 대회에서 맥스웰 장로는 경고와 함께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기 위한 또 다른 도구를 제안했다.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기 위한 일대일 전투에서 소망은 특히 필요합니다.(모사이야서 3:19 참조)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육으로 난 인간에게 지배당하게 됩니다.”(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36쪽)

모사이야서 3:19 [B] 성도가 되는 일

•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는 성도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인용한 후 우리가 멀리 해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예를 제시했다.

“그리스어에서 성도라는 낱말은 ‘따로 떼어 두다, 분리하다, 거룩한’[Daniel H. Ludlow, ed., *Encyclopedia of Mormonism*, 5 vols. (1992), 3:1249]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한다면, 이 세상에 만연한 악한 행위와 파괴적인 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폭력과 부도덕한 영상으로 공격받습니다. 부적절한 음악과 외설물이 점점 더 용인되고 있습니다. 약물과 알코올 사용이 만연합니다. 정직과 인격은 별로 강조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장하지만 의무와 책임과 본분은 무시됩니다. 대화가 거칠어지고 천박하고 상스러운 것들에 점점 더 노출되고 있습니다. 악마는 행복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자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행위에서 자신을 분리시킨다면 생활 속에서 영과 함께하고, 또한 합당한 후기 성도가 되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95쪽)

모사이야서 3:19 [B] “어린이와 같이”

•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어린이와 같이”(모사이야서 3:19) 되면 어떻게 영적으로 안전한 상태에 있게 되는지를 가르쳤다.

“베냐민 왕은 우리가 이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변화시킬 [킬] …… 수 있는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바로 우리가 확실한 기초 위에 설 수 있고, 유혹이라는 폭풍이 부는 동안에도 의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베냐민 왕은 주님은 물론이거니와 수천 년간 선지자들이 사용한 아름다운 비유로 이 변화를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이, 곧 어린이와 같이 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이처럼 되는 것을 약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



그러나 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힘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한 베냐민 왕은 어린이같이 되는 것은 유치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한 후 그 뜻에 따라 행하신 구주처럼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위험한 시기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힘을 얻으려면 우리의 본성이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

구주를 믿는 신앙에 자신을 맡기고, 속죄 권능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오랫동안 계명을 지키기 위해 성령의 지시에 응할 때 우리는 구주라는 반석 위에서 안전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능력이 어린이와 같이 될 때, 우리는 확실한 기초 위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전한 장소로 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베냐민 왕에게서 배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수단일 뿐, 추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가 되어야 하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을 때 회개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성신의 속삭임에 따름으로써 유혹에 맞섭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본성이 바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더 큰 사랑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을 한다면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누리기에 합당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일하고 확실한 반석 위에서 안전해질 것입니다.”(리아호나, 2006년 5월호, 15~16쪽)

모사이야서 3:19 

우리는 어린아이의 어떠한 속성을 지녀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성품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점

-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는가?

- 육에 속한 사람을 극복하는 데에 속죄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성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모사이야서 3:19  참조)
- 모사이야서 1장 5~6절에서는 니파이인들이 경전을 “눈 앞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신앙에 빠져 들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매일 개인적으로 경전을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일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제언 과제

- 베냐민 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없는 자로 드러나지 못[한다]”(모사이야서 3:22)고 설명했다. 다음 주장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한 견해를 적어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가 더 많은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면 복음을 연구하고 더 많이 배우는 일이 어째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교성 130:18~19; 131:6 참조) 복음을 연구할 때 오는 축복을 묘사한 성구를 세 개 이상 찾아서 적어 본다.
- 모사이야서 3장을 바탕으로 발표 개요를 만들어 현재와 내세에 걸친 구주의 사명을 설명한다.

소개

베냐민 왕의 설교를 들은 니파이 백성은 구속을 가져오는 속죄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래서 기도로 용서를 구하고 양심에 평안을 얻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었다. 이들 니파이인처럼 우리도 마음에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항상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죄 사함을 항상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다. 베냐민 왕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신앙을 얻고 회개한 후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영광의 지식 안에서 …… 자[랄]”(모사이야서 4:12) 수 있는지 알게 된다.

해설

모사이야서 4:1~2, 5, 11. “땅의 티끌보다 못함을 보았으”

- 베냐민 왕의 백성들은 자신이 “땅의 티끌보다 못함”을 깨달았다. 이는 땅에 있는 티끌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데(히라만서 12:7~8 참조)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은 그분께서 주신 계명에 항상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표현한 말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 즉 생명과 호흡, 음식과 생산 능력, 건강과 힘, 구원과 영생,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의지해야 함을 깨달았다. 하나님과 속죄가 없다면 인간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해야 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겸손할 수 있다. 인간이 위대해질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야곱이 가르쳤듯이 속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시 살 수도 없으며, 악마의 천사가 될 것이다.(니파이후서 9:7~9 참조)

모사이야서 4:2~3.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적용하라”

- 베냐민 왕의 백성들은 죄 많은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그들은 자비를 구했으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적용하[시기를]”(모사이야서 4:2) 간구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어떻게 속죄를 통해 우리의 잘못이 치유될 수 있는지를 가르쳤다.

“우리는 모두 잘못을 저지릅니다. 때때로 혼자서는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고칠 수 없는 것들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나면 혼자서는 치유할 수 없는 죄책감과 수치와 고통이 내면에 스며듭니다. 그때가 바로 속죄의 치유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지 않으셨다면 잘못에 대한 죄값은 하나 하나 더해질 것입니다. 삶은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속을 얻도록 그분께서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

우리는 “죄 사함을 …… 간직[할]”(모사이야서 4:12) 수 있습니다. 침수로 행하는 침례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 성약은 매주 성찬을 취함으로써 새롭게 됩니다.[교성 27:2 참조]

속죄는 실질적이고 개인적이며 매일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기도와 같은 매우 간단한 시작으로 속죄의 힘은 발휘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잘못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회개를 통해 죄책감이 없어지고 화평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리아호나, 2001년 7월호, 26~27쪽)

모사이야서 4:3. “양심의 평안”

-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진심 어린 회개와 의로운 생활을 할 때 양심에 평안이 깃든다고 간증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각 자녀가 양심의 평안이라는 가장 훌륭한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모사이야서 4:2~3 참조] 양심에 평안을 느낄 때 우리는 고뇌, 슬픔, 죄책감, 수치심, 자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은 행복의 토대가 됩니다. ……

…… 여러분의 내면을 어지럽힌 개인적인 범법을 회개함으로써 다시 양심에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죄나 범법으로 율법을 어기면 양심에 상처를 받아 마음과 정신 면에서 고뇌를 하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영의 자녀가 무심코, 또는 고의로 율법을 범할 것을 아셨기에 그런 행동의 결과를 바로잡는 방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범법이 크건 작건 간에 해결책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갖고 계명에 순종하여 온전히 회개하는 것입니다.”(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15~16쪽)

•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회개를 하여 양심에 평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때까지 인내하라는 권고를 주었다.

“복음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고통과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충분히 알고 난 이후에 지옥에 이르는 길을 따를 것을 선택한 소수 외에는 완전히 용서받는다든 약속에서 제외될 습관, 중독, 반항, 범법이나 범죄는 없습니다.”

그 위대한 용서의 아침은 즉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종종 회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낙담은 시험 중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찬란한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런 다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빌립보서 4:7]이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삶으로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과 같이 자신의 죄를 더는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은 그것을 [직접] 알게 될 것입니다![모사이야서 4:1~3 참조]”(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19~21쪽)

모사이야서 4:4~8. 속죄의 지식에 이르렀다면

•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은 모든 후기 성도는 속죄를 공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간증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어 오늘 아침 이 연단에 겸손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 유례없는 사건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비할 바 없는 속죄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까지 일어난 일 중 가장 놀랍고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속죄에 관해 배울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이유는 다소 자기 본위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구원은 속죄를 믿고 받아들이는 데 달려 있습니다.[모사이야서 4:6~7 참조] 속죄를 받아들려면 이를 더욱 온전하게 이해하려는 쉬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속죄를 통해 우리의 본성이 완전해질 수 있으며 그렇게 하여 우리는 삶에서 많은 점을 배우게 됩니다.[모로나이서 10:32 참조] 우리 모두는 죄를 지으며 그 쫓값에서 각자가 감당할 부분을 완전히 갚기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구주의 위대한 속죄가 그 부채에서 나머지 부분을 갚습니다.[니파이후서 25:23 참조]”(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9쪽)

모사이야서 4:12. “너희의 죄 사함을 간직하라!”

•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죄 사함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자주 회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베냐민 왕은 죄 사함을 간직해야 한다는 데 큰 역점을 두었습니다.(모사이야서 4:26 참조) 교회에서 우리는 이 개념에 대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죄 사함을 간직하는 일은 분명 우리가 주기적으로 회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새로운 회원을 보유하는 일을 염려합니다. 물론 마땅히 그래야 하는 일입니다만, 우리 죄 사함을 간직하는 일이야말로 훨씬 더 깊이 염려해야 할 문제입니다.”(“King Benjamin’s Sermon: A Manual for Discipleship,” John W. Welch and Stephen D. Ricks, eds., *King Benjamin’s Speech: “That Ye May Learn Wisdom”* [1998], 16)

모사이야서 4:14~15. 자녀를 의롭게 키울 것이니

• 베냐민 왕은 가족의 중요성과 의로운 부모의 필요성을 가르쳤다. 현대 선지자들도 주님께서는 그분의 충실한

제자들에게 자녀를 의로움 가운데 양육하고 복음 원리를 가르치라고 명하셨다는 점을 증거한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1998년 10월호, 24쪽)

•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할 책임에 대해 언급한 현대의 증인인 십이사도 정원회 러셀 엠 넬슨 장로는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성구를 들어 가르쳤다. “경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를 가르치라고 부모들에게 지시합니다.[모로나이서 8:10 참조] 부모들은 구원의 계획[모세서 6:58~62 참조]과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조화를 이루어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레위기 10:11; 신명기 6:7; 모사이야서 4:14 참조)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인간을 구속하고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분명 무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니파이후서 2:26 참조] 부모는 자신의 삶을 헌납하는 방법, 곧 시간과 재능과 십일조와 재산을 사용하여[모사이야서 4:21~26; 18:27; 앨마서 1:27 참조] 교회와 하나님 왕국을 이 지상에 세우는 길을 모범으로 가르쳐야 합니다.[조성, 마태복음 6:38 참조] 그런 방식에 따른 생활은 문자 그대로 그들의 후손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리아호나, 2002년 1월호, 82쪽)

모사이야서 4:16~25.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 베냐민 왕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자이며, 자비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보여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이와 유사하게,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우리에게 연민 어린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욱 자비로운 사람이 됩시다. 우리 생활에서 교만과 자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립시다. 더욱 온정 있고 친절하며 자제하고 인내하고 서로를 존중합시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모범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더욱 자비로워질 것이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자비를 더 많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저 보라, 우리는 모두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
[모사이야서 4:19]

베냐민 왕이 한 이 말에 부연하자면, 그리스도의 권능은 확실하고 그분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분은 동정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7)

저는 우리 각자가 질병이나 쇠약, 가난이나 곤궁, 다른 인간이나 자연에서 가해지는 어려움 때문에 자비를 구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비를 얻을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0년 7월호, 80쪽)

모사이야서 4:27. “사람이 그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달음질함이 요구되지 아니함이라”

•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우리가 받은 시간과 힘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기에게 있는 능력보다 더 빨리 달리는 일은 효율적이지 못하며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

저는 삶에 내재된 진실 한 가지를 상기하기 위해 앤 머로우 린드버그의 현명하고 훌륭한 말을 사무실 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모든 사람의 요구를 이행할 수는 없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훌륭한 권고입니다. 의무를 피해 가려는 변명이 아닌, 걸음 속도를 조절하고 질적으로 훌륭한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현명한 견해입니다.”(Deposition of a Disciple [1976], 58)

모사이야서 4:30

우리는 **멸망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살피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모사이야서 5:2. “우리 안에 …… 큰 변화”

•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단 영으로부터 증거를 얻으면 연구하고 기도하며, 복음대로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간증은 강해집니다. 간증이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복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신앙도 커집니다. 회개하고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강한 마음의 변화와 함께 개종으로 이어집니다. 개종한 후에는 거룩한 용서, 치유, 기쁨을 느끼며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려는 소망이 생깁니다.”(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30쪽)

모사이야서 5:7~8.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길

•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여길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그리스도를 우리 아버지시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생명체가 부활하도록 영과 육신을

결합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구주께서 우리 하나님이요, 아버지시며, 또한 모든 권세를 받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할 때,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분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하셨으며, 따라서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더 나아가, 그분께서는 부활을 통해 영적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

……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낳으셨고 사망에서 구원하셨으며 영과 육신을 결합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아버지가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를 아버지가 아니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The Fatherhood of Christ” [unpublished address to seminary and institute of religion personnel, Brigham Young University, July 17, 1962], 5~6)

모사이야서 15:1~7 해설(152쪽) 참조.

모사이야서 5:8~10. 그분의 이름을 받들라

•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나 그분 교회에 속하여 그분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때, 혹은 주님의 왕국 사업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더욱 성숙한 회원들이라도 성찬을 취할 때 반드시 이해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더욱 깊고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취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교성 20:77 참조)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유일한 증인은 우리 자신이며, 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 실제로 그 성스러운 이름을 받들기에 앞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든다 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기꺼이 받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성스러운

성전 의식에 참여하고, 구주의 이름과 권세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가장 큰 축복을 받기 위해 기꺼이 받드는 마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며, 그분의 오른편에 서는 자로 선택받게 될 사람으로 해아림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스러운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쁘게 받들음을 증거하는 것은 해의 왕국에서 승영에 이를 자격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승영은 영생, 즉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교성 14:7)입니다.”(성도의 벗, 1985년 7월호, 88~91쪽)

모사이야서 5:12. “음성[을] …… 알기를 바라노라”

• 주님의 음성을 인식하고 따르는 법을 배우는 일은 영적으로 진보하는 데 지극히 중요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생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알기를 바라신다고 가르쳤다. “제가 맡은 임무가 모두 끝날 때, 제가 전한 말씀 중에 주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실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실 일은 제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에 따랐느냐 하는 것입니다.”(“Respond to the Prompting of the Spirit” [an evening with Elder M. Russell Ballard, Jan. 8, 1988], 4, www.ldscs.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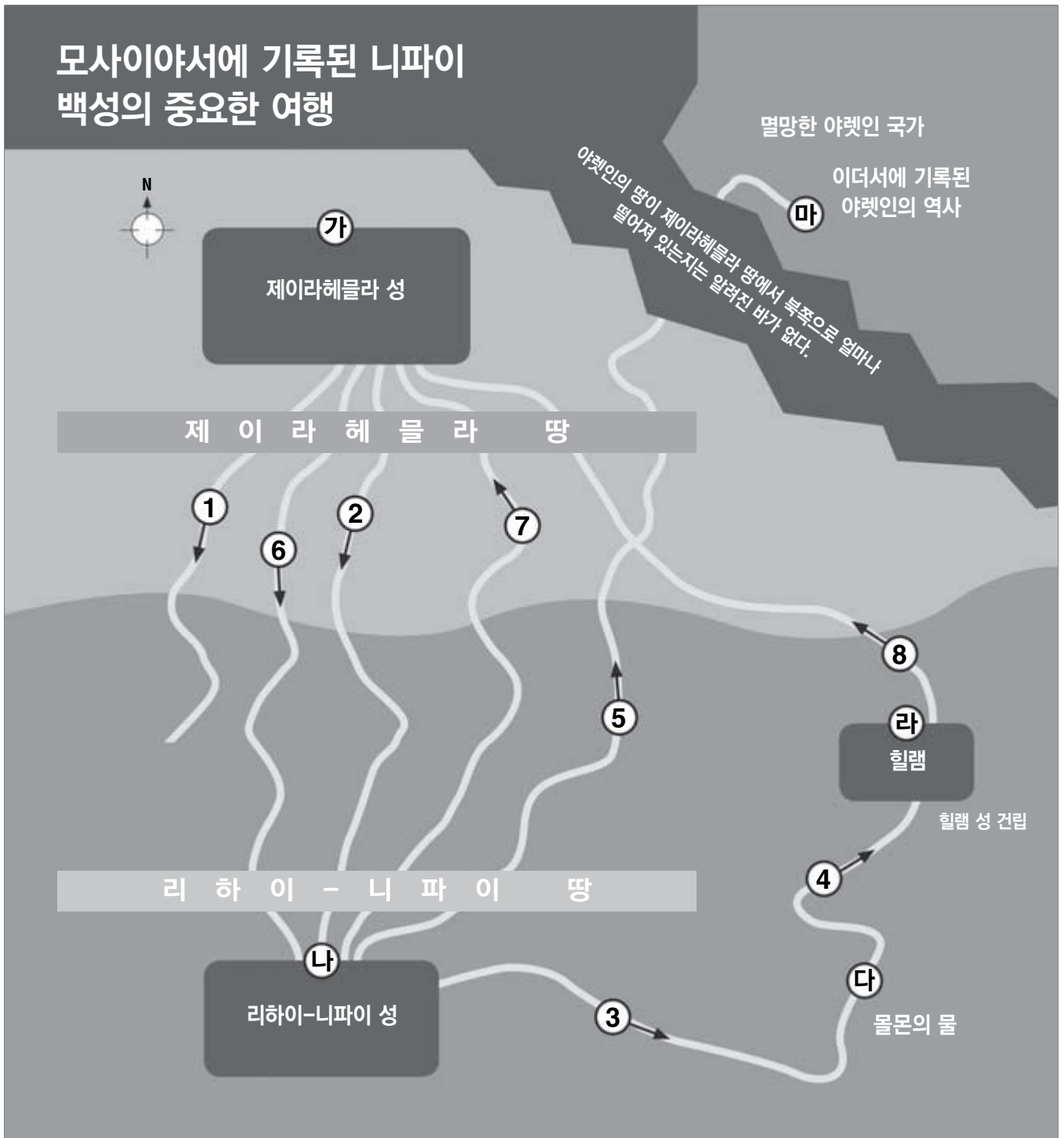
모사이야서 5:7~12

하나님의 우편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사이야서 6:4~7. 모사이야 왕

• 베냐민 왕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라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 따라서 베냐민 왕의 아버지가 모사이야 일세이며, 베냐민 왕의 아들이 모사이야 이세라고 볼 수 있다. 모사이야 일세는 바로 니파이 백성의 간악함 때문에 주님의 명을 받아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니파이 땅을 떠나 광야로 들어간 사람이다.(오나이사서 1:12 참조) 하지만 모사이야서는 기록 작성자인 모사이야 이세를 따라 이름지어졌다.

모사이야서에 기록된 니파이 백성의 중요한 여행



지도에 대한 실마리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패로 끝난 여행. 옴나이서 1장 27~28절; 모사이야서 9장 1~2절을 읽는다. 2. 지니프의 여행. 옴나이서 1장 29절; 모사이야서 7장 9절; 9장 3~7절을 읽는다. 3. 엘마가 도망하여 물몬의 물에 이름. 모사이야서 18장 1~7절, 30~33절을 읽는다. 4. 엘마의 백성들이 힐렘 땅으로 도망해 들어감. 모사이야서 23장 1~5, 19절을 읽는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43명이 제이라헤물라를 찾아 떠남. 모사이야서 8장 8~9절; 21장 25~27절을 읽는다. 6. 암몬이 지니프의 무리를 찾아 떠남. 모사이야서 7장 2~3절을 읽는다. 7. 림하이가가 도망하여 제이라헤물라에 도착함. 모사이야서 22장 3~13절을 읽는다. 8. 엘마가 도망하여 제이라헤물라에 도착함. 모사이야서 24장을 읽는다. |
|---|--|

모사이야서 7:1~14; 8:7~21. 니파이 백성의 여행

• 모사이야 7~8장의 역사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옴나이서 1장 27~30절과 모사이야서 7~8장 소개 부분에 기록된 사건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는 제이라헤물라 땅 백성의 지도자들(모사이야 일세, 베냐민 왕, 모사이야 이세)과 리하이-니파이 땅의 왕들(지니프, 노아, 림하이)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다. 또한 제이라헤물라 성과 지니프가 다스리던 리하이-니파이 땅 사이를 여행한 여러 무리도 언급되어 있다. 이들의 여행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수록된 지도를 공부한다.

모사이야서 8:13. 해석기

•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물문경에 나오는 “해석기”에 대한 역사적 개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모사이야 왕은 ‘활 모양의 두 테에 박힌 돌 두 개’[모사이야서 28:13]가 있었는데, 그는 니파이인들이 ‘해석기’라 부른 이 두 돌을 사용하여 야렛인의 기록을 번역했습니다.[모사이야서 28:11~14] 이 돌들은 언어를 해석할 목적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모사이야 왕이 우림과 둠뎀이라고 불리는 이 ‘돌 두 개’를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으며 다만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사’[모사이야서 21:28]라고만 나옵니다. 림하이 백성이 이더의 기록을 발견하기 전에 모사이야는 우림과 둠뎀이라고 불리는 이 ‘은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사이야는 어떤 문자가 새겨진 ‘큰 돌’을 하나 얻게 되어 그 새긴 것을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해석했을 때(옴나이서 1:20~21) 이 해석기를 이미 받아서 갖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야렛의 형제가 주님께 이것을 받았던 것처럼 이 돌들은 모사이야에게, 혹은 모사이야 시대 이전에 살았던 다른 선지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주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야렛의 형제가 받은 돌 두 개, 곧 우림과 둠뎀을 모사이야 왕이 가지고 있었음은 물문경에 나오는 다음의 말에서 분명하게 증명됩니다.

야렛의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가 본 시현의 기록을 인봉하여 백성들이 읽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시현은 그리스도 부활 이후까지 세상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힘든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림과 둠뎀도 함께 인봉되어 주께서 인간에게 그 거룩한 기록을 번역하도록 허락하실 때까지 이를 사용하여

번역하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그 기록들이 다시 주어질 때, 그 동일한 우림과 둠뎀으로 번역될 것입니다.[이더서 3:21~28] ……

조셉 스미스는 ‘가슴판’과 물문경 판과 우림과 둠뎀을 받았습니다. 이는 야렛의 형제가 받은 그 우림과 둠뎀이며, 후기에 나와서 고대 기록이 번역될 수 있도록 모로나이가 감춰 둔 것이었습니다.”[교성 17:1] (*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1966], 1:160~162)

모사이야서 8:15. “선견자는 선지자보다 더 크다”

• 하워드 더블류 헌터(1907~1995) 회장은 선견자가 맡는



앨런 기턴스 © 1959 IRI

독특한 임무를 소개하고 선견자가 보통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를 설명했다. “선견자는 보는 사람입니다. 육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영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을 내다보는 은사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ed.

Clyde J. Williams [1997], 224)

• 십이사도 정원회의 존 에이 윗소(1872~1952) 장로는 선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선견자는] 다른 사람에게는 모호해 보이는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진리를 해석하고 명확히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선견자는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까지 내다봅니다. 자신에게 직접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우림과 둠뎀과 같은 신성한 도구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합니다. 간단히 말해 선견자는 보는 사람이자, 열린 눈으로 주님의 빛 안에서 걷는 사람입니다.”(*Evidences and Reconciliations*, arr. G. Homer Durham [1960], 258)

모사이야서 8:13~18
선견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점

- “죄 사함을 ……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사이야서 4:12; 또한 9~30절 聖經 참조)
-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모사이야서 5:7; 또한 모사이야서 27:24~27; 이터서 3:14 참조)

제언 과제

- 모사이야서 4장 5~13절을 주의 깊게 읽고 베냐민 왕이 설교에서 밝힌 하나님의 속성 몇 가지를 찾아본다.
- 모사이야서 4장 12~16절에는 복음 생활의 몇 가지 양상이 제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두 가지를 골라 그것을 더욱 온전히 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소개

모사이야서 9~24장에는 지니프가 제이라헤틀라 땅에서 리하이-니파이 땅으로 이끌어 간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기록은 주전 200년 경부터 그들이 제이라헤틀라 땅으로 다시 돌아온 주전 121년 경까지 약 80년에 걸친 역사를 다룬다. 이것은 제이라헤틀라 땅에서 모사이야 일세와 베냐민, 모사이야 이세가 왕으로 통치하던 시기와 거의 일치하며, 당시 리하이-니파이 땅에서는 지니프, 노아, 립하이가 통치했다.

노아 왕 통치 시기에 선지자 아빈아다이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하나님께 등을 돌린 백성들에게 곧 다가올 멸망에 관해서도 예언했다. 아빈아다이는 구주의 신성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되심, 속죄를 이루는 과정에서 구주께서 치르실 위대한 희생에 대해 가르쳤다. 아빈아다이의 예언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구주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금 느끼고 속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아빈아다이의 순교에서 그의 위대한 용기를 볼 수 있다. 아빈아다이는 자신이 한 간증 때문에 목숨을 잃지만 그 간증을 들은 엘마는 개종했다. 아빈아다이의 성역에 관한 기사를 상고하면서 의로운 한 사람이 미래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아빈아다이의 말을 듣고 개종한 한 사람인 엘마를 통해 다음 몇 세대를 이끌 선지자들이 나왔으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를 대비해 백성들을 준비시켰다. 아빈아다이처럼 여러분도 진리에 대해 간증하고 의롭게 생활함으로써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설

모사이야서 9장 앞에 삽입된 소개

- 모사이야서 9장 요약 부분 앞에 삽입된 소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받은 원본 기록에 실려 있었다.(11쪽에 나오는 니파이전서: 니파이의 다스림과 성역 해설 참조) “제9장에서 제22장까지 수록되어 있음”이라는 말은 1879년에 몰몬경이 장과 절 형식으로 출판될 당시 추가된 부분이다.

모사이야서 9장. 지니프의 기록

- 모사이야서 9장 1~4절과 옴나이서 1장 27~29절은 지니프가 리하이-니파이 땅을 되찾기 위해 떠난 첫 번째 여행에 관한 기사다. 모사이야서 9장 1~2절을 보면 왜 이 첫 번째 무리가 분쟁을 겪고 제이라헤틀라 땅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다. 지니프는 전쟁을 기뻐하지 않았으며 오직 레이맨인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고자 했다. 모사이야서 9~10장은 몰몬이 요약하거나 덧붙인 말 없이 순전히 지니프가 기록한 내용이다. 모사이야서 8장이 다루는 시기가 주전 121년이라는 데 주목한다. 모사이야서 9장이 다루는 시기는 주전 200년이다. 베냐민과 모사이야가 제이라헤틀라를 통치하던 시기에 리하이-니파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기 위해 80년을 거슬러 올라가 기록했다.

모사이야서 9:16~18; 10:10~11, 19. “주의 힘을 입고”

- 지니프는 레이맨인과 치르는 전투에서 백성들이 “주의 힘을 입고” 싸웠다고 기록했다.(모사이야서 9:16~18; 10:10~11, 19 참조) 지니프가 이끄는 무리가 숫자로도 크게 우세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이 싸움에서 비교적 적은 희생자를 내고 레이맨인 침략자를 물리쳤다. 이 승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충실했기 때문에 받은 보상이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께서 축복하사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일은 그분의 친절하신 자비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우리는 몰몬경 전체를 통해 볼 수 있다. 제이라헤틀라에 있던 베냐민 왕의 백성은 “주의 힘을 입고”(몰몬의 말씀 1:14) 싸웠기 때문에 레이맨인과 싸워 이길 수 있었다.

엘마서에서 니파이인 군대가 승리한 원인은 병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다는 믿음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엘마서 2:27~31; 43:49~51; 56:56 참조) 비록 우리가 하는 싸움은 실제 전투가 아닐 수 있으나 “주의 힘을 입고”라는 표현에서 우리도 대적을 이길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모사이야서 9~22장. 지니프와 그 백성의 역사

- 모사이야서에는 부분적으로 서로 다른 줄거리와 과거 사건에 대한 서술이 포함되어 있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412쪽, 부록에 나오는 “옴나이서부터 모사이야서에까지 포함된 사건에 대한 서술” 도표 참고) 모사이야서 9~22장에 담긴 역사는 약 80년을 거슬러 올라가 지니프와 그를 따른 적은 무리가 제이라헤틀라 땅을 떠나 니파이 땅으로 돌아간 시기를 다룬다. 이 기록에는 지니프, 노아, 립하이 왕 시대의 역사가 실려 있다. 이 과거에 대한 서술 이후에 지니프 무리가 제이라헤틀라 백성과 합류하는 시점을 다룬 모사이야서 25장에서 다시 몰몬경 역사 원래 흐름으로 돌아온다.

모사이야서 10:11~17. 그릇된 전통

- 레이맨인은 예루살렘에서 나온 조상의 여행에 관해 왜곡된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거짓 전통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졌고, 결국 레이맨인 가운데 니파이인에 대한 심한 편견 또는 “영원한 증오”가 생겨났다.(모사이야서 10:17) 후기에 받은 계시에서 주님께서서는 사탄이 거짓 전통을 이용해 “빛과 진리를 빼앗아” 간다고 경고하셨다.(교성 93:39; 또한 교성 123:7~8 참조) 이 거짓 전통 때문에 레이맨인은 니파이인을 살해하고, 약탈하고, 멸하거나 노예로 만들려는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여겼다.(모사이야서 10:17 참조)

-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가족 전통이나 문화 전통이 하나님의 계획 또는 표준과 상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쳤다. 스코트 장로는 우리 생활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어떤 전통이 주님의 가르침과 다른지 판단해 보라고 권고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한 혈통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로부터 여러분이 인종, 문화, 전통이라는 유산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혈통 때문에 귀중한 유산과 큰 기쁨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러한 유산 가운데 혹시 주님의 행복의 계획과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전통이 주님의 가르침과 상충하기 때문에 버려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저의 잘못된 전통 가운데 일부를 극복하려 노력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 관습과 전통은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 중 하나입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경전과 선지자들의 권고를 연구함으로써 주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깨달으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의 삶에서 각 부분을 평가해 보고, 필요하면 변경을 하십시오. 주님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뿌리 깊은 신념이나 전통을 멀리한, 여러분이 존경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

여러분의 문화권에서는 남편이 절대적이고 가부장적인 역할을 하면서 가족을 위한 모든 중요한 결정을 [독단으로] 내립니까? 그러한 삶의 양식은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내와

남편이 서로 동등한 동반자로서 둘이 하나가 되어 자신과 가족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전통은 버려야 할 유산이라 하겠습니까.

지혜의 말씀을 어기는 일.

사람들이 복종하도록 권력으로 강압하는 일. 여기서 권력이란 때때로 세습으로 부여되는 권위에 따른 힘을 말한다.

계급제도 제정을 장려하는 일.

다른 문화와 충돌을 조장하는 일.”(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86쪽)

모사이야서 11:2~19, 27. “자기 마음의 욕망을 좇아” 행한 노아 왕

- 첩에 관해서는 114쪽에 나오는 야곱서 1장 15절 해설을 참조한다.

- 물문은 노아 왕의 간악함을 생생하게 묘사했다.(모사이야서 11:2~19, 27 참조) 나중에 모사이야는 왕정 체제를 폐지해야 하는 주된 이유를 말할 때 노아 왕을 예로 들었다. “간악한 왕 하나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하게 하며, 또한 그 폐망은 어찌 그리 큰지! 참으로 노아 왕을 …… 기억하라.”(모사이야서 29:17~18) 욕신의 욕망을 좇는 노아 왕의 극한 이기심은 현대 독자들에게 그러한 사람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경고가 된다.

모사이야서 11:20. 선지자 아빈아다이

-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아빈아다이가 보인 용기와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아빈아다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용기 있는 간증으로 사악한 노아 왕을 격노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 위대한 선교사는 자신의 간증과 신앙 때문에 희생되었지만,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던] 한 사람은 그 순수한 간증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아 왕의 제사 중 하나였던 엘마는 ‘자기의 죄를] ……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후에] 백성들 가운데로 은밀히 다니면서, 아빈아다이의 말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모사이야서 18:1) 엘마라는 한 영혼이 구주에 대한 아빈아다이의 강력한 간증을 믿었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종했습니다.”(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41쪽)



• 크리 엘 코포드 장로는 칠십인으로 봉사할 때, 아빈아다이의 영향력과 모범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빈아다이의 어떤 점이 그토록 특별합니까? 그것은 아마 그의 전적인 순종, 즉 목숨을 빼앗기리라는 사실을 알았을텐데도 그들 가운데 홀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빈아다이에 대해 아는 얼마 안 되는 지식이며, 이는 바로 삶에 닥친 역경에 당당히 맞서는 그의 ‘정면 승부’ 방식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아빈아다이는 특별했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토록 오래 전에 살았음에도 그의 삶은 정신을 자극하며 가슴을 뛰게 하는 힘을 발휘합니다.”(“Abinadi,” *Heroes from the Book of Mormon* [1995], 69~70) 우리는 아빈아다이가 그 사회 외부에서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에서 나아온 사람이었음을 안다. 그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곧 속박되고 멸망하리라고 경고하기 위해 부름 받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모사이야서 11:21; 12:1~2, 8. 아빈아다이의 경고

• 노아 왕의 백성들이 아빈아다이가 외친 첫 번째 경고(모사이야서 11:21 참조)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아빈아다이는 2년 후에 다시 돌아와 더욱 심각하게 경고했다. 그들이 속박당할 것이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리라는 경고였다.(모사이야서 12:1~2, 8 참조) 그런 일은 우리 삶에서도 종종 일어난다. 순종하지 않거나 선지자를 따르는 일을 미룬다면 우리에게는 더욱 심각한 결과가 찾아올 것이다.

모사이야서 12:15~24.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 자”

• 노아 왕의 사악한 제사들 중 하나가 아빈아다이에 이렇게 도전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선한 일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 자의 발이 산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모사이야서 12:20~21) 이 질문에 대해 아빈아다이가 한 대답은 참으로 완벽했다. 모사이야서 12~15장을 읽을 때 그 부분에 주목해 본다.



모사이야서 12:25, 27
 제사들은 왜 경전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모사이야서 12:34~36; 13:11~26. 십계명

•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어느 세대에서나 십계명(출애굽기 20:3~17 참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선언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 앞으로 올 모든 세대의 행복과 안녕, 구원과 안전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돌판에 새겨 주신 율법입니다.”(성도의 빛, 1992년 1월호, 59쪽)

모사이야서 13:28. “구원이 율법만으로는 오지 아니하나니”

• 십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우리가 의롭게 생활하고 있을 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증했다. “남성과 여성에게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점은 의심할 나위도 없으며, 이들은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순종하고 선행을 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개인이 지은 죄의 결과나 사망으로부터 구원 받지 못합니다. 이 사실은 물문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문경에서는 ‘구원이

율법만으로는 오지 아니하니(모사이야서 13:28)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단지 계명을 지킨다고만 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니(니파이후서 2:5)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해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라도 ‘무익한 중’(모사이야서 2:21)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Another Testament of Jesus Christ,” *Ensign*, Mar. 1994, 67)

모사이야서 13:34. “하나님이 친히 …… 내려오사”

• **하나님**이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경배하는 그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입니다. 구약 시대 성도들은 그분을 여호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탈매지(1862~1933)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하시는 역할을 경전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지요, 곧 아담과 에녹, 노아에 이르기까지 대홍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축복사와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라 지칭되는 무리의 하나님, 히브리 민족이 멸망한 이후에는 에브라임과 유다의 하나님, 모세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에게 친히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셨고,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 니파이 백성의 하나님이셨으며,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경전의 권세에 힘입어 주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이자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단언합니다.”(*Jesus the Christ*, 3rd ed. [1916], 32)

모사이야서 13:27~35. 모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모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가르쳤다. “오늘날 독자들은 고대에서나 현대에서도 모세 율법을 단순히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목이 뺏겨진 백성이 맹목적으로(때로는 투쟁하듯) 따라야 할 지루한 종교 의식이라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이 역사적 성약은 …… 영성을 키우기 위한 지침이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

…… 모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추가된 것이며 이로부터 존재하던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율법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별개이거나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 결코 아니며, 그에 반대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 모세 율법의 목적은 그보다 더 높은 율법의 목적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두 율법은 모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1997], 136~137, 147)



모사이야서 14:2~5
구주에 대해 어떤 점을 알게 되는가?

모사이야서 14:1~12.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

• 속죄의 중요성을 강하게 가르치기 위해 아빈아다이는 이사야 기록을 인용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구주의 역할에 대해 증거하는 이사야 53장(모사이야서 14장)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속죄 희생에 관한 가장 숭고하고 가장 길며 가장 시적인 선언은 확실히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빈아다이는 물문경에서 사슬에 묶여 노아 왕 앞에 선 채 그 전체 내용을 인용했습니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89)

모사이야서 14:5.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 속죄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통과 그 치유 능력에 관하여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온 인류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사랑의 은혜로 평안과 위안을 받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은사입니까. ……

…… 그분의 생애가 깨끗하고 죄에서도 자유로웠지만, 그분은 여러분과 저와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최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정신적, 정서적, 영적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모든 땀구멍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누가복음 22:44; 교성 19:18 참조)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통해] ……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의 속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축복 중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가 함께 거하기에 합당하게 되거나 준비되지 못할 것입니다.(리아호나, 2004년 5월호, 84~85쪽)

모사이야서 15:1~7.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이자 아들이 되시는 이유

- 때때로 경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 불리는 경우가 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아들이 되시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동시에 아버지이면서 아들이 되십니까? 이것은 사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 즉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그분의 가족에 입양됩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또는 지도자가 됩니다. ……

이 교리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교리가 아들이시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아들이신 하나님을 의로운 이들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분을 ‘아버지’라 여기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여 영생의 상속자가 된 이들과 그분의 관계 때문입니다. 또한 신회 세 번째 구성원으로, 성신이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하나님의 신성에 관해 참됨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구체적인 사명을 띠십니다.”(“Building Bridges of Understanding,” *Ensign*, June 1998, 66~67)

- 1916년 6월 30일,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 이하 교회 지도자들은 “The Father and the Son: A Doctrinal Exposition by the First Presidency and the Quorum of

the Twelve Apostles(아버지와 아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전하는 교리적 해설)”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발표했다. 이 해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면서 때로는 “아버지” 되심이 경전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한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아버지’이십니다. ……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경전 구절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조직하신 분이시며, 조물주이자 창조주이시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든 상관없이, 그와 같은 의미에서 엘로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여호와를 ‘아버지’시요 ‘하늘과 땅의 영원하신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이더서 4:7; 엘마서 11:38~39; 모사이야서 15:4; 16:15 참조] ……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여기는 [또 다른] 의미는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여 영생을 상속 받을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현 경론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충실한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아이들아, 이는 너희가 나의 것임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며, 너희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있음이니라.’(교성 50:41) ……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으므로 ‘아버지’이십니다. …… 예수께서는 아들로서 권능과 권세로 아버지 엘로힘을 대표하셨으며,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 따라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부여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그 권능과 권세와 신성이 있었기에 그분의 말씀과 행동이 곧 아버지의 말씀과 행동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The Father and The Son,” *Ensign*, Apr. 2002, 14~15, 17)

모사이야서 15:10~13. 그리스도의 씨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이 되는지를 설명했다. “물론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성구를 통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과 회개로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복음 율법과 의식에 일치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 주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및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이 되어

그분 왕국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곧 마지막 날에 그분의 이름으로 불릴 것입니다.”(성도의 빛, 1985년 7월호, 90쪽)

-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는 감리 감독으로 봉사할 때 예수께서 그분의 씨를 어떻게 보셨는지를 설명했다. “신화 일원인 구주께서는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잘 아십니다. 이사야와 선지자 아빈아다이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이사야 53:10; 모사이야서 15:10 비교)라고 말했습니다. 아빈아다이는 ‘그의 씨’는 곧 의로운 사람들이며, 선지자들을 따르는 이들이라고 말합니다.(모사이야서 15:11 참조) 예수님은 겐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서 우리 각자를 보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강화하는 방법을 아시기 위해 우리가 느끼는 가장 깊은 감정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14쪽)

모사이야서 15:13~20.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 이사야의 예언을 설명하면서 아빈아다이는 평화를 공포하는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에게 내려진, 그리고 앞으로 내려질 위대한 축복을 노래했으며(모사이야서 15:15~17 참조) “화평을 세우신 이”이신 구주를 찬양했다.(모사이야서 15:18 참조) 그 평화의 메시지는 구속주께서 오실 것이며, 참으로

그분의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러 오셨고, 죽은 자에게 부활을 가져오셨다는 소식이다.(모사이야서 15:18, 2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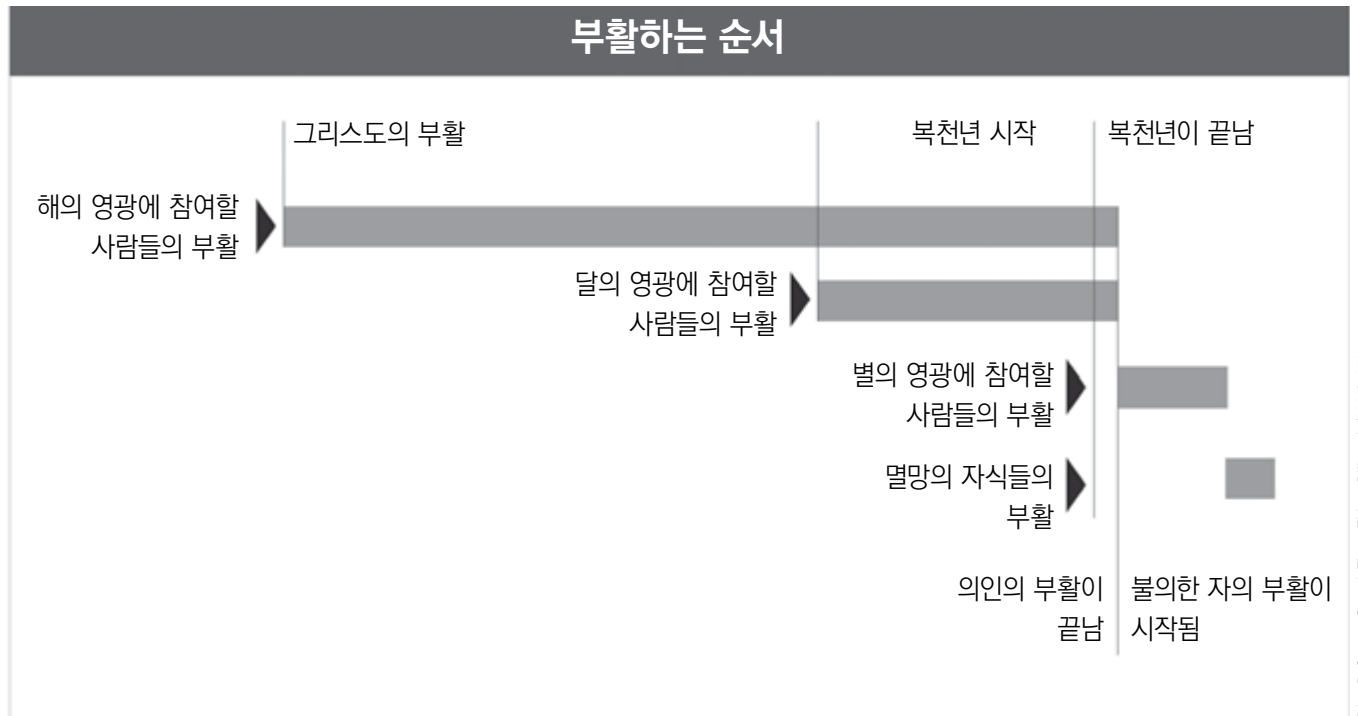
- 카를로스 이 에이시(1926~1999) 장로는 칠십인으로 봉사할 때 이사야가 말한 이 비유에 대한 통찰을 나누었다.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의 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축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수고입니다! ……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발, 목소리, 얼굴,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는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특히 자신의 죄로 고통을 받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전하러 먼 거리를 걸은 선교사들에게 어떤 결점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와 구원을 이루는 그분의 권능을 알게 된 사람의 눈에는 그런 것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The Seven M's of Missionary Service* [1996], 135~136)

모사이야서 15:20~31. 첫째 부활

-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최초로 부활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경전에 언급된 첫째 부활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승리하여 일어나실 때 시작되어 복천년 때까지 계속된다. 아빈아다이는 첫째 부활에 나아올 사람들로 “선지자들[과] …… 그들의



Brian D. Garner, *Search These Things Diligently* (2003), 151.

말을 믿은 모든 자들”(모사이야서 15:22)과 “구원이 그들에게 선포되지 아니하여”(모사이야서 15:24; 또한 교성 45:54 참조) 무지한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 책임질 수 있는 나이 이전에 죽은 어린아이들(모사이야서 15:25; 모로나이서 8:1~24 참조)이 포함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모사이야서 15:25. 어린아이들이 영생을 갖느니라

•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어린아이의 구원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다. “어린아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 그들은 그곳에서 해의 왕국에 예비된 그 빛과 영광과 예지의 충만함을 얻을 것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4:555-556)

모사이야서 17:6~20. 아빈아다이의 모범

•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용감하게 계명을 지킨 아빈아다이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빈아다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모범입니까! 그는 생명을 빼앗기면서도 주님의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모든 경륜의 시대 선지자들은 기꺼이 목숨을 바쳤으며,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교성 135:4) 갔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이행하는 동안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구주께서 보이신 모범을 생각해 보십시오. …… 주님은 …… 끝까지 견디셔서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시고, 온 인류를 위한 속죄 희생을 마치셨습니다.

…… 주 예수 그리스도와 과거 및 현재 선지자들이 보인 모범을 따릅시다. 많은 선지자와는 달리 우리에게는 순교해야 할 일이 없을지 모릅니다. 기껏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과 맺은 성약에 충실하는 일 뿐입니다.”(*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5쪽)

생각해 볼 점

- 주님의 계명이 “너희 마음에 기록되[게]”(모사이야서 13:11)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 구주께서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한가? 이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의 능력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주위를 둘러싼 악에 흔들리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언 과제

- 모사이야서 12장 34절에서 13장 24절까지 읽으면서 십계명을 찾아 하나하나 표시해 본다. 계명들 중 하나를 선택해 더욱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결심한다. 이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지 일지에 적는다.
- 모사이야서 14장을 읽고 모사이야서 3장 7~8절과 비교한다. 모사이야서 14장을 여러분의 말로 요약하여 한 장 분량으로 적거나, 구주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주제로 한 간증을 한 장 분량 정도 적는다.

소개

엘마를 따라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침례 성약을 받음으로써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동안 레이맨인에게서 속박을 받았다. 같은 시기에 림하이 백성은 계속 레이맨인에게 지배를 받으며 살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속박에서 풀려나려는 시도에 실패한 후 마침내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께 구조되었다. 엘마의 백성과 림하이의 백성은 모두 속박과 억압을 경험했으며, 또한 주님께 도움을 받아 자유롭게 풀려나는 축복을 경험했다. 주님께서 어떻게 고난 중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뻗어 필멸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본다. 두 사회가 처한 환경을 비교하고 대조해 보면 고난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들을 배울 수 있다.

해설

모사이야서 18:8. 침례를 통해 주님의 백성이 되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침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몇 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엘마는 그리스도와 성약을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엘마는 ‘주께서 [그들]에게 그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새로운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함으로서 신앙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

그분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서로의 짐을 저 가볍게 한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한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한다.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로 그분과 성약을 맺는다.

물몬의 물에서 엘마가 선포한 이 내용은 새로 침례받은 사람이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해야

하는지에 관해 그 어떤 기록보다 가장 온전히 명시한 경전 구절입니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1997], 106)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린(1917~2008) 장로는 침례 성약을 받아들이는 축복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저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새로운 개종자들, 평생 교회에 다닌 회원이든지를 막론하고 교회 회원들이 침례 성약에 따르는 축복과 힘을 온전히 이해할 때 삶에서 커다란 기쁨을 얻고 왕국에서 열정을 다해 자신이 맡은 의무를 수행하며 그 열정을 주변으로 번지게 하는 모습을 계속 목격했습니다.”(“Alma the Elder: A Role Model for



Today,” in *Heroes from the Book of Mormon* [1995], 84)

모사이야서 18:9. “어느 때에나 ……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우리가 맺은 침례 성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의롭게 생활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우리가 침례의 물에서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성약을 맺을 때, 그것은 단지 금식 간증 모임에서만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진리와 정의를 수호하는 일은 쉽거나, 형편에 맞거나, 정치적으로 용인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언제든지 말입니다.”(*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37쪽)

모사이야서 18:10. “너희가 …… 그와 성약을 맺었다”

-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보니 디 파킨 자매는 우리가 성약을 맺고 지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성약 또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간에 구속력 있는 약속은 우리의 영원한 진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심으로써 우리가 조금씩 그분처럼 되도록 가르칩니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처럼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겠다고 성약합니다. 더 나아가

성전에서 우리는 순종적이고, 이기심 없고, 충실하고, 영예롭고, 자비롭게 살겠다고 성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바치기로 성약합니다. 신권 권능을 통해 맺은 우리의 성약을 지키다면 우리의 잔이 축복으로 가득 차고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성약이 필멸의 삶을 넘어서는 힘을 발휘하여 여러분과 하나님이 서로 연결된다는 점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까? 성약을 맺는 것은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며, 성약을 지키는 것은 충실한 마음의 표현입니다.”(“거룩한 마음으로”,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103~104쪽)

모사이야서 18: 10. 그분의 영을 동반하는 일

-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성신이 함께할 때 우리 행동이 바뀌고 간증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성신은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방법에 따라 생활하도록 힘과 용기를 주며, 그것은 또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우리 간증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

그분의 왕국에 속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킵니다. 우리의 복장은 단정하고 생각은 순수하며 언어는 깨끗할 것입니다. 정신을 고양시키는 영화와 텔레비전을 보고, 음악을 들으며, 그런 책과 잡지, 신문을 읽을 것입니다. 영원한 목표를 향하도록 격려하는 친구를 택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할 것입니다. 부도덕, 도박, 담배, 술, 불법 마약을 금할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반영된 활동을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입니다.”(*리아호나*, 2001년 1월호, 8~9쪽)

모사이야서 18:12~18. 엘마에게는 신권이 있었다

-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엘마에게 침례를 베풀 권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노아 왕이 엘마와 그 동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전부터 이미 엘마에게 신권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했든, 그렇지 않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엘마에게 권세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사이야서에서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입니다.[모사이야서 18:13 참조]



엘마에게 침례를 베풀 권세가 있었다면 이는 그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엘마가 힐람과 함께 물에 잠겼다고 할 때, 이것은 엘마가 자신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겸손과 온전한 회개를 나타내고자 주님께 바친 행위였습니다.”(*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1966], 3:203)

모사이야서 18:21~29
 엘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29절)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는가?

모사이야서 18:21. “단합과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 마음이 함께 맺어지고”

- 주님께서는 현대에 주신 계시를 통해 이렇게 가르치셨다. “하나가 되라.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성 38:27)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우리가 사는 타락한 세상에 만연한 분열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단합을 이루게 되는지를 설명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 때문에 단합하며 생활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

…… 우리는 현세에서 단합을 경험하고 다음에 올 세상에서도 영원히 단합할 수 있도록 합당해야 합니다. ……

단합하고자 할 때 꼭 지켜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악의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66, 68쪽)

• 엘마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생활하겠다고 다시금 결심했을 때 단합과 사랑이 형성되었다. 시 맥스 콜드웰 장로는 칠십인으로 봉사할 때, 이처럼 더 큰 사랑을 품는 일은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자질이라고 설명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고 내어 주신 그분의 삶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으며, 그것은 그러한 삶이 만들어내는 소산입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정하신 과정을 밟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자애)은 단순한 교훈이나 원리도 아니고 행동이나 태도를 묘사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자애)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개발하거나 경험해야 할 내면 상태입니다. 사랑(자애)이 우리 본성 중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실제로 사랑(자애)을 소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자애)을 지닌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 주는 사람입니다.”(성도의 빛, 1993년 1월호, 30쪽)

모사이야서 18:23. “안식일을 준수하며 이를 거룩히 지키라”

•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므로, 합당하고 거룩한 활동을 위해 예비해 두어야 한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 [2004], 117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톱 페리 장로는 안식일이 어떻게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며,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열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이날은 우리가 함께 정규 모임에 참석하고, 구주와 선지자들의 생애와 가르침을 공부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 밖에 일요일에 적절한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1) 개인 및 가족 일지 기록, (2) 가족 평의회 열기, (3) 직계 및 방계 가족을 위해 가족 계통을 세우고 유지하는 일, (4) 부모와 자녀 간에 하는 개인 점견, (5) 친척과 선교사에게 편지 쓰기, (6) 계보, (7) 친척 및 아프거나 외로운 사람 방문하기, (8) 선교 사업, (9) 자녀에게 이야기 읽어 주기, (10) 교회 찬송가

부르기.”[“Suggestions for Individual and Family Sabbath-Day Activities,” *Ensign*, Mar. 1980, 76]”(리아호나, 2003년 5월호, 42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크 이 피터슨(1900~1984) 장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태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가르쳤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우리 개종의 깊이를 나타내는 척도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곧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가늠하고, 셋째마네에서 겪으신 그분의 고통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에 대한 우리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정확한 척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우리 개종이 너무 얕아서 속죄 희생이 우리에게 거의 또는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징표입니다.”(*Ensign*, May 1975, 49)



모사이야서 18:28. “그들 스스로의 자유의사[로] 그들의 재물에서 나누어 주도록 하였더라”

• 제일회장단의 매리온 지 롬니(1897~1988) 회장은 주님의 사업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침으로써 자애를 키우라고 권고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진 것을] 나누면서도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는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지닐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충실하게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 생활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 주고, 가족을 돌보며, 교회 부름에서 봉사하고, 선교 사업을 하고,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고,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이외에도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하면서 자신을 잊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부드럽게 …… 해 주실 것입니다.”(성도의 빛, 1982년 4월호, 140~141쪽)

모사이야서 19~24장. 림하이의 백성과 엘마의 백성

• 아빈아다이는 처음 노아 왕의 사악한 백성에게 나아갔을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속박에 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모사이야서 11:21 참조) 주님께서 2년 후에 아빈아다이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명하셨을 때, 백성들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상태였다.(모사이야서 12:1 참조) 그 결과,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들 모두가 결국 속박을 당하게 되었다. 더욱이 아빈아다이가 두 번째로 그들에게 전했을 때, 노아 왕의 백성에게 전하는 주님의 경고는 훨씬 더 강력했다. 속박 외에도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리라는 경고였다. 기근과

역병을 겪을 것이며, 그럼에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면 멸망당할 것이다.(모사이야서 12:2~8 참조)

아빈아다이가 두 번째로 경고한 이후에 백성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났다. 엘마가 아빈아다이를 믿었고, 또한 많은 사람이 엘마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의롭게 되었다. 그러나 노아 왕과 그 아들 림하이가 다스리던 백성 대다수는 오랜 시간이 흐를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았다. 두 무리는 모두 주님의 첫 번째 경고를 듣고 회개하기를 거절했으므로 결국 속박되었지만 엘마의 무리는 자발적으로 회개했고, 림하이의 무리 또한 어쩔 수 없이 회개하게 되었다. 이 두 무리에게 각각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차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연대	림하이 백성	엘마 백성
아빈아다이의 두 번째 방문	노아의 백성들이 아빈아다이를 거절하고 죽였다.(모사이야서 17장) 간악함이 계속되었다.	엘마가 아빈아다이를 믿었다.(모사이야서 17:2~4) 엘마가 쫓겨 도망했다.
아빈아다이가 두 번째로 방문한 이후의 결과	노아와 림하이의 백성이 계속 사악하게 생활했다.(모사이야서 19:2~20) 백성들 가운데 분열이 생겼다.(2절) 다툼이 생겼다.(3절) 레이맨인들에게 공격받았다.(6~7절) 노아 왕이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다.(20절) 노아 왕의 백성이 레이맨인에게 속박당하여 소유에서 절반을 조공으로 바치게 되었다.(15절)	적은 무리가 엘마를 믿었다.(모사이야서 18:3~21) 그들이 엘마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이동했다.(4절) 회개하고 신앙을 가지라는 가르침을 들었다.(7절) 하나님과 성약을 맺었다.(8~11절) 자신들을 멸하려는 노아 왕의 군대를 피해 도망했다.(33~34절)
아빈아다이가 죽은 후 2년 동안 (모사이야서 19:29)	림하이 백성은 속박당했다.(모사이야서 19:22~20:22) 속박 당하여 소유에서 절반을 조공으로 바쳤다.(19:22) 레이맨인이 공격해 왔다.(20:7) 레이맨인들을 맞아 싸웠다.(20:8~11) 스스로 속박을 받아들였다.(20:22)	엘마 백성은 번영했다.(모사이야서 23:2~5) 주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셨다.(2절) 성읍을 건설했다.(5절)
처음 2년 이후 기간 (모사이야서 19:29)	속박 상태가 더욱 격심해졌다.(모사이야서 21:3~6절) 레이맨인들이 그들의 뺨을 치며 권세를 부렸다.(3절) 레이맨인들이 림하이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짐승처럼 부렸다.(3절) 고난을 겪으며 백성들이 불평했다.(6절) 림하이 백성이 스스로를 구하고자 세 번 전쟁을 일으키나 그때마다 패했다.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크게 애통해했다.(7~12절)	엘마 백성이 계속해서 화평 가운데 번영했다.(모사이야서 23:19~20) 의롭게 생활했다.(14~15절) 심히 번영했다.(19~20절)

연대	림하이 백성	엘마 백성
처음 2년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림하이 백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모사이야서 21:7~14, 25~26) 스스로 겸손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다.(13~14절) 속박과 학대에 스스로를 내맡겼다.(13절) 주님께 힘을 다해 부르짖었다.(14절) 도움을 청하기 위해 제이라헤물라로 사람들을 보냈다.(25~26절)	엘마 백성은 계속해서 화평 가운데 번영했다.
처음 2년 이후 계속해서	마침내 주님께서 그들을 레이맨인의 속박에서 건져 내셨다.(모사이야서 21:15~22:16) 주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기를 더디 하셨으나, 적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짐을 가볍게 하셨다.(21:15) 바로 건짐을 받지는 않았다.(21:15) 점차 땅에서 번영했다.(21:16) 이웃을 도왔다.(21:17)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성약을 맺었다.(21:31) 레이맨인 수비대에게 술을 바치자 그들이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22:7, 10) 탈출하다.(22:11)	엘마 백성은 계속해서 화평 가운데 번영했다.
약 주전 120~121년 (모사이야서 22장; 24장 소개)	림하이 백성이 제이라헤물라 땅에 도착했다.(모사이야서 22:13) 레이맨인 군대가 림하이 백성을 뒤쫓았다.(15~16절)	엘마 백성이 속박에 들었지만 주님께서 건져 주셨다.(모사이야서 23~24장) 림하이 백성을 뒤쫓던 레이맨인 군대가 힐렘 땅에서 엘마 백성을 발견했다.(모사이야서 23:25) 엘마 백성이 속박당하다.(모사이야서 24:8~10) 그들은 계속 충실했으며 인내로 견뎠다.(10~16절) 주님께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셨다.(14~15절) 주님께서 그들을 속박에서 건지시고 제이라헤물라 땅으로 인도하셨다.(20절)

• 림하이 백성은 레이맨인에게 속박당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주님을 기억했다. 엘마 백성은 아빈아다이의 두 번째 경고를 듣고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 회개했다. 그 결과, 림하이 무리가 겪은 고난은 더욱 격심했고 오래 지속되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엘마 이세는 이 두 무리가 경험한 서로 다른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원리를 설명했다. 어떤 이들은 “어찌할 수 없이 겸손하게 되[나니,] …… 이는 사람이 간혹 어찌할 수 없이 겸손하게 되면,

회개를 구함이요,”(엘마서 32:13) “어찌할 수 없어 겸손하게 됨이 없이 스스로 겸손하여진 자들은 복이 있도다.”(16절)

모사이야서 21:13~14. 겸손할 때 주님께 더욱 굳건히 의지하게 된다

• 림하이 백성은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한 세 번째 싸움에서 실패한 후, 마침내 겸손과 기도로 하나님께 돌이켜 그분께 도움을 구했다. 자신들이 겪은 고난 때문에 그들은

어찌할 수 없이 주님을 찾게 되었으며, 육신의 팔에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엘마서 32:13~16; 또한 니파이후서 4:34 참조)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우리가 겸손할 때 주님께 더욱 굳건히 의지하게 된다고 가르쳤다. “당연히, 겸손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겸손은 소심함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훌륭한 모범이었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더 높은 함에 의지해야 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369)

모시아야서 21:15~22

림하이 백성은 어떤 면에서 “점차로 그 땅에서 번영하기 시작”(16절)했는가? 이와 유사한 도움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모시아야서 21:15. “주께서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 림하이가 이끄는 무리 중 많은 이들이 스스로 고난을 자초했지만,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자신의 잘못으로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베푸신 자비가 어떠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과거에 있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 영혼의 원수가 지난 세월 동안 내게 세력을 떨치게 되었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 주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쁨 따름이다.”(*The Personal Writings of Joseph Smith*, comp. Dean C. Jessee [1984], 238; 표준화된 구두집, 맞춤법, 대문자 사용법에 맞게 수정)

모시아야서 23:21. “그는 그들의 인내와 신앙을 시험하시니라”

• 엘마를 따른 사람들이 회개하고 충실히 생활했지만 주님께서는 아빈아다이의 예언(모시아야서 12:1~5 참조)이 성취되도록 그들을 일시적으로 레이맨인의 억압 아래 두셨으며, 이는 그들의 인내와 신앙에 대한 시험이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율슨 에프 휘트니(1855~1931) 장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을

통해 가치 있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가르쳤다. “우리가 어떠한 고통을 당하거나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코 낭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르침을 얻고 인내와 신앙, 강인함과 겸손 등과 같은 자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고통 받는 모든 것과 견디어 내는 모든 것 덕분에, 특히 참을성 있게 그 모든 것을 견뎌 낼 때, 우리 인품이 도야되고, 마음이 순화되며, 우리 영혼이 발전하고, 더욱 큰 사랑을 품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기에 합당하게 됩니다. …… 우리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땀 흘려 일하며, 시련을 겪으면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얻어야 하는 가르침을 얻고, 그리하여 더욱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아갑니다.”(Spencer W. Kimball, *Faith Precedes the Miracle* [1972], 98)



제리 톰슨 © IRI

모시아야서 23~24장. 엘마 백성의 역사

• 모시아야서 23~24장에는 과거 장면 속에 다시 과거 사건이 서술되어 있다.(148쪽에 나오는 모시아야서 9~22장 해설 참조) 엘마가 노아 왕의 백성들에게 쫓겨 광야로 내몰렸을 때부터 제이라헤믈라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사가 기록에 추가되었다. 과거에 대한 이 짧은 서술은 약 20년이라는 기간을 다룬다. 독자들이 23~24장을 다 읽고 나면, 지니프의 백성과 엘마의 백성이 모두 모시아야 왕이 통치하는 제이라헤믈라로 되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412쪽 부록에 나오는 “옴나이서부터 모시아야서에까지 포함된 사건에 대한 서술” 도표 참조)

모시아야서 24:13~15. “그들이 주의 모든 뜻에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였더라”

•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한계와 약점을 취하여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이루는 데

유용하게 쓰이도록 강화하실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우리에게 인생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의지하라고 권고했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시련들은 경전의 교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 [눈을 가려서] 멀리 내다 볼 수 없게 되고, 힘을 잃고, 주님께서 우리가 지상에서 받도록 계획하신 기쁨과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의 바다에 던져진 바위와 같습니다. 그러면 물에 빠지고 맙니다. 물에 뜨는 코르크가 되십시오. 문제에 빠지게 될 때 문제를 극복하여 다시 행복하게 봉사하도록 이겨내야 합니다. ……”

주님은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한 발전은 여러분이 처음에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상관없이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성장 경험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도록 기꺼이 허용할 때 가속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마음과 정신을 기꺼이 주님의 뜻에 중심을 두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영의 인도를 간구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길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과 이 지상 생활을 통해 얻는 가장 만족할 만한 성취를 보장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행하도록 요구되는 모든 것에 의문을 품거나 유쾌하지 않은 모든 시련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려 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니파이전서 3:7참조] (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25쪽)

생각해 볼 점

- 모사이야서 18:8~10에 기록된 침례 성약을 다시 살펴본다. 여러분의 성약을 더욱 온전히 지키며 살기 위해 이번 주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 시련을 통해 강해졌는가?
- 엘마와 그를 따른 사람들의 모범은 여러분이 구주의 속죄와 권능을 신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제언 과제

- 모사이야서 18장 2절에 묘사된 구주의 속죄를 통해 우리가 얻는 구속의 각 측면을 설명하는 성구를 찾아본다. 우리가 얻는 구속의 여러 측면 가운데는 그분의 권능과 고통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포함된다. 여러분의 경전에서 모사이야서 18장 2절 옆 여백에 참조 성구를 써 두어도 좋다.
- 모사이야서 18장 8~10절에서 엘마가 묘사한 침례 성약에 대해 공부하고 개요를 만든다.
- “의에 관한 것으로”(모사이야서 23:18) 여러분을 양육해 온 교회 신권 지도자나 교사나 고문에게 전화, 방문, 또는 편지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간증을 전한다.

소개

“자라나는 세대” 중 많은 이들이 조상들의 간증을 거부하고 일부 교회 회원들을 선동하여 “많은 죄를 범하게” 했다.(모사이야서 26:1, 6 참조) 그래서 엘마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교회 회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기 위해 주님께 인도를 구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이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되기를”(모사이야서 27:14 참조) 기도했다. 이 두 가지 간구에 대한 응답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치 있는 교훈이 된다. 이를 통해 심각한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신권 지도자들은 반드시 훈계를 해야 하며 회개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을 배운다. 또한 엘마 이세와 모사이야의 네 아들 이야기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장을 공부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일이 어떻게 회개와 온전한 개종,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이어지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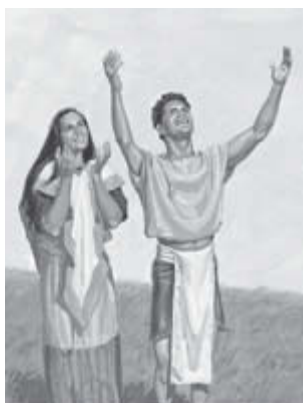
모사이야서 25~29장. 모사이야 이세

- 모사이야서에는 부분적으로 서로 다른 줄거리와 과거 사건에 대한 서술이 포함되어 있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부록(412쪽)에 나오는 “옴나이서부터 모사이야서에까지 포함된 사건에 대한 서술” 도표를 참고한다.

모사이야서 25:5~11. 경전의 힘

- 모사이야서 25장 5~11절에서 모사이야는 백성들에게 경전을 읽어 “주게” 했다. 다음에 열거된 성구에서 경전이 이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볼 수 있다.

1. “경이와 놀라움에 사로잡혔다.”(7절)
2. “심히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음이었요”(8절)
3. 수많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 “슬픔”을 느꼈다.(9절)
4. “하나님의 …… 선하심”을 깨달았다.(10절)
5.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필요를 느꼈다.(10절)



제리 볼스 © IRI

6.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고통과 고뇌로 가득[찼다.]”(11절)

모사이야서 26:1~4. 자라나는 세대

-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교회 청소년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소년기에 신앙을 키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임무는 교회에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 각 자녀는 신앙 또는 불신앙을 택합니다. 신앙은 유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배나민 왕의 말을 믿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자녀 중 많은 이들이 나중에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전에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을 부르려 하지 않았음이라.’(모사이야서 26:4)”(“Inquire of the Lord” [remarks at an evening with Elder Neal A. Maxwell, Feb. 2, 2001], 1, www.ldscs.org)

-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는 교회 청소년에게 말씀하는 자리에서, 자신보다 어린 친구들을 잘 이끌어 주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행하는 그 많은 일은 물론경에서 ‘자라나는 세대’(모사이야서 26:1; 엘마서 5:49)라 일컬은 여러분을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인생 행로를 먼저 걸어온 선배로서 우리가 이제껏 배워 온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북돋아주며 그 행로에 도사리는 유혹과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다면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걸으며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37쪽)

모사이야서 26:1~6

자라나는 세대와 관련하여 엘마가 부딪힌 어려움은 무엇이었는가?

모사이야서 26:8~12. 모사이야 왕은 왜 교회 회원들을 판단하기를 거절했는가?

- (왕이자 선지자로서) 모사이야 왕은 엘마에게 그 땅 곳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엘마는 불순종하는 교회 회원들을 모사이야에게 데려가 판단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왕은 엘마에게 신권 권세를

위임했으며, 교회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다룰 책임이 엘마에게 있다고 했다. 모사이야에게는 그 땅의 법을 어긴 사람들을 판단할 책임이 있었다.


모사이야서 26:20. “너로 영생을 갖게 하리라”

• 주님께서는 엘마가 “영생을 갖게”(모사이야서 26:20)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사람이 이 약속을 얻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여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받고 성신(안수례로)을 받은 후, 계속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한다면, 주님께서는 머지 않아 그 사람에게, 아들이 네가 높이 들리우리라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철저히 시험하시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겠다는 굳건한 결의를 보인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확인받게 될 것이며, 이것은 사도 요한의 간증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받는 특권이 될 것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3:380)

모사이야서 26:24~28. 주님을 안다는 것

•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위스틴(1917~2008) 장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우리는 매일 경전을 읽고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시련을 겪을 때는 필요하다면 매시간, 또는 그 이상 간절한 기도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주님을 알아 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요한1서 2:3~5)’(*Finding Peace in Our Lives* [1995], 74)

모사이야서 26:29~20. 죄를 고백하는 일

• 죄를 고백하는 일은 회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교성 58:43  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2004)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고백.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행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잠언 28:13) 용서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죄를 시인한다.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운 일과 잘못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한다.

순결의 법을 어기는 것과 같은 심각한 범법은 여러분의 회원 자격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러한 죄를 주님과 교회에서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고백해야 한다. 이것은 교회에서 파수꾼과 판사로 봉사하는 감독이나 지부 회장,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나 선교부 회장의 도움으로 행해질 수 있다. 죄에 대한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지만, 이 신권 지도자들은 회개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들은 여러분이 고백한 내용을 기밀 사항으로 다룰 것이며 회개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도울 것이다. 그들에게 완전히 정직해야 한다. 작은 잘못만을 언급하면서 일부만 회개할 경우, 여러분은 더 심각하고 알려지지 않은 범법을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빨리 따를수록, 용서의 기적과 함께 오는 평안과 기쁨 역시 빨리 찾게 될 것이다.” ([2004], 187~188쪽)



모사이야서 26:31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모사이야서 26:32~36. “그들의 이름은 지워졌더라”

• 모사이야서 26장 36절에 “지워졌더라”라는 말은 파문을 의미한다. 교회 회원이 심각한 죄를 범하면 주님의 종들은 회개를 돕기 위해 절차를 밟는다. 이 절차에 따라 공식 또는 비공식 교회 선도를 하기도 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교회 선도는 회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격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도는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중대하고 의미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런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되는 사회에서 선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

목자에게는 무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목자는 [죄인]이 성도와 함께 어울리지 못하게 해야 하며, 심지어 무리에게서 완전히 분리시켜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않거든 그로 내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지 않게 하여, 그로 내 백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지니, 보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들은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제3니파이 18:31; 또한 모사이야서 26:34~36 참조)(*The Lord’s Way* [1991], 216, 227)

•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은 반드시 교회 선도 조치를 받아야 하는 죄를 알려 주었다.

“교회 선도는 성적인 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 낙태, 강도, 절도, 사기, 그밖에 부정직한 행위, 교회 규정과 규칙에 고의로 불순종하는 행위, 복수 결혼을 옹호하거나 실행하는 행위, 배도, 혹은 주님의 율법과 교회의 반차에 역행하여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포함한 기타 여러 행위들도 해당됩니다.

교회 회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 교회는 이를 배도로 판단합니다. ‘(1) 교회나 교회 지도자에 대해 분명하고도 노골적이며 공공연한 반대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2) 교회 교리가 아닌 것을 감독이나 다른 관리 역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교회 교리로 가르치는 경우, (3) 배도 무리(복수 결혼을 주장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감독이나 다른 역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뒤에도 계속 따르는 경우’(*General Handbook of Instructions*, [1989], p. 10-3)(*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37~38쪽)

• 제일회장단은 1985년에 이름이 “지위[진]” 이들에게 돌아오라는 권유를 발표했다. 다음 발표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의무를 상기시킨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는 저활동 회원이나 교회에 대한 흠을 잡으려 하고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들, 또는 심각한 죄를 범해 회원 자격 정지나 파문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습니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들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교리와 성약 64:10)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교회 회원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쳤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기를 바랍니다. 활동을 중단하거나 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온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와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달콤하고 흡족한 우정의 열매를 다시금 맛보십시오.’

분명히 너무나 돌아오고 싶은 분들이 많지만, 어색하기에 주저하고 있다는 점을 압니다. 여러분은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맞아주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을 기꺼이 도와줄 손길도 만나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Ezra Taft Benson, Gordon B. Hinckley, and Thomas S. Monson, “An Invitation to Come Back,” *Church News*, Dec. 22, 1985, 3)

모사이야서 27:14.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 천사가 하는 역할 중 하나는 간악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것이다.(모로나이서 7:29, 31 참조) 천사가 엘마와 모사이야의 네 아들에게 온 것은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 종들의 기도가 그들의 신앙에 따라 응답되게 하려”(모사이야서 27:14) 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 천사의 영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며, 구하는 사람이 원하는 시점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윌포드 우드립(1807~1898) 회장은 천사의 방문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한 사람에게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저는 만일 그 은사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천 년 동안 기도한다 해도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야 할 이유가 없는 한 결코 천사의 방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이제까지 단지 천사를 보기 원하는 한 개인의 소망을 이뤄 주기 위해 천사를 보내신 적은 없으시며,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천사를 보내신다면, 천사의 영역이 아니면 결코 수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도록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창세 이래로 여러 시대에 걸쳐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때마다 어김없이 그 천사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거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는 수행할 수 없었을

임무를 행했습니다. 저는 여러 시대에 걸쳐 천사가 인간에게 나타났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물론 조셉 스미스를 방문한 천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계시자 요한은 마지막 시대에 한 천사가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할 영원한 복음을 들고 공중을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을 반드시 천사가 수행해야 했던 이유는 그 복음이 땅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신권은 인간 가운데서 거두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셔야 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항상 해 오던 말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신입니다. 천사가 직접 내려와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가르쳐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이 천사의 성역을 경험하는 일보다 성신이라는 은사를 받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The Administration of Angels,” in Brian H. Stuy, comp. *Collected Discourses*, 5 vols. [1987~1992], 5:233)

모사이야서 27:14

의로운 부모가 제멋대로 하는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모사이야서 27:22~23.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

•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주요한 임무 중 하나는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무리로 돌아오도록 돕는 일이다. 디어도어 엠 버튼(1907~1989) 장로는 칠십인으로 봉사할 때, 이 신성한 사명에 관하여 자신이 받은 느낌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저는 이러한 질문을 자주 받아 왔습니다. ‘이토록 곤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죄와 범법을 심리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죄와 범법을 조사하면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회개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잘못을 저지른, 일부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할 때 야기되는 가슴 아픈 일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회개하는 자녀이며, 또한 그렇게 하려고 힘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했으며 그 점에 대해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해와 사랑과 관용을 구하고 있습니다.”(성도의 벗, 1985년 1월호, 67~68쪽)

모사이야서 27:25. 거듭남

•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우리가 거듭나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고 노력할 때 상기해야 할 중요한 점을 말씀했다.

“더욱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과정에서 실망하거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은 평생 추구해야 할 과제이며 여기에는 거의 깨닫지 못할 만큼 느린 성장과 변화가 포함됩니다. 경전에는 삶이 순식간에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놀라운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마 이세,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 밤늦도록 기도하던 이노스, 라모나이 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예에서 죄에 깊이 빠진 사람들까지도 변화되는 것을 보면 속죄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효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놀라운 예에 관해 이야기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변화는 실제로 일어나며 강력한 힘을 일으키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그랬습니다. 바울이나 이노스, 라모나이 왕과 같은 상황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은 회개의 과정이 훨씬 더 미묘하고 깨닫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일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들은 조용히 선을 행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은 것 같으려니와 그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느니라.’(제3니파이 9:20)라고 설명된 레이맨인들과 같습니다.”(“마음의 큰 변화”, 성도의 벗, 1990년 3월호, 7쪽)

• 거듭남과 마음의 큰 변화를 경험하는 주제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모사이야서 5:2(143쪽 참조), 엘마서 5:12~14(177쪽 참조), 엘마서 36:17~21(233쪽 참조) 해설을 참고한다.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거듭난다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는 때로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 하는 점에서 논의가 시작됩니다. 성경과 몰몬경에는 ‘거듭남’에 대한 친숙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요한복음 3:3)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요한복음 3:5 참조) 몰몬경에는 ‘거듭[남]’ 또는 ‘하나님에게서 [남]’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모사이야서 27:25; 또한 24~26절; 엘마서 36:24, 26; 모세서 6:59 참조) 이러한 성구를 이해할 때, 우리가 거듭 났는가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확실히 ‘예’입니다. 물과 영으로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으로써 우리 구주와 성약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그 거듭남을 매주 안식일에 성찬을 취함으로써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후기 성도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임을 증언합니다.(모사이야서 5:7; 15:9~13; 27:25 참조)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을 때 받게 되는 예비된 축복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전히 자신이 맺은 성약을 지키고 끝까지 견뎌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영적 부자 관계와 영광스런 상속을 기대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60쪽)

모사이야서 27:28. 많은 환난 후에 축복이 온다

- 엘마 이세는 많은 환난을 헤쳐 나가야 했지만 회개가 가져온 최종 결과는 지극히 감미롭고 큰 기쁨이었다.(엘마서 36:21 참조) 다음 도표에서 엘마가 회개를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볼 수 있다.

이전	이후
“속되고 타락된”, 반드시 “버림받을” 상태(모사이야서 27:25~27; 엘마서 36:11)	하나님께 구속받아 “영으로 [난]” 상태(모사이야서 27:24~25; 엘마서 36:23)
“많은 환난을 헤쳐 지[남]”(모사이야서 27:28)	“영원히 타는 것에서” 구해짐(모사이야서 27:28)
“쓰디쓴 담즙과 최악의 결박” 상태(모사이야서 27:29)	“쓰디쓴 담즙과 최악의 결박에서 구속함을 받[음]”(모사이야서 27:29)

이전	이후
“깜깜한 암흑의 심연 가운데” 거함(모사이야서 27:29)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봄(모사이야서 27:29)
“영원한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함]”(모사이야서 27:29)	영혼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아니[함]”(모사이야서 27:29)
자신이 저지른 많은 죄의 “기억으로 고통을 당[함]”(엘마서 36:17)	더는 죄에 대한 기억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음]”(엘마서 36:19)
격심하고 쓰디쓴 고통을 느낌(엘마서 36:20~21)	훌륭하고 감미로운 기쁨을 느낌(엘마서 36:20~21)
하나님 면전에 나아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영혼이 공포를 느끼며 괴로움을 당함(엘마서 36:14~15)	영혼이 하나님 면전에 거하기를 사모함(엘마서 36:22)

몰몬경 복음 교리반 교사 교재(1999), 92쪽에서 발췌.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죄를 지으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하며 회개가 힘들지라도 회개의 열매는 항상 우리가 치르는 대가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회개가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임을 깨닫습니다. 엘마는 ‘많은 환난을 헤쳐 지나며’ 방황했고 ‘죽음 가까이’ 이르도록 회개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자신이 ‘영원히 타는 것’으로 고통받고, ‘깜깜한 암흑의 심연 가운데 있었다’고 말했으며 ‘내 영혼이 영원한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모사이야서 27:28~29) ……

끝이 없는 듯한 사흘 낮과 밤을 ‘저주받은 영혼의 고통으로’(엘마서 36:16) 괴로움을 당했으며, 그 고통은 너무 격심해서 자신이 궁극적으로 맞이할 운명에 대해 생각할 때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영혼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용서를 받고자 하는 일에 대해 심히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그 누구도 용서라는 은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용서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고의로, 또는 장난삼아 죄를 짓는 어리석은 행동은 어느 누구도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고통과 슬픔이 따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엘마 이세의 이야기를 읽지 않았으며 직접 회개하고자 시도해 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악을 멀리하지 못한 데 따른 고통의 쓴 맛을 경험합니다. 회개하는 동안 잠깐 겪는 고통에 불과하지만, 그 고통은 가장

쓴 잔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느 누구도 그 잔을 한 모금만 살짝 마시고 별다른 대가 없이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

우리는 완전한 회개를 하고 나면 거듭나고 예전의 자신을 영원히 버리게 된다는 점을 배웁니다. 회개에 관한 많은 가르침 중에 ‘못이 박힌 나무 기둥에서 못은 빼낼 수 있지만 그 기둥에 난 구멍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의도는 좋을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보다 더 잘못된 가르침은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못을 빼내는 일)가 매우 길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음을 압니다. 불행히도 어떤 이들에게는 그 힘든 과정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가 불가능한 죄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 또한 압니다. 하지만 회개가 가능한 죄를 [용서받고자] 필요한 일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완수한다면 ‘그 자리에 난 구멍’은 흔적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는 동일한 기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할 때 그 사람은] 새로운 기둥이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However Long and Hard the Road [1985], 83~84)

모사이야서 28:3~4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개심했을 때, 이 변화는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모사이야서 28:3. “모든 피조물에게 구원이 선포되기를”

- 하워드 더블류 헌터(1907~1995) 회장은 개인적으로 개종할 때 어떻게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소망이라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맺는지를 설명했다.

“모사이야의 네 아들인 암몬, 아론, 움너, 힌나이를 예로 들어 봅시다. 이들은 속죄를 통해 죄를 용서받은 후, 레이맨인 가운데로 나아가 그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오고자 수년에 걸쳐 일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영혼이라도 멸망할 것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모사이야서 28:3 참조) ……

개종의 깊이를 알 수 있는 훌륭한 척도는 바로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 회원에게 선교사가 될 의무를 주셨습니다.”(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ed. Clyde J. Williams [1997], 249)

-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오늘날 교회 회원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성공적인 회원 선교 사업의 열쇠는 신앙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나타내 보이는 한 가지 방법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낱자를 정하고 선교사와 만날 누군가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신앙을 행사한 회원들에게서 수백 통에 달하는 편지를 받았습시다. 비록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아무도 마음속에 떠올리지 못했더라도 그들은 낱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 더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그분의 양을 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일에서 그분의 신성한 도움을 구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리아호나, 2006년 5월호, 86쪽)



모사이야서 28:11~20. 야렛인의 기록과 선견자의 돌

-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모사이야가 야렛인의 기록을 번역하는 데 해석기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림하이 백성은 모사이야에게 ‘금속판에 새겨져 있[는]’[모사이야서 21:27] 기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모사이야는 ‘활 모양의 두 테에 박힌 돌 두 개를 사용해 이 기록을 번역했습니다. ……

조셉 스미스는 ‘가슴판’과 ‘몰문경 판과 우림과 둠뎀을 받았습시다. 이는 야렛의 형제가 받은 그 우림과 둠뎀이며, 후기에 나와서 고대 기록이 번역될 수 있도록 모로나이가 감춰

둔 것이었습니다.[교성 17:1]"(*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1966], 1:161-162)

모사이야서 29:26~27. 대다수가 “바르지 못한 것”을 선택할 위험

-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불의를 선택하는 민족에게는 멸망이 닥쳐올 것이기에, 우리는 사회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행동론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한때 소수의 목소리였던 것이 다수의 목소리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과 어리석은 이기심의 결과가 뒤따르게 됩니다.(모사이야서 29:26~27 참조)

사회의 단일 이해 집단들이 한때 널리 공유되던 보편적 가치에 냉담해질 때 더욱 빠른 속도로 문화가 쇠퇴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사람들의 무관심이나 묵인으로 촉진되고, 그렇게 사회는 조심스럽게 지옥으로 이끌려 갑니다.(니파이후서 28:21 참조) 하지만 이 흐름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흐름에 동조하도록 강요받으지도 모르나, 본질적으로 저항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실제로 우리에게 사회의 실상을 보여 주는 표적을 인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문화적 퇴보에 따른 책임은 실제로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악한 지도자들을 비난하기란 쉬운 일이지만, 그 추종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종자들은 퇴보를 합리화하며 자신은 그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지도자는 추종자들에게 지시만 했을 뿐이라고 변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와 추종자의 개인 성품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추종자에게 훨씬 많은 것들이 요구됩니다.”(*리아호나*, 1999년 7월호, 27~28쪽)

-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도 관용을 왜곡해서 적용하는 최근 추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관용이라는 덕목은 왜곡되어 도덕성과 대등하거나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 위세를 떨칩니다. 관용을 베푸는 것, 즉 누군가의 행동을 용서하는 일은 그와 다른 것입니다. 가족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하기까지 하는 비도덕적 행위를 사회적으로 합법화하여 법률로 보호하는 일은 관용이 아닙니다.

관용을 과장된 의미로 이해하면 가족을 위협하고 다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저지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험한 뒤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모사이야가 [모사이야서 29장 26~27절에서] 묘사한 상태에 위험할 정도로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Children of God,” *BYU Women’s Conference*, May 5, 2006, 6)

모사이야서 29:41~44. 판사 치세

- 모사이야 왕 시기에 일어난 통치 체제의 변화는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기에 니파이인들은 그때부터 그리스도 탄생 시기까지(제3니파이 2:8 참조) 판사 치세 시작을 기준으로 삼아 연대를 기록했다. 이전에 니파이인들은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시기를 기준으로 연대를 계산했다.

생각해 볼 점

- 온전히 개종한 사람들은 어떤 동기에서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고자 한다고 생각하는가?
- 가정과 교회 내에서 기록을 작성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제언 과제

- 모사이야서 27~28장 내용을 바탕으로 엘마 이세와 모사이야의 아들들의 개종에 관한 가정의 밤 공과를 가르치겠다고 자원한다. 공과를 듣는 사람들이 모사이야서 27장 32~36절과 28장 3절에서 엘마와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설명한 원리를 적용하도록 목표를 준다.
- 간증이 발전하면서 경험한 “마음의 변화”에 대한 특별한 기록을 만들어 여러분의 개인 일지에 포함시킨다.

소개

엘마 이세는 교회를 이끄는 대제사 부름과 니파이 백성을 다스리는 초대 대판사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혔다.(엘마서 4:18 참조) 종교와 정치를 사사로운 이익에 이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와 정부가 모두 위기에 처했다. 니허가 사제술을 이용해 종교적 소요를 일으켰으며, 많은 사람이 거기에 이끌려 교회의 기반이 위태로웠다.(엘마서 1장 참조) 니허의 반차를 좇은 애클리싸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이 어그러지자 새로 선출된 정부의 판사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켰다.(엘마서 2~3장 참조) 엘마가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행사했으며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행동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엘마의 모범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해설

엘마서

- 몰몬경을 엮은 편집자로서, 어느 부분을 요약 기록에 포함시킬지 결정하는 일은 몰몬에게 어려운 문제였다.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사항이 기록을 선별하는 기준이 되었다. 첫째, 주님께서는 몰몬에게 “명하신 것들을 기록”하라고 하셨다.(제3니파이 26:12) 둘째, 몰몬은 마지막 시대에 자신의 기록이 주님의 성약에 따라 흠어진 이스라엘을 집합시킬 목적으로 나아오리라는 사실을 알았다.(몰몬의 말씀 1:1~11; 제3니파이 26:6~12; 29:1~9; 30:1~2 참조) 따라서 몰몬이 편집할 내용을 결정할 때 이 두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몰몬경을 구성하는 각 책의 분량과 그 책에서 다룬 연대를 비교해 보면 배울 점이 있다. 짧은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도 기록된 분량이 다른 책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은 엘마서를 보면, 그 내용이 우리 시대와 특히 유사점이 많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비교해 보려면 부록(410쪽)에 나오는 “몰몬경 쪽수 및 기간” 도표를 참고한다.

엘마서 1:3~4. “교사는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니허의 가르침

- 니허는 아침과 거짓 교리로 추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죄를 덮어 주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많은 호응을 얻었다. 니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합리화하며 악을 조장했다.(엘마서 1:4)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는 현대에 있는 니허와 같은 사람들과 세상에서 인기가 많은 그들의 가르침을 담대하게 거절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니허의 말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도 있었지만 그 교리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세상의 쉽고 인기 있는 가르침은 대개 올바른 것들이 아니며 옳은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67쪽)

- 엘마서 1장 4절에서 니허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16절에는 “거짓 교리를 전파하였음으로, …… [이는] 부와 명예를 위해서였더라”라고 나온다. 사제술이라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종종 퍼뜨리는 거짓 교리는 “모든 인류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고, 또 그들은 두려워 하거나 떨 필요가 없[다]”(4절)는 가르침이다. 사제술이 지니는 큰 문제는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는 그들이 니허의 신앙에 속했던 고로, 그들의 죄를 회개해야 할 것을 믿지 아니하였음이더라.”(엘마서 15:15)

- 십이사도 정원회의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복음 교사들이 구주를 바라보아야 하며 학생들도 그렇게 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는 자기 발전 또는 자기 관심 때문에 공과에 방해되거나 주님에 대한 [학생들의] 관점을 결코 흐리게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 교사는 사제술, 즉 ‘사람들이 가르침을 베풀되, 스스로를 세상을 위한 빛으로 세워 이익과 세상의 칭찬을 얻으려 하는 것’(니파이후서 26:29)에 결코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음 교사는

‘칭찬받[거나]’(앨마서 1:3) ‘부와 명예를 위해’(앨마서 1:16)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듣는 자보다 나을 것이 없고,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보다 더 낫지 아니하다’(앨마서 1:26)는 물론경의 훌륭한 본보기를 복음 교사는 따라야 합니다. 교사와 학습자는 둘 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리아호나, 2000년 1월호, 96쪽)

앨마서 1:5~6, 16. 사제술

- 니허는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사제술을 장려했으며 스스로를 드높이라고 가르쳤다. 니허의 예를 통해 우리는 가르치는 일로 명성이나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니파이는 이전에 사제술을 이렇게 정의했다. “사제술이란 사람들이 가르침을 베풀되, 스스로를 세상을 위한 빛으로 세워 이익과 세상의 칭찬을 얻으려 하는 것임이라 그러나 그들이 시온의 복리를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보라 주께서는 이 일을 금하셨느니라.”(니파이후서 26:29~30)
- 또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교회의 교사들을 위해 사제술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여러분이나 제가 교사로서 가르치는 내용이나 교수법, 또는 가르칠 때 취하는 태도에서, 즉 우리가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에라도 자기 자신이 주목받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가 섞여 있다면 그것은 가르침에서 성신의 영향력을 방해하는 일종의 사제술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를 전파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만일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할진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니라.’(교성 50:17~18)”(“Seek Learning by Faith” [an evening with Elder David A. Bednar, Feb. 3, 2006, 4, www.ldsces.org])

앨마서 1:7~9

니허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 기드온이 보인 첫 반응은 어떠했는가? 우리는 기드온의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앨마서 1:7~9. 기드온은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였다”

- 기록에 따르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였다.”(앨마서 1:8) 니파이 땅에 살던 무리 중 한 명인 기드온은 노아 왕의 사악한 통치에 대항했다.(모사이야서 19:4 참조) 나중에 기드온은 립하이 통치 시기에 “왕의 대장”이 되어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제이라헤틀라 땅으로 도망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모사이야서 20:17; 22:3~9 참조) 제이라헤틀라에 도착한 뒤, 그는 높은 표준을 지켜 교회에서 교사가 되었다.(모사이야서 23:14 참조) 니허의 거짓 가르침을 접했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앨마서 1:7) 니허를 훈계했다. 그 결과, 기드온은 신앙을 지키려다 죽음을 당했다. 대장이자 교사인 이 순교자에 대한 백성들의 존경심이 매우 높았기에 그들은 기드온을 기리고자 한 골짜기와 성에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앨마서 2:20; 6:7 참조)

앨마서 1:13~15. 욕된 죽음이란 무엇인가?

- 니허는 기드온을 죽인 죄로 사형에 처해졌다. 정전에서는 “그가 욕된 죽음을 당하니라”(앨마서 1:15)라고 표현되었는데, 이는 “매우 수치스럽고, 비난받아 마땅하며 불명예스러운” 죽음이란 뜻이다.(*Noah Webster’s First Edition of an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828 [1967])

앨마서 1:17~18. 사형

- 하나님의 율법에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창세기 9:6)라고 되어 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1889년에 사형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밝히는 선언문을 작성했다.

“우리는 다음 내용을 엄숙히 선언한다.

이 교회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을 가장 혐오스럽게 여긴다. 우리는 국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살인 행위는 사형에 처해야 할 중죄로서, 공개 재판을 거친 후 합법적으로 조직된 그 나라의 법정에서 그 범죄자의 피를 흘림으로써 벌해야 함을 선언한다. ……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계시는 사형에 처해야 할 중죄를 죽음으로 벌해야 한다고 밝히며, 생명과 재산을 빼앗은 죄인은 국법에 따라 호송하여 재판할 것을 요구한다.”(“Official Declaration,” *Millennial Star*, Jan. 20, 1890, 33~34)

앨마서 1:19~20, 25. 핍박을 인내로써 견디었더라

-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늘 핍박을 받는 상황에 처하기 마련이다. 해롤드 비 리(1899~1973) 회장은 핍박 받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 때문에 영적인 발전을 그치거나 의로운 열망을 단념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진리와 덕과 명예가 걸린 위대한 대업에 참여하면서 의를 위해 핍박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 핍박 받는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커다란 피해는 핍박 자체가 아니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의로운 대업을 위한 열망을 단념하는

데서 옵니다. 그러한 핍박은 대부분 부족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는 대항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핍박은 사악한 의도를 품은 인간에게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의로운 대업에 동참하는 이들은 대부분 핍박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

…… 대중이 보내는 조롱이나 심지어 물리적 폭력에도 불구하고 의를 굳게 지킨다면 중국에는 영원한 기쁨으로 축복받을 것입니다. 현대에는 과거 시대처럼 성도들이나 사도들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경우가 다시 없으리라고 누가 단정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시기가 닥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실패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Decisions for Successful Living [1973], 61~62)

엘마서 1:26

제사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는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이러한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엘마서 1:26. “제사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저들의 일을 떠나면”

• 엘마서 1장을 읽을 때, 물몬이 교만에 찬 니허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겸손한 제사들을 비교한 부분에 주목한다. 니허는 “매우 값진 의복”을 입었고, “부[름] …… 위해서” 전파했으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여겨 마음이 교만하여 자고해졌다.(엘마서 1:5~6, 16 참조) 다른 한편, 진실한 교사들은 값진 의복을 입지 않았고, 돈으로 보상받지 않고 사람들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쳤으며,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해 직접 손으로 일했고, 자신이 듣는 사람보다 더 낮다고 여기지 않았다.(엘마서 1:26~27; 또한 모사이야서 18:24; 27:5 참조)

물몬경 전체에 걸쳐 다양한 배도의 무리가 니허의 가르침이나 반차를 추종했다.(엘마서 1:16; 16:1~12 참조) 이 반차를 좇아 그들은 제사를 일반 백성들보다 우월한 사회 계층으로 만들어 소위 그들만의 영적 지도자 지위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스스로 우월한 계층으로 자처한 사람들은 종종 일반 백성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이들을 핍박했다.(모사이야서 11:3~6; 23:39; 24:8~9; 엘마서 31:23~32:5 참조) 이와는 반대로, 엘마서 1장 26절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신권 지도자로 부르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라고 가르친다.

엘마서 1:26~31. 교회의 제반사를 확립하였고

•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은 주님의 교회가 확립하려면 침례를 행하는 것 외에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과정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물몬경 엘마서 첫 장에서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이 대략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한 사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다음 과정에 유의합니다.

첫째, 교리를 가르칩니다.(엘마서 1:26 참조)

둘째, 회원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처럼 여깁니다.(26절 참조)

셋째, 모두가 일합니다. 즉, 일하고 받아야 할 만큼 받습니다.(26절 참조)



넷째, 궁핍한 사람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며 서로서로 봉사합니다.(27절 참조)

다섯째, 자신의 욕망은 자제하되 자신의 필요 사항은 적절하게 돌봅니다.(27절 참조) ……

이런 큰 변화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립하는 법을 배워 그렇게 하고, 또 궁핍한 사람을 돌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방법으로 자신을 헌신하자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 과정은 어디에서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빛, 1980년 3월호, 138~139쪽)

엘마서 1:27. 복장과 외모

• 물문경에서는 사람들이 “매우 값진 의복”(엘마서 1:6)을 입기 시작할 때 드러나는 교만과 신분 차별이라는 죄에 대해 반복해서 경고한다. 주님의 교회에 속한 회원들은 극단적인 형태의 복장과 외모를 피하라는 권고를 들어 왔다. 또한 회원들은 유행을 따르는 값비싼 옷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교성 42:40 참조)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깨끗하고 단정”(엘마서 1:27)해야 한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몸차림을 깨끗이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을 때, 성신이 함께 동반[할] …… 수 있습니다. …… 의복이나 몸차림, 또는 몸가짐에서 언제나 깔끔하고 청결해야 하며, 또한 단정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게 예의 없는 모습을 갖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신에게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주님의 면전에 선다면 내 모습에 스스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2001, 15~16쪽)

엘마서 2:4
 애플리싸이가 왕이 되고자 한 이유는 무엇인가?
 백성 대다수가 그를 반대하는 투표를 하자
 그는 어떻게 했는가?(엘마서 2:7~10 참조)

엘마서 2:4~6. 백성의 소리

• 백성들에게서 종교적 권리와 특권을 박탈하고자 꾀한 애플리싸이의 시도는 백성의 소리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다. 애플리싸이 시대에 의로운 니파이인들이 투표를 기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본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후기 성도는 정직하고 현명하며, 선하고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와 법률을 지지하여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투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성스러운 의무가 있다.(교성 98:10 참조)

•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우리 시대의 사악한 추세에 대항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는 ‘악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것은 선한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에드먼드 버크의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 추세에 반대하는 전 세계의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불쾌한 대중 매체를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 멈추어 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건설적이고 정신을 고양하는 프로그램과 제작물을 지지해야 합니다. 우리와 견해가 같은 이웃 및 친구들과 힘을 합하여 관련 책임자들에게 우리의 뜻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와 지역 가맹 방송국에 그들의 주소가 있을 것입니다. 편지와 전자 우편[은] ……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18쪽)

엘마서 2:28~31. 엘마와 니파이인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강하게 되었다

• 이전에 주님께서서는 니파이인들이 의롭게 생활한다면 레이맨인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파이후서 5:25 참조) 그래서 니파이인들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주의 손으로 강하게 되었다.”(엘마서 2:28)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마를 “강하게” 하셔서 그의 신앙에 따라 적을 물리칠 능력을 주셨다.(엘마서 2:30~31 참조)

엘마서 3:4. 애플리싸이인이 몸에 새긴 표지

• 애플리싸이인들은 스스로 니파이인들과 구별되기 위해 “자기의 이마에 붉은 표를 하였다.”(엘마서 3:4, 18) 고든 비헝클리(1910~2008) 회장을 통해 우리 시대에도 젊은 남자와 여자에게 자신의 몸을 성스럽게 간직하고 문신을 새기지 말라는 권고가 전해졌다.

“이제 몸에 문신을 새기는 광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왜 젊은 남녀들이 고통을 참아가며 살갗에 여러 가지 색깔로 사람, 동물, 기호 등을 그려 넣어 피부를 손상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신은 또다시 고통과 돈을 들여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영구적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들이 몸에

문신을 새기지 않도록 주의를 주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의 말을 안 들을지 모르나 언젠가는 감사할 때가 올 것입니다. 문신은 몸이라는 성전에 낙서를 하는 행위입니다.

고리 여러 개를 걸기 위해 귀, 코, 심지어는 혀를 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문신을 새기는 것과 의학적 목적이 아닌 이유로 몸에 구멍을 뚫는 것을 자제하도록 설득합니다. 그렇지만 자매님들이 귀고리 한 쌍을 달기 위해 최소한으로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은 괜찮습니다.”(리아호나, 2001년 1월호, 67~68쪽)

앨마서 3:5. 레이맨인을 따라 외모를 바꾼 애플리싸이인

- 애플리싸이인은 레이맨인을 따라 그들의 외모를 바꾸었다. 오늘날 많은 후기 성도들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옷차림을 따라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 극단적인 형태의 복장과 외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짓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좇는 이들은 “선지자에게 불순종하며, 그 대신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사람이다.(“Questions and Answers,” *New Era*, Mar. 2006, 14;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14~16쪽 참조)

-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신권을 소유한 청년들에게 복장과 외모에서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영을 쫓아내는 행위라고 가르쳤다.

“음악이나 옷차림, 언어, 태도, 행위 등에서 현대의 폭력배와 그들의 범죄 행위를 찬미하는, 전적으로 그들만의 하위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유행을 따르는 친구들이 그런 경향을 ‘최신 유행’과 ‘멋진’ 것으로 받아들이다가 결국에는 …… 그러한 하위 문화에 빠져 들게 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

…… 저는 ……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로서 부적당한 옷차림을 하고서 진리와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38~39쪽)

앨마서 3:26~27. “각 사람은 자기가 순종하기를 원한 자에게 샅을 받음이요”

- “각 사람은 자기가 순종하기를 원한 자에게 샅을 받음이요”라는 비유를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궁극적인 주인으로 하나님을 선택할지 사탄을 선택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된다.(앨마서 3:27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원하다(list)라는 단어는 이 편 아니면 저 편으로 기운다 또는 기만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사탄 편으로 기울거나 기대는 사람은 곧 사탄의 종이 된 자신을 발견하고 “영원한 비참”(앨마서 3:26)에 빠질 것이다.

결국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내린 선택에서 자신이 누구를 영원한 주인으로 선택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이 진리를 가르치며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인생은 매일 수없이 되풀이되는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이러한 작은 선택들은 다발이 되어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뚜렷이 드러나게 됩니다.”(성도의 벗, 1981년 4월호, 32쪽)

앨마서 4:9~12. “큰 걸림돌”

- 교회 회원들이 교만해져서 그들이 보인 부정적인 모범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앨마서 4:9~12; 39:11 참조)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교회 회원들이

대하는 태도 때문에 복음을 배우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그는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그의 부모는 다른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는 자랄 때 후기 성도 친구 몇 명이 자신을 업신여기고, 소외감을 느끼게 했으며, 놀려댔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이 교회와 교회 사람들을 정말로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들 어느 누구에게서도 좋은 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부친이 직장을 잃어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열일곱 살이 되자 새로 이사간 곳에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난생 처음으로 친구들에게서 따뜻함을 느꼈으며, 그 중 리차드라는 한 친구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동아리에 들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와 함께하고 싶어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 정말 좋은 느낌이, 친구가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늘 친구를 얻게 해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17년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열아홉 살 때, 여름 방학 동안 잠깐 일을 하면서 그는 리차드와 숙소를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리차드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읽는지 물었습니다. 리차드는 몰몬경을 읽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화제를 바꾸고는 자리 갔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제 어린 시절을 망쳤던 책입니다. 잊으려고 애썼지만 한 주가 지나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리차드는 매일 밤 그 책을 읽을까? 머리를 맴도는 풀리지 않는 질문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저는 그 책에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 그는 멈추었던 곳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그리고 미대륙에 나타나신 일에 관해 읽어 주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몰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나중에 이 젊은이와 그의 친구가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리차드가 그에게 몰몬경을 건네 주며 그 책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성령의 영감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그의 신앙은 커졌습니다. 그는 침례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지만, 이 이야기 안에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 몰몬 친구들이 그를 대했던 유감스러운 태도입니다.

다음은 그가 새로 찾은 친구인 리차드가 그를 대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한 경험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과거에 받은 끔찍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새 친구와 함께한 시간들은 그를 개종과 침례로 인도했습니다.”(리아호나, 2006년 5월호, 59~60쪽)

앨마서 4:14. 죄 사함을 간직하는 일

- 몰몬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죄 사함을 간직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가르친다.(앨마서 4:14; 또한 모사이야서 4:11



참조) 제일회장단의 매리온 지 롬니(1897~1988) 회장은 우리가 맺은 성약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 우리의 죄 사함을 간직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우리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에 의문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가르침을 믿는다면, 구주와 그분의 선지자를 따르고 있다고 공언한다면, 성약에 충실하고 우리 삶에 주님의 영을 동반하기를 원한다면 구주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81년 4월호, 153쪽)

앨마서 4:15~19

앨마가 판사직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앨마가 보인 모범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는가?

앨마서 4:19. 순수한 간증

• 백성들을 돌이키는 일에서 앨마는 “말씀의 전파가 백성을 인도하여 의로운 일을 하게 하는 큰 경향이 있으므로—참으로 그것은 칼이나 …… 다른 어떠한 것보다, 백성들의 생각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앨마서 31:5)는 사실을 알았다. 고든 비헝클리 회장은 세상 사람들이 순수한 간증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씀했다.

“여러분은 앨마가 더 위대한 사역을 하는 데 시간과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판사직을 그만둔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앨마서 4:19]

이와 똑같은 이유로 오늘날 세상은 순수한 간증의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며, 세상이 복음을 들으려면 그것을 가르칠 사자가 있어야 합니다.”(“선교 사업”, 성도의 벗, 1988년 3월호, 2쪽)

•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후기 성도들이 순수한 간증을 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간단히 말해서 간증, 즉 영으로 전하고 성신으로 확인된 진정한 간증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정하는 모든 우선순위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교회에서 겪은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많은 회원이 간증을 하면서 ‘저는 …… 에 대해 감사합니다.’ 혹은 ‘저는 …… 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는 반면, 겸손하고 진지하고 분명하게 ‘저는 …… 을 압니다.’ 하고 간증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은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 모임에는 영혼에 감동을 주고 간증을 듣는 모든 사람의 삶에 의미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풍성함과 영적인 힘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 모임은 좀 더 구주와 복음 교리, 회복에 따른 축복, 경전 가르침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야기와 여행담과 설교 대신에 순수한 간증을 전해야 합니다. ……

…… 간증을 한다는 것은 ‘성신의 권능에 의해 증언하는 것[이며,] 개인적인 지식 또는 믿음에 기초하여 진리를 엄숙히 선언하는 것’(경전 안내서, “증언하다”)입니다. 진리를 분명하게 전할 때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간증이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며, 성신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 그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많은 것을 간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 끊임없이 가르치고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할 기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간증하십시오. 구원의 계획은 구주의 속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을 회복했으며, 몰몬경은 우리의 간증이 참되다는 증거입니다.”(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40~41쪽)



• 하워드 더블류 헌터(1907~1995) 회장은 간증할 때 표출되는 감정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주제에 관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는 강한 감정이나 불현듯 흐르는 눈물이 영의 임재와 동일시되는 것을 볼 때 염려가 됩니다. 주님의 영은 분명 눈물을 포함해 강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러한 외양적인 표출이 영의 임재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사도들을 지켜보았으며 우리는 흔히 않은 일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경험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각기 다르고 모두 그만의 방식으로 특별하며, 그 성스러운 순간에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런 순간에 완전한 침묵이 흐르기도 합니다.”(“Eternal Investments” [an evening with President Howard W. Hunter, Feb. 10, 1989], 3, www.ldsces.org)

생각해 볼 점

- 물몬경에서 “값진 의복”(엘마서 1:6, 27, 32)을 입는 것과 물질적 소유에 몰두하는 것에 대해 반복해서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후기 성도들이 피해야 할 최근의 옷차림이나 유행 또는 추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이 시대에 교회의 표준과 권리와 특권을 수호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까?

제언 과제

- 엘마서 1~4장을 읽으면서 부와 값진 의복, 세상의 헛된 것들을 언급하는 구절을 모두 찾아 표시한다. 그들이 부를 과시하는 행위를 하여 교회 회원들의 의로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주목한다. 물질주의가 영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교회 회원들이 따를 수 있는 몇 가지 원리에 대해 3~5분 분량으로 말씀을 작성한다.
- 엘마서 1장 3~6절과 16~20절을 엘마서 31장 12~29절과 비교해보고 유사점을 찾아 적는다. 니히의 가르침과 배도한 조렘인의 종교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호응한 이유는 무엇인가?
- 치열한 전쟁 속에서 엘마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다.(엘마서 2:30 참조) 하나님께서는 엘마의 신앙에 대한 응답으로 그를 “강하게” 하시고 적을 물리칠 능력을 주셨다.(엘마서 2:31) 이 밖에도 물몬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강하게 하신 경우를 최소한 두 가지는 찾아 본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신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 경험에 대해 예전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지금 일지에 기록한다.

소개

엘마는 “니파이 백성 가운데 나아가 …… [순수한 간증으로] 그들을 각성시켜 그들의 의무를 기억하게 하[고자]”(엘마서 4:19) 판사직을 내놓았다. 제이라헤물라 백성과 기드온 백성들에게 나아가 수고하는 엘마에 관한 기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영적으로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다. 이 장들을 공부하면서 엘마의 질문과 권고와 간증이 하나님과 주위 친구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무를 기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본다. 또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거듭나고 구주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지 살펴본다.

해설

엘마서 5:7. “지옥의 사슬”

• 엘마는 “지옥의 사슬”을 악마에게 사로잡히고 영원히 멸망할 위협에 처한 상태라고 정의했다.(엘마서 12:6, 11 참조)



엘마서 5:12~14. “너희의 마음에 …… 크나큰 변화”

• 제일회화장단의 매리온 지 롬니(1897~1988) 회장은 개종이란 마음에 큰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으로, 인생의 모든 면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변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종하다라는 단어는 ‘이전 종교나 신념을 다른 종교나 신념으로 바꾸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개심**이란 단어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바꿈’으로써 생기는 영적 및 도덕적 **변화**를 뜻합니다. 그러나 경전에서 **개심**이란 말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뜻만으로 쓰이지는 않았습니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는 것, 따라서 생활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앙을 가짐으로써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이해하고 관심과 생각과 행동 면에서 하나님께 충실한 실제 변화를 의미합니다. **개심**하는 과정은 단계별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만 개인이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완전히 개심하게 됩니다.”(성도의 벗, 1976년 2월호, 71쪽)

•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마음의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곧 변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

주님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역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역사합니다. 세상은 빈민가에서 사람들을 끌어내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서 빈민가를 없애셔서 그들이 스스로 빈민가를 빠져 나오게 하십니다. 세상은 환경을 변화시켜 인간을 바로잡으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변화시켜서 인간이 환경을 바꾸게 하십니다. 세상은 인간의 행위를 정하지만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성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인간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인간은 그리스도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들은 [주여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사도행전 9:6)[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이 구절이 누락되어 있음-옮긴이] 하고 물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그 자취를 따[를]’(베드로전서 2:21)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요한1서 2:6)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불타오를 것입니다. 해롤드 비 리 회장은 그들은 스스로가 불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불붙게 만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Stand Ye in Holy Places* [Salt Lake City: Deseret Book Co., 1974], 192쪽 참조)

그들의 뜻은 그대로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5:30 참조)

그들은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29 참조)

그들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그들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 보면, 벽에 걸린 그림이나 책장에 꽂힌 책, 잔잔히 흐르는 음악,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모사이야서 18:9 참조)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분을 바라봅니다.(교성 6:36 참조)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마음속 사랑을 영원토록 그분에게 돌립니다.(엘마서 37:36 참조)

거의 매주마다 성찬을 취하며 기쁘게 아들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영원하신 아버지에게 새롭게 증거합니다.(모로나이서 4:3 참조)(성도의 벗, 1986년 1월호, 5~7쪽)

앨마서 5:14. “하나님에게서 났느냐”

-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개종이 어떻게 거듭남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했다.

개종은 ‘돌아서다’라는 의미입니다. 개종은 세상의 길에서 주님의 길로 돌아서서 주님의 길에 머무는 것입니다. 개종에는 회개와 순종이 포함됩니다. 개종은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모사이야서 5:2; 앨마서 5:12~14 참조] 그러므로 참된 개종자는 ‘거듭나[고]’[요한복음 3:3~7; 모사이야서 27:24~26 참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합니다.[로마서 6:3~4 참조]

참된 개종자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행하고[모사이야서 5:2~5 참조] 그분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겠다고[제3니파이 27:21, 27 참조] 결심합니다.”(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86~87쪽)

-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이렇게 가르쳤다. “거듭남은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작용할 때 일어납니다.”(*History of the Church*, 3:392)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1915~1985)는 거듭난다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설명했다. “아마도 가장 큰 기적은 …… 죄로 고통받는 영혼을 치유하여 영적으로 눈멀고 귀먹고 병든 사람들이 다시 순수하고 깨끗해져서 구원을 상속 받는 일일 것입니다. 모든 일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성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한때 죄와 악으로 영혼이 불에 타 버리는 듯했지만 영적으로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The Mortal Messiah, Book 4* [1981], 3:269)

-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면 모사이야서 5:2 해설(143쪽)과 모사이야서 27:25 해설(165쪽)을 참조한다.

앨마서 5:14, 19.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 얼굴에 새기고”

- 디어도어 엠 버튼(1907~1989) 장로는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로 봉사하던 시절에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을 더욱

닮아 가게 된다고 가르친 적이 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생활 속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에 크나큰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우리는 더욱 그분을 닮아 갈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Ensign*, Jan. 1974, 114)

-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은 교회와 제휴한 한 단체가 후기 성도 학생들의 얼굴에서 발견되는 빛에 대해 언급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약 17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모임이 최근에 생각났습니다. 훗날 세워진 브리검 영 대학교 극동 연구 예루살렘 센터 부지 임대에 관한 모임이었습니다. 임대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과 당시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이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교회와 대학교를 대표하여 이스라엘에서는 전도를 하지 않기로 이스라엘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기로 한 데 합의했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도시인 예루살렘에 세운 이 놀라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그렇게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 제가 알기로는 교회와 브리검 영 대학교는 전도 금지 약속을 양심적으로 지켰습니다. 임대 계약에 서명을 한 후, 한 친구가 통찰력 있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전도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눈에서 발하는 빛은 어찌 하시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던 우리 학생들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20쪽)

앨마서 5:21~22. “그 옷이 ……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야”

• 앨마서 5장 22절에서 “옷”은 주님 앞에 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칠십인인 린 에이 미컬슨 장로는 속죄를 통해 깨끗하게 되는 일과 더럽혀진 옷을 씻는 일이 유사하다는 설명을 했다. “우리 옷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깨끗이 씻겨지는 것과 더럽혀진 흰 옷을 씻는 방법은 유사합니다. 우리 옷은 그분의 속죄 희생을 통해 깨끗해질 것입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옷은 우리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죄로 더럽혀졌다면 우리는 청결해져야 합니다. 판단과 용서를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는 구주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씻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앨마서 5:21~27; 교성 64:10 참조]”(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11쪽)

앨마서 5:28. “교만을 벗어 버리라”

• 교만이라는 주제에 대한 여러 통찰을 살펴보려면 힐라맨서 3:33~34, 36; 4:12 해설(263쪽)과 힐라맨서 12:5~6 해설(277쪽)을 참조한다.

앨마서 5:29. “시기심을 벗어 버리라”

•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는 세상적인 영향력으로 생기는 시기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반대된다고 가르쳤다.

“질투는 아무도 선뜻 고백할 수 없는 죄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경향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지는 ‘질투가 열병이라면 온 세상이 그 병을 앓을 것이다.’라는 덴마크의 한 오래된 격언에 잘 나타납니다. …… 우리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더 크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일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작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게도 종종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런저런 유혹을 우리가 매일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것들은 우리가 현재보다 더 멋있거나 더 부유하거나 더 박수를 받거나 더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재산을 충분히 모으지 못했거나 재미있는 곳에 충분히 가 보지 못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세상의 척도로 저울질 당하며 또 부족하다는 메시지로 수없이 공격을 받습니다.[다니엘 5:27 참조] ……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

……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덜 소중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근심, 자아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그분께서는 재능이나 외모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직업이나 재산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경주자를 응원하시며 그 경주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외치십니다. 우리가 충실하다면 꼭 맞게 만들어진 의의 옷, 곧 ‘어린 양의 피에 …… 희게[요한계시록 7:14] 된 옷이 각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저는 압니다.[이사야 61:10; 니파이후서 4:33; 9:14 참조] 우리가 그 상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리아호나, 2002년 7월호, 70, 72쪽)

앨마서 5:46~47. “계시의 영”

• 앨마는 천사를 보았다. 그러나 앨마서 5장 46~47절에서는 자신이 [복음 교리가 참됨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천사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간증했다. 히버 제이 그랜트(1856~1945)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사를 볼 수만 있다면, 천사가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평생을 바쳐 충실하게 따를텐데!’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레이맨과 레뮤엘]은 그런 경험을 하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Apr. 1924, 159)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성신이 천사의 방문보다 더 강력할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리스도께서는 …… 우리가 부활한 실제 존재인 천사의 방문을 받을 수도 있으나 그런 방문은 성신을 통하여 받는 만큼의 인상을 남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혀 주셨습니다. 직접적인 방문은 시간이 가면 희미해지지만 성신의 인도는 우리가 이를 받기에 합당한 생활만 한다면 새로워지고 지속됩니다.”(Doctrines of Salvation, comp. Bruce R. McConkie, 3 vols. [1954~1956], 1:44)

• 계시의 영은 하나님께서 성신의 권능으로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말씀하시는 통신 수단이다.(교성 8:2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는 성신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인식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생각에 드리우는 인상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인 말을 듣거나 느낄 수 있고 그 가르침을 받아 적듯 기록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전해지는 교훈은 좀 더 일반적인 느낌입니다. 주님께서는 종종 어떤 느낌을 주시며 시작하십니다. 그러한 느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순종한다면 더욱 구체적인 가르침을 생각에 받아들이는 능력이 커집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느낌에 따를 때, 그 느낌은 강해져서 더욱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생각에

새겨집니다.”(“Helping Others to Be Spiritually Led” [Church Educational System symposium on the Doctrine and Covenants, Aug. 11, 1998], 3~4; LDS.org under gospel library/additional addresses/CES addresses 참조)

앨마서 5:53~54. “세상의 헛된 것”

- 헛된이라는 말은 “공허하고, 쓸모가 없으며, 어떤 본질이나 가치, 중요성도 지니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며 “자신의 성취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우쭐대는 것이다.”(*Noah Webster’s First Edition of an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828* [1967])
- 십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후기 성도들이 세상의 헛된 것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누가복음 12:15)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아야 하는데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마태복음 6:19)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속 보물, 곧 우리의 우선순위가 경전에서 일컫는 ‘재물[과] 이 세상의 헛된 것들’(앨마서 39:14)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는 재물, 교만, 우월, 권력으로 구성된 세속 4중주가 펼쳐 내는 온갖 연주가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과 관련하여 경전에서는 ‘네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음이니라’(앨마서

39:14)라고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충실한 사람에게 약속된 보물인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감추인 보화’(교리와 성약 89:19)를 구해야 합니다.”(*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01쪽*)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외모에 대한 허영심은 영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고 신체적 외양에 집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광기보다 더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파괴이며 현 세상에서 …… 불행해지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만일 성인들이 집어넣고 잘라내고 이식하는 등 성형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성형하며 외모 단장에만 몰두한다면, 그와 같은 외모의 압박과 걱정들이 분명 자녀에게로 유입될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선가 그 문제는 물론경에서 일컫는 ‘헛된 상상’[니파이전서 12:18]이 되어 버립니다. 세속적인 사회에서는 허영과 상상의 물결이 거침없이 몰아칩니다. 우리 주변에 만연한 대중 매체에 묘사된 미인들과 경쟁하려면 엄청난 화장품이 필요할 것입니다.”(*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30쪽*)

앨마서 5:57. “너희는 악인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 칠십인인 데이비드 알 스톤 장로는 뉴욕 맨해튼 성전 건축에 사용된 기술이 어떻게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길에 대한 예가 될 수 있는지 설명했다.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살고 ‘그 형상[이] 세상의 모습’[교성 1:16]인 신을 따르면서 옛 바벨론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할 가장 커다란 과제는 바로 그러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가운데 시온을 건설해야 합니다. ……

맨해튼 성전 건축에 직접 참여했기에 저는 이 성전을 헌납하기 전부터 자주 그 성전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분주한 뉴욕 거리로부터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고요 속에서 해의 왕국실에 앉아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대도시의 소음과 혼란으로부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성전이 어떻게 이처럼 경건하고 고요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바로 성전 설계 양식에 있습니다. 그 성전은 기존에 세워진 건물 벽 안에 지어졌으며, 성전 내부 벽은 외부 벽과 단지 몇몇 접촉 부위에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시온)이 바벨론, 즉 바깥 세상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여 우리 가운데 참된 시온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도시에 살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해의 왕국의 원리에 따라 우리만의 시온을 세울 수 있으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시대와 장소에 예측되는 문화의 손 안에 든 꼭두각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길을 걸으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습니다.”(리아호나, 2006년 5월호, 90~93쪽)

앨마서 5:57~58; 6:3. “이름이 지워져”

- 이름이 지워지는 것에 관한 설명은 모사이야서 26장 32~36절 해설(163쪽)과 모로나이서 6장 7절 해설(386쪽)을 참고한다.

앨마서 6:8
 앨마는 기드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원리에 따랐는가?

앨마서 7:10. 예루살렘에서 나신 예수

-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앨마가 말한 구주의 탄생 장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몰몬경에는 성경에 기록된 어떤 진리라도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앨마가 한 말을 주의 깊게 읽어 보면 그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앨마는 더 잘 알았습니다. 조셉 스미스, 그리고 조셉을 도와 몰몬경을 나오오게 한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앨마가 만약 ‘선조들의 성인 예루살렘 안에서 나시리니’ 하고 말했다면 세상에 큰 파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앨마의 말은 실수였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앨마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니다. 그가 한 말은 맞습니다.

휴 니블리 박사는 1957년도 신권 교육 과정인 *An Approach to the Book of Mormon*(몰몬경 입문) 85쪽, 제8과에서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몰몬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즐겨 지적하는 부분 중 하나는 앨마서 7장 10절에 구주께서 “우리 선조들의 땅인 예루살렘에서 …… 나시리니”라고 언급된 부분이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우리 선조들의 땅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바로 그 땅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에서 약 9.5킬로미터 떨어진 마을에서 태어나셨다. 그곳은 성 안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알기로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이라고 부르던 지역 내에 있었다.”(*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1966], 1:174)

-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둘 다 다윗 성으로 일컬어졌는데, 이 때문에 약간 혼동이 야기되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는 베들레헴을 다윗 성으로 지칭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5장 6~8절과 열왕기하 14장 20절, 역대상 11장 4~8절에서는 모두 예루살렘을 다윗 성이라고 부른다.

앨마서 7:6, 19~20
 앨마는 기드온 백성의 영적 상태에 대해 어떤 사실을 깨달았는가?

앨마서 7:11~12.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시험과 질병과 연약함

-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구주께서는 필멸의 존재가 겪는 고난과 개인적으로 범하는 범법을 잘 아신다고 기록했다. “둘째 지체로 계시는 동안 고통과 고난과 온갖 시험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질병과 연약함과 죄까지도 꿰어지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으로 이를 아십니다.(앨마서 7:11~12 참조) 그러므로 그분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추상적 관념으로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 실제로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경험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우리는 고통이나 시험, 고난에 관해서 그분께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육체를 따라’ 경험하셨으며 그분의 승리는 완전했습니다.”(*We Will Prove Them Herewith* [1982], 46)

엘마서 7:12. “자기 백성을 …… 도[우신다]”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돕다(succor)라는 단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돕다]라는 말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보살핌을 묘사하기 위해 경전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달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주의 긴박한 노력을 참으로 훌륭히 묘사하지 않습니까?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분께 나아와 그분을 따르라고 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어김없이 우리를 도우시고자 달려오고 계십니다.”(“Come unto Me” [CES fireside for young adults, Mar. 2, 1997], 성도의 벗, 1998년 8월호, 48쪽)

엘마서 7:15~16
 엘마는 기드온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권고와 약속을 주었는가?

엘마서 7:22~24. 벨기세텍 신권의 책임

• 엘마서 7장 22~24절에는 신권 소유자에게 주는 가르침과, 그들이 신권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지녀야 할 자격이 열거되어 있다. 이것은 교리와 성약 121편 41~42절에서 신권 소유자에게 주신 가르침과 유사하다. 엘마서 7장과 교리와 성약 121편에 나오는 구절들은 신권 소유자들이 신권 권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를 가르친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신권 소유자로서 의롭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신권은 주님께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주님은 신권이 부여되는 방법과 누가 신권을 부여하는가에 관하여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결코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세가 주어지는 방법에 대해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권능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스러운 은사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세는 성임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권능은 순종과 합당성을 통해서 옵니다.”(성도의 벗, 1982년 4월호, 48~49쪽)

엘마서 7:23. “모든 일에 절제하며”

•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절제를 통해 얻는 안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절제는 신중함과 행동 자제를 암시하고, 맺은 성약을 상기시킵니다. ……

경전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절제’(고린도전서 9:25; 엘마서 7:23; 38:10; 교성 12:8)하라고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절제할 때, 지나침에서 벗어지는 결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66쪽)

생각해 볼 점

- 엘마는 천사를 본 후에도 여전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자신의 간증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엘마서 5장 45~48절에는 엘마가 “아들이시요,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그분께 관한 지식을 얻기까지 견뎌 낸 과정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 엘마가 제이라헤틀라 백성과 기드온 백성에게 베푼 성역에서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볼 수 있는가?
- 여러분은 엘마서 7장 11~13절을 공부하면서 속죄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더욱 깊어졌는가?

제언 과제

- 엘마는 5장에서 40개가 넘는 질문을 던진다. 엘마가 던진 질문을 읽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 여러분이 이해하고 느낀 점 또는 그 질문의 주제에 관한 여러분의 견해를 한 단락으로 적어 본다.
- 엘마서 7장 23절에 나열된 속성 중에 여러분과 친숙하지 않은 한 가지를 골라 공부하고 그 의미를 찾아본다.

소개

앰몬아이하 성에서 베포 엘마의 성역을 보면, 큰 어려움이 있거나 개인적 희생을 치러야 하는 시기에도 충실하게 순종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지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니파이전서 1:20 참조) 간악한 성에서 [복음을] 전파하려 한 첫 번째 시도 후에 엘마는 천사의 방문을 받는 축복을 받았다.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엘마가 어떻게 여겨지는지를 확인해 주고, 앰몬아이하 성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다. 그곳에서 앰올레크라는 사람은 천사로부터 엘마를 영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후에 이 두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 불화를 일으키려 한 능란한 변호사들에 대항하는 방법을 영감 받았다. 엘마와 앰올레크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에게 본이 된다. 비록 여러분이 아직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분께 순종하려 노력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확신과 영감과 도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 장에서는 또한 주님의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순수한 간증”(엘마서 4:19)이 어떠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볼 수 있다. 부활과 마지막 심판이라는 교리가 지에스롬에게 미친 영향에 주목한다. 이 교리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간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생각해본다.

해설

엘마서 8:10. “간절한 기도”

- “간절한 기도”라는 구절은 신앙으로 가득 차 하나님과 강력한 교통을 한다는 의미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워스린(1917~2008) 장로는 우리 기도의 강도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가까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데 쓰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고양된다고 느끼십니까?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힘이 부족한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기도가 의사소통이 아니라 암송이 될 정도로 자주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늘어놓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공허해집니다. 이것이 구주께서 “중언부언”(마태복음 6:7)이라고 묘사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런 기도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기도가 똑같다고 여겨집니까? 기도를 기계적으로, 즉 기계에서 잘려져 쏟아져 나오듯이 말을 내뱉으며 기도를 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때때로 싫증을 느끼니까?

많이 생각해 보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를 끌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상투적임을 깨달을 때,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 것들에 관해 잠시 동안 명상해 보십시오.”(“Improving Our Prayers,” *Brigham Young University 2002~2003 Speeches* [2003], 160)

엘마서 8:10~16. 우리가 충실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 다른 성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큰 성공을 거둔 후, 엘마는 앰몬아이하 성에서 욕설과 침 뱃음을 당하고 쫓겨났다. 그리고 나서 엘마는 천사로부터 자신의 노력이 주님께 받아들여졌다는 확신과 다시 돌아가 그 백성들에게 전파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엘마서 8:15~16 참조) 때때로 자신이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도 불충분하다거나 실패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관해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네 의무를 다하라. 그것이 최선의 길이니라.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길지이다.”[‘The Legend Beautiful’ by Henry Wadsworth Longfellow]

삶의 방향을 바꾸기에는 자신이 너무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나은 행동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보다 더 큰 위안을 주는 말은 없습니다.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이더서 12:27]

신권 부름을 영화롭게 할 때 도처에서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의심을 대체할 때, 비이기적인 봉사로 이기적인 노력을 몰아낼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분의 목적이 실현됩니다.”(Ensign, Nov. 1999, 50)

앨마서 8:18. 엘마는 “속히 돌아갔다”

•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엘마는 앰몬아이하로 “속히 돌아갔다.”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주님께 즉각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복지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가르쳤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이 지금 이 순간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앙을 계속 강화하고 꾸준히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더 즉각 순종하고, 더 굳은 각오로 인내하겠다는 결심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하기를 배우는 것은 영적 준비를 하는 열쇠입니다. ……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매일 하는 선택에서 순종에 대한 시험을 통과할 신앙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즉시 행하겠다고 지금 결심할 수 있습니다.”(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38, 40쪽)

앨마서 8:26. 금식

• 엘마는 앰몬아이하 주민들에게 전파하기 전에 마음과 영적인 면에서 준비하기 위해 금식했다. 금식은 종종 우리의 간구가 중대함을 주님께 보이는 것이다.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때로는 금식이 우리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강한 증거가 됩니다. …… 금식하면 우리의 영혼이 낮아지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목적에 더욱 일치하게 됩니다.”(리아호나, 2002년 7월호, 67쪽)

• 조셉 비 워스런 장로는 적절하게 금식하고 이에 기도를 더할 때 우리 삶에 흘러 들어 오는 축복들을 열거했다.

“힘찬 기도를 병행하는 금식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 금식을 하면 우리 마음은 영의 계시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유혹을 받는 시기에는 금식 기도를 통해 강해될 수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내면에 용기와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품을 강화하고 자제심을 키우며 자기 수양을 쌓을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 종종 우리의 의로운 기도와 간구가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간증도 커집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영혼이 성결해집니다. 금식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적인 욕구와 열정을 다스릴 힘을 얻습니다. ……

합당한 영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금식을 하면 영적인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단련되고, 가정에 평안이 깃들며, 기쁨으로 마음이 밝아지고, 유혹에 대항하는 힘이 강해지며, 역경의 시기에 대처할 준비가 되고,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리아호나, 2001년 7월호, 89, 91쪽)



© 1994 스티브 번더슨

앨마서 9:14~23. 큰 축복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 엘마는 레이맨인이 당시에는 사악했지라도 심판의 날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앰몬아이하 백성보다 더 좋게 보실 것이라고 경고했다.(앨마서 9:14 참조) 레이맨인은 그들이 물려받은 잘못된 전통을 따랐지만, 니파이인들과 특히 앰몬아이하 백성들은 “주의 은총을 …… 크게 받[았고] …… 참으로 다른 어떤 나라나 족속이나 방언이나 백성보다 더 은총을 받[았다].”(앨마서 9:20) 큰 축복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쉐리 엘 듀 자매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로 봉사할 때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무릇 많이 주어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되[며]”(교성 82:3), 때때로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들은 감당하기에 힘겹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영원한 영광을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성장하리라는 것을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념으로 서로를 위로하려 함으로써 세상 일에는 몰두하고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행동 표준은 언제나 세상의 표준보다는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구원을 포함한 보상은 더욱 영화롭고 무한합니다.”(“우리는 하나님의 여성입니다”,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118~119쪽)

앨마서 10:2~3. 리하이—“므낫세의 후손”

• 므낫세의 후손인 리하이의 가계는 구약의 요셉에게 준 약속이 부분적인 성취된 것이다. 임종을 앞두고서 요셉은 주님께서 그의 후손에 관해 주신 확신에 대해 말했다.

“내가 주께 한 가지 약속을 얻었음이니, 곧 …… 주 하나님께서 한 의로운 가지를 내 허리에서 …… 일으키시고, ……

그리고 이렇게 되리니, 그들은 또다시 흩어질 것이요 한 가지가 꺾어져 먼 나라로 이끌려 나갈 것이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들은 주의 성약 안에서 기억되리라. ……

이같이 내 조상의 주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

그런즉 네 허리의 열매가 기록할 것이요 유다의 허리의 열매가 기록할 것이다. 네 허리의 열매에 의해 기록될 것과 또한 유다의 허리의 열매에 의해 기록될

것이 함께 자라 거짓 교리들을 무너뜨리며 다툼을 가라앉히며 네 허리의 열매 가운데 평화를 이루며 후일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 조상에 대하여 알게 하고 또한 나의 성약에 대하여 알게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조성, 창세기 50:24~25, 27, 31; 또한 니파이후서 3:5, 12 참조)

• 리하이와 이스마엘은 둘 다 요셉의 후손이었으며, 광야로 떠나기 전에는 유다 왕국에 속해 있던 예루살렘에서 친족들과 함께 살았다. 한 저자는 왜 리하이가 요셉의 후손이었음에도 유다 후손들이 주로 거주하는 예루살렘에서 살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몰몬경을 공부하는 학생 중 일부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대부분 주전 721년경에 앗수르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요셉의 후손들이 주전 600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지를 의아해 한다. 역대하에 나오는 한 구절에서 이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이 성구에서는 주전 941년경에 그 땅을 다스리던 왕인 아사가 예루살렘에 모든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역대하 15:9)을 모았다고 언급되어 있다. 대략 주전 941년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 가운데에서 나와서 …… 사는 자들’ 중에 리하이와 이스마엘의 조상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Daniel H. Ludlow, *A Companion to Your Study of the Book of Mormon* [1976], 199)

앨마서 10:22~23. “의인들의 기도”

• 의로운 사람들의 기도가 국가에 미친 영향에 주목한다. 또한 의로운 사람들의 기도 덕분에 후에 모로나에 대장과 레이맨인인 사무엘 시대에 니파이인들이 멸망을 면할 수 있었다.(앨마서 62:40; 힐라맨서 13:12~14 참조)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은 우리 시대의 기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모든 계명에 따라 생활하고 의로운 삶과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을 멸망으로부터 지켜 낸, 정직하고 충실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성도의 벗, 1971년 10월호, 19쪽) 앰몬아이하 성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없어지자 성을 보호하려는 의로운 이들의 기도는 그쳐버렸다. [결국] “앰몬아이하 사람 중 모든 산 자가 멸망당[하였다].”(앨마서 16:9)

앨마서 11:22. “은 여섯 온타이”

• 온타이는 니파이인 사회에서 가장 가치가 큰 화폐였다. 앨마서 11장에 니파이인의 화폐제도가 언급된 목적 중 하나는 지에즈롬이 앰울레크에게 “지존자의 존재를 부인한다면”(앨마서 11:22) 주겠다고 한 뇌물의 규모를 설명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은 여섯 온타이는 앰몬아이하 사회에서 판사의 42일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앨마서 11:3, 11~13 참조)

앨마서 11:34~37
제3니파이 9장 21절에 나오는 구주의 말씀과
앨마서 11장 34~37절에 나오는 앰울레크가 지에즈롬에게 한
대답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엘마서 11:40. 속죄는 어떤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하는가?

• 엘마서 11장 40절에 대해 종종 오해가 발생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만을 위해 고통을 당하셨다고 엠올레크가 가르쳤다고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경전에는 구주께서 “아담의 가족에 속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모두, 곧 모든 살아 있는 피조물의 고통을 겪으[셨다.]”(니파이후서 9:21; 또한 모사이야서 4:7 참조)고 나온다. 그러나 인류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주께서는 “나의 피는 그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교성 29:17)라고 말씀하셨다. 분명히 엠올레크가 전하고자 한 말은 간악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속죄는 부분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 회개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구주께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엘마서 11:41~45. 부활

• Bible Dictionary(성경 사전)에는 부활이 “영체가 살과 뼈로 된 육체와 재결합하여 다시는 분리되지 않는 상태”(“Resurrection,” 761;

또한 경전 안내서, “부활” 참조)라고 정의되어 있다. 부활에 대한 지식은 필멸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 신성한 진리와, 그것이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믿고 신뢰하는 개인들에게 오는 “산 소망”에 대해 설명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얻은 ‘산 소망’은 죽음이 우리 존재의 끝이 아니라 필멸에서 불멸로 가는 운명적인 변이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라고 확신합니다. 이 소망은 필멸의 생을 보는 관점을 완전하게 변화시킵니다. ……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 개개인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멸의 생에서 부딪히는 난관들, 곧 선천적,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신체와 정신, 또는 정서적 결합 등을 견뎌 낼 힘과 안목을 얻습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필멸의 생에서 겪는 결함이 단지 일시적일 뿐이라는 점을 압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게 되면 필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겠다는 강력한 동기가 부여됩니다. ……

…… 더욱이 필멸의 상태에서 회개와 용서를 통해 죄가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는다면(엘마서 5:21; 니파이후서 9:45~46; 교성 58:42 참조) 우리는 ‘명백히 상기하게 되고’(엘마서 11:43)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부정함[에] …… 대한 완전한 지식’(니파이후서 9:14; 또한 엘마서 5:18 참조)을 그대로 지닌 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 현실의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여러 경전 구절에서 부활 이후에 곧 마지막 심판이 뒤따른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니파이후서 9:15, 22; 모사이야서 26:25; 엘마서 11:43~44; 42:23; 몰몬서 7:6; 9:13~14 참조) 참으로 ‘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엘마서 34:32)입니다. ……

또한 우리가 불멸에 이르는 부활을 확실히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의 죽음, 특히 때가 이르다고 할 수 있는 죽음도 맞이할 용기가 생겨납니다. ……

우리가 불멸을 확신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현세에서 이별을 맞는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 확실한 부활이 있기에 현세에서 하는 이별이 일시적임을 알고, 소망을 안고 계속 삶을 영위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부활을 가능하게 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리아호나, 2000년 7월호, 18~19쪽)

• 칠십인 일원으로 봉사할 때, 스티어링 더블류 실(1903~1994) 장로는 부활이 가져오는 축복 중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부활체는 “빠른 감각과 더 커진 지각력, 그리고 사랑과 이해력과 행복에 대해 엄청나게 커진 능력을 갖춘, 모든 이해를 넘어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44쪽)

•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또한 부활할 때 우리 신체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부활할 때 개인의 용모에 대해서 염려할 이유가 없다. 신체에 관한 한 죽음은 정화 과정이다. 노년의 용모는 사라질 것이며 신체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선사하는 완전한 활력을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은 당연하다. 어린이들은 어린이 모습으로 일어날 것이다. 무덤에서는 성장이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그들 영체의

모습처럼 다 자랄 때까지 계속 성장할 것이다.”(*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1966], 4:185)

엘마서 12:9

이 구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지식을 얻는 것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엘마서 12:9.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하나님의 비밀은 단순히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구원을 위해 필요한 신성한 복음 원리라고 설명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을 충실히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비밀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 복음은 매우 단순하여 책임질 수 있는 연령에 이른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원리들이 있으나 충만한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명백하고



타당하며 능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침례, 속죄 같은 ‘단순한’ 복음 원리들은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비로울 뿐이다.”(*Church History and Modern Revelation*, 2 vols. [1953], 1:43)

하나님의 비밀은 “비밀”, 즉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은 것들을 합당하지 않게 추구하는 것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이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밀이라는 표현은 또한 제한적이고 한정적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성구로서보다는 일상 생활 용어로 더 자주 쓰일 때이며, 추리 영역에서 가르침의 본체, 곧 주님께서 오늘날 명확하게 계시해 주시지 않은 것들을 말한다. 또한 장로들이 비밀을 그대로 놔 두라고 권고 받을 때를 말한다.”(*Mormon Doctrine*, 2nd ed. [1966], 524)

엘마서 12:10~12.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더 적은 분량의 말씀”을 받는다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만약 우리가 성신을 통해 오는 계시를 거부하는 것은 곧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양을 제한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계시에 대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연구와 사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엘마가 말한 것처럼 ‘더 적은 분량의 말씀’만을 얻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The Lord’s Way* [1991], 42)

엘마서 12:12~14. 우리의 말과 행위와 생각에 따라 심판 받는다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심판이 단순히 필멸의 삶에서 행한 행위들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의 결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가르쳤다.

“선지자 니파이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최후의 심판을 설명했습니다. ‘만일 그들의 행위가 이제까지 더러움이었다면 그들이 필연 더러운 것이라. 또 만일 그들이 더럽다 할진대 필연코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거할 수 없으리니(니파이전서 15:33) 이에 모로나이는 이렇게 확언했습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몰몬서 9:14; 또한 요한계시록 22:11~12; 니파이후서 9:16; 교성 88:35 참조) 이와 똑같은 원리가 ‘이기심’이나 ‘불순종’ 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격과 일치하지 않는 기타 모든 개인적인 특성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엘마는 최후의 심판 때 악한 자들이 놓이게 될 ‘상태’에 대해 가르치면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위와 생각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우리가 흠 없이 발견되지 못할 것이요 …… 이러한 참담한 상태에서 우리가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할 것이요’(엘마서 12:14)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최후의 심판이 단순히 선행과 악행의 총합 즉, 우리가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행위와 생각에 따른 최종 결과 즉,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판정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라도 통과 의례를 치르듯 시늉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에서 요구되는 계명과

의식과 성약은 하늘의 어느 예금 계좌에 적립해야 할 예금 목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존재가 될 방법을 보여 주는 하나의 계획입니다.”(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0쪽)

엘마서 12:15~18. “둘째 사망이 임하나니, 이는 영적인 사망이라”

• 둘째 사망에 대한 내용은 야곱서 3:11 (119쪽), 엘마서 40:26 (243쪽), 힐라맨서 14:15~19 (283쪽) 해설을 참조한다.

엘마서 12:21. 그룹

• 그룹은 하늘의 생물을 대표하는 형체들로서 그 정확한 형태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룹은 지성소, 궤 위의 속죄소(출 25:18, 22; 왕상 6:23~28; 히 9:5)에 나오며 에스겔의 시현(겔 10: 11:22)에도 등장한다. 아담의 타락에 관한 내용에서 그룹은 ‘생명나무의 길’(창 3:24)을 지키는 것으로 묘사된다.(경전 안내서, “그룹”, 36쪽 참조)



엘마서 12:24. “시험의 상태”

• 물몬경에서 엘마만이 시험의 상태 또는 시험의 시간이란 용어를 사용했다.(엘마서 42:4, 10, 13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톱 페리 장로는 이 시험의 시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상 생활을 하는 주목적은 세상이 생겨 나기 전부터 존재해 온 우리의 영이 필멸의 삶을 사는 훌륭한 기회를 누리는 동안 우리 육체와 하나가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영과 육이 결합하면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만 가능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며, 또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시험 상태로 일컬어지는 일정 기간에 한하는 시련을 겪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기에 합당한지 증명하기 위해 배우고 시험을 치르는 기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룩한 계획의 일부입니다.”(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16쪽)

엘마서 12:25~33

“구속의 계획”이란 제목은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칭하는 적절한 명칭이 되는가?

엘마서 12:32. 계획을 알려주신 후 계명을

•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팩커 회장은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젊은이들은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어떤 것을 하라는 계명을 받는가 그리고 왜 다른 것들은 하지 말라는 계명을 받는가? 행복의 계획을 알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교회에서 듣는 질문들 대부분을 나열하자면 낙태와 기타 여러 가지 것들, 신권 소유자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 신권이 없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등 계획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는 답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에 가장 좋아하게 된 성구입니다. 그런 구절은 항상 변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구속의 계획을 알려 주신 후, …… 계명을 주셨나니’(엘마서 12:32; 기울임체 첨가) ……

…… [학생들에게 ‘왜’라는 질문에 답을 주려면 이 방식을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구속의 계획을 알려 주신 후, …… 계명을 주셨나니’](“The Great Plan of Happiness” [Church Educational System symposium on the Doctrine and Covenants, Aug. 10, 1993], 3; LDS.org under gospel library/additional addresses/CES addresses 참조)

생각해 볼 점

- 엘마서 8장 18절에는 엘마가 앰몬아이하로 “속히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산으로 데려갔다고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속삭임을 받을 때 이 구절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 엘마서 10장 6절을 읽는다. 앰올레크가 “여러 번 부름을 받았으나”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제언 과제

- 엘마서 9장 8~14절은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러분이 한 특별한 영적 경험들을 간단하게 목록으로 만든다. 또한 부모님과 조부모님께도 여쭙어 그분들의 삶에서 겪은 특별한 영적 경험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목록을 만든다. 이 목록들을 정기적으로 살펴보고 계속 추가해 나간다면 어떤 축복이 오겠는가?
- 엘마서 11~12장에는 부활에 관해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나오는 부활의 주요 교리와 부활과 심판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짧은 보고서를 작성한다.

소개

여러분은 전세에서 의로운 선택을 하고 필멸의 생을 준비하기 위해 선택의지를 사용했다.(엘마서 13:3~5 참조) 여러분이 전세에서 의로웠기 때문에 이생에서도 꾸준히 충실함을 보여 준다면 더 많은 축복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예비되어 있다. 엘마가 이생에서 우리가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안식”(엘마서 13:12)에 들어가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주목한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이 세상의 간악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점을 기억한다. 비록 많은 수가 쫓겨나가거나 죽임을 당했지만 엠몬아이하에서 회개하고 엘마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님께 축복을 받았다.(194쪽에 나오는 엘마서 14:7~11 해설 참조) 엠올레크는 엘마에게 간악한 이들이 저지르는 악행으로부터 의로운 사람들을 구해 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엘마는 엠올레크에게 선택의지라는 원리를 설명하고 복음을 위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을 확신시켜 주었다. 간악한 사람은 이생에서나 다가올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 받을] 것이다.

해설

엘마서 13:1~2. “그의 아들의 반차를 따라” 성임된 제사들

• 엘마는 “그의 아들의 반차를 따라”(엘마서 13:1) 성임된 제사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의 아들의 반차를 따[라]라는 구절은



멜기세덱 신권과 관련된 말이다. 현대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멜기세덱 시대 이전에는 신권을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좇는 성 신권이라 하였[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경외하는 뜻에서” 명칭이 멜기세덱 신권으로 변경되었다.(교성 107:3~4)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엘마서 13장에서 왜 몰몬경에 나오는 많은 다른 구절처럼 아론 신권 제사와 멜기세덱 신권 대제사를 구별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했다. “몰몬경 선지자들은 이 경륜의 시대에 대제사로

알려진 직분에 제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즉, 그들은 멜기세덱 신권 제사들이며 엘마가 표현한대로 ‘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그의 거룩한 반차를 따라 제사들을 성임하[셨다.]’(엘마서 13:1~20)”(*Mormon Doctrine*, 2nd ed. [1966], 599)

엘마서 13:3~5.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부름을 받고 예비되었나니”

•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이생에서 부름에 성임된 사람들은 전세에서 그 부름을 예임 받았다고 가르쳤다. “이 세상의 주민에게 성역을 베풀도록 부름 받은 모든 사람은 이 세상 이전에 천국 회의에서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성임되었습니다. 저도 그 천국 회의에서 바로 이 직분에 성임되었다고 생각합니다.”(*History of the Church*, 6:364)

•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비”된 사람들은 전세에서 그들이 “선을 택하고 나서, 심히 큰 신앙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다.(엘마서 13:3; 또한 교성 138:55~56; 아브라함서 3:22~23 참조)

윌포드 우드럽(1807~1898) 회장은 선지자 외에도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모든 이스라엘 장로는 전세에서 예임되었다고 가르쳤다. “조셉 스미스도 예레미야처럼 태어나기 전에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 저는 조셉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셉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임명되었으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한 때에 지상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수천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신권을 주시고 여러분을 이 왕국 건설을 위한 주님 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생각해 봅니까?”(*Discourses of Wilford Woodruff*, ed. G. Homer Durham [1990], 281~282; 또한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2004], 15쪽 참조)

•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은 남녀가 모두 전세에서 각자 임무에 지명되었다고 가르쳤다. “전세에서 충실한 남성은 신권 임무에 예임되었으며, 충실한 여성에게는 어떤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상세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한때 우리가 동의한 영광스러운 사실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선지자와 사도로 지지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오래 전에 여러분에게 기대했던 그러한 임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의로운 여성의 역할”, *성도의 빛*, 1980년 3월호, 150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전세에서 어떤 위치에 선택되었는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드시] 이생에서 수행해야 하는 책임들에 대해 설명했다. “전세에 관한 교리는 한가롭게 여길 만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선택해야 하는 사항들, 끊임없이 해야 하는 어려운 일상, 경험해야 할 역경과 예기치 않은 일들, 잘 사용해야 할 시간, 잘 사용해야 할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 생활 이전에’ 태함 받았기 때문에 ‘지상 생활에서’ 아무래도 좋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예임되어 부름 받고 준비된 이들은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요한계시록 17:14; 교성 121:34~36 참조)”(성도의 벗, 1986년 1월호, 20쪽)

• 해롤드 비 리(1899~1973) 회장은 우리가 이생에서 받는 몇 가지 축복의 근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모든 보상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약속되거나 예임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세에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이러한 가정에 의문을 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곳에서 각자가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 받게 되리라는 믿음은 의심 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상 생활에서 받은 것은 우리 각자가 이곳에 오기 전에 한 행동의 결과라고 믿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Ensign, Jan. 1974, 5)

엘마서 13:4. 전세에서도 선택의지는 존재했다

• 전세에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거절”(엘마서 13:4)할 수 있었을까?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이 질문에 답하면서 선택의지라는 영원한 원리를 확인해 주었다.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서 자녀들에게 선택의지를 주셨습니다. 현세에 사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모든 영은 선택의지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거나, 아니면 악을 택하여 그 죄에 따른 결과를 겪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곳에서도 주님의 계명을 더욱 충실히 지키는 사람, 혹은 덜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

인간의 영은 선택의지를 갖고 있으며 …… 인간의 영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출발했을지도 모르며 모든 인간의 영은 태초에 무죄하였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의지를 행사함에 따라 어떤 이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되며 무한한 불멸의 존재를 통하여 더욱 지혜롭게 되고 더욱 충성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생각하며, 자유롭게 진리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진리에 거역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1권, 55쪽)

• 전세에서 영으로 있었을 때, 우리는 우리 능력을 보여 주는 훌륭한 특성들을 발전시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보이는 충실함에 따라 책임을 주셨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전세에서 살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다양한 특성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합당성과 능력 또는 부족함을 보여 주었으며, 하나님은 그러한 발전을 지켜보셨다. 그곳에 교회 조직이 있었다고 믿는 것은 타당하다. 천상의 존재들은 완전하게 조직된 사회에서 살았다. 각자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알았다. 신권이 부여되고 지도자들이 직분을 수행하도록 선택되었을 것이라는 점에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전세에 관련된 의식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쳤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누가 가장 합당한지 분별하고 선택하며 각 개인의 재능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시험에 놓이고 책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아셨다. 우리가 지상에 거할 시간이 왔을 때,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종들은 각자의 사명에 선택되고 임명되었다.”(The Way to Perfection [1970], 50~51)

엘마서 13:6, 18

대제사에 성임된 사람은 어떤 책임을 맡는가?

엘마서 13:9. “그들은 …… 영원히 대제사가 되나니”

• 멜기세덱 신권은 “시작하는 날이나 끝나는 해가 없[기]”(엘마서 13:9; 교성 84:17; 또한 히브리서 7:3 참조) 때문에 지상에서 신권을 받은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신권을 계속 행사한다. 그러므로 의롭게 죽은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은 “영원히 대제사가 되[는 것이다.]”(엘마서 13:9)

해롤드 비 리 회장은 이생에서 받는 모든 신권 직분이 다음 세상에서도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다음 경험을 이야기했다.

“저는 엔사인 스테이크 회장단을 재조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한 와드 감독을 스테이크 회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단이 지지를 받은 후 6주 후, 스테이크 회장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편지 공세를 받았습니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6주 만에 데려가실 사람을 어떻게 영감으로 부른 것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니다. 그들은 저에게 장례식에서 말씀을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중 몇 명은 주님께서 6주 만에 데려가실 사람을 임명한 이유를 듣고자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만족할 만한 답을 전하려 애쓰는 저에게 연단에 앉아 계시던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로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만약 형제님이 교회에서 어떤 직책에 부름을 준 사람이 다음날 바로 죽었다고 해도 그 직책은 그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니다.’

저는 교회의 역대 회장, 역대 사도, 모든 감독, 스테이크 회장 등 감리 직분에 있던 모든 지도자가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이 부름 받았던 직책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임을 믿습니니다.”(성도의 빛, 1973년 9월호, 34쪽)

엘마서 13:10~13. 부름 받고 예임된 이들은 많았다

• 엘마는 전세에서 “지극한 신앙”(엘마서 13:10)을 보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엘마는 형제들에게 다시 신앙을 행사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 “열매를 맺[으라고]”(엘마서 13:13) 간청했다.

해롤드 비 리 회장은 전세에서 용기를 보여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예임되었지만, 부름에 따르는 축복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생에서 신앙을 행사하고 선행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교성 121:34 참조)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 즉 첫째 지체 때 특정한 일을 하도록 영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으나 그들이 이곳에서 그 부름을 받아들이고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 충실한 봉사와 선행으로 그 부름을 영화롭게 하느냐는 선과 악 중에서 선택하는, 즉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권리와 특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 저는 영의 세계에서 충실함을 보였기에 이곳에서 위대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우리 중에 마치 돈을 분별 없이 헤프게

쓰는 것처럼 분방한 생활을 하는 데 선택의지를 행사함으로써, 부름에 충실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얻었던 장자권과 축복을 잃는 사람들이 많을까 봐 두렵습니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름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도다.’”(Decisions for Successful Living [1973], 169)

엘마서 13:11~12. 성결

• 엘마는 많은 사람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깨끗해졌고 “성신에 의해 성결하게” 되었다고 가르쳤다.(엘마서 13:11~12; 또한 모로나이 10:32~33 참조) 성결하게 된 후, 그들은 “혐오함이 없는 죄를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엘마서 13:12; 또한 니파이후서 4:31 참조) 그러나 성결하게 되고 성신을 통해 깨끗해졌음을 느낀 사람도 그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유혹을 받는다. 현대 계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그러므로 교회 회원은 조심하며 항상 기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할지이다. 그러하도다. 또한 성결하게 된 자까지도 조심할지이다.”(교성 20:33~34)

브리검 영(1801~1877) 회장은 성결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저는 성결이라는 말을 모든 죄를 극복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시키는 것이라 정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순수한 영을 두셨습니니다. 이 [영]이 방해를 받지 않고 주도권을 행사하며, 육신을 이기고 다스리며 통제할 때 저는 이것을 성결의 축복이라 부릅니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집니까? 아니요, 사라지지 않습니니다. 하늘의 섭리에서는 그렇게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니다.

우리가 이생에서 죄를 짓게 하는 유혹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생에서 육신과 영이 성결하게 될 수 있고 깨끗해져서 다시는 진리의 대적으로부터 영향력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생에서 그 정도로 완전한 단계에 이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없으며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남아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있기에 사망도 들어왔습니니다.(로마서 5:12) 우리는 살아 있는 한 죄의 영향력을 다소 느끼고 마침내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Daniel H. Ludlow, A Companion to Your Study of the Book of Mormon [1976], 2:248~249)

앨마서 13:13~19. 뿔기세텍, 위대한 대제사

• 대제사 뿔기세텍은 후기 성도들에게 큰 존경을 받는다. 앨마는 뿔기세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큰 자가 없었나니”(앨마서 13:19)라고 말했다. 이 위대한 선지자는 누구인가? 뿔기세텍은 주전 2천 년경에 살았으며 대제사였고 살렘(예루살렘; 창세기 14:18 참조)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는 당시에 감리하는 신권 권세를 소유했으며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바친 인물이다.(창세기 14:20 참조) 뿔기세텍은 어렸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다].”(조성, 창세기 14:26) 성경에는 그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현대 계시를 통해 그가 큰 신앙을 지닌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뿔기세텍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의 성역은 예수 그리스도 성역의 전조가 되었고 그리하여 상위 신권의 명칭을 그의 이름을 따라 부르게 되었다.(히브리서 7:15; 교성 107:2~4 참조)

앨마서 13:16. “주의 안식”

• 앨마서 13장 6, 12~13, 16, 29절에는 “주의 안식”(또한 교성 84:24 참조)이라는 말이 나온다.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은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주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 생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느낄 수 있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더 이상 방해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간증 안에 확립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에서 승영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는 곧고 좁은 길에서 어떠한 세력도 저를 실족하게 하지 못할 것이며, 지금으로부터 천국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때까지, 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 426쪽)



앨마서 13:20. 경전을 “왜곡”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 사전에서는 왜곡이란 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비틀다 …… 일그러뜨리다, 진리에서 돌이키거나 본래 의미를

비틀다 …… 곡해하다.”(Noah Webster’s First Edition of an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828 [1967]) 경전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실제 의미를 변경하거나 비틀어서 자신의 의견이나 해석과 일치시킨다. 논쟁을 일으키기 위해 경전을 조작하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영감을 받은 것이다.(앨마서 12:1~6; 14:6~7 참조) 경전을 왜곡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멸망뿐이다.(앨마서 13:20 참조)

앨마서 13:22~26. 천사의 실재성

• 몰몬경은 천사의 실재성과 목적을 증거한다.(앨마서 13:22~26; 32:23; 제3니파이 17:24; 모로나이서 7:29~31; 교성 20:10 참조) 천사의 실재성에 대해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 “저는 몰몬경에서 다루는 심오한 주제 중 하나가 복음 이야기에서 천사가 하는 역할, 잦은 등장, 중심적인 참여라고 확신합니다. ……

살아갈수록 우리 생활에 더 중요해지는 것들 중 하나는 천사의 실재성, 그리고 그들의 일과 성역입니다. 저는 여기서 모로나이 천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주위에서 좀 더 개인적으로 성역을 베풀며, 우리를 도울 권한이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제3니파이 7:18; 모로나이서 7:29~32, 37; 교성 107:20 참조) ……



저는 우리가 좀 더 자주 천사의 성역에 대해서 말하고 믿으며 간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사의 성역은 회장을 통해 증거하는 하나님의 훌륭한 방법 중 하나이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기록도 몰몬경처럼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이 원리를

가르치는 책은 없습니다.”(“For a Wise Purpose,” *Ensign*, Jan. 1996, 16~17)

앨마서 13:27

이 구절에서 앨마가 앰몬아이하 백성들에 대해 지닌 사랑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앨마서 13:28.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시험 받지는 않을 것이다

• 브리검 영 회장은 우리가 사탄과 죄에 대항하여 벌이는 끊임없는 전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해의 왕국에서 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들이 매일 [모든 의의 적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 [1954], 392) 우리 각자는 적극적으로 유혹을 피하고 저항해야 한다.

앨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시험 받지 않도록 “깨어 항상 기도하여[야]”(앨마서 13:28) 한다고 가르쳤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린도전서 10:13) 앨마서 13장 28절에 나오는 앨마의 권고를 따름으로써 우리는 항상 유혹에 맞설 수 있다.

앨마서 14:7~11. 의로운 사람들의 순교

• 앨마는 충실한 앰몬아이하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신권 권능과 신앙으로 끔찍한 죽음에서 구해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앨마서 14:11 참조) 앨마는 엠올레크에게 주님께서는 의로운 순교자들을 박해자의 사악한 행위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앨마서 14:11; 60:13 참조)

칠십인에서 봉사하던 시절에 로날드 이 폴맨 장로는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선택의지를 불의하게 행사하여 의로운 이들이 고통 당하는 일을 허용하신다고 확인했다. “순종심 있고 충실한 사람들이 삶에서 겪는 역경은 질병, 사고, 무지 혹은 대적의 영향력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선택의지를 유지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의로운 이들이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사악한 행위의 결과로 고통을 받는 일을

허락하십니다.(니파이전서 18:16 참조)”(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27쪽)

• 분명히 우리는 간악한 사람들의 손에 고통을 당한 의로운 이들의 죽음을 슬프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그들이 받을 보상(앨마서 40:12 참조)과 해의 왕국에서 받을 그들의 최종 상태(교성 76:50~70 참조)를 알고 기뻐한다. 교리와 성약 42편 46절에는 이렇게 나온다. “내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음이 그들에게 달 것임이니라” 이것은 의로운 이들의 죽음에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받을 영원한 보상이 아주 커서 상대적으로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뜻이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제 친구와 친척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릴 만큼 제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볼 때 눈물을 흘립니다. 제 영혼은 인간의 자녀들에 대해 동정심을 느낍니다. 그들이 올 때 저도 함께 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할 때 저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죽음이 있다고 하여 애도하거나 슬퍼할 이유는 없습니다. ……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후기 성도들에게서 거두어졌습니다. 그들은 현세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법하여 죽음이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덕분에 삶이 오며, 그래서 죽음이 찾아와도 이후에 다시 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조차도 기뻐합니다. 다시 일어나고, 무덤 너머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Conference Report, Oct. 1899, 70)

• 의롭고 무죄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어떤 이들은 비판적인 사람이 되거나 신앙을 잃는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우리가 고통을 목격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권고를 주었다.

“만약 우리가 현실에 주어진 것만으로 영생을 바라본다면 고통, 슬픔, 실패와 단명은 엄청난 재난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전세에서 내세까지 멀리 뻗어 있는 영원한 것으로 본다면 일어나는 모든 일이 지당하다고 인식될 것입니다.

우리가 딛고 일어설 시련, 성취할 책임, 우리 근육을 단련시킬 일, 우리 영혼을 시험할 슬픔을 주시는 것에 그분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을 시험할 유혹,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질병, 불멸과 영광을 얻게 될 죽음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아픈 사람들이 모두 다 낫는다면, 의로운 사람들이 모두 보호받고 간악한 이들이 모두 멸망한다면, 아버지의 전체 계획은 무효가 되고 복음의 기본 원리인 선택의지는 끝나버릴 것입니다. 아무도 신앙으로 살아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기쁨과 화평과 보상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즉시 주어진다면 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선을 행하겠지만 선행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힘을 시험하고, 성품이 발전하고, 권능이 커지며, 선택의지가 없어지고, 오로지 사탄의 통제만 있을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우리의 이기적인 소망과 우리의 제한된 이해력대로 즉시 응답된다면 고통, 슬픔, 실망, 심지어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기쁨, 성공, 부활 또한 없을 것이며 영생과 신성도 없을 것입니다.”(Faith Precedes the Miracle [1973], 97)

엘마서 14:25~28. 엘마와 엠올레크의 구출

-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엘마와 엠올레크 이야기를 사용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신앙을 증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도움은 언제나 영원한 율법에 기초를 둡니다. 율법을 잘 이해할수록 그분의 도움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

…… 엘마와 엠올레크의 예를 보면 그 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앰몬아이하 백성들 사이에서 선을 행하려 애쓰다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엠올레크는 자신보다 경험이 더 많은 동반자 엘마를 믿었고, 엘마는 주님에 대한 더 큰 신뢰로 엠올레크를 이끌었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했던 엠올레크가 ‘아마도 그들이 우리도 사르리이다’라고 말하자 엘마는 ‘주의 뜻대로 될지니라’ 하고 대답하며 지극히 중요한 원리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 우리의 일이 끝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를 사르지 아니하느니라’[엘마서 14:12~13; 기울임체 첨가]

대판사와 그 외 다른 사람들이 며칠에 걸쳐 조롱과 헐박을 퍼부었으며 그들을 때리고, 침을 뱉고, 굶기고, 심문하고, 괴롭혔습니다. 말을 하라고 강요받았음에도 그들은 별거벗겨진 채 묶인 몸으로 버티며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알려 주실 때까지 조용히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엘마와 엠올레크 위에 있으며, 이들이 일어나’ 셧습니다. 엘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을 좇아 우리에게 힘을 주사, 구원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고, 저들을 결박한 줄을 끊[었습니다.]’[엘마서 14:26; 15~26절 참조] 땅이 흔들리고 감옥 벽이 갈라졌습니다. 엘마와 엠올레크를 매질하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으며 엘마와 엠올레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

……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겸손한 가운데 구조를 구한다면 주님은 신성한 권능으로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7~8쪽)

엘마서 15:2~3. 지에즈롬

- 지에즈롬이 변화한 이야기는 각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증명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따르기로 성약을 맺는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지에즈롬은 앰몬아이하 성에서 부정직한 변호사였으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엘마와 엠올레크를 고소하여 선한 것을 멀하고자 했다.(엘마서 10:13, 31; 11:21 참조) 그러나 지에즈롬의 속임수는 드러났고 그는 “그 죄를 깨닫고 떨기”(엘마서 12:1, 7) 시작했다. 지에즈롬은 적대자에서 진지한 구도자로 변화했다.(엘마서 12:8 참조) 엘마와 엠올레크가 사이돔 성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지에즈롬이 “자기의 간악함으로 인한 그 마음의 큰 환난”(엘마서 15:3)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회개하여 믿는 자가 된 지에즈롬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병고침을 받고, 침례를 받았으며, 그 순간부터 힘있는 전파자가 되었다.(엘마서 15:6~12 참조) 수년 뒤에 지에즈롬은 엘마와 엠올레크와 함께 조람인들에게 선교 사업을 했다.(엘마서 31:6 참조)

엘마서 15:3~5. 지에즈롬, 마음을 괴롭힌 죄

- 지에즈롬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동안 영과 마음에 괴로움을 겪었고 “심히 고통스럽게 되었[다.]”(엘마서 15:3)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큰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영적 장애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씀했다. “우리에게는 만질 수는 없으나 육신과 같이 정말 실재하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만질 수 없는 부분은 마음, 정신, 감정, 지능, 기질 등으로 묘사됩니다. 영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실체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장애도 있는데, 이 영적인 장애는 심한 고통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과 영은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가끔 장애가 생길 때, 그것이 신체적인 장애인지 영적인 장애인지 구분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성도의 빛, 1978년 2월호, 89쪽)

엘마서 15:16

복음대로 생활하고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앰울레크는 무엇을 포기했는가? 앰울레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또한 엘마서 34:8; 이더서 12:12~13 참조)

엘마서 16:2~3, 9~10. 엘마의 말이 온전히 성취되었다

• 엘마는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큰 염려”를 하며 앰몬아이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간청했다.(엘마서 13:27) 그들의 선지자로서 엘마는 회개하지 않으면 “지면에서”(엘마서 9:12) 완전히 멸망당하리라고 경고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모두 성취시키겠다고 약속하셨다.(교성 1:37~38 참조) 엘마서 16장 2~3, 9~10절에는 엘마의 말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기록, 즉 선지자를 거부하고 무죄한 사람을 죽인 이들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다.

생각해 볼 점

- 남성들은 전세에서 멜기세덱 신권을 받도록 예임되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는가?(엘마서 13:3~5 참조)
- 주님께서 때때로 무죄한 사람들이 간악한 이들의 손에 고통을 당하도록 허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엘마서 14:9~11 참조)
- 지에즈롬이 부정직한 변호사에서 힘있는 복음 전파자로 변화된 기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는가?

제언 과제

- 엘마는 왜 멜기세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는가? “이제 그의 전에도 많은 자들이 있었고, 후에도 많은 자들이 있었으나, 더 큰 자가 없었나니, 그러므로 그에 대하여 특별히 더 언급한 것이더라.”(엘마서 13:19) 다음 구절들을 연구하여 엘마가 멜기세덱이 받은 사명의 중요성을 왜 칭송했는지를 찾아 이 질문에 답한다. 엘마서 13:14~19; 창세기 14:18~20; 조성, 창세기 14:25~40; 조성, 히브리서 7:3; 교리와 성약 107:2~4.
- 엘마서 14장에 나오는 성구와 엘마서 14:7~11 해설(194쪽)에 나오는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는 간단한 수필을 쓴다. 왜 의로운 사람들에게 비극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이생의 비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소개

암몬과 그의 동반자들은 영혼의 가치를 알고, 사랑을 보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주님의 종으로서 모범이 되었다. 그들이 한 경험을 학습하면서 여러분은 개인적인 준비의 중요성, 의로운 모범을 보일 때 발휘되는 힘, 여러분이 봉사하는 사람들과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더욱이 암몬과 그 형제들은 그들이 봉사한 사람들에게 강한 믿음이 있음을 알았다. 영, 사랑, 간증에 관한 복음 진리를 나누기 위해 그들이 찾아낸 방법들을 살펴본다. 그들이 보인 모범을 따른다면 여러분도 주님의 손에 든 강력한 도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올 수 있을 것이다.

해설

엘마서 17:2.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과 우정을 쌓다

•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수확”하기 위해 함께 일하면서 사랑의 유대를 형성한다. 이 유대는 신앙과 간증에 대한 공통된 경험을



하면서 깊어진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는 자신의 첫 번째 선교사 동반자와 재회했던 일을 들려주었다. 그 동반자는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다.

“몇 년 전에 제 아들 리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저의 첫 번째 선교사 동반자가 이웃에 사는데, 잠시 저를 만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다가 재회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선교사 시절, 우리에게는 오하이오 주에 있는 한 신도시를 새로 개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임무를 받은 우리는 열 달 동안이나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저의 훈련 선교사이자 첫 번째 동반자였습니다. …… 그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무척 힘들었지만, 함께 봉사하면서 우리는 동반자로서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동반자 관계는 열 달에 걸쳐 수행한 임무와 함께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고, 저는 귀환하여 채 적응하기도 전에 군대에 징집되었습니다. 훈련소에서 맞은 첫 번째 일요일에 저는 후기 성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우 낮은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제 첫 번째 동반자였습니다. 우리는 그 후 2년 반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비록 군대라는 환경이 선교사 때와는 달랐지만, 우리는 선교 사업을 계속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자주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건이 될 때에는 함께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

우리 두 사람은 부대 지휘관으로 선발되어 다시 한 번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가르치며 봉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전일 선교사로 봉사하던 때보다 군대에서 더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경험 많은 귀환 선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첫 번째 동반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문은 그와 함께 지내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는 불치병을 앓았고, 그로부터 겨우 몇 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선교 사업을 하던 나날을 회상하고, 귀환한 후에 지내온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너무나 값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독단,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회장단 등에서 봉사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물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자랑 또한 빼놓지 않았습니다. 함께 앉아 다시 만난 기쁨에 감격스러워하면서 저는 엘마서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리아호나, 2002년 1월호, 89~90쪽)

엘마서 17:2~3

암몬과 그의 형제들은 권능과 권세로 복음을 나누기 위해 어떻게 준비했는가? 여러분은 이 원리들을 실행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엘마서 17:2. 그들은 “부지런히 경전을 상고하였[다]”

•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경전 공부를 했다. 마찬가지로 하이럼 스미스는 선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그분의 말씀을 얻으려 애쓰라는 권고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교성 11:21~22 참조) 선교사 지도서인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서는 복음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주요 요소로서 성신을 구하고, 배우려는 강한 소망을 지니며, 배운 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여러분의 복음 공부는 성신을 통해 배울 때 가장 효과적이다. 복음 공부를 할 때는 성신이 여러분의 공부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성신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확신을 가져다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은 커질 것이며, 회개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소망 역시 커질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학습은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고, 위로를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며, 끝까지 견딜 힘을 준다. 성공적인 복음 공부에는 의욕과 행동이 필요하다. '이는 부지런히 찾는 자가 찾을 것이며, 하나님의 비밀이 성신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펼쳐질 것임이니, 고대에서와 같이 이 시대에도 역시 그러하며, 장차 올 시대에서'(니파이전서 10:19)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노스처럼 여러분이 영생의 말씀을 알고자 갈망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스며(이노스서 1:3)들게 할 때, 성신은 더 큰 빛과 이해를 얻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 줄 것이다.

복음을 공부하는 것도 계시를 받는 과정이다.(야곱서 4:8 참조)"(2004, 18쪽)

- 이외에도,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서는 경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경전 일지 기록을 권장한다. 경전을 공부하는 동안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기록한다면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

"여러분이 배우는 것을 이해하고, 명확하게 하고,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 학습 일지를 자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주의를 기울여 기록한 지식은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기록한 곳에 보관하여 여러분이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주님께서 아시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더 많은 빛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영적인 지식을 얻음, 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88쪽) 영적인 경험을 기억하고, 새롭게 깨달았던 점들을 살펴보고, 자신의 발전을 확인하기 위해 학습 일지를 살펴본다.

학습 일지는 제본된 일지책, 공책, 혹은 바인더를 사용해도 좋다. 여러분이 배우는 방식에 적합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나중에 중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한다. 자주 사용하여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살펴보고, 찾아보고, 적용한다. 학습 일지를 사용하여 메모를 하고 얻게 되는 느낌을 기록한다.”(x쪽)

앨마서 17:3. 기도와 금식에서 얻는 유익

-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다음 이야기를 전하면서 주님께 봉사할 때 금식과 기도에서 얻을 수 있는 힘에 대해 설명했다. “수년 전에 충실한 개종자인 조지 맥로글린 형제님은 메인 주 파밍데일에서 회원이 20여 명 되는 조그만 지부를 이끌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유 배달로 생계를 꾸려가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금식과 진지한 기도를 드리면서 맥로글린 형제님은 자신과 지부 회원들이 그 지역에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해 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커다란 신앙과 끊임없는 기도, 강력한 모범을 통해 회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로, 이 경륜의 시대에 펼쳐진 위대한 선교사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일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지부에는 450명이나 되는 개종자 침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개종자 200명이 더 생겨났습니다.”(리아호나, 2003년 5월호, 38~39)

앨마서 17:9.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금식

-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선교 사업 기회를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모든 회원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모든 회원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인식시킵시다. 회원들이 노력하게 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합시다.” (“양을 찾고 먹이라”,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20쪽)



-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주님의 사업을 할 때 기도하여 인도를 구하라고 권고했다. “복음을 나누는 가정에서는 자신이 인도받도록 기도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적, 영적 복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가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엘마 시대에도 복음을 나누는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혼의 복리를 위하여 함께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앨마서 6:6)했습니다.”(리아호나, 2006년 5월호, 85쪽)

엘마서 17:11, 21~29

주님께서 모사이아의 아들들에게 준 임무와 약속은 무엇인가?

엘마서 17:11. “선한 본을 보일지니”

• 암몬과 그 형제들은 레이맨인들에게 복음을 나누기 전에 먼저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웠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우리 신앙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이웃과 알고 지냅시다.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일, 그들의 견해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들이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함께 어울리되, 강압하거나 다른 의도로 그렇게 하지는 맙시다. 우정은 결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정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

……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배경과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합시다.

둘째, 비회원이거나 비몰몬과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몇 가지 표현을 없앤다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표현은 품위를 떨어뜨리고 심지어 경시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자신이 ‘비카톨릭’ 혹은 ‘비유대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구분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아닌 것으로 구별되기보다는 제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로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 같은 예의를 보입니다. 일반적인 통칭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이웃’이라는 말이 적절한 듯합니다.

셋째,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혹은 우리가 도덕적인 이유로 지지하는 일부 법률에 대한 의견 차이로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시할 때 농담일지라도 결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떠한지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회원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척자 조상들은 자신들에 대해 알지 못하고 마음이 편협한 이웃들 때문에 이곳 저곳으로 쫓겨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믿었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과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로부터 다른

것을 못 배웠다 해도, 모든 사람에게서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만큼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리아호나, 2002년 1월호, 37~42쪽)

• 엘 톱 페리 장로는 우리의 모범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이끌 수 있는지 설명했다.

“열아홉 살 된 한 선교사는 자신의 선교 지역에서 보낸 첫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큰 교훈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와 선임 동반자는 선교 본부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를 새로 개척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 도시에 도착한 선교사들은 거리를 건다가 한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 정문에는 목사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교회 앞을 지나선 선교사들을 본 그 목사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 온 회중에게 따라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윽고 회중은 선교사들을 따라가며 이름을 불러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더 난폭하게 반응했고 급기야는 선교사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장로는 선교 임지 첫날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벌써 나는 돌을 맞기 시작했구나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돌이 날아와 그의 등 한가운데를 맞혔습니다. 그러자 그의 감정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선교 임지로 가기 전에 그는 뛰어난 야구 투수였습니다. 화가 나서 주위를 둘러보던 장로는 땅에서 맨 먼저 보이는 돌을 주워 들고는 뒤돌아서 그 유명한 투수 자세를 취하였고, 군중을 향해 그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그때 그는 불현듯 자신이 거기에 있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 먼 브라질까지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간 목적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손에 든 돌로 무엇을 하려 했습니까? 그가 돌을 땅에 내려 놓으면, 사람들은 그것이 연약함을 표시한다고 생각할 것이며 아마도 계속 그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군중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멀리 있는 전신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체면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장로는 돌아서서 그 돌을 전신주로 던져 정확하게 정중앙을 맞혔습니다.

그러자 군중은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그 돌이 자기들 중 한 사람의 양미간을 맞힐 수도 있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선교사들이 아닌 그 전신주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그 장로는 그 거리를 지날 때마다 돌 던지기 시합을 하자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돌 던지기 시합은 복음 토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개종자들이 나왔고 그 지역에 교회 지부가 설립되었습니다.”(“Prophecies, Visions, and Dreams,” 1979 *Devotional Speeches of the Year* [1980], 3)

엘마서 18:3~9.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봉사

-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물리적인 봉사가 어떻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다른 종들이 암몬이 행한 일의 증거를 가져오자 라모나이 왕은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소서, 그는 왕의 말을 먹이고 있나이다. 그는 당신께 봉사하기 위하여 분부한 모든 일을 하고 있나이다.’(엘마서 18:8~9 참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암몬은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도록 부름 받았지만 마구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암몬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가르칠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암몬은 마구간에 있었습니다.

라모나이 왕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왕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옳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라모나이 왕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짓 교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암몬이 어디에 있는지 들었을 때, 종들을 죽인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으로 죄책감을 느낀 것을 기억하십니까?(엘마서 18:5 참조) ……

저는 라모나이 왕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가 자신의 교리 때문에 얼마나 혼란에 빠져 있었는가에 항상 주목했습니다. 라모나이 왕의 가슴에 영을 구하려는 마음이 생겨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게 된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왕의 심령은 상했습니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암몬이 행한 속세의 일을 통해서 왔습니다. ……

…… 결코 여러분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영적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 그들의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것이라는

점입니다.”(“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줄 물몬경”, *리아호나*, 2004년 2월호, 13~14쪽)

엘마서 18:10

이런 면에서 좀 더 암몬처럼 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엘마서 17장 25절과 18장 3절은 18장 10절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엘마서 18:24. 암몬은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다

- 교회의 많은 회원은 어떻게 복음에 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를 걱정한다. 암몬은 라모나이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 질문하면서 대화를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에게 단순히 자신의 “교회 생활”에 대해 들려주는 방법이 자연스럽다고 말한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친구들과 복음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훌륭한 권고를 주었다.



“복음을 나누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복음을 나누려는 친구들을 만나고 우의를 다지는 데 많은 시간을 바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 생활로 들어올 것이며, 우리가 교회 회원임을 처음부터 밝힌다면 별로 오해를 살 위험 없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쉽게 복음에 대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친지들은 이것을 우리 정체성 중 일부로 받아들일 것이며, 그들도 편안하게 질문할 것입니다. ……

프랑스에 있는 한 자매님은 [선교 사업에 관한]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기쁨을 나눌 뿐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이미 교회 회원인 것처럼 그들을 대합니다. 만일 줄을 서 있다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경우, 일요일에 교회 모임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직장 동료가 “주말 어떻게 보냈어?” 하고 물을 때 저는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합니다. 교회에 가서 무슨 말씀을 들었고, 성도들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나눕니다. 제가 어떻게 생활하고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리아호나, 2006년 5월호, 86쪽)

엘마서 18:24~28. 공통된 믿음 위에 쌓기

- 칠십인 일원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로렌 시 던(1930~2001) 장로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하고 공통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관계를 쌓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오늘날 우리는 논쟁, 불화, 이견, 잘못에 대한 비난과 역습, 불일치가 팽배한 시대에 삽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사랑과 용서가 융화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의견이 다르고도 불쾌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음성을 낮추고, 폭풍우가 한 차례 지나간 후에도 우리는 다시 서로 어울려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됩니다.”(성도의 빛, 1991년 7월호, 81쪽)

- 암몬이 라모나이 왕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다. “왕은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시나이까?”(엘마서 18:24) 암몬은 라모나이가 위대한 영을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엘마서 18:28)라고 간증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위대한 영”이 아니다. 그러나 암몬은 멀리 내다보고, 절대자에 대한 공통된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 거기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암몬은 창조주에 대한 라모나이의 근본 믿음을 간파하고 “그의 마음을 밝혀 [줄]”(엘마서 19:6) 영원한 진리를 덧붙여 가르쳤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있는 선함을 우리가 어떻게 더 발전시켜 주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우리는 사랑의 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디에서 얻으셨는지 여러분께 이미 있는 모든 선함과 여러분이 아는 진리 그대로 교회에 오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더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곳에 있는 남성과 여성들에게 권유합니다.”(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81쪽)

엘마서 18:36~39; 22:7~14.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다

- 암몬이 라모나이에게 가르칠 때 “세상의 창조[에서] 시작하여, 사람의 타락에 관[하여]”(엘마서 18:36) 가르치고, 끝으로 “구속의 계획을 [왕과 그의 종들에게] 설명”하며, 특히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엘마서 18:39) 가르쳤다. 마찬가지로 아론은 라모나이의 부친에게 구원의 계획에 관한 이 중요한 기본 원리들을 가르쳤다.(엘마서 22:12~14 참조) 창조, 타락, 속죄의 실재성을 배움으로써 사람은 현세에서 자신이 처한 위치와 영원한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게 될지 이해할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창조, 타락, 속죄라는 이 기본 교리를 “영원의 세 기둥”으로 부르며 “영원에 걸쳐서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 중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영원한 계획 전체를 이해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 이 세 가지는 나머지 모든 것이 놓이는 기초입니다. 그 중 하나만 없어도 모든 것은 목적과 의미를 잃고,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The Three Pillars of Eternity,” Brigham Young University 1981 Firesides and Devotional Speeches [1981], 27)

-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계획에서 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이 계획에는 창조가 필요했으며, 그 다음에는 타락과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이것들이 이 계획을 이루는 세 가지 기본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낙원 상태인 행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의 타락을 통해 필멸하는 상태와 죽음이 세상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불멸과 영생할 가능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조, 타락, 속죄는 창조가 실제로 시작되기 오래 전에 계획되었습니다.”(리아호나, 2000년 7월호, 102쪽)

엘마서 18:41~43; 22:15~18.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우리

- 암몬과 아론은 라모나이와 그의 부친이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존재임을 이해할 때 개종이 일어난다. 라모나이와 그의 부친은 모두 자신이 타락한 상태이며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구속에 대한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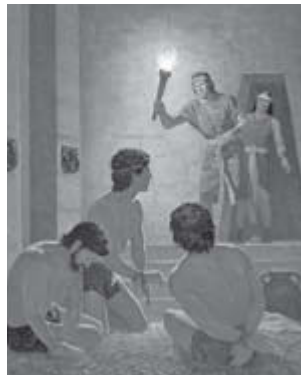
원터 라인, 교회역사 미술 박물관의 허락을 얻어 게재함

엘마서 18:42. 극적인 개종은 흔한 일이 아니다

• 모사야서 27:25 해설(165쪽 참조)에 나오는 에스라 테프트 벤슨 회장의 말씀을 참조한다.

엘마서 20:30. “더 완악하고 더 목이 뻣뻣한 백성”

• 아론과 그의 동반자들은 “더 완악하고 더 목이 뻣뻣한 백성[들]”(엘마서 20:30) 가운데서 봉사했다고 기록되었다. 그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거나 적대적인 사람들을 가르친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경험을 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우리가 모든 영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듯 보이는 사람들에게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 저 사람들에게 설마 위험한 일이 일어날까?”

위험은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실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면전에서 가족과 더불어 영생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의 손으로 침례를 받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선택하는 것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이 영원히 함께하는 유일한 길은 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스러운 성약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준 것을 여러분이 다시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할 것입니다.”(리아호나, 1999년 1월호, 33쪽)

엘마서 22:15~18

라모나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무엇을 기꺼이 포기하고자 했는가? 그러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또한 움나에서 1:26 참조)

엘마서 22:18. “당신을 알기 위하여] …… 나의 모든 죄를 버리겠나이다”

• 라모나이의 부친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기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해야 한다. *Lectures on Faith*에서 우리는 영원한 진보를 위해 희생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다. “모든 것에서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생명과 구원에 필요한 신앙을 낳을 만한 충분한 힘이 없다. 인간이 처음 존재할 때부터 생명과 구원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신앙은 지상의 모든 것에 대한 희생 없이는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희생을 통해서만 영생을 누리도록 정하셨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이 희생을 매개로 하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사람이 진리를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할 때, 생명까지도 마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희생을 치르도록 부름 받았다고 믿을 때, 그 사람은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희생과 제물을 받아들여주시며, 앞으로도 받으실 것이고, 자신이 헛되이 자신의 체면을 구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 사람은 영생을 사수하는 데 필요한 신앙을 얻을 수 있다.”(1985, 69쪽)

• 알렉산더 비 모리슨 장로는 칠십인으로 봉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에 관하여 가르쳤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받드는 것은 그분이 요구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 기꺼이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가치가 항상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단순히 주며 [그분]을 알[기] ……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는]”(엘마서 22:18)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름이나 무관심이나 사악함으로 표준을 따르지 못할 때, 약하거나

시기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욕욕적이거나 천박할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는 것입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려고 꾸준히 노력할 때, 다른 사람을 돌보고 봉사할 때, 사랑으로 이기심을 극복할 때,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우리의 복지보다 먼저 생각할 때, 서로의 짐을 지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모사이야서 18:8~9) 될 때,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권능을 끌어 오며, 점점 그분과 같이 되고, 우리가 계속한다면 [우리의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교성 50:24) 될 것입니다."(리아호나, 2000년 1월호, 32쪽)

생각해 볼 점

- 암몬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라모나이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 복음 진리를 받아들일도록 누군가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배척과 “온갖 고난”(엘마서 20:29)에 처한 아론과 그의 형제들이 보여 준 모범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제언 과제

- 암몬과 그의 형제들이 니파이 땅에 다다랐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1) 주님의 말씀을 확립하고, (2) 고난 중에 인내하며, (3) 선한 모범을 보이라고 명하셨다. 그리하면 그들이 성공을 거두도록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엘마서 17:11 참조) 종이에 이 세 가지를 제목으로 적는다. 그런 다음 엘마서 17~22장을 공부하면서, 각 제목 아래 그들이 주님의 지시에 순종했음을 나타내는 예들을 나열한다. 또한 나열한 각 예가 어떻게 레이맨인들이 진리의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적는다.
- 선교 사업과 관련된 원리들을 목록으로 만든다.(엘마서 17~22 참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활에서 이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본다.

소개

엔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성약을 맺은 사람에게 어떤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 준다. 그들은 인생 모든 면에서 구주의 모범을 따르려 진실한 노력을 기울일 때 오는 진지하고 온전한 개종의 본보기가 된다. 개종한 레이맨인들과 더불어 모사이아의 아들들과 엘마 또한 선교 사업과 의로운 생활을 통해 회개하고, 성약을 지키며, 주님께 봉사하고자 끊임없이 소망할 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을 보여 준다. 엘마서 23~29장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개종하는 데 필요한 힘을 키우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행동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때 얻는 기쁨에 대한 수많은 표현들을 살펴본다.

해설

엘마서 23:1~5.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 레이맨인 왕은 백성들 사이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던 제제를 없앴으며, 선교사들은 그 나라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 이야기와 비슷한 사례를 들려주었는데, 그것은 독일 민주 공화국 정부에서 교회 활동을 금지한 후 수년이 흐른 뒤에 다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배경 이야기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승인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님과 한스 비 링거 장로님과 저는 독일 민주 공화국에 있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인 헨리 브르크하르트 회장님, 프랑크 아펠 회장님, 만프레드 슈체 회장님을 선두로 하여 먼저 중무담당 쿠르트 뢰플러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훌륭한 오찬을 베풀었습니다. 장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회원들을 20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들임을 압니다.’

정부 지도자들이 각자 부인과 함께 드레스덴 스테이크 센터와 츠비카우에 있는 예배당을 헌납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다시 만나 불 동안’을 불렀으며 우리는 평강의 왕이시며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고통의 길, 눈물의 길, 의의 길을 걸으신 우리 구주 주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구주께서 하신 다음 말씀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그런 다음 국가 수반인 에리히 호네커 의장과 중요한 모임을 하기 위해 베를린으로 갔습니다.

…… 우리는 정부 수석 대표들의 공관 응접실로 갔습니다.

정교하게 건축된 건물 입구에서 호네커 의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도록 돕는 어머니를 모사한 첫걸음이라는 조그마한 조각상을 주었습니다. 그는 선물을 받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개인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커다랗고 둥근 탁자에 앉았습니다. 탁자 맞은 쪽에는 호네커 의장과 정부 대표들이 앉았습니다.

호네커 의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 회원들이 일의 중요성을 믿는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것도 보여 주셨습니다. 조국이 어디이든 간에 어느 곳에서나 훌륭한 국민으로 생활한다는 것도 알며, 그것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네커 의장님, 프라이베르크에 있는 성전 헌납식과 개관식에 귀국 시민 89,890명이 이따금 비를 맞으면서까지도 4시간씩이나 줄을 서서 하나님의 집을 보고자 했습니다. 라이프치히 시에서 열린 스테이크 센터를 헌납할 때에는 12,000명이 건물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드레스덴 시에는 29,000명이 방문했고, 츠비카우 시에는

5,300명이 참석했습니다. 프라이베르크 시에 있는 성전에는 매주 1,500~1,800명이 성전 경내를 방문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국법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고 싶습니다. 강한 가족 유대를 이루려는 우리의 소망을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중 두 가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에 답할 수도 없고 우리의 느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선교사들이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귀국에 선교사로 보내려는 젊은이들은 귀국과 귀국의 백성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귀국 국민들의 품위를 높여 주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 교회 회원인 귀국 젊은이들이 미국, 캐나다, 기타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귀국에서 책임 있는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 다음 호네커 의장은 약 30분 동안 그의 목적과 관점을 이야기하고 국가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웃는 얼굴로 저와 일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압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인지 겪어 보았습니다. 선교사 활동 요청을 승인합니다.’

그때 저는 말 그대로 넋을 잃었습니다. 모임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정부 공관을 떠날 때 러셀 벨스 장로님이 저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복도에 햇빛이 비쳐 들어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칠후 같은 밤은 끝이 났습니다. 한낮의 밝은 빛이 떠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그 나라에 있는 수백만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관한 질문에 답을 얻고, 하나님의 왕국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하신 다음 말씀이 떠오릅니다. ‘만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 아니하는 자들 외에는 사람이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거나 어느 누구에게도 그의 진노가 불붙지 아니하느니라.’(교성 59:21) 저는 독일 민주 공화국에서 교회에 관하여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66~67쪽)

앨마서 23:6. 주님께 돌이키고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 엔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 중 교회를 떠나거나 저활동이 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앨마서 27:27 참조)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새로운 개종자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힝클리 회장은 개종자들이 활동적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선교 사업은 무의미할 뿐이라고 말씀했다.



“전 세계에서 선교 사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종자가 자신의 와드나 지부에서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노력도 그만큼 늘어나야 합니다. 금년에 교회에 들어올 사람들은 평균 규모에 해당하는 새로운 스테이크를 100개 이상 조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렇게 개종자는 늘고 있지만 우리는 일부 새로운 회원을 등한시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온 교회는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개종자를 보유하기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중대합니다. 우리가 선교 사업으로 거둔 결실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 한 선교 사업은 무의미합니다. 그 두 가지는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50쪽)

앨마서 23:17. 엔타이-니파이-리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 엔타이-니파이-리하이라는 이름은 니파이 후손 및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리하이의 다른 후손들이 함께 연합한 것을 의미하는 말일 수 있다. “엔타이-니파이-리하이에서 ‘엔타이(anti)’는 애굽어 nty 곧 ‘…… 중의 하나라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반(against)’이란 의미보다는 ‘니파이와 리하이 백성 중 하나라는 의미가 더 적합하다.”(Stephen D. Ricks, “Anti-Nephi-Lehi,” Dennis L. Largey, ed., *Book of Mormon Reference Companion* [2003], 67)

앨마서 24:10. 속죄를 통해 제하여진 죄업

-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적용할 때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다고 간증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생이 끝날 때 우리를 영적 사망인 타락으로부터 구속시켜 주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속죄는 그 이상입니다. 속죄는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 불러올 수 있는, 항상 존재하는

권능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거나 슬픔으로 무거운 짐을 질 때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속죄를 이루셨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빌립보서 4:7]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

우리는 모두 잘못을 저지릅니다. 때때로 혼자서는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고칠 수 없는 것들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나면 혼자서는 치유할 수 없는 죄책감과 수치와 고통이 내면에 스며듭니다. 그때가 바로 속죄의 치유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은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교성 19:16] ……’

속죄는 실질적이고 개인적이며 매일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기도와 같은 매우 간단한 시작으로 속죄의 힘은 발휘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잘못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회개를 통해 죄책감이 없어지고 화평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리아호나, 2001년 7월호, 26~27쪽)

앨마서 24:11. 회개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

- 엔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들은 “회개[하기 위해] ……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앨마서 24:11)을 모두 했다. 니파이후서 25장 23절에서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임[이라.]” 엔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을 이끌던 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중 일부가 “우리의 모든 죄[를] …… 회개”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다.

앨마서 24:17~19. 모든 무기를 땅 속 깊이 묻어버렸더라

- 무기를 땅 속 깊이 묻음으로써 엔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은 그것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주님께 약속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그들이 굳건하였고, 죄를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기까지라도 고난을 받고자 하였[다.]”(앨마서 24:19) 그들이 한 이 일은 진지한 회개로 죄를 완전히 버렸음을 입증한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은 죄를 버리기 위해 종종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죄를 버리려고 할 때, 단순히 상황이 더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자신이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그는

얼룩진 오점이나 죄를 미워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는 죄를 버렸음은 물론 죄를 둘러싼 환경도 바꾸어야 한다. 그는 죄가 발생했던 장소나 상황이나 환경도 멀리 해야 하는데 이는 이러한 것들이 또다시 죄의 온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는 죄와 관련된 사람들도



멀리 해야 한다. 그는 관련된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들을 피해야 하며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 해야 한다. …… 옛 추억을 일깨우는 모든 것을 없애 버려야 한다.”(용서가 낳는 기적, 158쪽)

엘마서 24:22~27. 의로운 사람들이 모범을 보일 때 많은 사람이 개종하게 된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는 성약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결심이 다른 사람의 개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했다.

“엔타이-니파이-리하이 왕은 백성들에게 레이맨인 형제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올 때 무기를 쓰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도록 무기를 땅 속 깊이 묻어 버리라고 지시했다. 백성들은 왕이 내린 지시를 따랐고, 이 행동을 ‘하나님께와, 또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결코 다시는 사람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증거’(엘마서 24:18)로 생각했다. 레이맨인들이 공격해왔을 때, 엔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들은 ‘[그들을 맞으러 나가서, [그들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엘마서 24:21) 레이맨인들은 엔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 일천다섯 명을 죽인 후에야 살육을 멈추었다. 그들이 살육을 멈춘 이유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한가? 엘마서에 나오는 다음 기사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

‘이제 레이맨인들이 이를 보고는 그들을 죽이기를 그만두었고 …… 그 마음이 속에서 복받친 자가 많았으니, 이는 저들이 그 행한 일을 뉘우쳤음이라. ……

…… 그 날 죽임을 당한 수보다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합하였으며, 죽임을 당한 자들은 의로운 백성이었으므로, 우리는 그들이 구원되었음을 의심할 아무 이유가 없느니라.’(엘마서 24:24~26) ……

이 이야기가 비록 반전에 대한 일반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퍼붓는 공격을 되받아 치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다른 뺨을 돌릴 때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평화를 사랑하는 모범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따르도록 영감을 받는다.”(*Living with Enthusiasm* [1996], 127~128)

엘마서 24:30. 중립 상태를 떠나는 것

- 교회 회원이 된 이후에 교회에서 떨어져나가는 사람은 대체로 “이러한 것들을 결코 알지 못했던 것보다 더욱 나빠[진다.]”(엘마서 24:30)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교회 회원과 나눈 대화에서 그러한 상태를 설명했다. 아이작 베후닌 형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록 제가 교회를 떠난다 해도 저는 그들처럼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몰몬이즘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외진 곳으로 가서 정착할 것이며, 제가 그것에 대해 알았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위대한 선견자는 즉시 이렇게 대답했다. ‘베후닌 형제님, 형제님은 자신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이들도 한때는 형제님같이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형제님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으며 선과 악이 형제님 앞에 놓였습니다. 형제님은 어느 한쪽을 택하거나 아무 것도 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형제님에게 자신들을 섬기라고 권유하는 상반되는 두 주인이 있었습니다. 형제님이 교회에 가입했을 때 형제님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형제님은 중립 지대를 떠난 것이며,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형제님이 섬기기로 한 주인을 떠난다면, 그것은 악한 자가 선동했기 때문일 것이며, 형제님은 그의 명령에 따르고 그의 종이 될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323~324쪽)

엘마서 25:1~12. 성취된 예언

- 엘마서 25장 1~12절에는 노아 왕의 간악한 제사들에 관하여 아빈아다이가 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기록되어 있다.(모사이야서 17:15~20 참조) 아빈아다이의 예언이 성취된 이야기를 몰몬이 독자들을 위해 어떻게 기록했는지 살펴본다. 아빈아다이 같은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선지자가 죄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맞게 되는 결과에 주목한다. 현대 계시에서도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발꿈치를 [드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가 나온다.(교성 121:16~22 참조)

엘마서 25:17. 주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입증하셨다”

- 엘마서의 이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큰 교훈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사이야 왕에게 많은 사람이 그의 아들들이 전한 가르침을 믿을 것이며 그분께서 그들을 “레이맨인들의 손에서”(모사이야서 28:7) 건져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약속이 성취된 이야기를 보려면 엘마서 17장 4, 35~39절; 19장 22~23절; 26:1~4절을 참조한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실 수 밖에 없다는 교리적 진리를 확인해 주는 수많은 성구 중 하나일 뿐이다.(교성 82:10  참조)

엘마서 26:5~7. 곡식 단이란 무엇인가?

- 단이란 단어는 낱알이 달린 곡식 줄기 여러 개를 다발로 묶은 것을 의미한다. 암몬이 엘마서 26장 5절에서 단을 언급한 것은 충실한 선교사들이 낫질을 하여 교회로 데려온 개종자들을 뜻한다.

엘마서 26:11~14
 암몬이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구주의 권능과 자비를 기뻐했다는 증거들은 무엇인가?

엘마서 26:15~16. “누가 주 안에서 지나치게 영광스러워할 수 있느냐?”

- 우리도 암몬처럼 주 안에서 영광스러워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쉐리 엘 두 자매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에서 봉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시대에 담당하시는 역할을 가르쳤다.

“역경 속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불확실함 가운데서도 평안을, 냉소주의가 팽배한 한복판에서도 희망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오랜 습관을 떨치고 변화하여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성인 미덕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세상에서 고결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의 속죄는 우리가 이 세상의 짐을 홀로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살아오면서 제 자신의 힘보다 훨씬 큰 힘과 지혜에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압박과 낙담으로 무너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저를 잊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이 교회가 그분의 교회임을 직접 깨달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암몬이 한 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누가 주 안에서 지나치게 영광스러워할 수 있느냐? 참으로 누가 그의 크신 권능과 그의 자비(를) …… 지나치게 말할 수 있느냐? 보라, …… 나는 내가 느끼는 바의 지극히 적은 부분도 말할 수 없노라.’(엘마서 26:16) 이 때가 찬경륜의 시대를 맞이하는 새벽녘에 루시퍼가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여행을 위협하고, 우리를 구주의 속죄 권능으로부터 떼어 놓기 위해 애쓰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위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리아호나, 1999년 7월호, 78~79쪽)

엘마서 26:27. 인내는 성공으로 연결된다

- 모사이야 아들들은 레이맨인들에게서 그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엘마서 26:30~31 참조) 그들이 선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내가 너로 내 손에 든 도구를 삼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리라”(엘마서 17:11) 이 약속으로 그들은 “레이맨인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용기를 얻었다.”(엘마서 17:12)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해서 대가 없이 성공이 오지는 않았다. 14년에 걸쳐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그들은 “온갖 고난을 겪었다.”(엘마서 26:30) 기록에는 그들이 “낙심하여, 바야흐로 되돌아가려”(엘마서 26:27) 했다고도 나온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계속 노력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늘 그러하시듯이, 약속을 지키셨고 그들의 인내를 보상에 주셨다.



제리 톨슨 © IRI

엘마서 26:27~30. 선교 사업의 실재성

• 칠십인인 에프 버튼 하워드 장로는 선교사 시절에 엘마서 26장을 읽고서 물문경의 진실성에 대한 간증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설명했다.

“저는 엘마서 26장과 암몬의 선교 사업 이야기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하듯이 책에 나오는 인물에 제 자신을 대입해서 제가 그 말을 하고 있거나 듣고 있고, 제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려 노력하면서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면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명확함을 느꼈습니다. 영이 제 영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네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알겠느냐?**”

전혀 예상치 못한 느낌이었습니니다. 놀라운 느낌이었습니니다. 전에는 결코 해 본 적이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 이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네, 저는 낙심하여 집에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레이맨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려 멀리 외국 땅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들 가운데로 나아갔고, 고난을 겪었으며, 마룻바닥에서 잠을 잤고, 추위를 견디었으며, 먹지 못하며 지냈습니다. 저 또한 여러 달 동안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렸지만 한 번도 들어오라는 초대를 받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리와 언덕에서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침을 맞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구역 지도자로 봉사할 때 선교부 회장님께서 새로운 도시에서 전도하라는 임무를 주신 일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세 장로들과 함께 선교사들이 발을 들여 놓은 적이 없는 그 도시 중앙 광장으로 들어간 일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공원으로 가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구역 지도자인 제가 복음을 전할 큰 행운이 온 것입니다. 저는 돌 벤치에 올라서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복음이 회복된 이야기, 숲 속으로 들어간 소년 조셉의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조셉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침대 소년들이 떼지어 와서 우리에게 돌을 던진 것을 기억했습니다.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맞거나 부상을 입을 것을 걱정하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경찰 당국이 선교사 활동에 대한 법적 권리를 결정하는 나라에서 감옥에 갇혀 시간을 보낸 일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암몬과 견줄 만큼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문이 닫히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주님의 자비에만 의지하며 구해 주시기를 기다리던 당시 느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몇몇이라도 구원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를]’(엘마서 26:30) 바라는 마음으로 견뎌 내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은 그날, 영은 제게 다시 한 번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은 오늘날까지도 제게 남아 있습니다. **오직 선교사만이 이 이야기를 쓸 수 있다. 조셉 스미스는 레이맨인들에게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아는 사람 중에 전에 그런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Ammon: Reflections on Faith and Testimony,” *Heroes from the Book of Mormon* [1995], 124~125)

엘마서 27:21~24. 우리의 적을 용서하라

• 엘마는 전에 제이라헤들라 주민들에게 마음을 바꾸라고 경고했다.(엘마서 5:6, 12~14, 26 참조) 또한 주님께서 “만민에게 초청을 보내[신다고]”(엘마서 5:33) 선포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니파이를 통해 하신 다음 초대와 일치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는 검거나 희거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다.]”(니파이후서 26:33) 제이라헤들라 주민들은 엘마의 메시지를 받아들였고, 적을 용서할 필요가 생겼을 때 그들은 암몬 백성에게 땅을 주고 그들을 보호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1907~1995) 회장은 우리 또한 각자 자신의 적을 용서하라고 권고했다.

“일례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태복음 5:44)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권고로 우리 이웃에, 우리와 우리 자녀가 사는 지역 사회에, 위대한 지구촌을 이룬 국가들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르침이 제시하는 목표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직면하는 전쟁과

가난과 고통으로 야기되는 비참한 과업보다는 훨씬 받아들이기 쉬운 도전임을 저는 압니다. ……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길 소중한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기회에 가르침대로 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모두 좀 더 많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성도의 빛, 1993년 1월호, 18쪽)

앨마서 28:1~12. 의로운 자의 죽음에 따르는 소망

•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의로운 신권 지도자와 함께한 경험을 들려주었다.

“제 친구는 고통스러운 시련과 고난에 직면하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구절을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충실한 교회 회원인 그는 이제 몇 가지 일을 진지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던진 다음 질문들은 참으로 감동스러웠습니다. ‘끝까지 충실하게 견디기 위해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다했는가? 죽음은 어떤 것일까?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가족들은 충실하게 견디고 자립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토론하였는데, 구주께서 가르치신 교리에 그 답들이 명백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충실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행하며, 다른 사람과 정직한 거래를 하고, 가족을 보살피고 사랑하기 위해 생애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고 나면 곧바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즉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 대해 가르쳐주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의 세계는 의롭게 산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낙원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후, 그는 아내와 자녀, 손자 손녀를 포함한 모든 가족을 불러 모으고 모두가 부활하게 될 속죄의 교리를 다시 가르쳤습니다. 잠시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다는 것을 온 가족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요한계시록

14:13; 교성 42:46 참조) 그 친구는 축복을 통해 모든 것이 잘되고, 자신이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족을 준비시킬 시간을 다소 보낼 수 있고, 세상을 떠날 시간까지도 알게 되리라는 위안과 확신을 약속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에 자신이 내일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제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오후에 모든 가족이 옆에서 지켜 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계획을 이해하고 가족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 때 느끼는 위안입니다.

이 일과 제가 이십 대 초반 청년이었을 때 겪은 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공군에서 복무할 때 제 편대 소속인 조종사 한 명이 훈련 비행 중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저는 추락한 동료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그의 고향인 브루클린으로 운반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고인을 대면하고 장례식을 진행하는 동안 저는 그 가족 옆에 서고, 무덤 가에서 슬픔에 잠긴 그의 부인에게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기를 전달하는 영예를 받았습니다. 장례식은 어둡고 우울했습니다. 그 동료의 선함이나 업적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도 불리지 않았습다. 장례식이 끝날 때 그의 부인은 제게로 몸을 돌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밥, 제 남편은 이제 정말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때 그녀에게 침례를 받고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을 받는다면 남편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과 감미로운 부활의 교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녀 옆에 서 있던 성직자는 ‘지금까지 제가 들어 본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리군요.’ 하고 말했습니다.”(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66쪽)

앨마서 29:4~5.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신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영원한 축복을 결정한다고 가르쳤다.

“욕망은 …… 비록 가련하리 만큼 순진한 우리가 그 욕망의 결과를 진정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그러므로 오랜 기간을 즐기치게 소망한 바에 따라 우리가 궁극에는 무엇이 되며, 영원토록 무엇을 받게 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

그러므로 지독하리만큼 의로운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해의 왕국에서 자리를 얻고자 갈망하는 모든 남자와 여자는 매일같이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Journal of Discourses*, 11:14) 따라서 진정한 기독교 전사는 단순히 주말 용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 기억하십시오. 바로 우리 자신의 소망에 따라 여러 유혹의 크기나 솔깃함 정도가 결정됩니다. 유혹의 수위를 결정짓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욕망을 조율하고 단련하는 데에는 복음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요구됩니다. 아니, 이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확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하면서도 그대로 생활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진리가 참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사람들의 열정을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조율하고 단련시켜야 합니다.’(*Journal of Discourses*, 7:55)



…… 그러므로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조율하는 것은 인생에서 누리는 행복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인입니다.’(*Gospel Doctrine*, 5th ed. [1939], 297) 그러한 조율을 통해 성결하게 되고,

종래에는 브리검 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소망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가시적인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Journal of Discourses*, 6:170) 오로지 욕망을 조율하고 단련해야만 욕망을 우리의 적이 아닌 동맹자로 둘 수 있습니다.’(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21~22쪽)

생각해 볼 점

- 엔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이 보인 모범은 여러분이 더욱 깊이 개종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 엔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이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자신의 무기를 묻은 것처럼(엘마서 24:17~18 참조) 여러분 또한 자신이 온전히 개종했다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 니파이인들은 엘마가 행한 선교 사업(엘마서 4~15 참조)을 통해 모사이아의 아들들이 가르쳐서 개종하게 된 레이맨인들을 받아들이는 데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제언 과제

- 레이맨인들이 전쟁 무기를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묻어 버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죄나 약점을 없애야 한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없애고 싶은 죄 또는 약점 한 가지를 규명한다. 그것을 극복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 엘마서 26장과 28장을 읽고 암몬과 엘마가 말한,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들을 찾아본다. 그 이유들을 열거하고 그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여러분의 생활에 온전히 적용한다.

소개

엘마서 30~3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사상을 다룬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몰몬경은 두 가지 기본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도구 역할을 합니다. 첫째, 몰몬경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분명하고도 알기 쉽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

둘째, 몰몬경에는 그리스도의 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몰몬경은 거짓 가르침을 뒤집어엎고 논쟁을 잠재웁니다.(니파이후서 3:12 참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겸손한 사람들은 몰몬경을 읽으면서 오늘날 성행하는 사악한 가르침과 기만과 악마의 술책에 대항할 힘을 얻습니다. 몰몬경에 나타난 배도 형태는 오늘날 일어나는 배도와 유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몰몬경을 만들게 하시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짓된 교육, 정치, 종교, 철학 개념을 똑바로 이해하고 그에 대항하여 싸우는 방법을 알게 해주셨습니다.”(성도의 빛, 1975년 8월호, 40쪽)

코리호어가 어떻게 니파이 백성의 신앙을 멸하려 했는지 공부하면 우리 시대에 발생하는 그와 같은 파괴적인 논쟁을 더 잘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엘마가 코리호어에게 어떻게 대응했는지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파괴시키려 하는 이들로부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더 잘 준비될 것이다.

해설

엘마서 30장. 현대의 코리호어

- 칠십인으로 봉사했던 제럴드 앤 런드 장로는 현대에도 코리호어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 세상에는 코리호어가 가르친 것과 비슷한 철학들이 만연합니다. 책과 영화, 텔레비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학교 교실에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 시대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그러한 철학들이 가르쳐집니다. ……

…… 우리는 몰몬이 코리호어와 그의 가르침에 대한 완전한 기사를 우리에게 전하도록 영감 받았다는 증거를 분명하게 봅니다. 코리호어의 가르침은 오래된 교리이지만, 오늘날과 같은 고속 인쇄와 위성시대에도 만연한 사상입니다.”(“Countering Korihor’s Philosophy,” *Ensign*, July 1992, 20)

엘마서 30:6. 적 그리스도

- 경전 안내서에는 적 그리스도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구원의 참된 복음 계획을 가장하고 공개적으로나 은밀하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 또는 물건. …… 큰 적 그리스도는 루시퍼이나 그는 영적 존재와 필멸의 존재 양편으로 많은 보조자를 거느리고 있다.”(“적 그리스도”, 250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이다. 즉 참된 복음, 참된 교회, 참된 구원의 계획에 반대한다.(요한1서 2:19; 4:4~6)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것과는 다른 형태로 인간에게 구원을 제공한다. 시렘(야곱서 7:1~23), 니히(엘마서 1:2~16), 코리호어(엘마서 30:6~60)는 니파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망상을 전파한 적 그리스도들이다.”(*Mormon Doctrine*, 2nd ed. [1966], 39~40)

엘마서 30:7, 11.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금하는 아무런 법이 없었으니”

-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금하는 아무런 법이 없었[는데]” 코리호어는 어떤 근거로 체포되었는지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모사이야 왕은 포고문을 발행하여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 중 아무라도 핍박”(모사이야서 27:2)하는 것은 니파이인 법에 어긋난다고 선포했다.

분명히, 코리호어는 자신의 믿음을 따를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교회를 파괴하려 했기 때문에 그는 모사이야 왕의 포고문을 범한 것이다. 많은 제이라헤물라 백성들이 코리호어와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반면, 생애 대부분을 코리호어와 같은 믿음에 따라 살았던 암몬 백성들이 “그를 그 땅에서 끌고 나가게”(엘마서 30:21; 또한 8~20절 참조) 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암몬 백성은 코리호어의 가르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엘마서 30:12~18

코리호어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신앙을 공격하는 논쟁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엘마서 30:12~18. 코리호어의 전략

• 한 복음 학자는 코리호어의 철학이 현대 철학과 얼마나 많이 일치하는지를 설명했다. “코리호어는 모든 문제에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기를 고집하고, 모든 것을 “과도하게 흥분된 생각의 결과”(엘마서 30:13~16)로 여겼다. 코리호어는 옛 전통과 원시적인 미신의 압제에 대항하는 강력한 개혁 운동을 벌였다. 그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실상은 그렇지 아니한 일들’(엘마서 30:16) 믿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그들 조상의 어리석은 전통(엘마서 30:31)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코리호어는 옛 압제로부터 벗어나도록 새로운 도덕관을 주창했다.(엘마서 30:17~18, 25)



스카프 스노우, ©1982 IRI

제사들의 착취(엘마서 30:27)로부터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여 모두가 ‘자신의 것을 사용’(엘마서 30:28)할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엘마서 30:18)이라는 간단 명료한 자연주의를 전파했다. 또한 그 법칙에 따라 완전한 물질주의를 주창했다. ‘각 사람은 피조물의 경영을 좇아 이 생을 살아[야]’(엘마서 30:17)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어 아주 분명한 자유방임주의 철학을 전파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재능대로 변영하며, 각 사람은 자기의 힘대로 정복하며,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범죄가 아니라[고]’(엘마서 30:17) 말하면서 옳고 그름은 성공과 실패라는 자연 철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런 사고방식은 인간 행동에 나타나는 일종의 적자생존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옛 도덕관과 감정 억제를 제거하자는 이 주장들을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로 그들의 간악함 중에 그 머리를 들게 하였으니, 참으로 많은 …… 자들을 이끌어 내어, 음행을 범하게 하였[다].’(엘마서 30:18) 이 해방 정신 이외에도 코리호어는 어떠한 반대도 허용하지 않는 투쟁적 열의를 부추겼다. 이는 곧 모든 반대 의견을 ‘어리석은’(엘마서 30:13~14; 엘마서 30:31) 것이라 여기며 광란적이고 비정상적인 생각의 증거라고 말하는(엘마서 30:16) 현대 이데올로기의 뚜렷한 특징이다. 엘마가 생각하는 자유 국가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회인 반면에(엘마서 30:7~12) 코리호어는 모든 사람이

코리호어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회를 자유 국가라고 여겼다.(엘마서 30:24)”(Hugh W. Nibley, *Since Cumorah*, 2nd ed. [1988], 379~380)

엘마서 30:15~16. 코리호어의 그릇된 가르침

• “너희가 보지 못하는 일을 너희가 알 수 없나니”라는 코리호어의 가르침은 모든 사상과 지식이 경험에서 오며 경험으로 실험할 수 있고, 우리는 오직 느낄 수 있는 감각, 즉 보고, 냄새 맡고, 만지고, 듣고, 맛보는 것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만 알 수 있다는 철학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와 연관된 영적 경험은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미각을 통해 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코리호어의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은 영적 경험을 무의미하다고 치부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영적인 것은 대체로 일반적인 오감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경험에 대해 설명했다.

“제가 총관리 역원이 되기 전에 제게 큰 영향을 미친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 옆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글로 출판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간증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선생님이 틀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그러자 그는 반박했습니다. ‘선생님은 모르십니다. 아무도 그것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굴하지 않자 변호사인 그 무신론자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마 간증이란 주제에 관해 종지부를 찍을 만한 질문이라 생각한 듯합니다. ‘ 좋습니다.’ 그는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는지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대답하려 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젊은 선교사 여러분은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이 모든 것에 대해 즉각 답하지 못한다고 해서 멸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당황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조소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돌아서기도 합니다.(최막대와 넓은 건물과 조롱을 기억하십니까? 니파이전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제가 영과 증거라는 말을 사용하자 그 무신론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기도, 분별, 신앙도 똑같이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사실은 모르시는 겁니다. 만일 아신다면 어떻게 해서 아시는지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간증을 현명하게 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한 다음 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계시의 영이 전하는 첫 번째 알림에 유의할 때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깨끗한 예지가 여러분 안으로 흘러 들어 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으로 여러분은 급속하게 관념이 전환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계시의 원리 안에서 성장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146쪽)

아이디어가 마음에 떠올랐고 저는 그 무신론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금이 어떤 맛인지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는 '당연히 알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소금을 맛보셨나요?'

'지금 막 비행기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였지요.'

저는 '선생님은 단지 소금 맛이 어떤지 안다고 생각하실 따름이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금 맛이 어떤지 압니다.'

'만일 제가 소금과 설탕을 각각 한 컵씩 주고 맛보게 한다면 어떤 것이 설탕이고 어떤 것이 소금인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점 어린애 같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물론 저는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금 맛이 어떻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매일 경험하는 일이며 제가 아는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압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도 소금 맛을 본 적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 맛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는 잠시 생각한 후에 더듬거리며 시도해보았습니다. '저, 그게 말이죠. 그것은 달지도 시지도 않습니다.'


'선생님은 그것이 이리이러하지 않다고만 말했지 그것이 어떻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여러 번 시도했으나 그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금을 맛보는 것과 같은 일상 경험도 말만으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번 더 간증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선생님은 그 간증을 비웃고 정말로 제가 안다면 제가 어떻게 아는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소금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소금 맛이 어떻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식이 어떻게 저에게 왔는지 더는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계시고 그분은 진실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단지 선생님이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모른다고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압니다!'

저는 그가 헤어질 때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의지하시는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 경험을 한 이래로 저는 제가 영적으로 아는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의 등불", 성도의 빛, 1983년 10월호, 28~30쪽)

앨마서 30:17. 코리호어는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죄가 아니라고 가르쳤다

- 일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든, 복음은 상대적 가치 체계라는 것은 없다고 가르친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이 불가치성으로 삶을 대하도록 허용하거나 심지어 조장하며 정부, 기업체, 개인 관계에서 부정직을 미묘한 형태로 조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몰몬경에서는 옳고 그름이 있다고 가르친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열쇠는 몰몬경 안에서 찾을 수 있다.(모로나이 7:16~17  참조)

- 각 사람은 "자기의 재능대로 번영하며, 각 사람은 자기의 힘대로 정복[한다]"는 코리호어의 철학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차단시킨다.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범죄가 아니라"는 그의 철학은 인간에게 자기 중심적이며 상대적인 가치 체계를 일으킨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코리호어의 가르침에 담긴 이기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기적인 사람 중에는 신성한 율법이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그릇되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니파이후서 2:13

참조) 따라서 이기적인 사람들은 상황 윤리를 사랑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서 전적으로 재능과 힘대로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엘마서 30:17 참조)

따라서 이기심에 따라 의식적인 행동을 하여 끔찍한 실책을 범하는 것도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권능을 구하다 타락한 가인은 아벨을 살해한 뒤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유롭도다’(모세서 5:33; 또한 모세서 6:15 참조)

그러므로 극한 이기심에 따른 최악의 결과로, 약대는 삼키며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심각한 균형 감각 상실을 꼽을 수 있습니다.(마태복음 23:24 참조) 예를 들면, 오늘날 여러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부분적인 낙태 행위는 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심 때문에 팔죽 한 그릇이 잔칫상으로 보이고 은 30냥이 엄청난 보화로 보이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리아호나, 1999년 7월호, 27쪽)

엘마서 30:20~23.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

- 대제사 긴도나는 코리호어와 맞서 그에게 왜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성에 반하는 말을 했냐고 물었다. 코리호어는 질문을 회피하고 신자들과 지도자들을 공격했다. 코리호어는 교회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로 치부하려 했다.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그에 반대되는 가르침을 주었다.

“코리호어는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독립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그릇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태초부터 주장해 온 그릇된 내용입니다. 그 주장은 사실을 잘못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릇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고를 거부하면,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에서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영향력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거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를 사랑의 팔로 안아 다시 본향 가족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완전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권고를 거절할 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미움을 싹트게 하려는 목적을 좇는 다른 권능의 영향력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덕적 선택의지를 받았습시다. 그것은 그러한 권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는 어떤 것이든 우리가 선택하는 영향력에 전념할 수 있는, 박탈 불가능한 권리입니다.

선지자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관한 선택은 훌륭한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에 따른 유익을 얻을 것이나 아니면 현재 상태에 만족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믿는 것 또한 그릇된 생각입니다. 선지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선택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더욱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장차 영감 어린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방주를 짓는 노아를 돕겠다고 결정할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노아가 맨 처음 부탁했을 때입니다. 그 후 노아가 계속해서 부탁할 때마다 거절한 사람들은 영에 대한 민감성이 둔해지고 말았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노아의 요구가 더욱 바보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고 말았습니다.”(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25쪽)



© 2000 스티브 핀디슨

엘마서 30:25. 적 그리스도들은 종종 일부분은 진리를 이용한다

- 신앙을 파괴하려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통된 책략은 “허수아비” 논쟁이다. 즉, 진리에 대한 허수아비, 곧 거짓 이미지를 만든 다음 그 거짓 이미지를 공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참 이미지가 거짓되었다고 확신시킨다. 간단한 예로, 숙제를 다 하기 전에는 놀지 못하게 하는 부모를 자신에게 재미있는 일은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고 비난하는 자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잘못된 논리이지만, 종종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사용된다.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 후기 성도들이 믿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 거짓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다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려는 시도다. 코리호어는 이것을 긴도나에게 시도했다. “이 논쟁은 허수아비 논법이라고 부른다. 즉, 코리호어는 긴도나에게 긴도나가 믿지 않는 것, 곧 어린이들이 아담의 범법을 통한 죄를 물려받았다고 믿는다면 닦았다. 코리호어는 진리와 공정하게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호된 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긴도나가 잘못된 교리를 믿는다고 공격했다.”(Joseph Fielding McConkie and Robert L. Millet, *Sustaining and Defending the Faith* [1985], 90)

앨마서 30:29. 논쟁과 분쟁을 피하라

-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분쟁을 피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장로들은 불필요하게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에 관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은 온유함과 겸손함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죄인에게 회개하여 그리스도께 나아오라고 경고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 부패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과 헛된 논쟁과 분쟁하는 일을 피하십시오. ‘지금은 경고하는 날이지, 많은 말을 하는 날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한 곳에서 여러분의 간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난하거나 쓴 소리를 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얼른 가십시오. 여러분의 의무를 다 한다면 모든 일이 잘 되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모르는 일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1:468)

앨마서 30:37~44

참된 교회를 공격하는 코리호어를 반박하기 위해 앨마가 사용한 방법 중 적어도 세 가지를 나열한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진리를 옹호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앨마서 30:39. 개인의 간증에서 나오는 힘

-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적 그리스도에게 대항하는 한 가지 방법을 설명했다.

“코리호어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 것을 ‘어리석은 전통’이라고 조롱했다.

코리호어의 주장은 현대 독자에게 매우 동시대적인 [사상으로] 들릴 것이다. 앨마는 시간을 초월하고 궁극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무기인 개인의 간증에서 나오는 힘을 사용하여 그에 대응했다. 코리호어와 그 같은 부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행복에 반대한다는 것에 화가 난 앨마는 이렇게 물었다. ‘어찌하여 너는 이 백성에게 그리스도가 없을 것이라고 가르쳐, 그들의 기뻐함을 휘방하려 하느냐?’[앨마서 30:22]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느니라’”(Christ and the New Covenant [1997], 121)

앨마서 30:40.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 무슨 증거가 네게 있느냐?”

- 제럴드 엔 런드 장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리호어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앨마는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다는 무슨 증거가 네게 있느냐?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게는 아무 증거도 없고, 다만 네 말뿐이니라.’(앨마서 30:40)

이것은 앨마의 영감 받은 통찰이었습니다. 코리호어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일관성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경험으로 입증된 것들만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신념 또한 그에 대한 증거가 없는 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코리호어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코리호어는 오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증거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한 가설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증명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것은 사람이 보거나 듣거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전부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증명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지구 상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찾기 위해 우주 전체를 탐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동하실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A지점에서 시작하여 Z지점까지

탐색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A지점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동하셔서 우리가 나머지 지점을 모두 탐색할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코리호어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정한 기준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우주 공간을 동시에 지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코리호어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서 그는 '신앙'으로 행동했으며, 이것은 바로 코리호어가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조롱한 바로 그것입니다!"("Countering Korihor's Philosophy," *Ensign*, July 1992, 21)

앨마서 30:41. “내게는 이러한 것이 참되다는 증거로서 만유가 있도다”

•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간증을 강화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의 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밤에 별빛 아래를 거닐어 본 사람, 봄의 손길을 느껴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구의 아름다움을 관찰한 사람은 누구나 시편 저자가 말한 것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시편 19:1~2)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창조주의 솜씨입니다.]”(성도의 벗, 1978년 10월호, 92쪽)

앨마서 30:48. 표적을 구하는 자들

•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간음자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History of the Church*, 3:385)

후에,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웨이커 교도 한 명이 표적을 보여 달라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그가 또다시 표적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회중에게 그 사람이 간음을 범했으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세계 계시를 통해 누구든지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간음을 행하는 자라

말씀하셨다고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한 명이 외쳤습니다. ‘맞아요, 그 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내가 봤소.’ 나중에 그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5:268)

•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은 우리 신앙을 기적에 의존하는 위험성에 대해 더 설명했다. “기적이거나 표적, 시현을 계속 보아야만 교회에 굳건히 남아 있을 그런 후기 성도를 제게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며 쉽게 미끄러지는 길을 걷는 교회 회원을 보여 드리겠습니다.”(*Gospel Doctrine*, 5th ed. [1939], 7)

앨마서 30:52. 거짓말과 거짓말하기

• 전 BYU 종교학장이었던 로버트 제이 매튜는 거짓말이 매우 나쁜 일임을 더 잘 이해하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거짓말이 미치는 중대한 결과는 단지 속은 사람이 입은 피해나 고통만으로는 측정될 수 없다. 거짓말은 속인 당사자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존심을 잃고, 진실과 오류 간에 차이를 인식하는 힘이 둔화된다. 자주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을 퍼뜨린 사람조차도 점차 이것이 진실인 양 믿게 될 수도 있다. 물론경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인 코리호어가 그러한 경우이다.(앨마서 30:52~53)”(“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성도의 벗*, 1998년 11월호, 20쪽)

•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코리호어 같은 사람들이 맞는 비극에 대해 설명했다. “인간의 자녀가 거짓 영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으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더 해로운 일도 없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4:573)

앨마서 30:53. 악마의 속임수와 속된 생각

• 속된 생각은 영적인 것보다는 육체적 즐거움이나 물질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다. 속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경험하기 어렵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그들이 “육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로 마음을 진정시키며, 결국에는 ‘감각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Ensign*, May 1999, 24)

앨마서 31:3, 8~29. 조램인의 거짓 신학

• 조램인들이 코리호어를 죽이긴 했지만 그들도 비슷한 신념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앨마서 31장에서 조램인의 믿음을 설명하는 다음 구절들을 살펴본다.



제리 톨슨 © IRI

“그들이 큰 잘못에 빠졌나니”(9절)

그들은 전통을 “그 조상들의 유치함에 의하여 그들에게 전해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부했다.(16절)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의 어리석은 전통을 따라 이끌려 그리스도의 믿음에 그들을 얽매고” 싶어하지 않았다.(17절)

그들은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장차 임할 일을 믿는” 것을 거부했다.(22절)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코리호어가 조렘인의 거짓 가르침에 미친 영향에 관해 말씀했다.

“[코리호어의] 가르침은 이웃해 있는 조렘인들에게 그랬듯이, 필연적으로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주의 길을 굽게’ 하는 데 쓰였다.

조렘과 그 추종자들은 물론경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배도 집단 중 하나다. 주된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를 특별히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한 번 그들은 레미움프툼이라 불리는 기도 단에 올라가 항상 ‘똑같은 기도’를 드리며 자기들이 남들보다 더 나은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택하신’ ‘선택된 거룩한’ 백성이며 주변 모든 사람은 지옥에 던져지도록 ‘선택’되었다고 여겼다. 이 모든 것을 확신하면서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구주를 믿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전통’(코리호어의 가르침이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에 대한 믿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엘마는 자신을 몹시 불쾌하게 만든 그러한 거룩하지 못한 기도와 거룩하지 못한 신학을 속히 반박하여 이러한 형태의

이기적인 죄악에 대항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121~122)

엘마서 31:5

엘마가 한 말에 따르면,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가? 이것은 매일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엘마서 31:5. 말씀의 힘

• 하나님의 말씀이 발휘하는 효력 또는 힘은 영의 증거를 수반한다는 사실에서 부분적으로 설명된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영으로 전달될 때 그 말씀은 곧 그분의 음성이라고 말씀하셨다.(교성 18:34~36 참조) 엘마는 배도한 조렘인이 말씀을 이미 들었고 거부했을지라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방책이라고 여겼다.(엘마서 31:8~9 참조)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우리가 왕국의 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 중 한 가지를 설명했다.

“참된 교리란 이해되기만 한다면,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복음 교리를 공부하면 행위를 연구하여 행위를 향상시키는 것보다 더 빨리 행동이 개선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복음 교리 연구에 많은 역점을 둡니다.”(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21쪽)

•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전의 힘에 대해 말씀했다. “저는 제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일상적이 되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여겨질 때는 바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경전에 몰두하면, 그 거리는 좁혀지고 영성이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온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경전 말씀을 따르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What I Hope You Will Teach My Grandchildren and All Others of the Youth of Zion” [address to Church Educational System religious educators, July 11, 1966], 4)

-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경전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어려운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힘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우리는 자주 스테이크 내에서 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성찬식 참석률을 늘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젊은이들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일합니다. 성전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왕국 성장에 중요하고도 크게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회원 개개인과 가족들이 정구적으로, 계속해서 경전 연구에 몰입한다면, 이러한 기타 모든 활동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간증이 증가되고 헌신이 강화될 것입니다. 가족은 강화되고 개인적인 계시가 넘쳐 흐를 것입니다.”(“말씀의 힘”,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89쪽)

엘마서 31:9~11. 배도의 원인을 피해야 한다

- 앤티오눔에서 엘마와 그 동반자들은 니파이인을 반대하는 무리인 조렘인에게 나아갔다. 물몬은 조렘인이 이전에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기록하고, 또한 그들이 배도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며, 매일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지 않았고, 주님의 길을 왜곡하였으며, 헛되고 의미 없는 기도만 드렸다. 그들은 매일 의미 있는 기도를 드리고 경전을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과 같은 기본을 무시했다.

칠십인인 도널드 엘 스타헬리 장로는 매일 기본적인 복음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서와 특별한 도움, 인도를 구하며 매일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 일은 우리의 생활과 간증을 강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 급하게 서두르거나 중언부언하거나 아무런 생각 없이 하거나 부주의하게 한다면 영을 가까이하지 못합니다. 매일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인도를 끊임없이 받기 위해서는 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족 기도를 하면 우리의 개인 기도와 간증에 많은 축복과 권능이 더해집니다.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경전에 몰입할 때 신앙과 소망, 그리고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얻습니다. 기도와 더불어 경전을 자주 읽고, 깊이 생각하고, 그 가르침을 적용할 때 강하고 살아 있는 간증을 얻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39쪽)

엘마서 31:6~38. 배도한 조렘인들

- 엘마서 30장 59절에는 조렘인들이 조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지휘에 따라 니파이인들로부터 이반했다고 설명되어 있다. 그들의 배도적인 믿음과 관행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엘마서 31:9 참조)

그들은 매일 기도드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10절 참조)

그들은 주님의 길을 왜곡했다.(11절 참조)

그들을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릴 목적으로 회당을 지었다.(12절 참조)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잘못된 관행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경계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일상적인 기도와 일주일에 한 번 세 시간 동안만 예배하고 주중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거나 정해진 장소에서만 기도하거나, 물질주의에 빠지고 교만하게 되는 덫에 걸릴 수 있다.

엘마서 31:26~35

조렘인을 위해 드린 엘마의 기도를 읽는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사람들에게 대해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를 배울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엘마서 31:26~35. 조렘인을 위한 엘마의 기도

- 엘마는 배도한 조렘인의 영혼도 하나님께는 귀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기에 엘마는 그들을 주님께 다시 데려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간구했다. 엘마의 기도는 모든 회원과 선교사가 발전시켜야 할 태도에 대한 귀감이 된다. 모든 사람은 커다란 가치를 지니며,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카를로스 이 에이시(1926~1999) 장로는 칠십인 일원으로 봉사할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귀중하므로 우리도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가르쳤다.

“더 미약해 보이고 덜 훌륭해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영혼은 귀중합니다. 교회는 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알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온전한 축복과 기쁨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도 엘마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사, 우리로 이들 우리의 형제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엘마서 31:35 참조)

우리는 우리 구원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에 덜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Nurturing the Less Active,” *Ensign*, Oct. 1986, 15)

엘마서 31:31~33. 고난 가운데 위안

• 로렌조 스노우(1814~1901) 회장은 시련을 통해 오는 축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걱정과 근심과 마음의 고통과 박해를 받고서 자신이 그렇게 많은 일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종종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받은 모든 고통과, 당시에는 나쁘다고 생각한,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여러분은 네

배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강해지며 축복받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일들을 되돌아볼 때, 자신이 많이 발전했으며

승영과 영광을 향한 사다리를 몇 계단 더 올라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집단으로서, 혹은 개인적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고통을 당했고 다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성결을 위해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The Teachings of Lorenzo Snow*, comp. Clyde J. Williams [1984], 117~118)

생각해 볼 점

- 코리호어의 가르침이 특정 개인들의 마음을 끈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현대에는 그런 가르침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 엘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조람인에 대한 사랑에서 우리나라 마음으로 조람인을 개심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 엘마의 기도는 조람인들의 기도와 어떻게 달랐는가? 우리의 기도가 조람인의 기도와 어떤 면에서 비슷한가?(엘마서 31:15~18 참조) 우리의 기도는 엘마의 기도와 어떻게 비슷한가?(엘마서 31:30~35 참조)

제언 과제

- 코리호어가 주장한 그릇된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러한 주장이 결국 실패하는 이유를 친구에게 설명한다.(엘마서 30:13~18 참조)
- 코리호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표적을 요구하자, 엘마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로 어떤 표적을 내놓았는가?(엘마서 30:44 참조) 이런 증거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강화되었는가? 우주 설계와 질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되는지 간단히 설명하는 문단을 작성한다.

소개

엘마와 그의 형제들은 배도에 빠진 조렘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시련을 겪은 일부 조렘인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개인 및 집단 예배에 관한 엘마와 앰올레크의 가르침은 속죄 권능, 회개, 신앙,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중요성 등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일부를 다룬다. 엘마와 앰올레크는 자신의 간증 외에도 고대 선지자 세 명의 간증과 메시지를 전했다. 여기에 실린 교리와 원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

해설

엘마서 32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 엘마서 32장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이다. 엘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옥한 마음 밭에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말씀을 시험할 때, 또는 순종하여 씨앗을 잘 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귀한 열매, 모든 것 중에 가장 감미롭고, 가장 희고, 가장 순수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어떻게 말씀을 믿는 신앙을 키워서 이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만일 우리가 생생하고 영속하는 신앙을 갖고자 한다면 교회 회원으로서 맡는 모든 의무를 활동적으로 수행해야만 합니다.”(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2권, 276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런(1917~2008) 장로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주었다. “신앙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행동과 하나가 될 때 존재합니다. 첫째, 절대적인 신뢰, 둘째, 행동, 셋째, 절대적인 순종.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약하고 힘 없는 모조 신앙뿐입니다.”(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83쪽)

엘마서 32~34장. 생명 나무

-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엘마서 32~34장을 서로 연관지어 공부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엘마서 32장에 나오는] 엘마의 훌륭한 설교를 통해, 독자들은 씨앗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에 대해 간략하게 이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열매 맺는 나무로 자란 신앙, 일찍이 리하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한 바로 그 열매를 맺는 나무에 관한 설교에 집중하게 된다. ……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생명수, 참 포도나무다. 그리스도는 씨앗, 나무, 영생의 열매다.

그러나 독자들이 몰몬경에서 다음 두 장을 계속해서 읽지 않으면, 이 연설에 나오는 심오하고 핵심적인 생명 나무 비유를 놓치거나 그 의미를 이해하는 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1997], 169)



저리 톰슨. © IRI

엘마서 32:8~16. “스스로 겸손하여진 자들은 복이 있도다”

- 엘마는 가난한 조렘인들이 복음을 배울 준비가 되었음을 감지했다. 부유한 조렘인들에게 거부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한 상태에 이르렀다.

감리 감독단의 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은 사람이 복음의 축복을 받는 데 필요한 덕성은 겸손과 유순함이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대부분 겸손이 나약함으로 오인받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이나 회사에서는 겸손을 소중한 덕목이나 경영상 바람직한 특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배우면서 겸손과 순종적인 마음 자세에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미덕은 하나님의 축복과 신권 권능을 누리게 하는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학력이 얼마나 높은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겸손하고 순종하며 감사드리는 마음을 품을 때 힘과 희망이 생겨납니다.”(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98쪽)

• 주님께서는 때때로 일부러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만큼 겸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엘마서 32장 8~16절에는 겸손해지는 두 가지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13절에는 “어찌할 수 없이 겸손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대해, 14절과 16절에는 “말씀으로 인하여” 스스로 겸손해지는 사람들에게 대해 설명되어 있다.

• 칠십인인 카를로스 이 에이시(1926~1999) 장로 또한 이 두 부류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 성품에 ‘니파이인 주기’가 일정 부분 포함된 것 같다. 즉, 우리는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때가 있으며, 겸손할 때 성장하고 영성이 최고조에 이른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자족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다. …… 하나님과 우리 종교를 늘 기억하고 계속 예배와 의로운 생활을 통해 그 주기를 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겸손해지고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할 만큼 우리 영이 강하다면 얼마나 좋을까?”(*Family Pecan Trees: Planting a Legacy of Faith at Home* [1992], 193~194) 교만 주기를 설명하는 도해와 그 내용을 더 알고 싶으면 부록(413쪽)에 나오는 “의로움과 간악함의 주기”를 참고한다.

•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우리 스스로 겸손해지는 방법과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지는 상황을 피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우리는 형제 자매에게 품은 적의를 극복하고 그들을 우리 자신과 같이 존중하며, 우리와 같이, 또는 더 높이 올려 줌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교성 38:24; 81:5; 84:106 참조)

우리는 권고와 징계를 받음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야곱서 4:10; 힐라만서 15:3; 교성 63:55; 101:4~5; 108:1; 124:61, 84; 136:31; 잠언 9:8 참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제3니파이 13:11, 14; 교성 64:10 참조)

우리는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모사이야서 2:16~17 참조)

우리는 선교사로 나가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엘마서 4:19; 31:5; 48:20 참조)

더 자주 성전에 들어감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버려 하나님에게서 남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교성 58:43; 모사이야서 27:25~26; 엘마서 5:7~14, 49 참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며, 우리 생활에서 그분을 앞세움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제3니파이 11:11; 13:33; 모로나이서 10:32 참조)(*Ensign*, May 1989, 6~7)

엘마서 32:17~18. 신앙은 표적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신앙을 위해 표적을 구하는 위험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을 통해 지식을 얻은 사람에게 저주로 작용할 수 있다. 신앙을 발전시킬 기회를 놓치고, 신앙을 발전시키는 정상적인 길에서 영적으로 발전하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쳐서 더 엄한 벌을 자초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선행 조건으로 요구하신 신앙을 먼저 발전시키지 않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저주는 더 있다.

한 가지 저주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이한 일을 보여준 다음에 이방 신을 예배하도록 이끄는 선지자들을 따르지 말라며 고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다.(신명기 13:1~3) 구주께서는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마지막 날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성약에 따라 택함 받은 자인 바로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임이니라.’(조셉 스미스-마태 1:22; 또한 마태 24:24; 마가 13:22 참조) ……

…… 우리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확신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적 또는 표적을 사용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표적을 구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영적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큰 의혹을 품어야 한다.”(*The Lord's Way* [1991], 85~86)

엘마서 32:21. 신앙과 소망

•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신앙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신앙은 알려지지 않은 것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신앙은 확인된 증거를 초월해야 합니다. 신앙은 미지의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빛의 가장자리를 걷고, 어둠 속으로 몇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알려져야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설명되어야 한다면, 모든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면 신앙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으로 신앙이 있을 여지가 없게 됩니다. ……


…… 신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영혼의 삶에 일상적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은 경험으로 생긴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는 새날이 밝아 오고, 봄이 올 것이며,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정된 일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드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합당하고 준비되어 있으며 굽히지 않는 신앙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런 신앙이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며, 때때로 사물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 이 신앙은 점진적으로 성장합니다. 이것은 기이하고 초월적인 동력, 전기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동력이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되면,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

회의론과 의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표현은 ‘보여 주면 믿을게.’라는 태도를 조장합니다. 우리는 모든 증명과 증거를 먼저 원합니다. 신앙을 얻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작용하는 것, 믿는 것이 곧 보는 것인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언제 배울 것입니까? 영적 믿음이 영적 지식에 선행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참된 것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What Is Faith?” in *Faith* [1983], 42~43)

•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소망과 신앙과 지식의 관계를 말씀하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깊고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설명했다. “신앙과 소망은 계속해서 상호 작용하며 언제나 정확하게 구별되거나 순서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온전한 지식이 없을지라도 소망이 선사하는 활기찬 기대감은 ‘확실히’ 참됩니다.(이더서 12:4; 또한 로마서 8:24; 히브리서 11:1; 엘마서 32:21 참조)”(*Ensign*, Nov. 1994, 35)

엘마서 32:21~37 

엘마는 신앙과 지식을 어떻게 구별 지었는가?

엘마서 32:23. 어린이들이 영감을 받다

• 어린이들의 신앙은 종종 신성한 통찰로 이어진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어린이들의 모범이 어떻게 어른들에게 가르침이 될 수 있는지 설명했다.

“어린이들은 자주 [그들]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나이가 차지는 않았지만, 어린이들은 신앙으로 가득합니다. 교회 공식 부름을 받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지만 그들은 모범을 보이는 사람으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으며, 특히 ‘홀륭하신 부모’(니파이전서 1:1)를 축복받았을 때 그 역할을 잘 해냅니다.

경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린이들이 …… 말씀을 받는 때가 많[습니다].’(엘마서 32:23) 예를 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니파이인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보여 주셨고, 그런 후 그 아이들은 어른들과 부모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보다 ‘더욱 큰’ 일들을 가르쳤습니다.(제3니파이 26:14)

지금 애리조나에 사는 낸 바커와 댄 바커가 입양한 여러 자녀를 인봉하는 일은 저에게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 이제 갓 세 살이 된 네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올 또 다른 여자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검은 머리에 눈동자도 검은 색이고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아요.’

현명한 어머니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걸 어떻게 알았니?’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층에서요.’

그 어머니는 ‘우리에게는 이층이 없단다.’ 하고 말했지만 곧 그 이야기의 중요성을 알아차렸습니다. 많은 고민과 기도 끝에 바커 가족은 1995년 가을에 솔트레이크 성전 인봉실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온 소녀를, 머리카락과 눈동자가 검은 색인 어린 소녀를 현세와 영원을 위해 자신들에게 인봉했습니다. 영감 받은 아이들은 여전히 부모들에게 ‘크고 기이한 일들을’(제3니파이 26:14) 말하고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69~70쪽)

엘마서 32:27~37.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할 때 개종이 일어난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리셀 벨라드 장로는 엘마가 말한 대로 시험해 보겠다는 의지는 개종으로 연결된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 가까이 말씀을 시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엘마서 32:27 참조) 즉, 우리 정신과 마음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소망과 그 소망에 따라 가까이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교회를 알고자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험은 몰몬경을 읽고, 그에 대해 기도하고, 조셉 스미스가 주님의 선지자였는지를 진지하게 알아보기로 약속하는 것처럼 단순한 일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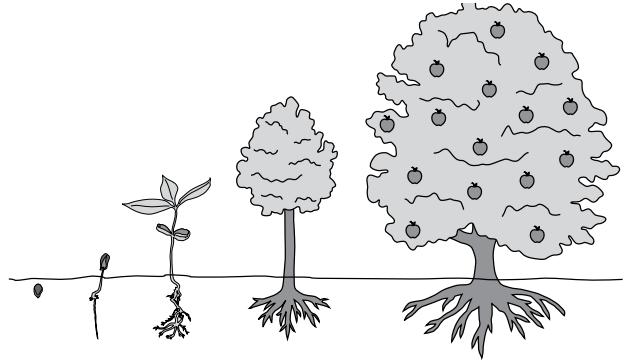
참된 개종은 영의 권능을 통해 옵니다. 영이 마음을 감동시킬 때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회원이든 구도자든 자신에게 작용하는 영을 느낄 때, 혹은 생활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증거를 볼 때 영적으로 교화되고 강화되며 주님을 믿는 신앙이 커집니다. 개인이 말씀을 시험하고자 할 때 영과 더불어 하는 이러한 경험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이 참되다고 느끼는 방법입니다.”(리아호나, 2001년 1월호, 89쪽)

- 때때로 엘마서 32장 28절에 나오는 이 부부는 움직임, 영혼이 커짐, 이해력이 밝아짐, 영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들이다. 그러나 표현하기 힘들다고 해서 그 감정의 진실성이 퇴색하지는 않는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을 설명하는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는 무신론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간증을 전했으나 그 사람은 그런 것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패커 회장은 자신의 간증과 지식을 조금이 어떤 맛인지 아는 것에 비유했다.(213쪽에 나오는 엘마서 30:15~16 해설 참조; 또한 “The Candle of the Lord,” *Ensign*, Jan. 1983, 51~52 참조)

엘마서 32:28~30. “자리를 내주어 씨앗 하나가 너희 마음에 심어[져]” 자라게 하라

-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커지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비옥한 땅에 심은 신앙의 씨앗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 중 하나이다.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은 신앙과 지식이 자라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 조건을 설명했다. “우리는 …… 신앙의 모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 겸손한 기도를 드리며 힘과 용서를 구하여 땅을 일구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극복함으로써 흙을 썩레질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계명을 지킴으로써 모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십일조와 다른 헌금을 낼 때 주님께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위대한 신권 권능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영적인 씨앗을 키우기에 성전의 성소 안과 우리 가정만큼 더 좋은 장소는 없습니다.”(리아호나, 2000년 1월호, 57쪽)



- 신앙의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순식간에 자라나지는 않는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씨앗이 자라는 동안 기다리는 인내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간증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 압니다. 오히려 간증은 엘마가 말한 것처럼 신앙의 씨앗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

몰몬경을 반복해서 읽고도 아직 강력한 증거를 얻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큰 영광 중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찼으나 “이를 알지 못[한]”(제3니파이 9:20) 몰몬경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음 성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이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해지도록 할지니, 이는 사람이 그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달음질함이 요구되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또 그는 부지런할 필요가 있나니, 그로써 그가 상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모든 일은 반드시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하느니라.’(모사이야서 4:27)”(리아호나, 2005년 5월호, 8쪽)

엘마서 32:28~35. “이것은 내게 기쁨을 주기 시작하는도다”

• 엘마는 미각이라는 개념을 간증이 자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사용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 또한 참된 교리를 분별하는 것에 관해 가르칠 때 미각이란 개념을 사용했다. “이것은 좋은 교리입니다. 맛이 좋습니다. 저는 영생의 원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맛볼 수 있습니다. …… 이 영생에 관한 말씀을 제가 받은 대로 여러분께 전할 때 여러분도 그것을 맛볼 수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꿀이 달다고 말합니다. 저는 영생의 영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맛이 좋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제가 성신의 영감으로 받은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감미로운 것으로 받아들여기에 더 많은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6:312; 기울임체 추가)

• 전 본부 청년 회장인 자네트 헤일즈 베컴 자매는 경전을 읽는 것에 관한 느낌을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영의 가르침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일은 신앙을 실현하는 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딸 케런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아주 어렸을 때 처음으로 물문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에는 니파이전서 3장 7절에 이르렀어요. …… 이것이 그렇게 유명한 구절인지는 몰랐지만 그 구절을 읽으면서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것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깊은 감동은 실로 어떤 느낌 이상이었어요. 저는 부모님께서 빨간 연필로 경전에 표시하시는 걸 본 적이 있었고, 그래서 얼른 일어나 집안을 살살이 뒤져 빨간 연필을 찾아내고는 엄숙하고도 진지한 마음으로 제 물문경에 그 구절을 표시했어요.’ 케런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경전을 읽을 때면 한 구절을 읽고 진한 감동을 받는 그런 경험은 반복되어 일어났어요. 얼마 안 가서 저는 그 느낌이 성신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75쪽)

엘마서 32:35. “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 엘마는 가난한 조람인들에게 말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참된지를 직접 분별해 보도록 요청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 원리를 대신 배워 줄 수는 없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우리 각자가 신성한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엘마는 신앙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믿는 사람의 지적 경험과 정서적 경험을 통해 어떻게 신앙이 실제로 지식이 되는지를 설명했다. 믿는 사람들의 이해력이 커지고 생각이 넓어지자 엘마는 이렇게 물었다. ‘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엘마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별할 수 있는 것임이라. 그러므로 그것이 선한 것인 줄 너희가 반드시 알’ 것이기 때문이다.(엘마서 32:35)

각각의 신성한 교리의 진실성은 사실상 ‘나는 안다!’는 주장이 옳음을 증명하는 확인과 확증 체계 안에서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Things As They Really Are [1978], 10)

엘마서 32:33~43

이 성구에서 엘마가 가르친 것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니파이전서 8장에 나오는 리하이의 생명 나무
시험을 더욱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엘마서 32:33~43. 말씀을 가꾸어야 하느니라

• 칠십인인 브루스 시 하펜 장로는 재배에 대한 엘마의 은유를 사용하여, 우리 생활에 복음의 축복을 가져오는 가꿈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을 설명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 즉 부정적인 잡초를 제거하고 긍정적인 꽃을 재배함으로써 성장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한다면 구주의 은혜는 두 가지 부분을 다 축복합니다. 먼저 그리고 반복해서 우리는 죄와 나쁜 선택이라는 잡초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잡초를 베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뿌리째 뽑아 버리고 자비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히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용서받는 것은 우리 성장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단지 빛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해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마음속을 깨끗이 하고 나면, 신성한 자질이라는 씨를 계속해서 심고, 잡초를 뽑고, 영양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땀과 단련으로 그분의 은사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발전할 때, ‘은혜의 꽃’[‘내 영혼이 햇빛을 받아’, 찬송가 153장]이 희망과 온유함처럼 피어납니다. 생명 나무가 이 마음 동산에 뿌리를 내려 너무나 감미로운 열매를 맺고 ‘그 아들의 기쁨을 통하여’[엘마서 33:23] 우리의 모든 짐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랑의 꽃이 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사랑의 힘[모로나이서 7:48 참조]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리아호나, 2004년 5월호, 97쪽)

엘마서 32:37~38, 42~43.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 제일회장단의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법을 가르쳤다.

“이것이 ……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가 걷는 평화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룻밤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즉효약이 아닙니다.

최근에 제 친구 한 명이 간증을 굳게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는 편지를 제게 보냈습니다. 그는 조언을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삶을 회복된 복음의 가르침에 더 가까이 일치시킬 수 있게 해 줄, 그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일들을 제안하는 성실한 답장을 썼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일주일 뒤에 그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니다. 그 편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니다. ‘자네가 제안한 방법을 시도해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전력 질주로 영생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내심이 필요한 경주입니다. 우리는 이 신성한 복음 원리들을 적용하고 또 적용해야 합니다. 매일 그 원리를 우리 일상 생활의 일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아침에 씨앗을 뿌리고 낮에 옥수수 거두기를 바라는 농부처럼 복음에 접근합니다. 엘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면서 씨앗이 자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부지런함과 인내와 오래 참음’[엘마서 32:43]의 결과로서 점차적으로 열매가 달린 나무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축복들은 우리 마음에 씨앗을 심자마자 오는 것도 있지만, 씨앗이 부풀고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면 이로써 우리는 씨앗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제자의 길로 들어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축복들이 우리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무를 소홀히 하여, 그 가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38절] 그러한 충분한 축복은 받을 수 없습니다.

씨앗이 좋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보살핌으로 나무를 가꾸어’, 그것이 뿌리를 얻[도록][37절] 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감미로운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감미로우며 …… 순결한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순결한’ 열매를 취할 수 있으며, ‘이 열매를 배부르도록 흡족히 먹게되[어], [우리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할]’[42절]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성품을 연마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순화하는 이 여정의 가르침들이 필요합니다. 끈기 있게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척도를 나타내 보이고 우리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임을 스스로에게 입증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거나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선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종교의 상징들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는 일은 앉아서 관람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스포츠 경기를 보며 운동 선수에게 충고한다고 해서 건강의 유익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방관자로서 있으면서 신앙의 축복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경꾼 제자”가 예배의 주된 방법이 아님에도 오히려 그것을 선호합니다.

우리 종교는 간접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행하는 좋은 것을 관찰하는 것으로 복음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인을 벗어나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이 걸으신 길을 걸을 때입니다.”(“제자의 길”,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76~77쪽)

엘마서 33:2~19. 조램인의 잘못된 교리

• 엘마는 반복해서 경전을 사용하며 조램인들이 가르친 잘못된 교리를 지적했다. 엘마는 먼저 레미움프툼에서만 기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았다. 경전을 사용하여 그는 어느 곳에서나, “광야”나 “밭”, “집”이나 “골방”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엘마서 33:3~11 참조) 그런 다음 엘마는 모든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엘마서 33:14~22 참조; 또한 야곱서 7:11 참조)

엘마서 33:3~11; 34:17~27, 39.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

•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명하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간절한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계명은 많은 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상 구주께서는 기도를 드릴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지런한 기도는 미사여구를 사용하거나 오랜 시간에 걸쳐 고독하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선함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 찰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7~18쪽)

엘마서 33:19~23. 그리스도의 예표가 광야에서 들리어졌다

•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독사를 보내셔서 영적으로 독이 든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셨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회개한 사람들은 선지자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뱀들을 없애 달라고 간청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뱀을 만들어 그것을 뜻대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들리어진 뱀을 보는 사람마다 낮게 되리라고 약속하셨다.(민수기 21:4~9 참조)

뱀뱀은 예표다.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예표가 “어떤 것을 상하게 하는 것 또는 그와 비슷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37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들리어진 예표가 자신을 증거한다고 가르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4~15)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한

마음과 불신앙 때문에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거절했다.(니파이전서 17:41 참조) 엘마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되, 곧 그가 자기 백성을 구속하러 오실 것과 또 그가

그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실] 것을 믿기 시작”(엘마서 33:22; 또한 힐라맨서 8:14~15 참조)하라고 권유했다. 엘마는 이 간증을 가꾸면 짐이 가벼워지고 영생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약속했다.(엘마서 33:23 참조)

엘마서 34:9~12.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무한하며 영원하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장로는 주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희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선지자들이 무한한 속죄라고 말할 때, 그 뜻은 말 그대로이다. 속죄의 영향은 모든 인간과 지구와 그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망라하며, 끝없이 광활한 영원에 이른다.”(Mormon Doctrine, 2nd ed. [1966], 64; 또한 모세서 7:30 참조)

•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어떤 면에서 무한한지를 열거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무한하며 끝이 없습니다.[니파이후서 9:7; 25:16; 엘마서 34:10, 12, 14 참조] 그것은 온 인류가 끝없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점에서 무한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통 정도가 무한했기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속죄는 시간 면에서도 무한하여 그 전까지 상징으로 행해졌던 동물 희생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범위 면에서도 무한하여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 행해져야 했습니다.[히브리서 10:10 참조] 그리고 속죄의 자비를 누리는 사람 숫자도 무한하며,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무한한 세계에까지 영향이 미칩니다. [교성 76:24; 모세서 1:33 참조] 속죄는 인간이 가늠하는 그 어떤 측량이나 육신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무한한 것입니다.

필멸의 어머니와 불멸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만이 그러한 무한한 속죄를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 유일무이한 장자의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셨기에 예수께서는 무한한 존재이셨습니다.”(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35쪽)

엘마서 34:14. “모든 것이 저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을 가리킴이라”

• 앰올레크는 모세 율법의 전반적인 의미는 사람들이 깃세마네와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 희생, 잔치, 기타 일상적인 의례들은 수많은 예표와 상징으로 가득하며, 이것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다. 이와 비슷하게 성찬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명을 상기시킨다. 마찬가지로 고대 유월절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육체적 속박에서 구해 내신 것을 해마다 기념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부활절은 주님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영적 속박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해마다 상기시킨다.



© 1995 웰스 퍼슨

앨마서 34:14~17. “회개에 이르는 신앙”

• 로버트 이 웰스 장로는 칠십인 일원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참여하기에 충분히 변화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신앙에 대해 말씀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저에게 효력이 발휘되려면 어느 정도 신앙이 필요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얼마나 큰 신앙이 필요할까요? 앨마서에서 ……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엠올레크는 간단하면서도 위대한 이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 사람들에게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도록 방편을 마련해 주시느니라.’(앨마서 34:14~15; 강조 추가)

이 세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이르는 신앙. 이것이 실마리입니다. 엠올레크는 세 구절에서 네 번이나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앨마서 34:15~17 참조] ……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에 이르는 신앙의 조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은 단순하고 분명한 신앙, 곧 회개하기에 충분한 신앙의 중요성에 대한 가장 큰 통찰 중 하나입니다. 분명히 산을 옮길 만큼 큰 신앙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방언을 하거나 병자를 고치는 신앙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저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인식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며, 죄에 대해 후회하고 더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 드리기엔 충분한 신앙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 중 가장 위대한 기적은 속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속죄가 우리를 위해 효력을 발휘합니다.”(“The Liahona Triad,” Bruce A. Van Orden and Brent L. Top, eds., *Doctrines of the Book of Mormon: The 1991 Sperry Symposium* [1992], 6~7)

앨마서 34:15~16. “자비가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 공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1. 율법에 순종할 때 그 축복으로 기쁨을 얻는다.(교성 130:20~21 참조)
 2. 율법에 불순종할 때 그 벌로 슬픔을 겪는다.(앨마서 42:22 참조)
- 공의를 충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율법을 결코 어기지 않는다.
 2. 율법을 어기면, 대가를 치른다.

문제: 어느 육체도 율법으로 [의롭다는] 판결을 받지 못한다.(니파이후서 2:5 참조)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다.(로마서 3:23 참조) 그러므로 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 죄에 따르는 결과는 두 가지가 있다.
 1. 현세적 율법에 따라 우리는 단절된다. 즉 공의가 적용된다.(앨마서 42:14 참조)

2. 영적 율법에 따라 우리는 멸망한다.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니파이전서 15:34)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위한 희생으로 자신을 바치사, …… 율법의 목적에 부응하[신다.]”(니파이후서 2:7)

•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법을 제안하셨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는가?

1.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고 죄를 짓지 않으셨다. 율법에 따라 [의롭다는] 판결을 받으셨다.
2. 겻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치 모든 죄를 지으신 것처럼 고통을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셨다.
3.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다.(엘마서 33:11; 교서 45:3~5 참조)

엘마서 34:32~34. 📖 “너희의 회개의 날을 …… 미루지 말라”

• 미루는 버릇과 우유부단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영향을 미친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복음 원리에 적용해 보면, 미루는 버릇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면전에서 생활하는 영생을 훔치는 도둑입니다.”(*The Way to Perfection* [1970], 202)

엘마서 34:32~34 📖

앰올레크는 이생이 끝난 후 회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들을 경고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엘마서 34:34~35. 동일한 영이 우리 몸을 소유할 것이다

• 앰올레크는 우리가 매일 선택을 통해서 결국 주님의 영 혹은 악마의 영이 미치는 영향이나 통제를 받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롤드 비 리(1899~1973) 회장은 엘마서 34장 35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회개하지 않고 사악한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대해 경전에서는 악마가 그들을 자신의 것으로 봉인할 것이라고 나옵니다.(엘마서 34:35 참조) 이 말은 그들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최대한 죄값을 치를 때까지 악마의 손아귀에서

구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공의를 충족할 만큼 충분히 사탄의 난타에 종속되고 난 후에야 사탄의 손아귀에서 풀려날 것이며 이 지상에서 생활한 것에 따라 아버지의 해의 왕국, 달의 왕국, 또는 별의 왕국에서 처소를 배정받을 것입니다.”(*The Teachings of Harold B. Lee*, ed. Clyde J. Williams [1996], 59)

• 십이사도 정원회의 펄빈 제이 벨라드(1873~1939) 장로는 이생을 사는 동안 회개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생은 인간이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육체가 저지른 부패 행위를 극복하지 않고 무덤으로 들어가서 무덤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한 성향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육신과 영이 분리될 때 우리 영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 [필멸의 삶]은 인간이 좀 더 유순하고 수용적으로 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The Three Degrees of Glory: A Discourse* [Sept. 22, 1922], 11~12)

엘마서 35장. 엘마서 43~62장에 기록된 니파이인과 레이맨인의 전쟁

• 연대기적으로, 엘마서 43장은 엘마서 35장 다음에 온다. “엘마는 그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참으로 전쟁과 유혈[로] …… 인하여 비통하게 되[자]” 그의 아들들을 “각각 따로” 불러 “의에 관한 것”(엘마서 35:15~16)을 말해 주었다. 물론 “니파이인과 레이맨인 사이에 있었던 전쟁의 기사로”(엘마서 43:3; 엘마서 35장과 엘마서 43장 하단에 적힌 낱자들을 비교한다.) 돌아가기 전에 엘마가 아들 힐라맨, 시블론, 코리엔톤에게 전한 말에 특히 주목했다.

엘마서 35장에는 43~62장에 나오는 레이맨인과 니파이인의 전쟁이 이야기된 사건들이 설명되어 있다. 분쟁과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전쟁은 엘마서 35장에서 요약되어 있다.

1. “조램인들 가운데 보다 영향력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 말씀으로 인하여 노하니, 이는 그 말씀이 저들의 간계[사제술]를 무너뜨림이라.”(3절)

2. 개종한 조람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니, 그들의 수효가 많았고,”(6절) 여어손 백성(암몬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지냈다. 여기서 그들은 먹고, 입고, 땅을 상속받았으며, 부족한 것을 모두 받았다.(9절 참조) 이전에 살던 땅에서 그들은 가난하고, 더럽고, 천한 사람들로 여겨졌다.(엘마서 32:2~3 참조)
3. 여어손 백성이 친절하게 새로운 개종자들을 받아들이자 조람인들은 격노했다.(엘마서 35:8 참조) 조람인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대하여 많은 위협을 토하였[다.]”(9절) “암몬 백성들은 저들의 말을 겁내지 아니하였으므로”(9절) 조람인들과 그들의 통치자는 더욱 화가 났다.
4. 개종하지 않은 조람인들은 “레이맨인들과 섞이며 그들도 [레이맨인 개종자인] 암몬 백성에게 대하여 노하게 하기 시작[했다.]”(10절; 또한 엘마서 43:6~7 참조)

엘마서 35장에 기록된 사건들을 보면 엘마서 43~46장에 기록된 니파이인과 레이맨인의 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사탄은 조람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노하게 만들었다.(니파이후서 28:20 참조) 그리하여 그들은 레이맨인들과 다른 니파이인 이반자들에게 분을 내도록 선동했고, 선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쟁 무기를 들게 만들었다.

생각해 볼 점

- 어떻게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데 …… 마음을 기울”일 수 있을까?(엘마서 34:27)
-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속죄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이유는 무엇인가?
- 사람들은 왜 때때로 회개를 미루는가? 회개를 미룰 때 어떤 위험이 따르는가?

제언 과제

- 엘마서 32장에서 신앙의 발전에 대해 다룬 엘마의 가르침을 상세하게 요약한다. 신앙이 어떻게 소망에서 자라 지식을 온전하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한다.
- 엘마서 33~34장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사용하여, 여러분이 좀 더 의미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본다.

소개

엘마서 36~39장은 엘마가 세 아들인 힐라맨, 시블론, 코리엔톤에게 준 마지막 권고이다. 충실한 힐라맨과 시블론에게 준 권고는 반항적인 코리엔톤에게 준 권고와는 크게 달랐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받은 권고에 얼마나 충실하느냐에 따라 삶에서 어떤 종류의 권고를 받게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엘마서 12:9~11 참조)

엘마의 개종 이야기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보여 주는 가장 명확한 한 가지 예이다. 엘마가 시블론에게 준 권고를 보면 우리 삶에서 굳건함이 발휘하는 힘과 가치를 배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리엔톤에게 준 신랄한 권고는 성적 범법이 얼마나 심각하고 해악을 미치는지 가르쳐준다.

해설

엘마서 36장. 교차대구법

• 때때로 순서를 바꾸는 대구법이라고 불리는 **교차대구법**은 단어나 개념을 특정 순서로 배열한 다음, 역순으로 반복하는 히브리 문학의 한 형식이다. 이 반복은 중요한 개념과 단어를 강조한다. 저자의 중심 사상은 종종 교차대구법의 중앙에 위치한다.

엘마는 아들 힐라맨에게 교차대구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개종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물론경에 교차대구법 같은 셈족 문학 형식이 존재하는 것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가르친 대로 이 책이 중동 언어로 쓰인 고대 문서를 번역한 자료라는 외적 증거이다.

다음 도표는 엘마서 36장에 나오는 교차대구법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편의상 위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정했으며, A자로 시작하여 P자로 끝난다. 그러므로 교차대구법의 첫 구절인 엘마서 36장 1절(A로 표시된 위치)에 표현된 생각은 교차대구법 마지막 구절인 엘마서 36장 30절(역시 A 위치)에서 반복된다. 엘마서 36장 2절(D로 표시된 위치)에 표현된 생각은 29절(역시 D 위치)에서 반복된다.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반복된다.

- A.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1절)
- B.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진대 내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임이나라(1절)
- C. 내가 행한 대로 행하여(2절)
- D. 우리 조상들이 사로잡혔던 것을 기억하라(2절)
- E. 그들이 숙박 가운데 있었고(2절)
- F. 그가 정녕 그들을 …… 건지셨느니라(2절)
- G. 하나님을 신뢰하라(3절)
- H. 그 시련과 그 곤경과 그 고난 중에 받들어 주심[이요](3절)
- I. 나는 내가 내 스스로로 말미암아 안다고 네가 생각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니라(4절)
- J. 하나님에게서 [났으며](5절)
- K. 내가 ……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꾀하였음이라(6절)
- L. 내 사지를 쓰지 못한 것이(10절)
- M. 내 하나님의 면전에 이끌려 나가 서지 않도록 …… 내가 생각하였느니라(15절)
- N. 저주받은 영혼의 고통(16절)
- O. 내 많은 죄의 기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17절)
- P. 내가 ……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를] …… 기억하였느니라(17절)
- P. 내가 내 마음 속에서 부르짖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18절)
- O. 더 이상 내 죄의 기억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19절)
- N. 내 고통만큼이나 심히 큰 기쁨(20절)
- M. 내 영혼은 거기(하나님의 면전에) 있기를 사모하였더라(22절)
- L. 내 사지가 도로 그 힘을 얻으매(23절)
- K. 내가 …… 수고해 온 것은,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며(24절)
- J. 하나님에게서 태어나(26절)
- I. 내가 가진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26절)
- H. 온갖 시험과 곤경하에서와, 또한 온갖 고난 중에 받들어 주심을 입었나니(27절)
- G. 그를 신뢰하노니(27절)
- F. 그가 여전히 나를 건지시리라 …… 나를 일으키사(27~28절)
- E. 그들이 숙박과 사로잡힘에서 건져 내셨음이나라(28절)
- D. 그들의 사로잡혔던 것을 마땅히 기억 속에 간직할지니라(29절)
- C. 내가 아는 것같이, 너도 알아야 할 것이요(30절)
- B.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진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임[이요](30절)
- A. 이는 그의 말씀에 따른 것이니라(30절)

이 교차대구법이 전하는 중심 메시지는 인생에서 큰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엘마가 위안을 찾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 그 시점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 주목한다.(엘마서 36:17~18 참조)

엘마서 36:2~3.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여

• 엘마서 36장 2~3절은 몰몬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주제를 다룬다. 니파이는 그의 기록으로 “주의 친절하신 자비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택하신 자 모두의 위에 있어 그들을 능하게 하여, 참으로 구원의 능력에 이르게 하였음을”(니파이전서 1:20) 보여 주겠다는 말로 기록을 시작했다. 엘마서 36장에서 엘마는 아들들에게 조상이 속박 당했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출해 내셨는지 기억하라고 가르쳤다.(엘마서 36:2~3, 29 참조)

후에 모로나이는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를 기억”하라고 권고했다.(모로나이서 10:3) 이 말씀을 가장 강조한 사람은 엘마 이세일 것이다. “또한 이제 보라, 나의 형제들이 내가 너희, 곧 이 교회에 속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사로잡혔던 것을 충분히 기억 속에 간직하였느냐? 또한 너희는 그들을 향한 그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충분히 기억 속에 간직하였느냐? 더욱이 너희는 그들의 영혼을 그가 지옥에서 건지셨음을 충분히 기억 속에 간직하였느냐?”(엘마서 5:6)

엘마서 36:6~10. 엘마는 “땅에 엎드려졌다”—이틀인가 사흘인가?

• “몰몬경을 읽는 사람 중에는 엘마의 개종에 관한 기록인 모사이야서 27장 23절과 엘마서 36장 10절이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한 곳에는 ‘이틀 밤 이틀 낮 동안’으로 언급되었고, 다른 한 곳에는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으로 언급된 것은 사실이지만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순은 없다. 왜냐하면 이 두 기록이 똑같은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사이야서에 기록된



© 1996 로버트 배라

시간은 제사들이 금식한 기간을 말하며, 엘마가 의식을 잃은 정확한 기간은 나타나지 않는다. 더 중요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 보자. 엘마는 천사를 만나 자신의 죄가 극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의 죽은 것처럼 땅에 쓰러졌다. 엘마는 꼼짝할 수도 없는 상태로 아버지 앞으로 실려 갔다. 엘마의 아버지는 교회 제사들을 불렀으며 ‘그들이 이틀 밤 이틀 낮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난 후, 엘마의 사지가 그 힘을 얻었고, 그가 일어서서’(모사이야서 27:22~23) 말하기 시작했다. 엘마서에 나오는 ‘사흘 낮과 사흘 밤’은 정확히 엘마가 입을 열지 못하고 사지를 못 쓴 총 시간을 말한다.(엘마서 36:10)(Daniel H. Ludlow, *A Companion to Your Study of the Book of Mormon* [1976], 217~218)

엘마서 36:11~16.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세상적인 근심과 회개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더 깊은 근심의 차이를 가르쳤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후회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그렇게 후회하는 이유는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이 큰 슬픔과 고통을 겪어서입니다. 때로는 불잡혀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슬퍼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감정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습니다. ……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저질렀다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구주, 즉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을 고뇌와 고통을 겪도록 했음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구주께서는 모든 구멍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이 진정한 정신적, 영적 고뇌가 경전에서 말하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제3니파이 9:20; 모로나이서 6:2; 교성 20:37; 59:8; 시편 34:18; 51:17; 이사야 57:15 참조)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참된 회개의 절대적인 선행 조건입니다.”(“마음의 큰 변화”, 성도의 벗, 1989년 3월호, 5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설명했다. “인정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가 야기하는 고통스런 결과를 의도적으로 행복의 계획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삶에서 그 비극적인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죄인은 이생에서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여 용서받지 못한 죄는 회장 너머에서 괴로움으로 돌아옵니다.[교성 19:4, 15~24 참조](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87쪽)

엘마서 36:17~21

엘마는 고통을 겪는 가운데 어떻게 위안을 얻었는가?
엘마는 용서받는 일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엘마서 36:17~21. “내가 더 이상 내 고통을 기억할 수 없었노니”

•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은 회개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엘마의 기사를 읽을 때, 민감한 독자는 다소나마 엘마와 고통을 같이 느끼고, 엘마가 자기 죄의 깊이를 인식하며 느꼈을 막대한 공포감을 경험할 것이다. 또한 엘마가 찾은 큰 위안에도 공감할 것이다. 엘마는 이 위안을 어떻게 얻었는가? 모든 범법자가 얻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곧, 진실하게 회개하여 용서가 낳는 기적에 참여함으로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에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엘마는 평안을] 얻었다. ……

이제 고통은 기쁨으로, 괴로움은 평온으로, 어둠은 빛으로 바뀌었다. 이제 엘마는 오직 화평만을 느꼈다. 엘마는 아들 시블론에게 그 화평을 얻는 유일한 근원을 강조했다.

‘……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어 자비를 구할 때까지, 내가 내 죄 사함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그에게 부르짖었고 내 영혼에 평안을 찾았느니라.’(엘마서 38:8)(용서가 낳는 기적 [1969], 365~366쪽)

•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진실한 회개는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설명했다.

“회개는 단순한 행동 변화 이상을 의미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큰 의지력과 자제심을 발휘하여 나쁜 습관과 육신의 나약함을 극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그분을 공공연히 거부합니다. 그러한 행동 변화는 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참된 회개에 속하지 않습니다. ……

회개는 단순히 행동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하는 것도 포함합니다.”(“마음의 큰 변화,” 리아호나, 1990년 3월호, 2쪽)

엘마서 36:23~24.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

•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새로운 탄생의 일부인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고, 영이 역사할 때에만 일어나는 이 큰 변화는 마치 새 사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새로운 탄생으로 비유됩니다. 수많은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죄, 때로는 깊고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삶에 적용하여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은 과거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새 사람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바로 이런 것을 뜻합니다.”(“마음의 큰 변화,” 리아호나, 1990년 3월호, 4쪽)

엘마서 36:30. “땅에서 변성할 것이니라”

• 엘마는 물몬경에서 되풀이되는 주제인 땅에서 변성함에 대해 설명했다. 엘마서 36장 30절은 그 구절에 문맥적 의미를 제공한다. 이것은 반드시 모든 거주민이 이생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변성하다는 단어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 구절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변성하지 못하고 “그분 면전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땅에서 변성하는 사람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영적 축복을 얻는 데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 면전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것이다.

엘마서 37장. 경전의 중요성과 가치

• 엘마는 아들 힐라맨이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새로운 기록 보관자가 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경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엘마가 강조한 주요 요점 중에는 주님께서 늦쇠판과 니파이인의 기록을 단순하고도 놀라운 방법으로 보존하실 것이라는 점도 있었다.(엘마서 37:1~5 참조) 엘마는 아들에게 백성의 기록을 간수하라고 명하면서 경전은 우리의 기억을 넓혀 주고, 우리 길의 오류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과 구원의 계획을 알려준다고 가르쳤다.(8~9절 참조) 그런 다음에 아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경전을 기록하기에 합당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14~16절) 엘마는 더 나아가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 “이 슬픔의 골짜기 너머

훨씬 더 나은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45 절)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우리가 개인 경전 공부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경전은 다가가서 생명을 오래도록 깊숙이 들이마실 수

있는 저수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경전에 담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모사이야서 1:5 참조), 공부하고(교성 26:1 참조), 탐구하며(요한복음 5:39; 엘마서17:2 참조), 흠족히 취함으로써(니파이후서 32:3 참조) ‘생수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니파이전서 11:25; 이터서 8:26; 12:28 비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생이라는 여정 동안에 영적 인도와 보호 둘 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명수의 저수지” [청년 독신을 위한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 2007년 2월 4일], 1쪽)

엘마서 37:1~8

엘마는 작고 단순한 일에서 발휘되는 힘에 대해 말하면서 어떤 주제를 설명했는가? 경전을 공부하는 일은 어떤 면에서 이 원리에 부합 되는가?

엘마서 37:6~7 “작고 단순한 일”

•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작고 단순한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가르쳤다.

“우리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굵직한 사건들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대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 작고 단순한 일을 통해 우리 생활에서 주님의 목적이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크고 기이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반면, 작은 것들은 종종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리아호나가 신앙으로 작동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기적들이 작은 방편으로 이루어지는고로 …… [리하이 백성들이] 게으르고 그들의

신앙과 부지런함을 행할 것을 잊으며 그 기이한 일이 그치고, 그들은 그들의 여행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였더라.’(엘마서 37:41)

작은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여행은 때때로 지연됩니까? 엘마서37:46 참조) 작은 키가 커다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작은 사건들과 선택들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야고보서 3:4; 교성 123:16 참조) ……

우리는 가족 기도와 개인 기도를 하고, 경전 특히 몰몬경을 공부하며, 가정의 밤을 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구주의 훈계를 따르며, 사려 깊고 친절하며 부드럽게 가족을 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과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작고 단순한 일들을 할 때, 우리 삶이 화평과 기쁨으로 가득찰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리아호나, 1990년 7월호, 6, 8쪽)

엘마서 37:19. 몰몬경의 힘

•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몰몬경의 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몇 가지 방법을 알려 주었다. “몰몬경의 힘은 무엇인가? 몰몬경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모을 것이다.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할 것이다. 재림을 대비해 백성을 준비시킬 것이다. 복천년을 안내할 것이다. 적어도 몰몬경은 이 모든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므로 몰몬경의 가치와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The Millennial Messiah* [1982], 171)

엘마서 37:21, 27~29, 32. 은밀한 어둠의 일을 드러내지 말라

•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죄에 관해 너무 자세하게 가르치면 죄를 실행해 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가지 주요 실수는 이 주제에 관해 너무 많이 가르치는 것과 적절하지 않은 때에 가르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저는 젊은이들이 감독과의 접견 중에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고의로 그런 행위를 해 보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 곧 지도자, 교사, 부모들은 다음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 동안 집을 비우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이 문을 나서면서 자신들이

집에 없는 동안 돌봐줄 사람 없이 남아 있을 어린 자녀들에게 ‘얘들아, 착하게 있어야 해. 우리가 없는 동안 발판을 식료품 저장실로 가져가면 안 된다. 그 발판을 던고 네 번째 선반에 올라가서 크래커 상자를 옮겨놓고 그 뒤쪽으로 손을 뻗어서 콩 자루에 있는 콩을 꺼내 코 속으로 넣으면 안 된다. 알았지?’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중에 일부는 것처럼 어리석습니다. 부모가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에는 참으로 풍자와 해학이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는 이보다는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순결이 성스러운 주제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아야 합니다.”(Teach Ye Diligently [1975], 256~257)

앨마서 37:35. ㉞ “젊었을 때에 하나님 계명 지키기를 배우면 어떤 축복이 오는가?”

- 에스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어려서부터 계명 지키기를 배울 때 얻는 힘을 설명했다. “저에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하고 교회 모임에 충실하게 참석해 온 청남을 데려 오십시오. 신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을 받고 이글 스카우트(21개 이상 공훈 배지를 받은 보이 스카우트 단원-역주) 청남을 데려 오십시오. 세미나리를 졸업하고 물몬경에 대해 타는 듯한 간증이 있는 청남을 데려 오십시오. 저에게 그런 청남을 데려 오신다면, 저는 선교 지역에서, 그리고 평생 주님을 위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청남을 여러분께 보내 드리겠습니다.”(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50쪽)
- 경전에는 어린 나이에 주님께 지도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조셉 스미스는 열네 살에(조셉 스미스—역사 1:7 참조), 몰몬은 열다섯 살에(몰몬서 1:15 참조), 구약의 사무엘은 아직 “아이”였을 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사무엘상 3:1~10)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어린 나이에 계명을 지키는 것과 이후에 주님께 봉사하도록 부름 받는 것의 관계에 대해 간증했다. “여러분이 오늘 주위를 둘러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지도자입니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해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존중하고 순결하며 성실하게 모든 선행을 행하는 소년들을 지켜보면서 누가 지도자가 될지 예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중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부류에서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이와는 반대로 젊은 혈기로

방탕한 생활을 하기에 이를 때까지 주님 섬기기를 미루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젊은 시절을 사악함과 죄 가운데 보낸 다음, 나중에 의롭게 바뀌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 젊은 시절의 어리석음과 죄를 나중에 회개할 때는 후회와 비통이 뒤따르지만, 활기찬 어린 시절에 주님을 섬길 때는 위안과 풍성한 보상이 있습니다.”(복음 교리, 5판 [1939], 335쪽)

앨마서 37:38~47
우리 시대에 리아호나와 경전 또는 리아호나와 성령 사이에 어떤 구체적인 유사성이 있는가?

앨마서 37:38~47. 리아호나

- 여러 해에 걸쳐 몇몇 총관리 역원들은 리아호나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계속 인도하는 여러 가지 방편에 대해 설명했다.
 - 칠십인의 더블류 롤프 카 장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리아호나에 비유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길을 보여 주는 개인적인 리아호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압니다. 메시가 쉽다고 하여 게으르지 맙시다. 신앙을 가지고 성스러운 경전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살아 있는 선지자들, 선견자들, 계시자들이 전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취합시다. 신앙과 근면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취합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것을 알려 주는 영적인 리아호나이기 때문입니다.”(리아호나, 2004년 5월호, 37쪽)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각 개인이 받는 축복사의 축복을 리아호나에 비유했다. “리하이를 위해 리아호나를 주신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우리 삶을 인도하도록 매우 희귀하고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는데 선물은 축복사의 축복입니다.”(Live the Good Life [1988], 36)
 -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리아호나를 그리스도의 빛, 또는 우리의 양심에 비유했다.
- “그러한 공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 ?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마다 그것을 알려 주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그 양심을 받았습니다.”(Ensign, Nov. 1976, 79)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리아호나를 성신의 은사에 비유했다.

“각자가 인생이라는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리하이와 리아호나를 통해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성신으로부터 인도를 받습니다.

리아호나가 리하이 가족을 위해 작용했던 것과 똑같이 성신도 우리의 신앙과 부지런함과 주의에 따라 우리 삶에서 작용합니다.

성신은 오늘날 ‘작고 단순한 일’(앨마서 37:6)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 주십니다.

주님의 영은 우리의 안내자가 될 수 있으며 필멸의 여정 동안 인도와 가르침과 영적인 보호로 우리를 축복할 것입니다.”(리아호나, 2006년 5월호, 30~31쪽)

앨마서 38:12. “네 모든 걱정을 굴레 씌워”

• 굴레는 말 머리에 씌우는 마구이다. 여기에는 타는 사람이 말을 제어하는 데 쓰는 고삐와 재갈도 포함된다.

칠십인의 브루스 시 하펜 장로와 하펜 장로의 아내 마리는 굴레가 욕망과 걱정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기 부정이 현명한 이유가 우리의 걱정에 뭔가



© Photospin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뭔가 올바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까? 엘마는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의하여 네 모든 걱정을 굴레 씌워, 네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라.’(앨마서 38:12) 엘마는 걱정을 없애거나 억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굴레를 씌우라고 말했습니다. 곧 걱정을 원동력으로 삼아 올바른 곳에 쏠고 집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절제를 할 때 더 풍부하고 깊은 사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The Belonging Heart [1994], 302)

앨마서 39장. 순결의 법

• “결혼하기 전에 어떠한 성적 관계도 갖지 말며, 결혼한 후에는 배우자에게 온전히 충실하십시오. 사탄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면 결혼 전에 성적 관계를 갖는 것도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리화하도록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적인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하도록 주신 능력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입니다.

결혼한 경우에만 표현해야 할 강력한 감정들을 유발하는 어떠한 일도 결혼하기 전에는 하지 마십시오. 옷을 입은 채로나 입지 않은 채로 정열적인 입맞춤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 위에 올라가거나, 다른 사람의 은밀하고 성스러운 부분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체에 그러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데이트나 구애가 용인되는 문화권에서, 언제나 데이트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될 대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신체적 느낌을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머무십시오. 성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대화나 활동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동성애는 심각한 죄입니다. 동성에게 마음이 끌려 고민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감독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강간이나 근친 상간, 또는 기타 성적 학대의 피해자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라면, 여러분은 무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감독의 조언을 구하여 그분이 정서적 치유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2001], 26~28쪽)

앨마서 39:3. 성적 범죄의 심각성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성적인 죄가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과 더불어서 결혼할 때까지 정절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육체적 친밀성에 관하여 여러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법적으로 합당하게 결혼할 때까지는 모든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불법으로 주는 것([여러분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린도전서 6:19]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일부만을 주어 이후에 자신을 온전히 선물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정서적으로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하늘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서 육체적 만족만을 추구하겠다고 고집한다면, 영적으로, 심적으로 손상을 입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므로 나중에 참된 사랑을 나눌 사람을 만나더라도 육체적 친밀함에 대한 열망과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려는 능력 둘 다 손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임된 사랑, 진정한 결합의 순간에 여러분은 보존했어야 하는 것을 써 버렸다는 두려움과, 여러분이 쉽게 내어주어 상실된 정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는 공포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혼식 날에 영원한 동반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가장 좋은 상태의 여러분 자신, 즉 깨끗하고 순결하며 그러한 순결을 상대에게서 받기 합당한 상태의 여러분 자신입니다.”(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7쪽)

-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창조 능력과 구원의 계획의 관계를 설명했다.

“창조 능력 또는 생식 능력은 우연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 능력 없이는 계획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오용하면 구원의 계획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이생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많은 행복은 이 성스러운 창조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성도의 벗, 1973년 1월호, 15쪽)

앨마서 39:4

앨마는 코리안톤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무엇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는가?
여러분은 이것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앨마서 39:5. 살인 다음으로 중대한 죄

-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는 영혼의 가치와 속죄의 연관성을 설명하면서 왜 성적 범법이 그렇게 심각한지 설명했다:
“다른 사람의 몸을 악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악용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영생의 은사를 가능하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의의 아들을 조롱할 때, 그 사람은 대낮의 해보다 더 뜨겁고 거룩한 열의 영역으로 발걸음을 들여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때 타 버리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해 될 게 뭐야? 자유를 조금 누리는 게 어때서? 지금 죄를 저지르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어리석고 잔인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벌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히브리서 6:6 참조]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린도전서 6:18]고 외쳤고, 교리와 성약에서는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교성 59:6]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한 가지 이유로는,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세상의 구주께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 우리는 그분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19~20; 기울임체 첨가] 성적인 범법은 영혼 즉, 육신과 영이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6쪽)

앨마서 39:6.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는 무엇인가?

-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 관해 더 많이 알려 주었다. “성신을 거스르는 죄를 제외한 모든 죄는 용서받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멸망의 자식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까? 바로 성신을 받고, 하늘이 자신에게 열리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성신을 거스르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이제 더는 회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해를 보면서도 해가 빛을 발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하늘이 그에게 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구원의 계획이 진실함을 알면서도 그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적이 되기



앨마서 39:6, © 1999 IRI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많은 배도자들에게 해당되는 경우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6:314)

앨마서 39:9. “더 이상 네 눈의 탐욕을 따라가지 말고”

• “더 이상 네 눈의 탐욕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학기술이 발달된 현대 세상에서 사탄이 그러한 유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최근 몇 해 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외설물이 끼치는 위험을 경고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우리 마음에 사악한 것을 허용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했다. “구주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죄라고 가르치면서 성적 순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마태복음 5:28 참조] …… 우리 사방에는 불법적인 성관계를 부추기는 글, 인쇄물, 화면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피하십시오. 외설물이나 음란한 이야기, 사진은 더럽고 오염된 음식보다 더 나쁩니다. 몸은 해로운 음식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자체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몇 가지 치명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나쁜 음식을 먹었을 때 단지 얼마 동안만 몸이 아플 뿐 영구적인 해는 없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상스러운 이야기나 외설물, 또는 음란한 사진과 글을 즐기는 사람은 우리가 두뇌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검색 시스템에 그것을 기록해 둡니다. 두뇌는 이 더러운 것을 토해 내지 않습니다. 한 번 기록되면 늘 그곳에 남아 언제든지 상기하게 되며, 마음속에서 그 도발적인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여 건전한 생활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Things They’re Saying*,” *New Era*, Feb. 1974, 18)

•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외설물을 들여 놓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했다.

“선지자 앨마가 행실이 바르지 못한 아들 코리엔톤에게 한 말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네 죄를 버리며, 더 이상 네 눈의 탐욕을 따라가지 말고’(앨마서 39:9)

‘네 눈의 탐욕.’ 우리 시대에 이 표현은 무엇을 뜻합니까?

선정적이고 외설적인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비디오입니다. 음란하고 외설적인 잡지나 책입니다.

우리는 젊은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그런 저속한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이런 더러운 것이 들어간

마음은 절대로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나 저속한 비디오를 보지 마십시오. 부도덕하거나 선정적이거나, 외설적인 오락 활동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저속한 음악을 듣지 마십시오.”(*리아호나*, 1986년 7월호, 49쪽)

•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외설물이 끼치는 해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간증을 덧붙였다.

“외설물은 우리를 흥분시켜 오직 후회만 가져올 영역으로 끌어 내리는 인쇄물과 사진 자료이다. 외설물은 상당히 유혹적이며 우리 모두의 내부에 있는 본능, 하나님께서 위대한 목적을 위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본능을 자극한다. 외설물은 그 본능을 왜곡하여 금지된 결과로 이끄는 악마의 도구이다. 여기에는 대개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과 잘생긴 젊은 남성들이 나온다. 이런 외설물을 제작하는 목적은 제작자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한 것이다. 외설물이 만드는 결과는 그 뒷에 걸린 사람들의 정신을 왜곡시키고 그들의 걱정을 자극하는 것뿐이다. 이것은 제작자에게 수억 달러를 벌어들인다. 외설물을 탐닉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탄과 고통과 후회가 남을 뿐이다.

이것은 대부분 신문 가판대에서 살 수 있는 잡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 우리 가정에 있는 텔레비전 화면에 나온다.”(*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7], 460)

• 앨마서 39장 9절에 나오는 “네 스스로를 부인하라”라는 구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1828년 판 웹스터 사전에서 우리는 아들에게 준 앨마의 권고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볼 수 있다. “지우다, 취소하다, 방해하다, 중지하다, 못하게 하다”(Noah Webster’s *First Edition of an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828 [1967]) 이 모든 행동은 우리가 도덕적인 범법을 피하기 위해 해야 할 것들, 즉 앨마가 아들 코리엔톤에게 가르친 주제에 잘 적용된다.)

앨마서 39:11~12. 다른 사람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죄

• 앨마서 39장 11~12절에서 앨마는 순결의 법을 어긴 아들 코리엔톤에게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경고했다.

“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 자녀를 참된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복음 원리를 믿는 신앙을 파괴하려 하는 여러 종류의 철학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구한다면 그분과 함께 우리가 누릴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한 행위 때문에 한 영혼을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인도했다면 우리의 슬픔과 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영혼의 눈을 멀게 하는 자, 거짓을 퍼뜨리는 자, 자신의 가르침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왕국과 그 충만함으로 인도하는 신성한 진리를 파괴하는 자는 큰 죄를 짓는 것이며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한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은 지금까지 창조된 가장 위대한 일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1권, 292~293쪽)

앨마서 39:12~13, 15. “주께로 돌이키라” 그리고 네 비행을 시인하라

• “성적인 범법을 행했다면, 지금 회개의 과정을 시작하여 내적 평안을 찾고 영의 완전한 동반하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감독께 말하십시오. 그분은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용서를 얻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8쪽)



© 1988 더클러스 포라이어

•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주님께 돌이키[고]” 부도덕 같은 심각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잠시 저는 심각한 유혹에 굴복한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지하십시오. 여러분은 이해심 많은 부모,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에게 도움을 받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부도덕 같은 심각한 범법은 회개 과정이 온전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용히 처리하는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 같은, 권세의 열쇠를 지닌 이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심각한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믿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고백은 중요한 단계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범죄에 대해 중요한 사항들을 모두 자세히 묻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추측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에게 자세한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용서를 받도록 올바른 회개 과정을 밟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리아호나, 1999년 1월호, 69~70쪽)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여러분이 합당하게 회개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며 강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회개하여 새로워지고 화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각한 문제는 회개 과정이 쉽게 시작되거나 고통 없이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구주께서는 그 중요한 여행에서 여러분과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 그분은 여러분을 강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위가 어두워 보일 때 그분은 여러분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그분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것이며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진실로 완전한 용서를 원하고 그런 용서에 이르는 절차를 밟는 모든 사람은 깨끗하게 하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과 더불어 그분의 동정심과 자비를 풍성하게 받습니다.”(리아호나, 1999년 1월호, 78쪽)

앨마서 39:17~19. 구원의 계획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알려졌다

• 일부 종교는 이 필멸의 삶 다음에 어떤 삶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생 이전에 삶이 있었다고 믿는 종교는 거의 없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창세 이전부터 주님께서 알고 계신 바를 설명했다. “위대한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이 놓이기 전에 지구와 관련하여 구원의 계획에 관한 전체 사건을 구상하셨다. …… 과거, 현재, 미래는 그분과 함께 하나의 영원한 ‘지금’이었고 또 ‘지금’이다. 그분은 아담의 타락, 대홍수 이전 시대 사람들의 죄악, 인간 가족과 관련된 죄악의 깊이를 아셨다. …… 그분은 아담의 타락과 그분의 구속을 이해하셨다. 그분은 구원의 계획을 아시고 그 계획을 지시하셨다. 그분은 모든 민족의 상황과 그들의 운명을 아셨다. …… 그분은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의 상황을 아시며, 그들의 구속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하셨다.”(History of the Church, 4:597)

생각해 볼 점

- 엘마는 하나님과 복음의 실재성을 확신했을 때 즉시 과거에 지은 죄로 크게 슬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왜 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 엘마는 아들 힐라맨에게 경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대의 선지자들도 우리에게 똑같이 강조한다. 여러분은 매일 경전을 공부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또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가? 정기적으로 말씀을 취하는 사람들의 삶에 경전은 어떻게 축복이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경전 공부를 하는 습관을 기르거나 강화시킬 수 있을까?

- 시블론이 보여 준 모범에서 좋은 때나 나쁜 때나 항상 굳건하게 남는 데 도움이 될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가?

제언 과제

- 우리와 상황이 다르더라도 엘마가 회개하여 용서받은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원리들 중 몇 가지와 그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종이 한 장 분량으로 요약한다.
- 엘마는 코리엔톤에게 성적인 범법은 살인 다음으로 중대한 죄라고 말했다. 여러분이 순결을 지키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적으면서 계획을 세운다.

소개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반항적인 엘마의 아들 코리엔톤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졌고, 엘마서 40~42장은 엘마가 코리엔톤에게 권고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질문에 답하면서 엘마는 영의 세계와 심판, 부활, 회복의 법, 죄인이 받는 형벌에 대해 가르쳤다. 엘마는 코리엔톤에게 가르치고 나서 회개, 죄, 율법, 형벌이 없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했다. 엘마가 아들에게 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행복의 계획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해 배우고,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진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해설

엘마서 40:4~10. “모두가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고”

• 엘마는 코리엔톤에게 부활의 실재성을 간증한 후, 모든 인류에게 일어나는 부활이 언제 실현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 시기는 엘마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모두가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고”라고 말했다.(엘마서 40:8)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나타나며 계속하여 주 앞에 존재”(교성 130:7)한다고 밝혔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었다.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 필멸의 시간이 시작되기 오래 전부터 구속 사업을 하셨으며, 필멸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그 사업을 계속하실 것이다.(교성 88:110; 엘마서 40:8 참조) ……

그렇다면, 자비롭게도 모든 것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교성 104:16) 이 세상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목적, 그분의 인내, 권능, 심오한 사랑은 이 세상이 끝난 후에도 계속될 것이다.(교성 84:100, 엘마서 40:8 참조)

이 진리와 다른 진리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깊은 것’(고린도전서 2:10)이라고 말한 것 가운데 있다.”(A Wonderful Flood of Light [1990], 50, 58~59)

선지자 조셉 스미스도 이렇게 말했다. “위대하신 여호와께서는 지상과 연관된 모든 것, 새벽 별들이 기뻐 함께 노래한 구원의 계획과 관련된 모든 것을 그것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생각하셨다.

과거, 현재, 미래가 그분에게는 영원한 ‘지금’이다.”(History of the Church, 4:597)

엘마서 40:11. 모든 사람의 영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입느니라”

• 사람이 죽어서 실제 하나님 면전이 아니라 영의 세계로 간다면, 엘마의 말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엘마가 한 말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면전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엘마가 말한 이 표현[40:11]은 모든 영이 화평의 장소, 또는 형벌의 장소를 지정받기 위해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가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면전으로 데려감’[전도서 12:7와 비교]이란 말은 단순히 필멸의 삶이 끝나 영의 세계로 돌아가, 그곳에서 옳고 그른 행위에 따라 거할 곳을 지정 받고 부활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구절은 잘 알려진 다른 많은 상황에서도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외국에 있는 선교 지역에서 일정한 시간을 보내고 해임되어 미국으로 돌아갈 때, 그는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좋구나.’ 그러나 그의 집은 유태, 아이다호, 또는 서부 어디에 있을 것입니다.”(Answers to Gospel Questions,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1957~66], 2:85)

제일회장단의 조지 큐 캐넌(1827~1901) 회장은 엘마가 “즉시 하나님 면전으로 안내된다는 개념을 전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을 제한된 의미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Gospel Truth: Discourses and Writings of President George Q. Cannon, sel. Jerreld L. Newquist[1987], 58)

엘마서 40:11~15. 죽음과 부활 사이 영의 상태

• 다음 설명은 죽음 이후와 부활 전 영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육신이 죽더라도, 영은 계속해서 살게 된다. 영의 세계에서 의로운 영은 ‘낙원’이라 일컫는 행복의 상태, 곧 안식의 상태, 평화의 상태로 영접되어, 그 곳에서 그들의 모든 곤경과 모든 염려와 슬픔에서 놓여 쉬게 [될]”(엘마서 40:11~12) 것이다. 영옥이라고 불리는 곳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죄 가운데서 죽은 자들 또는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범법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교성 138:32) 위해 마련된 곳이다. 영옥에 있는 영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 죄 사함을

위한 대리 침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와 ……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의 다른 모든 원리도 가르침 받았느니라.’(교성 138:33~34) 만약 그들이 복음의 원리들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성전에서 그들을 위해 행해진 의식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낙원으로 영접될 것이다.’(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 [2004], 161쪽)



© 1985 윌버트 배라

• 브리검 영(1801~1877) 회장의 설명은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처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죽은 이후에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곳이 아니라 영의 세계로 갑니다. 영의 세계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곳입니다. 선한 영과 악한 영이 함께 갑니까? 네, 함께 갑니다. 그들 모두 한 왕국에 거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해로 갑니까? 아닙니다. 조직된 지구의 경계 밖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지구 위로 옵니다.”(*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1954], 376)

앨마서 40:16~22. 첫째 부활

- 앨마는 첫째 부활을 지상의 시간과 연관시켜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시며, 곧이어 지상이 시작될 때부터 그리스도 부활 때까지 지상에서 살다가 죽은 의로운 이들이 부활한다.(앨마서 40:16, 20; 교성 133:54~55 참조) 이 부활이 앨마가 지칭한 첫째 부활이다.
-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첫째 부활에는 다른 여러 시간대와 사건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을 때 의로운 이들의 일반적인 부활이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재림 때 있을 의로운 자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보통 말한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이다. 왜냐면,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거나 염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의로운 이들이 나와 그분과 함께 천 년 동안 지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

주님께서 오실 [재림하실] 때 ‘자기의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나오리니, 이는 그들의 무덤이 열릴 것임이라. 그리고 그들도 또한 끌려 올라가 하늘의 기둥 가운데서 그를 만나게 되리라—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첫 열매니, 주와 함께 먼저 내려 올 자들이요, 땅 위애와 그들의 무덤 속에 있다가 먼저 끌려 올라가서 그를 만나게 되는 자들이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천사의 나팔을 부는 소리로 이루어지리라.’[교성 88:97~98]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만인의 심판자로 계시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니라. 이들은 예수 곧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하여 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새 성약의 증보자 예수를 통하여 온전하게 된 의로운 자들이니라.’[교성 76:68~69]

이 위대한 일이 있은 후, 그리고 주님과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 끌려 올라간 의로운 이들이 지상에 내려온 후에 또 다른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일어나지만 첫째 부활의 일부로 여겨질 수 있다. 이 부활에서 달의 영광의 반차를 따른 이들이 나올 것이며, 이들은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 끌려 올라가기에는 합당하지 못하지만, 복천년 통치를 향유하러 나오기에는 합당한 이들에게이다.”(*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2권, 262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의로운 자의 부활,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도 언급되는 첫째 부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나오는 이들은 해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해의 영광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는 자들이다. 이 부활의 오후에 나오는 이들은 달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그 결과 그 왕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들은 이 부활에 나아올 때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지금까지 부활했던 모든 이들은 해의 영광의 몸을 받았다. 달의 영광의 존재로 나오는 것은 재림 이후에 비로소 시작된다.(교성 76:50~80; 88:95~99)”(*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71-73], 1:196)

엘마서 40:23. “적절하고도 완전한 구조”

•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부활 시에 결함이 고쳐진다는 사실을 알 때 얻는 위안을 말씀했다.

“태어날 때부터 결함이 있었거나 살아가면서 생긴 상해, 질병, 또는 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퇴보로 불편을 겪는 모든 사람이 ‘적절하고도 완전한 구조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은 큰 위안이 됩니다. ……



부활을 확신할 때, 우리 각자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멸의 삶에서 겪는 난관들, 곧 선천적, 후천적으로 얻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결함을 견뎌낼 힘과 시각을 얻습니다. 우리는 부활 때문에 이러한 필멸의 결함들이 단지 일시적일 뿐이라는 점을 압니다.”(리아호나, 2000년 7월호, 18쪽)

•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은 부활할 때 불구인 부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말씀했다. “불구는 사라지고, 결점은 없어질 것입니다.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함을 얻고, 완전한 영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곧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태어난 자녀들인 모든 인간을 영적으로는 물론 신체적으로도 완전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완전하게 할 방편으로 마련하신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가능합니다.”(Gospel Doctrine, 5th ed.[1939], 23)

엘마서 40:26. “악인에게는 참담한 죽음이 임하니”

• 다음 말씀은 이 “참담한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경전에는 이따금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 구원 받는 것에 대해 나와 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 즉 의로움으로부터 단절되고 어떤 영광의 왕국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거절당하는 것을 말한다.(엘마서 12:32; 교성 88:24 참조) 두

번째 죽음은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오지 않을 것이며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올 것이다.(교성 76:31~37 참조) 지상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 구원 받는 것은 확실하다.(교성 76:40~45 참조)”(신앙에 충실함, 39쪽)

엘마서 41장. 회복의 법

• 일부 현대인들처럼 코리엔톤은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축복을 받는다면 의롭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의아했을 것이다. 엘마서 41장은 이 문제에 관해 설명한다.

회복의 법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결과는 그들이 얼마나 계명을 충실히 지키느냐에 달렸다. 그래서 엘마는 코리엔톤에게 사람은 “죄에서 행복으로 회복”(엘마서 41:10)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수확의 법칙과 비슷하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갈라디아서 6:7; 교성 130:20~21 참조)

엘마는 아들에게 “다시 네게 보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선을 행하라 …… 이는 네가 내보내는 것이 다시 네게로 돌아와 회복될 것임이니”(엘마서 41:14~15)라고 권고했다.

엘마는 또한 아들에게 회복의 법에 따라, 부활할 때에는 완전한 육신으로 회복된다고 가르쳤다. “영혼은 육신에게로 회복되겠고 …… 참으로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고”(엘마서 40:23) 그러나 부활체가 받을 영광의 등급은 각 사람이 충실한 정도에 달려 있다.(교성 88:28~32 참조)

엘마서 41:10.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느니라”

• 다음 권고는 복음 표준대로 생활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계명에 위배되는 활동에서 행복과 성취감을 찾으려 한다. 그들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진정한 행복의 유일한 근원을 거부한다. 그들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니파이후서 2:27) 하는 악마에게 굴복한다. 결국 그들은 엘마가 아들 코리엔톤에게 준 경고의 참 뜻을 알게 된다.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느니라.’(엘마서 41:10) ……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추구한다면, 참된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 계명에 따르고,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하고, 의미 있는 봉사를 할 때 여러분은 평화롭고

영원한 행복을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범위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신앙에 충실함, 184쪽)

앨마서 41:11~14
 “공정히 행하며, 의롭게 판단하며, 계속하여
 선을 행하면” 무엇을 받는가?

앨마서 42:1~10. “시험의 시간”

•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는 필멸의 삶이라고 불리는 시험 시간이 존재하는 목적을 설명했다. “지상 생활의 주 목적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온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와 하나가 되는 위대한 기회를 주는 데 있습니다. 영과 육이 결합하여 하나가 되면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며 성숙해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우리 존재의 시험 상태라 일컬어지는 일정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움과 시험의 기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거룩한 계획의 일부입니다.”(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16쪽)

• 칠십인으로 봉사했던 로날드 이 포울먼 장로는 필멸의 삶이란 상반되는 것들을 배우고 그 가운데서 선택을 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생에서 상반되는 것을 경험하고,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배우며, 하나님 면전에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시험의 시기는 전세에서 우리가 제안을 받고 수락했던 구원의 계획 중 일부입니다. 역경을 겪는 일은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오겠다고 선택했습니다.(니파이후서 2:11~16 참조)”(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27쪽)

• 칠십인인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는 필멸의 삶이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생은 시험을 겪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며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는 법을 배우는, 놀라운 선물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흐트러진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단순하고 곧으며 성령으로 환히 밝혀진 길입니다.”(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28쪽)

앨마서 42:11~31. 공의와 자비의 법

•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구주께서 회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자비가 공의의 법에 저촉되지 않고 베풀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모두는 일종의 영적인 채무를 진 채 삽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청산을 해야 할 날이 언젠가는 닥쳐옵니다.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마감이 임박하는 그 날이 이르면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지 찾을 것입니다.

빛을 갚아 줄 능력도 있고 대신 값을 치르고 기꺼이 계약 조건을 조정하실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영원한 율법에 따라, 자비는 베풀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중재자가 없고 우리에게 친구가 없다면, 동정을 얻을 여지도 주지 않은 채 가차 없이 엄중하게 공의가 시행될 것입니다. 크든 작든 모든 범법에 대한 완전한 보상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몰수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진리는, 영광스런 진리는 그러한 중재자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디모데전서
 2:5)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공의의 법을 어기지 않고도 우리 각자에게 자비가 온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 교리에서 핵심이 되는 토대입니다.

자비가 자동으로 베풀어지지 않는습니다. 자비는 주님과 성약을 맺을 때 적용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시하신 관대한 조건, 즉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라는 절대 필수 요건이 따릅니다.



모든 인간은 공의의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 각자는 구속과 치유의

축복이라는 자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56쪽)

•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다음과 같은 식견을 나누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완전했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므로,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한때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조차 전혀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니파이후서 9:14~15; 엘마서 5:15~19; 12:3~14; 42:23~26, 30 참조)”(리아호나, 2000년 7월호, 88쪽)

엘마서 42:18~30. 양심의 가책

•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양심의 가책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했다.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치 ‘자, 조금 따끔할 수도 있습니다. ……’ 하고 말하면서 치료를 시작하는 의사가 된 기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양심에 가책을 느껴 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요한1서 1:8] 그런 뒤에 그는 더욱 강하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요한1서 1:10]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또 일부 사람들은 오랫동안 잘못된 일이나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 둔 일로 양심에 가책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죄책감과 영의 관계는 고통과 육체의 관계와 같습니다. ……

우리는 모두 잘못을 저지릅니다. 때때로 혼자서는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고칠 수 없는 것들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나면 혼자서는 치유할 수 없는 죄책감과 수치와 고통이 내면에 스며듭니다. 그때가 바로 속죄의 치유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교성 19:16]”(리아호나, 2001년 7월호, 25~27쪽)

•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은 민감한 양심의 가치에 대해 말씀했다. “양심이라고 하는 민감하고도 강력한 지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양심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해의 왕국의 불빛이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다. 확실히 그것은 인간에게 죄를 인식하게 하며, 필요한 조정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하고,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줄이지 않고 범법을 깨닫게 해 주며, 사실을 직시하고 필요한 형벌을 받게 해 주는 도구이다. 맨 먼저 죄를 뉘우친 후, 그릇된 행위를 버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인간이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려 하지 않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자기가 저지른 일을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용서받기 위한 해결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엘마가 아들 코리엔톤에게 ‘오직 진실로 뉘우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느니라.(엘마서 42:24)’라고 한 말에서 의미하는 바였다.(용서가 낳는 기적 [1969], 142쪽)

엘마서 42:23. “속죄는 …… 부활을 가져오며”

•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위대한 속죄 희생으로 부활이 가능해진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



판타스틱스/클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모든 인간을 위한 희생 제물로 주셨을 때, 그분의 위대한 사랑은 죽음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그 속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었으며, 지상에 살았고 앞으로 살 모든 사람이 부활을

확신하게 된 은혜로운 행위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에 견줄 만한 행동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그 어떤 사건도 비교되지 못합니다. 완전히 비이기적이고, 모든 인류를 향한 한없는 사랑,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견줄 수 없는 전 인류에 대한 자비로운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 첫 부활절 아침은 부활과 함께 불멸에 대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22)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만인에게 부활이라는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리아호나, 2000년 1월호, 87쪽)



엘마서 42:27~30

이 구절은 선택의지와 책임의 관계를 어떻게 암시하는가?

생각해 볼 점

- 왜 간악함은 결코 행복으로 이어질 수 없는가? 때때로 간악한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구주의 속죄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공의의 법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유익한가?
- 자비의 법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유익한가?

제언 과제

- 엘마서 40~42장에 나오는 참조 성구를 두 개 이상 사용하여 영의 세계에 대한 짧은 말씀을 준비하고 가능하다면 그 말씀을 전한다.
- 엘마는 아들 코리엔톤에게 부활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쳤는가?
- 다음 각각에 대한 간략한 정의 또는 설명을 적는다. 회복의 법, 공의의 법, 자비의 법.

소개

분쟁과 이반, 전쟁으로 니파이 민족은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대립은 레이맨들 때문에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다. 반기를 든 니파이인들은 권력을 탐했고, 그 결과 심각한 문제들이 무수히 생겨났다. 니파이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선지자와 의로운 군대 지도자들을 따름으로써 적들을 물리쳤다.

모로나이 대장과 아멜리카이아의 동기와 의도를 대조해 본다. 선지자 몰몬은 모로나이 대장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다. “모든 사람이 과거에나, 현재에나, 장차 언제까지나 모로나이와 같을진대, 보라, 지옥의 권세들이 영원토록 흔들렸을 것이요, 참으로 악마가 결단코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리라.”(엘마서 48:17) 우리도 모로나이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엘마서 48:13) 생활할 수 있다.

해설

엘마서 43:2~3. “니파이인과 레이맨인 사이에 있었던 전쟁”

• 엘마서 43~62장에서 몰몬은 독자들에게 “전쟁의 기사로 돌아가겠다”(엘마서 43:3)고 말한다. 일부 사람들은 몰몬경에 왜 그렇게 전쟁 기사가 많이 실려 있는지 의아해한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몰몬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쟁 시기에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리아호나, 1987년 1월호, 6쪽)

우리 시대를 미리 본 몰몬은 우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교성 45:26; 또한 요한계시록 9장 참조)이 있는 시기에 살아갈 것을 알았기에 그러한 시기에 의롭게 사는 방법을 기록에 포함시켰다. 많은 후기 성도들이 전투에 참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전쟁을 다룬 이 장들에 몰몬이 어떤 복음 원리들을 포함시켰는지 살펴본다. 몰몬은 전쟁이 야기한 엄청난 고통을 보여 주고, 또한 생명과 자유를 수호하는 데 전쟁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몰몬과 현대 선지자들은 전쟁이 정당하게 인정되는 상황들을 설명했다.(249쪽 엘마서 43:45~47 해설 및 253쪽 엘마서 51:13 해설 참조)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전쟁이 정당한 상황에서도 하늘에서는 이를 슬퍼한다고 말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수 세기 동안 서로 무자비하게 파멸시키는 일에 자신의 신성한 생득권을 탕진하는 모습을 보시며 틀림없이 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9쪽) 니파이인과 모로나이 대장은 전쟁과 피흘리는 일 앞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250쪽에 나오는 엘마서 43:54; 44:1~2, 48:11, 22~23 해설 참조)

• 제2차 세계 대전 때 제일회장단은 다음 성명을 발표하여 전쟁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회원들은 통치자에게 충성해야 하며 부름을 받으면 충성을 다해 봉사해야 한다. [군복무도 포함된다.] 그러나 교회 자체는 이 정책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 교회는 회원들에게 최고의 애국심을 발휘하여 국가와 민주 정부에 온전히 충성하도록 권고하는 일 외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 모든 시민 또는 국민은 국가에 져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신앙개조에 다음과 같이 선언되어 있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복종할 것과, 법률을 순종하고 존중하며 지지할 것을 믿는다.’……

이 원리에 순종하여 교회 회원들은 군대에 소집될 때 항상 국가를 수호해야 하는 의무를 느꼈다.……

교회는 전쟁에 반대하고, 반대해야만 한다.…… 교회는 전쟁을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의로운 수단으로 여길 수 없다. 국제 분쟁은 국가들이 동의하는 평화 협정 및 조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또 그런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회원들은 교회가 제어할 수 없는 통치자의 시민 또는 국민이다.……

…… 이 원리에 순종하여, 교회 남성들은 그들이 충성해야 할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군복무를 요구 받는 경우에 그에 응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실행해야 하는 가장 큰 의무가 된다. 부름에 응하여 지휘관에게 복종할 때 그들은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들은

살인자가 되지 않는다.”(Heber J. Grant, J. Reuben Clark Jr., and David O. McKay, in Conference Report, Apr. 1942, 92~94; also cited in Boyd K. Packer, Conference Report, Apr. 1968, 34~35)

엘마서 43:4~8. 레이맨인 군대 총대장으로 임명된 니파이인 이반자들

- 조렘인들은 한때 니파이 민족에 속했다. 그러나 교만 때문에 “조렘인들이 레이맨인이 되었다”(엘마서 43:4) 그들이 변절하기 전에 이미 니파이인 지도자들은 조렘인들이 레이맨인과 결탁해서 니파이 민족을 위협에 빠뜨리지는 않을까 하고 우려했다.(엘마서 31:4 참조) 이 대규모 변절을 막기 위해 엘마는 이미 대다수가 참 신앙을 저버린 조렘인들을 개심시키고자 선교 사업을 주도했다. 일부 조렘인들이 신앙을 회복했지만 대다수는 노하여 “레이맨인들과 섞이며 그들도 …… 노하게” 하여 전쟁 준비를 시작했다.(엘마서 35:10~11) 레이맨인 전쟁 지휘관들은 니파이인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잡기 위해 피에 더 굶주린 조렘인들과 아멜리카이아인들을 총대장으로 임명했다.

“조렘인들은 …… 레이맨인 무리에게 자기 땅으로 들어와 그들의 나라를 차지하라고 권유함으로써 니파이인들에게 대항하는 첫 번째 조치를 취했다.(엘마서 43:5) 아멜리카이아인 제레헴나는 레이맨인 총대장이 되었다. 초기에 니파이인에게서 떨어져 나온 이반자인 아멜리카이아인은 대부분 이반자들이 그렇듯이 니파이인들에게 더 큰 약감정을 품었고, ‘레이맨인들보다 더욱 간악하고 잔인한 성향’(엘마서 43:6)이 있었다. 그 점을 안 제레헴나는 모든 군대 지휘권을 자신과 같은 아멜리카이아인 또는 그 못지않게 흉포한 조렘인들에게 주었다.(엘마서 43:6)”(Hugh Nibley, *Since Cumorah*, 2nd ed.[1988], 296)

엘마서 43:13~14. 수적으로 우세한 적군과 맞서지 않을 수 없었다

- 레이맨인이 된 니파이인 이반자들의 숫자는 충실히 남아 있는 니파이인만큼이나 많았다.(엘마서 43:14 참조) 이 어마어마한 숫자에 레이맨인 군대가 합쳐지자 니파이인들은 수적으로 크게 열세에 몰렸다.(엘마서 43:51 참조; 또한 모사이야서 25:3; 엘마서 2:27, 35 참조) 그러나 니파이인들은 신앙에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대(사사기 7~9 참조), 엘리사(열왕기하 6:15~23 참조), 베냐민 왕(몰몬의 말씀 1:14

참조), 엘마(엘마서 2:27~35 참조)를 위해 하신 것처럼 이 힘든 전투에서도 자신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엘마서 43:15~54. 신앙과 전략으로 니파이인을 지켜낸 모로나이 대장

- 총대장으로 나선 모로나이는 니파이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힘과 주님의 능력에 의지했다. 엘마서 43장을 보면, 모로나이 대장은 스스로 탁월하게 판단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고에 순종하며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본을 보였다. 모로나이는 각 병사에게 튼튼한 갑옷을 입혀 준비시켰고(19~21절 참조) 전투 전에 먼저 선지자에게 조언을 구했다.(23~24절 참조)

레이맨인 군사 작전은 아멜리카이아인과 조렘인 장교들이 지휘했다. 그들은 니파이인 군대의 비밀과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니파이인들의] 지휘관이 모로나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로나이는 선견지명에 따라 적들이 첫 번째 목표로 삼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어손 완충지대를 곧바로 장악했다.(엘마서 43:22) 모로나이는 그곳에 주력 부대를 주둔시켜 방어하게 했다. 그러나 사자들이 돌아와서 선지자의 권고를 전했고, 모로나이는 레이맨들이 접근하기는 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인 맨타이 땅을 공격하려 한다는 예상치 못한 계획을 알게 되었다.(엘마서 43:24) 모로나이는 즉시 주력 부대를 맨타이로 이동시키고, 그곳 주민들을 준비시켰다.(엘마서 43:25~26)

첩자와 정찰대를 보내 레이맨인의 모든 움직임을 알아낸 모로나이는 군사를 매복시켰다. 모로나이는 시돈 강을 건너는 레이맨인 군대를 습격하여 승리했다.(엘마서 43:28~35)”(Hugh Nibley, *Since Cumorah*, 297~298)

모로나이 대장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기대했다. 그는 아마도 그 시대에 가장 명석한 군인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모로나이 대장은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는 겸손함을 보였다. 그 때문에 그는 주님의 손 안에서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엘마서 43:18~22, 37~38.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보호용 갑주는 무엇인가?

- 모로나이 대장은 군대에 보호용 갑주를 지급했으며, 이것은 전투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였다.(엘마서 43:37~38 참조) 해롤드

비 리(1899~1973) 회장은 오늘날 우리 삶에 이 구절을 적용하는 한 방법을 설명했다.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어둠의 세력에게 가장 취약하다고 말한 네 가지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정결, 곧 순결을 대표하는 허리, 우리의 행위를 대표하는 가슴, 삶의 목표 또는 목적을 상징하는 발, 끝으로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는 머리입니다.

... 우리는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야 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진리를 사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교성 93:24] …… ‘우리는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야 한다’고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다음은 가슴입니다. 어떤 가슴판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자신의 행동을 보호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의의 가슴판을 가슴에 돌려야 합니다.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우리가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 행동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동을 보호할 가슴판은 의의 가슴판이어야 합니다.

우리 발은 무엇으로 보호해야 합니까, 또는 무엇으로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을 측정해야 합니까? ……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에베소서 6:15] ……

끝으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구함 받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함을 받습니까? 사명과 죄로부터 구함을 받는 것입니다. ……

사도 바울은 …… 한 손에는 방패를, 다른 한 손에는 검을 든, 갑주 입은 사람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그 시절에 쓰이던 무기입니다. 방패는 신앙의 방패이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입니다. 저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실린 경전 지식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갑주를 잘 두른 사람과 그 무기를 갖춘 사람은 나가서 적과 싸울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Feet Shod with the Preparation of the Gospel of Peace*, 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of the Year [Nov. 9, 1954], 2~3, 6~7; 또한 에베소서 6:13~17; 교성 27:15~18 참조)

엘마서 43:23~25

모로나이 대장은 왜 선지자에게 권고를 구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선지자의 권고를 구할 수 있을까?

엘마서 43:23~25. 선지자에게 순종할 때 축복이 온다

• 모로나이 대장은 선지자의 권고를 구하고 따르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승리를 이끌었다. 오늘날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도 선지자를 따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1895~1985) 회장은 우리가 선지자를 따라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선지자와 선견자로 지지한 분과 그밖에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마치 우리의 영생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귀 기울여 들읍시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리아호나*, 1978년 10월호, 120쪽)

엘마서 43:45~47. “피를 흘려서라도”

•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 무죄한 생명을 빼앗는 것은 “주가 보시기에 가증한 일”(엘마서 39:5)이다. 그러나 자신, 가족, 자유, 종교, 또는 국가를 수호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전쟁과 피흘림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다.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상황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파이인들은 더 나은 대의로 고무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 권력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유,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위하여, 참으로 그들의 예배 의식과 그들의 교회를 위하여 싸우고 있었음이라.

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지고 있는 의무라고 느낀 바를 행하고 있었나니(엘마서 43:45~46)

주님은 니파이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너희는 피를 흘려서라도 너희의 가족을 보호하라’(엘마서 43:47) ……

이 기록과 기타 기록들을 보면, 실제로 국가가 가족과 자유를 위해, 독재와 위협과 억압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 정당화 되는 사실상, 그럴 의무가 있는, 때와 상황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

……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백성이며, 자유가 위협에 처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자유를 수호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남녀 군인들이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수행할 때 그들에게 정부 대리인이 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악과 억압의 세력과 싸우는 사람들의 길을 막거나 저지하려 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리아호나*, 2003년 5월호, 80쪽)



앨마서 43:54; 44:1~2; 48:11, 22~23. 모로나이는 “피 흘리는 일을 기뻐하지 않았다”

• 비록 국가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모로나이 대장은 “피 흘리는 일을 기뻐하지 않았다.”(앨마서 48:11) 그는 여러 해 동안 레이맨인들과 싸우기를 꺼려했다.(앨마서 48:22 참조) 싸울 때도 적군을 비롯하여 모든 이에게 자비로웠다. 기록에 따르면 모로나이 대장은 가능한 한 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여러 번 전쟁을 중단했다고 한다.(앨마서 43:54~44:1~2; 55:19 참조) “그들의 형제들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로 …… 보내는”(앨마서 48:23) 것을 슬퍼하여 생명을 해하는 것을 꺼려했다. 모로나이 대장은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고 죽음을 맞은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받[을 것이며] “기뻐하며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앨마서 46:39)

일부 독자들은 주님의 성약을 지키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이 어떻게 군대 일에 그렇게 깊이 관여할 수 있을까 의아해 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몰몬은 모로나이에 대해 “피 흘리는 일을 기뻐하지 않았고” “적에 대항하여 스스로의 생명을 지켜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 결코 검을 치켜들지 않도록 가르침”(앨마서 48:11, 14) 받았다고 기록했던 것이다.

앨마서 45장 삽입문. “니파이 백성의] …… 기사”

• 앨마서 45장에 대한 짧은 소개 앞에 삽입된 내용은 원판 기록에 있던 것이다.(더 자세한 설명을 보려면 11쪽에 나오는 니파이전서: 니파이의 다스림과 성역 해설을 참조한다.)

“제45장에서 제62장까지 수록되어 있음”이란 구절은 몰몬경이 장 개념을 사용한 형식으로 출판된 1879년 판을 만들 때 추가되었다.

앨마서 45:17~19. 엘마는 떠났고 “그에 대하여 더 이상 듣지 못하였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영의 취하심을 입고 올리웠거나, 주의 손으로 장사되었다”(앨마서 45:19)라는 구절은 엘마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모세와 엘리야, 엘마 이세는 변화되었다. 모세가 죽어 주님의 손으로 장사되었으나(영어 성경 신명기 34장 6절에는 ‘he buried him’이라는 구절이 있음— 옮긴 이) 아무도 모세가 묻힌 곳을 모른다(신명기 34:5~7)는 구약전서의 기사는 잘못된 것이다. 모세가 ‘주의 손으로 장사되었다’라는 말은 만약 이 표현이 그가 변화되었다는 뜻을 전한다면, 사실이다. 그러나 엘마가 ‘영의 취하심을 입고 올리웠[다]’고 기록된 몰몬경 기사에는 ‘경전에 일렀으되 주께서 모세를 자기에게로 취하셨다 하였으니,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가 또한 엘마도 영으로 자기에게 영접하셨으리라.’(앨마서 45:18~19)라고 기록되어 있다. 니파이인들에게는 낯선 판이 있었고, 모세가 변형되어 취하심을 입었다고 기록한 ‘경전은 바로 그 낯선 판을 말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구약전서에 장엄하게 묘사되어 있다.(열왕기하 2장)”(*Mormon Doctrine*, 2nd ed. [1966], 805)

앨마서 46~50장. 사악한 지도자와 의로운 지도자가 대조되다

• 몰몬은 아멜리카이아와 모로나이 대장의 현저한 차이점을 명시했다.(앨마서 48:7; 49:25~28 참조) 아멜리카이아는 “하나님이 [니파이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 자유의 기초를 파괴하기를” 피하였고, 모로나이 대장은 그 자유를 수호하고자 했다.(앨마서 46:10)

아멜리카이아처럼 권력을 탐하는 사악한 사람은 세상의 표준에서 볼 때 한동안은 변성할 수 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은 물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파멸시키고 만다. 이와 대조적으로 모로나이 대장과 같은 지도자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악한 음모를 제압할 수 있는 고귀한 소망을 품도록 사람들을

고무시킨다. 다음은 모로나이와 아멜리카이아를 대조한 도표이다.

모로나이 대장	아멜리카이아
대판사들과 “백성의 소리”에 따라 군대 총대장으로 임명됨(엘마서 46:34; 또한 43:16 참조)	기만과 속임수로 권력을 얻음(엘마서 47:1~35; 48:7 참조)
백성들을 의로움으로 결집시키고 하나님과 성약에 충실하도록 가르침(엘마서 46:12~21; 48:7 참조)	증오와 선전으로 백성들을 충동함(엘마서 48:1~3 참조)
국가와 백성의 자유를 기뻐함(엘마서 48:11 참조)	백성의 자유를 파괴하려 함(엘마서 46:10 참조)
형제를 사랑하고, “백성의 복리와 안전을 위하여 심히” 수고함(엘마서 48:12)	“자기 백성의 피에 대하여 염려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이기심만을 채우려고 애씀(엘마서 49:10)
니파이인들에게 가족, 생명, 또는 자유를 지켜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검을 치켜들지 않도록 가르친, 의로운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엘마서 48:10, 14 참조)	백성들에게 공격적으로 정복하고 멸하도록 맹세하라고 가르친, 격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엘마서 49:13, 26~27 참조)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겸손히 도움을 구함(엘마서 48:16 참조)	하나님을 저주하고 살인을 맹세함(엘마서 49:27 참조)
분쟁과 다툼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함(엘마서 51:16 참조)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함(엘마서 46:6, 10 참조)

엘마서 46:12~13

우리의 가정과 자유, 종교적 권리를 지키는 것은 왜 신성한 의무인가? 우리는 어떻게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까?

엘마서 46:12~15, 36. 자유의 기치

• 의로운 대의를 위해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종종 자유의 기치를 든 모로나이 대장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쳤다. 벤슨 회장은 적극적인 시민이 되어 자유를 증진할 필요성을 자주 강조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여 지역 사회를 개선하십시오. ‘악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드먼드 버크)임을 기억하고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십시오.” (성도의 벗, 1988년 7월호, 54쪽)



기치: 에드먼드 버크 그림 ©

벤슨 회장은 또한 이렇게 가르쳤다.

“신성한 기록인 물몬경에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 긴 시간 동안 위대한 투쟁에 나서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뭔가를 제공하겠다는 지도자의 약속을 믿고 자유를 쉽게 포기하며 안주하려 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

…… 물몬경에 기록된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처럼 모로나이도 미대륙을 선택된 땅, 자유의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싸우고자 하는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엘마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또한 …… 모든 땅에 있는 각 망대 위에 자유의 기치를 게양하게 하였으니, 이같이 모로나이가 나파이인들 가운데 자유의 기를 심었더라.’[엘마서 46:36]

미대륙 전역에 있는 우리 백성 가운데 자유의 기를 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사건은 주전 약 70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러한 투쟁은 이 신성한 물몬경 기록이 다루는 1천년 동안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상 자유를 위한 투쟁은 계속되는 것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Conference Report, Oct. 1962, 14~15)

엘마서 46:23~27. 요셉의 겹옷에 관한 예언

• 모로나이의 찢어진 겹옷 끈, 자유의 기는 애급으로 팔려간 요셉의 찢어진 겹옷 중 보존되어 남은 조각을 상기시킨다. 모로나이는 니파이인들이 요셉 자손의 남은 자들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 보존될 것이라고 선언했다.(엘마서 46:22~24 참조)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요셉의 겹옷 중 보존된 부분에 대한 예언과 상징이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다고 말했다.



© 1994 포버트 배커

“요셉이 입은 색동 겹옷이 찢는다는 예언이 있었다는 것을 물문경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옷에서 일부는 보존되었으며, 야곱은 죽기 전에 겹옷에서 남은 조각 일부가 보존된 것 같이 요셉 자손의 남은 자들이 보존될 것이라고 예언했다.[엘마서 46:24 참조]

지금 레이맨인 가운데 있는 그 남은 자들은 결국 복음이 가져오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여러 민족 사이에 집합하고 있는 잔류민들과 연합하고 영원히 주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The Way to Perfection* [1970], 121)

엘마서 47:36. 이반과 분쟁

• 물문경에는 교회에 속한 다음에 “이반”한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완전히 잇[는]” 경향이 있다는 경고가 반복해서 나온다.(엘마서 47:36)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오늘날에도 이반자들이 교만하여 교회에 비판적인 사람이 될 때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경고했다.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교회를 떠나 교회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이반자들이 있습니다. 대개 세상의 청중을 만족시키는 데 열심인 그들은 사도들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적어도 사도들보다 그들이 더 우월하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자기 손을 내밀 뿐만 아니라 때때로 세계 밀치기까지 합니다! 한때는 충실한 사람들과 똑같이 동일한 참된 교리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 이반했습니다.(엘마서 47:36 참조) 그들은 교만으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다니엘 5:20 참조)”(*Men and Women of Christ* [1991], 4)

•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분쟁과 이반이 낳는 결과를 설명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 (제3니파이 11:29~30) ……

세상 곳곳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은 …… 분쟁이라는 길 끝에는 실로 큰 위험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물문경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가 나옵니다.

“…… 그들이 갈라져 나간 후 오래지 아니하여 …… 더 완악하고 회개할 줄 모르며, 더 거칠고, 간악하며 흉포하게 되어 …… 나태와, 온갖 음란에 빠지며, 참으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느니라.(엘마서 47:36)

불화는 분열을 초래합니다. 조그마한 행위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위나 위치에 있더라도 분쟁이 만드는 무서운 결과 앞에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분쟁의 해독”(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84~85쪽)

엘마서 48:1~10. 그리스도인의 대의를 수호하다

• 때때로 참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모로나이 백성들이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땅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평화를”(엘마서 48:10) 지키기 위해 일어난 것처럼 일어서야 한다. 모로나이는 백성들이 “그 원수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대의라 일컫는 바를 지키도록” 돕는 일에 전념했다.(엘마서 48:10)

오늘날 세상의 사악한 풍조 때문에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모로나이가 아내와 자녀들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을 결집한 것처럼 우리도 정의와 품위, 자유와 문명을 위해 일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엘마서 48:10 참조)”(*리아호나*, 2002년 1월호, 84쪽)

엘마서 48:10~18

모로나이 대장은 어떤 자질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는가?

앨마서 48:19. “봉사함이 …… 못지 아니하였나니”

• 힐라맨이 “[백성에게] 봉사함이 …… 못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워드 더블류 헌터(1907~1995) 회장은 모든 사람이 눈에 띄는 두드러진 부름에서 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의로운 봉사를 똑같이 받아들이신다고 가르쳤다.

“힐라맨은 모로나이처럼 눈에 띄거나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모로나이 못지 않게 봉사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모로나이 못지 않게 도움이 되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



“우리 모두가 모로나이처럼 매일 하루 종일 동료에게서 찬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조용히 오가며 자기 일을 하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외롭거나 두렵거나 특별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봉사는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사람이 하는 일에 “못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예를 들어, 합당한 후기 성도 가정에서 조용히 이름 없이,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베푸는 훌륭한 봉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에게 봉사하고, 물론 축복이 되는 일이지만, 그들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칭송되거나 전국 방송에 나가지는 않을 복음 교리반 교사, 초등학교 음악 지도자, 스카우트 지도자, 상호부조회 가정 방문 교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수만 명이 있기에 매일 우리는 기회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전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사람들의 삶보다 ‘봉사함이 …… 못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세상의 이목은 너무 자주 여러 사람보다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No Less Serviceable,” *Ensign*, Apr. 1992, 64)

앨마서 49~50장. 니파이 성 방비

• 성을 방비하는 모로나이의 영감과 선견지명은 전쟁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성을 방비했기 때문에 니파이인 수천 명은

생명이 보전되었다. 이 교훈을 적용해서 우리는 의로운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 삶을 방비하여 악이 퍼붓는 공격, 또는 “대적의 불화살”(니파이전서 15:24; 또한 힐라맨서 5:12 [참조]에 맞설 수 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보이시고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이더서 12:27 [참조]) 다음 도표에는 니파이 성을 방비한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예들이 들어 있다.

니파이인들이 방비한 방법	우리가 방비할 수 있는 방법
약한 방어 시설을 강화했다.(앨마서 48:9 참조)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약한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
니파이인들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적의 공격에 대비했다.(앨마서 49:8 참조)	우리는 악마의 간계에 맞서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준비해야만 한다.
니파이인들은 취약한 성을 견고하게 만들었다.(앨마서 49:14 참조)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실 수 있다.(이더서 12:27 참조)
니파이인들은 적들을 이길 힘을 받았다.(앨마서 49:23 참조)	충실하고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니파이인들은 몇 차례 승리를 거둔 다음에도 준비를 멈추지 않았다.(앨마서 50:1)	유혹 또는 시련을 성공적으로 이겨낸 다음에도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되며, 정복되지 않도록 계속 견디고 살피며 항상 기도해야 한다.(앨마서 13:28 참조)
니파이인들은 멀리 있는 적을 볼 수 있도록 망대를 세웠다.(앨마서 50:4 참조)	현대의 파수꾼이며 멀리 보는 선지자들에게 의지할 때 우리는 미래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다.

앨마서 51:13.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다

• 국민으로서 우리는 국법에 순종해야 한다. 리셀 엠 벨슨 장로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어야 하는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모든 남성은 진정한 의미에서 모두 형제들입니다. 그렇지만 경전에는 분쟁과 전쟁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경전은 침략 전쟁을 강하게 비난하는 반면, 시민으로서 가족과 자유를 방어하는 책임은 지지합니다.[엘마서 43:45~47; 46:11~12, 19~20; 48:11~16 참조] …… 이 교회 회원들은 여러 나라에서 군복무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인간의 복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제정된 것임을 믿으며, 정부에 관련된 인간의 행위, 즉 사회의 유익과 안전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을 지우신 줄로 믿는다.[교성 134:1] 교회 회원들이 적에 대해 전투를 벌여야만 했던 제2차 세계 대전 때, 제일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확실하게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시민의 정치적 복리와 국내 및 해외에서 정치적 정책들을 집행시키기 위해 국민을 다스릴 책임이 있지만 …… 교회는 회원들에게 조국에 충성하도록 촉구하는 것 외에는



그러한 정책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James R. Clark, comp.,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6 vols. (1965~1975), 6:155~56](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40쪽)

생각해 볼 점

- 여러분을 멸하려 하는 적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일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적 방비 목록에 무엇을 넣고 싶은가?
- 후기 성도 병사들은 전쟁 중에 어떻게 모로나이 대장처럼 봉사할 수 있을까?
- 용감한 지도자는 국가, 주, 지역 사회, 또는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제언 과제

- 우리 모두가 모로나이처럼 걸출한 위인은 아니므로,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이 베푸는 가치 있는 봉사를 설명한다. 또한 주일학교 교사, 초등학교 음악 지도자, 스카우트 지도자, 상호부조회 방문 교사, 또는 여러분이 특정 교회 부름을 선택하여 그 부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 여러분의 생활에서 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악에 대항하여 그 부분을 “방비”할 계획을 적어 본다.

소개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몰몬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쟁의 시기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배웁니다.”(리아호나, 1987년 1월호, 6쪽) 몰몬은 특정한 목적 때문에 몇몇 전쟁 기사를 몰몬경에 포함시켰다. 이 기사들은 종교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보전해야 하는 필요성과 배반자들이 가하는 해악, 수는 적지만 의로웠던 청년들이 발휘한 가치, 전쟁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는 가운데 악을 물리치는 전략에 대해 가르친다.

해설

앨마서 52~53장. 전쟁과 피흘림

• 앨마서 52~53장은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마태복음 26:52)라고 말씀한 구주의 가르침을 증명한다. 사악하고 배도한 니파이인들(엠모론과 그 외 사람들)의 지휘에 따라 레이맨인들은 니파이 성읍들을 난폭하게 빼앗고 소유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각 성읍을 취하는 데 큰 대가를 치렀으며 “많은 피를 잃지 않고 취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앨마서 52:4) 모로나이 대장은 항상 칼을 드는 일을 매우 꺼렸으며 평화를 위해 검을 내려놓고 싶은 소망이 훨씬 더 강했다.(앨마서 52:37 참조) 그는 니파이인들이 승리했을 때조차도 그것이 양쪽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생명을 빼앗고 얻은 결과라는 점을 알았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산다면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평강의 왕자이시며,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평화의 사절이다.

앨마서 53:9

니파이인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그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

앨마서 53:9. 죄악—분쟁이 일어나는 실제 원인

• 한 해설자는 니파이인들이 견뎌낸 것과 같은 외적 시련이 때때로 어떻게 내적 필요 사항을 시사하는지 설명했다. “레이맨들이 쳐들어와 ‘그들을 일깨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일은 결국 니파이인들에게 축복이 되었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욥기 5:17) 있기 때문이다. 레이맨들이 아무리 사악하고 흉포하며 타락했다 하더라도(실제로 그랬다!), 그들이 니파이인보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사방에서 접근해 와도, 그들이 아무리 교활하게 정탐하고 모의하며 잠입하고 비밀리에 사악한 음모를 꾸미고 폭력으로 위협을 가하면서 총력전을 위해 가공할 만한 준비를 해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니파이인의 [실제]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니파이인들에게 진짜 문제를 상기시키는 수단이었으며, 실제 문제는 바로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었다.”(Hugh Nibley, *Since Cumorah*, 2nd ed.[1988], 339~40)

앨마서 53:10~18. 성약의 중요성

•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우리가 성약을 지킬 때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했다. “때때로 우리는 성약에 따라 생활하기보다는 편의에 따라 살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복음 표준에 따라 생활하고 진리 편에 서며 회복을 증거하는 것이 늘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편안한 생활만 하면 아무런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합니다. 힘은 성약을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02쪽 참조)

•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성약을 지킬 때 우리가 안전해진다고 설명했다.

“성약을 지킨다면 안전할 것이지만 성약을 깨뜨리면 위험에 처합니다. ……

성약을 깨뜨리고 그 결과에서 벗어날 자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성도의 벗, 1991년 1월호, 96쪽)

앨마서 53:16~21. 청년 병사의 모범

• 아버지를 대신하여 전장에 나간 청년 병사들은 의로운 청소년들이었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기로 결의했다.(앨마서 56:5 참조)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용감하게 참전했다.(앨마서 56:45~49, 56 참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힘과 보호로 그들의 신앙을 보상해 주셨다. 그들 중에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앨마서 57:25~26 참조) 군복무를 하는 의로운 젊은이들에게 이런 일이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의로운 사람들조차도 “주 안에서 죽는다.”(교성 63:49) 그러나 이 젊은이들은 신성한 보호를 받아 전투에서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들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따를 수 있는 남성다움을 본으로 보여 주었으며

충실하다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사실을 니파인들에게 증명해 주었다.



기아르도 파올로 타라를

엘마서 53:20~21. 군대에서 좋은 모범 보이기

• 현대에, 제일회장단은 군복무 중인 교회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를 했다. “군에 가는 청년 여러분,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 복무하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생활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러분을 진리와 의 안에서 지켜주시도록 그분께 늘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 여러분의 구원과 승영에 해가 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깨끗한 생활을 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서 느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시련을 겪는 시간에 그분이 함께하심을 느낄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현명한 목적에 맞게 여러분을 최대한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 집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은 의로운 생활을 해왔고 주님의 계명대로 생활했으므로 승전병이든 패잔병이든 상관없이 큰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생활에 잘 단련되어 돌아올 것이며, 그래서 사탄의 모든 간계와 술책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간증은 깨뜨릴 수 없이 강해질 것입니다.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시련과 유혹이라는 불타는 풀무를 통과했으므로 여러분은 존경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은 여러분에게 권고와 지지와 인도를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닳아 되어 시은 청소년들의 신앙을 정박시킬 것입니다.”(Heber J. Grant, J. Reuben Clark Jr., and David O. McKay, in Conference Report, Apr. 1942, 96)

엘마서 53:20~21. “항상 충실한 자”

• 십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항상 충실한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했다.

“충실이라는 단어는 헌신과 정직, 인내, 용기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이 단어는 물론경에 기술된 2천 명 젊은 용사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엘마서 53:20~21]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저는 남녀를 막론하고 한때 주님을 섬기겠다는 성약을 맺었으며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위대한 일에 참여하며 주님을 섬겼던 귀환 선교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에 충실합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으며, 매일 생활 속에서 복음 원리를 실천하겠다는 결심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훌륭하게 봉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개척자들처럼 신앙에 충실하고 끝까지 견디겠다는 용기와 한결같은 있습니까?”(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73~74쪽)

엘마서 56:45~48.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를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나이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부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만큼만 자녀에게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자녀를 잘 가르치고 도와줄 때, 그리고 자녀는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받아들일 때, 어머니에게서 아주 잘 배운 물론경 속 청년들에게 일어난 일과 같은 놀라운 상황들이 일어납니다.[엘마서 56:47~48]



.....

물론 이 청년들이 어머니에게 의지한 일은 감동적이며 뜻 깊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청년들의 어머니들이 그랬듯이 자신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바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청년들도 (늘 자녀들이 부모를 지켜보듯이) 가까이서 어머니를 지켜보고 어머니가 하시는 말을 들으며 어머니 역시 그 가르침이 참되다는 사실을 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That My Family Should Partake [1974], 58~59)

•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줄리 비 백 자매는 여성들이 좀 더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성약의 여성에 대해 설명했다.

“몰몬경에는 아주 용감하고 씩씩하며 강한 모범적인 젊은이 2천 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으로 그들은 진실하고 진지한 자들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었음이라.’(엘마서 53:21) 이 충실한 젊은이들은 그들의 어머니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를 아셨다’(엘마서 56:48)고 말했습니다. ……

오늘날 어머니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조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욱 …… 아는 어머니들이 필요합니다. ……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과 성약을 맺는 어머니는 자녀의 유익에 지대한 영향력과 힘을 미칠 것입니다.”(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76쪽)

엘마서 57:19~21. “군세며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군세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여러분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이 교회를 반영합니다.’ 힝클리 회장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에 충실하십시오.’ ……

힝클리 회장은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여러분은 힐라맨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파괴적인 영향력이 가득한 세상에 삽니다. …… 그러나 여러분이 전능하신 분을 신뢰하고, 이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며, 여러분이 받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지킨다면 여러분은 보전되고, 축복을 받고, 영화롭게 되며,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말하면서 힝클리 회장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바벨론 한 복판입니다. 대적이 큰 파괴를 몰고 옵니다. 여러분은 그 위에 서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고귀한 장자권이 있습니다. 그 위에 서십시오.’”(“Prophet Grateful for Gospel, Testimony,” *Church News*, Sept. 21, 1996, 4)

엘마서 58장. 자유를 위해 싸울 권리

•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면, 249쪽에 나오는 엘마서 43:45~47 해설을 참조한다.

엘마서 58:10~11.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평강을 말씀”하신다

• 테니스 이 시몬스 장로는 칠십일 일원으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은 외적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변에서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 해도 참된 제자가 된다면 약속된 보혜사가 주님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안 안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 할 때 보혜사, 즉 성신이 우리 마음에 주는 위안이며 평정과 평온입니다. ……

힐라맨이 전쟁 중에 ‘그는 우리의 영혼에 평강을 말씀’(엘마서 58:11)하셨음을 깨달은 것처럼 …… 진지하게 구하는 모든 이들은 그와 같은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평안은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전해지는 확신에서 나옵니다.”(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31쪽)

엘마서 58:10~11

니파이인들이 신앙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응답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투쟁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엘마서 58:34~37. “우리는 불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 닐 에이 맥스웰 장로의 말씀은 불평의 원인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앞으로 다가올 행복한 날에 ‘원망하였던 자들은 교리를 배울 것입니다.’(이사야 29:24; 니파이후서 27:35) 이것은 교리적 문맹이 교회 회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불평의 큰 원인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A Choice Seer,” *Brigham Young University 1985~86 Devotional and Fireside Speeches* [1986], 115)

엘마서 59:9. 성은 함락되기 전에 지키는 것이 더 쉽다

• 몰몬은 함락되기 전에 성을 지켜내는 일이 탈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고 기록했다.(엘마서 59:9) 성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다. 타락한 사람을 개심시키는 일은 타락하기 전에 지켜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하다. 에스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고치고 회개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285)



미네르바 케이 테이저트, 브리검 영 대학교 미술 박물관에 하락을 얻어 게재함

앨마서 59:11~12. 간악함 때문에 성을 잃어버리다

• 니파이하 성을 잃은 사건은 니파이인들의 간악함과 “주의 힘”(모사이야서 9:16, 10:10~11, 앨마서 60:16 참조)에 의지하여 적을 물리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나타낸다. 니파이인 군대 지도자들은 대개 “계시와 또한 예언의 영을 지닌 자”(제3니파이 3:19)들이었다. 이 의로운 군대 지휘관들은 니파이인들이 패배한 원인을 레이맨인에게서 찾지 않고, 오히려 니파이인들의 간악함 때문이라고 여겼다. 이와 반대로 충실한 니파이인들은 대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으며, 비교적 적은 인명 손실만 입고 빼앗긴 성을 되찾았다.(앨마서 52:19, 56:53~56, 57:7~12, 58:25~28, 62:22~26 참조)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려움과 심각한 문제에 부딪칠 때, 의롭게 생활하고 주님께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며 주님의 일이 결국 승리할 것임을 늘 확신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가르치셨다.(교성 6:34, 10:69, 33:13 참조)

앨마서 60:10~14. 의인들이 죽임을 당하다

• 모로나이는 주님께서 의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을 용납하신다고 기록했다. “이는 주께서 그의 공의와 심판이 악인들에게 임하게 하시려고 의인들의 죽임 당함을 용납하심이라. 그러므로 의인들이 죽임 당하였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 생각하지 말지니, 보라, 그들은 주 그들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느니라.”(앨마서 60:13)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된 직후, 교회 제일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지금 벌어지는 이 끔찍한 전쟁에서 온 세상과

많은 국가에 있는 수천 명의 우리 의로운 젊은이들이 조국을 위해 군복무에 소집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복무 중에 이미 하늘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뒤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로나이가 말한 것처럼 복무 중에 죽임을 당한 의인들은 ‘주 그들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앨마서 60:13] 주님께서서는 이들에 대해 ‘내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음을 맞보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음이 그들에게 달 것임이니라’(교성 42:4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세에서 그들의 구원과 승영은 보장될 것입니다. 형제들을 공격하는 파멸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비난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죄는 모로나이가 말한 것처럼 ‘아무 생각 없는 무감각한 상태로 …… 보좌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증오로 광분하고 불의한 권력과 지배에 대한 욕망을 품은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들이 헤아리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영원한 힘이 그들에게 가해질 수 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정하신 시간에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Heber J. Grant, J. Reuben Clark Jr., and David O. McKay, in Conference Report, Apr. 1942, 95~96)

앨마서 60:19~36. 페이호랜에게 보낸 모로나이의 서한

• 페이호랜은 모로나이가 보낸 서한을 받고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페이호랜처럼 우리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마음이 상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할 경우, 우리는 보통 우리가 모욕을 당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낀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는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눈치 없고, 난처하고, 지조 없고, 야비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나 저를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다고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에게 가해지거나 강요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

우리를 강화시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힘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을 피하고 그것을 이겨 내도록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시편 119:165)
.....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이미 '온전한 사람들을 위해 모든 설비를 갖춘 휴양소'가 아닙니다.(Ensign, May 1982, 38) 그보다 교회는 우리가 서로 꾸준히 '성도를 온전케 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을 얻는 배움터이자 실습실입니다.

맥스웰 장로님은 회복된 교회로 알려져 있는 이 후기의 배움터에서 교회 회원들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연구 대상'은 바로 회원들이라는 통찰력 있는 설명을 하셨습니다.("Jesus the Perfect Mentor," Ensign, Feb. 2001, 13 참조)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의 의도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도덕적 선택의지가 부여된 행동의 주체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마음 상해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90~91쪽)

앨마서 60:23. 그릇 안을 깨끗하게 하라

•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이 경구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로나이가 권고한 대로 우리는 그릇 안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앨마서 60:23 참조) 우선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을 깨끗이 하고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4쪽)

앨마서 60:23
이 구절을 표시해 두고, 여러분의 그릇 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문해 본다.

앨마서 61장. 부당한 힐책에 대한 반응

•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충실한 회원들 간에도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설명했다. "불완전한 사람들로 가득한 완전한 교회에서, 때때로 의사가 잘못 전달될 수 있습니다. 두드러진 한 예가 고대 미대륙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로나이는 시급하게 필요한 증원부대와 보급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태만을 나무라는 편지를 페이호랜에게 두 번이나 썼습니다. 모로나이는 신랄한 표현을 써가며 나라의 통치자인 페이호랜에게 '아무 생각 없는 무감각한' 상태로(앨마서 60:7) 보좌에 앉아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페이호랜은 곧 매우 애국심 어린 답장을 보내어 왜 자신이 모로나이가 부탁한 일을 하지 못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페이호랜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로나이의 '고결한 마음'을(앨마서 61:9) 칭찬했습니다. 제자들의 진지한 공동 헌신을 고려할 때, 주님의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토론하다 보면 종종 전술적 차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때때로 힐책이 나중에 부당한 것으로 밝혀질 때가 있습니다."(All These Things Shall Give Thee Experience [1979], 119)

앨마서 62:41. 역경의 효과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우리가 역경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명히 이 큰 역경들은 영원한 목적 또는 취지가 있습니다. 역경을 겪을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향합니다. 역경에 처하면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긴 하지만, 역경은 사람들을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 재해와 전쟁 같은 대규모 역경은 이 지상 생활에 따르는 고유한 특성인 듯합니다. 우리는 그런 역경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대처할 방법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과 군복무라는 역경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파멸되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경에는 이 차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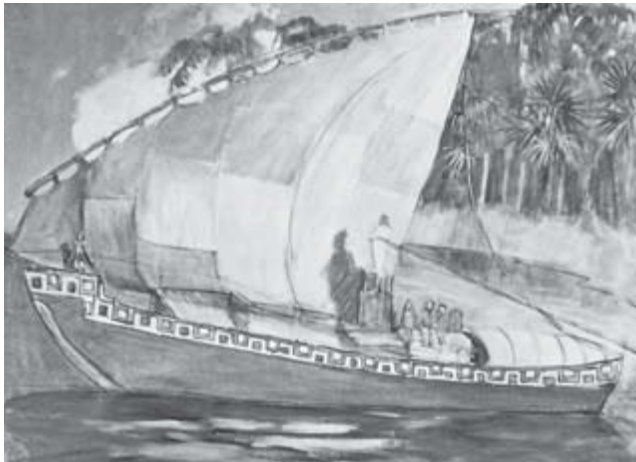
'그러나 보라, 니파이인과 레이맨인들 사이의 전쟁이 심히 길었음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완악하게 되었으니, 이는 전쟁이 심히 길었음으로 인함이며, 또 많은 자들이 그들의 고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니, 이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극한 겸양으로 스스로 겸손하여졌더라.'(앨마서 62:41)

저는 몇 년 전에 이와 비슷한 대조 상황을 다룬 기사를 읽었습니다. 당시에 플로리다에서는 허리케인이 불어 닥쳐 가족 수천 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뉴스에는 같은 비극을 겪고 같은 축복을 받은 두 사람의 말이 인용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집은 완전히 부서졌으나, 가족들은 죽거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이 비극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파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경험 덕분에 신앙이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비로우셨다고 말하면서 비록 집과 소유물은 잃었지만, 생명은 보존되었고 집은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잔이 반 밖에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니다. 다른 한 사람에게는 잔이 반이나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선택의지라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역경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Adversity,” *Ensign*, July 1998, 7-8)

앨마서 63:4~10. 북방 땅으로 떠나다

- “스펜서 더블류 김블 회장은 남태평양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교회 회장인신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뉴질랜드에 계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헤이고드 민족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성도들이 바로 그 민족입니다. 주님의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 헤이고드와 그 동료들이 주전 약 55년부터 북음이 그곳에 들어가기 전인 1854년까지 약 19세기 동안 그 섬에 있었다고 결론짓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들은 구주께서 자상에 주신 모든 간결하고 귀중한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 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Temple View Area Conference Report, February 1976, p. 3)”(Joseph Fielding McConkie and Robert L. Millet, *Doctrinal Commentary on the Book of Mormon*, 4 vols.[1987~1991] 3:329)



미네르바 케이 타이저트, 브리검 영 대학교 미술 박물관에 허락을 얻어 게재함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은 뉴질랜드 성전 헌납 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면서 헤이고드 민족에게 일어난 일을 입증했다. “선조 리하이의 후손들을 이 비옥한 섬으로 인도하셔서 번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Dedicatory Prayer Delivered by Pres. David O. McKay at New Zealand Temple,” *Church News*, May 10, 1958, 2)

생각해 볼 점

- 여러분의 국가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모로나리와 페이호렌 사이에서 오고 간 서한에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앨마서 60~61장 참조)
- 의로움과 자유 사이에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을까?
- 앨마서 52~63장을 읽는다. 전쟁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들은 무엇인가?

제언 과제

- 의로움을 지키기 위한 나만의 전투에 모로나리의 방어 전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일지에 기록한다.
- 신앙의 적에 대항하여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통찰한 내용을 기록해도 좋다.
- 아래에 열거된 주제 중에 한두 개를 선택하여 가정의 밤 공과 개요를 작성한다.
 1. 주님께서 마련하신 방편들을 이용함(앨마서 60:21 참조)
 2. 그릇 안을 깨끗이 함(앨마서 60:23 참조)
 3. 세상의 영예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앨마서 60:36 참조)
 4. 화를 내지 않음(앨마서 61:9 참조)

소개

힐라맨서 1~4장에서는 선과 악이 극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악이 개인과 사회에 초래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볼 수 있으며, 반면에 고난 속에서도 충실하게 남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며 힘든 시기에도 의로운 원리에 충실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간악함이 만든 불화와, 의로움을 통해 얻는 큰 화평과 기쁨을 대조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 유의할 때, 행복을 얻는 원리를 따르고 불순종으로 겪는 비참함을 피하겠다는 열의를 품게 될 것이다.

해설

힐라맨서 1:1~21. 다툼은 파괴적인 일이다

- 힐라맨서는 니파이인들이 아주 간악하던 기간을 다룬다. 그 기간에는 개다이엔톤 도적단이 변성했으며, 많은 사람들은 회개한 후에 다시 사악해지면서 간악함과 멸망이 순환하는 현상을 몇 차례나 겪었다. 이러한 문제 중 대다수는 힐라맨서 첫 장에 시작된 “다툼”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다툼”을 무해한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 총관리 직원들은 다툼이 초래하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은 주님의 영은 다툼이 있는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했다. “다툼이 일어나면, 누가 잘못했든지에 상관없이 주님의 영은 떠나버리고 맙니다.”(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41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런(1917~2008) 장로는 다툼은 사탄이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부러 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세상에 퍼져 있는 타락과 부정직, 싸움, 불화, 그밖에 악행들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자행해 온 무자비한 것들이 그런 악행들로 드러납니다. 사탄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혼동시키며 나쁜 길로 인도합니다.”(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76쪽)

-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다툼에 따르는 파괴적인 영향력과 대비하여 화평의 영이 가져오는 단합을 강조했다. “영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조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은 간증을 나누는 사람들을 단합시키고

우리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간증을 부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결코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제3니파이 11:29 참조) 영은 결코 투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한 느낌을 전하지 않습니다.(Joseph F. Smith, *Gospel Doctrine*, 5th ed. [1939], 131 참조) 영은 개인적으로 화평을 얻고 다른 사람과 화합하도록 인도합니다. 영은 영혼을 하나로 묶습니다. 단합된 가족, 단합된 교회와 평화가 깃든 세상은 단합된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67쪽)

힐라맨서 1:27, 33

이 두 구절 내용에서 적군을 다루는 방식은 어떻게 대조되는가? 차이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

힐라맨서 1~2장. 사회를 파괴시키는 간악하고 은밀한 행위

-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비밀 결사는 여전히 우리 시대에 존재하며 위협을 가한다고 설명했다. “몰몬경에서 우리는 범죄에 관여한 비밀 결사가 개인과 가족, 나아가 문명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현대에 존재하는 비밀 결사에는 폭력배, 마약 밀매 조직, 조직범죄 단체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비밀 결사들은 몰몬경 시대의 개다이엔톤 도적단과 매우 흡사한 현상을 보입니다. 그들만의 비밀 암호와 부호 언어를 사용하고 비밀 의식과 입단식을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들 나라의 법과 또한 그들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여, 살인하며, 약탈하며, 훔치며, 음행과 온갖 간악함을 범하는 것입니다.’[힐라맨서 6:23]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몰몬경 시대처럼 이 시대의 비밀 결사들이 신속하고 완벽하게 힘과 영향력을 장악할 것입니다. 그 단계들을 기억하십니까? 비밀 결사는 사회의 ‘더욱 간악한 무리에서’ 발생하지만 결국에는 ‘의로운 자의 대부분을 유혹’[힐라맨서 6:38]하여 사회 전체를 타락시킵니다. ……

우리는 악마가 ‘죄의 근원’이며 이러한 비밀 결사의 창시자라는 사실을 몰몬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힐라맨서 6:30]

니파이후서 26:22 참조) 악마는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대로 대대로[힐라맨서 6:30] 폭력조직을 비롯한 비밀 결사들을 이용합니다. 사탄이 추구하는 목표는 개인, 가족, 사회, 나아가 국가까지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니파이후서 9:9참조] 악마는 물론경 시대에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현대에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권 소유자들이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진리와 정의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38쪽)

힐라맨서 1~2장. 선한 사람들은 간악한 조직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다

- 세계 무역 센터와 미 국방성에 테러 공격이 있는 뒤에 열린 연차 대회에서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테러리스트 조직이 살인, 포학, 공포, 사악한 지배를 조장하기 위해 결의한 조직이라고 말씀했다.

“테러 조직들은 수색하여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우리는 그러한 무리에 대해 아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경에는 사악하고, 맹세로 결속되고, 악과 파괴를 일삼는 비밀 조직인 개다이엔톤 도적단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 도적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쓰러뜨리고, 궤변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 힘쓰며, 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현 상황이 바로 그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평화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평강의 왕이셨으며 지금도 그러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로나이가 아내와 자녀들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을 결집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의와 품위, 자유와 문명을 위해 일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앨마서 48:10 참조)(리아호나, 2002년 1월호, 84쪽)

힐라맨서 3:20. “끊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행하며”

- 비록 시대가 힘들고 악한 세력이 사회를 위협했지만 꾸준히 주님의 뜻을 행하는 힐라맨의 모범은 이 어려운 후기에 우리가 따라야 할 표본이 된다. 힐라맨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의의 일을 하고 보람[을 찾기 위해]”(“의의 일하세,” 찬송가, 177장) 노력해야 한다. 핵심 단어는 끊임없이이다.

칠십인의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는 의의 일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약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된 개심과 죄 사함의 모든 증거 가운데서 아마도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다시는 악을 좇으려 하지 않고 계속하여 선행을 하려는 마음일 것입니다.* ”

우리는 성약을 맺고 지킬 때마다 선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굳게 다집니다. 신권 의식에 참여할 때마다 하늘에서 오는 권능이 임하여 우리는 하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성찬을 취하고 성전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과 충실하게 성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정숙한 복장, 후한 금식 현금과 십일조를 바치는 일, 지혜의 말씀 준수, 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문제에 관해 긴 설교를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고 성전에 자주 참석하는 것, 가족 역사 조사, 가정 복음 교육이나 방문 교육 등을 하라고 엄하게 상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병자를 방문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채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들은 ‘끝까지 그를 섬기려는 결심을 가졌[고] 그들의 죄 사함을 얻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였음을 진실로 그들의 행위로써 나타내는(교성 20:37)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맺은 거룩한 성약을 지키는, 가장 높으신 이의 충실한 성도들입니다. 성약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헌납의 법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시간과 재능과 재원은 모두 주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성약을 지킴으로써 계속 선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웁니다.”(“계속하여 선행하려는 마음,” 리아호나, 2001년 6월호, 21쪽)

힐라맨서 3:24~25. 우리 삶과 교회가 변역을 이룩하다

• 딘 엘 라슨 장로는 칠십인 정원회 일원으로 봉사하는 동안 주님께 충실한 것과 변역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했다. “사람들이 주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할 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려는 축복을 이끌어 낼 모든 필수 요소가 있는 듯합니다. 사랑과 화합이 널리 퍼져 나갑니다. 심지어는 날씨와 기후와 다른 요소들까지 반응하는 듯합니다. 평화와 평온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들의 생활에 근면과 발전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

만일 사람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축복의 근원으로 기억한다면 주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보증을 우리는 받았습니다.”(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42쪽)

힐라맨서 3:24~26

이 구절에서 “변역”의 의미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것은 세상에서 얻는 변역과 어떻게 다른가?

힐라맨서 3:29~30. “말씀을 붙잡[아라]”

•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부지런히 경전을 공부할 때에만 오는 축복들이 있다고 가르쳤다. “의로움 속에서 거두는 성공, 속임수를 피하고 유혹을 물리치는 힘, 일상 생활에서 받는 인도, 영혼의 치유 등은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 중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고 이루시지 않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고 따를 때,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리라고 그분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면, 그 축복은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축복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면에서 부지런하다 해도, 특정한 축복은 경전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우리가 생명 나무에 이르기 위해 어둠의 안개를 헤쳐 나갈 때,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그것을 굳게 붙잡을 때에만 얻게 됩니다.”(“말씀의 힘”,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89~90쪽)

힐라맨서 3:30.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 함께 앉게 하고”

•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 함께 앉게” 한다는 구절은 충실한 이들은 이 위대한 세 축복사들과 함께하고 해의 영광으로 보상을 받을 자격을 얻는다는 의미이다. 교리와 성약 132편 37절에는 “아브라함[과] …… 이삭과 야곱도 …… 약속에 따라 그들의 승영에 들어가 보좌에 앉았으니, 천사가 아니요 신이나라.”라고 나온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교회 회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는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맺으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 재확인하신 성약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

우리도 성약의 자녀들입니다. 고대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신권과 영원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과 신권 축복과 영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 자손들이 하는 수고로 축복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육들과 그의 가족으로 입양되어 모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러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33쪽)

힐라맨서 3:33~34, 36: 4:12. 교만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

• 교만이 주님의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몰몬이 주의를 줬지만, 일부 교회 회원들은 큰 부를 쌓자 마음에 교만을 품기 시작했으며(힐라맨서 3:36 참조), 이것은 교회 전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쳤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이와 비슷한 생각을 표현했다.

“교만 때문에 과거에, 그리고 현재 우리 생활, 우리 가정, 교회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교만을 버려서 죄를 고백하고 버린다면, 우리가 회개할 때 생활이 변화되고 결혼 생활이 유지되며 가정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교성 58:43참조)

감정이 상했지만 교만 때문에 용서를 하지 못하고 주님의 식탁에 온전히 앉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활동이 저조해진 많은 회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는 일만 아니었다면 선교 사업에 나가 있었을 수많은 젊은이들과 부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앨마서 10:6; 힐라맨서 3:34~35 참조)

만약 성전 사업에 쏟는 시간을 우리 시대에 교만한 마음으로 다투어 추구하는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성전 사업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7쪽)

- 더 자세한 해설과 교만의 주기를 설명하는 도해를 보려면 부록 “의로움과 간악함의 주기”(413쪽)를 참고한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복음에 완전히 충실해지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교만을 피하거나 없애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의 중심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

첫 단계로 여러분은 현대 세상에서 흔한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교만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배척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무엇이든 마음 내키는 대로 해라’ 또는 ‘옳고 그름은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 하나님을 모반하는 태도입니다.”(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1쪽)



© Eusath.com

힐라맨서 3:35. 마음이 성결하게 되어

- 성결하게 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순수하고, 깨끗하며, 거룩하게 되는 과정(모세서 6:59~60)”이라고 정의되어 있다.(경전 안내서)
- 힐라맨 시대에 충실한 교회 회원들은 영적으로 계속 성장했으며, 그 결과 “그 마음[이] …… 성결하게 되기에 이르렀다.”(힐라맨서 3:35)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성령으로 도움을 받아, 내면 깊은 곳에서 구주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겠다는 소망이 커질 때 그러한 성장이 따른다고 가르쳤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결해진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행위는 인간 마음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 나옵니다. 그러한 행위는 복음 의식에서 약속 받는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됩니다. 이 성스러운 인도를 받아 성결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축복을 상실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다.”(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20쪽)

- 힐라맨 시대 성도들은 선행을 계속하여 영적 자질을 강화시켰고, 그 결과 성결하게 되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성결해지는 것은 온전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끊임없이 순종이라는 길에 머무는 일은 이 필멸의 삶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온전함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정당함과 성결함의 선결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정당함(용서받는 것)과 성결함(정결해지는 것)이 온전에 이르는 선결 조건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으며(모로나이서 10:32 참조) 주님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는 그날에 자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Ensign*, June 2001, 24-25)

힐라맨서 3:35. 겸손한 중에 점점 더 강해지다

- 겸손함이 발전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충실한 교회 회원들의 생활에서 신앙과 기쁨이 더 커지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요인이다.

“겸손해진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함을 깨닫는 것, 즉 끊임없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겸손은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연약함, 소극적임, 혹은 두려움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알고 있다는 암시이기도 하다. 여러분은 겸손하면서 두려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또한 겸손하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

주님은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겸손할 때 힘을 주실 것이다.”
(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 [2004], 20쪽)

힐라맨서 3:35. 신앙 안에서 굳건하라

• 교회의 힘은 회원 개개인들이 지닌 굳건한 확신에 있다. 힐라맨서 3장 35절에는 신앙과 행위에서 굳건한 교회 회원들의 삶이 묘사되어 있다.

러셀 엠 벨슨 장로는 행동과 태도 면에서 그러한 굳건함은 개개인이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신앙과 기도에 대한 열정은 개인적으로만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개인적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회개는 개인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승영을 위한 의식을 받는 자격을 갖추는 것도 개인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44쪽)

힐라맨서 3:35.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다

• “마음을 드린다”는 말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주거나 바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개인적인 소망을 버리고 주님의 소망을 취하게 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우리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께 바치는 가장 높은 형태의 헌납이라고 가르쳤다.

진정한 헌납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은, 이따금씩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해야 하는, 첫째 계명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핵심어입니다. (마태복음 22:37 참조)그 계명을 지킬 경우, 그에 따라 우리가 행한 일들이 우리 영육의 지속적인 복리를 위해 완전히 헌납될 것입니다.(니파이후서 32:9참조)

그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관적인 순종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리아호나, 2002년 7월호, 39쪽)

힐라맨서 4:11~13

니파이 시대에 교회 회원들은 심각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러한 죄 가운데 최소한 여섯 가지를 나열해 본다.

힐라맨서 4:22~26. 죄를 지은 사람은 약해진다

•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경고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솔직해야 하며,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충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죄를 조금 짓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탓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는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하지 않는다]’(교성 1:31)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 일부 청소년들은 어리석게도 나중에 성전에 가고 싶거나 선교 사업을 하고 싶을 때가 되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죄를 범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리화합니다. 이것은 전세에서, 그리고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죄를 조금 짓는다는 생각은 자신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죄는 어떠한 것이든 죄입니다. 나중에 회개하겠다는 의도로 저질렀다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성약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7쪽)

생각해 볼 점

- 물몬은 “그리스도의 사람”(힐라맨서 3:29)이란 말을 썼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 목표를 두세 가지 세워 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
- 힐라맨서 3장 35절에는 신앙 안에서 굳건할 때 얻는 유익이 나온다. 이 축복 중에서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축복을 느꼈는가?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가?

제언 과제

- 자신을 분석하여 언제 교만이 여러분의 생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해 본다. 그 교만을 극복하기 위한 목표를 적는다.
- “변영”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이 주님께 최근에 받은 축복들을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많이 적어 본다.

소개

니파이인 역사에서 혹독한 시련기를 맞은 이때에는 간악한 사람들이 의인보다 수가 많았다. 법률도 극심하게 부패하여 효력이 거의 없었다. 이때 니파이는 증조 할아버지인 엘머처럼 대판사 직을 버리고 주님 일에만 전념했다.(엘마서 4:15~20 참조) 때는 바야흐로 영적 암흑기였고, 백성들의 “멸망이 무르익고 있었다.”(힐라맨서 5:2) 형제지간인 니파이와 리하이는 간악한 풍조를 막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고자 부지런히 노력했다.

해설

힐라맨서 5:2. “백성의 소리”

• 62년 전, 백성들이 왕을 원했을 때 모사이야는 정부가 “백성의 소리”(모사이야서 29:26)를 따라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백성 대다수가 불의를 원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말했다. 백성의 소리를 따르는 정부는 불의한 왕이 백성을 파멸로 이끌 가능성이 있는 왕정제보다 더 나았다. 그러나 구주의 강림을 앞둔 이 시기에 니파이인들은 “선을 택하는 자보다 악을 택하는 자가 더 많았다.”(힐라맨서 5:2) 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참으로 그때가 바로 그가 큰 멸망으로 너희를 벌하실 때니”(모사이야서 29:27)라고 경고한 모사이야의 말이 옳았음을 증명한다. 이 경고는 구주께서 나타나시기 직전에 멸망이 임함으로써 실현되었다.(제3니파이 8~11장 참조)

주님께서는 이 원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선언하셨다. “악인이 통치할 때 백성은 애통하느니라.”(교성 98:9)

힐라맨서 5:5~7. “너희의 이름을 기억하라!”

• 힐라맨은 아들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유산을 물려주었다. 아들들에게 고귀한 조상의 이름을 지어 주어 조상이 한 의로운 일들을 기억하게 했다. 칠십인 회장단의 카를로스 이 에이시(1926~1999) 장로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어 보면 이것이 니파이와 리하이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아담의 모든 자녀들이 중요한 이름을 받지 않았어도,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이름을 받았으며, 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힐라맨의 아들인 니파이와 리하이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힐라맨서 5:5~7]

우리는 니파이와 리하이가 조상들, 곧 이름을 물려준 조상들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물려받은 이름을 영예롭게 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알 수 있습니다.”(*Family Pecan Trees: Planting a Legacy of Faith at Home* [1992], 66~67)

• 현대에도 조지 엘버트 스미스(1870~1951) 회장은 좋은 이름이 그 사람에게 미치는 큰 영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어느 날 …… 저는 의식을 잃었고, 제가 영의 세계로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크고 아름다운 호수를 배경으로 서 있었으며 앞에는 큰 숲이 있었습니다. ……



저는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숲 속으로 이어진 길을 발견했는데, 풀이 무성해서 잘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발 자취가 거의 없어 보이는 오솔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걸어 숲 속으로 상당한 거리를

걸었는데 그 때 저를 향해 다가오는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덩치가 아주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제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그분은 몸무게가 130킬로그램이 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덩치가 컸을지 여러분도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이 납니다. 제 이름은 그분 이름을 따라 지어졌으며, 저는 그 점을 항상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앞에서 몇 걸음을 남겨 두고는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멈추어 섰습니다. 소년 소녀 여러분, 그리고 젊은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매우 진지하게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구나.’

[그때] 제가 한 모든 일들이 마치 빠르게 지나가는 영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있던 바로 그 시각까지 있었던 과거가 생생하고도 빠르게 펼쳐졌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제 앞에서 지나갔습니다. 저는 웃음 띤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실 만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앞으로 다가와서 팔로 저를 안으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다시 의식을 찾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감사함에 눈물을 흘려서 제 베개는 물이라도 쏟은 것처럼 흠뻑 젖었습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 여러 번 생각했고, 그때 이후로 훨씬 더 많이 그 이름의 명예를 지키려고 노력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소년 소녀 여러분, 청남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청소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고귀하게 여기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은 그분들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들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는지 보고할 특권과 의무를 받게 될 것입니다.”(“Your Good Name,” *Improvement Era*, Mar. 1947, 139)

힐라맨서 5:9.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이 달리 없고”

•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힐라맨서 5장 9절을 사용하여 기적과 같은 속죄가 있어야만 구원이 가능해진다고 가르쳤다.

“속죄의 영향력이 우리 삶에 온전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완전한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속죄를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을 즐기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시며, 동정심과 이해심, 인내심으로 가득한,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기꺼이 간청하시며, 권고하시고, 강화하시고 복돋아 주시며,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완전하고 죄 없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온전히 의로운 아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셨으며, 모든 사람을 위해 몸바쳐 희생하게 하셨습니다.[힐라맨서 5:9 참조] 그와 같이 속죄하셨기에 우리는 절대적인 공의에 따라 통치되는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공의가 있어야 세상에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얻는 자비를 통해 조절됩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라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작은 실수로 약간의 흠집이 나거나 심각한 잘못으로 커다란 손상이 야기되던지 간에, 회복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회개 기간과 엄중한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용서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목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이는 경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이 달리 없고, 오직 ……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하여서일 뿐임을 기억하라.’(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74쪽)

힐라맨서 5: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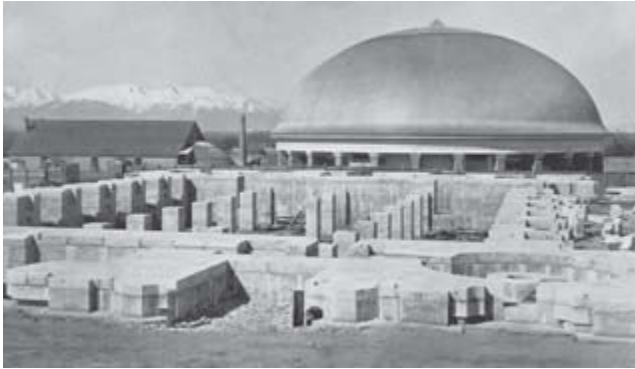
속죄에서 발휘되는 구원 능력에 관해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가 한 말씀과 힐라맨이 아들들에게 준 가르침을 비교한다.

힐라맨서 5:9~14. 기억하라

•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은 기억이 우리 영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르쳤다. “사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기억하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는 성약을 맺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는 바로 모든 사람이 매주 안식일에 성찬식 모임에 가서 성찬을 취하고, 제사들이 저희가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도록] 기도하는 것을 듣는 이유입니다. 누구도 성찬식 모임에 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라**가 핵심 단어입니다. 기억하라가 프로그램입니다.”(“Circles of Exaltation” [address to Church Educational System religious educators, June 28, 1968], 5)

힐라맨서 5:12. ㉒ 확실히 기초

• 칠십인의 브루스 시 하펜 장로는 장기적인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는 확실한 기초가 필요하다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설명했다.



“언젠가 거미줄과 튼튼한 철사의 차이점은 줄에 힘을 가하기 전에는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부분에게서 이미 우리 간증에 힘을 가하는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꼭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을 받는 시간이 머지않아 곧 올지라도,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는 요청은 아직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재 가해지는 힘은 강한 유희의 형태로 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피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광포한 어둠의 세력을 당해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한한 기회가 있는 곳으로 선교 사업을 가고 싶었지만, 질병과 실망이 난무한 곳으로 선교사 부름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아마도 우리의 유한한 지식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너무 많을 것이며, 우리보다 더 많이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닥쳐올 때, 우리는 시절이 좋을 때만 있는 거미줄 같은 신앙보다 더 강한 간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간증은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자의 힘에 저항하기에 충분할 만큼 튼튼한 철사 줄 같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가해지는 힘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 [우리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우리]에게 부딪칠 때, 그것이

[우리]를 이[기지] ……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입니다.](힐라맨서 5:12)(*The Believing Heart*, 2nd ed. [1990], 21~22)

힐라맨서 5:12. ㉒ 사탄의 강한 폭풍이 “너희에게 부딪칠 것임이라

•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사탄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일으키는 현대의 폭풍을 설명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강하고 파괴적인 적의 힘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물결처럼 밀려오는 죄, 사악, 부도덕, 타락, 포학, 속임, 음모, 부정직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거대한 힘과 빠른 속도로 밀려오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의하고 경청하여 영생을 위해 악으로부터 피하라고 외치는 음성입니다.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그 세력에 맞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으로 피신하거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무언가를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악한 자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세력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물문경에서 영감 받은 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너희에게 부딪칠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힐라맨서 5:12)(*성도의 빛*, 1979년 4월호, 7쪽)

힐라맨서 5:22~25
 힐라맨서 5장 22~25절과 니파이후서 1장 15절,
 앨마서 34장 15~16절을 비교한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힐라맨서 5:35~41. 아미나답과 “암흑의 구름”

• 경전에는 아미나답이 “출생이 니파이 사람인 자로, 한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였으나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온 자”(힐라맨서 5:35)라고 기록되었다. 힐라맨서 5장 35절에 기록되었듯이 아미나답은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는 점을 그가 보인 반응에서 알 수 있다. 칠십인의 에프 버튼 하워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미나답이 [기억한대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 인간은 의심과 어두움이 사라지고 중요한 것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

…… 되돌아가는 일은 가능합니다. 기도하기를 그친 사람이 다시 기도하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집으로 돌아오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는 이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서는 지난 날의 그 사람보다는 현재의 그 사람에, 이제까지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보다는 현재 어디에 있느냐에 더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점 말입니다.”(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101~102쪽)

힐라맨서 5:50~52; 6:1~8. 극적인 변화

• 니파이와 리하이아 레이맨인들에게 베푼 선교 사업의 힘과 영향력은 극적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성공적으로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 레이맨인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변화들을 주목한다.

1. 레이맨인들 대다수가 복음으로 개종했다.(힐라맨서 5:50 참조)
2. 레이맨인들은 무기와 증오심과 그릇된 전통을 버렸다. (힐라맨서 5:51 참조)
3. 니파이인들에게 그들 소유의 땅을 내 주었다.(힐라맨서 5:52 참조)
4. 레이맨인 대부분이 니파이인보다 더 의로워졌다.(힐라맨서 6:1 참조)
5. 레이맨인이 니파이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힐라맨서 6:4 참조)
6. 온 땅에 평화가 있었다.(힐라맨서 6:7 참조)
7. 레이맨인과 니파이인은 서로 자유로이 여행하고 교류했다. (힐라맨서 6:8 참조)

힐라맨서 6:17. 마음을 부에 두었더라

•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두면 그것이 영감과 영성을 가로막는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허영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잊습니다. 조금이라도 번영하고 평화로워지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기미만 보이면 자만심에 빠져듭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며 좋은 쪽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 자신이 한 일이지, 하나님께서 고요하고 작은 영의 음성을 통해 말씀해 주셔서 생긴 변화가 아니라고 곧 착각을 합니다. 교만으로 우리 내부에 잡음이 생기면 조용한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금세 허영에 빠지고 더 이상 영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음성은 필요 없다고 속단합니다.”(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7쪽)

힐라맨서 6:21, 26~31

루시퍼와 그 추종자들의 동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머물도록 동기를 부여하는가?

힐라맨서 6:18~40. 비밀 결사의 간악한 행위

• 힐라맨서 6장에서는 비밀 결사와 그들이 일하는 방식, 동기, 권력을 얻는 방법 등 몇 가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1. 비밀 결사의 두 가지 목적은 이익과 권력을 얻는 것이고, 그들은 그 일을 크게 기뻐한다.(힐라맨서 6:17; 이더서 8:22; 모세서 5:31 참조)
2. 비밀 결사는 생존을 위해 간악함이 필요하다.(힐라맨서 6:21, 31, 38 참조)

3. 비밀 결사는 비밀 유지를 토대로 번창하며, 이를 어기면 사형에 처해진다.(힐라맨서 5:22, 6:22, 모세서 5:29, 50 참조)
4. 비밀 결사는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는다.(힐라맨서 6:22, 모세서 5:30~31 참조)
5. 비밀 결사는 살인, 폭력, 폭력의 위협, 약탈, 악덕, 음행, 아침을 이용하여 이득과 권력을 얻는다.(힐라맨서 2:4~5; 6:17, 23 참조)
6. 비밀 결사는 국법에 반하는 법을 운영한다.(힐라맨서 6:23 참조)
7. 사탄이 큰 음모자이고 장본인이다.(힐라맨서 6:26~30 참조)
8. 그 무리에 속한 자들은 국법이 아닌 그들이 만든 법에 따라 재판 받는다.(힐라맨서 6:23~24 참조)
9. 그들은 가능한 한 급속히 정부의 권력을 취하고자 꾀한다.(힐라맨서 2:5; 6:39 참조)
10. 그 무리에 속한 자들은 다른 이의 자유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자 꾀한다.(이더서 8:25; 모세서 5:28~33 참조)
11. 비밀 결사는 국가가 멸망하는 원인이 된다.(앨마서 37:21, 26, 29; 힐라맨서 2:13; 이더서 8:21~22 참조)
12. 비밀 결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다.(제3니파이 9:9; 이더서 8:18 참조)

힐라맨서 8:14~15. “눗뱀”

- 간악함을 반대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있는 니파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나는 불뱀”(니파이전서 17:41; 민수기



백성들은 병이 나왔다.

21:6~9)으로 벌을 받은 구약의 사건에 대해 말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겪게 된 서막은 하나님과 선지자에 대해 나쁘게 말했기 때문이었으며(민수기 21:5 참조) 니파이 시대에 있던 부패한 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모세가 든 눗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을 나타내는 예표(상징적 표현)였다. 눗뱀을 쳐다본

니파이가 이 이야기를 언급한 이유는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힐라맨서 8:15; 또한 요한복음 3:14~15 참조)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통해, 회개하는 모든 사람은 사탄의 독을 극복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가르친 후에 니파이는 백성들에게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힐라맨서 8:16~23 참조)

-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물론경에 다시 언급된 눗뱀의 상징성을 더 명확히 설명했다.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중요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상징성에 대한 상세 설명 없이는 구약에 나오는 불뱀 이야기에서 ‘우리의 유익과 배움’(니파이전서 19:23)이 될 영적 통찰력을 충분히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상징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우리에게 주 예수님의 방법이 필요하며, 그 방법은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역설적인 사실은 모세 시대에 많은 이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사는 것같이,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신앙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수 있으리니, 곧 영원한 저 생명에 이르기까지니라.’(힐라맨서 8:15 또한 니파이전서 17:41; 앨마서 37:46 참조)

그러므로 ‘이 마지막 기록’에 담긴 명백하고 귀한 것들 덕분에 현재 우리에게 이 비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증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것은 단순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요구 사항이란 점을 강조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 얼마나 명백하고 귀한 말씀입니까!”(Plain and Precious Things [1983], 22)

힐라맨서 8:16~25

힐라맨서 8장과 교리와 성약 6장 9절, 11장 9절, 15장 6절, 16장 6절에서 각 선지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여러분은 그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힐라맨서 9:36~41.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 니파이가 은밀하고 감추어진 것들을 안다는 사실을 깨달자마자 그를 신이라고 칭하려 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성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모든 것을 아는 능력이 하나님의 특성 중 하나라고 가르쳤다.

“존 휘트머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존 휘트머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과 존 휘트머만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두 아셨다는 증거입니다.(교성 15:3)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고린도전서 3:20)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지상 백성들의 간악함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창세기 6:5)도 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에스겔 11:5)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기도드리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마태복음 6:8)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니파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 모든 것을 아시며, 그가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니파이후서 9:20)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힐라맨서 9장 4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신이 아니고서는 모든 일을 알 수 없었을 것임이라.’ ‘이제 보라 너는 증거를 받았나니, 만일 내가 아무 사람도 알지 못하는 것을 네게 말하였으면, 너는 증거를 받은 것이 아니냐?’(교성 6:24)“(Things As They Really Are [1978], 22)

생각해 볼 점

- 힐라맨은 그들의 시조인 리하이와 니파이의 예를 들어 아들 니파이와 리하이를 강화했다. 가족 중에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에게 있는 어떤 특성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문에 대해 어떤 인상을 주었는가?
-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초는 무엇인가? 인생의 기초에 어떤 조정이 필요한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무엇인가?
- 니파이 시대에 존재했던 영적 장애물 중에 오늘날 여러분이 겪는 비슷한 장애물은 무엇인가?

제언 과제

- 여러분의 가족 역사를 조사하고 누가 개종 일 세대인지 알아본다. 가족들과 이야기하여 그들의 신앙과 개종 이야기를 수집하고 여러분 개인 일지에 기록해 둔다.
- 점점 더 악으로 가득해지는 세상에서 계명을 더 잘 지키고, 복음 원리대로 생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친구나 가족과 토의한다.



기독교 문화 9691

소개

하나님께 완전한 신임을 받는 것은 큰 영광이다. *Lectures on Faith*에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려면 신앙이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자신이 추구하는 인생 행로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본질적으로 필요하며, 이 신뢰 없이는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1985], 7)

신임과 인정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때 받는다. 힐라맨서 10~12장에서는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주님께서는 니파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간구하지 아니할 것임[을]”(힐라맨서 10:5) 아셨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실하다는 것을 증명해낸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임하셔서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이다.

해설

힐라맨서 10:1~3. 깊이 생각하여

• 깊이 생각하는 것은 “종종 경전에 관해서 또는 하나님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숙고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

깊이 생각하는 것은 기도와 결합될 때 계시와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경전 안내서, “깊이 생각하다”) 니파이와 그밖에 다른 선지자들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계시를 받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 모두는 사색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유익을 얻습니다. 자기 성찰을 하는 고요한 순간에 영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6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는 깊이 생각하는 데에는 조용한 장소가 도움이 된다고 제안했다. “정기적으로 깊이 명상할 수 있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확립하실 수 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장소를 찾으십시오.”(*리아호나*, 2001년 7월호, 9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셀 엠 넬슨 장로는 깊이 생각할 때 얻는 유익을 말씀했다. “교리적인 원리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 성신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말씀하실 것입니다.[교성 8:2 참조] 경전에 묘사된 사건을 통해 새로운 통찰력이 생기고 각자의 상황과 관련된 원리가 마음에 스며들 것입니다.”(*리아호나*, 2001년 1월호, 21쪽)

힐라맨서 10:4~5. “내가 내 뜻에 반하는 것을 간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 니파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기를 배운다면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교성 46:30; 50:29~30 참조) 제일회장단의 매리온 지 롬니(1897~1988) 회장은 합당한 간구에 필요한 요소를 가르쳤다.

“개인적으로 특정한 것들이 필요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우리는 영혼 깊이 우리 간구를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마땅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은 ‘옳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의로운 생활을 한 결과로,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지시해 줄 영이 임할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Oct. 1944, 55~56)

롬니 회장은 니파이가 주님께 받은 것과 비슷한 약속을 받는 경험을 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그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1967년에 아이다 롬니 자매님은 뇌졸중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의사들은 당시 롬니 장로님에게 출혈에 따른 손상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들은 인공 장치로 롬니 자매님의 목숨을 연장할 수 있으나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롬니 형제님은 마음이 무척 아프고 아내가 건강을 회복하여 계속 함께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자신이 받아들여야 할 것을 불평 없이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롬니 자매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자매님은 물론 병자 축복을 받았으나 롬니 장로님은 '그 문제에 관해 주님과 의논하기를 꺼려[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이전에 자신과 아내가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기도로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장로님은 자신에게 신앙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릴 방법을 알고자 금식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롬니 자매님의 병세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롬니 자매님이 말도 할 수 없었고 남편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특히 절망스러운 상태였던 어느 저녁, 롬니 장로님은 집으로 가서 늘 그렇듯 경전을 펴고 주님과 대화하려 노력했습니다. 장로님은 물론경을 펴서 전날 밤에 읽은 부분부터 뒤이어서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힐라맨서에서 난동을 선동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기소 당한 선지자 니파이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자신을 기소한 사람들로 부터 기적적으로 구출된 후, 니파이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매리온 롬니 장로님은 그 이야기를 전에도 여러 차례 읽었지만, 그날 밤에는 그 이야기가 개인적인 계시로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경전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 닿자 장로님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확실한 화평을 느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행한 그 일들로 말미암아 네가 복이 있나니 네 스스로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뜻을 구하며, 내 계명을 지킬 것을 구하였도다. 이제 네가 것처럼 지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하였은즉, 보라, 내가 너를 영원히 복주어, 너로 말과 행실에, 신앙과 행위에 능하게 하리라. 참으로 네 말을 좇아 모든 일이 네게 이루어지리니, 이는 네가 내 뜻에 반하는 것을 간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힐라맨서 10:4~5)

거기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주님의 뜻만을 구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은 무릎을 꿇고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말하며 기도를 마치자 '네 아내가 낫는 것은 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아니니라' 하고 말하는 느낌 또는 실제 음성이 들렸습니다.

롬니 형제님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새벽 두 시가 지난 시각이었지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롬니 형제님은 빨리 넥타이를 매고 외투를 입고서 아내를 보기 위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3시가 되기 조금 전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롬니 자매님의 상태는 그대로였습니다. 장로님이 아내의 창백한 이마에 손을 얹었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아내를 위해 신권 권능을 불러왔습니다. 간단한 축복을 한 다음, 아내가 건강과 지력을 회복할 것이며 지상에서 아직 실행하지 않은 '위대한 사명'을 수행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었습니다.

전혀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축복을 마치고서 눈을 뜬 아내 모습을 보았을 때 장로님은 놀랐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에 다소 놀란 장로님은 침대맡에 앉아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가냘픈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롬니 자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이런,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몸은 좀 어땠소?' 두 분 다 유쾌한 분들인지라 롬니 자매님에게서는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언제와 비교해서요, 여보? 언제와 비교해서요?'

아이다 롬니 자매님은 그 순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곧 퇴원하셨고, 남편이 참으로 '지상에서 행할 위대한 사명'인 교회의 제일회장단 일원으로 지지되는 모습도 지켜보셨습니다.(F. Burton Howard, *Marion G. Romney: His Life and Faith* [Salt Lake City: Bookcraft, 1988], pp. 137~142)(Jeffrey R. Holland and Patricia T. Holland, *On Earth As It Is in Heaven* [1989], 133~135)

힐라맨서 10:4~5

이 두 구절에 따르면, 니파이가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어떤 특성이 있었기 때문인가?

힐라맨서 10:7. 인봉하는 권능

• 니파이가 부지런히 봉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큰 권능을 부여해 주셨다. 니파이는 백성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다. 또한 성스러운 인봉 권능도 받았는데, 이 권능은 선지자 엘리야가 지닌 것과 같은 권능이다. “엘리야의 권세는 땅에서 매이거나 또는 풀린 것이 하늘에서도 매이거나 풀리게 하는 신권의 인봉 권세이다.(교성 128:8~18)”(경전 안내서, “엘리야”)



© 1985 로버트 배저

•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여러 선지자에게 주어진 인봉 권능에 관해 가르쳤다.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선택하신 몇몇 종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시고 특별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 이런 식으로 엘리야는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며, 오로지 말로써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늘을 닫고, 3년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게 했으며, 더욱이 교회의 적들을 멸하기 위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권능을 소유했습니다. ……

주님께서는 비슷한 권세를 힐라맨의 아들 니파이에게도 주셨습니다. 니파이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신앙과 주님의 명에 따라 하늘을 닫고 그밖에 놀라운 일을 수행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힐라맨서 10:7 참조] 이 훌륭한 권능은 오직 몇몇 주님의 종에게만 주어졌습니다.”(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1966], 4:95)

힐라맨서 10:13~15. “저 큰 기적에도 불구하고”

•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기적은 신앙의 열매”(History of the Church, 5:355)라고 가르쳤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봐야만 신앙이 생긴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이 정한 순서와 반대된다. 신앙은 기적에 선행하는 것이지 후행하는 것이 아니다. 선지자 니파이가 대판사를 살해한 사람이 시애틀이라는 사실을 기적처럼 알아낸 것은 니파이가 신앙을 행사한 결과였다. 슬프게도, 이 기적을 목격한 대다수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채로 살고 있었다. 그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개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신앙은 표적[또는 기적]으로 인하여 오지 아니하며,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교성 63:9) 그들의 삶에 필요한 변화는 “회개에 이르는 신앙”(앨마서 34:15~17)에서부터 시작해야 했다.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은 큰 기적을 목격하고도 계속 완악한 마음을 먹은 채 살았고, 회개하기를커녕 오히려 니파이를 핍박했다.

힐라맨서 11:1~16. 선지자들은 백성을 위해 기도한다

• 니파이가 백성을 위해 드린 기도에서 백성을 염려하는 선지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종종 백성들을 위해 중재하려 노력한다. 불뱀 때문에 역경을 겪게 되자 이스라엘 자녀들은 모세에게 가서 간청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민수기 21:7)

미대륙에서는 리하이의 아들 니파이가 이런 기록을 남겼다. “내가 낮으로 [내 백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밤으로는 그들로 인하여 내 눈물이 내 베개를 적시리라. 또 나는 신앙으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나니”(니파이후서 33:3)

• 현재 우리의 선지자들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다.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비극적인 테러 사건 이후에 열린 연차 대회에서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이렇게 기도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인 저희는 이 암울하고 엄숙한 시기에 신앙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시여, 저희에게 신앙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지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자비가 깃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뿌리 뽑기 위해 불굴의 정신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해로움과 악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안전을 비는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

아버지시여, 이 환란의 시기에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우방들을 자비로 보살피 주시옵소서. 당신과, 저희가 의지하는 분이자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대업을 축복하셔서 저희가 다시 평화를 속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겸손히 간구드립니다. 저희의 오만을 용서해 주시며, 저희 죄를 지나치시고, 친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희 마음을 돌이켜 사랑으로 당신을 바라보도록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의 구속주이자 구주이시며, 저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아멘.”(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05쪽)

힐라맨서 11:4~5. 주님께서는 때때로 자연을 이용하여 자녀들을 징계하신다

-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님은 때때로 기후를 이용하여 율법을 어긴 그분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2쪽; 또한 교성 43:21~25 참조)

힐라맨서 11:18~12:6. 의로움과 간악함의 주기

- 물론경 역사에서 백성들은 의로움, 변영, 부, 교만, 간악함, 멸망, 겸손, 그리고 다시 의로움으로 돌아오는 주기를 여러 번 겪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교만 주기가 나오는 도해를 보려면 부록(413쪽)에 나오는 “의로움과 간악함의 주기”를 참고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는 인류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을 슬퍼했다. “저는 인간에게 가장 큰 불가사의한 일 중 하나는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인류는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가?’”(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16쪽)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 자신의 삶에서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경전에 이 명백한 행동 패턴을 실으셨다.(교성 52:14~19 참조)

힐라맨서 11:22~23. “교리의 요점”

-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쿱(1915~1985) 장로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리가 어떤 요소로 구성되는지를 설명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교리는 모든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 그분께 나아가, 신앙을 얻고, 회개하며, 침례 받고, 성신을 받은 다음, 신앙으로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니파이후서 31:17~21; 제3니파이 11:29~41; 교성 10:67; 68:25)”(Mormon Doctrine, 2nd ed. [1966], 204)

-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참된 교리에서 발휘되는 힘에 관해 이렇게 말씀했다.

“참된 교리란 이해되기만 한다면,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복음 교리를 공부하면 행동 연구를 통해 행동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더 빨리 행동이 향상됩니다. ……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복음 교리 공부에 많은 역점을 둡니다.”(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21쪽)



힐라맨서 11:21~38. 다시 간악해지다

-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악마는 언제나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동시에 하나님께 대항한다.”(History of the Church, 6:364)고 가르쳤다. 구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강화될 때마다 악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룩한 발전에 대항하기 위해 여러 형태로 저항력을 구축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힐라맨서 11장에서 사탄의 반항 세력이 일어난 예를 본다. 개다이엔톤 도적단들이 그 땅에서 사라지고 의로운 니파이인과 레이맨인 교회 회원들은 큰 평화를 누렸다.(힐라맨서 11:21 참조) 그러나 겨우 몇 년 만에 사탄의 영향력으로 백성들은 다시 죄악을 범했고 개다이엔톤 도적단들은 다시 힘과 영향력을 회복했다.

힐라맨서 12:1~3. 변하기 쉬운 인간

-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영적인 불안정성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고찰했다.

“단순히 의도하지 않은 망각일까요? 혹은 지적으로 고결하지 못해서 과거에 누린 축복을 돌아보고 인정하지 않으려 해서일까요? 아니면 온유함이 부족해서 ‘그분을 기억하라’고 손짓하는 부드러운 신호를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단호한 교훈을 반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

우리에게는 날마다 기억하도록 도움을 주는 영이 매일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취약한 상태일 때 기억에 착오가 생길 것입니다. 육에 속한 인간이 어제 받은 축복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현재 육신의 필요 사항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받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Lord, Increase Our Faith [1994], 101~102)

-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왜 우리가 쉽게 변하는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식견을 더했다. “하나님에 대한 의지는 기도가 응답되면 곧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적어지면 기도도 적어집니다. 물론경에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6쪽)

힐라맨서 12:1~9

이 구절에 따르면, 기억하는 일 또는 기억하지 않는 일은 교만의 주기를 피하는 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힐라맨서 12:2. 하나님께 변영을 축복 받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잇는다

-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변영과 더불어 생기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악이 더욱 교묘해지고 영악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시험 중에서도 가장 힘든 시험을 받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덜 위협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지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의로움에 관한 모든 시험은 곧 투쟁을 의미하지만, 이 까다로운 시험은 전혀 시험 같아 보이지 않으며,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것처럼 보이므로 모든 시험 중에 가장 현혹되기 쉽습니다. 화평과 변영을 누릴 때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잠들고 맙니다.”(Larry E. Dahl, “Fit for the Kingdom,” in *Studies in Scripture, Volume Five: The Gospels*, edited by Kent P. Jackson and Robert L. Millet [1986], 5:369)

- 해롤드 비 리(1899~1973) 회장은 “사치” 시험을 인생의 다른 시험과 비교했다.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지금 겪는 시험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초창기에는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폭도들의 침입도 받았습니. 성도들은 사막으로 쫓겨났습니다. 굶주리고, 헐벗었으며, 추위에 떨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물려준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유산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세계 역사상 전례 없는 큰 사치와 편안함을 누립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 교회 역사상 유례 없는 가장 혹독한 시험일 것입니다.”(Dahl, “Fit for the Kingdom,” *Studies in Scripture*, 5:369)

힐라맨서 12:4. “그 마음을 세상의 헛된 것들에 두[어]”

- 물문은 마음을 세상의 헛되고, 무가치하고, 공허하고, 가치 없는 것에 두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강조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는 재물, 교만, 우월, 권력이라는 세속 4중주가 펼쳐내는 온갖 연주가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에 관하여 우리는 경전에서 ‘네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엘마서 39:14)는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경전을 통해 충실한 이들에게 약속된 보물인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감추인 보화’(교성 89:19)를 구해야 합니다.”(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01쪽)

힐라맨서 12:5~6. “교만 중에 자고하기를 속히 하며”

-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교만에 관한 뛰어난 설교에서 교만의 여러 양상을 특징지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리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 합니다. ……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세(힐라맨서 12:6 참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지식보다는 진리에 대한 자신의 지각력을, 하나님의 신권 권능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주님의 놀라우신 업적보다는 자신의 성취를 더 내세웁니다.

……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데는 흥미가 없습니다. ……

교만 때문에 세상의 영광과 권력과 이득을 얻으려는 비밀 결사 조직이 생겨납니다.(힐라맨서 7:5, 이터서 8:9, 16, 22~23, 모세서 5:31 참조) 소위 비밀 결사라는 교만 죄는 야렛인과 니파이인 문명을 몰락하게 만들었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많은 나라가 멸망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이터서 8:18~25 참조)”(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4~6쪽)

• 칠십인의 조 제이 크리스텐슨 장로는 교만으로 인해 불의하게 비교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몰락하고 말 것이라고 가르쳤다.

“교만은 우리가 자신을 남과 비교하여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가 입을 청바지나 기타 ‘값비싼 의복’의 상표가 무엇인지,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사는 동네가 어딘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인종과 국적이 무엇인지, 어떤 차를 모는지, 어떤 교회에 다니는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는지 등을 지나치게 염려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경전에는 교만이 커져서 개인과 국가, 어떤 경우에는 교회까지도 멸망하는 많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

주로 인간의 교만이 원인이 되어 번영과 화평의 주기가 깨지는 상황은 몰몬경 전체를 통틀어 30회 이상 나옵니다.”(*One Step at a Time: Building a Better Marriage, Family, and You* [1996], 138~139) (부록 413쪽에 나오는 “의로움과 간악함의 주기” 도해 참조)

힐라맨서 12:7~19. 인간의 보잘것없음

•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사람의 자녀들의 보잘 것 없음”(힐라맨서 12:7)이란 구절이 인간의 가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자녀들보다 땅의 티끌을 더 염려하고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땅의 티끌은 순종적이라는 점입니다. 티끌은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분의 율법에 순종합니다. 제가 아는 한, 인간을 제외하고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정해진 법칙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서 법과 질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법칙에 순종하여 자신의 부름에 충실한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반항합니다. 이점에서 인간은 땅의 티끌보다 못합니다. 인간은 주님의 권고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Conference Report, Apr. 1929, 55)

힐라맨서 12:15. 천문학에 대한 지식

• 힐라맨서 12장 14~15절에서는 몰몬이 우주의 물리적인 법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는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게 그대로 있으라고 명하여 그의 군대가 아모리인들을 참패시킨 성경 말씀(여호수아 10:12~14)이 언급되어 있다. 이 기록에는 가만히 있는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돈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을 정정하는 언급이 추가되었다.(또한

이사야서 38:7~8; 열왕기하 20:8~11 참조) 이 구절들에서 편집자인 선지자 몰몬이 고대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처럼 하나님과 인간과 우주에 관한 기본 지식이 있었다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Joseph Fielding McConkie and Robert L. Millet, *Doctrinal Commentary on the Book of Mormon*, 4 vols. [1987~1991], 3:397)



닌키토 ©

힐라맨서 12:23~24. 회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한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발휘되는 힘을 설명했다.

“Bible Dictionary[영문 성경 사전]에 따르면 은혜라는 단어는 강화하는 힘 또는 능력을 주는 힘이라는 뜻을 내포하는 말로, 우리는 이 단어가 경전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낱말의 주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자비와 사랑을 통해 도움이나 힘을 얻는 신성한 방법이다.

……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선행을 할 수 있는 힘과 도움을 받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이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방법에 의지할 경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은혜가 발휘하는 힘 때문에 남성과 여성은 최선을 다해 노력한 후에 영생과 승영을 얻을 수 있다.’(697쪽)

따라서 우리는 능력을 주고 강화시키는 속죄의 힘 덕분에 우리의 제한된 필멸의 능력으로는 결코 인식하거나 성취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고, 행하고, 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주의 속죄에 능력을 주는 힘이 실제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간증합니다.”(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76~77쪽; 또한 교성 93:20, 27~28 참조)

- 칠십인의 진 알 쿡 장로는 구주의 은혜가 개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지에 대해 말씀했다.

“속죄를 통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깨끗이 되고 시련과 질병, 심지어는 성격 결함을 겪더라도 도움을 받아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우리의 결점과 단점을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창세기 18:14, 마가복음 9:23~24 참조)

죄를 회개하는 조건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때, 우리 가슴은 그 위대한 진리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

회개하는 마음과 선행은 우리에게 다시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렬히 기도로 응답을 구할 때, 그 응답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개인적인 죄에 대한 회개가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교성 101:7~8; 모사이아서 11:23~24 참조)

은혜를 얻기 위해 완전해질 필요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한 힘을 받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80~81쪽)

생각해 볼 점

- 여러분의 삶에 교만 주기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단계에 따라 행동해야 할까?
- 생활 속에서 신권 권능이 작용하는 것을 언제 보았는가?
- 주님 뜻에 반하는 것을 기도로 구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언 과제

- 주님께서 자녀들을 어떻게, 그리고 왜 질책하는지에 대해 힐라맨서 12~14장에서 배운 내용을 가정의 밤 시간에 나눈다.
-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교만 주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일지에 기록한다.

소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변화할 기회를 얻는다. 물론경 전체에 걸쳐 많은 부분에서 레이맨인들은 그 '행위가 약하였다.' 그러나 "니파이인들의 전도"(힐라맨서 15:4)로 "그들 중 대부분이"(힐라맨서 6:1)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음이 크게 변화되었다. 힐라맨서에서 이 부분은 역할이 명백하게 반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때 가르침을 받던 백성이 교사가 되었다. 한편 니파이인들은 상당수가 교만에 빠져 선지자들을 무시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레이맨인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하고 주님께 오실 때를 준비하라고 경고했다. 주님께서 보내신 레이맨인 사자에 대해 니파이인들이 집단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자. 사무엘이 한 말은 구주께서 미대륙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친히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시하고 그 말들이 모두 성취되었다고 간증하셨을 만큼 중요했다.(제3니파이 23:9-13 참조)



해설

힐라맨서 13:3. "그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무엇이든지"

- 선지자 사무엘은 니파이인들에게 무엇을 전파할지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다. 힐라맨서 13장 3절에는 사무엘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무엇이든지" 가르쳤다고 나온다. 사무엘이 계시를 받은 과정에 연관하여,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주님의 음성은 대개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계시로 오는 말씀은 듣기보다는 느끼는 언어입니다. 니파이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도 완악했던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감각이 없어 그의 말씀을 감지할 수 없었나이다'[니파이전서 17:45]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휘장이 우리의 마음에서 걷히고 우리의 이해의 눈이 열렸더라.[교성 110:1]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라.[교성 8:2] '네 마음을 밝혀 깨닫게 해 주었음[이니라].[교성 6:15] '내가 너희 마음에 넣어줄 생각을

말하라.[교성 100:5] 계시에 대해 가르치는 성구는 수없이 많습니다."(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60쪽)

힐라맨서 13:11~16. 몇몇 의인들 덕분에 살아남다

- 간악한 이들이 끔찍한 멸망을 모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그들 가운데 의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악한 제이라헤플라에도 의인들이 있었으며, 백성들은 멸망을 모면하게 해 준 그들에게 감사해야 했다. 그러나 물론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 몇 해가 지난 후, 감사할 줄도 모른 채 소리 없이 보호를 받아 오던 제이라헤플라 거주민은 완전히 보호를 잃고 말았고, 결국 사무엘의 말은 성취되었다.(제3니파이 9:3참조) 소돔과 고모라조차도 그곳에 의인 열 명만 살고 있었다면 멸망에서 살아남았을 것이다.(창세기 18:23~33 참조)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서 커다란 차이가 생겨난다. 한두 명이 보이는 의로움은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다.

힐라맨서 13:19~22. 부와 영성

-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물질주의와 영성의 관계를 설명했다.

"물질주의란 물질적인 필요와 사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며, 영성과는 분명히 반대됩니다. 구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마태복음 6:19)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태복음 6:21)

본질적으로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돈을 사용하여 이웃을 도왔으나 유다는 돈 때문에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디모데전서 6:10) 됩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보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행사하며 이 세상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돈을 숭배하거나 돈에 우선순위를 두면 돈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교만해지며 '세상의 헛된 것으로 부풀어 오른 자(엡사서 5:37)가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합당한 의무를 수행하고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는 데 돈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성실함이 증명되고 비이기적인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재물을 영적으로 훌륭히 판단하여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해의

영광의 더 높은 율법을 받도록 준비될 수 있습니다.”(성도의 벗, 1986년 1월호, 65쪽)

힐라맨서 13:21~22

사무엘은 니파이인들의 저주를 무슨 탓으로 돌렸는가?
그들은 무엇을 기억했고 무엇을 잊었는가?
이것은 여러분의 생활에서 왜 중요한가?

힐라맨서 13:23~29. 살아 있는 선지자를 따르라

•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여러분과 가족에게 도움이 될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우리 가족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서로의 관계,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하는 가르침을 가정에서 적용하십시오.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교회 회장과] 보좌들, 사도들, 그리고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참되다는 사실을 성신께서 증거해 주실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영은 여러분이 개인과 가족으로서 우리의 권고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속삭여 줄 것이며, 간증이 강해지고 여러분은 평안과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리아호나, 2001년 7월호, 82쪽)


힐라맨서 13:38. 죄악은 행복의 본질에 반대된다

• 사무엘은 니파이인들에게 그들이 죄악을 행하는 가운데 행복을 구했으며, 이는 행복의 본질에 반하는 일이라고 가르쳤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이 문제와 더불어 참된 행복을 얻는 길에 대해 말씀하면서 행복은 오로지 의를 통해서만 온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탄이 번쩍이는 이미지, 요란한 음악, 모든 신체 감각에 자극을 일으켜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어떻게 사로잡는지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사탄은 사람들이 인생을 행동과 오락과 자극으로 가득 채우도록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사탄이 건네는 유혹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매력 있어 보이는 행위들이 용인될 수 있는 일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을 어기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은 매력 있게 보이고 심지어는 바람직한 일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심각한 결과가 있기는커녕 도리어 영속적이고 분명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들은 대본과 배우들이 보여 주는 연기일 뿐임을 인식하십시오. 따라서 결정에 따른 결과 역시 제작자가 원하는 대로 조작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도덕적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이 만든 그릇된 창작물과는 달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를 결정하십니다. 순종하면 행복을 얻지만 그분의 계명을 어기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02쪽)

힐라맨서 13:38

어떤 면에서 엘마서 41장 10~11절  은 힐라맨서 13장 38절과 관련이 있는가? 죄에서 행복을 찾는 일은 왜 불가능한가?

힐라맨서 14장. 사무엘이 구주의 오심을 예언하다

•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망에 관한 사무엘의 예언은 경전에 기록된 가장 구체적인 예언 중 하나이다. 다음 도표에는 사무엘이 전한 가르침이 간략하게 실려 있으며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망, 그 예언이 성취된 기록,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사무엘이 가르친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구주의 탄생에 관한 예언		성취
힐라맨서 14:2	5년 후 탄생	제3니파이 1:13
힐라맨서 14:3~4	탄생 전날 밤에 어둠이 없을 것이다.	제3니파이 1:15
힐라맨서 14:5	새 별	제3니파이 1:21

구주의 탄생에 관한 예언		성취
힐라맨서 14:6	하늘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을 것이다.	힐라맨서 16:13; 제3니파이 2:1
힐라맨서 14:7	모든 사람이 놀라 땅에 엎드려질 것이다.	제3니파이 1:16~17

사무엘은 그들에게 구주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가르쳤다.(힐라맨서 14:8~13)	가르침
힐라맨서 14:8	하나님을 믿으라.
힐라맨서 14:9, 13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으라.
힐라맨서 14:30	너희는 스스로 행할 자유가 있다.

구주의 사망에 대한 예언		성취
힐라맨서 14:20, 27	사흘 동안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제3니파이 8:19~23
힐라맨서 14:21	천둥, 번개, 지진	제3니파이 8:6~7
힐라맨서 14:22	땅이 둘로 갈라질 것이다.	제3니파이 8:12, 17~18
힐라맨서 14:23	큰 태풍: 산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산이 될 것이다.	제3니파이 8:5~6
힐라맨서 14:24	대로와 성읍들이 황폐해질 것이다.	제3니파이 8:8~11, 13~14
힐라맨서 14:25	무덤이 열려 부활한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제3니파이 23:9~13

힐라맨서 14:11. “너희로 회개의 조건을 알게 하리라”

-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회개의 조건을 가르쳤다.

“용서가 낡는 기적에서 스벤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회개하여 용서를 얻는 방법을 훌륭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책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볼 회장은 회개의 핵심 요소로 다섯 가지를 밝혀 주셨습니다.

죄를 애통해 한다. 주님 보시기에 자신의 범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자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애통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 .

죄를 버린다. 이는 범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단호하고 변치 않는 결심입니다. 이 결심을 지킨다면 죄를 지을 때 느끼는 쓰라린 후회를 다시는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 .

죄를 고백한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음란과 같은 중대한 범법이라면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 자체가 회개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백은 필수 단계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만을 언급하여 일부만 고백한다면 밝히지 않은 더 중대한 범법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죄에 대한 보상을 한다. 우리는 흠치거나 피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준 모든 것을 가능한 한 원래대로 복구해야 합니다. 기꺼이 보상하는 것은 회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다는 결심을 주님께 실제로 증거하는 일입니다.

모든 계명에 순종한다. 온전히 순종할 때 복음 권능이 완전하게 우리 생활 속에 임하여 특정한 죄를 버리는 데 집중할 힘을 줍니다. 그것은 모임 참석, 십일조 헌금, 봉사,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 등과 같이 처음에는 회개의 일부분으로 생각되지 않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저는 여섯 번째 단계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구주를 인정한다. 회개에 이르는 모든 필요한 단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속주 덕분에 용서를 받는다고 확신하는 일임을 간증드립니다.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75~76쪽)



도널드 리처드 스코트

• 김볼 회장과 스코트 장로가 위에서 가르친 중요한 요소들 외에도 회개는 또한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문제와 관련된 여지가 있다면, 고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고쳐야 합니다. ……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변화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오직 그분들의 거룩한 도움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분명 우리의 행동에 따른 결과만은 아닙니다. 흔히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한 행동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고, 단순히 지상 생활이라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 후 그렇지 못하는 부분은 관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비록 우리가 불완전하더라도 저지당하지 않고 구주의 속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분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리아호나, 2006년 5월호, 70쪽)

힐라맨서 14:11~12. 사무엘이 가르침을 전한 목적

• 힐라맨서 14장 11~12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자신의 가르침으로 백성들이 알기를 바랐던 네 가지 진리를 언급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회개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구주께서 오심을 나타내는 표적

힐라맨서 14:15~19. 속죄는 죽음을 극복한다

• 레이맨인 사무엘은 육체적 사망, 첫째 영적 사망, 둘째 영적 사망의 차이점과 우리가 구주의 속죄를 통해 어떻게 이 사망들을 극복하는지를 설명했다.

육체적 사망. 칠십인 회장단의 얼 시 탕기 장로는 육체적 사망을 정의하고 누가 이 사망을 겪을 것인지를 규정했다. “육체적 사망이란 영이 육신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온 인류는 육체적 사망을 겪습니다.”(리아호나, 2006년 5월호, 73쪽)

첫째 영적 사망. 영적 사망은 사람이 “주의 면전에서 끊어”(엘마서 42:9)질 때 일어난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은 이 두 가지 사망 모두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리의 첫 번째 부모인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필멸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과 그들의 모든 후손은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육체적인 죽음은 몸과 영이 분리되는 것이며, 영적인 죽음은 영이 하나님 면전에서 분리되어 영적인 것에 관해 죽는 것입니다.)”(성도의 벗, 1978년 10월호, 6쪽)

우리가 하나님 면전을 떠나 이생으로 올 때 이 영적 사망이 일어난다. 레이맨인 사무엘은 하나님 면전에서 끊어지는 것을 “첫째 사망”(힐라맨서 14:16)이라고 일컬었다.

레이맨인 사무엘은 지상에 거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을 통해 육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을 극복할 것이라고 가르쳤다.(힐라맨서 14:17 참조) 다른 많은 성구에도 이 사실이 설명되어 있다.(니파이후서 2:9~10; 9:15, 22, 38; 엘마서 11:43~44; 12:12~15, 24; 42:23; 제3니파이 26:4 참조)

둘째 영적 사망. 둘째 사망은 하나님 면전을 떠나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온다.

구주께서 이 둘째 영적 사망을 극복하는 길을 마련하셨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통을 받으심으로써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다시 영적인 사망이 임하니, 참으로 둘째 사망이라, 이는 그들이 의에 관한 것에 대하여 다시 끊어지기 때문이다.”(힐라맨서 14:18) 이 말씀은 회개하여 죄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이끌려 심판을 받은 후에 그분 면전에 머물 수 없다는 뜻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이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도덕적인 잘못을 바로잡기 전에 육체적인 죽음이 닥친다면 회개할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망이 쓰는 것은 죄’(고린도전서 15:56)입니다.

구주조차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구주께서는 회개하는 조건에서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생존이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로마서 8:13-14; 힐라맨서 14:18; 교성 29:41-45 참조)”(성도의 벗, 1992년 7월호, 72쪽)

힐라맨서 15:3~4.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

•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묵과하지 않으신다. 힐라맨서 15장 4절에는 주님께서 레이맨인을

미워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끊임없이 악하였던 연고”라고 서술되어 있지만 사무엘은 복음 말씀을 배우고 개종하여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많은 레이맨인 중 한 사람이다.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제로 말씀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며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구주께서는 성도와 죄인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한1서 4:19] 니파이는 시현으로 주님의 지상 성역을 본 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그에게 침을 뱉으나, 사람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사랑의 친절과 그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를 참으시니라.’[니파이전서 19:9] 우리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구속주의 사랑을 압니다. 이는 사망을 겪는 모든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분께서 목숨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하나님의 사랑”, *리아호나*, 2003년 2월호, 24쪽)

힐라맨서 15:7~8. 영원히 지속되는 마음의 변화

•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경전의 힘, 특히 몰몬경의 힘을 이해했다. 벤슨



회장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굳건하며 흔들리지”(힐라맨서 15:8) 않기 위해 후기 경전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몰몬경에 담긴 충만한 복음 속으로 뿌리 내리지 않는 한 사회적, 윤리적, 문화적,

교육적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현대에 쏟아지는 유혹 속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8년 5월호, 6쪽)

힐라맨서 16:2~3, 6~8. 하나님의 보호

• 회개를 외치는 동안 사무엘은 보호를 받았으며, 이는 특이한 사례는 아니다. 경전에는 생명에 위협을 받았지만 기적처럼 보호되어 사명을 완수한 여러 선지자들의 실례가 나온다. 다음 예들을 생각해 보고 어떻게 그들이 상해나 죽음을 위협받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지

떠올려본다. 노아(모세서 8:18 참조), 아브라함(아브라함서 1:5, 12, 15~19 참조), 리하이(니파이전서 1:19~20; 2:1~4 참조), 니파이(니파이전서 17:48-55 참조), 아빈아다이(모사이야서 13:1~5 참조). 때때로 주님의 종들도 결국 목숨을 잃고 말지만, 아빈아다이가 선언한 것처럼 그들은 “주께서 [그들을] 보내사 전하게 하신 전갈을 전하[기]”(모사이야서 13:3) 전까지는 목숨을 잃지 않는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주었다.

“모든 경륜의 시대에 선지자들은 기꺼이 목숨을 바쳤으며,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했습니다.

.....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과거와 현재에 있는 선지자들이 보인 모범을 따릅니다. 우리는 많은 선지자처럼 순교해야 할 필요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과 맺은 성약을 충실히 지킬 뿐입니다.”(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35쪽)

힐라맨서 16:2~20. 선지자에 대한 반응

• 힐라맨서 16장에는 간악한 이들이 선지자 사무엘과 그의 메시지에 보인 반응에 대해 나온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우리 시대 선지자들에게 간악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말씀했다.

“선지자는 세상이나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선지자가 진리를 전파할 때 사람들은 양분됩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만 불의한 사람들은 선지자를 무시하거나 대적합니다. 선지자가 세상의 죄를 지적할 때, 세속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선지자의 입을 막거나 마치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어합니다. 인기는 결코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못됩니다. 많은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났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더욱 간악해지며, 선지자는 그들에게 점점 더 인기가 없어지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Fourteen Fundamentals in Following the Prophet,” *1980 Devotional Speeches of the Year* [1981], 29; 또한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133 참조)



다음 목록에는 힐라맨서 16장 2~21절에서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거부한 몇 가지 이유가 나온다.

1. 개인적 분노(2절 참조)
2.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 신뢰한다.(15절 참조)
3.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은 미루어 짐작한 것이 우연히 들어맞은 것일 뿐이다.(16절 참조)
4. 가르침들은 종종 이치에 맞지 않는다.(18절 참조)
5.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혼동을 일으키는 잘못된 전통이며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20절 참조)
6. 선지자들은 실제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를 써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21절 참조)

힐라맨서 16:15, 18, 20. 자신의 힘과 지혜에 의지하다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영적 진리를 판단하기 위해 전적으로 개인 공부와 이성에만 의존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주었다.

“물몬경에는 순전히 [자기] 스스로의 힘과 …… 스스로의 지혜와 [자기] 눈으로 목격할 수(힐라맨서 16:15, 20) 있는 것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성에 기초하여 예언을 거부하며 ‘그리스도라 하는 존재가 오리라 함은 이치에 닿지 아니하다[고]’(18절) 말합니다. 이와 똑같은 태도를 취한 어느 저명한 교수는 물몬경을 거부하면서 ‘천사한테서 책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부와 이성만으로 복음 지식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학문 추구로 특징지어지는 자족과 자만에 특히 빠지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학식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지식]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린도전서 8:1, 9, 11)’(The Lord’s Way [1991], 46-47)

힐라맨서 16:22
사탄은 어떤 목적으로 분쟁을 퍼뜨리는가?

힐라맨서 16:22. 사탄은 분쟁을 퍼뜨린다

• 사람들과 분쟁을 피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이에 대한 대답이 전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주님께서 ‘서로 다투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분쟁이 일어나는 진짜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물몬경의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부터 이 중요한 지식을 밝혀 주었습니다. …… [힐라맨서 16:22 참조] ……

분쟁은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창조, 그리고 지상에서 육신으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으로 발표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기뻐 소리쳤습니다. 그 계획은 인간의 선택의지와 그 후 하나님 면전에서 타락이 있고, 인류를 구속할 자비로운 구주를 내세우는 일에 달려 있었습니다. 경전에는 루시퍼가 인간의 선택의지를 없애 그 계획을 바꾸려고 무척 애를 썼다는 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려는 사탄의 이기적인 노력은 하늘에서 큰 분쟁을 야기했습니다. ……

하늘에서 벌어진 이 전쟁은 유혈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분쟁의 시작으로, 생각의 차이에서 나온 전쟁이었습니다.

경전에서는 분쟁의 아버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알립니다. 사탄의 방법은 전염성이 강한 분쟁이라는 독소에 의존합니다. 사탄의 동기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83~84쪽)

생각해 볼 점

- 여러분이 사무엘 시대에 살았다면, 당시 선지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옹호하기 위해 군중에 대항했는지 생각해 본다.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살아 있는 선지자를 어떻게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힐라맨서 15장 7절에는 레이맨들이 무엇 때문에 큰 변화를 하게 되었는지 설명되어 있다. 여러분은 경전으로 인도된 후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한 사람을 알고 있는가?
- 힐라맨서 16장 22절을 읽는다.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계속해서 화평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제언 과제

- 선교사에게 편지를 쓴다. 편지에 사무엘의 가르침에서 배운 원리를 설명한다. 그 원리가 여러분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한다.
- 가정의 밤 시간에 완악한 마음을 품는 일과 통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의 차이점을 공과로 가르친다. 힐라맨서 16장 13~23절과 제3니파이 9장 20절을 활용한다.

소개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구주께서 방문하시기 직전 시기를 다룬 니파이인 역사 기록에는 구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 시대와 유사한 점이 많이 나타납니다.”(성도의 빛, 1987년 4월호, 4쪽) 구주께서 오시기 전 미대륙에는 간증이 확고하고 완전하게 개종한 사람만이 남아 있을 수 있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간증이 굳건하고 완전하게 개종한 사람만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이다. 제3니파이 1~7장을 주의 깊게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과 그분의 복음으로 개종하는 것이 어떻게 삶에 시련이 닥칠 때에도 구주께 충실하게 남도록 힘을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해설

물문경에 나오는 책들의 분량과 각 책이 다루는 기간을 비교해 보면 많은 점을 알 수 있다. 부록(410쪽)에서 “물문경 쪽수 및 기간” 도표를 참고한다.

제3니파이 1장. 예언이 성취되다

• 적들이 레이맨인 사무엘이 예언한 표적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위협하자 니파이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서는 니파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 탄생을 의미하는 표적들이 바로 그날 밤에 나타날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경전에는 사무엘이 외친 모든 예언이 성취된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281쪽에 나오는 힐라맨서 14장 해설에 있는 도표 참조)



제3니파이 1:1. 니파이인 역법

• 물문경 전체에서 니파이인들은 그들의 역법으로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세 가지 참조 기점을 사용했다.

참조 기점	사용된 때	성구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시점부터	주전 600~692년	니파이전서 1장~모사이야서 29장
정부가 왕정제에서 판사제로 바뀐 시점부터	주전 92 ~주후 1년	모사이야서 29장~제3니파이 1장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알리는 표적이 나타난 시점부터	주후 1~421년	제3니파이 1장~모로나이서 10장

주: 표적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후 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것을 기점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3니파이 1:29. 그릇된 길로 이끌려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 제3니파이 1장 29절에서 우리는 배도가 일어나는 데에는 단 한 세대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충실한 부모의 자녀들이 “거짓말과 아침하는 말로 인해, 이끌려가서 저 개다이엔톤 도적들에게 가담”한 슬픈 이야기를 읽게 된다.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 젊은이들 손에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멸망되기 직전 세대였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세대 전체가 길을 잃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멀어지더라도 다음 세대에 복음의 문이 닫혀 버리며, 주님께서 손을 뻗어 그들 중 일부를 다시 데려오시기 전까지는 열리지 않습니다.”(“We Must Raise Our Sights” [Church Educational System conference on the Book of Mormon, Aug. 14, 2001], 1; LDS.org under gospel library/additional addresses/CES addresses 참조)

• 고든 비 힝클러(1910~2008) 회장은 우리 시대 청소년들에게 진리에서 멀어져 그릇된 길로 이끌려가지 않도록 노력할 방법을 권고로 주었다.

“영광스러운 이 세대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신앙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이 옳다고 아는 일을 굳게 수호하십시오.

여러분은 엄청난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인기 있는 오락 장소에서, 인터넷, 영화, 텔레비전에서, 저속한 문학에서,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간교하게 감흥을 일으키며 물리치기 힘들게 다가옵니다. 친구들의 압력은 감당하기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매혹적인 유혹에 굴복하기보다는 장래를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

…… 여러분은 이제까지 있었던 세대들 중 가장 훌륭한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복음을 잘 압니다. 의무에 더욱 충실합니다. 유혹에 더욱 강력하게 맞섭니다. 표준대로 생활하십시오.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서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지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축복하며 영화롭게 하시고, 감미롭고 아름다운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모범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이 여러분의 영향력을 통해 용기를 얻는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83~84쪽)

제3니파이 2:1~2. 나타난 표적을 믿지 않기 시작하다

- 그리스도 탄생을 의미하는 표적이 나타난 직후, 사탄은 거짓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제3니파이 1:22 참조) 비록 그 영향이 곧바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백성들이 “마침내 그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그 생각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믿지 않기 시작[했다.]”(제3니파이 2:1)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우리도 사탄이 우리 믿음을 공격할 때 약해질 수 있다고 가르쳤다. “사람들이 특별한 영적 경험을 했을 때조차 [사탄은] 재빨리 움직여, 표적을 본 사람들을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믿지 않[게]’”(제3니파이 2:1~2) 만들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일까 봐 염려할 때 대적은 우리가 믿는 것이 어리석다고 설득할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Things As They Really Are [1978], 41)



제리 톰슨, © IRI

표적과 구원에 관하여 믿는 이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교성 63:8~12 참조) 표적은 신앙의 산물이다. 표적을 보고 충실한 사람들은 강화되고, 이를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생긴다. 그러나 표적이 나타나는 주요 목적은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보상하는 것이다.(교성 68:9~11 참조) 표적은 그 누구에게도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다. 슬프게도, 가장 놀라운 표적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증거들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합리화하는 일은 경전과 현대 세상에서 흔히 일어난다.

제3니파이 2:1~3

이 백성들은 그리스도 탄생을 의미하는 표적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들이 보인 불신앙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신앙은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제3니파이 2:1~4. 간악한 이들이 때때로 표적을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 경전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따금 간악한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 주시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선지자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힐라맨의 아들 니파이가 대판사의 죽음에 관하여 백성들에게 준 표적은 니파이가 옳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모사이야서 20:21 참조)

간악한 사람들에게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간악한 이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온전히 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표적을 구하는 자는 표적을 보게 되려니와,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리라.”(교성 63:7)

선지자 말씀이 옳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간악한 이들은 선지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므로 주님께서는 종종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없도록 표적을 보여 주실 것이다.(힐라맨서 9:2~4 참조)

간악한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간악한 이들을 정죄하실 때 그들도 표적을 목격하게 된다.(교성 63:11 참조)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마태복음 12:39)고 말씀하셨다.

제3니파이 3~4장. 세상적 준비와 영적 준비

- 간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침(2절), 거짓 염려(5절), 거짓 약속(7~8절)을 한 긴디안하이의 말에서 사탄의 모습을 잘 찾아볼 수 있다.(제3니파이 3:1~10) 자유에 관해 긴디안하이가 한 약속은 악마의 약속과 얼마나 비슷한가. 긴디안하이가 내놓은 제안은 속박, 그리고 자기 것도 아닌 소유물을 나누겠다는 약속뿐이었다.(7절 참조)

레이코니우스는 곧바로 백성에게 주의를 기울였다. 레이코니우스는 곧 닥칠 긴디안하이 도적단의 공격 앞에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다. 레이코니우스는 백성들에게 견고한 방어시설을 구축하게 하고(14절) 가족과 가족들을(13절) 제이라헤물라 땅 한 곳에(22~23절) 모으게 했다. 또한 무기와 갑옷을 만들고(26절) 7년치 양식을 비축하게 했다.(제3니파이 4:4) 레이코니우스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버려두어 도적단이 양식을 찾아낼 수 없게 하라고 지시했다.(3~4절)

여기서 더욱 중요한 부분은 레이코니우스가 백성들을 영적으로 준비시켰다는 점이다. 그는 백성들에게 회개해야 무사할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제3니파이 3:15) 백성들은 회개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25절; 4:8) 그렇게 그들은 임박할 적들의 공격에 대비해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지혜롭게 준비했다.

- 우리는 우리 시대에 닥칠 재난에 대비해서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구주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대비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재림이 내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 아닌 죽음을 통해, 혹은 예기치 않은 재림으로 내일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어떤 행동들을 중단하겠습니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까요? 어떤 용서를 해야 할까요? 어떤 간증을 하게 될까요?”

그때 그런 일을 할 것이라면, 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왜 평화를 구할 수 있을 때 구하지 않습니까? 준비라는 등잔불 기름이 소모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즉시 등잔을 채울 만큼 현명해집시다.

우리는 재림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사건들에 대비해 세상적인 준비와 영적인 준비를 모두 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은 잘 보이지 않고 좀 더 힘든 영적 준비입니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명에 따릅니까? ‘주의 날이 이르기까지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 이는 보라, 그 날이 속히 임함이니라.’(교성 87:8) ‘거룩한 곳’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에는 성전과 충실히 지켜지는 성약이 포함됩니다. 자녀들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부모가 존경 받는 가정이 포함됩니다. 분명 거룩한 곳에는 선교 사업과 지부, 와드, 스테이크에서 충실하게 수행하는 부름을 위시하여 신권 권세에 따라 지명된 의무가 포함됩니다.”(리아호나, 2004년 5월호, 9~10쪽)

제3니파이 4:10.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두려움을 이긴다

- 니파이인들은 긴디안하이 도적단에 대비해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준비했다.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그들은 마지막으로 땅에 엎드려 주님께 부르짖었다. 적들은 이 행위를 잘못 해석했다. 그들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적들을 맞았다.(제3니파이 4:8~10 참조) 우리 또한 적들에 맞설 수 있으며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품을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우리 시대에 닥치는 어려움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신앙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다가올 해에 겪을 어려움에 대비해 우리 자신과 가족을

준비시키려면 두려움을 신앙으로 대체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고 위협하는 적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선을 행하라. 땅과 지옥이 연합하여 너희를 대적하게 하라. 이는 만일 너희가 나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진대,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라.’(교성 6:34)(성도의 벗, 1990년 1월호, 44쪽)

제3니파이 5:1~3. 신앙은 회개와 모든 선행으로 이끈다

-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는 칠십인 일원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신앙과 회개의 관계를 설명했다.

“이를 깊이 생각해 보면 첫째 되는 원리,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기에 회개를 하게 되고, 침례를 받거나 또 다른 복음 의식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침례가 의미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다면 회개하고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거나 침례 받기를 거부하거나 계명을 지키려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침례, 그밖에 다른 원리와 의식은 별개가 아니라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이 연장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을 때 삶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26쪽)

제3니파이 5:1~3; 6:4~5
 백성들이 확실하게 알았던 것은 무엇인가? 물몬은 어떤 한 가지 때문에 변영이 그친다고 말했는가?

제3니파이 5:13.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 물몬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묘사했다.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물몬이 받은 부름의 본질을 설명했다.

“열두 니파이인들이 제자로 불리던 시절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살펴보면 그들이 백성 가운데서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증인이 되는 신성한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니파이에게 계시되었듯이, 비록 그들의 권한은 결국 팔레스타인에서 선택된 베드로와 십이사도들의 권세와 권한에 종속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니파이인들에게 그들은 사도였다.”(*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1966], 1:122)



물몬이 받은 부름은 사도였지만 제자라는 용어에는 더 일반적인 의미가 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교성 41:5)”를 말한다.(경전 안내서, “제자”)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제자 신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으며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 그분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고 이러한 배움을 이행하는 일은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힘든 길입니다. 다른 어떠한 훈련도 필수 요건이나 보상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한 사람이 육욕적인 인간이라는 상태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는 성도로 완전히 변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Chauncey C. Riddle, ‘Becoming a Disciple,’ *Ensign*, Sept. 1974, 81)(*리아호나*, 2001년 1월호, 73쪽)

여기에서 물몬은 제자에 대해 말했지만 단지 제자로서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이 소유한 권세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3니파이 5:22~26. 후기에 집합의 의미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집합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했다.

“시대의 또 다른 징조는 충실한 사람들이 집합하는 것입니다.(교성 133:4 참조)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 초기에 시온으로 집합할 때 그 장소는 미국 내 여러 지역, 즉 커틀랜드, 미주리, 나부, 산꼭대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집합 장소는 늘 장차 성전이 세워질 곳이었습니다.



LDS Church Archives에 허락을 받아 게재

스테이크 조직과 더불어 대부분 국가에서 충실한 사람들의 수에 맞게 성전이 건립되면서, 현대의 계명은 한 곳에 집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 있는 스테이크에 집합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충실한 사람들은 주님의 집에 들어가 충만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국에서 주님의 백성의 경계를 넓히고 스테이크를 강화하라는 주님의 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교성 101:21, 133:9, 14 참조) 이러한 방법으로 시온의 스테이크는 ‘진노가 온 땅에, 섞인 것이 없이 쏟아져 내릴 때 폭풍우를 피하고 진노를 피할 방어진이 되며 피난처가 됩니다.(교성 115:6)’(리아호나, 2004년 5월호, 8쪽)

제3니파이 6:10~16, 18, 29

무엇이 원인이 되어 많은 니파이인들이 배도했는가? 이것은 어떻게 후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고가 될 수 있는가?

제3니파이 6:12. 변영과 화평은 교만을 초래할 수 있다

- 구주께서 니파이인들 가운데 친히 성역을 베푸시기 바로 전 몇 년 동안 백성들은 짧게 변영을 누렸다. 불행하게도 이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그들은 “심히 큰 부로 인하여 자고하여 교만하며 자랑하기에 이르렀[다].”(제3니파이 6:10)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우리 시대의 이러한 도전에 대해 경고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변영하고 평화로워지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기미만 보이면 자만심에 빠져듭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며 좋은 쪽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 자신이 한 일이지, 하나님께서 고요하고 작은 영의 음성을 통해 말씀해 주셔서 생긴 변화가 아니라고 재빨리 착각을 합니다. 교만으로 우리 내부에 잡음이 생기면 조용한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금세 허영에 빠지고 더 이상 영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음성은 필요 없다고 속단합니다.”(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7쪽)

- 물론경 역사에서 백성들은 의로움, 변영, 부, 교만, 간악함, 멸망, 겸손, 다시 의로움으로 돌아가는 주기를 몇 차례 겪었다. 더 자세한 사항과 교만 주기를 나타내는 도해를 보려면 부록(413쪽)에 있는 “의로움과 간악함의 주기”를 참고한다.

제3니파이 6:12~13.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 기록에는 “어떤 이들은 교만 중에 자고하였고, 다른 이들은 심히 겸손하였[다]”(제3니파이 6:13)고 나온다. 우리 각자는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해야 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1915~1994) 장로는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중 하나는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를 선택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수동적으로 결정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스스로 순수한 신앙 생활의 원리들을 지침으로 사용하면서 우리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삶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며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성도의 벗, 1983년 1월호, 95쪽)

제3니파이 6:15~18.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죄를 짓도록 유혹한 사탄

- 전세에서 하나님을 모반한 사탄은(모세서 4:3; 교성 29:36; 76:25)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모반을 선동하려 한다. 고의로 죄를 저지르는 위험은 우리가 어떤 음성을 선택하여 따르느냐와 관련이 있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 경고했다.

“그리고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알고 또 가르침 받고 난 후에, 만일 너희가 범법하여 말씀하신 바에 상반되게 행하여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를 행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께 드러내어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즐겨 악한 영에게 순종하며, 모든 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안에 거할 곳이 없으시니, 이는 그가 거룩하지 않은 성전에는 거하지 아니하심이라.”(모사이야서 2:36~37)

- 이와 관련하여,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분명히 이것은 전세에서 자신의 자아를 통제하지 못한 [사탄]에게 이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의 자아에 대한 통제권을 내주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악마에게 그때 직접적으로 못하게 한 그 일을 지금 간접적으로 하도록 허락합니다.”(We Will Prove Them Herewith [1982], 45)

-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사탄의 유혹에 이끌리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전세를 떠나올 때, 육체를 입고 겪을 새로운 경험에 관해 주의와 경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뼈와 살로 된 육신을 얻는다는 것은 알았으나 육체를 입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유혹에 대처하는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점을 잘 아셨기에 우리에게 육신을 통제하여 영의 지배를 따르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육체가 세상적인 유혹에 부딪칠 때 그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때 사탄의 영향을 극복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사탄은 때때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유혹하거나 무력하게 만들고자 애씁니다. 그러나 사탄이 약속한 기쁨은 순간적인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의 사악한 계략은 바로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축복에서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하여 결국은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사탄의 권능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한다는 점을 잘 압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 치르는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은 강하고 교활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강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다시 그분이 계신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그때그때 여러분의 영에게 알리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일시적인 육체로 된 자신보다 영원한 영인 자신에게 더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을 자기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7쪽)



제3니파이 7:15~26. 니파이와 니파이를 따른 사람들이 보인 충실함

- 니파이인들에게 있었던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은 니파이와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충실했다는 점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현재의 기록은 니파이인들이 의로움에서 돌아섰다는 슬픈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보여 준 모범은 우리가 간악한 시대에 의로움을 유지하는 데 유용한 규범이 된다. 담대하게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한 죄 사함”(16절) 가르친 경험(제3니파이 7:15 참조)으로 얻은 니파이의 굳건한 간증이 이곳에 실려 있다. 니파이는 권능과 권세로 성역을 베풀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신앙이 심히 컸[기]”(18절) 때문이며 니파이의 간증을 받아들인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21절)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믿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22절 참조) 회개했으며, 침례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다.]”(24~25절 참조)

제3니파이 7:21~25

개종한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 중요한 원리와 관련하여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제3니파이 7:21~26. 온전한 개종

-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온전히 개종한 사람과 아직 덜 개종한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했다. 스코트 장로는 그리스도의 참된 추종자로 꾸준히 성장하는, 개종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필요성을 가르쳤다.

“우리 모두는 시종일관 옳은 일을 행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아 왔습니다. ……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비록 매력적인 대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서슴없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그들 역시 유혹을 받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이 내리는 결정에 그다지 용감하지 못한 사람들도 보아 왔습니다. 강한 영적 분위기 속에서는 더 잘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겠다고 결심한 일들로 곧 되돌아갑니다. ……

때때로 **개종**이라는 단어는 진실한 사람이 침례를 받았다고 결정할 때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 **개종**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매리온 지 롬니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개종한다는 것은 한 신앙에서 다른 신앙 또는 한 행동 방침에서 다른 행동 방침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개종**이란 영적이고 도덕적인 변화입니다. 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믿는 신앙을 변화하는 동기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인생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나 생각, 행동 등에서 하나님께 충실한,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진실로 온전하게 개종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반하는 그 어떤 욕망도 실제로 소멸돼 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확고하고도 지배적인 결심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Conference Report, Guatemala Area Conference 1977, 8] ……

간단히 말해, 참된 개종은 **신앙과 회개, 그리고 일관된 순종**이 맺는 열매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로마서 10:18 참조] 그 말씀에 응할 때 옵니다. 여러분은 신앙으로 받아들인 것들을 기꺼이 행할 때 성신께 확증을 받을 것입니다.[이터서 12:6 참조] 그릇된 행동을 하거나 옳은 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잘못을 회개하도록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 결과, **꾸준히 순종하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신앙과 회개, 그리고 일관된 순종**으로 이어지는 이 순환을 계속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더 크게 개종하고 그에 따른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리아호나, 2002년 7월호, 26~27쪽)

생각해 볼 점

-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제3니파이 5:13 참조) 더욱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될까?
- 제3니파이 6장 14절에서는 니파이인 사이에 생겨난 불평등을 볼 수 있다. 이 불평등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물론 이 죄악을 일으킨 실제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15절 참조) 사람들이 스스로를 남보다 낫다고 믿기 시작할 때 대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물론경 역사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입증하는가?
- 우리는 믿음과, 행동과,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다. 이 장들에는 이 개념들에 대한 긍정적인 예와 부정적인 예가 실려 있다. 여러분은 어떤 예들을 보았는가? 이 예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여러분이 충실히 남기 위해 노력할 때 이 예들 중 어느 것이 여러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제언 과제

- 제3니파이 1~7장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간증과 개종의 중요성을 배운다. 종이를 두 칸으로 나눈 다음 각 칸 상단에 다음 두 제목을 쓴다.
 1. 개인적인 간증과 개종으로 이어지는 태도, 믿음, 행동
 2. 개인적인 간증과 개종을 파괴하는 태도, 믿음, 행동
 그런 다음 제3니파이 1~7장을 복습하고 여러분이 찾은 가르침, 사건, 원리, 교리를 해당 칸에 나열한다. 이 과제에서 배운 것을 짧게 서술하고 가정의 밤 공과로 가르친다.
-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몰몬경 백성들에게 구주께서 첫 번째로 오시기 직전에 있었던 많은 사건이 구주의 재림 직전에 있을 사건들과 유사하다고 가르쳤다. 힐라맨서 14장부터 제3니파이 7장에 걸쳐 “후기”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사건, 가르침, 교리와 원리들을 열거한다.
- 제3니파이 5장 13절을 암기한다.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구주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방법을 생각한다. “나는 …… 믿는다”라는 구절로 여러분의 신앙 선언문을 만들어 본다.


소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신 다음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노라—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제3니파이 11:7)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리고 물몬경에서 가장 훌륭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 때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는지 상상해 본다.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라.”(제3니파이 11:10) 이렇게 선언하시는 아들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들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상상해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성에 대한 영적 증거와 실제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삶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생각해 본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다. 제3니파이 8~1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찾아본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따르는 여러분의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본다.

해설

제3니파이 8:1.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다

•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했다. “자기의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이니라”(제3니파이 8:1; 또한 교성 121:36  참조)

본 제이 페더스톤 장로가 감리 감독단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말씀한 다음 이야기는 신권 소유자들이 항상 깨끗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한다.

“사람들은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주님의 성신권을 소유하고 그분의 종인 척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팔에 죽은 아들을 안고 있던 어느 위대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과 권세로 명하노니 살아나라.’ 그러자 그 죽은 소년은 눈을 떴습니다.

이 훌륭한 형제가 며칠 전에 음란물을 보았다면, 또는 그와 비슷한 범법을 저질렀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권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막히지 않은 깨끗한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Conference Report, Apr. 1975, 100; 또는 *Ensign*, May 1975, 66)

•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비록 모든 신권 집행이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오직 합당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권 소유자들은 자신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젊은 친구 여러분, 모든 기도가 즉시 응답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신권 선언이 모든 생명을 지속시키거나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 여러분, 무서운 위기가 닥친 순간에 신앙과 신권을 행사하여 하늘로부터 권능을 끌어내리려면 여러분은 가장 훌륭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면,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론 신권 소년 여러분은 성임된 장로들이 멜기세덱 [신권을] 행사하는 것과 똑같은 신권 행사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모든 신권 소유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자신을 성결하게’[여호수아 3:5]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7쪽)

제3니파이 8:6~19. 자연의 대격변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 “크고 무서운 태풍이 있었고 …… 온 땅에 그 같은 것이 결코 알려진 적이 없던 것”이 막대한 자연 파괴를 촉발했다.(제3니파이 8:6~7) 이 자연 격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사실을 미대륙에서 증거하는 표적이었다.(니파이전서 19:10~12; 힐라만서 14:20~21 참조)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부 자연 격변은 재림이 다가온다는 신호이다.



제리 톰슨, © IRI

십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커다란 지진이 증가하는 것은 재림의 표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재림의 징조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며 빈도와 강도가 더해 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The World Almanac and Book of Facts, 2004*[세계 연감과 사전 기록, 2004]에 나타난 주요 지진 목록을 보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일어난 지진은 그 이전 20년 동안에 비해 두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89~190쪽 참조) 그것은 또한 금세기 들어 첫 몇 년 동안에 급증했습니다. 주요 홍수와 해일, 전 세계에 걸친 허리케인, 태풍, 폭설도 최근 몇 년 동안 이와 비슷한 추세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88~189쪽 참조) 50년 전과 비교하여 증가한 것은 보고 기준에 따라 무시될 수 있으나 지난 몇 십 년간 자연 재해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면 가공할 만한 수준입니다.”(리아호나, 2004년 5월호, 7~8쪽)

제3니파이 8:23. 사흘 동안 계속된 어둠

- 사흘 동안 계속된 어둠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제3니파이 11:11)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하셨음을 상징했다. 몰몬은 사흘 동안 계속된 어둠은 구주께서 사망하셨음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강조했다.(니파이전서 19:10; 힐라맨서 14:27; 제3니파이 8:23 참조) 세 시간 동안 계속된 “큰 폭풍”(제3니파이 8:5)으로 발생한 피해를 설명한 뒤 몰몬은 완전한 어둠을 성취된 표적 중 하나라고 기록했다.(제3니파이 10:14 참조) 어둠이 아주 심하여 “아무 빛도 있을 수가 없었다.”(제3니파이 8:21) 어둠이 계속되는 이 사흘 동안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무덤에 누여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날, 빛이 미대륙 백성들에게 다시 나타나 사망과 어둠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렸다.(제3니파이 10:9~11 참조)

제3니파이 8:24~25

생존자들은 끔찍한 멸망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이것은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제3니파이 8:24~25. 선지자들을 거부하면 고통을 겪는다

- 고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선지자를 거부하면 결국 고통을 겪게 된다. 제일회장단의 엔 엘돈 태너(1898~1982)

회장은 구주께서 사망하신 직후 미대륙 성도들이 멸망으로 겪은 고통을 우리 시대에 현대 선지자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멸망과 비교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서로를 향해 전쟁을 일으키는 지금, 지면 위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 옵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방탕하고 의로움을 등지고서 술과 담배, 마약과 기타 금지된 일을 저지르며 만들어내는 비극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무법과 무질서 때문에 비통해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고대 백성들이 경험한 멸망을 다시 겪지 않도록 과거 역사에서 얻은 교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초기 니파이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성도의 빛, 1975년 9월호, 35쪽)

제3니파이 9:14. “내게로 오라!”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게로 오는 자는 복이 있도다.”(제3니파이 9:14)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는 이 권유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했다. “오라!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어디로 가든지, 먼저 와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보라, 내가 어디에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보라. 내게 배우라. 나와 함께 견고 대화하며, 나를 믿으라.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네 기도에 응답을 받을지이다. 하나님께서 네 영혼에 쉬를 가져다주시리니 와서 나를 따르라.”(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65쪽)

제3니파이 9:19~20. 희생이라는 계명에 생긴 변화

- 동물로 희생을 드리라는 계명은 아담에게 처음 주어졌다. 동물 희생의 목적은 구주께서 치르실 최후의 희생을 상기하게 하려는 것이다. 충실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피를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앨마서 34:10)으로 바치신 후 동물 희생이 중단될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앰올레크는 예수 그리스도 속죄 후에 더는 동물 희생이 요구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피 흘리는 일이 그치게 될 것이요, 곧 그침이 마땅하며, 그렇게 되면 모세의 율법이 이루어지리니 또 저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참으로 무한하고 영원하니라.”(앨마서 34:13~14)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완성된 후, 하나님의 음성은 물론경 백성에게 선언했다. “내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번제를 하나도 받지 아니할 것임이니라.”(제3니파이 9:19)

- 동물 희생과 번제를 “폐[하였지만]”(제3니파이 9:19) 주님께서 희생의 법을 거두신 것은 아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제3니파이 9장 20절을 활용하여 오늘날 주님께서 다른 종류의 희생을 요구하신다는 점을 설명했다.

“구주께서는 더 이상 동물 번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선물, 곧 희생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제3니파이 9:20] 여러분(은) …… 주님께 상한 마음, 즉 회개하는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 즉 순종하는 심령을 선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여러분 자신, 즉 현재의 여러분과 앞으로의 여러분 자신을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 삶에서 불결하거나 합당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을 제거할 때 그 자체가 구주께 드리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아직 형성하지 못한 좋은 습관이나 자질이 있습니까? 그런 면을 택하여 자신의 성품으로 만든다면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2쪽)

제3니파이 9:20. “그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영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그 미묘한 성장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매일 [후기 성도들은] 하나님과 같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들은 조용히 선을 행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은 것 같으려니와 그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느니라.’(3니 9:20)라고 설명된 레이맨인들과 같습니다.”(성도의 빛, 1990년 3월호, 7쪽)

-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 성구를 사용하여 성신의 은사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점에 대한 염려를 표현했다. 패커 회장은 후기 성도들에게 성신의 은사를 발전시키도록 격려하고 영을 인식하는 방법을 권고했다.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사람들 같습니다. 바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

돌이킬 때에 ……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은 것 같으려니와 …… 이를 알지 못[한]’[제3니파이 9:20]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이미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정말로 알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 이 혼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곳과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영이 속삭이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리아호나, 2000년 7월호, 10쪽)

제3니파이 10:5~6.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으듯이”

- 새끼를 모으는 암탉과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주님을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점을 통찰할 수 있다. 암탉은 새끼를 염려하기에 새끼를 보호하고자 자기 생명을 희생한다. 위험이 닥치면 암탉은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로 모아 보호한다. 이와 비슷하게 주님께서도 그 백성인 이스라엘 권속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백성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고 그들을 함께 모아 보호하고 양육하려 하셨다. 그러나 여러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주님을 버렸다.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제3니파이 10장 5~6절을 언급하면서 구주께서 그분께 오려는 사람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간증했다.

“그분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품듯 그분께 우리를 모으려 하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유함과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마음의 뜻을 다하여’[제3니파이 10:6] 회개하기 위해 그분께 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성도들과 함께 그분의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힘겹다고 느껴질 때도 모임에 가십시오. 여러분이 결심을 한다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8쪽)

제3니파이 10:12. “선지자들을 영접[한 자]”

- 선지자들을 따를 때 우리는 안전해진다. “선지자들을 영접[한]” 니파이인들은 큰 멸망을 모면했다.(제3니파이 10:12)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우리도 니파이인들처럼 안전, 화평, 번영, 행복을 얻고 싶다면 선지자를 따라야 한다고 가르쳤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 주님께서 교회 회장의 말씀을 통해 전하시는 권고를 들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또한 신속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 선지자가 전하는 권고를 따를 때 안전과 평안,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역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리아호나, 2001년 7월호, 80쪽)
-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선지자들을 따르는 이들에게 축복이 온다고 간증하고 선지자들을 거부하는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

“갈 지 매서는 알프스를 건너는 젊은 선교사 일행을 이끈 적이 있습니다. 정상에 도달했을 때, 매서는 위험한 빙하를 건너는 동안 안전한 길을 표시하고자 눈 속에 박아 둔 막대기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매서는 선교사들을 멈추게 하고, 막대기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기 [하나님의] 신권이 서 있습니다. 저 막대기들은 우리와 같이 그냥 평범한 막대기입니다. …… 그러나 그것들이 박힌 위치는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 막대기들로 표시한 길을 벗어나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Alma P. Burton, *Karl G. Maeser, Mormon Educator* [Salt Lake City: Deseret Book Co., 1953], p. 22)

비록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교회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이끌며 성장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나의 백성이 내 음성과 내 백성을 인도하도록 내가 임명한 나의 종들의 음성을 들으면,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자리에서 옮겨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또 내가 임명한 이 사람들의 음성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하리니(교성 124:45~46)

교회 지도자들은 합당한 권세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며, 교회의 머리된 자들에게 정식으로 성임 받아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음이 교회에 알려져 있다는 점을 형제 자매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그들을 따르다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벗어나면 우리는 분명히 길을 잃을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5년 7월호, 40쪽)

제3니파이 11:3. “그들이 …… 음성을 듣고”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작은 음성”(제3니파이 11:3)이 소리보다는 느낌에 더 가깝다고 가르쳤다. “이 성구에 나오는 ‘뜨겁다’라는 말은 위안과 평온이라는 의미입니다.”(“영으로 가르치고 배움”, 리아호나, 1999년 5월호, 16쪽) 평온은 파스함, 부드러움, 고요함을 뜻한다.
-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니파이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들의 귀를 [열어야]”(제3니파이 11:5) 했던 것처럼 부드러운 영의 속삭임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전에서 영의 음성은 ‘큰’ 음성도 ‘거친’ 음성도 아니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리도 아니요, 크게 떠드는 소란한 음성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치 속삭임과도 같은 심히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었으되 …… 영혼에까지 꿰뚫었으며 그 ‘마음을 뜨겁게 하였[습니다].’(제3니파이 11:3; 힐라맨서 5:30; 교리와 성약 85:6 참조) 엘리야가 주님의 음성이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열왕기상 19:12)인 것을 발견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영은 소리치거나 큼직한 손으로 우리를 흔들어 주의를 끌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영은 속삭입니다. 영은 매우 부드럽게 쓰다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이 쏠려 있다면 전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로 전해졌다는 점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술꾼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그러한 음성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주의를 기울이도록 아주 강력하게 영의 음성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드러운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영은 떠나고 말 것입니다.”(“주님의 등불”, 성도의 벗, 1988년 12월호, 35쪽)

제3니파이 11:5~7.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라”

•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드문 경험에 대해 말씀했다.

“세계 역사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실제로 들은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백성들이 하늘을 우리러 보았을 때 ‘한 사람이 하늘로부터 하강하는데 흰 옷을 입으셨[고] 그가 내려오사 그들 가운데’[제3니파이 11:8] 서셨습니다.

신화를 구성하는 한 분이시자 영화로우시며 부활하신 분, 수없이 많은 세상의 창조자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 목전에 서셨습니다.”(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5쪽)

제3니파이 11:11. 쓴 잔

•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은 구주께서 고난 중에 보이신 다음 모범이 우리가 개인적인 “쓴 잔”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가르쳤다. “상당수 회원들은 자신에게 온 쓴 잔을 마시는 과정에서 그 잔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온 것으로 오해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미대륙 백성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내리신 쓴 잔에 관해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제3니파이 11:11 참조) 사람에게는 저마다 삼켜야 할 고통이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에 봉착합니다. 잔혹하거나 무심한 남편을 둔 아내들은 날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못한 회원들은 비애와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쓴 잔을 마신 인간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더 넓게, 더 높이 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해롤드 비 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연민이나 좌절 때문에 여러분이 옳다고 아는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구주께서는 삶의 방향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과 마음은 거듭나야 합니다.”(성도의 벗, 1998년 6월호, 4쪽)

제3니파이 11:14~17.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난 상처

• 부활하신 주님께서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사람들이 그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도록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만져 보라고 권유하셨다.(제3니파이 11:14 참조)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난 상처는 그분께서 치르신 희생을 표시한다고 가르쳤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어둡게만 보입니까? 세상의 구주께서는 훨씬 더 암울한 나날을 겪으셨습니다. 그런 날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부활하여 완전해진 육신이지만 제자들을 위해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난 상처들, 즉 표시들을 간직하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그런 일은 순수하고 온전한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며,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과 더불어, [결국] 문제들은 지나가 버리며 행복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표시입니다. 우리 영혼의 대장은 상처를 입으신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여 생긴 상처, 사랑과 겸손으로 생긴 부상, 순종과 희생으로 찢기신 살을 지니신 분이라는 점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상처들은 그분을 알아볼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신 것처럼 우리를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 흔적들을 보고, 만져 보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전에 아니라면, 확실히 그날에 우리는 이사야가 한 말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멸시를 받아 ……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가 되었고,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이사야 53:3, 5)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가르침, 설교, 병고침”, 리야호나, 2003년 1월호, 42쪽)

제3니파이 11:16~21. 호산나

• “호산나라는 단어는 기원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를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것으로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이다. 사람들은 구주께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곧바로 기복 원리와 의식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Daniel H. Ludlow, *A Companion to Your Study of the Book of Mormon* [1976], 261~262)

제3니파이 11:21~27. 침례의 중요성

• 침례 방식에 관해 니파이인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의식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 주셨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침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 성스러운 의식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침수로 행하는 침례는 첫째 되는 의식입니다. 침례는 침수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육체적 사망, 즉 무덤에서 나오는 것과 영적 사망에서 구속되는 데 필요한 깨끗함을 모두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 구원의 계획에 따라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오려는 목적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결코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사소하게 여기거나 그 성스러운 의식의 형식을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 성찬을 통해 우리는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Our Father's Plan* [1984], 39~40)

제3니파이 11:29

구주께서는 왜 우리에게 분쟁을 피하라고 권고하십니까?

제3니파이 11:28~30. 분쟁을 피하라

•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분쟁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이해를 더해 주었다. “영을 동반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조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은 우리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간증을 부어 주고 그 간증을 나누는

이들을 결합시킵니다. 하나님의 영은 결코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제3니파이 11:29 참조) 영은 결코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할 만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Joseph F. Smith, *Gospel Doctrine*, 5th ed. [1939], 131 참조) 영은 개인적으로 평화를 느끼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게 하는 느낌을 줍니다. 영은 영혼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단합된 가족, 단합된 교회, 평화로운 세상은 단합된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67쪽)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분쟁을 피할 때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몬슨 회장은 제3니파이 11장 28~30절(📖)을 읽은 후 이렇게 말씀했다.

“제게는 영웅과도 같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온 나라가 아닌 유타 주 미드웨이라는 한 평화로운 계곡 기슭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 해 전에 로이 켈러와 그랜트 르문드는 교회의 여러 직책에서 함께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땅을 경작했고 낙농업에도 종사했습니다. 그러다 오해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후에, 로이 켈러는 암에 걸렸고 매우 위독해져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 프랜시스와 저는 로이를 방문하여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 후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켈러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일생에서 경험한 가장 감미로운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후 그는 그랜트 르문드 사이에 생겼던 오해와 그 결과 서로 멀어진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서 건초 더미를 쌓아 올릴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자연 발화로 건초에 불이 나서 건초며, 헛간,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뭘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밤은 캄캄했고, 다 타버린 잿더미에서 꺼져가는 불씨만 가물거렸습니다. 그때 그랜트 르문드 집 방향으로 난 도로에서 트랙터와 중장비 불빛이 저를 향해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조팀”이 우리 집으로 들어서며 눈물에 젖은 저와 마주했습니다. 그랜트가 말했습니다. “로이, 치워야 할 쓰레기가 많네. 내가 아들 녀석들을 데려왔어. 어서 시작하세요.” 그들은

곧바로 일을 착수했습니다. 그들을 잠시 갈라 놓았던 감춰진 썩기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밤새워 일했으며, 다음 날이 되자 많은 이웃 사람들이 거들었습니다.

로이 켈러는 저 세상으로 갔으며, 그랜트 르문드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아들들은 같은 워드 감독단에서 함께 봉사해 왔습니다. 저는 참으로 훌륭한 이 두 가족의 우정을 소중히 여깁니다.”(리아호나, 2002년 7월호, 22쪽)

제3니파이 11:28~40.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리를 말씀하시다

• “나의 교리”라는 구절은 제3니파이 11장 28~40절에 여덟 차례 나온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리를 회개와 침례라고 설명하셨다. 니파이후서 31장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니파이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다. 니파이는 그리스도의 교리에 신앙, 회개, 침례, 성신, 경전 공부, 끝까지 견디는 포함시켜 가르쳤다. 후에 주님께서는 물문경 백성을 방문하셨을 때 이 원리들을 반복해서 가르치시고(제3니파이 27장 참조) 그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칭하셨다. 우리는 이 원리들을 보며 신앙개조 제4조를 떠올리게 된다. “우리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둘째 회개, 셋째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넷째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임을 믿는다.”



생각해 볼 점

- 완전한 어둠은 왜 구주의 사망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표적과 상징이 되는가?
-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우리 안에 모으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셨는가?
-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어떻게 얻는가?(제3니파이 9:20)
- “다투는 정신”(제3니파이 11:29)과,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어떻게 다투지 않으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제언 과제

- 선지자들을 받아들인 이들만이 주님께서 오셨을 때 멸망에서 살아남았다. 최근 연차 대회에서 선지자와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이 말씀한 가르침들을 목록으로 만든다. 그 가르침들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계획한다.
- 니파이와 레이맨인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직후 미대륙에 일어날 파괴를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니파이후서 26장 3~9절과 힐라만서 14장 20~27절에 나오는 예언들을 제3니파이 8장 5~23절에서 성취된 것과 비교한다.
- 세계 역사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실제로 들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마태복음 3:17; 마가복음 1:11; 누가복음 3:22 참조), 변형의 산에서(마태복음 17:5; 마가복음 9:7; 누가복음 9:35 참조), 니파이인들에게(제3니파이 11:7), 그리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조셉 스미스—역사 1:17)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들을 도표로 만들어 비교한다. 이 말씀들이 각각 어떻게 중요한지 설명한다.

소개

예수님께서서는 지상 성역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완전해지도록 노력하라고 독려했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서반구에 있는 몰몬경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다시 전하셨다.

이 설교에 담긴 복음 표준은 현대 계시를 통해 우리 시대에 재확인되었다.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구주께서 산상수훈에서 주신 이 놀라운 메시지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의 의를 세우기를 구하라.’[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6:38; 또한 마태복음 6:33 참조] 이 말씀은 우리 마음과 영혼을 꿰뚫어야 합니다. 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인생에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리아호나, 2004년 5월호, 67쪽)

몰몬경에서 이 신성한 원리들을 공부함으로써 여러분은 완전을 향한 길에 충실하게 남는 데 도움이 되는 통찰을 얻을 것이다.

해설

제3니파이 12~14장. 우리 인생의 청사진

• 성경과 몰몬경에 실린 산상수훈은 완전을 향한 주님의 청사진이다. 해롤드 비 리(1899~1973) 회장은 이 설교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표준을 알리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이다. 산상수훈을 통해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성품에 대한 일종의 계시를 주셨다. 그분의 성품은 완전한 성품, 곧 ‘언행일치를 보여 주는 일종의 자서전’이었으므로,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따라야 할 청사진을 주신 것이다.”(Decisions for Successful Living [1973], 55~56)

제3니파이 12:1~2. 사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 구주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그분께서 부르시고 권능과 권세를 주신 열두 니파이인 제자들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현대 계시 또한 주님께서 선택하신 종들을 따를 때 우리는 안전과 축복을 강조했다.(교성 1:38; 21:6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우리가 오늘날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들을 따르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제임스 E. 아미

“교회 사도와 선지자라는 기초가 모든 시대에 축복이 되었지만, 특히 역경이나 위기에 처한 시대,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느껴지고 혼란스럽거나 갈피를 잡지 못하며 약간 두렵다고도 느끼는 시대, 또한 인간의 사악한 손이나 악마의 악의가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잘못 인도하는 시대에도 축복이 되었습니다. 현대에 접어들어서는 그러한 시대에 대비하여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선지자, 선전자, 계시자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여러분에게 지지를 받습니다.

…… 그리스도에 기초를 둔 그러한 토대가 있었기에 …… 여러분은 보호받았고, 늘 보호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언제라도 크게든 작게든 끊이지 않을 인생의 폭풍은 ……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히라맨서 5:12]”(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7쪽)

제3니파이 12:1~2

이 구절들을 마태복음 5장 1~2절과 비교한다.
몰몬경 구절에는 무엇이 추가되었는가?

제3니파이 12:3~12. 팔복

• 구주의 설교는 팔복이라 불리는 선언문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복이 있나니 ……”(제3니파이 12:1~11 참조)라고 선언하는 말씀으로 반복된다. 팔복(Beatitude)은 “행운의”, ‘행복한’ 또는 ‘복이 있나니’ (영어 성경 마태복음 5:3 각주 a)란 의미다. 또한 웹스터 사전에는 ‘극도로 행복한 상태’(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1th ed. [2004], 107)로

정의되었다. 이 단어들은 성도들이 이 설교에서 가르치는 바를 적용할 때 얻는 결과를 나타낸다.

팔복은 영문판 후기 성도 성경 사전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고상하고 영적인 성품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특장 요소들을 설명하며, 이 모든 요소는 성품이 완전한 상태일 때 나타날 것이다. 팔복은 각각 독립된 말씀이라기보다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배열에 따라 발전하는 양상을 띤다.”



(“Beatitudes,” 620) 경전

안내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팔복은 각 말씀이 그 앞의 말씀에 기초하여 이어가는 방법으로 정리되어 있다.”(“팔복”)

해롤드 비 리 회장은 팔복이 “완전한 삶을 이루는 골자”라고 가르쳤다. “네 개는 우리 자신과 관계가 있으며” 다른 네 개는 “타인과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와 관련이 있다.”(*Decisions for Successful Living* [1973], 57, 60) 다음 도표에 그 관계가 설명되어 있다.

자신	타인
심령이 가난[한] ……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궁홀히 여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제3니파이 12:3. “심령이 가난하여 내게로 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 해롤드 비 리 회장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태복음 5: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물론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들, 곧 영적으로 아주 가난하여 도움을 절실하게 구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

완전에 이르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는 완전에 이르는 대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한번쯤은 이렇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Stand Ye in Holy Places* [1974], 210)

• “내게로 오는 자”(제3니파이 12:3)라는 구절은 신약에 실린 산상수훈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구주의 가르침은 이 구절에서 비로소 명확해진다. 우리가 만약 심령이 가난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간다면 복을 받는다. 구주께서는 제3니파이 12장 2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나아가게 되는지를 설명하셨다. “내게로 오는 자”라는 말은 다른 팔복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다. 우리가 위로를 받고(4절) 땅을 기업으로 얻고(5절) 성신으로 충만함을 입으며(6절) 궁홀히 여김을 받고(7절), 하나님을 보려면(8절)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제3니파이 11장 21절과 12장 2절 사이에 구주께서는 그분께 나아오는 것에 관하여 가르치시면서 침례를 열어줌 번이나 언급하셨다. 완전하게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에는 구원 의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포함된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몇몇 방법을 더 설명했다.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하며, 죽은 자를 구속함으로써 ……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 생활과 우리 가족의 생활, 산 자와 죽은 자를 포함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성도의 벗*, 1988년 7월호, 92쪽)

제3니파이 12:4. “애통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 칠십인인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는 팔복이 어떻게 앞에 나온 것에 기초하여 점진하며 이어지는지를 설명했다. “팔복은 ‘심령이 가난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자들’(제3니파이 12:3)로 시작하여 의롭게 살아가는 비법이 점진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해의 영광으로 향하는 다음 단계는 애통, 특히 우리 죄에 대해 애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고린도후서 7:10)이기 때문이다.”(*Your Agency, Handle with Care* [1996], 8)

제3니파이 12:5. “은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은 은유하다는 것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님께서 은유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셨다면 우리도 겸손해지기 위해 그분처럼 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담대하게 악을 비난하고, 용감하게 의로운 일을 진척시키며, 용기 있게 모든 문제에 맞서고, 자기 자신과 상황의 주인이 되셨으며, 공적을 인정받는 일에는 마음을 쏟지 않으셨습니다.

겸손은 우쭐하거나 주제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약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

겸손과 은유함은 덕성을 잘 나타냅니다. 결코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과 은유함은 화를 계속해서 부드럽게 다스리고 분노와 격정을 없애는 것입니다. …… 이것은 비굴한 굴종이 아닙니다. 겁먹거나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

사람은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저는 사람은 늘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존재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의존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상기합니까? 항상 예배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 Edward L. Kimball [1982], 232~233)

제3니파이 12: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 웨리 엘 듀 자매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으로 봉사하면서 소망(주리고 목마름)과 행동, 즉 소망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능력 사이의 연계성을 설명했다. “영의 음성을 듣는 능력은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열의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헝클리 회장님은 어떤 일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한 다음 일어나서 수행하러 가는 것뿐이라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신앙과 근면이 결합하는 것이야말로 영의 언어를 습득하기 위한 더할 나위 없는 교과 과정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성신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임이요’(제3니파이 12:6) 굶주리고 목마를 때 순수한 영적 노력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여 더욱 순수해지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며, 진지한 금식과 기도를 드리는 일은 모두 영을 느끼는 우리의 감수성을 증진시킵니다. 영적인 수고는 실제로 작용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비결이기도 합니다.”(“We Are Not Alone,” *Ensign*, Nov. 1998, 96)

제3니파이 12:8. “마음이 청결한 자”

•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위스린(1917~2008) 장로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했다.

“간교함이 없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추종자들로 헤아려지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필수 덕목입니다. ……

간교함이 없으면 정직하고 진실하며 의롭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성이며 성도에게 요구되는 특성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공정하고 진실하게 말하며, 거래에서 투명하고, 속이지 않으며, 흠치거나 거짓 진술을 하거나 기타 부정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부정직은 태초부터 거짓말쟁인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의로움이란 복음 율법과 원리, 의식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Finding Peace in Our Lives* [1995], 181~182)

제3니파이 12:9. 화평하게 하는 자

•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궁극적인 근원에 대해 간증했다. “평강의 왕[이사야 9:6]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지상에서 평화를 누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호의를 얻습니다.[누가복음 2:14 참조]”(*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39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방법을 설명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모든 면에서 복음의 충만함을 믿고 전파하는 이들만이 팔복에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이다.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화평을 전하는 메시지이다. 하나님의 자녀: 진리에 헌신한 결과로 하나님 가족으로 입양된 모든 사람.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로 8:14~18; 갈 3:26~29; 4:1~7)”(*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3 vols. [1971~1973], 1:216)

제3니파이 12:13. “세상의 소금”

• 몰몬경에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일인]”(제3니파이 12:13) 교회 회원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나온다. 모세의 회생 의식에서 소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민수기 18:19; 역대하 13:5 참조)

마찬가지로 이 후기에 성도들은 이 성약들을 회복하고 지켜야 한다. 교리와 성약 101편 39~40절에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으로 여겨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온다.

“세상의 소금”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카를로스 이 에이시(1926~1999) 장로는 칠십인 회장단 일원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신권 소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람이 나의 영원한 복음에 부름을 받고 또 영원한 성약으로써 성약을 맺을 때에, 그들은 땅의 소금과 사람의 맛으로 헤아림을 만나니,

그들은 사람의 맛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느니라.(교성 101:39~40)

맛(savor)이라는 단어는 맛, 좋은 풍미, 흥미로운 특성, 높은 명성 등을 의미합니다. ……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화학자는 소금은 세월이 지나도 그 맛을 잃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순물이 섞이면 맛을 잃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권 권능도 세월이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는지만 불순물이 섞이면 권능을 잃고 맙니다. ……

불순한 생각으로 마음을 더럽히고, 진실이 아닌 말로 입을 속되게 쓰며, 악한 행동에 힘을 잘못 쓸 때 그 사람의 풍미와 특성은 사라져버립니다. ……

저는 특히 청년들이 자신의 맛을 보존하기 위해 따를 간단한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이면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마십시오. 선이 아니면 행하지 마십시오.(Marcus Aurelius, ‘The Meditations of Marcus Aurelius,’ *The Harvard Classics*, Charles W. Eliot, ed., New York: P. F. Collier and Son, 1909, p. 211 참조)(성도의 빛, 1980년 11월호, 64쪽)

제3니파이 12:14~16. “너희 빛을 …… 비취게 하여”

•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 시 롱아일랜드에서 자라면서 저는 바다에서 어둠 속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했습니다. 망가진 등대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는 등대는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성신의 은사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그 속삭임에 충실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5~16]

누가 우리에게 의지할지는 결코 모르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마음의 뜻을 다하여 내게로 오므로, 내가 그들을 낮게 하지 않을지, 그리하여 너희가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방편이 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제3니파이 18:32]”(리아호나, 2002년 7월호, 79쪽)

제3니파이 12:17~20, 46~47.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 율법을 성취하시다

• 구주께서 지상 성역을 베푸시기 전까지 모세 율법은 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교적, 사회적 삶의 기초였다. 니파이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기록된 낫쇠판이 있었으며, 니파이인 선지자들은 이 율법을 가르치고 지켰다. 구주께서는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셨을 때 모세 율법이 그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모세 율법이 “폐하[여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제3니파이 12:17~18) 구주께서 모세 율법을 “이루[신]” 것이지 “폐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모세 율법에는 도덕 율법과 의식 율법이 모두 포함된다.

도덕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지니라”와 “간음하지 말지니라”와 같은 계명들이 포함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살인과 간음뿐만 아니라 살인과 간음으로 이끄는 분노와 음욕 같은 마음 상태도 피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제3니파이 12:21~30 참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높은 율법으로서 모세 율법의 도덕적 측면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이 율법을 성취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모세 율법 중 도덕 규범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까지도 요구하는 훨씬 더 폭넓은 복음 원리 속으로 편입되었다.

모세 율법의 의식적 측면에는 아빈아다이가 “의례”와 “의식”(모사이아서 13:30)이라고 부른 동물 희생과 번제에 관한 계명이 포함된다. 니파이인 선지자들은 모세 율법에 이 부분이 포함된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고대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음을 이해했다.(니파이후서 25:24;

야곱서 4:5; 모사이야서 16:14~15 참조) 그러므로 구주께서 지상 성역을 완수하셨을 때, 이제 더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고대하는 취지를 이 의식에서 기대할 수 없었다. 이미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구주의 지상 성역이 마무리됨으로써 의식들은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구주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동물 희생과 번제는 “폐[하여졌으므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희생”(제3니파이 9:19~20)을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구주께서는 속죄를 고대하던 의식 대신에 구주의 속죄 희생을 되새기며 기억하는 의식인 성찬식을 제정하셨다.(제3니파이 18:1~11 참조)

• 브루스 알 맥콩기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세 시대, 곧 더 낮은 반차의 시대 이전에 사람들이 향유했던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분명히 그분께서는 친히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적분학 원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산수를 폐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세가 놓은 기초 위에 쌓으러 오셨습니다. 복음의 충만함을 회복함으로써 구주께서는 예비 복음의 조항 및 조건들을 준수해야 하는 필요성을 충족시키셨습니다. 더는 어느 누구도 달빛 아래 걸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찬란한 해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1:219~220; 또한 Stephen E. Robinson, “The Law after Christ,” *Ensign*, Sept. 1983, 68~73 참조)

제3니파이 12:19.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

•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의 가치를 간증했다. “저는 ‘구속은 거룩하신 메시아 안에서 거룩하신 메시아를 통하여 임하나니 ……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닌 모든 자를 위하여 …… 그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율법의 목적이 부응될 수 없다.’[니파이후서 2:6~7]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절대적인 요건은 온순하며, 유순하며, 겸손한, 즉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53쪽)

제3니파이 12:22.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 신약에 나오는 구주의 가르침은 “[이유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마태복음 5:22)라고 되어 있다.(영어판

성경에는 ‘이유 없이[without a cause]’라는 구절이 들어 있음— 옮긴이) 물론경에서 이 주제에 대한 구주의 가르침은 “이유 없이”라는 구절이 삭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똑같다. 이것은 분노는 모두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점을 가르쳐준다. 가장 초기 것으로 알려진 필사본에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유 없이”라는 구절이 없다는 점을 유의한다.(Daniel K. Judd and Allen W. Stoddard, “Adding and Taking Away ‘Without a Cause’ in Matthew 5:22,” *How the New Testament Came to Be*, ed. Kent P. Jackson and Frank F. Judd Jr. [Sidney B. Sperry symposium, 2006], 161 참조)

제3니파이 12:27~29. 음욕을 피하라

•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사랑의 동기와 결과를 음욕의 동기와 결과에 대조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서로를 향상시키고, 보호하며, 존경하고 풍요롭게 해 주며,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짓 사랑, 즉 욕정을 부추깁니다. 이것은 개인의 욕망을 채우려는 갈망으로 몰고 갑니다. 이러한 속임수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고통과 파멸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사탕발림으로 상대를 기만하는 이면에는 자기 만족이라는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1년 7월호, 34쪽)

제3니파이 12:30.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

•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는 구절을 설명했다.

“매일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욕망을 매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유혹을 받으셨으나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의 모범을 따르면서 말입니다.(고린도전서 10:13 참조) 물론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친 수많은 유혹을 인식하셨지만 그것을 거둬 되새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유혹을 즉시 뿌리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유혹을 받아들이면 곧 그 유혹은 우리를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이런 원치 않는 생각들을 마음의 문밖으로 쫓아 버리는 방법은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한 번 받아들이면 강제로 쫓아내야만 떠나는 야만인들과 같이 되어 버립니다.”(*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79쪽)

제3니파이 12:31~32,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을 범함이니라”

• 브루스 알 맥쿱키 장로는 구주께서 이 말을 누구에게 하셨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했다.

“이혼에 관한 이 엄격한 율법은 바리새인이나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마가가 설명한 것처럼 ‘집’ 곧 제자들에게만 해당된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친히 이 적용을 제한한다고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이 그런 높은 표준대로 살 수는 없었다. 이 율법은 ‘그것이 주어진’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었다.

…… 이것은 여러 시대에 걸쳐 많은 사람들을 강제하는 사항이었으나 교회는 오늘날 더는 이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현재 이혼은 성적 부도덕 이외에도 수많은 다른 이유들로 교회에서 허용되며, 이혼한 사람들이 다시 결혼하여 복음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Doctrinal New Testament Commentary*, 1:548~549)

• 구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 중 하나는 이혼한 사람과 결혼하는 이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마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혼을 생각하지는 말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고든 비헝클리(1910~2008) 회장은 이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물론, 결혼 생활이 늘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수년 전에 저는 켄킨스 로이드 존스가 쓴 칼럼에서 다음 말씀을 오려 두었습니다.

‘자동차 영화관에서 손을 잡고 껴안고 있는 수천 명 젊은이들은 결혼이 마치 영원히 지지 않는 접시꽃들로 둘러 싸인 별장에 살면서 영원히 젊고 잘생긴 남편이 영원히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는 집으로 오는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접시꽃이 시들고 지루함과 지분 청구서들이 나타날 때 이혼 법정은 붐빈다. ……’

그 더 없는 행복이 정상이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자기가 속았다고 소리치르고 돌아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Big Rock Candy Mountains,” *Deseret News*, 12 June 1973, p. A4) ……

가장 큰 비극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이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불행거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World*

Almanac[세계 연감]에 따르면 미국에서 1990년 3월 현재, 이전 12개월 동안 약 2,423,000 쌍이 결혼을 했으며, 같은 기간에 약 1,177,000쌍이 이혼을 했습니다.(*The World Almanac and Book of Facts 1991* [New York: World Almanac, 1990], p. 834 참조)

이는 미국에서 거의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을 한다는 뜻입니다. ……

문제는 주로 이기심에서 시작됩니다. ……

결혼하는 사람들 중 너무 많은 이들이 집에서 귀하게 자라 버릇이 없으며 만사가 항상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인생은 늘 즐거운 일이 이어지고, 자신이 하는 행위가 옳든 그르든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불성실하고 비합리적인 생각은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낳기 마련입니다. ……



© 1986 대레 스티디스

결혼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길은 이혼에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길은 회개에 있습니다. 별거가 아닙니다. 단순한 고결성에 길이 있습니다. 고결성은 문제에 맞서고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황금률에 있습니다. ……

작은 결점들은 기꺼이 눈감아 주고,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말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쉽게 화를 내는 일은 사악하고 잠식적인 것이어서 애정을 파괴하고 사랑을 식게 만듭니다.

학대를 제약하는 자기 수련이 있어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고 도처에서 늘어나는 이 악습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며, 의와 화평과 진리의 대적이 하는 일이라고 주저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1년 7월호, 73쪽)

제3니파이 12:48. “나는 원하노니 …… 너희도 온전하라”

• 이생에서 완전해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생에서 온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전함은 영원한 목표입니다. 이생을 사는 동안에는 완전해질 수 없지만 그렇게 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은 계명입니다. 속죄를 통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리아호나, 1999년 7월호, 22쪽)

•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 또한 완전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태복음 5:48) 이제, 이것은 성취 가능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면 승영할 수 없고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이 이 세상에서 온전을 지향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저는 ‘완전한 사람은 없어.’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노력해서 뭐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온전히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을 향한 사다리를 하나씩 차근차근 올라가는 사람들을 봅니다.”(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165)

제3니파이 13:1~8, 16~18. 너희의 의로운 행위를 드러내지 말라

• 제3니파이에 나오는 이 구절들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며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주거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밀하게 의로움을 행하라고 권고하신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익명으로 하는 봉사의 가치를 설명했다.



“큰 병원에 입원한 한 환자를 문병하러 간 저는 병실 호수를 알기 위해 접수처로 다가갔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보통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그곳 역시 병원을 확장하는 중이었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앉아 있는 접수대 뒤에는 확장을 가능하게 해 준

기부자들에 대한 감사문을 새긴 멋진 명판이 있었습니다. 10만

달러를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은 번쩍이는 사슬로 명판에 매달아 놓은 각 동판 위에 유려한 필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부자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재계 지도자, 산업계 거물, 학식 높은 교수들 명단이 모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자선행위에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제 시선이 다른 동판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으며 다만 ‘익명’이라는 단어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가 누구일까 궁금하게 여기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조용한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

일 년 전인 지난 겨울[1981년], 최신식 제트 여객기 한 대가 이륙 후에 비틀거리더니 얼음이 덮인 포도맥 강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수많은 용감한 행위와 영웅과 같은 공훈이 눈에 띄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장면은 구조 헬리콥터 조종사에게 목격되었습니다. 구조용 밧줄이 허우적거리는 생존자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때 한 남자는 자기에게 내려진 안전한 생명을 붙잡아서 다른 사람을 묶어 주었으며, 묶인 사람은 무사히 끌어올려졌습니다. 밧줄이 다시 내려 왔으나 이번에도 다른 사람이 구조되었습니다. 얼음이 덮인 강에서 다섯 사람이 구조되었으나 그중에 익명의 영웅은 없었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그 사람은 밝은 창공에 명예만을 남겼습니다.’(Stephen Spender, ‘I think continually of those—’ *Masterpieces of Religious Verse*, ed. James Dalton Morrison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Publishers], p. 291.) ……

이 진리(봉사)가 우리 생활에 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를 올려다보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하는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마태복음 6:1)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마태복음 6:3) 우리 선행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마태복음 8:4) 하고 메아리치는 구주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도록 갈릴리를 향해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고, 우리 삶은 더 밝아질 것이며 우리 영혼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익명으로 베풀어지는 사랑의 봉사가 인간에게는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리는 선물을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성도의 빛, 1983년 7월호, 86쪽)

제3니파이 13:7. “중언부언하지 말라”

• *Vain*(헛된)이란 말은 “빈, 가치 없는, 핵심이나 가치 또는 중요성이 없는”이란 뜻이다.(*Noah Webster's First Edition of an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828* [1967]) 우리가 별 생각이나 느낌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의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된다.

“선지자 몰몬은 누구든지 기도하되 ‘마음의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하지 아니할진대, …… 그것이 그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는 하나도 받으시지 아니하심이라.(모로나이서 7:9)라고 경고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의미 있으려면, 진지한 마음과 ‘마음의 힘을 다해’(모로나이서 7:48) 기도해야 한다. …… 여러분의 태도와 사용하는 언어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 [2004], 46쪽)

• 조셉 비 워스린 장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기도에서 하는 말이 의사소통이 아니라 단지 일과를 암송하는 것이 될 정도로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계속 사용할 때 우리의 기도는 공허해집니다. 이것이 구주께서 “중언부언”(마태복음 6:7 참조)이라고 묘사하신 것입니다.”(“우리의 기도를 향상시킴,” *리아호나*, 2004년 8월호, 24쪽; 또한 *엘마서* 34:27~28 참조)

제3니파이 13:9~13

구주께서 이 구절들에서 가르치신
효과적인 기도 원리는 무엇인가?

제3니파이 13:9~13. 주님의 기도

• 우리는 왕국에서 봉사할 때 주님께서 보여 주신 기도의 원리를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공경을 표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왕국과 그 임하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라는 간증이 있는 종은 그 발전을 기뻐하고 교회 건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려는 소망을 품습니다.



출판: © 1999 IRI

구주께서는 몸소 다음과 같은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누가복음 11:2)(개역개정판 성경엔 이 구절이 누락되어 있음-

옮긴이) 그것은 온 인류와 세상을 위한 속죄라는 극한 가운데서 그분이 드린 기도였습니다.(마태복음 26:42 참조) 충실한 종은 외견상 가장 작은 임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성공을 위해 일하고 기도할 때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 다음 구주께서는 우리 각자의 순결함을 위해 다음과 같은 표준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누가복음 11:4) 우리가 돌보는 이들에게 주어야 할 격려는 구주께로부터 옵니다. 주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 그들과 우리 모두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마태복음 6:14 참조) 우리와 그들은 오로지 주님께 보호 받고, 그분의 속죄로 가능해진 마음의 변화를 통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신을 계속 동반하기 위해 그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

여러분은 주님께서 베푸신 봉사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여러분이 교회 일꾼으로서 또는 영원히 부모로서 부름 받은 시기 동안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한 도움을 간구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리아호나*, 2000년 7월호, 81쪽)

제3니파이 13:19~24.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지상 보물의 한시성에 대해 말씀했다.

“우리는 종종 가치 없고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에 지나친 애착과 관심을 쏟습니다. 세상의 온갖 재물은 우리가 이곳 세상이라는 학교에 있는 동안 교실이나 칠판처럼 일시적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가옥, 자산, 토지, 가축 등 세상 재물을 적절한 곳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르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승영에 이르는 첫 번째 가르침, 즉 주님의 복음 계획에 대한 순종을 배우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성도의 빛, 1992년 4월호, 4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쌓아 둘 보물에 관한 통찰을 제시했다. “구주께서는 땅에다 보물을 쌓아 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두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마태복음 6:19~21 참조)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땅과 하늘의 최고 보물은 바로 우리의 자녀와 후손이라고 믿습니다.”(리아호나, 1994년 1월호, 75쪽)

제3니파이 13:34.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 물론경에는 마태복음 6장 25~32절의 의미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부분에 대해 니파이인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다.(제3니파이 13:25~34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 임무를 주신 후, 다시 대중을 향해 말씀하셨다.(제3니파이 14:1 참조) 설교를 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 두 청중들을 번갈아 보며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하면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3니파이 14:1~2. 비판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제3니파이 14장 1~2절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립하며 의로운 비판과 불의한 비판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런 다음 의로운 비판의 원리들을 제시했다. “저는 경전에서 어떤 성구에는 비판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또 어떤 성구는 비판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비판하는 방법까지 설명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을 공부하면서 저는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가르침이 영원한 관점으로 보면 일관성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종류의 비판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최후의 비판 또는 심판으로서 이는 우리에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중재 비판, 또는 심판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시된 것이지만, 의로운 원리에 따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

첫째, 의로운 비판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재 비판을 말합니다. ……

둘째, 의로운 비판은 주님의 영에 따라 행하며 분노, 복수, 질투, 또는 사리사욕에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

셋째,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행할 때만 중재 비판을 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가능하면 실상을 제대로 알 때까지는 비판을 삼가야 합니다.”(“‘Judge Not’ and Judging,” *Ensign*, Aug. 1999, 7, 9–10)

제3니파이 14:7~8. 기도로 구한다

•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은사와 특권에 대해 간증했다. “구주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자에게 나아가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 생활에서 누리는 커다란 특권이자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 지상의 어떠한 권세도 우리가 창조자를 직접 접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계나 전자제품처럼 고장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매일 기도할 수 있는 횟수나 얼마 동안 하느님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구하고 싶은 필요 사항의 양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기 위해 비서를 거치거나 약속을 미리 정해 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든 다가갈 수 있는 분입니다.”(리아호나, 2002년 7월호, 62쪽)

제3니파이 14:12. 황금률

• 리셀 엠 벨스 장로는 황금률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예수님께서서는] 황금률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태복음 7:12] 이 원리는 거의 모든 주요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인물들 또한 이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복음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태초에 아담과 이브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의 일부는 여러 문화 속에서 보존되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이교도 신화조차도 초기 경륜의 시대에 있었던 진리의 단편들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어느 곳에서 발견되든, 또는 어떻게 표현되든 간에 황금률은 하나님 왕국의 도덕 규범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는 일을 금합니다. 그것은 나라와 단체,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마태복음 5:38] 복수하는 대신 동정심과 자제심을

보이게 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 낡고 비생산적인 복수의 길에 머무른다면 눈이 멀고 이를 잃어버릴 것입니다.”(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39~40쪽)

제3니파이 14:15~20
이 구절에서 사용된 상징을 통해 우리는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제3니파이 14:15. “거짓 선지자들을 살피라”

•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거나 출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경고했다. “남자든 여자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정한 교회 교리를 선언하며, 자신의 거짓 복음을 퍼트리고, 교회 기본 교리에 도전하는 내용을 다루는 심포지엄과 서적과 잡지 출판을 후원함으로써 추종자들을 끌어들이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고 출판을 하는 사람들과

자기들에게 선동되는 사람들의 영원한 복지를 전혀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이들을 조심하십시오. ……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을 위한 빛으로 세워 이익과 세상의 칭찬을 얻으려 [할 뿐] …… 시온의 복리를 구하지 아니[합니다.]’(니파이후서 26:29)”(리아호나, 2000년 1월호, 74쪽)

생각해 볼 점

- 기꺼이 하는 선행과 하지 못해 하는 선행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 여러분의 동기를 분석하여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제3니파이 13:33)를 구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제언 과제

-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많이 팔복을 말해 본다. 그런 다음 제3니파이 12장 3~12절을 보면서 몇 개나 아는지 확인한다.
- 불의한 생각과 욕망을 더욱 완전히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를 성취할 계획을 적어 본다.

소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자녀들은 목이 뻗뻗하고 마음이 완악했다. 그 결과 그들은 더 높고 충만한 율법에 따라 사는 특권을 잃어버렸다.(모사이야서 13:29~31 참조) 대신 그들은 더 높은 율법 중 일부분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허용되었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교성 84:18~27 참조) 모세의 율법(더 낮은 율법)을 추가로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그분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모세 율법이 그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가르치셨다.(제3니파이 12:17~18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옛 것이 지나[갔으며]”(제3니파이 15:2~4) 이제 자신이 바로 백성들이 따라야 할 “율법ियो 빛”이라고 가르치셨다.(제3니파이 15:9)

제3니파이 15~17장을 읽으면서, 믿음이 없는 유대인과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니파이인들의 차이점에 주목한다. 구주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신 진리와 미대륙에서 주신 놀라운 계시를 대조해본다. 구주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앙과 상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여러분은 더 충실한 제자들이 경험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그들의 믿음 강한 자녀들이 겪은 기적에 관해 읽으면서 기도에 담긴 엄청난 가치를 깨달을 것이다.

해설

제3니파이 15:1~10.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 율법을 주시고 이를 이루시다

- 초기 물문경 선지자들은 모세의 율법이 결국 성취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니파이, 야곱, 아빈아다이는 모두 백성들이 결국 모세 율법이 종식될 것임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켰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니파이인들이 낡은 율법을 버리고 새로운 율법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분명 니파이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쉽게 이 점을 이해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니파이인 선지자들이 모세 율법의 과도기적 특성을 가르치는 일에 주의를 무척 기울였기 때문이다. 아빈아다이는 이렇게 말했다. ‘아직은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할 때가 오리라’[모사이야서 13:27] 니파이도 똑같은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그런즉 우리가 율법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로 율법이 죽은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그들로

율법이 죽은 것임을 앎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생명을 고대하고, 무슨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졌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또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후 율법이 마땅히 폐하여져야 할 때, 그들이 그를 대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니파이후서 25:27; 기율임체 첨가] 이는 모세 율법을 무지하게 옹호하며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라는 경고로서 당시 구세계에 거하던 수많은 이들과 무수한 현대인들에게 가르침이 되었다. (그리고 구원이 되었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1997], 156~157)

제3니파이 15:2~8. 모세 율법과 더 높은 율법

- 예수께서는 “옛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제3니파이 15:3)고 말씀하셨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모세의 율법에는 그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많은 기본적인 부분이 서려 있고 포함되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세 율법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동떨어지거나 분리된 것이 아니며 상반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 모세 율법의 목적이 더 높은 율법의 목적과 달랐던 적은 결코 없었다. 두 율법 모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147)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수 있으셨다. “이는 보라, 내가 내 백성과 맺은 성약이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다만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이 내 안에서 끝났음이라.”(제3니파이 15:8)

니파이인들과 모세 율법에 관하여 더 알고 싶으면 모사이야서 13:27~35 해설(151쪽)을 참조한다.

제3니파이 15:5~8. 성약은 아직 다 성취되지 않았다

- 예수님께서 “내가 선지자들을 폐하지 아니하노니”(제3니파이 15:6)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제3니파이 12:17~20, 46~47(304쪽) 해설을 참조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백성과 맺은 성약이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제3니파이 15:8) 하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여호와께서는 고대에 아브라함과 성약을 맺으셨다. 아브라함은 (1) 영원한 후손, (2) 결국 해의 왕국이 될 땅, 그리고 (3) 하나님의 신권 권능을 약속 받았다. 아브라함의 후손 또한 이 약속을 받았으며(교성 132:30~31 참조) 이 약속은 장차 성취될 것이다.

제3니파이 15:9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제3니파이 15:11~13. “이는 너희의 기업의 땅이요”

•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상속 지역을 각각 지정 받았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받은 것 외에도 요셉의 후손들 또한 미대륙을 상속의 땅으로 약속 받았다. 구주께서는 열두 니파이인 제자들에게 그들과 그 백성들이 “요셉 집의 남은 자”(제3니파이 15:12)이며 “이는 너희의 기업의 땅”(13절)이라고 말씀하셨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올슨 에프 휘트니(1855~1931) 장로는 상속의 땅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미대륙의 또 다른 이름은 물몬경에서 승인되었듯이 요셉의 땅입니다. 축복사 야곱은 열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줄 때 이를 언급했습니다.(창세기 49:22~26) 선지자 모세도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마지막 축복을 남기면서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신명기 33:13~15) 야곱이 요셉에게 ‘썸 결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말하며 암시한 내용은 리하이와 일행들이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에서 미대륙으로 이주했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이 서양 대륙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큰 산맥, 곧 안데스 산맥과 로키 산맥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대인 축복사가 언급한 ‘영원한 작은 언덕’, ‘땅의 선물’은 자연 자원인 금과 은, 기타 광물을 말하며 ‘하늘의 보물’은 이미 발견된 성스러운 기록과 장차 받을 다른 기록들을 말합니다.”(“The Book of Mormon: Historical and Prophetic Phases,” *Improvement Era*, Sept. 1927, 944~945)

제3니파이 15:17. “한 목자”

• 예수 그리스도는 종종 선한 목자로 불린다.(교성 50:44; 요한복음 10:7~18; 엘마서 5:38~60; 힐라맨서 7:18 참조)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비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염려하시는 주님을 나타낸다. 현대의 한 경전학자는 목자가 하는 일과 관련된 개별적인 돌봄과 염려에 대해 설명했다.



“목자는 밤낮으로 항상 양들과 함께 지낸다. …… 이는 땅의 특성상 노출되어 있고 야생 동물과 강도가 습격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다. 동양에 관한 가장 친숙하고 아름다운 광경 중 하나는 목초지로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이다. …… 목자는 자신을 따르는 양 떼에 의지하며, 양 떼는 목자가 자신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

목자는 항상 양 떼와 함께 있으면서 깊은 관심을 쏟으므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아주 자세히 안다. …… 어느 날 한 선교사는 레바논 광야에서 한 목자를 만나 양들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선교사는 목자가 매일 밤 양들을 세어 보는지 물었다. 그렇지 않다는 대답에 선교사는 양들이 다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목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선생님, 만약 제 눈에 천을 두르고 아무 양에게나 저를 데리고 가신 다음 그 얼굴에 제 손을 갖다 대시면, 저는 그 양이 제 양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George M. Mackie, *Bible Manners and Customs* [n.d.], 33, 35)

•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이 개별적인 돌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인도하고 가르치신다! ……

.....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각자를 알고 돌보시며 가장 작아 보이는 것들도 아주 주의 깊게 보살피신다.”(*That Ye May Believe* [1992], 204~205)

제3니파이 15:18

믿는 일과 이해하는 일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는 여러분의 복음 공부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제3니파이 16:1~3. 다른 양

• 제3니파이 16장 1~3절에서 니파이인 외에 “다른 양”이 있다는 것과 구주께서 그들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셨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제3니파이 17장 4절에는 이 다른 양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들”이라고 나온다. 선한 목자는 그분의 모든 양 떼를 지켜 보고 돌보신다.

제3니파이 16:3~13. 이스라엘의 집합

•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부록(415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집합”을 참고한다.

제3니파이 16:4~7. 우리는 몰몬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몰몬경의 주요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몰몬경의 주된 취지는 바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약입니다. 몰몬경에 기록된 6천 개가 넘는 구절 중 절반 이상이 직접적으로 그분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입니다.]’(니파이후서 25:26)”(*리아호나*, 2005년 5월호, 8~9쪽)

제3니파이 16:4~13. 이방인은 누구인가?

• 몰몬경에 나오는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유대인은 유다의 후손과

리하이의 자녀들처럼 예루살렘 땅 출신을 말한다.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이 정의에 따라 말하자면, 많은 이방인은 이스라엘 혈통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때가 충만한 이 경륜의 시대에 복음은 이방인에게 먼저 나아간 다음 유대인에게로 간다.[교성 19:27 참조]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혈통을 지닌 이방인들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1966], 4:39)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도 이에 대해 설명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대인을 지파에 관계없이 유다 왕국 국민과 그 직계 후손으로 정의했다. 이 용어를 사용할 때 기타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라 불렀다. 이 때 말하는 이방인에는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소중한 피가 흐르는, 이스라엘 왕국의 잃어버리고 흩어진 잔류민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조셉 스미스도 이방인이다. 몰몬경은 조셉 스미스의 손을 통해서 나왔다. 그리고 복음을 알고 혈통 상으로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도 레이맨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이방인들이다.”(*The Millennial Messiah* [1982], 233)

제3니파이 17:1~3.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하며”

• 복음을 배우는 일부 학생들은 단순히 경전을 읽거나 선지자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그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너희 집으로 가서,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제3니파이 17:3)하라고 지시하셨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분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내일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3절)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가르치셨다. 이 말씀은 다른 성구에서 우리에게 읽고, 보고, 들은 것을 깊이 상고하라고 명하신 내용과 일치한다. 모로나이는 깊이 생각하는 것이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얻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모로나이서 10:3 참조) 니파이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의 영혼은 주의 것을 기뻐하며, 나의 마음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끊임없이 깊이 생각하는도다.”(니파이후서 4:16)

• 제일회장단의 매리온 지 롬니(1897~1988) 회장은 깊이 생각하는 것의 힘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는 경전을 읽으면서 몰몬경에 자주 나오는 *깊이 생각하라*라는 낱말에 유의하게 됩니다. 사전에서는 *깊이*

생각한다(*ponder*)는 말이 '신중하며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며 명상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기도의 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못해도 주님의 영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니파이는 그와 같은 경우 하나를 언급했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렇게 되었음이니 내가 나의 부친이 보신 것들을 심히 알기 위한 후에, 주께서 그것들을 나에게도 알려 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앉아 있었을 때, 나는 주의 영에게 붙들리어, 내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전에 한 번도 받을 던어 본 적이 없는 심히 높은 산으로 이끌려 갔느니라.'(니파이전서 11:1)

그 후에 주님의 영은 니파이에게 위대한 시현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는 니파이가 선지자인 아버지의 말을 믿었으며 심히 알고자 원하였고,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성도의 빛, 1973년 12월호, 44쪽)

- 하나님의 것을 깊이 생각하면 그분께 다가가려는 노력에서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우리 생활에서 정기적으로 복음을 내면화하지 않는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래미움프롬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에 너무 의례적으로 반응하여 일주일 후에 거룩한 단에 ‘다시 함께 모일 때까지’(앨마서 31:23) 하나님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다. [제3니파이 17장 3절]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미대륙에 있는 추종자들에게 가르치신 것과 어떻게 대조되는지 주목한다. 주님께서는 함께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에 관련하여 가족에 얼마나 집중하셨는지 살펴본다! 우리가 우리 종교를 일상화하고 왕국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과 정신이 자연스럽게 다른 것에 쏠리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Wherefore, Ye Must Press Forward* [1977], 30~31)

제3니파이 17:2~3

주님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집으로 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깊이 생각할 때 어떤 유익을 얻는가?

제3니파이 17:4. 흠어진 이스라엘은 아버지께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았다

- 이스라엘의 흠어진 지파들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신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어디로 데려가셨는지 아심이라.”(제3니파이 17:4)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과 잃어버린 이스라엘 지파를 구주께서 방문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양들을 방문하신 또 다른 기사를 언젠가 받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잃어버린 경전은 앞으로 나타날 보화입니다. 현존하는 경전을 살펴보면 잃어버린 경전이 스무 권 이상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경이롭고 방대한 기록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의 기록일 것입니다.(니파이후서 29:13 참조)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증거인 소중한 물몬경을 통하지 않고는 곧 나타날 그리스도에 대한 세 번째 증거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세 번째 기록이 합쳐질 때 진리의 삼부작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하신 목사께서 ‘나의 말도 역시 하나로 모일 것인즉’(14절)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의 모든 경륜의 시대를 하나로 다 합친 가운데(교성 128:18 참조) ‘한 무리와 한 목사’(니파이전서 22:25)가 있을 것입니다.”(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68쪽)

제3니파이 17:5~10.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축복하셨다

- 예수님께서 사람들, 즉 그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느끼신 큰 연민의 증거는 제3니파이 17장 5~10절에 잘 나타난다. 그분께서는 병자들을 데려오라 하시고 모두를 고쳐 주셨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 영적인 순간의 힘에 주목했다. “병자와 맹인, 다리 불편한 사람, 장애인, 나병환자, 마른 자, ‘어떻게든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고칠 수 있게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셨다. 백성들이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형제 자매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그들의 신앙이 병고침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즉시 인식하시며, 그리스도께서는 무리 속에 있는 각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을 데려오는 대로 그들 모두를 고쳐 주[셨다.]’ 그렇게 동정심과 자비가 흘러 넘치는 것을 보고 고침을 받은 자나 성한 자 모두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며, 그를 경배하였고 …… 그의 발에 입을 맞추며, 그들이 그 눈물로 그의 발을 씻기에 이르렀[다.]’(제3니파이 17:5~7, 9~10)”(Christ and the New Covenant, 268~269)

제3니파이 17:11~24.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

• 본부 초등회 회장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미켈린 피 그래슬리 자매는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능력에 대해 말씀했다.

“구주께서 가장 신성한 가르침을 어린이들에게만 주신 다음, 그들의 혀를 푸셔서 그들이 무리를 가르칠 수 있게 하신 일은 저에게 참 중요합니다.(제3니파이 26:14 참조)

구주께서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신 의로움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과 자녀들이 받은 기적과 같은 가르침, 축복, 관심 때문에 의로움은 그들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 동안 영속되었습니다.



의로움을 영속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만큼 진리를 잘 받아들이는 부류는 없습니다.”(“Behold Your Little Ones,” *Ensign*, Nov. 1992, 92~94)

• 칠레의 교회 회원들은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이 그들을 방문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다. “제 경험 중에서 어린이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을 본 것은 칠레에서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할 때였습니다. 그때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께서 지역 대회를 위해 칠레를 방문하셨습니다.

4개국에서 온 교회 회원들은 일만 오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김볼 회장님께 대화를 마친 후에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여쭙었습니다. 그러자 회장님께서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신권 지도자 중 한 명은 마이크를 잡고, 김볼 회장님께서 경기장에 있는 어린이 모두가 악수를 하거나 축복을 주고자 하신다고 방송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큰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볼 회장은 2천명 정도 되는 어린이들에게 한 명씩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린이들과 악수를 나누거나 입을 맞추고, 또는 어린이들 머리 위에 손을 놓고 축복을 주시며 우셨습니다. 어린이들은 매우 경건했고 그분을 바라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김볼 회장은 이와 같은 영을 느껴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모인 모든 교회 회원의 삶에서도 굉장한 경험이었습니다.”(Janet Peterson and Eduardo Ayala, “Friend to Friend,” *Friend*, Mar. 1996, 6~7)

생각해 볼 점

- “보라, 내가 율법이요 빛이니”(제3니파이 15:9)라는 구주의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에게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과정은 그들이 다음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데 왜 중요했는가?
- 여러분은 물문경에 나오는 성약을 이해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제언 과제

- 친구 또는 가족에게 요한복음 10장 16절(16절)에 나오는 “다른 양”이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한다.
- 여러분이 제3니파이 15~17장에 설명된 기적과 사건들을 목격했다면 어떠했을지 친구와 이야기해 본다.

소개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신 구주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며 성찬의 목적은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가 나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게 하리라.”(제3니파이 18:11) 이와 똑같은 약속이 성찬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 제3니파이 18~19장을 공부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성찬과 기도에 대해 가르치신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이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제자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하여 성신의 동반을 온전히 향유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

해설

제3니파이 18:1~14. “이를 너희는 …… 기억하여 행할지니”

• 구주께서는 성찬을 취하는 주된 목적은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성찬 의식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이다. 우리는 이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산만해서는 안 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성찬식에서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하면서 합당하게 주님을 기억하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했다.



“우리는 구주의 전세 생활을 기억할 수 있으며 …… 그분이 행한 일 중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 한 젊은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단순하면서도 장엄한 그분의 육신의 탄생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기적과 가르침, 치유와 도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

……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에게서 특별한 기쁨과 행복을 찾으셨으며, 우리에게 그 어린이들처럼 …… [되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친구라 하셨(음울) …… 기억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일들과 ‘선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모로나아서 7:24)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

언젠가 우리는 그분께서 받으신 몰인정한 대우, 그분께서 경험하신 거부, 그리고 그분이 견디셔야 했던 불공평을 기억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

…… 우리는 예수께서 만물 위로 오르시기 전에 그 아래로 내려오셨으며, 고난과 고통과 온갖 종류의 유혹에 시달리시면서 자비로 참만해지셨고 어떻게 연약한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알게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69쪽)

제3니파이 18:6~7. 성찬과 천사들의 성역

• 십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성찬 기도에서 하는 약속에 천사의 성역이 어떻게 포함되는지를 설명했다.

“이 아론 신권 의식들은 천사의 성역과도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

…… 천사의 메시지는 음성을 통해서, 혹은 단순히 생각이나 느낌으로 마음에 전해집니다. ……

…… 천사의 메시지는 대부분 눈에 보이기보다는 마음에 느낌으로 오거나 음성으로 들립니다. ……

대개 영을 동반하고 영과 교통하는 축복은 오직 청결한 사람들만 받습니다. …… 아론 신권으로 집행하는 침례식과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깨끗해지며, 성약을 지킨다면 주님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저는 그 약속이 성신은 물론 천사의 성역까지도 지칭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말하니,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기]’(니파이후서 32:3)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론 신권 소유자는 주님의 영을 동반하고 천사의 성역을 누리도록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는 모든 교회 회원에게 문을 여는 것입니다.”(리아호나, 1999년 1월호, 39쪽)

제3니파이 18:16, 24.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우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든 최대한 구주의 성품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우리 각자는 가족, 교회, 지역 사회, 직업, 교육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비록 각자 필요 사항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모든 특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더욱 온전히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큰 특성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

물론 우리는 지름길을 택해 단순히 구주께서 보여 주신 몇 가지 기술들만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그분을 본받지 않으면, 위대한 모범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형식과 본질 둘 다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또는 권능이 없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또는 원리를 단호하게 주장하기를 주저하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그분처럼 된다는 것은 성품과 행동 모두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A Wonderful Flood of Light* [1990], 110)

제3니파이 18:18. “항상 깨어 기도하라”

•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항상 그를 기억”(교성 20:77, 79)하고 “항상 …… 기도”(제3니파이 18:18)하는 계명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님께서는 어째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는 경고를 주실까요?”

저는 주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항상 그분을 기억하라는 성약을 주시고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는 경고를 주셨는지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에 대해 완전히 아시고 인간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완전하게 아십니다. ……

…… 그분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걱정들을 하는지 아십니다. …… 또한 그것을 감당해 낼 능력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는 않다는 점도 아십니다.

…… 우리를 둘러싼 압력이 격렬해질 때, 한때 충분하다고 여겨졌던 영적인 힘은 더이상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 영적으로 이만큼 성장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는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힘의 필요성과 그것을 얻을 기회를 과소평가한다면 결국 과소평가한 그 정도밖에 성취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것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

주님께서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 마음속에서 느끼는 사랑은 변치 않으므로, 여러분의 기도는 항상 그분께 상달될 것입니다.”(“Always” [CES fireside for young adults, Jan. 3, 1999], 2~3, 5; 또한 “Always,” *Ensign*, Oct. 1999, 8~10, 12 참조)

제3니파이 18:18. “너희를 밀같이 체질하려고”

• 예수님께서서는 니파이인들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같이 체질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함이니라.”(제3니파이 18:18) 하고 경고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가르치셨다.(누가복음 22:31 참조)



© 리처드 로버트슨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 백성들보다는 그 시대 백성들에게 더욱 명확하게 [이해되는] 관용적 표현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과 개념은 다음과 같다. ‘베드로, 사탄은 너를 거두어 들이고 싶어

한단다. 사탄은 네 영혼을 취하여 그의 곡창으로 데리고 가서 너를 자신의 제자로 삼고 싶어 한단다.’ 이는 우리가 들판이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우리는 나이가 복음을 전파하고 인간의 영혼을 거둔다. 사탄은 베드로를 원했으므로, 그를 체질하여 그의 영혼을 거두고 싶어했다.”(*Sermons and Writings of Bruce R. McConkie*, ed. Mark L. McConkie [1998], 127)

제3니파이 18:18~21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서 여러분의 기도를 향상시키는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제3니파이 18:21. “너희 가족 안에서 …… 기도하여”

•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가족 기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 것을 대신할 만한 일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폭신한 융단이나 예쁜 커튼, 또는 아름답게 장식된 벽이나 가구보다도 더욱 훌륭하고 아름답게 가정을 가꾸는 방법입니다.”(성도의 벗, 1991년 9월호, 4쪽)

제3니파이 18:26~32. 성스러운 의식

• 제3니파이 18장 26절을 읽을 때, 구주께서 무리에게 말씀하기를 멈추시고 “그 택하신”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에 주목한다. 28~29절에 나오는 그분의 메시지는 신권 지도자들에게 주는 경고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성찬을 취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다. 어떤 사람이 성찬을 취하기에 합당한가 하는 문제를 결정할 책임은 주님께서 그러한 판단을 하도록 부르신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 같은 이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점을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미네르바 케이 데이저트, BYU 미술 박물관에 하락을 얻어 게재

•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는 칠십인 일원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

“회개하여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신권에 제약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선할 의사가 없고, 영의 인도를 따를 의향이 없다면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는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개선하는 데 촉매제가 되는

성찬의 참 목적을 조롱하고 있는가? 우리가 구주를 기억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또한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개선하여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영생을 향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나아지기를 거부하고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성장이 그치고 영혼에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성찬은 극히 개인적인 체험이므로, 우리가 합당한지 아닌지는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개선해야 할 점을 깨닫고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할 결단력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성찬을 통해 항상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대부분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십일조를 내지 않는다면, 바로 다시 내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에 따라서는 감독을 찾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영이 알려 줄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47~48쪽)

제3니파이 18:36~37.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성신을 줄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을 때, 무리들은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몰몬은 “예수께서 성신을 줄 수 있는 권능을 저들[제자들에게 주셨]음일”(제3니파이 18:37) 제자들이 증거했다고 알려 주었다. 모로나이는 독자들에게 “이 증거가 참됨을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제3니파이 18:37)고 한 부친의 약속을 성취했다. 모로나이는 후에 이 사건과 그리스도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설명했다. 또한 구주께서 제자들을 만지신 것은 손을 올려놓으시고 권세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모로나이서 2:1~3 참조)

제3니파이 19:6~8, 16~17
 가능하면 무릎을 꿇는 것이 왜 기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가?

제3니파이 19:9. 제자들은 성신을 달라고 기도했다

•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열두 제자들은 “성신을 저들에게 주시기를”(제3니파이 19:9) 기도했다.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 간구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했다.

“성신의 은사와 은사를 향유하는 것은 다르다. 침례를 받은 후 모든 성도는 영의 은사, 즉 성결하게 하는 영의 능력에 대한 권리를 받는다. 합당하고 계명을 지키는 이들만이 약속된 보상을 받는다. 사실상 교회 회원들은 순종하여 영원하신 분과 조화를 이룰 때에만 이따금씩 영과 함께한다.

성신의 은사를 실제로 향유하는 것은 인간이 필멸의 생에서 받을 수 있는 신성한 하늘의 은사이다. 이것을 받았다는 사실은 복된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 영생을 보장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증거이다.”(*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1985], 257)

- 히버 제이 그랜트(1856~1945) 회장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하루에 두 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 대해 말했다.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하루에 두 번 하나님께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간구하는 소년 소녀, 청남 청년들은 별로, 아니 아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올 때 그들은 영감을 통해 유혹을 극복할 힘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 영의 인도를 간구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안전 장치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진지하고 정직하게 주님의 영에 인도를 받고자 구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Gospel Standards* [1976], 26)
- 제일회장단 제2보좌였던 매리온 지 롬니(1897~1988) 회장은 간단한 네 가지 사항을 따름으로써 영을 얻고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분이 영의 인도를 얻고 유지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간단한 네 가지 사항을 행하십시오. 첫째, 기도하십시오.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 둘째, 복음을 연구하고 배우십시오. 셋째, 의롭게 생활하십시오. …… 죄를 회개하십시오. …… 넷째, 교회 안에서 봉사하십시오.”(“성신의 속삭임을 따름”, *리아호나*, 2002년 4월호, 25쪽)

제3니파이 19:10~13. 새로 침례를 받다

•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예수님께서 니파이인들에게 왜 다시 침례를 받으라고 명하셨는지 설명했다. “미대륙에 있는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이전에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받았을지라도 다시 침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 구주께서는 니파이와 그

백성들에게 다시 침례를 받으라고 명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에 따라 교회를 다시 조직하셨기 때문입니다.[제3니파이 19:7~15; 26:17 참조] 그 이전에는 율법에 따라 교회가 조직되었습니다.[제3니파이 9:15~22; 11:10~40; 12:18~19; 15:4~10 참조]

…… 똑같은 이유로 조셉 스미스와 1830년 4월 6일 이전에 침례 받았던 사람들은 교회가 조직된 날 침례를 다시 받았습니다.”(*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2권, 299쪽)

제3니파이 19:18, 22. “저들이 예수께 기도하며”

• 경전에는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가르침이 아무데도 없다. 그러나 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아버지 대신 아들에게 기도를 드렸다.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상황에서 이 일이 일회성으로 행해진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백성들에게 그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분을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고 독특한 상황이었습니다.”(*The Promised Messiah: The First Coming of Christ* [1978], 560~561) 이때 백성들이 구주께 기도하는 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저들과 함께 있는”(제3니파이 19:22) 까닭이라고 명확하게 밝히셨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이 상황에서 “저들에게 기도할 바를 주셨[기에] …… [저들은] …… 많은 말을 더하지 아니하[였다].”(제3니파이 19:24)

제3니파이 19:19~20, 27~28. “감사하나이다”

• 경전에는 구주께서 아버지께 감사를 표현하신 사례가 많이 나온다.(마가복음 14:23; 요한복음 6:5~11; 11:33~35, 41; 고린도전서 11:23~24 참조) 니파이인들을 두 번째로 방문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경전에 기록된 그분의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를 아버지께 감사드리신 것으로 시작하셨다.(제3니파이 19:19~20, 27~28)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이 원리를 강조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데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진실하고 단순한 기도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과 은사와 재능에 대해 밤낮으로 감사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더 높은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우리 구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의지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입니다.”(성도의 벗, 1992년 7월호, 64쪽)

제3니파이 19:20~23, 29. 단합을 위한 기도

-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르친 백성들이 단합하기를 바라며 기도드리셨다.(요한복음 17:11, 20~21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교리와 성약에서도 단합이라는 원리를 가르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가 되라.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성 38:27)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는 제3니파이 19장 20~23절과 요한복음 17장 11, 20~23절에 나오는 단합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를 비교했다. “구주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러한 단합을 이루는 것은 성신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것은 신약에서는 그다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교리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서 하나님께 있는 확실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니파이인들을 위해 이 증거를 보이셨다. 그분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저들을 들으시[는] …… 고로, 저들이 나를 믿는 줄 아버지께서 아시나이다.’[제3니파이 19:22] …… 이것이 바로 하늘의 기적과 거룩한 보혜사를 동반하는 열쇠가 된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1997], 280)

-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설명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몸과 영 모두를 아버지 뜻에 복종함으로써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성역은 언제나 이것에 역점을 두었는데, 이는 아버지의 뜻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이나 욕구가 그분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느니라]’[요한복음 8:29] ……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과 관심사를 가장 큰 소망으로 삼기 전에는 그분들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하루 아침에 사람이 유순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하려 할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게 될 때까지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떨립니다. 그러나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려면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73쪽)

제3니파이 19:24. “저들은 …… 많은 말을 더하지 아니하더라”

- 기도하되 “많은 말을 더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제3니파이 19:24) 칠십인의 진 알 쿡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니파이인 제자들은 예수님 면전에서 기도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들은 …… 많은 말을 더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주님께서 지상 성역을 베푸실 때 유대인들에게 주신 계명과 일치합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마태복음 6:7; 또한 제3니파이 13:7 참조)

대중 앞에서 기도할 때 인간의 명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이것은 진정한 의도 없이 기도하거나 불필요하게 장황한 기도를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는 인간 청중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경고가 적용됩니다. 우리는 항상 ‘미사여구’로 가득찬 기도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기도를 피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분명 그런 방식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주님께 집중하지 않거나 진정한 의도가 없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Receiving Answers to Our Prayers [1996], 43~44)

제3니파이 19:24~25

이 구절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의 대답을 제3니파이 19장 28~29절,
모세서 1장 9~11절과 비교한다.

제3니파이 19:35. 기적은 신앙이 있는 이에게 온다

• 큰 기적들이 구주께서 몰몬경 시대 성도들을 방문하셨을 때 일어났다. 병 고침의 기적들, 천사, 얼굴의 광채, 너무 성스러워서 기록할 수도 없는 기도, 그리고 그밖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처럼 큰 신앙을 내가 모든 유대인 중에서 결코 보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처럼 큰 기적을 그들에게 보일 수 없었도다.”(제3니파이 19:35)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기적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단 말인가?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그 신성함 때문에 우리가 자주 그것에 대해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왜 연차 대회나 지역 모임에서 우리가 본 기적들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 대부분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전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며, 나누라는 영의 속삭임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합니다. ……

…… 현대 계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러한 일들을 자랑하지 말며, 세상 앞에서 그 일들을 말하지 말라. 이는 이 일들이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너희에게 주어짐이니라.’(교성 84:73) 또 다른 계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서 오는 것은 성스러우며 신중히 그리고 영이 권하는 대로 말해야 함을 기억하라.’(교성 63:64) ……

후기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이 지시에 따릅니다. 대중 연설이나 간증을 전할 때 기적적인 경험은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표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개 회복된 복음이 참되다는 간증을 전하고, 그 간증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적은 믿는 이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개종시키기 위해 기적을 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게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성숙도가 매우 다양한 일반 청중에게 기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개 적절하지 못합니다. 청중 중 어떤 이에게는 기적이 신앙을 강화하겠지만 다른 이에게는 부적절한 표적이 될 것입니다.”(“Miracles” [CES fireside for young adults, May 7, 2000], 3, www.ldscs.org)

생각해 볼 점

- 여러분이 침례 받았을 때 느낀 점을 기억한다면 다음 번에 성찬을 취할 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게 향상되었는가?
- 제자들은 ‘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위하여’ 곧 ‘성신을 저들에게 주시기를’(제3니파이 19:9) 기도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가? 왜 그런가, 또는 왜 그렇지 않은가?
- 구주께서는 얼굴을 돌려 제자들에게 “미소[지으셨다.]”(제3니파이 19:25, 30)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얼굴을 돌려 미소 짓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언 과제

- 여러분은 성찬에 대한 여러 성구와 가르침들을 읽었다. 이제 성찬을 여러분의 삶에서 좀 더 의미 있는 부분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 제3니파이 19장 19~23, 27~29, 31~32절에 나오는 구주의 기도를 공부한다. 여기서 가르치는 기도를 향상시키는 원리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여러분의 생각과 결론을 일지에 기록한다.

소개

모든 의로운 부모는 후손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충실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후기에 그들의 후손이 복음으로 축복 받을 것이며 안전한 장소에 모일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아버지께서는 구주께 이 약속들을 니파이인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셨다.

집합의 원리는 백성들이 어느 특정한 땅에 함께 모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알고 교회에 가입할 때 일어나는 영적 집합도 포함된다. 흩어진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복음, 신권, 성전, 구원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뻗어 복음, 신권, 성전, 영생의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음의 축복을 모든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시며 이 후기 집합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신다.

해설

제3니파이 20:1. 우리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한다

• 니파이인들이 기도를 마친 후, 구주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중요한 권고를 주셨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주었다.

“선지자들은 오래 전부터 겸손하게 자주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소리내지 않고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로 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쪽)



•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기도하기를 배우십시오. 자주 기도하십시오. 마음으로, 가슴으로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

기도는 천국을 여는 여러분만의 열쇠입니다. 자물쇠는 휘장 이쪽에 있습니다.[요한계시록 3:20 참조](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59쪽)

제3니파이 20:8~9

구주께서는 성찬을 취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이 약속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제3니파이 20:8~9. 영으로 충만하게 되리라는 성찬 약속

• 십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성찬을 취하는 것과 관련된 약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매주 교회에 참석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찬을 취할 기회를 누립니다.(교성 59:9 참조) 합당한 준비와 자세로 성찬을 취한다면 정결하게 하는 침례의 효과를 새롭게 하며,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합당한 자격을 얻습니다. 영, 곧 성신의 사명은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요한복음 14:26; 니파이후서 31:18 참조) 간증과 진리는 한 사람이 개종하는 데에서 필수 요소이며, 이렇게 매주 성약을 새롭게 할 때 거두는 최상의 수확입니다. 저는 생활 속에서 매일 결정을 할 때나 영적 성장을 할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리아호나, 2002년 7월호, 37쪽)

• 옥스 장로는 또한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성찬 성약을 새롭게 하는 이 중대한 일에 느슨해진 형제 자매님들께 제일회장단의 다음 말씀을 빌어 저의 간절한 청을 전합니다. ‘다시 돌아와 주님의 식탁에서 성찬을 들고, 성도들과 우정을 나누며 달콤하고 만족스러운 열매를 다시 맛보시길 바랍니다.’(An Invitation to Come Back, Church News, 22 Dec. 1985, 3) 우리 모두 성찬을 취하여 ‘충만하리라’(제3니파이 20:8; 또한 제3니파이 18:9 참조)는 구주의 약속을 받을 자격을 갖추시다. ‘충만하리라’는 말은 ‘영으로 충만하게’(제3니파이 20:9)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영, 즉 성신은 우리의 보혜사, 방향 안내자, 전달자, 통역자이자 증인이며, 정화시키는 자, 곧 아주 확실한 안내자며 성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현세에서 영생을 향한 여행을 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61쪽)

제3니파이 20:11~13.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해 기록했다

•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니파이인들에게도 이사야의 말씀을 탐구하라고 명하셨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권속과 맺으신 성약을 지키고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경전 안내서에는 “이사야서의 많은 예언들이 구속주의 오심[을] …… 다루고 있다”(“이사야”, 238쪽)고 설명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분산과 집합 또한 이사야의 주요 주제이다.

구속주의 가르침과 이스라엘의 집합은 밀접하게 연관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분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을 흠으셨다. 그러나 속죄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를 사함 받으며,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분께 모일 기회를 제공한다.

•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하여 더 많이 알고 싶으면 부록(415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집합”을 참고한다.

제3니파이 20:11~13

집합이 일어나는 때를 알 수 있는 실마리는 무엇인가?(제3니파이 21:1~7 참조) 이 집합에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교성 88:81 참조)

• 구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겠다는 성약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은 누구이며 그들은 왜 흠어졌는가? 주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복음과 신권을 받을 것이며 그들을 통해 모든 지상 가족이 축복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아브라함서 2:9~11 참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창세기 26:3~5 참조), 이삭의 아들 야곱(창세기 28:12~15 참조),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자녀들과도 맺어졌다.

슬프게도 이스라엘 자녀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이 약속들은 무효화되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온 지상에 흠어졌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언젠가 복음을 배우고 약속의 땅에 모일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은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모으고 가르칠 것이라고 하신 성약 중 일부다.

•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은 우리가 복음 성약을 받아들임으로써 집합의 법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스라엘의 집합은 참된 교회에 가입하여 참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 그러므로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현재 살고 있는 국가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국어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스라엘 집합의 법을 지킨 것이며, 이 후기에 성도들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의 상속자가 된다.”(*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 Edward L. Kimball [1982], 439)

• 교회 초기에는 지도자들이 개종자들에게 오하이오, 미주리, 일리노이, 유타 같은 중심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합류하라고 권고했다. 오늘날 성도들은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교회를 발전시키라고 권고받는다.

“주님은 우리 시대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전을 늘리는 등 복음의 축복을 내릴 적기라고 여기셨습니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해 오던 권고이지만, 교회 회원들이 미국으로 이민하기보다는 자신의 조국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권고를 되풀이하고 싶습니다. ……

“전 세계 회원들이 자신의 고국에 남아 모국에서 교회를 세울 때, 회원 개인과 교회 전체에 커다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제일회장단 서한, 1999년 12월 1일;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102쪽)

• 칠십인의 더글라스 엘 콜리스터 장로는 후기에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집합의 목적과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재 우리가 하는 집합은 주로 영적인 집합이며 지리적인 집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후기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고] [그분의] 백성을 [세우며], [그들 가운데 [그분의] 시온을 다시 세울(제3니파이 21:22; 제3니파이 20:21; 제3니파이 21:1)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실 때, 사람들은 조국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배울 수 있으며 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를 수[](제3니파이 20:13)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던 초기 시절에 발표한 내용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우리 지도자들은 집합이 각 나라와 민족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많은 성도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할 필요성은 일세기 전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교회 잡지와 위성을 통한 전송이 시간과 거리를 초월하며 교회 전체에 걸쳐서 단일성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열쇠, 의식, 교리, 영적 은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Book of Mormon Principles: The Gathering of the Lord’s Faithful,” *Ensign*, Oct. 2004, 59)

제3니파이 20:14, 22. 상속의 땅

- 예수님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미대륙을 상속의 땅으로 주셨다고 가르치셨다. 리하이 또한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이 약속을 받았다.(니파이후서 1:5 참조) 이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주며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다.”(창세기 49:26)고 한 말을 확증한다.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라는 구절은 서반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님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 [미대륙]을 주셨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 부활로 나아올 때 이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쿱기 편, 1권, 83쪽)

제3니파이 20:21~22; 21:23~29. 새 예루살렘이 미대륙에 세워질 것이다

- 시온, 새 예루살렘은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다. 구주께서는 후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곳에 서라”(교성 45:32 참조)며 권고하시고 시온과 시온의 스테이크가 안전한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교성 115:6 참조)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재림이 다가올 때에 시온성, 새 예루살렘이 “평화의 땅, 피난의 도시,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다.(교성 45:66~71 참조)



신앙개조 제10조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집합하고 그 열 지파가 회복될 것과, 시온(새 예루살렘)이 미 대륙에 세워질 것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에서 다스리실 것과 땅이 새로워지고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또한 이렇게 가르쳤다. “시온을 건설하는 일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진 대업이었습니다. 선지자, 제사, 왕들이 특히 기뻐하며 다른 주제이며 …… 후기의 영광 곧 ‘때가 충만한 경륜의 시대’가 펼쳐지는 것을 보고 참여하고 돕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 이 일은 어둠의 세력을 파멸시키고, 지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시키고, 인간 가족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일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4:609~610)

제3니파이 20:22.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다

- 시온 또는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니파이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구주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제3니파이 20:22)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에서도 비슷한 구절을 사용하셨다.

“그러나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눈은 너희 위에 있느니라. 나는 너희 가운데 있으나, 너희는 나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보고 내가 존재함을 알게 될 날이 곧 이르나니, 이는 흑암의 휘장이 곧 찢어질 것임이라, 정결하게 되지 아니한 자는 그 날을 견디지 못하리라.

그런즉 너희의 허리를 동이고 예비하고 있으라. 보라, 왕국은 너희 것이니, 원수가 이기지 못하리라.”(교성 38:7~9)

하나님께서 시온 가운데 계실 것이라는 약속은 시온(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그분이 계시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두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교성 97:16 참조)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제3니파이 20:23~24. “주 너희 하나님께서 …… 선지자 하나를 …… 일으키시리니”

-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는 장차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제3니파이 20장 23~24절에서 구주께서는 자신을 그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중요한 예언으로서 구약, 신약,

물문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에서 찾아볼 수 있다.(신명기 18:15~19; 사도행전 3:22; 제3니파이 20:23~24; 교성 133:63; 조셉 스미스—역사 1:40 참조)

제3니파이 20:25~27. 성약의 자녀가 되다

• 예수님께서서는 니파이인들을 “성약의 자손” (제3니파이 20:26)이라고 규정하셨다. 러셀 엠 넬슨 장로는 구주께서 말씀하시는 성약이 무엇이며 이 구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맺으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 확인하신 성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

우리도 성약의 자녀입니다. 고대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신권과 영원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신권 축복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 자손들의 수고로 축복 받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으로 입양되어 모인 모든 사람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러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33쪽)

제3니파이 20:29. 예루살렘 회복에 관한 예언

•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 성 회복은 구약과 물문경의 예언에서 중요한 주제로 보인다.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다.

“그러므로 이방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시온으로 도망할지이다.

유다에 속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주의 전의 산들로 도망할지이다.”(교성 133:12~13)



유다의 회복에 관하여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유다는 돌아와야 하며, 예루살렘은 재건되어야 하고, 성전 또한 재건되어야 합니다. 성전 아래에서 물이 흘러 나와야 하고 사해의 물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자가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History of the Church, 5:337)

제3니파이 20:29~33. 유대인들이 믿고 집합할 것이다

• 1841년 10월 24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올슨

하이드(1805~1878) 장로는 감람산 정상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 백성들을 위해 사도로서 기도를 드렸다. 하이드 장로가 기도했을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정치 상황을 볼 때 그들이 그곳에 모이도록 허락될 조짐은 거의 없었다. 그 이후, 놀라운



올슨 하이드, © 1996 IRI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며 현대의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되어 유대 백성의 “조국”이 되었다. 주님의 축복이 이 “집합”에 함께했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것은 물문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유대인이 완전히 집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실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현재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국에 집합하는 것은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집합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가 알고 있듯이 많은 유대인이 현재 팔레스타인으로 집합하고 있다. 그곳에 그들의 조국과 예배 방식이 있으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는 영원한 복음의 법과 의식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이것이 경전에 나오는 유대인의 후기 집합인가? 물론 아니다! 이 점에 대해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이 조국과 국가 조직과 왕국으로 모이는 이 집합은 선지자들이 약속한 집합이 아니다. 이것은 고대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지만 참된 교회와 그들이 고대에 메시아로 섬기던 분의 무리로 집합한 것이 아니다.”(The Millennial Messiah [1982], 229)

• 제일정원회의 매리온 지 롬니(1897~1988) 회장은 유다의 집합에 대해 말씀했다. 롬니 회장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상속의 땅에 모으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물문경 구절들을 인용했다. 이 인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배우게 된다. “그들이 더 이상 그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스르지 아니할 그 날이 이르면”(니파이전서 19:15) “그들이 그들의 구속주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될 때에”(니파이후서 6:11),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무리에게로 회복될 때”(니파이후서 9:2), “그들이 나 곧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날이 이르면”(니파이후서 10:7), 그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구속을 믿으며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지고,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경배하고, 또 다른 메시아를 더 이상 고대하지 아니할 그 날이 이르면”(니파이후서 25:16), “내 복음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전파될 때가 이르면”, 그리고 그들이 “[구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면]”(제3니파이 20:30~31) 그때 그들은 예루살렘, 곧 그들의 상속의 땅으로 집합할 것이다.

물문경 선지자들의 예견에 따르면 이스라엘 집이 그들 상속의 땅으로 회복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받아들인다는 신호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Ensign*, May 1981, 17; 또한 16 참조)

제3니파이 20:35.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실 것이다

- “아버지께서 …… 그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다]” 제3니파이 20:35)는 구절은 무슨 뜻인가? “고대에 남자들은 팔로 싸움을 하기 위해 어깨에서 망토를 내려놓음으로써 싸움을 준비했다.(시편 74:11) 그리스도 재림 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팔을 드러내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권능을 보이실 것이다.(교성 133:2~3)”(Donald W. Parry, Jay A. Parry, Tina M. Peterson, *Understanding Isaiah* [1998], 466)

-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는 후기의 위대한 회복 사업에서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신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이 말이 교회 초기에 일어난 위대한 사건들에서 입증되었으며,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점을 가르쳤다. “형제 여러분, 교회 역사상 ‘이 시대[는 여러분의] 날들’입니다.(힐라맨서 7:9) 주님께서 ‘모든 나라가 보는 가운데 그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실!’(교성 133:3)

때에 이 날들이 어떤 날이 될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일을 ‘서두르실’ 것이며(교성 88:73) 또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마태복음 24:22) 마지막 환난의 날을 짧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들이 감하여질 것입니다.(조셉 스미스-마태 1:20 참조) 그 밖에도 ‘만물이 동요할 것’(교성 88:91)입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밟는 사람만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성도의 벗, 1992년 7월호, 39쪽)

제3니파이 20:36~37. “네 힘을 입을지어다” 그리고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 버릴지어다”

- 교리와 성약 113편에는 “네 힘을 입을지어다”라는 구절이 후기 신권 소유자들이 “신권의 권세를 지닌다 함이니, 이에 대하여 [그들]은 혈통에 의하여 당연히 가질 권리가 있다”(교성 113:7~8)는 뜻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네] 목의 줄은 시온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이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교성 113:10)

복천년 시대를 향한 움직임에 대해 말씀하면서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구주의 말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사야 52장을 복천년 시대로 설명하셨다는 것을 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외침을 읽는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오미 없을 것임이라’ 그날에는 달의 왕국 수준에서 부정한 자가 없을 것이다. 사악한 자들은 그분께서 오실 때 밝은 빛으로 멸망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 없을 것이다. 거룩한 성의 축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조화를 이루며 살 것이기 때문이다.”(*Millennial Messiah*, 315)

제3니파이 20:36~37, 41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주의 권고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그 권고를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

제3니파이 20:40. “산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 하는 자의 말이 산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라고 훌륭하게 묘사된 이 구절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구주 자신을 이르는 말이라고 가르쳤다. “이 친숙한 구절은 이사가가 처음 썼으나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영감을 주신 말로서 종종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인간의 영혼에 평화를 공포하는 사람들, 특히 선교사들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적용이 부적절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선지자 아비나다이가 그랬던 것처럼 원래 의미로는 이 시적 표현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 적용된다는 점을 깨닫는



© 1987 스포츠 일러스트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구원이라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유일한 분은 바로 그분이다. 그분을 통해서만 참되고 영속적인 평화가 공포된다. 시온에게, 곧 옛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모두에게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선언한 분은

그리스도이다. 구속의 산 위에서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분의 말이다.[제3니파이 20:40](*Christ and the New Covenant* [1997], 286)

제3니파이 20:41. “주의 기구를 메는 너희여, 깨끗할지어다”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깨끗하다는 말이 신권 소유자들에게 무슨 의미인지 가르쳤다. “신권 소유자인 우리는 성찬을 준비하고 축복하고 전달하는 것과 같이 성스러운 그릇들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다룰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역시 정결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정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리아호나*, 2001년 1월호, 39쪽)

고대에 성스러운 예배 기구를 다루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주의 기구를 메는 너희여, 깨끗할지어다.”(제3니파이 20:41)라는 이 명령은 현대 신권 소유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고든 비헝클리(1910~2008) 회장은 신권 모임에서 이 중요한 명령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씀했다. “주의 기구를 메는 너희여 깨끗할지어다.”(교성 133:5)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현대 계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깨끗이 하십시오.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깨끗한 언어를 구사하시고 옷과 행동을 깨끗이 하십시오.”(*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48쪽)

헝클리 회장은 또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문신은 육체라는 성전에 낙서를 하는 행위입니다. 몸에 피어싱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리아호나*, 2001년 1월호, 52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청남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나쁜 말을 피하고, 친구를 지혜롭게 택하고, 외설물과 불법 마약을 멀리하며, 건전하지 못한 음악회와 위험스런 파티에 참석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몸을 존중하고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리아호나*, 2001년 7월호, 66쪽)

제3니파이 21:1~9. 이스라엘의 후기 집합

• 예수님께서서는 니파이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집합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도록 그들에게 “한 가지 표적”(제3니파이 21:1)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복음이 회복되고 물몬경이 출현하며, 미대륙에 자유 국가 설립되고 그들의 자손에게 복음이 전파될 일에 대해 예언하셨다.(1~7절 참조) 그분께서는 후기에 일어날 회복을 “크고 기이한 일”(9절 참조)이라고 지칭하셨다. 회복 초기에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이한 일이 바야흐로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려 하는도다.”(교성 4:1 참조)

고든 비헝클리 회장은 회복이라는 기적과 이 일을 전진시켜야 하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소년 조셉에게 나타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새벽이 지상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전 경륜의 시대에 존재하던 선하고 아름답고 신성한 모든 것이 이 가장 놀라운 시대에 회복되었습니다. ……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점을 정말로 깨닫고 이해합니까? ……

이 세대에 속한 우리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수확기 중 마지막 수확기에 있습니다. 그저 이 교회 회원으로 알려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숙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완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보답하며, 주님의 길을 모범으로 가르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크나큰 봉사를 완수하면서, 만민에 대한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리아호나, 2004년 5월호, 83~84쪽)

-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하여 더 많이 알고 싶으면 부록(415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집합”을 참고한다.

제3니파이 22장. 이사야는 집합을 가르치기 위해 신성한 비유를 사용했다

• 구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하여 더 가르치시기 위해 이사야 54장 전체를 인용하셨다. 예언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유를 사용하여,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주님이 남편인 여인으로 의인화했다. 이 여인은 사악함 때문에 한때 버림을 받았으나, 매우 자비로운 “남편”과 화해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사야는 이 비유를 사용하여 회복이 전개되는 기적을 아름답게 묘사했다. 그는 이 여인이 자녀들이 증가함에 따라 장막을 넓혀야 할 것이며 늘어나는 가족을 수용하기 위해 말뚝을 견고히 해야 할 것이라는 약속을 남겼다.(제3니파이 22:1~3 참조) 주님께서 얼마나 지극하게 이스라엘에 헌신하시는지 선언하신 말씀에서, 결혼 성약에 따르는 신성한 의무를 상기하게 된다.(4~10절 참조) 이스라엘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장소와(11~12절 참조) 적에게서 보호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13~17절 참조)

제3니파이 22:13. “네 모든 자녀는 주의 가르침을 받을 것인즉”

- 본부 초등학교 회장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패트리샤 피 피네가 자매는 제3니파이 22장 13절이 어떻게 우리 시대에 자녀를 가르치는 지침이 되는지를 설명했다. “세상은 안전한 곳이



본지 불크리나, © 1985 FR

아닙니다. 어린이들에게 구주를 사랑하고 따르라고 가르치지 않는 한 그들은 평안과 소망과 방향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이 위대한 축복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음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시다.”(리아호나, 2000년

1월호, 81~82쪽)

제3니파이 22:17. “너를 치려고 만들어진 무기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요”

- 주님의 사업에 대적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다. 이사야가 약속한 것처럼 그들은 우리를 대항하는 노력에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그들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 사업이 주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반대가 따를 것입니다. 감언이설로 궤변을 늘어놓고 교묘한 음모를 꾸미며,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심을 퍼뜨리고 이 대업이 놓여진 기초를 흔들려 노력할 것입니다. 태양 아래서 그들의 날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동안 의심하는 사람들과 회의론자와 비판자들에게 갈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태양 아래서 시들고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그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진할 것입니다.”(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59~60쪽)

생각해 볼 점

- 구주께서는 이스라엘을 모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선조들과 맺으신 성약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제3니파이 16:5, 11; 20:12~13 참조) 이것은 매우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 세계적인 약속이다. 여러분의 확대 가족 중에 처음 후기 성도로 개종한 분들의 경험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 그들이 성도들과 집합하기 위해 치른 희생은 무엇인가?
-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을 뻗어서서 여러분이 그분께 다가가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을 언제 느꼈는가?

제언 과제

- 여러분의 일상 생활에서 성찬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여러분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그 계획을 나눈다.
- 이 후기에 이스라엘이 집합하도록 돕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최소한 세 가지 적어 본다.

소개

구주께서는 성역을 베푸 사후에서 이틀째 되는 날에 이사야와 말라기의 예언들을 지지하시며 이를 설명하셨다. 그분께서는 이사야의 예언들은 “이스라엘 집에 속한 내 백성에 관한 모든 일[을]”(제3니파이 23:2) 다룬다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 경전 기록이 정확한지 검사하시고 부활에 대한 사무엘의 예언이 성취된 일과 말라기의 말씀을 기록에 포함시키라고 명하셨다.(제3니파이 24:1; 26:1~2 참조) 말라기의 말씀은 십일조의 법과 관련된 축복과 더불어 재림을 준비하는 이 후기에 선지자 엘리야가 할 역할을 밝힌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경전과 선지자의 말씀을 상고하라고 명하셨다.(제3니파이 23:5 참조) 구주께서는 “이 경전을 …… 장래 세대에게 …… 주는 것이”(제3니파이 26:2) 지혜로운 일이라고 선포하셨다. 모든 후기 성도는 부지런히 경전을 상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전과 선지자의 말씀을 단순히 읽기보다는 부지런히 상고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본다.

해설

제3니파이 23:1. “이사야의 말이 위대함이라”

• 구주께서는 이사야 예언이 “내 백성에 관한 모든 일”(제3니파이 23:2) 곧 하나님께서 담당하시는 방대한 규모를 다룬다고 가르치셨다. 구주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지지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이 위대함이라.”(제3니파이 23:1) 하고 선언하셨다. 제3니파이 22장은 물문경에서 20장 이상 인용된 이사야서 중 마지막 인용이다. 구주께서 특히 청자들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을 상고하라고 지시하신 점에 주목한다.(제3니파이 23:1 참조) 이사야서가 물문경과 기타 경전에서 많이 인용된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사야 예언이 하는 유일하고 중요한 역할과 주님께서 그 말씀을 보존하신 이유를 강조했다.

“이사야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선지자이다. 주님께서는 친히 이사야를 일곱 번 인용하셨고, 사도들은 마흔 번 이상 인용했다. 게다가 부분적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한 것은 아흔 번이나 된다.

이사야는 교리와 성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된 선지자이다. 이사야서 서른 한 장에서 예순여섯 번이나 인용된 것은 이 위대한 선지자가 독보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한다.

이 모든 사실은 주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보전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1991], 280)

• 주: 이사야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그 기록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더 보려면 니파이전서 20~21장(42쪽)과 니파이후서 12~16장(72쪽) 해설을 참조한다.

제3니파이 23:1~5. 경전을 상고하라

•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경전을 단순히 읽기보다는 상고하라고 명하셨다. 경전을 상고하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 성구를 면밀히 살펴보거나 진지한 질문과 조사를 하며 철저하게 탐구한다. 경전을 상고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명상하고(여호수아 1:8 참조),

공부하며(디모데후서 3:15; 교성 26:1 참조), *귀*

기울이고(니파이전서 15:25 참조), *깊이 생각한다*(니파이후서

4:15 참조)는 것이다. 구주께서는 경전 외에도 선지자의 말씀을 상고하라고 명하셨다.(제3니파이 23:5 참조)



© 1989 브라이언트 리빙스턴

제3니파이 23:1~5장

주님께서는 이사야의 기록에 관해 무엇이든 말씀하셨는가?
경전과 선지자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성도들에게 경전을 상고하여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증거를 받고 하나님께 직접 배우라고 권유했다. “경전을 상고하십시오. 우리가 공표하는 계시를 탐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진리를 보여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의심 없이 구한다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고, 의심할 여지도 없어질 것입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분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그분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전을 상고하십시오. 선지자의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여러분과 관계된 내용인지 알아보십시오.”(*History of the Church*, 1:282)

- 경전을 상고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진지하게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교화되고 영이 고양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전 읽기를 강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전을 읽는 것이 여러분에게 의무라기보다는 매우 즐거운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히려 경전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전을 읽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영은 고양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처음에는 지루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성스러운 생각과 말씀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여러분 내부의 빛”,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98쪽)
-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너무 급히 서두르며 경전을 읽는다면 성신이 우리를 가르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다.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상고한다면 성신은 우리가 할 말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경전 말씀은 성령을 부릅니다. …… 매일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 우리는 이 축복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경전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경전 한 장 전체를 빠르고 피상적으로 넘기기보다는 몇 마디 말씀이라도 숙고한다면, 성신이 이를 귀한 보물로 만들어서 우리 영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83~84쪽)

제3니파이 23:6~13. 정확한 경전 기록의 중요성

- 경전 기록의 정확성과 완전성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 경전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제3니파이 23장 6~13절은 부활에 관한

사무엘 예언의 성취가 포함된다. 구주께서는 기록에서 빠진 이 내용을 포함시키라고 명하셨다.



제3니파이 24:1. “아버지께서 말라기에게 주신 말씀”

- 구주께서는 말라기 예언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아버지의 지시대로 미대륙 백성들에게 그 말씀 중 일부를 인용하셨다.(제3니파이 24:1 참조) 선지자 말라기는 누구인가? 말라기는 주전 430년경에 기록하고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이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며 예언의 첫 부분은 “신권을 소유한 이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기를 게을리한 것에 대한 질책을 언급했다. 두 번째 부분(2:10~4:6)은 성약 밖에서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과 성약 안에서 아내들과 이혼하는 문제,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것에 대해 …… 언급하였다. 충실한 이들에게 계속 충실하도록 격려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점을 확신하라고 말하며, 불순종한 이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실족할 것이라고 말한다.”(*Bible Dictionary*, “Malachi,” 728) 말라기가 전한 메시지 중 마지막 부분은 십일조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오는 축복과 재림을 준비하는 후기에 선지자 엘리야가 담당할 특별한 역할에 대해 말한다.(제3니파이 24~25장 참조)

제3니파이 24:1. 주님께서 “홀연히 그의 성전에 오[실 것이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경전을 반복해서 읽는 이유는 경전에 나오는 많은 예언과 교리에 여러 가지 의미와 여러 가지 성취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쳤다. (“Scripture Reading and Revelation,” *Ensign*, Jan. 1995, 8) “주가 홀연히 그의 성전에 오리니”(제3니파이 24:1)라는 구절이 이에 해당된다. 이것은 이 경론의 시대 초기인 1836년

4월 3일에 주님께서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나셨을 때 일부분이 성취되었다.(교성 110:1~10 참조) 그리고 구주께서 그분의 성전에 오실 때마다 부분적으로 성취된다. 또한 지상이 악에서 깨끗하게 되고 해의 왕국의 처소가 될 때 재림의 일부로서 부분적으로 성취될 것이다.(교성 88:25 참조) 이런 이유로, 지상은 주님의 성전으로 일컬어지기에 합당한 곳이 될 것이다.

제3니파이 24:2.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 말라기는 메시아의 오심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제3니파이 24:2) 같다는 강력한 상징을 사용하여 묘사했다. 연단하는 자는 “본래 불순물이 섞인 금속 찌꺼기에서 귀중한 금속을 분리하는 사람이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열이 가해진다. 이것은 덩어리를 액체 상태로 만들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연단하는 자의 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Bible Dictionary, “Refiner,” 760)

구주는 연단하는 자와 같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분의 사명은 인간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며 연단하여 찌꺼기가 없는 순수한 상태로 아버지 왕국에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3니 27:19~21) 정결하게 하는 그분의 능력은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큰 날에 그분께서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으실 것이다.]’(말 3:2~3; 3니 24:2~3; 교성 128:24)”(Mormon Doctrine, 2nd ed. [1966], 624)

표백하는 자는 잿물을 사용하여 “옷을 깨끗이 빨고 하얗게 만드느” 일을 한다.(Bible Dictionary, “Fullers,” 676)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아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심판대 앞에 청결하고 흠 없이 서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3니파이 24:5.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들

•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를 돌볼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과부가 주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을 돌볼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과부라는 단어는 우리 주님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긴 옷을 입고 다니며 길게 기도함으로써 의로운 척하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누가복음 20:46~47 참조] ……

주님께서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창고는 교회의 헌물로 유지되어야 하나니, 과부와 고아는 부양을 받아야 하며 가난한 자도 또한 그러하니라.”[교성 83:6] ……

실제로 음식과 옷과 심지어는 집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거의 항상 [과부에게는 필요한 도움이] 있습니다. ……

장례식 꽃이 시든 후, 방문했던 친구들의 위로와 기도와 말씀이 희미한 기억으로 사라질 때를 생각해 봅시다. 종종 슬픔에 잠긴 이들은 자신이 혼자임을 깨닫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십대들의 소동, 떠나간 동반자의 부드러움과 애정 어린 관심이 사라지고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는 더 크게 들리며, 시간은 더디게 흘러가고, 사방의 벽은 마치 감옥과 같을 것입니다.”(리아호나, 2003년 8월호, 4~5쪽)

제3니파이 24:8~12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은 무엇인가?

제3니파이 24:8~12. 십일조와 헌물

• 사람들은 십일조의 법에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께 신앙을 보인다. 이 율법에 순종하면 제3니파이 24장 10~12절에 나오는 축복들이 뒤따른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교회의 모든 회원이 어떤 상황에서나 십일조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설명했다.

“저는 우리가 모두 부유하든 가난하든, 새로운 회원이든 오래된 회원이든 십일조와 헌물을 충실히 바쳐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자녀[를] …… 위해 그렇게 하십시오. …… 교회에서 많은 축복을 얻는 것은 여러분과 자녀들이 십일조와 헌물을 교회에 바치기 때문이라는 …… 점을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

둘째,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을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해 십일조를 바치십시오. ……

셋째, 물질을 소유하고 세상적인 부를 축적하는 일이 여러분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선언을 하는 의미에서 십일조를 바치십시오. ……

넷째, 십일조와 헌물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므로,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바치십시오. ……



이는 십일조와 헌물을 바쳐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관대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십일조와 헌물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주된 이에게 양식을 주시고 가난한 이에게 옷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오면서 그렇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수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리아호나, 2002년 1월호, 37~39쪽)

• 해롤드 비 리(1899~1973) 회장은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중 하나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율법에 순종할 때 따르는 약속은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가 도무지 답을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이 쏟아진다는 것이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말은 물론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계시를 뜻한다.”(*The Teachings of Harold B. Lee*, ed. Clyde J. Williams [1996], 206)

• 히버 제이 그랜트(1856~1945) 회장은 하나님께서 십일조의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큰 지혜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간증했다. “하나님께 온전히 정직하여 십일조를 바친 남자와 여자는 …… 나머지 십분의 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며,



이것은 그들에게 더 큰 가치가 되었고, 그들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했음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제가 드리는 이 간증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Conference Report*, Apr. 1912, 30)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십일조를 바치라는 계명에 순종할지 안 할지를 놓고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십일조를 낼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십일조를 꼭 바쳐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북미 대륙 밖에 있는 나라의 교회 지도자 모임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십일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당초 계획에 없던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 나라에서 극히 일부 회원들만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한 십일조를 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몹시 슬퍼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성약의 백성들이 이 중요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지도자들이 그 나라의 스테이크와 지방부 회원들에게 그 원리를 가르쳤기를 바랍니다. 십일조의 법과 그 법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은 모든 나라에 있는 주님 백성들에게 적용됩니다. 저는 우리 회원들이 온전한 십일조를 냄으로써 주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를 바랍니다.”(*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34쪽)

제3니파이 24:16~18. “내가 나의 보석을 꾸미[리니]”

•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보석 중 하나가 되는가? 보석은 시장에서 내재 가치와 외재 가치로 값이 매겨지는 귀중한 광석이다. 말라기와 기타 선지자들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곧 그분께 존경을 보이고 의식을 지키며 “기억의 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보석에 대한 비유를 사용했다.(제3니파이 24:16~18; 또한 교성 60:4; 101:3; 출애굽기 28:15~21 참조) 그러므로 주님의 보석 중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모든 의식과 관련된 성약을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인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기억의 책에 기록될 것이다.

제3니파이 25:1.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 “교만한 자와, 또한 모든 간악히 행하는 자들이” 뿌리와 가지도 남김없이 다 탈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제3니파이 25:1) 이 구절은 제3니파이 25장의 주제를 설명한다. 여러분의

뿌리를 부모 또는 조상으로, 가지를 자녀 또는 후손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뿌리와 가지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성전 의식을 받아야 한다. 주님께서 재림 전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신권 열쇠를 회복하시어 가족들이 뿌리와 가지 둘 다 온전해질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1836년에 인봉 권능이 회복되어 가족이 영원히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교성 110:14~16; 128:18 참조) 그러나 교만한 자와 간악한 자들은 타서 뿌리(조상)와 가지(후손)가 남겨지지 않을 것이며, 가족과 단절되어 인봉을 축복받지 못할 것이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엘리야는 지상에서 매는 의식이 하늘에서도 매이는 인봉 권능을 회복했다. …… 이 고리가 없다면 가족들은 영원히 결합될 수 없으며, 참으로 인간 가족은 ‘뿌리[조상]와 가지[후손]’를 영원히 남기지 못할 것이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1997], 297~298)

제3니파이 25:2. “외양간의 송아지”

• “외양간의 송아지”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니파이전서 22:24 해설(46쪽)을 참조한다.

제3니파이 25:5~6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가 올 것인가?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제3니파이 25:5~6. 엘리야는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 1823년 9월 21일 저녁에 조셉 스미스를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모로나이 천사는 말라기 4장 5~6절(11)에 나오는 예언을 인용했다. 모로나이는 조셉 스미스에게 “성경에 나오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인용했다.(조셉 스미스—역사 1:36~39; 또한 교성 2편 참조) 이 예언은 1836년 4월 3일, 커틀랜드 성전에 엘리야가

나타나 신권 열쇠를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회복시켜 주었을 때 성취되었다.(교성 110:13~16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첫 방문 때부터 성역이 끝날 때까지 말라기의 예언과 엘리야의 사명을 계속 언급했다.

교리와 성약 128편 17~18절에서 예언적인 설명을 한 것 외에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엘리야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 이전에 신권 열쇠를 소유한 마지막 선지자였으며, 모든 의식이 의 안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신권 권세를 회복하고 신권 열쇠를 전달할 선지자였다. 구주께서 이 축복을 부여할 권세와 권능을 지니신 것은 사실이지만 레위의 아들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등등. 왜 엘리야를 보내시는가? 엘리야에게 모든 신권 의식을 집행할 권세의 열쇠가 있기 때문이다. 이 권세를 받지 않고서는 의식이 의 안에서 집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History of the Church*, 4:211)

•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또한 돌이키다는 단어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했다.

“[말라기 4장 5~6절에 나오는] 돌이키다라는 단어는 묶다 또는 인봉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명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야 하는가? 열쇠가 전달되고, 엘리야의 영이 오며, 복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집합하며, 시온이 세워지고, 성도들은 시온 산의 구조자로서 나아와야 한다.

그러나 성도들이 어떻게 시온 산의 구조자가 되는가? 성전을 짓고, 침례반을 만들며, 돌아가신 모든 조상을 대신하여 모든 의식, 즉 침례, 확인, 씻음, 기름부음, 그들 머리 위에 성임과 인봉하는 권능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첫째 부활에 나아와 그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로 승영할 수 있도록 구속한다. 그리고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묶는 고리가 있어 엘리야의 사명이 성취된다.”(*History of the Church*, 6:184)

제3니파이 26:2. “너희가 갖지 아니하였던 이 경전”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한 경전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레이맨인 사무엘 예언이 성취된 일을 경전 기록에 추가시키신 것 외에도(제3니파이 23:7~13 참조) 구주께서는 미대륙 백성들에게 “너희가 갖지 아니하였던 ……

경전”(제3니파이 26:2)을 주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셨다. 그분께서는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 거의 200년 뒤에 살았던 구약의 선지자인 말라기의 기록을 인용하셨다. 말라기는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 200년 후에 살았기 때문에 말라기의 가르침은 노트판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제3니파이 26:6~12. 그들이 이러한 것을 믿을진대 더 큰 것들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로다

• 스펜서 더블류 김블(1895~1985) 회장은 더 큰 계시, 또는 추가 경전을 얻기 전에 우리는 이미 계시된 것들을 읽고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 왔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몰몬경 기록의 나머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중 중에 판에서 인봉된 부분을 읽고 싶으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거의 항상 100퍼센트가 대답에 응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회중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공개된 부분을 읽으신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봉해지지 않은 기록인 몰몬경도 읽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얻기 어려운 극적인 것들을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낮은 율법에 따라 살고 있지 않으면서 더 높은 율법에 따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 Edward L. Kimball [1982], 531~532)

제3니파이 26:19. “그들은 서로 가르치며, 성역을 베풀었고”

• 이것은 모든 경륜의 시대에서 주님의 교회가 따르는 규범이다. 그분의 성약의 백성들은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고 복음의 유대 속에서 서로에게 성역을 베풀다. 주님의 백성은 하나의 큰 가족이기 때문이다.

생각해 볼 점

- 여러분은 매주 표준 경전을 읽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가? 그 시간과 노력 중에 실제로 “상고하는 것”은 얼마큼이라고 생각하는가?
-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을 선조에게 돌이켰는가?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을 돕기 위해 여러분이 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제언 과제

- 경전과 최근 연차 대회에서 현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정기적으로 상고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 제3니파이 24장 8~12절에 언급된 축복 중에서 여러분의 삶에 성취된 것, 또는 십일조의 법에 따라 생활한 다른 사람들에게 성취된 축복들을 목격할 것이 있다면 이를 열거해 본다. 십일조의 법에 충실하게 순종함으로써 오는 축복과 목적을 설명하는 요약문을 쓴다. 여러분이 관찰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
- 성전에 제출할 조상들의 이름을 모아 정리한다. 그들을 위한 성전 의식이 행해지도록 준비한다. 가능하다면, 성전 사업을 완수하는 데 참여한다.

소개

니파이인들에게 베푸시는 성역을 마쳐갈 무렵, 구주께서 그분의 복음을 구성하는 요소를 설명하셨다. 또한 제3니파이 27~30장에는 경전 어느 부분보다도 변화된 존재(니파이인 세 제자)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온다. 28장을 공부함으로써 여러분은 주님께서 왜 몇몇 필멸의 종들을 변화시키기로 결정하셨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3니파이는 후기 이스라엘의 집합에서 몰몬경이 하는 역할에 대한 몰몬의 설명과, 주님께서 (몰몬을 통해) 후기 이방인들에게 회개하여 그분께 돌아오라고 경고하는 내용으로 끝이 난다. [이 부분을 공부함으로써] 여러분은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구주께 나아오라고 권유할 때도 몰몬경을 사용하겠다고 재차 결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을 것이다.

해설

제3니파이 27:3~8. “우리가 이 교회를 일컬을 이름을 우리에게 일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받는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고든 비헝클리(1910~2008) 회장은 교회 회장이 되고 첫 번째로 열린 연차 대회에서 교회 이름에 담긴 신성함과 그에 따른 책임을 말씀했다.

“이 교회는 교회 회장의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모두는 그분의 이름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모세서 1:39) 이 위대한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일과 영광을 위해 그분을 돕고자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맡은 영역에서 저의 책임이 중요하듯이 여러분이 맡은 영역에서 여러분의 책임은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어떤 부름도 작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맡은 의무를 수행할 때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책임에 대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충실하라. 내가 너를 임명한 그 직분을 수행하라. 약한 자를 도우라.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교성 81:5 참조)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너는 네 이웃에게 가장 큰 선을 베풀게 될 것이요, 네 주되는 이의 영광을 증진시키게 되리라.”(교성 81:4)(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69~70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탈매지(1862~1933) 장로는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실 때 사용하신 논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이 대륙의 원주민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바로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열두 명을 선택하여 성임하시고 교회 일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교회를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를 놓고 약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열두 제자들은 자신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들으시겠다고 하신 은혜로운 약속을 기억하였기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의 평의회 모임에 직접 방문하시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교회를 일컬을 이름을 우리에게 일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때] 그분께서 하신 대답을 현대 언어로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왜 질문하느냐? 이것이 누구의 교회이냐? 모세의 교회이냐? 그렇다면, 물론 모세의 이름으로 불러야 하느니라. 만약 이것이 다른 사람의 교회라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교회이면, 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마땅하니라.”(Conference Report, Apr. 1922, 70)

제3니파이 27:5~6. “너희가 그리스도의 …… 이름을 받들어야 한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더불어 순종의 법을 받드는 것과, 성신을 동반하는 축복을 받는 것의 관계를 설명했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받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받드는 것은 이생에서 우리가 하는 가장 중대한 경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 자녀 중에, 또는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뿐 아니라 순종의 법까지도 받들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합니까?

매주 성찬식에서 우리는 구주의 속죄 희생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하며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하신 대로 아버지께 순종하고 항상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는 축복을 받습니다.”(리아호나, 2001년 1월호, 8쪽)

제3니파이 27:13~21

주님께서 복음의 정수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제3니파이 27:13~22.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니라”

•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복음이 지닌 단순함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라고 가르쳤다.

“물론경에서 주님께서 ‘보라 ……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니라’(제3니파이 27:13~18 참조)라고 말씀하신 후 복음에 대해 설명하셨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다. 구주께서는 그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메시아이다.

바로 그 단순한 이야기를 세상은 받아들이지 못하며, 너무 단순해서 어떤 이들은 소위 복음의 단순성 때문에 종종 기분이 상하기도 한다. ……

…… 우리의 믿음과 가치 중 일부는 수용하지만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가 뛰어넘을 수 없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인류 대부분은 우리가 선포하는 것들을 ‘어리석다’고 여긴다.”(For the Power Is in Them [1970], 47~48)

구주께서는 친히 복음을 신앙, 회개, 침례, 성신(제3니파이 27:19~20 참조), 끝까지 견딤(16절 참조)으로 정의하셨다.

그분께서는 또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십자가 위에 들리기”(13~14절) 위해 세상에 오신 자신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제3니파이 27:24~26. 주님께서 책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 “이제까지 기록되어 왔고 또 앞으로 기록될 책들로부터 이 백성이 심판을 받을 것임이니, 그 책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겠음이라.

또 보라, 만사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기록되나니”(제3니파이 27:25~26)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은 기록된 책이 심판 때 하게 될 역할을 설명했다.

“주님은 기록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신권을 소유한 사도, 회장, 감독, 시온의 대제사 여러분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달성해야 할 표준을 보여 주며, 그들이 복음의 영에 따라 생활하고 의무를 다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행위를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침례 받고, 확인 받으며, 안수로 성신을 받는 때를 기록합니다. 그들이 시온에 들어와 교회 회원이 되는 때를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제사, 교사, 집사로서, 장로와 칠십인 혹은 대제사로서 맡은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십일조를 기록합니다. …… 우리는 사람들에게 먼저 의무를 행하도록 요구하고 그 후에 심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Gospel Doctrine, 5th ed. [1939], 157)

제3니파이 27:27.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 칠십인인 존 엠 매드슨 장로는 주님처럼 되라는 그분의 가르침에서 *마땅하다*라는 단어에 중점을 두었다. 매드슨 장로는 주님의 말씀을 권유하기보다는 성약의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와 온 인류는 모로나이가 권고한 대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야만]’(모로나이서 10:32)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분과 같이 ‘되고자’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탈린 에이치 옥스, 리아호나, 2001년 40~42쪽 참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제3니파이 27:27)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라는 그분의 질문에서 사용된 *마땅하다*란 단어의 의미는 그분께서 대답하신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마땅하다(ought)*라는 단어는 ‘필요가 있다’ 또는 ‘의무나 도덕적 책임을 지다’라는 뜻입니다.(*Noah Webster’s*



First Edition of an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7th ed. [1993], ‘ought’;

또한 누가복음 24:26 참조) 고대와 현대의 거룩한 경전은 그분께서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제3니파이 27:27; 또한 제3니파이 12:48; 마태복음 5:48; 요한1서 3:2; 모로나이서 7:48 참조)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성약에 따라 그렇게 ‘되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증거합니다.”(*리아호나*, 2002년 7월호, 88쪽)

제3니파이 28:1~6. 사랑 받던 자, 요한의 소망과 성역

•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우림과 둠뎀을 통해 요한이 죽지 않고 계속 살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배경과 그에 따른 축복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시를 받았다. 이 내용은 요한이 친히 기록하고 감추어 두었으나 분실된 것이 분명한 “양피지”에 나온다. 1829년 4월, 조셉과 올리버는 몰몬경에 나오는 이 구절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고, 교리와 성약 7편에 기록된 계시를 받았다.

제3니파이 28:9~10, 36~40. 변화의 교리

• 다음 정의들은 변화(translation), 변형(transfiguration), 부활의 교리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변화된 존재와 일시적으로 변형된 상태의 차이점에 주목한다.

변화된 존재(Translated beings). “불멸의 부활 때까지 고통이나 사망을 경험하지 않도록 변화된 사람들.”(경전 안내서, “변화된 존재”)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교리를 인간이 즉시 하나님 면전으로 가서 영원한 충만함을 누리려는 교리라고 여기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달의 왕국의 반차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장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행성에 천사의 성역을 베풀도록 그러한 사람들을 따로 예비해두셨다. 따라서 변화된 사람들은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처럼 온전한 충만함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다.” (조셉 스미스, *History of the Church*, 4:210)

변형(Transfiguration). “하늘의 존재의 임재와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모습과 본질이 변화된, 즉 보다 높은 영적 수준으로 올려진 사람들의 상태.”(경전 안내서, “변형”)

부활. “사망 후에 영체가 살과 뼈로 된 육체와 재결합하는 것. 부활 후 영과 육은 결코 다시 분리되지 않을 것이며, 사람은 불멸의 상태가 될 것이다.”(경전 안내서, “부활”)

제3니파이 29:1~4. 이스라엘 자녀들과 맺은 성약

•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하나님의 성약을 성취하는 데에서 몰몬경이 하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 놀라운 [구주께서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신] 날들에 대한 기사를 마치면서 몰몬은 ……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에 대한 기록이 (몰몬경이라는 형태로) 이방인들에게 나아갈 때, 이로써 후기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약과 약속들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줄을 모두 알게 될 것이라고 간증했다. ……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성약의 백성과 맺으신 성약은 지켜질 것이다. 아무도 이에 대해 ‘주의 오른손을 왼쪽으로 돌[릴]’수 없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 대한 외침은 그들이 동일한 성약과 약속을 받게 하는 데 있다.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신 기록이 몰몬경으로 출판되어 최종적으로 이 후기에 선포된 것이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1997], 308)

제3니파이 29:4~7

몰몬은 주님께서 후기에 주시는 계시들을 거부하는 이들의 행위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그들이 받게 될 벌은 무엇인가?

제3니파이 29:4~8. 주의 말씀을 경멸하지 말라

• 제3니파이 29장에 나오는 *경멸하다*와 *비웃다*라는 단어는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성약을 가볍게 다루지 말도록 후기의 몰몬경 독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이다. *경멸하다(Spurn)*라는 말은 “멸시하며 거절하다”라는 뜻이고 *비웃다(hiss)*라는 말은 “야유로 경멸이나 불만을 표시하다”라는 뜻이다. (*Noah Webster's First Edition of an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828* [1967]) 이러한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몰몬경이 출현하는 때에 재림의 실재성과 이스라엘을 집합(특히 유다 지파)하는 주님의 사업에 대한 이해, 믿음, 경건성이 없으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제3니파이 30:2.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 구주께서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신 기록을 끝맺으면서, 몰몬은 주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다시 설명했다. 그것은 후기에 이방인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거부할 것이며 급속도로 사악해져서 멸망에 이른다는 것이다. (제3니파이 16:10; 21:14~21 참조) 제3니파이에 담긴 기록은 몰몬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마지막 간증에서 후기의 사악하고 완악한 자들과 부패와 위선을 꾸짖으신 구주의 가르침과 예언을 다시 언급했다. 제3니파이 마지막 구절들에서 몰몬은 이 멸망을 피하는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갖고, 죄를 회개하고, 침례 받고,

성신으로 충만하게 되어 “이스라엘 집에 속한 내[주님] 백성과 함께 헤아림을 받[는]”(제3니파이 30:2) 것이다.

생각해 볼 점

-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구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왜 중요한가?
- 구주의 이름을 좀 더 온전히 받들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 *변화(translation)*와 *변형(transfiguration)*은 어떻게 다른가? 이 두 가지는 어떤 점이 비슷한가? *변화*와 *변형*은 부활과 어떻게 다른가?
- 몰몬은 몇 가지 사악한 것들을 설명했다. 이것들이 오늘날 세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제언 과제

-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주의 특성을 몇 가지 적어본다. 이 특성들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생활을 점검해보고 “나와 같은 자”가 되라고 하신 구주의 명령을 더 잘 성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다. (제3니파이 27:27 )
- 제3니파이 27장 5절과 성찬 기도문(모로나이서 4:3; 5:2)을 읽는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들을 찾아본다.

소개

제4니파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신 후 약 200년 간 단합과 조화를 이룬 기사를 다룬다. 백성들은 “모두 주께로 돌아왔고”(제4니파이 1:2) 그 결과 모든 시대 백성들이 꿈꿔 온 사회가 건설되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그리스도의 방문 이후에 “그분의 놀라운 가르침과 기쁨 있는 영은 가장 행복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저들 중에 다툼이나 논쟁이 없었으며, 사람마다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 또 저들은 저들 가운데 모든 것을 공유하였나니, 그러므로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이 저들이 모두 자유롭고 하늘의 은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더라.’[제4니파이 1:2~3] 이러한 축복된 상황은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다시피 에녹성입니다. 그곳에서는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모세서 7:18]”(Conference Report, Apr. 1996, 40; 또는 *Ensign*, May 1996, 30)

비극적이게도, 제4니파이 후반부에는 의롭고 행복한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교만과 배도가 일어나는 것을 목인하여 결국 사회가 몰락에 이르는 경위가 잘 나타난다. 제4니파이를 공부하면서 어떤 요소 때문에 니파이인 사회가 행복해졌고, 또 어떤 요소 때문에 그 사회가 불행과 멸망에 이르렀는지를 알아본다.

해설

제4니파이 1:2. “백성이 모두 주께로 돌아왔고”

- 제일회장단의 매리온 지 롬니(1897~1988) 회장은 참된 개종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웹스터 사전에는 ‘개종하다(convert)’라는 동사가 ‘한 신앙에서 다른 신앙으로 전환하다’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개종’은 ‘영적 및 도덕적 변화입니다. ……’ 경전에서 사용된 것처럼 ‘개종했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그 가르침을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과 복음을 믿는 신앙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앙은 인생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관심사,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에 실제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

온전히 개종한 사람의 마음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대적인 [반대되는] 것들에 대한 욕망이 사실상 사라지고,

대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확고하고 강한 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합니다. ……

…… 이런 면에서 보면, 교회 회원이 되는 것과 개종이 반드시 같은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종하는 것과 …… 간증을 갖는 것 또한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간증은 진지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성신이 진리에 대한 증거를 줄 때 생깁니다. 살아 있는 간증은 신앙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즉, 회개와 계명에 대한 순종을 촉진시킵니다. 한편, 개종은 회개와 순종의 열매 또는 보상입니다.”(Conference

Report, Oct. 1963, 23~24)

제4니파이 1:2. “저들 중에 다툼이나 논쟁이 없었으며”

- 교회 회원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관해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웃의 이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순전한 눈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니라.”(교성 82:19)

- 오늘날 세상에서 다툼이나 논쟁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은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다.

“첫째, 우리는 영혼을 함정에 빠뜨리고 마음을 위축시키며, 정신을 어둡게 하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

둘째, 우리는 다른 사람과 완전하게 협동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며 일해야 합니다. ……

셋째, 우리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제단에 올려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제3니파이 9:20]을 제물로 바칩니다.”(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30쪽)

제4니파이 1:1~4, 16~17

개종한 사람들의 특성을 열거한다.

제4니파이 1:2. “사람마다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

• 칠십인인 셸든 에프 차일드 장로는 정직과 고결성에 대해 말씀하면서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말하면, 그것을 행합니다.

결심을 하면, 그것을 지킵니다.

부름을 받으면, 그것을 이행합니다.

뭔가를 빌리면, 그것을 돌려줍니다.

빛을 지면, 그것을 갚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그것을 지킵니다.”(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29쪽)

• 제일회장단의 엔 엘든 태너(1898~1982) 회장은 다른 사람을 바르게 대해야 하는 중요성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얼마 전에 한 젊은이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과 해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지불을 제때에 하지 못해] 현재 연체 중이고, 지불금을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불금을 내려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십시오.’

‘집을 잃으면서까지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형제님의 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님의 계약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형제님의 부인이 성약과 맹세를 지키지 않는 남편과 함께 집을 소유하며 사는 것보다 세를 사는 일이 있어도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남편을 더 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Conference Report, Oct. 1966, 99)

제4니파이 1:3. “저들은 저들 가운데 모든 것을 공유하였나니”

• 니파이 백성들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저들 가운데 모든 것을 공유”(제4니파이 1:3)했다는 것이다. 매리온 지 롬니 회장은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설명했다.

“이 범협동교단은 사유 재산에 대한 각 개인의 권리와 자산을 관리할 권리는 보호합니다. …… 모든 사람은 …… 자신의 몫을 소유하거나 상속하거나 관리하며 자의에 따라 그것을 양도하거나 보유하고 관리하거나 소유할 수 있습니다. ……

…… 자신이 생산한 것 중 자기 가족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고 남는 것을 교회에 헌납하는 것입니다. 이 잉여분이 창고에 들어가면 그 관리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곳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됩니다.”(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98쪽)

롬니 회장은 또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이끄는 동기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품는 상태에 도달할 때 서로 봉사하려는 열의가 커져서 온전히 헌납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헌납의 법대로 살면 가난한



사람들이 높아지고 부자는 겸손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양자가 모두 성결하게 됩니다. 빈곤이 처놓는 굴욕적인 제한과 속박에서 벗어난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인으로서 세상적로나 영적으로 자신의 잠재 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부자는 강제가 아닌 자유 의지로 끼꺼이 잉여물을 헌납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몰몬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모로나이서 7:47)이라고 묘사한 그런 사랑을 이웃에게 보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있는 공통분모가 형성됩니다.”(성도의 빛, 1982년 4월호, 142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우리가 어떻게 헌납의 법에 따라 살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십일조의 법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더 높은 헌납의 법에 따라 살도록 준비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 더 높은 율법대로 살아야 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해마다 수입 중 십분의 일을 아낌없이 드리는 십일조의 율법에 따라 살라는 명을 받습니다.”(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26~27쪽)

제4니파이 1:5.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기적

•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은 기적이 과거에 일어났듯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을 다 기록한다면 그 기록이 실린 책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많은 도서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계시, 시현, 방언, 병고침, 특별한 인도와 지시, 악한 영을 몰아내는 것 등 온갖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들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교회 기록과 일지, 뉴스 및 잡지 기사, 그리고 많은 사람의 마음과 기억에 기록됩니다.”(*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 Edward L. Kimball [1982], 499)



제4니파이 1:13, 15~16. “온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 다툼이 없었으며”

•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셀 엠 넬슨 장로는 제4니파이에 기록된 큰 평화의 근원에 대해 설명했다.

“개인적인 평안은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얻습니다. 다음 경전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백성들의 마음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다툼이 없었더라.’(제4니파이 1:15; 기울임체 첨가; 또한 1:2 참조)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계명, 곧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키울 때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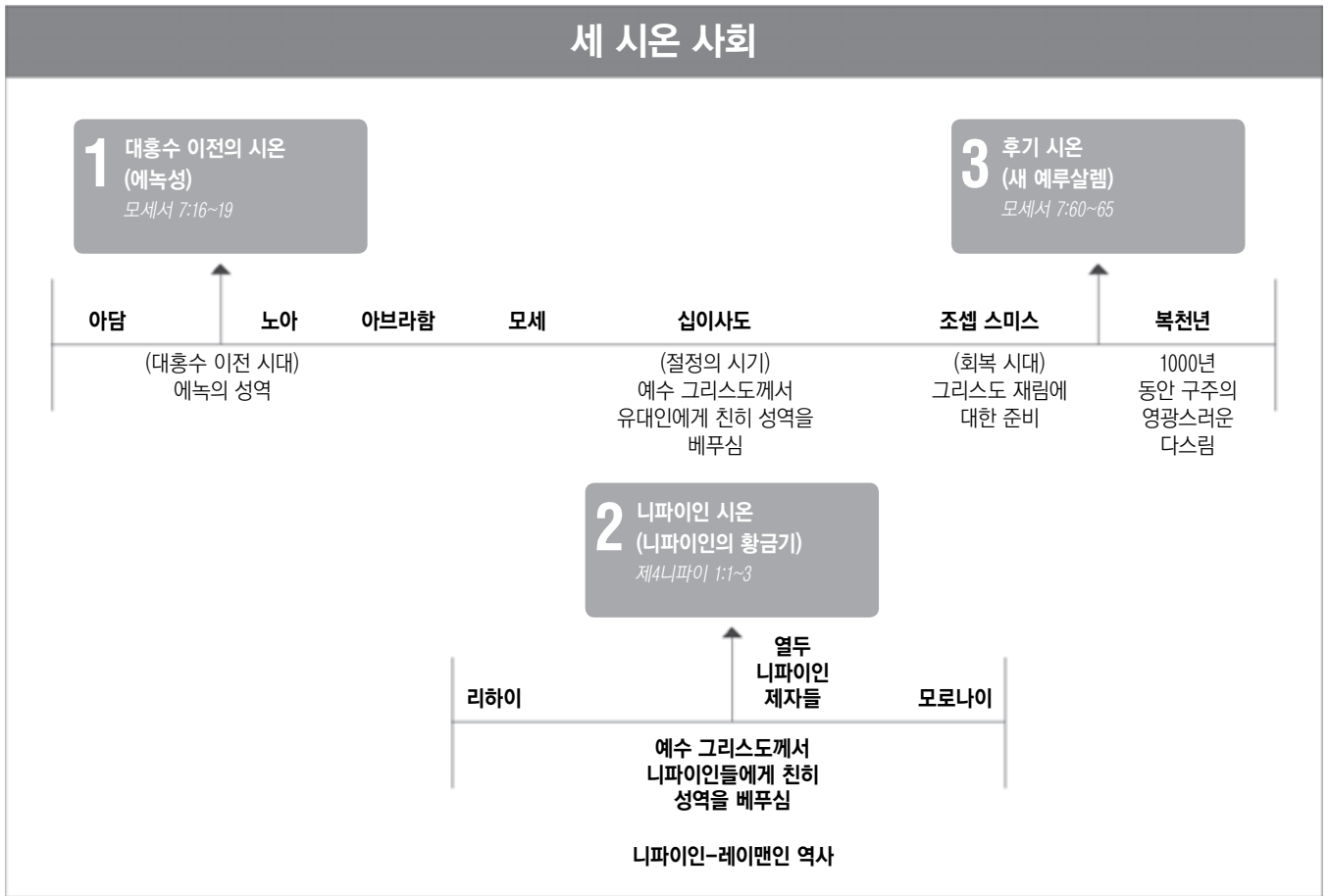
자연히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본받을 것입니다. 그분은 병자를 고쳐 주셨고, 위로해 주셨으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9; 또한 제3니파이 12:9 참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분쟁이라는 무서운 독소로 야기된 고통은 영혼에서 소멸될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는 ‘지상에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그것이 제게서 시작되게 하소서’(Sy Miller and Jill Jackson, ‘Let There Be Peace on Earth’ [Beverly Hills, Calif.: Jan-Lee Music, 1972])라는 개인적인 맹세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결심은 가족과 친구에게 확산되어 이웃과 온 나라에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분쟁을 피하고, 경건을 추구하십시오. 영원한 진리로 깨우침을 받으십시오. 사랑 안에서 주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신앙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빌립보서 4:7)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 여러분과 앞으로 올 세대인 여러분의 후손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86쪽)

제4니파이 1:15~17. 시온 사회

• 십이사도 정원회의 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제4니파이 1장 15~17절에 기록된 상태를 시온 사회로 설명했다. 이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다. ‘신세계 곧 미대륙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은 그 훌륭한 세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들 중에 다툼이나 논쟁이 없었으며, 사람마다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제4니파이 1:2) 제4니파이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백성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있을 수 없었더라.’(제4니파이 1:16)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 다시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대 계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시온은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더해져야 하느니라.’(교성 82:14)”(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28쪽)(후기 시온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324쪽에 나오는 제3니파이 20:21~22; 21:23~29 해설을 참조한다.)



제4니파이 1:16~17. 무슨무슨 인이라고 불리는 일이 없었다

- 땅에 단합과 평화가 가득하였기에, 물몬경에서 이전에 레이맨인과 니파이인으로 구분되었던 집단이 각자 세상적 전통을 버리고 “하나로서,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제4니파이 1:17)가 되는 교리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받아들였다. 복음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모사이야서 16:1)에게 전파될 때 교회가 처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하나”가 되는 것, 또는 회원들이 단합하는 것이다. 여러 인종과 문화, 전통이 함께 섞일 때는 단합을 이루는 일이 어려울 수 있다.
-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은 문화, 인종, 또는 전통이 서로 다르더라도 단합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다.

“저에게는 문화나 민족이 다른 많은 곳을 방문하는 특별한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그곳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어떠한 신앙과 영성에도 민족과 신분에 우월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민족과 문화와 국적에 관계없이 영성에 관심이 덜한 사람들은 구주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누가복음 8:14)들입니다. ……

우리 교회의 복음이 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면서 교회 내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믿는 것[에] …… 하나가[에베소서 4:13] 될 수 있습니다. 각 부류는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주님의 식탁으로 가져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서 많은 가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단합과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모든 성약과 의식과 교리를 누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다양한 민족, 문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60~61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더 나아가 교회 회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상충되는 문화적 전통, 인종적 전통, 또는 그밖에 기타 전통을 버리라고 권고했다. 이런 전통은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한 혈통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로부터 여러분이 인종, 문화, 전통이라는 유산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혈통 때문에 귀중한 유산과 큰 기쁨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러한 유산 가운데 혹시 주님의 행복의 계획과 어긋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버리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되는 데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의 가르침을 삶의 기초로 삼을 때, 행복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더 큰 평안을 얻는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가족이나 국가의 전통 혹은 관습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상충되면, 그것을 버리십시오. 전통과 관습이 그분 가르침과 조화를 이룰 때는 여러분의 문화와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그것을 소중히 하고 따르십시오. 여러분이 절대로 변화시켜서는 안 될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라는 존재에서 비롯되는 유산입니다. 행복을 위해, 그 유산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십시오.”(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87쪽)

제4니파이 1:20. “다시 레이맨인이 생기니라”

- 분열은 불의에 따른 결과이다. 다음 글은 교만이 그런 모든 분열의 시작이며 일부 사람들이 “모반하여 교회를 떠나” 스스로를 레이맨인이라고 칭한 이유라고 설명한다.(제4니파이1:20)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중요할까? 그들에게는 왜 레이맨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이름 또는 저 이름으로 불리기 위해 단합이라는 훌륭한 특권을 저버리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교만, 다르기를 바라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대중의 주목을 받고 싶은 욕구다. 의로운 사람들은 주목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칭찬 받고자 하는 욕망, 인정을 바라는 성향이 없다. 교만한 이들은 자신의 방법이

틀렸을 때조차도 그 방법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만한 이들은 자신 가는 길이 크고 넓은 멸망에 이르는 길인데도 자신의 길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Joseph Fielding McConkie, Robert L. Millet, and Brent L. Top, *Doctrinal Commentary on the Book of Mormon*, 4 vols. [1987~1992], 4:204~205)



제리 톨슨 © IRI

제4니파이 1:24. “교만 중에 자고하게 된 자들”

- 물론경 역사에서 여러 차례 백성들은 의로움, 변영, 부, 교만, 사악함, 멸망, 겸손 그리고 다시 의로움으로 이어지는 주기를 거쳤다. 더 자세한 내용과 교만 주기를 보여 주는 도해를 보려면 부록(413쪽)에 나오는 “의로움과 간악함의 주기”를 참고한다. 힐라맨서 3:33~34, 36; 4:12 해설(263쪽), 힐라맨서 12:5~6 해설(277쪽)을 참조한다.

제4니파이 1:24~30
 이 구절을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과정을 알아본다.

제4니파이 1:36.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

-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구주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을 규정하는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참된 신자는 관점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약점이 있지만, 영성의 중심을 구주께 두므로 모든 사물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맡은 의무를 기쁘게 수행합니다. 대체로 이 의무는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일들입니다.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고, 그리스도인다운 봉사를 하며,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의식을 받고, 가족으로서 책임을 행하고, 십일조와 헌금을 내는 것이 포함됩니다.

참된 신자는 겸손합니다. 그들은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모로나이서 7:43]합니다. 쉽게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다. 권고를 잘 받아들입니다.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기꺼이 행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쌓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기꺼이 자신을 맡깁니까? 아니면 뒷걸음질칩니까? 영혼을 넓히는 일들은 필연적으로 기꺼이 손을 내미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참된 신자는 만족 면에서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현 상태에서 만족하는 것과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바라는 소망 사이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참된 신자는 참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진지합니다. 참된 신자의 기도는 때때로 영감을 받습니다.

참된 신자는 올바른 행동을 하며, 행동하는 근거가 올바릅니다. 그들은 주님과 맺은 관계가 확고하여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선행을 합니다.

참된 신자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기뻐합니다. 그들은 동료들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잊는 것이 용서에 속하는 일이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성 58:42)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모범을 따릅니다.

참된 신자는 죄에 대해 결백하지만 그저 천진난만하고 세상 물질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은 친절하나 공정합니다. 그들은 동료들 사랑합니다.

참된 신자는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신자는 '슬픈 표정' 대신 의로운 일을 하려는 열의를 보입니다. 그들은 진지한 태도로 생활하지만 활기차게 행동합니다."("참된 신자", 성도의 빛, 1994년 12월호, 11~14쪽)



제4니파이 1:38~39. "그들은 그 자녀들을 가르쳐 믿지 않게 하였도다"

• 러셀 엠 벨슨 장로는 부모들에게 자녀의 마음에 분열이나 편견을 심는 꼬리표를 달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니파이인들이 진실로 의로웠을 때, 이전에는 늘 있던 분열이 없어졌습니다. '백성들의 마음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

불행하게도 이 이야기의 속편은 행복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행복한 상황은 '백성 중 소수의 부류가 모반하여 스스로 레이맨인이라 하는 이름을 취하는 일이' [제4니파이 1:20] 생기면서 중단되었고, 옛 편견이 되살아나 자녀들에게 '레이맨인들이 처음부터 니파이의 자손을 미워하도록 가르침을 받은 것같이' [제4니파이 1:39] 다시 미워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열 과정이 완전히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중요한 교훈을 배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서 차별을 뜻하는 명칭을 없애 버리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라디아서 3:28; 또한 골로새서 3:11 참조]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그에게로 나아와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권하시며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는 검거나 희거나, 맴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다.'[니파이후서 26:33]고 말씀하셨습니다."("A More Excellent Hope," *Ensign*, Feb. 1997, 63)

제4니파이 1:42~46. 은밀한 맹세와 결사

• 분쟁과 비밀 결사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힐라맨서 1:1~21 해설(261쪽)과 힐라맨서 1~2장 해설(262쪽)을 참조한다.

제4니파이 1:46.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의로운 자가 없었다

• 제4니파이 1장 46절을 읽고 나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과 세 니파이인만이 니파이 백성 중에 남은 유일한 의인들이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몰몬은 엘마서 45장 13~14절에서 이 점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다. 이 구절들에 따르면 몰몬경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화평한 중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모로나이서 7:3) 또한 예수님의 제자를 일컫는 말이다.

생각해 볼 점

- 제4니파이 전반부에 묘사된 것과 같은 사회에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에서 이와 같은 조화와 평화를 누리기 위해 여러분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 제4니파이 후반부에서 백성들은 멸망으로 이끄는 두 가지 양상에 빠졌다. 첫째, 교만(제4니파이 1:24~43; 또한 제3니파이 6:28~29 참조), 둘째, 비밀 결사.(제4니파이 1:42~46; 또한 제3니파이 6:28~29 참조) 이 양상은 이터서에서 다시 나타난다.(이터서 11장 12~14절에 나오는

교만; 그리고 이터서 13장 15절에 나오는 비밀 결사) 200년간 평화와 번영을 누리다가 끝부분에서 니파이인들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언 과제

- 제4니파이에는 분쟁과 분쟁을 없애는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근원을 규명한 후, 분쟁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한다.

소개

몰몬은 주님께서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신 일과 그 뒤에 200년간 이어진 평화로운 시대에 관한 기사를 요약한 후, 201년째부터 교만과 분열, 간악함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기록했다.(제4니파이 1:24~47 참조) 몰몬서에서 우리는 몰몬이 직접 목격한 사건들을 읽게 된다. 이 기사에 니파이인 문명이 종말을 맞은 이야기도 들어 있다. 몰몬서 1~6장에서 우리는 민족이 파멸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몰몬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다. 이 파멸은 니파이인들이 주님과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초래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그러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다.

해설

몰몬서 1:1. “나 몰몬은”

-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이렇게 가르쳤다. “몰몬이란 단어는 더 많은 선미덕이라는 뜻이다.”(*History of the Church*, 5:400)
-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몰몬의 생애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지칭하는 명칭이 된 몰몬이란 이름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저는 잠시 몰몬이라는 분의 위대함과 선함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몰몬은 주 후 4세기에 미대륙에 살았습니다. 엠마론이라는 역사가는 열 살 난 소년인 몰몬을 ‘진지한 아이요,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르다]’고 묘사했습니다.(몰몬서 1:2) 엠마론은 몰몬에게 24세가 되면 이전 세대들에 관한 기록을 맡아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로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 사이에 끔찍한 전쟁이 오래도록 지속되었기 때문에 몰몬은 조국을 위해 피를 흘리며 싸워야 했습니다. 몰몬은 나중에 니파이인 군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대량 학살되는 것을 지켜본 몰몬은 백성들이 주님을 저버렸기에 주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셨으며, 그것이 바로 그들이 계속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



몰몬은 우리 세대를 향해 경고하고 부탁하는 말씀을 기록했고,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힘 있는 간증을 전했습니다. 몰몬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재앙을 겪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생존자를 수색하는 적들 손에 자신의 삶이 곧 끝나게 되리라는 것을 안 몰몬은 우리 세대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니며 살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영원히 견뎌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이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 될 것임이니라.’(모로나이서 7:47)

선지자이자 지도자인 몰몬은 것처럼 선한 성품과 능력과 믿음, 그리고 선지자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성도의 빛*, 1991년 1월호, 62쪽)

몰몬서 1:16.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하였음이라

-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몰몬의 영적 성숙도를 죄 많은 상태에 빠진 몰몬의 백성들과 대조했다. 몰몬에게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전파하고자 하는 의로운 소망이 있었지만 반항하는 백성들의 태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금지되었다. “열다섯 살이었지만 성숙했던 몰몬은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시대적 절망에 굴하지 않았다. 그 결과 몰몬은 ‘주의 방문을 받았고, 예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으며]’ 백성들에게 용감하게 전파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많은 빛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종종 그렇게 하시듯이, 몰몬은 자신의 입을 열지 않았다.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에게 [회개를] 전파하는 일은 금지되었다. 이 백성들은 변화된 세 니파이인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와 기적들을 거절했다. 따라서 이 제자들 또한 침묵하고 백성들을 떠났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1997], 318)

- 칠십인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딘 엘 라슨 장로는 하나님께 거역하는 이유는 개인에게서 비롯되며,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파괴적 결과로 번진다고 설명했다.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정해 주신 인생 길에서 벗어나 표류하는 상황은 각자가 주님의 표준을 타협하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고의로 범법하고 이를 회개하지 않을 때 특히 그렇다. 몰몬이 참된 길에서 벗어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대해 무엇이래 설명했는지 기억하자. 그들은 무지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것은 집단적으로 일어난 움직임이 아니었다. 교회 회원들 개개인이 고의로 주님의 표준을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타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자신이 어긋난 길로 들어선 것을 정당화하려 했다.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곧 마음이 더 편할 수 있고 잘못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자신만의 표준을 세우려 한다. 또한 이 자기망상의 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 이들과 연합하려 한다.

표류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진다. 이것은 ‘크고 넓은 건물 증후군’으로 표현될 수 있다. 표류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공공연히 자신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과 같다고 여기고 그들과 함께 활발히 교류할 때 표류는 점점 더 위험해진다. 한때 분명했던 가치와 표준들은 희미해지고 불확실해진다. 이 참된 원리가 흐려지는 것이 행동 규범에 반영되기 시작한다. 한때 혐오감을 일으키고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은 이제 다반사가 된다.”(“*Likening the Scriptures unto Us,*” Monte S. Nyman and Charles D. Tate Jr., eds., *Alma, the Testimony of the Word* [1992], 8)

몰몬서 1:19. 요술과 마술과 마법

-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은 사탄의 비밀에 흥미를 갖지 말라고 경고했다. “사탄과 그의 비밀에 흥미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악을 가까이 하는 데서

어떠한 좋은 일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불장난처럼 화상을 입기가 너무 쉽습니다. …… 유일하게 안전한 길은 사탄과 그의 사악한 활동이나 못된 행위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뿐입니다. 악마를 숭배하는 행위, 마법, 요술, 원시 종교, 마술 및 다른 모든 귀신 숭배의 형태를 역병을 피하듯 최선을 다해 피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37쪽)

몰몬서 2:13. “정죄 받은 자들의 슬퍼함”

-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과 “정죄 받은 자들의 슬픔”을 대조했다. “죄를 인식하면 진정으로 후회하는 마음이 마치 홍수처럼 영혼을 덮쳐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상 근심’이거나 ‘죄 중에서 행복을 취[할] 수 없는 ‘정죄 받은 자들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고린도후서 7:10; 몰몬서 2:13)입니다. 실패에 연연하는 것은 잘못된 양심의 가책입니다. 형식적으로 후회하는 것은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실수만 슬퍼하는 일일 뿐입니다.”(*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35쪽)

에즈라 테프프 벤슨(1899~1994) 회장은 정죄 받은 자들의 슬픔과 대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특성을 설명했다. 이 대조에서 우리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회개로 이어지는 슬픔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영의 은사이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깊은 자각이다. 우리의 행동 때문에 죄를 모르시며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주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모든 땀구멍에서 피를 흘리셨다. 이 정신적, 영적 고통이 바로 경전에서 말하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다.(교성 20:37) 이런 심령은 참된 회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결 조건이다.”(*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72)

몰몬서 2:15. “은혜의 날이 …… 지나가 버림”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몰몬의 기사 중에서 백성을 구원할 시간이 지나 버렸다는, 이 두려움을 주는 구절에 대해 설명했다. “니파이인 역사가 시작된 지 950년이 채 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방문하신 지 300년이 지난 이 순간에 몰몬은 이제 역사가 끝나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마도 몰몬이 쓴 기사 중 가장 소름 끼치는 구절일 이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은혜의 날이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그들과 함께

지나가 버림을 보았으니 그의 백성들은 가장 뼈아픈 교훈을 배웠다. 하나님의 영이 항상 인간과 애쓰지는 않는다는 점, 집단으로나 개인적으로 때를 놓쳐 버릴 수 있음을 배웠다. 회개의 날은 지나가 버릴 수 있으며, 실제로 니파이인들이 그러했다.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공공연히 거역하는 가운데 배어[졌다.]’ 그리고 교훈이 너무도 생생하게 설명된 이 은유처럼 그들은 ‘지면 위에 분토처럼 되어 쌓[였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319)



•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은 오늘날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회개의 은혜를 스스로 받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회개의 위대한 원리가 항상 적용된다는 것은 사실이나 악한 사람이나 반항적인 사람에게는 이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면 죄는 상승적인 특성이 있어서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지점에까지 이르게 한다. …… 범법자가 죄에 더 깊이 빠지며, 과오에서 헤어날 수 없게 변해 보겠다는 의지가 약화될수록 희망을 잃고 다시는 기어오를 수 없거나 그렇게 할 힘을 잃게 되는 상태까지 점점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만다.”(용서가 낳는 기적 [1969], 111쪽)

물몬서 2:19

백성의 사악함 때문에 슬픔에 잠긴 와중에도 물몬이 희망을 얻은 이 구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물몬서 2:26. “우리는 버려진 바 되어”

•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일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도와 주시는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물몬은 백성들이 간악해져서 예전에 그들을 보호해 주시던 주님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기록했다. 레이 에이치 우드 장로는 칠십인 일원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후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보호와 힘을 주는 영향력을 거두십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권능을 잃게 될 때,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며, 결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느니라.’(교성 82:10) 악행에서 절망이 옵니다. 악행에서 슬픔이 생기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니파이후서 31:20)은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홀로 서게 됩니다.”(리아호나, 1999년 7월호, 48쪽)

물몬서 3:8~11. 물몬은 사령관이 되기를 거절했다

• 물몬은 대략 35년 동안 백성을 인도했으나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물몬은 직접 만들고 있던 물몬경 요약본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 그는 모로나이 대장과 힐라맨이 전장에 나간 정당한 사유를 알게 되었다.(앨마서 43:9~58:12 참조) 그들은 국가와 가정과 아내와 자녀와 권리와 특권과 자유와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전투에 나섰다. 물몬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전쟁의 목적을 가르쳤다.(물몬서 2:23~24 참조) 물몬 시대에 니파이인들이 레이맨인들과 대적한 동기는 “원수[를] …… 갚[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으며, 물몬은 그 “간악함과 가증함”이 큰 것을 보고서 군대를 이끌지 않겠다고 일시적으로 거절했다.(물몬서 3:9~14)

물몬서 3:9; 4:8. 자랑

•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우리 자신의 힘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인식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의로운 노력으로 얻은 수확으로 기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신명기 8:17)고 합리화할 것입니다. 또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뽐내며(사사기 7:2), (기드온의

사려 깊은 소규모 군대를 제외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손을 과대선전하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기가 두 배로 힘들어집니다.(엘마서 14:11; 교성 59:21 참조)(*리아호나*, 2002년 7월호, 41쪽)

물문서 3:12.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 감리 감독단에서 봉사하던 시절에 글렌 엘 페이스 감독은 물문이 보여 준 사랑을 따르고자 노력하라고 가르쳤다. “이 선지자는 타락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이 조그만 사랑에 만족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힘차게 전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악에 대해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빛을 밝혀 어둠을 몰아내며 진리로 거짓을 대항해 싸울 때, 그 전투에서 부상당하여 쓰러진 이들의 상처를 싸매야 하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왕국에는 운명론을 수용할 자리 따위는 없습니다.”(*성도의 벗*, 1991년 1월호, 9쪽)

물문서 3:18~22. 우리의 심판

-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우리를 심판하는 데에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스도 아래에는 많은 심판관이 있으며, 그들이 의로운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간악한 이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단독으로 지옥을 판결하실 것이다.”(*The Millennial Messiah* [1982], 520)

경전에서는 최소한 다섯 가지 요소로 심판의 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르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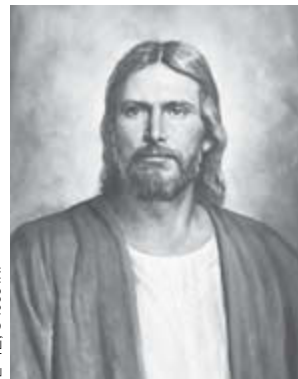
1. 우리 자신(엘마서 41:7; *History of the Church*, 6:314 참조)
2. 우리의 감독(교성 41:9; 58:14, 17~20; 64:40; 72:17 참조)
3. 경전(요한계시록 20:12; 니파이후서 25:18; 29:11; 33:14; 제3니파이 27:25~26 참조)
4. 사도들(마태복음 19:27~30; 니파이전서 12:9; 제3니파이 27:27; 물문서 3:18; 교성 29:12 참조)
5. 예수 그리스도(요한복음 5:22; 제3니파이 27:14 참조)

- 존 테일러(1808~1887) 회장은 우리를 심판하는 일에서 사도들이 맡은 역할을 더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스도께서

맨 위에 서실 것이다. …… 예루살렘의 열두 제자들은 열두 지파의 심판관이 되고, 이 대륙의 열두 제자들은 니파이 후손들의 심판관이 되고, 야렛의 형제와 야렛이 야렛인과 그 후손들의 심판관이 되며, 더 나아가 우리 시대에 직분을 맡은 제일회장단과 열두 사도들이 이 경륜의 시대를 산 인류를 심판하는 일은 온당해 보인다.”(*The Gospel Kingdom*, sel. G. Homer Durham [1987], 138)

물문서 3:20~22; 5:12~14.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훈계

-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물문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라고 간증했다. “이 신대륙의 경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엘 페이스 © 1983 IRI

신성과 실제, 그분의 속죄 은혜, 그리고 그분이 어두운 무덤에서 나오셨음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 물문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실 주님에 관한 예언이 나타나는 확실한 말씀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실

주님의 일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대신해 제물로 바쳐져야 하는 흠 없는 어린 양의 죽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서반구 사람들을 방문하신 감동적이고 영감 어린 사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간증은 여기에서 다루어지고 읽혀집니다. 여기에서 이 간증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진실성과 확실성을 알고자 기도하는 사람은 성신의 권능으로 알게 된다는 약속이 있기에 사람들은 기도하게 됩니다.(모로나이서 10:3~5 참조)(*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72쪽)

물문서 4:23. 판이 옮겨진 경로에 관한 간략한 개요

- 엠마론은 물문에게 시므 산으로 가서 니파이 큰판을 취하여 그 위에 말씀을 추가하라고 했다. 물문은 나머지 판(눗쇠판, 니파이 작은판, 이터판)을 시므 산에 남겨두었다.(물문서 1:2~4 참조) 물문은 큰 판을 취해서 그 위에 백성들이 행한 일을 모두 기록한 다음,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정하여 백성에 관한 간략하고 축약된 역사를 만들었다.(물문서 2:18 참조) 후에 물문은 시므 산에 다시 가서 나머지 판들(눗쇠판, 니파이

작은판, 이더판, 기타 판들)을 모두 취했다.(물몬서 4:23 참조)
레이팬인들이 그 기록들을 파괴할 것이 두려웠던 물몬은
요약본과 니파이 작은판(금판)만 남겨 두고 다른 판들을 쿠모라
산에 다시 감추었다.(물몬서 6:6 참조) 물몬은 이 금판을 아들
모로나이에게 주었다.(물몬서 6:6; 물몬의 말씀 1:1~7)

물몬서 5:12~14

물몬은 자신이 기록을 작성하는 주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또한 물몬서 3:20~21 참조)

**물몬서 5:16. 영이 “그들의 조상과 함께 애쓰시기를
그치셨고”**

• 해럴드 비 리(1899~1973) 회장은 간악한 물몬 시대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성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도 잃었다고
설명했다. “물몬은 주님의 영이
떠난 백성들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그 기사를 읽을
때 물몬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단순히 성신의 은사나
동반을 누릴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진리의 빛에
대해 말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진리의 빛은 개인이 죄를 지어 그것을
잃어버리지만 앓는다면 그 사람과 함께 애쓰기를 그치지
않습니다.”(Conference Report, Apr. 1956, 108)



물몬서 5:17. “한때 기뻐하심을 입던 백성”

• 물몬은 그의 백성이 타락한 상태를 슬퍼했다. 그들은
한때 “기뻐하심을 입던” 백성이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기뻐하심을 입는 축복과 그러한 상태가 되기 위한 요건을
말씀했다. “지혜와 지식, 지식의 감추인 보화까지 받는 큰
축복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에 순종한다면 우리 땅이
아름다워지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땅을 사람으로 해석한다면,
순종하는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받은 사람들로 일컬어질 만큼 행복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성도의 빛, 1982년 7월호,
64쪽)

물몬서 5:23. “하나님의 수중에”

• 물몬은 이 후기에 사는 우리를 위해 기록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권능을 인식하라고 권고했다. 우리는 그분 수중에 있다.
칠십인인 더블류 크레이그 즈위크 장로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말이 암시하는 상징과 축복을 설명했다.

“손은 몸의 지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손을 의미하는 가장 흔한 낱말인 야드(yad)는
또한 힘, 능력, 세력을 의미하기 위해 은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William Wilson, *Old Testament Word Studies* [1978],
205 참조) 그러므로 손은 힘과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의 주의 깊은 보살핌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힘으로 인도되고 보호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경전 곳곳에는 주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분의
신성한 도움이 거듭해서 언급됩니다. 그분의 강력한 손은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또한 그 손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실
만큼 부드럽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손을 그분의 손 안에 놓을 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그분의 도움이 나타나 우리 힘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우리를 들어올리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손을 뻗어 주님께서 주시는 위안을 붙잡는 법을
배우니까?

여기 네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배우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영을 구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꺼이 문을 열고 신성한 도움을 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

그분 손에 있는 상처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풍상을 겪은 그분의
손, 즉 육신과 육체적 희생으로 찢겨진 그분의 손은 우리 손에
더 큰 힘을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상처 입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숨쉴 더 많은 공기나 따라갈 방향, 또는 계속 나아갈 더 큰 용기가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 주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길에서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걷는다면 신앙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결코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34~36쪽)

물문서 6:16~20

이 구절에서 여러분은 물문에 대해 어떤 점을 통찰했는가?
이러한 특성들을 우리 자신의 삶에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을까?

물문서 6:16~22. 팔을 벌리시는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말라

• 물문은 회개하지 않고 죽은 백성들을 애도하고, 생을 마치기 전에 길을 돌이키지 않은 그들에 대해 슬퍼했다. 백성들이 교만을 버리고 죄를 회개했다면 구주와 다시 만나는 일이 기쁨이 되었을 것이라고 물문은 가르쳤다.(물문서 6:17 참조)

우리 또한 심판대에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가 갈망하는 축복은 속죄의 궁극적인 축복, 곧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거룩한 면전에 거하며, 주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팔을 벌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셔서 끝없는 사랑의 품에 안아 따뜻하게 집으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면전에 있기에 합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 이 경험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훌륭하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에게 대가 없이 주어진 위대한 속죄 희생의 은사는 우리가 승영하여 그분 앞에 서고 또 그분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속죄에는 우리 개개인과 모두를 향한 구주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위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비, 인내, 은혜, 공평, 오래 참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로 가득한 사랑입니다. 사탄이 끼치는 악한 영향력은 우리가 실수를 극복하면서 얻는 희망을 없애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했으며 희망은 전혀 없다고 느끼게 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손을 뻗어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회개와 속죄 은사를 통해 우리는 주님 면전에 서기에 합당해지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리아호나, 2002년 1월호, 22쪽)

생각해 볼 점

- “성품이 진지”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가?(물문서 1:15)
-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주님의 영향력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물문서 3:3 참조)
- “하나님의 수중에”(물문서 5:23)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면서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자격을 갖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언 과제

- 물문경 3장 17~22절을 한 구절씩 분석하여 기록한다. 그런 다음 친구나 가족에게 중요한 점들을 설명한다.

해리 앤더슨, © IRI

소개

몰몬의 마지막 간증과 모로나이의 기록 첫 부분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몰몬경의 역할과 목적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모로나이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마치 너희가 지금 있는 것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아직은 너희가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노라.”(몰몬서 8:35) 선지자로서 모로나이는 날로 커져가는 간악함과, 때가 충만한 경륜의 시대에 임할 위대한 영적 축복들을 온전히 인식하는 가운데 니파이인들의 기록을 완성했다. 큰 어려움에 직면해서 일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경향이 있는 시대에 모로나이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몰몬서 9:9 참조)는 증거가 되어 기적과 계시를 보라고 가르친다. 비록 이 세상의 영적, 사회적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고 타락하는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은 그분께서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확신을 할 수 있다.

해설

몰몬서 7장. 후기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주는 권고

- 몰몬은 마지막으로 레이맨인 후손들을 향해 말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몰몬서 7:1)라고 확인해 주었다. 몰몬은 레이맨인들과 대적 관계였지만 그들을 사랑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몰몬의 영적 성숙도와 복음에서 누리는 온전한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몰몬이 남긴 마지막 간증과 권고를 몰몬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하는 것처럼 여긴다. 몰몬은 “우리 구주의 본을” 따라 “심판의 날에 [여러분이] 잘되[게]”(몰몬서 7:10) 하고자 여러분이 알아야 (모로나이서 7:1~7 참조)할 것과 해야 할 일을 가르쳤다.(몰몬서 7:8~9 참조)

몰몬서 7:2. “너희가 이스라엘의 집에 속하였음을 알라”

- 레이맨인의 남은 자들에게 몰몬이 전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권속이 속하는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263쪽에 나오는 힐라맨서 3:30 해설 참조)

몰몬서 7:2, 5.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몰몬의 마지막 간청

-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몰몬이 후기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간절한 애원에 대해 설명했다.

“죽음의 독백에서 몰몬은 시공을 초월하여 모두에게, 특히 언젠가 자신이 남긴 훌륭한 기록을 읽게 될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에게 말했다. 비록 그들과는 다른 시간과 장소에 있지만 몰몬 앞에서 쓰러져간 사람들이 망각했던 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 믿어야 [하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서 이로써 무덤을 이기고 승리를 얻으셨고 또한 그의 안에서 사망의 쏘는 것이 삼키운 바 되었음을 믿어야 함[을]’(몰몬서 7:2, 5)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특히 그러한 비극적이지만 피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은 몰몬의 마지막 애원이며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것은 그의 이름으로 후기 세상에 나오게 될 이 책 전체의 궁극적 목적이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1997], 321~322)

몰몬서 7:8~9. 몰몬경과 성경은 서로를 뒷받침한다

- 성경은 몰몬경을 증거하고, 몰몬경은 성경을 증거한다. 몰몬은 이렇게 선언했다. “이것[몰몬경]은 너희로 그것[성경]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인 바, 만일 너희가 그것[성경]을 믿으면 너희는 이것[몰몬경]도 믿을 것이요”(몰몬서 7:9)

브리검 영(1801~1877) 회장은 성경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진지하게 몰몬경을 공부하고 그 안에 있는 교리를 배우고 나서도 몰몬경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자신의 손을 성경 위에 올려놓고) 이 책은 참되고, 주님의 말씀이며, 길이자 안내판이며,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몰몬경이 참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사람이

물몬경을 읽거나 듣거나, 그 교리를 배우는 특권을 누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두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는 특권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는 참되고 다른 하나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 [1954], 459)

- 물몬경의 목적 중 하나는 성경이 참됨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다.(교성 20:11 참조)

물몬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에 대한 간증이 더욱 커진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성경과 물몬경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이 두 책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지에 대해 말씀했다.



“저는 성경, 구약전서와 신약전서를 모두 사랑합니다. 성경은 위대한 진리의 원천입니다. ……

……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경전은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영감을 받아 집 근처 작은 숲 속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 드린 일도 사실 성경에 있는 한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영광스러운 시현이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현에 이어 새로운 경전(물몬경)이 출현하여 성경과 함께 이 사악한 세상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구원과 승영에 친히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103쪽)

물몬서 8:1~6. 모로나이

- 모로나이는 아버지 물몬이 숨을 거두고, 니파이 민족 전체가 멸망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로나이의 목숨은 보존되었으며, 충실하게 지상에서 많은 사명을 완수했다. 주님께서는 니파이 백성들에게 일어난 “슬픈 멸망의 이야기”(물몬서 8:3)를 기록하는 일을 마치도록 모로나에게 명하셨다.

죽기 전에 모로나이는 부친의 책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물몬서 8~9장) 야렛의 기록(이더서)을 요약하였으며, 판에서 인봉된 부분에 있는 야렛의 형제의 시현을 기록하고(이더서 4:4~5 참조)

자신의 책(모로나이서)을 썼다. 그러나 모로나이의 사명은 이 경륜의 시대에도 계속된다. 현대 계시를 통해 우리는 모로나이가 “에브라임의 막대기의 기록의 열쇠”(교성 27:5)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



부활한 모로나이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성역을 베풀었고, 물몬경 출현을 포함하여 복음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일에서 조셉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여러 번 가르쳤다.(조셉 스미스—역사 1:30~60; *History of the Church*, 1:9~19 참조) 회복에서 모로나이가 담당한 역할을 나타내기 위해 교회는 모로나이 상을 성전 첨탑 위에 세운다.

- 물몬서 8장 1~6절에서는 모로나이가 살던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으며, 독자들은 모로나이가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긴급한 것인지를 이해하게 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톱 페리 장로는 우리에게 경전을 기록한 옛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보라고 권고했다. 페리 장로는 브리검 영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천 년 전, 2천 년 전 또는 5천 년 전 시절로 되돌아가 여러분이 경전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경전을 읽으십니까? 경전을 기록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서 경전을 읽으십니까? 이러한 느낌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에 정통해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대화하거나 산책하는 일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특권입니다.”(*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 [Salt Lake City: Deseret Book Co., 1941], p. 128) ……

…… 브리검 영 회장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우리 모두 위대한 마지막 니파이인 선지자 모로나이가 서 있던 곳에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모로나이가 부친에게서 받은 과제는 자신에게

맡겨진 기록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한 기사를 기록하는 일은 무척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레이맨인들에게 추적당하여 모두 멸망당하는 과정을 기술하는 일은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그가 남긴 기록에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 중에 자신의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모로나이가 살아 있었던 이유는 오직 기록을 완성하려는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록하고 이 기록을 땅에 감출 것이라, 그리고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도다.'(물몬서 8:4)

모로나이가 지닌 신앙은 오직 기록을 완성할 때까지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며, 언젠가는 주님께서 택하신 누군가가 이 기록을 발견할 것이라는 믿음뿐이었습니다. 모로나이는 장차 올 세대에게 이 기록이 자신의 백성들처럼 주님의 가르침을 배척하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경고하는 음성이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장차 이 기록을 받게 될 사람들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모로나이는 자신의 기록을 읽는 사람을 불순종에 따른 슬픔과 불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모로나이는 먼저 교회 회원에게 말했고, 그런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로나이가 교회 회원에게 준 마지막 말은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모로나이는 미래에도 자신의 백성들과 같은 역사가 되풀이될 것을 보며 기록했습니다.'(성도의 빛, 1993년 1월호, 16쪽)

물몬서 8:14~18. “누구든지 이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자를 주께서 축복하시리라”

• 물몬서 8장 16절은 물몬경을 세상에 출현시키도록 선택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해 언급되어 있다.(교성 3:5~10 참조)



고대 선지자 중 많은 사람이 조셉 스미스를 알았으며 조셉이 성공적으로 금판을 번역하고 출판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물몬서 8:22, 24~25; 교성 10:46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물몬경을 출현시키는 일에서 조셉 스미스가 담당할 역할에 대해 말씀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경전은 조셉 스미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 나왔을 뿐입니다. 조셉은 계시가 전해지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조셉이 쓴 초기 편지 원본을 읽어 보면 철자와 문법, 표현에서 오류와 매끄럽지 못한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어진 계시가 세련된 문장이 아니라고 해서 기적적인 이 사건을 위축시키지는 않습니다.’(성도의 빛, 1974년 12월호, 34~35쪽)

물몬서 8:19~20. “심판이 내 것이요”

•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심판이 내 것이요 ……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라는 구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는 마지막 심판에 관해 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심판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한 행위대로 심판 받기 위해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미래의 일입니다.(니전 15:33; 3니 27:15; 물 3:20; 교성 19:3 참조) …… 저는 ‘판단하지도 말지니’라는 경전 말씀이 이 마지막 심판을 가장 분명하게 언급한다고 믿습니다. 물몬경에는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 판단하지도 말지니, 이는 심판이 내 것이요 ……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물몬서 8:20) (“Judge Not’ and Judging,” *Ensign*, Aug. 1999, 7)

물몬서 8:22

이 구절에 나오는 모로나이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대업을 위해 일할 때 어떻게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가?

물몬서 8:31. 마지막 날에 있을 오염

• 물몬서 8장 31절에는 우리 시대에 “큰 오염”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칠십인 회장단 일원으로 봉사할 때 조 제이 크리스텐슨 장로는 이 큰 오염이 환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로 영적인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 산성비, 스모그, 독성 쓰레기 등 오염된 물질적 환경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한 다른 종류의 오염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오염과 영적 오염입니다.

최근 연차 대회에서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환경을 검사해 보면 오염 지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Ensign, May 1992, 66)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를] 것’(디모데후서 3:1)이라 예견했습니다. 선지자 모로나이는 후기에 대해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지구상에 큰 오염이 있는 날에 나아오리니’(몰몬서 8:31)

슬프게도 이 큰 오염의 영향은 아마도 대중 매체와 영화, 텔레비전, 대중 음악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 디 버드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해를 거듭하며 날마다 계속해서 살인, 폭력, 약물 남용, …… 도착과 외설물을 수백만 어린이들 눈 앞에 보인다면 우리 사회의 기반은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썩어버릴 것입니다.’(Michael Medved, *Hollywood vs. America* [New York: Harper Perennial, 1992], p. 194)

…… 대다수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즉 가족, 종교, 애국심 등에 대해 대중 매체 영역 대부분에서 선전 포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 경시되는 반면에 혼전, 혼외 관계가 조장되고 매혹적으로 보여집니다. 불경스럽고 저속한 말은 이를 듣는 모든 사람도 저속하게 만듭니다. …… 계속되는 폭력과 살육 장면으로 인간 생명 자체가 하찮게 여겨지고 있습니다.’(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11쪽)

몰몬서 8:34~35. 지금 우리를 위해 쓰이다

-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우리가 몰몬경을 공부할 때는 모로나이가 우리 시대를 보고, 우리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우리가 몰몬경을 중심으로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시대를 위해 쓰였기 때문입니다. 니파이인들은 한 번도 그 책을 가져 보지 못했으며, 고대 레이맨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몰몬경은 우리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몰몬은 니파이인 문명이 끝날 무렵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태초부터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여러 세기에 걸친 기록을 요약했으며,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될 이야기와 말씀과 사건을 택했습니다.

몰몬경의 주요 저자들은 각각 자신이 미래 세대를 위해 기록했다는 점을 간증했습니다. ……

몰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 너희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노니’(몰몬서 7:1) 영감 받은 마지막 저자 모로나이는 실제로 우리 시대를 보았습니다. ……

그들이 우리 시대를 보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을 것을 선택했다면, 이는 우리가 몰몬경을 연구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 주님을 몰몬(또는 모로나이 또는 엘마)에게 영감을 주어 그것을 기록에 포함하게 하셨을까? 나는 그것에서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질문에 답이 될 만한 예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6쪽)



몰몬서 9:1~6. 하나님의 면전에서 비참할지니라

-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면전에서 비참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은 채 아버지 면전에서 산다는 것은 매우 모순된 일입니다. ……

이 지상에서 주님의 계명을 범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생활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면전으로 가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으며, 심지어는 교회 회원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영의 세계에서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모로나이가 전한 다음 말씀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죄를 깨달으며 그[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그의 율법을 항상 그릇되게만 취급한 죄에 대한 자각으로 너희의 영혼이 찢기는 듯 할 때, 저 거룩하신 이와 함께 거하는 것이 행복할 줄로 생각하느냐?’(몰몬서 9:3)(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2권, 175쪽)

물몬서 9:3~6. “너희의 죄를 깨달으며”

-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책감과 회개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회개하는 과정이 시작되면 잘못에 대한 큰 자각이 있어야 하며 그 죄의식은 마음과 영혼, 때로는 육신에까지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죄를 진 채로 생활하려면 범법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길을 택해야 합니다. 첫째, 양심을 마비시키거나 마음에 진정제를 써서 감수성을 둔화시켜 범법 행위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감각하게 되어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양심에 가책을 느껴 완전히 슬퍼하고 회개하여, 최후에는 용서에 이르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이 완전히 정직해져서 아무런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를 피하지 않고 자기 행위 그대로를 받아들이기까지는 결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려 하거나 그 심각함을 합리화하거나 그 중대성을 낮추려 하지 않고 스스로 인정해야 하며 자신의 죄를 애써 작아 보이게 하려 하지 말고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제에 당면하여 스스로 생활을 변화해 보려는 사람은 처음에는 회개하는 데서 어려움을 느낄지 모르나 차차 그 결실을 맛보면서 바람직한 무한한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The Gospel of Repentance,” *Ensign*, Oct. 1982, 4)

물몬서 9:7~8. 계시와 경전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경전과 개인적 계시의 연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성경과 기타 경전을 읽고 사용하는 방법에서 [후기 성도]가 다른 기독교인들과 다른 점은 우리는 끊임없는 계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전은 지식을 얻는 궁극적 근원이 아니라 궁극적 지식 근원에 선행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지식은 계시를 통해 옵니다. 모로나이는 계시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라’(물 9:8)고 말했고 우리도 그렇게 단언합니다.

경전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을 인도하는 등불과 같으며(시편 119:105 참조) 계시는 그 등불을 몇 배나 더 밝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경전과 그에

관한 선지자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공부하고 그 뜻을 직접 알 수 있도록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도록 권유합니다.”(“Scripture Reading and Revelation,” *Ensign*, Jan. 1995, 7)

물몬서 9:9~10.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 모로나이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물몬서 9:9) 불변하는 존재라고 선언했다. 현대에 내려진 계시는 물몬경이 출현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들을 부르시어, 자기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며 “그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교성 20:11~12)주는 증거라고 말한다.

*Lectures on Faith*에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 온전함, 속성”(1985, 38)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알아야 한다고 나온다. 하나님의 특성 중 하나는 변하지 않으신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다. 그분께는 변동성이 없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분의 길은 영원한 원으로, 변동이 없다.”(*Lectures on Faith*, 41)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사업을 우리 시대에 계속하고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항상 동일하시다는 지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본다.

- 모로나이는 “변하는 …… 신을 생각하[는]”(물몬서 9:10)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변하거나 아직 새로운 진리를 배우고 있는 하나님은 믿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선한 의도를 가진 일부 후기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영원한 진보’라는 개념을 반영하여 생각한다. 일부는 하나님의 진보가 그분이 추가 지식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잘못 생각한다. ……

……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적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창조물을 늘리고 발전시키면서 끊임없이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종의 박사후과정 연구원(박사 학위 취득 후 전문 지식과 기술을 익히기 위해 약 5년간 학문 연구를 하는 사람-옮김)처럼 지금도 더 많은 핵심 진리와 지극히 중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계신다는 그릇된 개념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이 개념이 옳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알고 계시던 특정 진리를 재구성하고 약화시키고 와해시킬 만한 새로운 진리, 그분이 알지 못했던 사실을 매 순간 새롭게 발견하실 것입니다. 예언은 단순한 예측에 불과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구속에 관한 잠정적인 계획도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은 끊임없이 수정되는 계획이 아니라 변함없이 진행 중인 계획입니다.”(All These Things Shall Give Thee Experience [1979], 14~15)

물문서 9:20
 모로나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에
 기적을 그치신 이유는 무엇인가?

물문서 9:10~26. 기적

• 모로나이가 준 증거는 하나님의 기적 곧, 하늘과 땅의 창조(물문서 9:17 참조), 인간 창조(17절 참조),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한 기적(18절 참조)에 대한 간증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물문이 표현한 ‘기적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적을 행하신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우리 시대에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지금도 기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간증했다.

“많은 기적이 매일 우리 교회의 일과 우리 회원들의 생활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기적을 목격합니다. 여러분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렇습니다.

기적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스스로 복제할 수도 없는 신성한 권능을 통해 오는 은혜로운 사건’으로 정의됩니다.[Daniel H. Ludlow, ed., *Encyclopedia of Mormonism*, 5 vols. (1992), 2:908] 대부분 비종교적인 사람들과 일부 종교적인 사람들은 사건들이 신성한 권능을 통해 온다는 개념을 거부합니다. ……

…… 신권 권능으로 행해지는 기적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항상 존재합니다. 물문경에서는 ‘하나님은 방편을 마련하사 사람이, 신앙을 통하여, 능한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대]’(모사이야서 8:18)고 가르칩니다. 마련하신 ‘방편’은 바로 신권 권능이며(야고보서 5:14~15; 교성 42:43~48 참조) 그 권능은 신앙을 통해 기적을 일으킵니다.(이더서 12:12; 모로 7:37 참조)”(“Miracles,” *Ensign*, June 2001, 6, 8)

•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때때로 기적이 그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특정 시대에 표적과 기적들이 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모든 시대에 모든 백성들 사이에서 기적을 보지는 못하는가? 같은 지구상에 지금 사는 우리보다 고대 사람들이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모로나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은사와 기적의 하나님이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기를 그치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부여주시기를 그치시는 ‘까닭은 그들이 믿지 않음에 빠지며, 바른 길에서 떠나 그들이 의뢰해야 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라.’ 그들은 자기 스스로 정의한 거짓 신들을 숭배하고, 이전 시대 성도들이 추구했던 길을 떠는 건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같은 신앙을 갖고 같은 율법에 따라 사는 모든 인간은 같은 축복을 거둘 것이다.”(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1985], 367)

물문서 9:32~34. 모로나이는 개정된 애굽어로 기록했다

• 모로나이는 적어도 두 언어 곧, 히브리어와 애굽어로 기록할 역량이 있었다고 말했다.(물문서 9:32~34 참조) 그는 ‘판이 충분히 컸더라면’ 히브리어로 기록했을 것이나 판에 공간이



부족하여 기록자들이 ‘개정된 애굽어’(32~33절)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물문경 앞부분에서 니파이와 베냐민 왕은 자신이 애굽어를 사용한다고 인정했다. 니파이는 작은 판을 새길 때 “애굽인의 언어”(니파이전서

1:2)로 기록했다고 말했다. 베냐민 왕은 아들들에게 낯선 판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리하이가 그 기록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애굽의 언어로 가르침을 받았[기]”(모사이야서 1:4)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리하이가 복음과 애굽어를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그들이 이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다]”(모사이야서 1:4)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로나이가 부친에게 이 언어를 배울 때까지 각 세대 모든 기록자를 통해 이 방식이 계속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정된 애굽어’(물문서 9:32)로 기록했다는 모로나이의 진술에서 우리는 리하이 시대로부터 천 년이

호르면서 이 언어에 약간 변경이 일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왜 모로나이가 “다른 아무 백성도 우리의 언어를 알지 못[하며]”(물몬서 9:34)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석하고 번역하는 방안을 마련하셨다는 말을 결말부에 언급했는지 설명하는 대목이다.

생각해 볼 점

- 물몬이 적까지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쏟은 깊은 염려와 관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물몬서 7장 참조)
- 모로나이는 혼자서 여러 해를 보냈지만, 신앙과 간증이 있었기에 평안을 얻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 여러분의 간증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 오늘날 지상에서 보는 “영적 오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은 그것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
-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어떤 기적들을 목격했는가?

제언 과제

- 다음 성구들을 공부하고 물몬경 출현에 대한 예언을 찾아본다.

이사야 29:4

니파이후서 3:19~20

니파이후서 26:16

니파이후서 33:13

이노스서 1:15~16

물몬서 8:23

물몬서 9:30

모로나이서 10:27

모세서 7:62

조셉 스미스—역사 1:52~53

이 구절들을 성구 사슬로 만들 수 있다. 이사야 29장 4절을 펴서 니파이후서 3:19~20이라고 이사야 29장 4절 여백에 적는다. 그 다음 니파이후서 3장 19~20절을 펴서 니파이후서 26:16이라고 니파이후서 3장 19~20절 여백에 적는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구절까지 반복한다. 조셉 스미스—역사 1장 52~53절에 도달하면 그 여백에 이사야 29:4라고 적는다. 그러면 사슬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 물몬경을 받아들이는 축복에 관해 5분 내지 8분 말씀을 준비한다. 다음 질문과 자료를 말씀을 준비하는 데 지침으로 사용한다.

물몬경을 받아들이는 축복

물몬서 8:12. 물몬경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오는가?

물몬서 8:17. 물몬경에서 결점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것은 왜 중요한가?

교리와 성약 20:8~15. 우리가 물몬경을 받아들일 때 알게 되는 진리들은 무엇인가?

개인 경험: 물몬경을 받아들인 결과 여러분이 받은 영적 축복들은 무엇인가?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저는 여러분이 물몬경을 더욱 잘 이해하시도록 축복합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가 매일 물몬경을 읽고 그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온의 자녀와 교회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축복을 부여 주실 것임을 약속합니다.”(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86쪽)

소개

몰몬경은 연대 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 만약 연대에 따라 배열되었다면 이더서가 가장 먼저 나왔을 것이다. 야렛인의 기록은 대략 주전 2200년경에 시작된다. 니파이전서는 주전 600년경에 시작된다. 이더서는 주전 2200년부터 코리엔투머 시대까지 약 1700년 역사를 다룬다. 코리엔투머가 정확히 언제 살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전 500년부터 250년 사이 인물인 점은 확실하다. [이더서를 제외한] 몰몬경의 나머지 부분은 니파이전서에서 모로나이서까지 대략 1,000년에 이르는 역사를 다룬다.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후손들 중 많은 이들이 간악해졌다. 그중 한 무리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창세기 11:4) 탑을 세우고자 했다. 야렛 백성의 이야기는 바벨탑 건설 때부터 시작된다. 주님께서는 만연한 악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공통 언어를 혼동시키고 사람들을 지면 위에 흩으셨다.(이더서 1:33; 창세기 11:5~8 참조)

야렛의 형제는 주님께 합당한 친구들과 가족들의 언어를 보존시켜 주시기를 간구했다. 야렛의 형제는 큰 신앙을 행사하고 또한 주님의 손으로 인도를 받아 이 무리를 다른 땅으로 이끌었다. 이 이주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들로 가득하다. 그 원리들에는 신성한 도움을 받기 위해 신앙을 행사하고 어려운 과업을 수행할 때 기도하는 역할도 포함되어 있다. 야렛의 형제가 산 삶을 공부하면서 강한 신앙을 행사할 때 오는 축복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이더서의 기원에 관한 개관이다.

- 야렛인의 선지자들은 이더라고 하는 마지막 야렛인 선지자에까지 이르는 역사를 기록했다.(이더서 1:6 참조)
- 림하이 탐색대가 24개 금판으로 된 야렛 백성 기록 중 일부를 찾아냈다.(모사이야서 8:7~11 참조)
- 모사이야 왕은 야렛 백성의 기록을 번역했다.(모사이야서 28:10~17 참조)
- 모로나이는 야렛 백성의 기록을 요약하고 편집한 후 자신의 기록 앞 부분에 삽입했다.(이더서 1:1~6 참조)

해설

이더서 1:1~2. 24개 금판이 발견되다

• [레이맨인에게] 속박되어 있던 시절에 림하이 왕은 제이라헤플라 땅을 찾으려고 43명으로 구성된 원정대를 보냈다.(모사이야서 8:7; 21:25 참조) 이들은 제이라헤플라 땅을 찾은 데는 실패했지만, 멸망한 백성의 유골과 잔해로 덮인 땅을 발견했다.(모사이야서 8:8 참조) 탐색대는 24개 금판으로 된 기록을 발견하여 림하이 왕에게 가져갔다.(모사이야서 8:9~10 참조) 림하이 백성들이 속박에서 벗어나고 나서(모사이야서 22장 참조) 림하이 왕은 이 판들을 모사이야 왕에게 주어 번역하게 했다.(모사이야서 28:1~17 참조)

이더서 1:3~4. 모세 시대 이전에 있었던 창조 기사

• 이더서에서 우리는 창조와 아담, 바벨탑 시대까지 내려오는 하나님 자녀의 역사를 기록한 기사가 모세 시대 훨씬 이전에 존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중요하다. 그 기사는 배도와 간악함 때문에 잃어버려진 바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기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를 계시를 통해 모세에게 회복하는 일이 필요했다.(모세서 1:40 참조)

이더서 1:6~32. 야렛 백성의 계보

• 이더서 1장에서는 선지자 이더의 계보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계보는 몰몬경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데, 다음 해설은 이를 설명한다. “성경에서는 계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히브리 백성들은 가족 역사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계보를 매우 주의 깊게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경전에 나오는 숫자는 계보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창세기 5, 11, 46장과 민수기 26장, 역대상 1~9장에 나오는 숫자에 주목하고 가족 역사 기록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에스라 9~10장 기사를 읽는다. 그러나 몰몬경에는 계보가 이더서 1장 6~32절에 한 번만



나온다. 이것은 야렛 백성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더의 계보이며, 그 가계는 이십구 세대 또는 그 이상인 야렛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야렛은 백성들의 언어가 혼동되는 때에 가족들과 함께 바벨탑을 떠났다. 이 예를 제외하고는 계보와 관련된 언급은 별로 없다.”(Sidney B. Sperry, “Types of Literature in the Book of Mormon,” *Journal of Book of Mormon Studies*, vol. 21, no. 1 (1995): 117)

이더서 1:34~35. 야렛의 형제의 이름

• 칠십인인 조지 레이놀즈(1842~1909) 장로는 야렛의 형제의 이름(이더서 2:13 참조)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에게 계시된 이야기에 대해 말씀했다. “커틀랜드에 살던 레이놀즈 카혼 장로에게는 갓 태어난 아들이 한 명 있었다. 어느 날 카혼 장로는 집 앞을 지나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안으로 불러 들어 아기를 축복하고 이름을 지어 달라고 부탁했다. 조셉은 그렇게 했고 아이에게 마흔리 모리엔쿠머라는 이름을 주었다. 축복을 끝나치고 아이를 침대에 눕히면서 조셉은 카혼 장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은 야렛의 형제의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방금 제게 그것을 보여[또는 계시해] 주셨습니다.’ 옆에서 있던 윌리엄 에프 카혼 장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부친께 드린 이 말을 들었다. 이때 처음으로 이 경륜의 시대에 야렛의 형제의 이름이 교회에 알려졌다.”(“The Jaredites,” *Juvenile Instructor*, May 1, 1892, 282)

이더서 1:33~38. 야렛과 그 형제의 언어

• 이더서 1장 34~38절에는 주님께서 바벨탑 시기에 야렛 가족과 형제, 친구들의 언어를 혼란시키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야렛인들이 아담의 언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더서에는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동되는 시기에 야렛과 그 형제가 주님께 그들의 언어를 바꾸지 않으시도록 요청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그들은 조상의 언어, 곧 아담의 언어를 계속 사용했다. 이 언어는 글 형태로도 매우 강력한 언어였기 때문에 마흔리가 쓴 것은 ‘실로 …… 힘있게 하사, 사람을 압도하여 그것을 잃게 [한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사용한 언어이며 예룩이 그에게 맡겨진 훌륭한 일을 성취할 수 있었던 그 언어이다.”(*The Way to Perfection* [1970], 69)

이더서 1:38~42. 선택된 땅

• 이스라엘 권속이 주님의 일을 하도록 선택된 백성으로 불리는 것처럼 몰몬경에서는 미대륙을 선택된 땅, 곧 복음의 회복을 위한 땅, 중국에는 새 예루살렘이 될 장소로 선택된 땅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스라엘 권속과 미대륙 모두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를 돕도록 선택되었다.

•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북남미 땅 모두가 선택된 땅이라고 설명했다. “몰몬경에서 우리는 남북을 합친 미대륙 전체가 다른 모든 땅보다 뛰어난 땅, 곧 시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야렛 민족에게 그들을 ‘세상의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이더서 1:42]으로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3권, 64쪽)



•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 또한 선택된 땅인 미대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844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엄숙한 선언을 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미대륙 전체가 모두 시온입니다.’(*Teaching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p. 362)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선포하셨다. ‘이 땅은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임이라.’(이더서 2:10) 이 나라는 시온 땅 중 일부이며 하나님의 종들이 헌납한 땅이다. 몰몬경의 한 선지자는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에 대해 말하면서 이 반구를 ‘좋은’(야곱서 5:25~26) 땅이라고 말했다.”(*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123)

이더서 1:38~43
야렛 백성들이 선택된 땅으로 인도되었을 때, 무엇을 가져가도록 가르침 받았으며, 그 각각은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

이더서 1:43. “이 오랜 시간을 네가 내게 부르짖었음으로 인함이니라”

• 주님께서는 야렛의 형제가 오랜 시간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백성에게 축복이 왔다고 설명하셨다. 자주 계속해서 기도드리면서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에는 큰 힘이 있다. 1839년 일리노이 주 커머스의 한 연설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때까지 그분께 매달리십시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recorded in Willard Richards Pocket Companion, 78~79] *The Words of Joseph Smith: The Contemporary Accounts of the Nauvoo Discourses of the Prophet Joseph*에 인용됨, comp. Andrew F. Ehat and Lyndon W. Cook [1980], 15)

•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도 기도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자주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습니까? 얻지 못한다면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마디 틀에 박힌 기도문을 매일 반복합니까, 아니면 주님께 절실하게 말씀드립니다까?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자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 큰 빛을 갖기 위해 많은 돈을 드려야 하는데 몇 푼만 주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때 말하기만 합니까, 아니면 듣기도 합니까? 구주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 기도에 응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활을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기도”, *성도의 벗*, 1980년 5월호, 3~4쪽)

이더서 2:7~12. “약속의 땅”

• 이더서 2장 8~11절에서 모로나이는 약속의 땅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명령”(10절)이라는 언급을 했다. 서너 차례 등장하는 이 명령은 “무릇 어느 나라든지 [이 땅을] 차지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길지며, 그렇지 아니하면 …… 그들이 쓸어버림을 당할 것이라”(9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약속의 땅에 약속된 축복을 받으려면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미대륙에 관한 약속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 약속은 다음과 같이 분명합니다. ‘이는 빼어난 땅이니, 무릇 어느 나라든지 이를 소유하게 되는 나라는, 만일 그들이 이 땅의 하나님, 곧 우리가 기록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히 나타낸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만 하면, 속박에서와, 사로잡힘에서와, 하늘 아래의 모든 나라로부터 자유롭게 되리라.’(이더서 2:12)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리아호나*, 2002년 1월호, 85쪽)

이더서 2:7~12
 이더서 2장 7~12절과 니파이후서 1장 6~10절을 비교한다.
 미대륙 주민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경고를 열거한다.

이더서 2:14. 주님께서 야렛의 형제를 질책하시다

• 현대 계시에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또한 징계하노니 이는 그들의 죄가 사함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는 징계로써 그들이 모든 일에 있어 유혹에서 건짐을 받을 길을 내가 준비함이고,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음이라”(교성 95:1)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질책을 견디는 데 필요한 성품의 힘을 말씀했다. “주님께 세 시간 동안 질책을 받는 것이 어떤 일인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야렛의 형제는 그것을 견뎌냈다. 즉각 회개하고 기도드리며 이 선지자는 다시 그들이 떠나도록 명을 받은 여정과 그 여정에 함께할 사람들을 위해 인도를 간구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받아들여셨고 그들이 중요한 사명을 이행하도록 행동방침을 더 주셨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1997], 15)

•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질책하는 이들을 사랑하신다고 설명했다. “주님은 참으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포함해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벌하기도 하십니다. 야렛의 형제는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이더서 2:14 참조)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면 부주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후에 꾸짖음을 받은 야렛의 형제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이더서 3:13~16 참조)(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34쪽)

이더서 2:19~3:6. 빛을 얻는 것은 성장을 하는 경험이었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야렛의 형제가 한 경험에 자신의 경험을 비교했다.

“이 배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야렛의 형제는 이를 염려했습니다. 그는 가족이 어둠 속에서 여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염려하는 문제를 주님께 가져갔습니다. ‘이에 주께서 야렛의 형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배 안에 빛을 갖도록 내가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이더서 2:23)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야렛의 형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그는 셸렘 산으로 올라가서 ‘작은 돌 열여섯 개를 녹여[냈습니다.]’(이더서 3:1) 그는 주님께 그 돌들에 손을 대어 빛을 발하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로버트 배릿 © 1986 [P]

부모이자 지도자인 우리는 “[주]가 범사에 명령해야 함은 적절하지 아니함[을]”(교성 58:26) 기억해야 합니다. 야렛의 형제처럼 우리는 가족의 필요 사항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필요 사항을 해결할 계획을 세운 다음, 그 계획을 기도로써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과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 뜻을 행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리아호나, 2003년 5월호, 16쪽)

-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면서 배우고 성장하기를 바라신다. 또한 우리가 내린 결론에 대해 우리가 그분께 확인 받기를 바라신다. 야렛의 형제가 주님께 배에 빛이 있게 하는 문제에 대해 여쭙었을 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답을 하셨다. “너희가 너희의 배 안에 빛을 갖도록 내가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이더서 2:23) 해롤드 비리(1899~1973) 회장은 주님께서 하신 질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네게 좋은 생각이 있느냐? 빛을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떠나시고 그를 혼자 두셨다.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나는 너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을 주었고, 그것을 사용할 선택의지도 주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내가 너를 도와주마.’”

야렛의 형제는 가능성들을 고려해 본 후, 주님께 돌 열여섯 개를 만지셔서 빛이 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큰 신앙을 보였다. 주님께서는 이 간구에 응답하셔서 배에 빛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신앙 깊은 사람에게 특별한 시현을 보여 주셨다.

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이것이 바로 행동에 따르는 원리이다. 축복을 원한다면 단순히 무릎 꿇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구하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준비해야 한다.”(Stand Ye in Holy Places [1974], 243~244)

이더서 2:22~23. 기도는 노력이 필요하다

-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해야 하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일해야 한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종종 들었다고 했다. “어떤 일이든지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한 다음에 일어나서 수행하려 가는 것 외에 달리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16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선택의지를

사용하기를 요구하신다고 설명했다. 야렛의 형제가 한 경험에 대해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주님은 그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배 안에 빛을 갖도록 내가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이더서 2:23)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왜 나에게 구하느냐? 이것은 네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니라.’ 주님께서는 조금 더 말씀하신 이 질문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다시 반복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다 깊은 곳에 삼키울 때에 너희가 빛을 갖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예비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이더서 2:25)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모리엔쿠머, 이것은 네 문제이니라. 나를 수고롭게 할 이유가 없느니라. 나는 너에게 선택의지를 주었고 너는 행할 능력을 받았단다.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라.’”(선택의지냐? 영감이나?, 성도의 벗, 1978년 5월호, 34쪽)

이더서 3:1~5.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이를 행하실 수 있나이다”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야렛의 형제가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이를 행하실 수 있나이다.”(이더서 3:5) 하고 말했을 때 보여준 어린이가 같이 단순한 신앙에 대해 말씀했다. “이 구절을 읽는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셔도 이 사람의 어린이가 같은 순진무구함과 강한 신앙에서 매우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이를 행하실 수 있나이다.’ 아마도 경전에서 이보다 더 강력하고 신앙에 찬 구절은 없을 것이다. 이는 마치 그가 하나님을 독려하고, 하나님께 용기와 확신을 주는 것 같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이를 행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도 행하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선지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아무리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불신하지 않았다. 이것은 망설임이 전혀 없는, 분명하고 담대하며 확신에 찬 선언이다. 이것은 격려가 전혀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 드린 격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감동을 받으셨을 것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이를 행하실 수 있나이다.’”(“Rending the Veil of Unbelief,” *Nurturing Faith through the Book of Mormon: The 24th Annual Sidney B. Sperry Symposium* [1995], 12)

이더서 3:6~16
이 구절을 살펴보고 야렛의 형제가 시현을 보고 주님에 관해 무엇을 배웠는지 판단한다. 여러분이 배운 점을 적는다.

이더서 3:15. “사람에게 내가 결코 나를 보이지 아니하였었나니”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예수님께서 야렛의 형제에게 자신을 보이시기 전까지는 한번도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신 적이 없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 여섯 가지 가능성을 설명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이것이 단지 한 경륜의 시대에 말씀한 내용으로서 단지 야렛 백성과 야렛 백성의 선지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곧 여호와께서 전에는 야렛인 선견자와 계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없다는 말일 수 있다. ……

또한 ‘사람’이란 말이 이 구절의 핵심으로 볼 때 다른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성결하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세상적이고 육욕적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없다는 말일 수 있다. 이는 곧 (아담, 에녹, 야렛의 형제와 같이) 육욕적인 자신을 버리고 성결하게 된 이들만이 이 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이다.[교성 67:10~11 참조]

또한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그러한 등급 또는 수준에 계신 상태로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는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일찍이 선지자들이 목격할 신성한 출현에서도 그와 같은 ‘충만한’ 상태로 주님이 드러나신 적은 없다. 즉 휘장을 들고 그와 같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본래 모습과 상태를 보이신 적이 없다는 말이다.



로버트 버킨, © 1986 IRI

또 다른 가능성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신 일이 처음이라는 것으로, ‘내가 창조한 사람에게 내가 결코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서] 보이지

아니하였나니'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 가능성은 편집자로서 모로나이가 덧붙인 다음 설명을 읽어 보면 더 잘 이해된다. '이 사람의 지식으로 인하여 저에게는 휘장 안을 바라볼 수 없도록 금할 수 없었나니, 이에 저가 예수[를] 보았으며'

이 구절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야렛의 형제의 신앙이 아주 커서 전세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의 손가락과 신체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마도 다른 많은 선지자도 보았을 것이다.) 살과 피와 뼈로 된 그리스도의 육체까지도 보았다는 것이다.

마지막 해석은 야렛의 형제의 신앙 측면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야렛의 형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내 뜻으로서가 아니라 보는 사람의 신앙 때문에 이렇게 나를 보인 적이 없었다.' 선지자들은 주님 면전으로 초대되며 오직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께서 허락하셔야만 그분 면전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다. 그것이 바로 규칙이다. 그러나 야렛의 형제는 스스로 휘장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 아니라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들어간 듯 하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일찍이 나와 같이 것처럼 큰 신앙으로 내 앞에 나아온 일이 결코 없었느니라. 이는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네가 나의 손가락을 볼 수 없었을 것임이니라. 이는 사람이 결코 나와 같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주님께서서는 친히 전례 없는 신앙과 전례 없는 시현을 연결하신 것이 분명하다. 시현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것은 신앙이며 시현을 받은 방법이다. 이는 견줄 데 없는 신앙이었다. 이 선지자의 신앙이 놀라운 이유는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이 선지자는 초대받지 않은 채로 들어가게 한 힘 때문이다. (Christ and the New Covenant, 21~23)

이더서 3:23~24, 28. 모사이야 왕의 돌 두 개

•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야렛 형제가 산 위에서 주와 얼굴을 마주 보며 말씀할 때 받았던"(교성 17:1) 것과 똑같은 우림과 둠뎀을 사용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우림과 둠뎀에 관한 내력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서술했다.

"모사이야 왕은 '활 모양의 두 테에 박힌 돌 두 개'가 있었는데, 그는 니파이인들이 해석기라 부른 이 두 돌을 사용하여 야렛인의 기록을 번역했습니다.[모사이야서 28:11~14] 이 돌들은

언어를 해석할 목적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모사이야 왕이 우림과 둠뎀이라고 불리는 이 돌 두 개를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으며 다만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사(모사이야서 21:28)라고만 나옵니다. 림하이 백성이 이더의 기록을 발견하기 전에 모사이야는 우림과 둠뎀이라고 불리는 이 은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사이야는 어떤 문자가 새겨진 '큰 돌'을 하나 얻게 되어 그 새긴 것을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해석했을 때(오나이사서 1:20~21) 이 해석기를 이미 받아서 갖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야렛의 형제가 주님께 이것을 받았던 것처럼 이 돌들은 모사이야에게, 혹은 모사이야 시대 이전에 살았던 다른 선지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주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야렛의 형제가 받은 돌 두 개, 곧 우림과 둠뎀을 모사이야 왕이 가지고 있었음은 물문경에서 분명하게 증명됩니다. 야렛의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가 본 시현의 기록을 인봉하여 백성들이 읽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림과 둠뎀도 함께 인봉되어 주께서 인간에게 그 거룩한 기록을 번역하도록 허락하실 때까지 이를 사용하여 번역하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그 기록들이 다시 주어질 때, 그 동일한 우림과 둠뎀으로 번역될 것입니다.[이더서 3:21~28]

조셉 스미스는 가슴판과 물문경 판과 우림과 둠뎀을 받았습니다. 이는 야렛의 형제가 받은 그 우림과 둠뎀이며, 후기에 나와서 고대 기록이 번역될 수 있도록 모로나이가 감춰 둔 것이었습니다." [교성 17:1] (구원의 교리, 3권, 194~195쪽)

이더서 3:25; 4:1~7. 물문경의 인봉된 부분

• 모로나이는 야렛의 형제(모리엔쿠머)가 시현을 통해 지상의 모든 거주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으며 그 내용을 기록했다고 썼다.(이더서 3:25 참조; 또한 이더서 2:13 참조) 이 시현에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그 종말까지의 모든 것"(니파이후서 27:10)이 계시되었다. 모로나이는 야렛의 형제가 본 것보다 "더 큰 일이 결코 나타내신 바 되지 아니하였[다]"(이더서 4:4)고



설명했다. 우리는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전달한 판에서 이 시현의 기사 부분을 인용했다는 것을 안다.(이더서 4:5; 5:1 참조) 모로나이는 이 봉인된 부분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정하신 조건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경전에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야렛의 형제처럼 행하고, 성결하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이더서 4:6~7 참조)

이더서 5장.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는 지시

- 모로나이는 “에브라임의 막대기의 기록의 열쇠”(교성 27:5)를 보유했다. 모로나이가 남긴 말을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읽기까지는 거의 1400년이 지나야 했지만, 이더서 5장에서 모로나이는 몰몬경의 미래 번역자에게 전하는 말을 남겼다.

이더서 5장. 증인들의 증언

- 이더서 5장 2절에는 “[조셉 스미스]가 판들을 보여 줄” 사람들, 특히 여덟 증인이 언급되어 있다. 3~4절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판을 보게 될 “세” 증인에 대해 나오는데, 이는 몰몬경의 세 증인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기록이다. 4절에 나오는 “증거가 될 것이라”라는 표현은 몰몬경 자체가 스스로를 입증하는 증거라는 뜻이다. 이 구절에서는 또한 신화가 몰몬경의 증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더서 5장 2~4절에는 몰몬경의 세 증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1829년 6월,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계시를 통해 “특별한 증인 세 사람이 지정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이더서 5:2~4; 니파이후서 11:3,27:12 참조)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 및 마틴 해리스는 영감 받은 소망으로 감동되어 세 사람의 특별한 증인이 되고자 하였다.”(교성 17편, 소개) 몰몬경의 소개 부분에 세 증인이 남긴 간증이 나온다. 이 세 증인들에 대해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세 목격자 중 두 사람은 동시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직후에 직접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엄숙하게 기록했으며, 이 증언에는 엄청난 힘이 실려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 위대한 기적이 주장되고, 수많은 종교인들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단 한 사람이 전하는 증언이라도 무거운 형벌과 판결을 내리는 토대로 인정됩니다.

증언을 검토하는 일에 숙련된 사람들은 대체로 증인이 사건을 목격할 기회와 그 주제에 대한 증인의 편견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서로 다른 증인들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증언을 할 경우, 회의론자들은 증인들이 공모한 증거를 찾거나 반대 진술을 할 다른 증인을 찾습니다.

가능한 모든 반대에 비취보더라도 몰몬경의 세 증인의 증언은 굳건합니다. 그 세 사람은 그 증언이 거짓이었다면 증언을 부인할 수도 있었고, 혹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세부 사항에 대해 얼버무릴 수도 있는 기회와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과 관련된 불화와 시기심 때문에 이 세 증인은 각기 증언이 공포된 지 8년쯤 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파문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공모할 만한 아무런 공통 관심사도 없이 각자 제 갈 길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파문된 후 그들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 12년부터 5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어떠한 증인도 출판된 증언에서 벗어난 다른 말을 하거나 그 진실성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증언은 다른 증인파도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부인을 할 수도 있었으나 인품이 훌륭한 이 세 사람은 심하게 조롱을 받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생을 마칠 때까지 한결같이 증언을 지켰습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몰몬경이 그 자체로 그렇듯이,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한 정직한 사람들의 엄숙한 선언보다 더 훌륭한 설명은 없을 것입니다. ……

…… 증인은 중요하며, 몰몬경의 세 증인의 증언은 인상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리아호나, 1999년 7월호, 41~44쪽)

이더서 5장

이 장에서는 증인의 법과 몰몬경의 세 증인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점

- 모로나이가 왜 몰몬경에 이터서의 요약본을 포함시켰다고 생각하는가?
- 야렛의 형제는 충실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주님께 질책을 받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 야렛의 형제는 우리가 주님께 질문을 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에 대해 어떤 점을 가르쳐 주었는가?
- 몰몬경의 세 증인의 증언으로 여러분의 간증은 어떻게 강화될 수 있을까?

제언 과제

-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한다. 야렛의 형제가 자신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여러분도 실행하여 여러분의 상황을 해결할 때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 이 원리들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사용하겠는가?

- 다음 질문들에 답을 해 보면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강도를 점검한다.(주의: 이 평가는 개인적인 것이므로 인비 사항으로 다루어야 한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가?	
1에서 10등급까지 평가해 본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가? (1이 가장 낮고, 10이 가장 높다.)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진지한가?	1 2 3 4 5 6 7 8 9 10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가?	1 2 3 4 5 6 7 8 9 10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가?	1 2 3 4 5 6 7 8 9 10
순종적인 마음으로 하는가?	1 2 3 4 5 6 7 8 9 10
할 말을 마친 후에 응답을 듣는가?	1 2 3 4 5 6 7 8 9 10
주님께 단순히 말하기만 하는가, 아니면 그분과 교통하는가?	1 2 3 4 5 6 7 8 9 10

소개

이더서 6~10장에서 모로나이는 대양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는 야렛 백성의 여행에 대해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의로웠던 시기와 간악함과 대립이 팽배했던 시기를 대조하면서 몇 대에 걸친 왕들의 통치를 요약했다. 모로나이는 야렛인과 그의 백성인 니파이인 사이에 많은 유사성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두 민족에서 나타난 교만, 변영, 간악함, 그리고 회개의 주기를 설명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 교만과 비밀 결사가 판치도록 내버려둘 때 처하게 될 심각한 위험을 말했다. 니파이인 문명과 야렛인 문명을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 수 있다. 주님을 따르면 행복이 오지만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다툼과 비참함을 불러온다.

해설

이더서 6:3.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에게 빛을 주어”

•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세상과 삶에 빛을 주시는 근원이다.(교성 88:5~13 참조) 주님께서서는 야렛의 형제가 내민



돌을 만지시어 대양을 건너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에게 빛을 주[셨다.]”(이더서 6:3) 주님께서서는 또한 우리가 어두운 이생을 통과하여 밝은 해의 왕국 곧, 약속의 땅을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빛을 주신다. 사도와 선지자들, 표준 경전, 영감 받은 지도자와 교사들이라는 빛은 우리의 길을 밝힌다. 또한 우리도 빛이

될 수 있다. 주님의 권고를 듣고 그분의 영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지킬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길에 빛이 될 수 있다.

전 본부 청년 회장인 아테스 지 캡 자매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여러분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더 낮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The Joy of the Journey* [1992], 69)

이더서 6:4~9. 야렛인들은 스스로를 주님께 맡겼다

• 이더서 6장 4~9절에 나오는 맡기다라는 말은 자신의 안위를 맡긴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야렛 백성은 주님께 자신들을 돌보시도록 맡겼다. 자신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그들은




로버트 배럿, © 1986 IRI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실 수 있다는 신앙, 또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신앙을 보였다. “그들이 물 위에 있는 동안 바람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불기를 결코 그치지 아니하였[다.]”(이더서 6:8) 이 태도를 니파이 형제들이 가족과 대양을 건널 때 보인 태도와 대조해본다. 레이맨과 레뮤엘이 니파이를 결박했을 때 이 가족에게 있던 나침반인 리아호나가 작동을 멈추었으며 그들의 배는 “물 위에서 나흘 동안 뒤로 밀려났다.”(니파이전서 18:15) 야렛 백성과 리하이 가족은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자 했다. 그러나 리하이 가족 중 몇 명은 불순종했다. 대조되는 이 두 기사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얻게 되는 모든 축복을 다 받기 위해 신앙을 행사하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더서 6:8~12

야렛 백성은 여행을 하는 동안,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여러분의 행동에 영감을 줄 만한 어떤 모범을 보였는가?

이더서 6:9. “주께 찬송을 부르되”

• 찬양하는 노래를 듣고 부를 때 오는 축복은 무엇인가? 현대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의로운 음악을 기뻐하는 이들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교성 25:12  참조) 제일회장단은 영감 어린 음악의 힘에 대해 설명했다.

“찬송가는 주님의 영을 불러들이며, 경건한 느낌을 갖게 하고, 회원들을 하나가 되게 하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 찬송가는 우리가 회개하고 선행을 하게 하며, 간증과 신앙을 키우며, 지친 자를 쉬게 하며, 애통하는 자를 위안해 주며,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 내도록 영감을 줍니다. ……

찬송가는 우리의 영을 고양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의로운 행동을 하게 합니다. 찬송가는 우리의 영혼을 경건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며,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찬송가, ix~x)

이더서 6:12. 친절하신 자비

• 하나님의 친절하신 자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니파이전서 1:20(12쪽)과 모로나이서 10:3(400쪽) 해설을 참조한다.

이더서 6:17. “그들은 주 앞에서 겸손히 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고”

• 우리는 야렛 백성들이 겸손의 중요성을 배웠다는 점을 안다. 현대 계시 또한 우리에게 겸손이 중요함을 가르친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네게 주리라.”(교성 112:10)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런(1917~2008)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겸손은 이생을 잘 견디기 위해 주님의 도움에 의지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104쪽)

• 감리 감독단의 리처드 시 에즐리 감독은 충실한 교회 회원의 기본 특성 중 하나로 겸손을 들어 말씀했다.

“이러한 충실한 회원들을 생각할 때면 저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 특성이 떠오릅니다. 첫째, 그들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겸손으로 주님의 뜻을 유순하게 받아들입니다. 둘째, 그들은 생의 난관과 시련을 겪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삶의 훌륭함에 대해 감사해 합니다. 겸손과 감사는 실로 행복으로 인도하는 한 쌍의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미덕은 하나님의 축복과 신권 권능을 누리게 하는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학력이 얼마나 높은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겸손하고 순종하며 감사드리는 마음을 품을 때 힘과 희망이 생겨납니다.”(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98쪽)

이더서 6:17

겸손과 주님의 지시와 권고를 받는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더서 6:17. “높은 곳으로부터도 가르침을 받았더라”

• “높은 곳으로부터도 가르침” 받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하며 성신의 동반과 인도를 받기에 합당해야 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는 영으로 가르침을 받는 축복을 설명했다. “수많은 어려움이 닥쳐 올 때, 여러분 내면에서 힘을 돋우는 조용한 느낌을 느끼게 될 것이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 주는 속삭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란과 큰 시련이 닥치는 세상에서도 평안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영감을 받고 그것을 행할 힘과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다음 약속을 ……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높은 곳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느니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즉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는 …… 권능을 부여받으리라.’(교성 43:16)”(성도의 빛, 1991년 7월호, 34쪽)

이더서 7장. 왕국에 다름이 생기다

• 야렛의 형제는 백성들에게 왕정제를 채택하면 속박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고(이더서 6:22~23 참조) 실제로 그러했다. 야렛

왕 키브와 그 아들 술은 둘 다 그들의 경쟁자에게 속박되었다. 야렛의 형제가 한 예언이 얼마나 빨리 성취되었는지에 주목한다.

야렛인 역사 중 많은 부분이 이더서 7장에 포함되어 있다. 모로나이는 이 역사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요약본에 기록했다. 모로나이는 자신의 백성에게 일어난 일에 아주 유사한 내용과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할 교훈을 집중하여 다루었다.

이더서 7:6. 모로나이의 지리적 식견

• 모로나이는 야렛인 땅과 니파이인 땅의 지리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야렛인의 ‘모론 땅’이 ‘니파이인들이 황무라 칭하는 땅에서 가깝다’(이더서 7:6)고 말했다. 모론 땅이 야렛인의 수도였고 황무라는 니파이인 땅은 좁은 북쪽 땅에 있었기에 문명국을 이룬 야렛 백성들은 대부분 좁은 북쪽 땅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Daniel H. Ludlow, *A Companion to Your Study of the Book of Mormon* [1976], 321~322)

이더서 7:23~27. 술 왕의 백성은 선지자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였다

• 주님께서는 친절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어 술 왕국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다. 처음에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매도하고 조롱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의로운 왕의 포고 덕분에 보호되었다. 그 후 술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고 회개했다. 그리하여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거부할 때 얻는 결과인 멸망을 피할 수 있었다.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간악함을 경고하시는 이유를 설명했다. “주님은 친절하시기 때문에 종들을 부르시어 백성들에게 위협을 경고하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경고는 사람들이 실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위협에 대한 경고라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경고하라는 부름은 더욱 힘들고 중요한 것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리아호나*, 1999년 1월호, 32쪽)

이더서 7:23~27; 9:28~31. 선지자들과 그들이 외치는 메시지는 자주 거부된다

• 왜 선지자들은 종종 조롱받고 매도당하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선지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 초래되는 결과를 경고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인기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



왜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계명을 강조하며, 계명을 거부하고 변경하며 심지어 무시까지 하는 사회에 회개를 외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지자들은 계시를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세상에 선포하고 거듭 단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성도의 벗*, 1996년 7월호, 37쪽)

• 칠십인 회장단의 엘 알딘 포터 장로는 사람들이 종종 선지자의 권고를 거부하는 또 다른 이유를 설명했다. 포터 장로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전하는 경고가 자신의 선택의지를 간섭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선지자들이 명확하고 확고하게 말하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의지를 앗아간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선지자들이 우리의 선택의지를 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가 하는 선택에 따라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를 경고합니다. …… 경고를 했다 해서 선지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리아호나*, 2000년 1월호, 79쪽)

이더서 8:1~12. 야렛 백성 가운데 있었던 비밀 결사

• 모로나이는 아주 빠른 속도로 훑어 본 야렛인 역사 요약본을 잠시 멈추고 이 백성들 사이에 비밀 결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다. 모로나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단체가 야렛인과 니파이인 사회에 멸망을 가져왔기 때문이다.(이더서 8:21 참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비밀 결사가 사회를 멸망시키는 일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다.(23~25절 참조)

이더서 8장 9절에는 야렛 백성들이 비밀 결사에 대해 배운 것은 선조들이 구세계에서 가져온 기록에서 비롯되었다고 나온다. 그 기록에 초기 비밀 결사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모세서 5:29~33, 47~55 참조) 우리는 야벳인들에게 “세상의 창조와 또한 아담의 창조에 관하여 말해 주며, 그때로부터 큰 탐에 이르기까지의 기사”(이더서 1:3)가 담긴 기록이 있었다는 점을 안다.

야벳의 딸이 왕국을 지키기 위해 부친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안한 계획을 보면 사악한 사람들이 인간의 약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 수 있다. 야벳의 딸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잘 알았고 에이키시가 자신을 원한다는 점도 알았다. 부친이 권력과 이익을 얻도록 도우려는 열망으로 그녀는 사악한 음모에 기꺼이 가담했다.

이더서 8:18~25. 비밀 결사의 특징

• 힐라맨서 6:18~40 해설(270쪽)을 참조한다.

이더서 8:22~26

모로나이는 우리 시대 백성들에게 어떤 경고를 주었는가,
그리고 그 경고에 귀 기울이거나 무시한 결과는 무엇인가?

이더서 8:25. 사탄은 기만하며, “모든 거짓의 아버지”다

• 주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라,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신”(이더서 3:12) 반면에 사탄은 “태초부터 거짓말하는 자”(교성 93:25)였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다. “사탄[은] 참으로 모든 거짓의 아버지인 악마라. 사람들을 속이며 눈멀게 하며, 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모세서 4:4)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영들은 여전히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속임수는 음악, 영화, 기타 매체, 화려하게 반짝이는 것들 속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그의 힘에 공격 받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43쪽)

이더서 8:26. 사탄의 힘은 의로움으로 꺾일 수 있다

• 복천년에 대해 말하면서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사탄이 아무 권능도 갖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이 의 안에 거하며 이스라엘의 기록하신 자가 다스리심이나이다.”(니파이전서 22:26) 사탄의 간계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한 가지 목적은 “사탄이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릴 아무 권능도 갖지 못할” 때가 이르기를 고대하면서 “그들이 설득을 받아 끊임없이 선을 행하게”(이더서 8:26) 하여 악을 없애려 하는 것이라고 모로나이는 말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악마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어떤 것이라도 거역하는 순간, 악마는 힘을 얻게 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214)

이더서 9장. 큰 변영과 비극적인 간악함의 주기

• 이더서 9장 5~12절에서 비밀 결사가 등장하여 다시 많은 사람에게 멸망이 임했음을 주목한다. 15~35절은 몰몬경 전체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주기이다.

1. 백성들은 이며와 코리앤티움이 의롭게 통치하는 동안 크게 번성했다.(15~25절 참조)
2. 헛이 통치하던 시절에 백성들이 비밀 결사에 가담하여 간악해지기 시작했다.(26~27절 참조)
3.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 백성에게 그들의 큰 간악함을 경고하셨다.(28절 참조)
4. 헛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거절했다.(29절 참조)
5.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 위에 임했다.(30~33절 참조)
6. 백성들은 겸손해져서 회개했으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축복하셨다.(34~35절 참조)

이 변형과 간악함의 주기에서 야렛인들은 부유하면서도 의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야렛 백성들은 100년 이상 의롭고 변형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15~25절 참조) 이머 왕은 주님을 볼 만큼 의로웠다.(22절 참조) 교만 주기가 나오는 도해를 보려면 부록(413쪽)에 나오는 “의로움과 간악함의 주기”를 참고한다.

이더서 9:19. 야렛인의 동물

• 한 학자는 야렛인들 사이에 코끼리가 있었다는 언급이 있었고 니파이인들 사이에서는 코끼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물몬경에서 코끼리에 대한 언급이 오직 야렛인 기사에서만 나오는 것은 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코끼리가 주전 5세기에는 주전 15세기만큼 흔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 기간 사이에 코끼리가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멸종되었다는 점이다. 물몬경에 따르면 신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끼리는 멸종되었고 단지 그 존재를 증거하는 기록만 남아 있다.”

코끼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마르코 폴로 여행기에 나오는 기사를 예를 들었다. 마르코 폴로는 자신의 나라에서 생소하게 여길 만한 이야기를 여행기에 썼다. 휴 니블리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동물들이 물몬경에 등장하는 것을 마르코 폴로의 경우와 관련된 이 일반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설명했다. “마르코 폴로는 코비 사람들에게 대해 말할 때 ‘그들에게는 많은 철과 아카렘과 안다니쿰이 있다.’고 기술했다. ‘그들은 강철에 광을 많이 내서 거울을 만드는데, 크고 매우 훌륭하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중앙 아시아에서 발달된 강철 제품이 아니다. 중요하게 여기더라도 사실은 아카렘과 안다니쿰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르코 폴로는 물론 알았겠지만 말이다. 유럽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었고, 그것에 해당하는 서구 언어도 없었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는 그 고유 이름 그대로 쓸 수 밖에 없었다. 이더서 9장 19절에 나오는 쿠렐롬과 쿠뎀도 이와 같은 경우다. 쿠렐롬과 쿠뎀은 니파이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동물이다. 그래서 모로나이는 그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거나 니파이인들이 아는 다른 말을 사용해야 했다. 우리에게 생소한 동물이며 우리 언어에서는 그것을 지칭하는 이름도 없다. 그 동물들은 단순히 ‘식량으로 쓰이기에 유용한 많은 종류의 동물’ 중 하나일

뿐이다.”(Hugh W. Nibley, *Lehi in the Desert and the World of the Jaredites* [1952], 217~218)

이더서 10:5~8. 리플레이키시 왕의 간악함과 압제

• 이더서 10장 5~7절에는 리플레이키시 왕의 통치가 설명되어 있다. 그의 간악한 통치와 몰락은 간악한 노아 왕과 매우 비슷하다.(모사이야서 11장) 이 두 왕의 다음 특징에 주목한다.

리플레이키시 (이더서 10장)	특징	노아 (모사이야서 11장)
5절	매우 비도덕적임	2절
5절	백성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함	3절
6절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음	8절
7절	다른 사람의 노동으로 사육을 채움	6절
8절	자기 백성에게 죽임을 당함	모사이야서 19:20

이사는 “이 백성의 인도자들이 그들로 가르치게 [한다]”(이사야 9:16; 니파이후서 19:16)고 경고했다. 의로운 왕 모사이야는 후에 자기 백성들에게 “많은 백성들의 죄가 그들의 왕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았[기]”(모사이야서 29:31) 때문에 왕을 두지 말라고 명했다.

이더서 10:9~34. 수준 높은 문명

• 기록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더서 10장을 보면 리브 왕 통치 시절에 야렛 백성들이 수준 높은 문명을 구가했음을 알 수 있다. 모로나이는 우리에게 그들이 변형한 정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그들은 심히 근면하였고, 서로 사고팔며 장사하여 이익을 얻었더라.”(22절)
2. “그들은 온갖 광석을 다루어, 금과 은과 철과 놋과 온갖 금속을 만들었으며 …… 그들은 또 온갖 세공 일을 하였더라.”(23절)
3. “비단과 세마포가 있었으며 …… 온갖 옷감을 만들었더라.”(24절)

4. “땅을 경작하기 위한 온갖 도구, 곧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며 거두며 김을 매며, 또한 타작을 하기 위한 온갖 도구를 만들었더라.”(25절)



로버트 바렛, © 1986 IRI

5. “온갖 도구를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짐승을 부렸더라.”(26절)
6. “그들은 온갖 전쟁 무기를 제조하고, 심히 정교한 솜씨의 온갖 물품을 만들었더라.”(27절)

모로나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결론을 맺었다. “그들보다 더 복을 받[은] …… 백성이 있을 수 없었더라.”(28절)

생각해 볼 점

- 야렛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여행할 때 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여러분의 삶에서 보는 주님의 친절하신 자비는 어떤 것들인가?(이더서 6:12 참조)
-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전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제언 과제

- 이더서 6장 2~12절에 설명된 여행을 이생을 지나는 우리의 여행과 비교한다.
- 이더서 8장 13~26절에서 비밀 결사의 위험을 설명하는 구절을 찾아 그 위험들을 요약한다. 그런 다음 같은 구절에서 모로나이가 우리에게 준 권고를 요약한다.

소개

한때 위대했던 국가가 비극적으로 멸망하는 이더서 기사에서, 우리는 선지자를 거부할 때 오는 피할 수 없는 결과와, 억제되지 않은 죄가 만드는 파괴적인 결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도 배울 수 있다. 선지자 이더와 모로나이의 가르침은 신앙이 회개로 이어지고, 기적을 불러오며, 개인적인 약점이 강점으로 바뀐다는 것을 증명한다. 슬프게도 야렛 백성들은 이더의 가르침을 거부했으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에서 등을 돌렸다. 이더서 11~15장을 읽은 후,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본다. “이 장에는 나와 우리 세대를 위한 어떤 교훈이 있는가?”

해설

이더서 11장. 야렛 문명의 마지막 국면

- 니파이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야렛인 사회도 번영, 배도, 심판, 회개, 번영의 주기를 반복하여 겪었다. 결국 니파이인들처럼 이들도 배도와 간악함이 점점 치명적인 상태로 치달았다.(413쪽 부록에 나오는 “의로움과 간악함의 주기” 도해 참조) 이더서 11장은 야렛 백성의 배도 주기에서 마지막 국면을 보여 준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조롱하며, 매도했다. 술 왕이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선지자를 핍박하면 처벌하게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지만(이더서 7:23~26 참조) 그 후 다른 왕은 선지자들을 처형하는 정책을 만들었다.(이더서 11:5 참조) 마침내 간악함이 만연하게 되자 선지자들은 “애통해 하며 백성 중에서 물러났다.”(이더서 11:13)(277쪽에 나오는 힐라맨서 12:5~6 해설 참조)

이더서 11:2~5, 13, 20~22.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부하다

- 선지자 아모스는 선지자가 하는 역할 중 하나는 백성에게 임박한 멸망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니파이후서 25:9 참조; 또한 에스겔 33:7~10 참조) 이더서 11장에는 선지자가 외치는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결과가 분명하게 나온다. 선지자의 권고를 거부할 때 치러야 하는 대가와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얻는 안전에 대해 전한 제일회장단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의 말씀 내용을 잘 생각해 본다.

“선지자가 전하는 권고에서 안전에 이르는 길을 찾는다는 것은 신앙이 강한 사람에게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가 말씀할 때,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저 현명한 사람이 좋은 충고를 한다는 정도로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만일 선지자의 권고가 자신에게 편안하고 적절하며, 자신이 바라는 바와 일치한다고 생각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충고라고 간주해 버리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그런 권고는 예외라고 변명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기적인 동기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

삶을 살아오면서 저는 영감 어린 권고를 따르는 일을 미루거나 제 자신만은 그 권고에서 예외라고 생각될 때마다 위험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의 권고를 듣고, 기도로 그 권고를 확인하고 따를 때마다 저는 제가 더욱 안전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25쪽)

이더서 11:7~8. 자연 재해가 일어나면 결국 회개를 하게 된다

- 전쟁, 기근, 역병, 파괴에 따른 결과,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것을 읽을 수 있다.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은 때때로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회개하도록 자연 재해를 이용하신다고 설명했다.



“후기 성도는 비록 자신이 저지른 악행과 죄로 떨지라도 사악함 때문에 세상에 대심판이 임할 것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표적으로서 재앙이 온 나라에 임하리라는 경전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과 지진과 풍랑과 화산과 폭풍우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연과 자연 법칙의 통치자요 주인으로 믿으며, 매사에 그분의 손길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인간에게 그분의 권능과 목적을 알게 하시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의로써 통치하시려고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와 같은 가혹한 천재지변을 내리시며,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도록 일깨우고 더 나은 성품을 개발하여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고 믿습니다.”(*Gospel Doctrine*, 5th ed. [1939], 55;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자연 요소를 이용하시는 주님에 대한 설명을 더 보려면 힐라맨서 12:3; 교성 43:21~25; 88:88~91을 참조한다.)

이더서 12:4. “사람의 영혼에 맞”

•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활의 중심에 두는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큰 성취를 거두겠지만, 어떤 이는 낙담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기쁨과 즐거움과 건강과 은혜로운 삶을 누리겠지만, 또 어떤 이는 질병과 많은 슬픔을 겪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하늘의 복극성처럼 미래가 아무리 어떻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세상의 구속주께서는 우리 불멸의 삶에 맞으로서 굳건히 서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우리 구원의 반석이요, 힘이요, 위안이요, 신앙의 중심이십니다.”(*리아호나*, 2002년 7월호, 101쪽)



적용함으로써 신앙을 더욱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바라는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논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너희가 증거를 받지 못함이니라.’[이더서 12:6; 기울임체 첨가] 이에 따라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을 시험할 때마다, 다시 말해 영의 영향을 받기에 합당하게 행동할 때마다 영으로부터 확인하는 증거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강해집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 때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리아호나*, 2003년 5월호, 76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단계의 신앙과 그 전제 조건들을 서술했다. “예비하는 신앙은 알려진 과거 경험으로 형성되며, 이것은 믿음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미래 경험을 위해 속죄를 이루는 신앙을 행사해야 하며, 이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기회가 된다. 엄격한 신앙, 산을 움직이는 신앙, 야렛의 형제와 같은 신앙은 기적과 지식에 선행한다. 야렛의 형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믿어야 했다. 그는 그 행위를 완성하는 능력이 명확해지기 전에 행동해야 했다. 그는 온전한 경험이 실현되는 초기 단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경험을 행해야 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깝고 먼 장래에 요구하실 조건들을 무조건, 그리고 미리 동의하는 것이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1997], 18~19)

•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신앙이 “시련을 겪[은 후]”에 증거를 받는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 사는 한 자매님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그분이 직접 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닌 대학교에는 등록금이 밀린 학생들은 시험을 치를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월급을 받으면 먼저 십일조와 헌금을 따로 떼 놓은 뒤 나머지를 등록금과 기타 비용으로 분배했습니다.

한번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목요일이 월급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 달에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계산해보니 십일조와 등록금 둘 다를 낼 수는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격월로 실시되는 시험이 바로

이더서 12:4

이더서 12장 4절, 물몬서 5장 18절, 힐라맨서 5장 12절은 서로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영혼에 맞이 된 적은 언제인가?

이더서 12:6.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어야]”

• 신앙의 시련이 항상 역경의 형태로 오는 것은 아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때때로 “신앙[의] 시련”은 단순히 우리 신앙을 행사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가르쳤다. “여러분은 모로나이가 가르친 이 원리를

그 다음 주에 시작되는데, 만일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그 학기는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많이 고민했습니다. ……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정을 해야 하는 고통스런 순간이 다가오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십일조를 내느냐 아니면 학교에서 인정받는 데 필요한 학점을 딸 것이냐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고민 때문에 기진맥진해졌으며 토요일까지 그런 상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침례 받을 때 십일조 법에 따라 생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선교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무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번민이 사라지고 평온한 마음으로 즐겁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



그날 저녁에 기도를 드리면서 저는 주님께 제 우유부단함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요일에 성찬식 시작 전에 감독님을 뵙고 기쁜 마음으로 십일조와 헌금을 바쳤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행복하고 평안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을 한 후 수요일에 시작되는 시험을 치를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거듭해도 도무지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

근무 시간이 끝날 무렵, 사장님이 오시더니 그날 마지막 일을 주셨습니다. 그런 뒤 그분은 가방을 들고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보고 물어 보셨습니다. “대학교는 잘 다니죠?” 저는 깜짝 놀라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한 것이 “네 그럼요!” 한 마디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찬찬히 보시더니 다시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

느닷없이 비서가 방에 들어와서 제가 정말 운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문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오늘부터 언니의 대학 등록금과 책값 전액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셨어요. 퇴근 전에 제 자리에 오셔서 내일 언니한테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알려 주세요.”

비서가 나간 뒤에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평평 울면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주님의 사랑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치 등록금만 내면 되는데 제가 받는 금액과 비교하면 제가 일요일에 바친 십일조는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기도하는 동안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그 순간까지 저는 그 경전에 들어 있는 약속의 위대함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이 계명이 참으로 하나님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지상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증거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리아호나, 2002년 7월호, 81~82쪽)

이더서 12:6

엘마와 앰울레크, 니파이와 리하이(힐라만의 아들들), 암몬과 그 형제들은 이 원리의 가르침을 어떻게 보여주었는가?

이더서 12:8~22. 신앙과 기적

• 이더서 12장 8~22절은 “신앙으로 이루어진 이적과 기사”(이더서 12장 요약)에 대한 예로 가득 차 있다. *Lectures on Faith*에는 신앙이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의 원리라고 설명되어 있다.

“신앙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지적 존재의 행동 원리일 뿐만 아니라 권능의 원리이기도 하다. ……

…… 신앙으로 여러 세상이 형성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조직되지 않은 물질이 그 말씀을 들었으며, 그분 안에 있는 신앙으로 여러 세상이 조직되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신앙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해가 정지하고, 달이 순종하며, 산들이 없어지며, 옥이 무너지고, 사자의 입이 닫히며, 인간의 마음에 적의가 없어지고, 불은 그 맹렬함을 잃으며, 군대는 그 힘을 잃고, 칼은 그 무서움을 잃으며, 죽음은 그 지배력을 잃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신앙으로 일어난다.”([1985], 3, 5)

이더서 12:27. ㉮ 연약함, 겸손, 은혜

• 아담의 타락을 통해 인간은 연약함을 얻게 되었다. 신체와 정신은 질병에 걸리고 쇠약해지기 쉽다. 우리는 유혹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연약함을 경험한다. 그럼에도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께 겸손과 신앙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함이 강해지도록 도우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신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능가하여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기에 주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 아주 개인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속죄 권능이 어떻게 타락의 영향을 극복하는지를 경험하게 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도우실 수 있는지를 말씀했다. “우리가 경전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읽을 때, 이 말은 보편적으로 인간에게 일반적으로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선천적인 연약함도 포함하여 말한다. 이 연약함 때문에 육체는 끊임없이 영에 영향을 미친다.(이더서 12:28~29 참조) 또한 연약함에는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특정한 자신만의 연약함도 있다.(교성 66:3; 야곱서 4:7 참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연약함이 드러나기 마련이다.”(*Lord, Increase Our Faith* [1994], 84)

맥스웰 장로는 또한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을 인식하는 것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가 더 많이 배우도록 정하신 방법이 되는지 설명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될 때까지 제대로 인내하지도 못하면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는 듯한 자세를 취합니다. 이상하게도 …… 고작 손목시계를 차고 있으면서 우주의 시계와 달력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혼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그분과 그분의 아들처럼 되어서 본향에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발전 과정에는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유순해질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그러한 약점까지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더서 12:27 참조)

그러나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약점은 인생에서 각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과정 중 하나이며,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행복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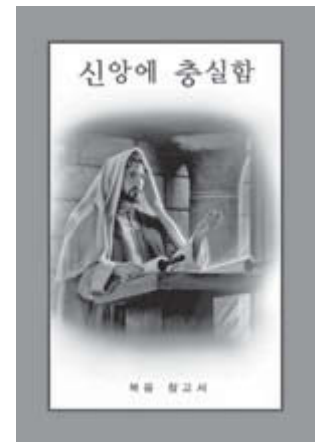
계획에서 절대로 필요한 부분입니다.”(*리아호나*, 1999년 1월호, 63쪽)

경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적합함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음을 증거한다.

1.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12:9)
2. “우리는 공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히브리서 4:16)
3.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이시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것이 그의 은혜에] …… 의한 것인 줄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야곱서 4:7)
4.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노니, 내 능력으로는 내가 약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하지 아니하겠고, 내 하나님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라.”(엘마서 26:12)
5. “너희가 만일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니,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모로나이서 10:32)

모로나이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해야 할뿐만 아니라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신앙에 충실함 책에서는 참된 겸손의 의미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겸손해진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함을 깨닫는 것, 즉 끊임없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겸손은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연약함, 수줍음, 혹은 두려움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알고 있다는 암시이기도 하다.”(*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 [2004], 20쪽)



• 경전 안내서에는 은혜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남자와 여자가 이 생에서 축복을 얻고 또 그들이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고 또 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최선의 노력을 행한 이후에 영생 및 승영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힘. 그러한 신성한 도움 또는 힘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통하여 주어진다.”(“은혜”)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위안을 주는 말씀을 전했다. “계속 추락하는 삶의 궤도를 바꾸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다고 느끼거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두려움인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전하신 다음 말씀에서 가장 큰 위안과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리아호나, 2000년 7월호, 58쪽)

이더서 12:32

이더서 12장 32절; 모로나이서 7장 40~41절과 교리와 성약 138편 14절에 따르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가?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는가?

이더서 12:33~37. 이 사랑이 참 사랑이다

• 구주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 생명을 바쳐 속죄하심으로써 가장 완전한 자애 또는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 주셨다. 우리는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모로나이서 7:48)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1915~1994) 장로는 참 사랑을 지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했다.

“아마도 사랑(자애)이란 여러 가지로 오해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병자를 방문하거나 궁핍한 이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거나 풍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여분을 나눔으로써 사랑(자애)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참된 사랑(자애)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자애)이란 남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것을 얻고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자애)이라는 미덕이 심어질 때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자애)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혈통하는 것을] 혐오하게 됩니다.

아마 가장 큰 사랑(자애)은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할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분류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 선의로 해석하거나 침묵을 지킬 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랑(자애)이란 다른 사람의 차이점과 약점, 단점을 수용하거나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을 인내심을 갖고 대하거나 다른 사람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지 않더라도 화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사랑(자애)이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자애)이란 상대방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19쪽)



이더서 12:41. 거하다

• 칠레에서 일 년을 보낸 후,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는 거하다(*abide*)라는 말에 관해 다음과 같은 통찰을 나누었다. “킹 제임스판 성경에서 고상한 문체로 쓰인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이해하기 쉽고 아름다운 개념이지만 ‘거하다’라는 말은 이제 영어에서 그다지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언어로 번역된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이 권고 말씀에 대해 더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스페인어로 이 단어와 유사한 표현은 *permaneced en mi*입니다. 영어 동사인 *abide*처럼 *permanecer*는 ‘남아 있다, 머물다’라는 뜻이지만 저와 같은 [영어 사용자] ‘permanence(영속)와 같은 어원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머물되, 영원히 머물라’는 의미입니다.”(리아호나, 2004년 5월호, 32쪽)

이더서 13:1~12. 새 예루살렘

• 이더서 13장 1~12절에는 이더가 얼마나 훌륭한 선견자였는지 묘사되어 있다. 이더는 주님을 통해 새 예루살렘이 건립되는 것을 포함하여 재립 전에 있을 많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더가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한 다음 내용에 주목한다.

1. “주의 거룩한 성소”가 될 것이다.(이더서 13:3)

2. 요셉 자손의 남은 자들을 위해 미대륙에 건설될 것이다.(4~6절 참조)
3. 주님을 위해 예루살렘과 같은 거룩한 성을 세울 것이다.(8~9절 참조)
4. 땅이 해의 왕국이 될 때까지 존속할 것이다.(8절 참조)
5. 깨끗하고 의로운 이들을 위한 성이 될 것이다.(10절 참조)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새 예루살렘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개념은 [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성, 곧 유대인의 옛 도시가 재건되는 날에 새롭게 된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더서에는 주님께서 이더에게 요한이 본 것과 똑같은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셨다고 나온다. 교회 회원들이 아는 것처럼 이더는 야렛 백성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유대인의 역사와 주님께서 성역을 베푸시던 시기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에 관해 많은 것을 계시해 주셨다. 시험에서 이더는 요한이 본 것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것을 보았다. 예루살렘 옛 성과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새 예루살렘을 보았고, 그것에 대해 기록했다. 그 내용에 대해 모로나이가 기록한 것이 다음 구절이다.

“[이더서 13:2~11] ……

재건을 하여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날에 세 위대한 성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에스겔의 예언에 따라 재건될 옛 예루살렘이며, 다른 하나는 시온 성 또는 에녹 성이다. 이 에녹 성은 에녹이 변화되었을 때 지상에서 들리어졌으나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시온 성 또는 새 예루살렘으로, 이 미대륙에 요셉의 후손들이 세울 것이다.”(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66], 2:103~104)

이더서 13:1~12

이 구절들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같은 특성들을 더 잘 계발할 수 있는가?

이더서 13:15~31. 코리엔투머

- 코리엔투머는 “모든 전술과 세상의 모든 간교함을”(이더서 13:16)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으나 이더가 전하는 단순한

메시지는 거부했다. 그 메시지를 따랐다면 그의 모든 전술로도 이룰 수 없는 평화를 얻었을 것이다.

이더서 13장 20~21절에서 선지자 이더가 코리엔투머에게 한 약속과 그 성취에 주목한다.(이더서 15:1~3, 26~32; 옴나이서 1:20~22 참조)



로버트 베렛, © 1986 IRI

이더서 14~15장. 야렛인의 마지막 전투

- 코리엔투머와 시즈는 그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전투를 끝내지 않았다. 여자와 어린이들까지 무장시켜 전장에 내보낸 야렛인의 마지막 전투가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다.(이더서 15:15 참조) 이는 주님의 영이 물러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19절 참조)



로버트 베렛, © 1986 IRI

생각해 볼 점

- 속죄 권능으로 여러분의 연약함은 어떻게 강하게 바뀌었는가?
- 이터서는 오늘날 지상에 사는 전인류에게 어떻게 경고를 외치는 역할을 하는가?
- 분노와 증오는 야렛인의 멸망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분노와 증오가 오늘날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 여러분의 신앙 또는 영적 결심은 어떻게 시련을 겪었는가? 이 신앙의 시련을 겪은 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또는 영원한 진리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늘어났는가?

제언 활동

- 필멸의 연약함을 통해 여러분이 얻게 된 개인적인 단점 또는 결점을 생각해 본다. 이터서 12장 27절(12:27)을 지침으로 사용하여 단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해 본다.
-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이 예수를 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들을 증거하시는 성신이 영원토록 너희 안에 계시며 또 거하시게 하라.”(이터서 12:41)는 모로나이의 기원을 깊이 생각한다. “예수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간략하게 적어 본다.

소개

야렛인 역사 요약을 마친(이더서 13:1; 15:34 참조) 모로나이는 자신이 계속 살아남아 더 기록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모로나이사 1장 참조) 그러나 그는 레이맨인과 니파이인의 마지막 전투가 끝난 후에도 36년을 더 살았다.(몰몬서 6:5; 모로나이사 10:1 참조) 이 기간 동안 모로나이는 후기에 이 책을 읽을 사람들에게 매우 가치 있을 성스러운 진리를 더 기록했다. 이 장들은 특히 우리에게 유용하다. 왜냐하면 합당한 의식 집행, 특히 성찬식과 교회 운영에서 성신이 하는 역할에 대한 지침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모로나이는 또한 교회 회원들이 새로 교회에 들어 오는 신회원들을 잘 돌보고 양육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설

모로나이사 1:1~3. 모로나이

- 주님께서는 모로나이에게 “에브라임의 막대기의 기록의 열쇠를 맡기셨다.”(교성 27:5) 그러므로 모로나이는 기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이 경륜의 시대에 기록을 전달하는 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 되었다. 모로나이는 “몰몬경에 나오는 마지막 니파이인 선지자(주후 421년경)”였다. “몰몬은 사망 직전에 몰몬의 판이라 불리우는 역사 기록을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전하였다.(몰말 1:1) 모로나이는 몰몬의 판의 편찬을 마쳤다. 그는 몰몬서에 8장과 9장을 추가시켰다.(몰 8:1) 그는 이더서를 요약하고 이를 포함시켰으며(이더 1:1~2) 모로나이사라 불리우는 그 자신의 책을 덧붙였다.(모로 1:1~4) 모로나이는 판을 인봉하고 그것을 쿠모라 산에 감추었다(몰 8:14; 모로 10:2) 1823년에 모로나이는 부활한 존재로서 몰몬경을 조셉 스미스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 보내어졌다.(조역 1:30~42, 45; 교성 27:5) 그는 1823년부터 1827년까지 어린 선지자를 매년 가르쳤으며(조역 1:54) 중국에는 1827년에 판을 그에게 넘겨 주었다.(조역 1:59) 번역을 완성한 후에 조셉 스미스는 그 판을 모로나이에게 돌려주었다.”(경전 안내서, “모로나이, 몰몬의 아들”)

모로나이사 1:4. 큰 가치가 있는 몰몬경

- 몰몬경은 많은 사람이 개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로나이는 몰몬경 때문에 후기에 레이맨인들이 얻게 될 유익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경륜의 시대에 내려진 첫 번째 선교사 부름은 올리버 카우드리와 그의 동반자들에게 초기 미국 서부 국경 지역(미주리)에 사는 레이맨인들을 가르치라는

부름이었다.(교성 28:8~10 참조) 오늘날 교회는 복음 메시지를 전 세계에 흩어진 리하이의 후손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전한다.

모로나이사 2:1. 니파이인 “제자들”은 사도였다

- “이 책(몰몬경)에서 우리는 구주께서 부활하신 후 이 대륙에 나타나셨으며 …… 이 대륙에도 사도, 선지자, 감독, 교사, 복음 전도자가 있었고, 동반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반차, 신권, 의식, 은사, 권능, 축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4:538)

“니파이인 십이사도가 제자로서 불려지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 그들은 사실상 니파이인에게 사도였습니다.”(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3권, 136쪽; 또한 몰몬서 9:18 참조)

모로나이사 2~5장.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의식의 중요성

-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의식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의식과 성약은 우리가 그분 면전에서 들어가기 위한 자격 증명서가 됩니다. 그것을 합당하게 받는 것은 평생토록 추구해야 하는 문제이며, 그 후에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것은 지상 생활의 과제입니다.”(성도의 빛, 1987년 7월호, 25쪽)

팩커 회장은 또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복음 의식이 없는 선한 행위는 인류를 구속하거나 승영에 이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성약과 의식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성도의 빛, 1986년 1월호, 91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가족과 우리가 참여하는 의식의 관계를 설명했다. “후기 성도의 궁극적인 우선순위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분들의 구원 의식을 받고 개인적으로 맺은 성약을 지킴으로써 그 관계를 굳건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둘째, …… 의식과 ……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가족 관계를 이해하고 굳건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방식으로 이러한 관계가 굳건해지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올 수 없는 영원한 축복들이 오게 됩니다. 과학이나 성공, 재물, 공지, 탁월한 권력,

이 모든 것을 합친다 하더라도 이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줄 수 없습니다.”(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02쪽)

모로나이서 3장
 모로나이가 한 말에 따르면, 제사와 교사 직분을
 성임하는 일에서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모로나이서 3:3. 교사 또는 “제사로” 성임하다

•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니파이인들이 구주의 방문을 받기 전에는 아론 신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곱서 1:18 해설(114쪽)을 참조한다.

모로나이서 3:4. “성신의 권능으로써” 성임하다

• 성신은 모든 신권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신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아신다. 성신의 권능으로 모든 의식이 비준된다.(교성 132:7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의식을 집행할 때 성신이 하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사도들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성신의 은사를 누린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이것[성신의 은사]이 신권을 조직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과, 이것 없이는 누구도 성역 직분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 또한 예언과 방언과 시현과 계시와 은사와 병 고침을 믿으며, 이러한 모든 것은 성신의 은사 없이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History of the Church*, 5:27)

모로나이서 4~5장. 성찬

•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우리의 성약을 기억하기 위해 성찬을 취하는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성찬 의식을 통해 우리는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고 죄 사함을 받으며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사이야서 4:12, 26 참조) 더욱이 우리는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라는 약속을 매주 상기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깨끗하고 흠 없이 지킬 때 우리는 주님의 영이 항상 거할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리아호나, 2006년 5월호, 31쪽)



모로나이서 10:4~5
 빵과 물을 축복하는 기도는 서로 어떻게
 비슷한가? 또는 어떤 점이 다른가?

모로나이서 4:3.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다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성찬식에서 구주의 이름을 받들 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의미 세 가지를 설명했다.

“우리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가 분명히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경전을 상고하고, 영생의 기이한 면을 숙고한 사람들에게만 분명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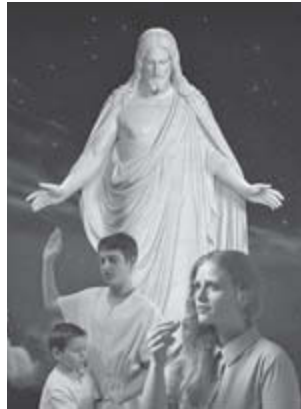
한 가지 분명한 의미는 우리는 침례 받을 때 맺은 약속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침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죄를 진실로 회개하였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자 하며 끝까지 그를 섬기려는 결심을 가졌음을 교회 앞에 증거[합니다].’(교성 20:37; 또한 니파이후서 31:13; 모로나이서 6:3 참조) 우리는 성찬을 들면서 이 성약과 함께 침례를 받을 때 맺은 다른 모든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2:303~311 참조)

두 번째로 분명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될 때 우리가 구주의 이름을 받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계명에 따라 그분의 이름으로 불립니다.(교성 115:4; 제3니파이 27:7~8 참조) 나이가 많은 적든 모든 회원은 ‘하나님의 권속’(에베소서 2:19)입니다. 참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기쁘게 그분의 이름을 받들었습니다.(앨마서 46:15 참조) 베냐민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맺은 성약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의 아들과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는 보라, 오늘날 그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으셨음이라.’(모사이야서 5:7; 또한 앨마서 5:14; 36:23~26 참조)

우리는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음을 공적으로 알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친구, 이웃, 직장 동료와 우연히 알게 된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밝힐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

세 번째 의미의 경우,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는 그분을 섬길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만큼 충분히 성숙한 사람들은 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점을 증거함으로써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왕국을 위해 일하겠다는 뜻을 표합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분명한 의미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나 교회에 속하여 그분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때, 혹은 주님의 왕국을 위해 일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성도의 빛, 1985년 7월호, 88쪽)



모로나이사 4:3; 5:2. “항상 그를 기억하고”

•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주님을 기억하는 일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을 더 자주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선교 사업을 하신 분들은 아마도 한 번쯤은 벽장에 넣어 둔 선교사 일지를 꺼내서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끊임없이 구주를 생각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나고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을 위해 치르신 그분의 희생에 대해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또한 얼마나 자주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기억하고는 새삼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세상살이 때문에 늘 기억하고 늘 기도하던 상태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를 자각한 데에서 오는 충격일 것입니다.

제 말씀의 핵심은 당부, 경고, 그리고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순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알며,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경전을 주셨는데, 그것은 선지자들이 한량없는 값을 치르고 얻은 것입니다. 경전에 몰두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읽겠다고 지금 결심하십시오.”(“항상 그를 기억하고”, 리아호나, 2005년 12월호, 10쪽)

모로나이사 6:2.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

•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였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구주, 즉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을 고뇌와 고통을 겪도록 했음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구주께서는 모든 구멍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이 진정한 정신적, 영적 고뇌가 경전에서 말하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제3니파이 9:20; 모로나이사 6:2; 교성 20:37; 59:8; 시편 34:18; 51:17; 이사야 57:15)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참된 회개의 절대적인 선행 조건입니다.”(“마음의 큰 변화”, 성도의 빛, 1989년 3월호, 5쪽)

칠십인의 브루스 디 포터 장로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의 의미를 더 자세히 설명했다.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 존재 자체가 그분께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는 모든 형태의 교만을 버리는 희생을 요합니다. 상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숙련된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주님의 손안에서 반죽되어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

……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반항이나 원망 없이 기꺼이 행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방법으로 행하기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배웁니다. ……

상한 마음의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고통에 깊이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 우리가 구주와 그분의 고통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은 구주에 대한 감사로 벽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 존재 자체를 그분께 희생(희생 제물로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화평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이사야 61:1) 것이며 ……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32쪽)

모로나이서 6:3. “섬길 결심”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침례 받고 교회 봉사에 부름 받을 때 우리 모두가 취해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록 승영이 각자의 문제이며 단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틀림없지만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교회 회원이 되면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요구 받습니다. 책임을 받은 직책이 중요한 직책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보상이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과 준비된 손과 지극한 정성으로 하는 봉사를 받아들이십니다.”(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62쪽)

모로나이서 6:4.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하여”

• “역사함을 받아”라는 것은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다.

모로나이서 6장 4절에서 이 구절은 상징으로 쓰였으며, 영이 개종자에게 역사하여 변화시킬 때를 이르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죄는 실제로 불의 침례, 곧 정결하게 하는 성신의 권능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 제거된다.(니파이후서 31:17; 앨마서 13:12; 제3니파이 27:20 참조) 또한 성신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충실한 후기 성도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 속죄 권능을 얻게 된다.

• 고든 비 헝클리(1910~2008) 회장은 새로 개종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경험을 전해 주었다.

“모든 개종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모로 6:4) 개종자가 신권 정원회나 상호부조회, 청년, 청년, 주일학교, 또는 초등학교에 속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성찬식에 참석하여 성찬을 취하고 침례 때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도록 개종자를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입니다만, 제가 속한 와드에서 한 부부가 전해 준 말씀이 생각납니다. 형제님은 감독 직분을 비롯해 교회에서 많은 부름을 받아 봉사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가장 최근 부름은 어느 미혼모 가족과 우정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교회 부름 중 가장 즐거운 부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혼모인 그 젊은 여성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실수해서 자신이 당황해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 형제 부부는 그 가족을 교회에 데려오고, 곁에 앉아서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 그대로 방패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 부부는 자택에서 그 자매의 가족과 함께 매주 하루는 저녁을 함께 보내며 복음에 관해 더 가르쳐 주고, 많은 질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린 가족을 양 떼를 인도하는 목자처럼 인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정상 그들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그 자매님과 연락을 합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큰 감사를 느낍니다. 그녀는 이제 교회에 뿌리를 튼튼히 내렸기 때문에 더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녀와 함께 봉사해서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잘 보살핀다면 잃어버리는 수는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양을 찾고 먹이라”,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20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교회 회원들을 “바른 길에 있도록” 지키는 보편적인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가정과 교회에서 영감 어린 가르침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물론 그 부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어느 곳이나 존재합니다. 그 필요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친구, 선교사,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사,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 반 교사. 이런 분들이 각기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과 배움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교회에서 어떤 형태든 간에, 다른 회원을 인도하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기란 실로 불가능합니다.”(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25쪽)

모로나이서 6:4. “그들의 신앙의 창시자이시요 완성자”

• 창시자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생산, 창조, 또는 존재를 만드는 사람”이다.(Noah Webster’s First Edition of an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828 [1967])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는 신앙을 얻고 발전시키기 위해 구주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 이유로 신앙개조 제4조에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완성자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을 발전시키는 데에서 구주께서 하시는 역할에 적용되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완성하는

사람, 완전히 수행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주님처럼 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그분께서 자신의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신다는 점을 신뢰할 수 있다. 둘째, “완성 또는 완전하게 하는 사람”(Noah Webster's First Edition)이다. 우리가 성약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때, 결국 신앙 여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완전에 이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이다. 완성하다라는 말과 관련된 정의는 “최상으로 다듬다”(Noah Webster's First Edition)라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그분의 아들과 딸로서 신앙으로 나아가면, 그분은 최상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우리의 구속에서 구주께서 맡으신 중심 역할을 말씀했다. 아이어링 회장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창시자이시요 완성자’(모로나이서 6:4)라고 한



모로나이의 간증에 자신의 간증을 덧붙였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속죄를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구주이십니다. 신앙으로 침례탕에 들어가고 성신의 은사를 받는 이들을 먹이실 분은 바로 구주이십니다.

그들이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어린아이처럼 늘 순종할 때 주님의 영이 항상 그들과 함께함을 확신시켜 주시는 분 또한 구주이십니다.”(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84쪽)

모로나이서 6:5. 자주 함께 모이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위스린(1917~2008) 장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유대감을 상기시켜 주었다. 위스린 장로는 교회 회원들이 자주 함께 모이라는 중요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치르는 희생을 말씀했다.

“교회 회원이 됨으로써 얻는 많은 유익 중 하나는 성도들과 교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유럽을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우리는 독일에 있는 군인들을 위해 잊지 못할 스테이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훌륭한 형제 자매들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차로 달려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날 밤에 도착하여 문화회관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떤 희생에도 개의치 않으면서 그들은 같은 후기 성도들과 함께할 수 있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이면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에베소서 2:19)입니다.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의 복리에 관하여 서로 말하기 위하여 자주 함께 모이라’[모로나이서 6:5]는 계명과 더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연차 대회와 세계 전역에서 열리는 다른 교회 모임을 통해 함께 모여 교우 관계를 맺는 기쁨을 찾습니다. 복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훌륭한 벗이 되고 하나님의 영과 가까워짐으로써 위안을 얻습니다. 예배 의식에서는 그 영이 임재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게 됩니다.”(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32쪽)

모로나이서 6:7. “그들 중에 죄악이 있지 못하도록”

- 베냐민 왕은 사람의 이름이 오직 범범으로만 지워져 없어진다고 설명했다.(모사이야서 1:12 참조) 엘마는 간악한 사람들의 이름은 “내 백성의 이름과 섞이지 아니할 것이라”(엘마서 5:57)고 경고했다. 심각한 범범을 지은 사람들은 각각 회개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의 면전이나 왕국의 회원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회개하지 않은 회원들은 교회 선도 조치를 통해 회원 자격을 잃을 수 있다. (교회 선도 조치가 필요한 죄의 종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163쪽에 있는 모사이야서 26:32~36 해설을 참조한다.)

모로나이서 6:7~8

물문경 시대에 교회 선도 조치는 어떤 식으로 행사되었는가?

모로나이서 6:9.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

-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비 헤이트(1906~2004) 장로는 모임에 영을 불러오는 중요성을 말씀했다.

“몰몬이 몰몬경에 기록한 것처럼 니파이인들이 쇠락한 가장 큰 비극은 성신과 영적 은사를 상실한 것에서 왔습니다. 지혜와 영감을 통해 모로나이는 부친 몰몬이 준 성임, 성찬, 교회 운영에 관한 가르침을 그의 기록 종결부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들의 모임에 관한 이 간증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의 모임은 교회에 의하여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신의 권능으로 인도되었나니, 이는 성신의 권능이 그들을 인도하여, 혹 가르치거나, 또는 권면하거나, 또는 기도하거나, 또는 간구하거나, 또는 노래하게 하는 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졌느니라.’(모로나이사서 6:9)

이는 우리의 성찬식과 예배를 특징지을 수 있으며, 또 마땅히 그래야 하는 정신입니다.

그러한 영적 모임이 끝난 후 한 자매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들은 말씀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폐회 찬송을 부르고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어떻게 느꼈는지는 기억합니다.’(“주님의 성찬을 이해함”, 성도의 벗, 1989년 3월호, 14쪽)

생각해 볼 점

-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생각하는가? 어떤 성약을 자주 기억하는가? 왜 여러분의 모든 성약을 자주 기억해야 하는가?

- 우리는 왜 교회에서 자주 함께 모이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자주 함께 모임으로써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오는가?
- 영의 역사하심에 따라 모임을 진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제언 과제

- 빵을 축복하는 성찬 기도문을 읽고 그 다음 물을 축복하는 기도문을 읽는다.(모로나이사서 4~5장 참조) 기도문을 읽으면서 3인칭 대명사인 우리, 그들, 저희를 1인칭 대명사인 나 또는 나를로 대체해서 읽어 본다. 이것이 성찬 기도의 의미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생각해 본다.
- 이 성구에서 모로나이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을 기억하라고 말했는지 생각해 본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구주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개인 일지에 기록한다.

소개

여기서 우리는 몰몬의 아들 모로나이가 기록한 몰몬의 힘있는 설교를 읽게 된다. 모로나이서 7장 이전에 나오는 몰몬의 기록은 주로 다른 선지자들의 기록을 요약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에는 몰몬이 교회의 의로운 회원들에게 전한 강력한 설교를 읽을 수 있다.(모로나이서 7:2~3 참조) 몰몬은 영적으로 타락해 가는 사회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가르쳤다. 이 설교에서 그는 우리 행동의 동기가 의도가 올바라야 하는 필요성, 선악을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신앙, 소망, 사랑 간의 중요한 관계를 강조했다.

해설

모로나이서 7:2~3. “주의 안식”

• 경전에는 종종 “주의 안식”에 관한 말씀이 나온다.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은 모로나이서 7장 3절을 인용한 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한 안식은 육체적인 안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는 육체적인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마음으로 진리를 확신할 때 오는 영적 안식과 화평을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오늘날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모두가 이 안식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현재 그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만족감을 얻고, 진리에 마음을 쏟으며 확고한 결의로 중요한 부름을 완수하는 데 전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따르는 성도들을 위하여 표시된 길을 겸손하고 의롭게 걸어갑니다. ……

저는 제가 이 진리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그분께만 안식과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을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인간과 인간의 철학에 기만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에, 화평한 중에 그리스도를 따르고 안식을 누리는 이들은 행복을 느끼고, 지금부터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안식하게 될 때까지 넉넉한 소망을 얻습니다.”(*Gospel Doctrine*, 5th ed. [1939], 126, 128)

모로나이서 7:3~4

“화평한 중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화평한 중에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또한 교성 19:23 참조)

모로나이서 7:6~9.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모든 사람은 이웃에게 봉사라는 선물을 선사할 무수한 기회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봉사를 하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가르쳤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속 의도를 아신다고 가르치는 성구들이 많습니다.(교성 6:16; 모사이야서 24:12; 엘마서 18:32 참조) 선지자[모로나이]는 우리가 하는 행위가 훌륭하고 의로운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의로운 의도로 행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

…… 이러한 성구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이웃에게 순수하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봉사해야 하며 왜 봉사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동기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며, 어떤 동기는 다른 동기보다 더욱 훌륭합니다. …… 우리는 가장 훌륭한 동기에서 봉사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 간략하게 열거해 보면 여섯 가지 동기를 들 수 있습니다. 가장 차원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으로 봉사하는 동기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1] 세상적인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

[2] 봉사하는 또 다른 이유는 ……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

[3] 어떤 사람은 처벌이 두려워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

[4] 의무감이나 친구, 가족, 전통에 대한 충성 때문에 봉사하기도 합니다. ……

[5] 봉사하는 더 훌륭한 동기는 영원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

[6] …… 가장 차원이 높은 동기는 …… 자애입니다. ……

……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서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행하는 봉사는 우리 모두에게 큰 과제입니다. 그러한 봉사에는 이기적인 야심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동기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성도의 빛, 1985년 1월호, 13~15쪽)



• 제일회장단의 매리온 지

롭니(1897~1988) 회장은 순수한 동기로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 경험을 나누었다.

“약 25년 전, 롭니 자매와 저는 막 집회소를 짓기 시작한 와드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현금을 해야 한다고 감독님이 생각하는 액수를 알고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 금액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두 배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에서 높은 직책에 막 부름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감독님, 내겠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 나누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나누어서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이 남을 때까지 계속 지불해 갔습니다. 그때 평소처럼 물문경을 읽고 읽었는데,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 사람이 …… 예물을 드리면, 마지못하여 그렇게 함이라. 그리하여 마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한 것처럼 그에게 여겨지나니, 그런즉 그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으로 여김을 받느니라.’(모로나이서 7:8)

저는 이미 천 달러 가량을 냈기 때문에 이 구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나머지 세 차례에 나눠 내기로 한 금액을 약속한 대로 현금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제가 의로운 태도로 냈다는 확신을 드리기 위해 몇 번을 더

냈습니다.”(“Mother Eve, a Worthy Exemplar,” *Relief Society Magazine*, Feb. 1968, 84~85)

• 제일회장단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진정한 의도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가르침이면 무엇이든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포함한다고 가르쳤다. “어린 조셉 스미스는 우리에게 그런 방법으로 기도하는 법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셉은 야고보서에서 읽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믿음으로 숲으로 갔고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할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어떤 말이든 들은 대로 행할 만큼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셉은 이미 순종할 결심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90쪽)

모로나이서 7:12~19. 그리스도의 빛

• Bible Dictionary(성경 사전)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그리스도의 빛은 그 말이 함축하는 바와 같이 교회와 지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인류에게 미치는, 고양시키고, 고귀하게 하며, 보호하는 영향을 뜻한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교성 93:2; 요한복음 1:9)이다. 그리스도의 빛은 ‘광활한 우주’를 채우며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계시고, 만물 주위에 계시실’ 수 있는 수단이다. 그것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며, 만물을 다스리는 율법’이다. 그것은 또한 인간의 이해력을 ‘일으키는 바로 그 빛’이다.(교성 88:6~13, 41 참조)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빛은 인간의 양심과 관련이 있으며 인간에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모로 7:12~19 참조)

그리스도의 빛을 인격체인 성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빛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이 성신을 받도록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영향력이다. 그리스도의 빛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정직한 영혼을 참된 복음과 참된 교회로 인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신을 받게 한다.(교성 84:46~48 참조) (“Light of Christ,” 725; 또한 경전 안내서, “빛, 그리스도의 빛”; 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 [2004], 42쪽 참조)

• “양심은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난 것이며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준다.”(신앙에 충실함, 42쪽) 경전에서 “그리스도의 영”(몰몬서 7:16)과 “그리스도의 빛”(18~19절)은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 빛이 선악을 구별하도록 도와주는 은사라고 간증했다.

“이런 내적인 빛과 관계 없이, 옳고 그름에 관한 이 지식은 그리스도의 빛, 도덕 관념, 또는 양심이라 불리며, 우리가 그것을 억누르거나 묵살해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도록 우리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나라, 종교, 또는 피부색이 다양한 모든 남자와 여자, 어린이들, 즉 모든 사람은 그들이 사는 곳이나 믿는 것이나 또는 행하는 것에 관계없이 내면에 불멸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지닙니다.”(“그리스도의 빛”, 리아호나, 2005년 4월호, 8, 10쪽)

•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성신과 그리스도의 빛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무한한 공간을 채우며 어디든지 있는 영을 성신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은 인격체가 아니며, 크거나 부피가 없습니다. 이 영은 아버지와 아들 면전에서 나오며, 모든 것에 존재합니다. 성신은 인격체로서 ‘그(he)’로, 영은 ‘그것(it)’으로 불리야 합니다. 그러나 성신의 은사나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그것(it)’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현대 계시를 통하여 아는 바와 같이 성신은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이며, 영으로 된 인격체입니다. 다음 용어들은 동의어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 보혜사. 이 모두가 동의어로 쓰이며 성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용어들은 진리의 빛,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으로도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다른 별개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히 혼동되고 있습니다.”(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1권, 47쪽)

•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영감은 이 교회 회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빛은 세상에 있는 많은 지도자에게 영향을 주었다.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그 외 사람들을 비롯한 철학자들뿐 아니라 마호메트와 공자와 종교 개혁가와 같은 전세계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빛을 일부분 받았습니다. 도덕 진리는 모든 민족을 계몽하고 인간이 더 수준 높은 이해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영원한 구원으로 향하는 길에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충분한 지식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제일회장단 말씀, 1978년 2월, 15일)”(리아호나, 2002년 3월호, 4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그리스도의 빛과 성신의 은사의 관계를 설명했다.

“우리 개개인은 세상에 빛을 가져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

그리스도의 빛을 사용하여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위대한 빛인 성신의 은사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리아호나, 2002년 7월호, 77쪽)

모로나이서 7:17. 합당하지 않은 근원으로부터 오는 영감

• 사탄은 계시를 강요하거나 강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거짓 계시를 주는 능력이 있다. 사탄에게서 오는 메시지는 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러한 거짓된 영적 메시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합당하지 못한 근원으로부터 오는 영감에 속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은 거짓된 영적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 천사가 있는 것과 같이 거짓 영도 있습니다.(모로나이서 7:17 참조) 악마가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충동을 영적인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속삭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감정 때문에 온 것이거나 악마로부터 온 것임을 발견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주님의 등불”, 성도의 벗, 1983년 10월호, 36쪽)

모로나이서 7:19~25. “모든 선한 것을 붙잡으며”

• 물몬은 모든 선한 것을 붙잡는 것이 신앙의 열쇠라고 가르쳤다.(모로나이서 7:25 참조) 상호부조회 방문 교육 메시지에는 신앙으로 “모든 선한 것을 붙잡[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실려 있다.

“개인적으로 간증을 쌓는 일은 소망에 관한 문제이며 신앙과 소망을 키우겠다고 선택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든

선한 것을 붙잡[기를] 갈구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신앙을 증진시키는 다음 행위를 선택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을 계획한다.

성찬을 들고 성전을 방문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우리의 성약을 기억하고 새롭게 한다.

경전을 우리의 행동에 대한 개인 지침으로 사용한다.

간증을 쌓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우정을 키워 나간다.

하루 일과 중 봉사하는 시간을 낸다.”

(“범사에 선을 좇아 행함”, 성도의 빛, 1991년 4월호, 25쪽)

- 본부 초등회 회장단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미켈린 피 그래슬리 자매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일이라고 말씀했다.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낼 수 있도록 영적 감각도 같은 방법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선행을 함으로써 영적 감각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부지런히 탐구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할지니, 만일 너희가 모든 선한 것을 붙잡으며, 그것을 정죄하지 아니할진대, 너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것’(모로나이서 7:19)이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그분을 따르십시오”, 성도의 빛, 1990년 1월호, 122쪽)



모로나이서 7:22~32

이 구절에서 설명된 원리들은 우리가 “모든 선한 것을 붙잡[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모로나이서 7:29~31. 성역을 베푸는 천사

-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린드 장로는 물몬경에서 천사의 실재성을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는 물몬경에서 다루는 심오한 주제 중 하나가 복음 이야기에서 천사가 맡는 역할과 잦은 등장, 중심적인 참여라고 확신합니다. ……

살아갈수록 우리 생활에 더 중요해지는 것 중 하나는 천사의 실재성,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과 성역입니다. 모로나이 천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주위에서 좀 더 개인적으로 성역을 베풀며, 우리를 도울 힘이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3니 7:18; 모로 7:29~32, 37; 교성 107:20 참조) ……

저는 우리가 좀 더 자주 천사의 성역에 대해서 말하고 믿으며 간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사의 성역은 휘장을 통해 증거하는 하나님의 훌륭한 방법 중 하나이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문서도 물몬경처럼 그렇게 분명하고 설복력 있게 이 원리를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For a Wise Purpose,” *Ensign*, Jan. 1996, 16~17)

- 칠십인의 브루스 시 하펜 장로는 천사는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자녀에게 계속 성역을 베푼다고 가르쳤다.

“보이지 않는 천사의 성역은 하늘과 땅이 상호 작용하는 가장 숭고한 형태 중 하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천사의 성역으로 궁핍한 이들은 실질적인 확신과 영적인 힘을 받습니다. ……

천사들은 언제 옵니까? 우리가 합당하도록 노력한다면 가장 필요한 시간에 우리 가까이 천사들이 있을 것입니다.”(“When Do the Angels Come?” *Ensign*, Apr. 1992, 12, 16)

모로나이서 7:29~31

성역을 베푸는 천사의 사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모로나이서 7:32~39.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을 찬란한 빛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 통제할 수 없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시련을 홀로

맞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게 합당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리라.(모로나이서 7:33)

희망이 없다고 느끼거나, 범범으로 괴롭거나, 아프고 외롭거나, 또는 위안과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율법을 신중히 따른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주실 것임을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며,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을 압니다.”(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100쪽)

모로나이서 7:40~44. 소망

- 몰몬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비롯되는 소망에 대해 말했다.(모로나이서 7:40, 42 참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명에 집중된 소망은 우리가 직면하는 역경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다. 제일회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은 소망을 품을 때 고단한 삶에도 평화가 온다고 가르쳤다. “개인의 능력, 학문, 힘, 재능보다 훨씬 거대한 소망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근원 중 하나는 성신의 은사입니다. 신화의 일원인 성신으로부터 받는 놀라운 축복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 [모로나이서 10:5] 수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닻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힘이 세거나 약하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에 상관없이 소망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몰몬경에는 이런 권고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더 나은 세상, 곧 참으로 하나님 우편의 처소를 바랄 것이요, 이 소망은 신앙에서 비롯하여, 사람의 영혼에 닿이 되어, 그들로 확실하고 굳건하며, 늘 선행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 하였더라.' [이터서 12:4]

이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 문제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필멸의 삶에서 치려야 하는 시험 중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련 중에는 신앙과 소망에 근거하지 않고는 그 이유를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해하지는 못하는 더 큰 목적이 종종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소망을 통해 옵니다.”(리아호나, 2000년 1월호, 70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틴(1917~2008) 장로는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역경이 바람처럼 몰아쳐도 아버지께서는 소망에 닿을 내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14:18)고 약속하셨으며 [우리의 고난을 성별하사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실]](니파이후서 2:2) 것입니다. 시련이 너무 버거운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역대하 20:15)라고 하신 주님의 분명한 약속에서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리아호나, 1999년 1월호, 27쪽)

모로나이서 7:43~44.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여”

- 감리 감독단의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은 온유해지는 과정과 덕성을 설명했다. “온유함은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다른 중요한 덕성을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몰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이라.'(모로나이서 7:44) 온유해지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누가복음 9:23)는 요구를 받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을 가끔 하는 운동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더 온유해지는 일은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절하고 은화한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확신과 힘, 평온함을 나타내며 올바른 자기 평가와 자제를 반영합니다.”(Neal A. Maxwell, “Meekly Drenched in Destiny”, *Brigham Young University 1982~1983 Fireside and Devotional Speeches* [1983], 2) 우리가 더욱 온유해지면 영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99쪽)

모로나이서 7:44. 신앙, 소망, 사랑

-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중요한 진리인 신앙, 소망, 사랑(자애)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도 바울은 삶이라는 건물물 지을 때 가장 기초에 두어야 할 세 가지 거룩한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자애)입니다.(고린도전서 13:13 참조) 이것들은 다리가 세 개인 의자 다리처럼 우리를 튼튼히 받쳐 주는 지주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원리 각각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것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이 원리들은 따로따로

떼어 놓으면 불완전해집니다. 소망은 신앙이 커질 수 있도록 도우며, 마찬가지로 참된 신앙은 소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기 시작하면 믿음도 휘청거립니다. 믿음과 소망이라는 원리가 함께 작용하면 모든 것 가운데 제일인 사랑(자애)이 수반됩니다. 물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영원히 견딤이요'(모로나아서 7:47) 믿음과 소망을 완전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사랑(자애)입니다.

이 세 가지 영원한 원리가 함께 작용할 때, 이 원리들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된 호된 시련을 비롯하여 가장 힘든 인생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필요한 폭넓고 영원한 안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지닐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자라며 우리 자신과 현재 직면한 문제를 크게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소망을 통해 힘을 얻게 되면 우리는 매일 순종하고 그리스도인다운 봉사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33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신앙, 소망, 사랑(자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했다.

"신앙, 소망, 사랑(자애). 이 세 가지가 서로 강하게 연결될 때 그리스도께 인도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서 얻는 소망과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말합니다.(이더서 12:28; 모로나아서 7:47 참조) 이 세 가지는 각각 우리가 해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속성입니다.(모로나아서 10:20~21; 이더서 12:34 참조)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모로나아서 7:39, 43 참조)

신앙과 소망은 서로 끊임없이 상호 작용을 하며, 늘 정확히 구별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망은 지식으로 완전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참되다는 기대감을 키워 줍니다.(이더서 12:4; 또한 로마서 8:24; 히브리서 11:1; 앨마서 32:21 참조) 회복된 신학 이론에 따르면 소망은 신앙보다 더 뜻이 광범위합니다. 신앙이 커지면 소망도 커집니다."(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35쪽)

모로나아서 7:44~48. 사랑(자애):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 어떤 사람들은 사랑(자애)이 의도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과 축복을 받아야만 한다. 선지자 물론은 우리에게 사랑(자애)을 구하고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모로나아서 7:48)

칠십인인 로버트 제이 웨튼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신앙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도 영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의로움의 원리를 따르고 근거가 되는 율법에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 주어집니다. 신앙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발휘될 때 성장합니다."(리아호나, 1999년 7월호, 34~35쪽)

-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사랑(자애)에 대해 설명하고, 사랑(자애)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모로나아서 7:47)인 자애는 한 행위가 아니라 한 존재에 지속되는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자애는 개심한 결과로 나타나는 연속된 행위에서 생겨납니다. 사랑이란 사람이 되어 가는 그 무엇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로나이가 밝혔듯이 '사람들이 이 사랑을 갖지 아니할진대' 아버지의 거처에 예비하신 처소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이더서 12:34 참조)"(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2쪽)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사랑(자애)이 우리 삶에 축복이 되는 이유를 가르쳤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에 대한 더 큰 정의는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대개 실패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공적으로 완전하게 보여 주신 사랑(자애)이다. 참된 사랑(자애)는 단 한 번만 알려졌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순수하게 보여 주신 무한하고, 궁극적이며, 속죄하는 사랑이다. 우리에게 대해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자애,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희망을 잃고 모든 사람은 가장 비참한 상태에 이를 것이다. 참으로 마지막 날 곧, 속죄, 부활, 영생, 영원한 약속의 날에 그분의 사랑을 축복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계명이 줄어들지는 결코 아니다. …… 우리는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서 더욱 지속되며 변함없고, 더욱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삶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물몬이 말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정확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뜻한다. 그 신성한 은사, 그 구속의 은사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이며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되며 종국에는 ‘악마가 되며 악마에게 속한 사자가[니파이후서 9:9] 될 것이다.

인생에는 두려움과 실패가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경제나 사업, 또는 정부가 우리를 낙담하게 만든다. 그러나 현재나 영원에서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다. ……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으키는 기적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변화된다. 속죄를 이룬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받으며 육욕적이고 세속적이며 악한 행동에서 구원받는다. 또한 이 구속하는 사랑으로 영혼이 변형되며, 타락한 표준에서 벗어나 훨씬 더 고귀하고 거룩한 상태로 오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붙들[어야]’ 한다.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붙들고 그분과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품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영원한 행복에 대한 우리의 계획도 쓸모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다른 모든 속성, 덕성스러운 속성과 모범이 되는 선행이 있다 해도 구원과 기쁨을 누리기에는 부족하다.”(Christ and the New Covenant [1997], 336~337)

모로나이서 7:48. “마음의 힘을 다해” 기도하라

• 모로나이서 7장 48절은 “마음의 힘을 다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곧 다른 무엇보다도 자애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어떻게 오는지를 가르친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면 다른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도 같은 결과를 얻는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은 간절한 기도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쳤다. “가정에서 가족 기도를 할 때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며 정직한 것인지 아닌지를 곧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성급하게 기도한다면 금세 알아차립니다. 가족 기도를 할 때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물몬이 외친 간곡한 권고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라.]’(모로나이서 7:48)”(“항상 기도하라”, 성도의 벗, 1982년 3월호, 2~3쪽)



생각해 볼 점

-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이 모로나이서 7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 왜 사랑은 “모든 [은사] 중에 으뜸이 되는[가]?”(모로나이서 7:46)
-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여러분의 태도와 의도는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제언 과제

- 모로나이서 7장 45절(45)에 나열된 특성들과 모로나이서 7장 48절에 있는 물몬의 간구를 기초로 하여, 여러분의 생활에서 사랑을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짧은 문단으로 작성한다.

소개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의를 저버리고 세상의 유희를 좇는 시대에 충실한 교회 회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몰몬이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쓴 마지막 편지가 몰몬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몰몬은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권고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땅을 지으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 문명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몰몬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자. 이는 만일 우리가 수고하기를 그치면 우리가 정죄 아래 들게 될 것이요, 우리에게 이 흙의 성막에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음이니, 이는 우리가 모든 의의 원수를 이기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모로나이서 9:6)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와 같은 일을 지금 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 왕국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92쪽)

몰몬경 막바지 부분에는 속죄 권능이 선포되어 있다. 또한 니파이인들이 급속도로 간악함에 빠져드는 동안에도 위대한 대업에 대한 몰몬의 충실함이 잘 나타난다. 몰몬이 아들 모로나이에게 보낸 편지에는 죄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결과와 더불어 어떻게 “감각도 없[는]” 상태가 형언할 수 없는 간악함으로 이어지는지가 드러난다. 모로나이서 8~9장은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에 따라 사는 중요성에 대해 가지 있는 통찰을 알려준다.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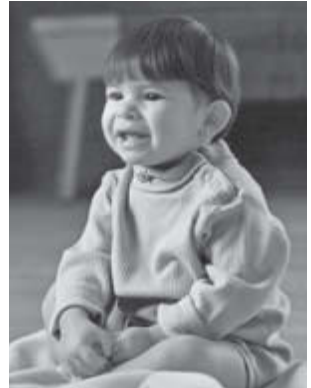
모로나이서 8:1~8. 어린아이의 침례를 금하다

- 모로나이서 8장에는 모로나이가 부친인 몰몬에게서 받은 편지가 실려 있는데, 이 편지에는 어린아이에게 침례가 필요한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 이 교리적인 질문에 대해 몰몬이 말한 답은 주님께 계시를 통해 그가 직접 받은 것이다.(모로나이서 8:7 참조) 침례 의식은 “죄 사함을 위한”(교성 49:13) 것이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죄가 없다. 사실상 그들은 교리와 성약에 설명된 것처럼 죄를 지을 능력이 없으며 사탄도 어린아이를 유혹할 수 없다.

“어린아이는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나의 독생자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그런즉 그들은 죄를 지을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내 앞에서 책임질 수 있게 되기 시작할 때까지는 어린아이를 유혹할 능력이 사탄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음이니라.”(교성 29:46~47)

주님께서는 책임을 묻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를 여덟 살로 정해 주셨다.(조성, 창세기 17:11; 교성 68:25 참조) 일부에서 아담의 저주라 지칭하기도 하는 원죄를 없애고자 유아에게 침례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다.(모로나이서 8:8 참조)



모로나이서 8:3

이 구절에서 의로운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는가? 이 구절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관계 모형을 보여 주는가?

모로나이서 8:8. “할례의 법이 …… 폐하여졌도다”

-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언하셨다. “이에 내가 너와 할례의 성약을 세우리니, 이는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나의 성약이 될지니, 이는 어린아이들이 여덟 살이 되기까지는 내 앞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하는 줄을 너로 영원히 알게 하려 함이니라.”(조성, 창세기 17:11)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 (창세기 17:11)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고대에 많은 사람은 배도의 영에 영향을 받아 할례가 남자 아이를 거룩하게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믿었다.

할례의 법은 영원히 지속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었다. 구주께서는 몰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할례의 법이 나로 말미암아 폐하여졌도다”(모로나이서 8:8) 교리와 성약에는 할례의 법이 종식된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교성 74:2~7 참조)

모로나이사 8:9~15. 어린아이에게 침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조롱 행위”이다

• 물문은 유아에게 침례를 베푸는 관행을 강하게 비난했다. 물문은 “어린아이에게 침례를 줌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조롱 행위”(모로나이사 8:9)라고 선포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유아 침례를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구원하는 권능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가르쳤다. “어린아이에게 침례나 세례를 주지 않으면 그들이 지옥에 떨어진다. 교리는 참된 교리가 아니며, 성서에도 없고 하나님의 성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모든 어린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며 어린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된다.”(*History of the Church*, 4:554)

모로나이사 8:22~24. “율법 밖에 있는 자”

•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을 모른 채 살다가 죽는다. 그런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배울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신앙을 행사하고 죄를 회개할 기회를 얻는다. 지상에 살아 있는 대리인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필요한 의식들을 받으면, 그들도 구원을 축복 받을 수 있다.



© 1985 로버트 페켓

복음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다.”(모로나이사 8:12; 또한 교성 29:49~50 참조)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들은 침례 받을 필요 없이 구속 받으며, 하나님의 해의

왕국으로 간다. 우리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공의에 따라 그들의 능력이나 그밖에 부족한 점이 회복된다고 믿는다.”(*Answers to Gospel Questions*, comp. Joseph Fielding Smith Jr., 5 vols. [1957~1966], 3:21)

모로나이사 8:25~26. “온유함과 마음의 겸손”

• 물문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죄 사함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물문은 죄가 사해질 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진다고 가르쳤다.

칠십인인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장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성신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치게 하거나 상하게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상대하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로서도 가정에서 적용하는 원리를 교회에서 똑같이 적용할 것이며 그것을 통해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과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 줄 것입니다.”(*리아호나*, 2004년 5월호, 39~40쪽)

모로나이사 8:26
 죄가 사해질 때 어떻게 성신을 느끼게 되는가? 성신을 받은 후에 그것을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로나이사 8:28~29. “영이 그들과 함께 애쓰시기를 그쳤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인간이 복음의 빛과 지식을 거부하면 성신이 임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이 육욕적인 길을 가고 영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길을 걷는다. 영이 그 영향력을 거두어 인간이 더는 훌륭하고 교훈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게 되는 상태에 이를 지경까지 양심이 무감각해지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무릇 나의 영이 항상 사람과 함께 애쓰시지는 아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교성 1:33)”(*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1985], 260)

모로나이사 9:3~5. 분노

• 물문은 자신이 니파이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했을 때 그들이 “떨며 …… 노를 품[었다고]” (모로나이사 9:4) 썼다. 그러한 반응은 다른 경전에서도 볼 수 있는, 의로운 원리에 대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들의 예와 일치한다. 야렛인들은 이더를 거부하고 그를 죽이고자 했다.(이더서 13:22 참조) 예루살렘 주민들은 리하이의 생명을 빼앗고자 했다.(니파이전서 1:19~20 참조) 앰몬아이이하에 살던 불의한 사람들은 크게 노하여 믿는 사람들과 경전을 모두 태워

버렸다.(엘마서 14장 참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반응은 도시 또는 사회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자주 나타나는 간악함의 극치를 보여 준다.

-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자신이 분노에 희생되었다고 믿는다. 칠십인인 린 지 로빈스 장로는 분노에 반응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탄이] 사용하는 교활한 전략은 분노를 선택의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아무런 제어도 할 수 없는 감정의 희생자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정을 잃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평정을 잃는다는 말은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무엇을 잃다’라는 말은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무심결에’, ‘책임이 없는’ 즉, 부주의하다는 의미이며 ‘책임이 없다’는 뜻이 강합니다.

‘날 화나게 했어요.’ 이 또한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자제나 선택의지가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념들의 실체는 폭로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가하는 어떠한 힘도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며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내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로서 어쩔 수 없어요!’ 하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작가인 윌리엄 월빙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해 버렸습니다.

‘공격, …… 분노 억제, 대화하기, 소리치고 고함지르기’ 등은 모두 분노에 대처하며 체득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자신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입증된 것을 선택한다. 직장 상사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자제력을 잃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친구나 가족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가?’(‘The New Obscenity’, *Reader’s Digest*, 1988년 12월호, 24쪽)”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80쪽)

모로나이사서 9:5. 사랑을 잃다

- 분노와 간악함이 만든 비극적 결과 중 하나는 영을 잃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생기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고 몰몬경에서는 명확하게 가르친다. 그러한 일이 간악한 니파이인들에게 벌어졌다. 사랑을 잃으면 결과적으로 이혼, 학대, 유기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이다.

칠십인 회장단의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는 사랑을 잃는 일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오늘날 대중 문화에서는 용서와 친절이라는 미덕을 소홀히 하는 반면 조롱, 분노, 거친 비난을 부추깁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이러한 악습에 물들어 우리 가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자, 자녀들, 또는 그 외 가족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이기심에 찬 비방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마시다! 가정에서 작은 시비와 사소한 비난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가족 관계를 해쳐 서로 멀어지고 학대나 이혼 사태까지 맞게 됩니다. 그보다 …… 서둘러 다툼을 줄이고 조롱과 비난을 피하며 분노와 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위협하기 짝이 없는 걱정을 품고 살 수는 없습니다.”(리아호나, 2003년 5월호, 11~12쪽)



모로나이사서 9:6
 몰몬은 자신과 모로나이가 “수고하기를” 그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고 말했는가? 이것은 힘든 시기를 잘 견디는 것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모로나이사서 9:9. 순결과 정조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 몰몬은 순결과 정조가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모로나이사서 9:9) 것이라고 말했다. 고든 비헝클리(1910~2008) 회장은 순결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자, 이제 모든 문제 중에서도 가장 흔하면서 젊은이 여러분이 대처하기 힘들어 하는 문제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맺는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본능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존 욕구만이 이 본능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훌륭한 목적을 위해 우리가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끌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은 통제받지 않으면 화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되면 아주 아름다우나 통제되지 않으면 치명적입니다. ……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성 문제에 관한 한 여러분은 무엇이 옳은지 압니다. 여러분은 언제 위험한 지대를 걷고 있는지 압니다. 언제 넘어져서 범법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지기 매우 쉬운지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조심하셔서 밑으로 떨어지기 쉬운 죄의 벼랑에서 안전하게 물러서십시오.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는 사악하고 어두운 성적인 죄를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오는 평화의 빛 안에서 걸으십시오.

여러분 중 그 선을 넘어간 사람들, 이미 범법을 한 이들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성 58:42) 여러분의 짐을 부모님과 나누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감독님을 찾아가 고백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청소년들을 위한 선지자의 권고와 기도”,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8~39쪽)

• 여러분이 만약 성적 학대의 희생자라면 여러분은 순결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다른 사람이 가한 폭행, 성도착, 또는 근친상간 등 여러분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분에게 심한 상처를 주는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그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죄의식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엄숙하게 증거합니다. 학대로 상처가 남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상처를 영원히 간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상처는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여러분이 영원한 계획 안에서 해야 할 바를 다할 때 치유될 수 있습니다. ……

현재 학대를 받고 있거나 혹은 과거에 학대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도움을 구하십시오. ……

감독님께 은밀하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기 위한 주님의 도구로 쓰이도록 부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치유할 교리적 토대를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율법을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여러분은 치유될 것입니다. 감독님은 여러분을 위해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신권을 사용하여 여러분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2년 7월호, 32쪽)

모로나이사 9:18~20. “감각도 없으며”

• 물문은 아들 모로나이에게 백성들의 한심한 영적 상태를 설명했다. 물문은 모로나이에게 백성들이 “원리도 없고, 감각도 없[다고]”(모로나이사 9:20) 말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성령이 속삭이는 소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행동을 제어한다. 선한 일을 하도록 속삭이는 느낌을 따르지 않으면 느끼는 능력이 무더진다.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재빨리 행동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께서 놀라울 정도로 민감하셨기 때문이다.

영적 스펙트럼의 또 다른 끝은 잘못을 저지르는 니파이의 형제들 같은 사람들이다. 니파이는 그들이 영적인 면에서 점점 더 무감각해졌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하였으되, 당신들이 감각이 없어 그의 말씀을 감지할 수 없었나이다.[니파이전서 17:45]

지나치게 죄에 물들어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는 기능을 잃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해버린다. 이것은 문명 전체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물문은

통탄하면서 아들 모로나이에게 니파이인 사회의 타락을 말했다. 그 증상들 중 하나로, 간악함이 너무 심하여 몰몬 백성들은 ‘감각도 없[는]’ [모로나아서 9:20] 상태가 되었다고 몰몬은 기록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 회원들의 파괴적인 음탕함을 통탄했다. 그들이 자기 만족을 채우느라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에 점점 둔해져서 ‘감각 없는[에베소서 4:19]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는 고통 당하는 사회 구성원의 필요 사항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한 사회는 밖으로 향하는 사랑을 발전시키는 대신, 안으로만 향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요하고 작은 속삭임에 둔감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속삭임뿐만 아니라 인간의 애원도, 들을 귀는 있으되 들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A Time to Choose [1972], 59~60)

-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현대에 영을 잃게 만드는 유행이 많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상은 갈수록 시끄러워집니다. 의복과 차림새와 행동이 점점 더 흐트러져가고, 단정하지 못하며, 난잡합니다. 현란한 조명이 번쩍거리는 가운데 확성기에서 터져 나오는 외설스러운 가사와 귀에 거슬리는 음악은 악물 문화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와 유사한 것들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이며, 영향을 받습니다. ……

더욱 요란하고, 자극적이며, 다툼을 일으키고, 자제력이 없고, 위엄과 예의가 없어지는 이러한 경향은 우연한 일이 아니며, 무죄하거나 무해한 것도 아닙니다.

무력 공격을 개시하는 지휘관이 내리는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정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통신 채널을 교란하는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것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미세한 계시의 통로를 막음으로써 대적의 목적을 성취해 줍니다.”(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25쪽)

모로나아서 9:25. “그의 영광의 소망”

-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몰몬이 말한 소망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소망이라는 말에는 정해진 시간에 일정 목표점에 도달하기를 얼마나 ‘원하는가’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가 개선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방문을 ‘소망합니다.’ 그러한 소망은 진지하지만 단기적인 소망의 전형입니다.

인생의 절망은 흔히 단기적 소망이 실패한 데서 연유합니다. 그 대신 저는 궁극적인 소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인 소망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 그리고 위대한 속죄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이란 만민에게 부활이 임하는 축복이자 죄에서 자유로워지도록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이며, 경전에 나와 있듯이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니파이후서 31:20)을 가능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바라야 할 바는 무엇이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 통하여 …… 소망을 가져야 할지니’(모로나아서 7:40~41; 또한 엘마서 27:28 참조) 따라서 진정한 소망은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원 불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리아호나, 1999년 1월호, 61쪽)

모로나이서 9:26.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

• 몰몬은 모로나이가 니파이인들의 간악함 때문에 매우 버거운 어려움에 처했음을 알았다. 그럼에도 몰몬은 모로나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신앙에 충실함*에는 은혜가 일상 생활에서 처하는 어려움을 잘 견디는 데 힘이 된다고 설명되어 있다.

“경전에서 사용되는 은혜라는 말은 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얻는 신성한 도움과 힘을 가리킨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 은혜가 필요한 것 이외에도, 여러분은 매일의 생활에서 이 권능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부지런함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갈 때, 그분은 은혜를 통해 여러분을 들어올리시고 강화해 주실 것이다.”(*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 [2004], 150~151쪽)

생각해 볼 점

• 유아에게 침례를 주는 관행을 비난하기 위해 몰몬이 사용한 강한 용어들은 어떤 것인가?(모로나이서 8장 참조) 그가 왜 그렇게 강하게 말했다고 생각하는가?


- 레이맨인들과 니파이인들이 간악함 면에서 서로 비슷했다면 왜 레이맨인들은 멸망 당하지 않았는가?(모로나이서 8:27~29 참조)
- 8~9장에서 몰몬이 언급한, 종국에 니파이인들이 악을 행하게 만든 점진적인 단계들은 어떤 것들인가? 우리 자신의 삶에서 배도와 간악함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제언 과제

- 유아들이 침례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를 교리적으로 설명하여 한 문단으로 작성한다.(모로나이서 8:4~23 참조)
- “우리 주위에서 간악함이 만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견딜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이나 공과를 준비한다. 모로나이서 8~9장에 나오는 원리와 교리들을 사용한다.

소개

모로나이는 독자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설명하면서 기록을 마쳤다. 첫 번째는 이 신성한 기록에 담긴 진리를 배우고 그 증거를 얻어야 할 필요성에 집중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은사를 이해하고 이를 얻으라는 권고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안에서 온전하라고 간절히 권고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찾아보면서 몰몬경 학습을 마무리한다. 모로나이가 전한 약속에 따라 이 책이 참된지를 직접 알아본다. (모로나이서 10:3~5  참조) 영의 은사에 대해 배우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을 계발하려고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려고 매일 노력하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힘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가 전한 다음 말을 기억한다. “나는 형제들에게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4:461; 몰몬경 소개)

해설

모로나이서 10:3. “너희가 이 기록을 읽게 되거든”

- 칠십인 일원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진 알 쿡 장로는 더 큰 신앙과 겸손을 얻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하는 중요성을 말씀했다.

“[모로나이서 10장 3절] 마지막 다섯 단어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너희가 이 기록을 받게 될 때까지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신중하고도 선하게 대하시며, 얼마나 용서를 잘해 주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류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받은 축복을 세어 보거나 그분께 용서를 구한 우리 죄를 세어 보거나, 우리 삶에 미치는 그분의 손길을 인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우리 마음이 사랑과

감사로 주님께 향하지 않습니까? 신앙과 겸손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것이 3절에서 발휘되는 영향력입니다. 그 안에 있는 권고를 따르면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Moroni’s Promise,” *Ensign*, Apr. 1994, 12)

모로나이서 10:4~5. 몰몬경에 대한 간증 얻기

-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몰몬경에 대한 영적 증거를 받았는지를 들려 주었다.

“처음으로 몰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저는 만일 제가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되]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나]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신다]’(모로나이서 10:4)는 약속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시를 이해했을 때, 그에 따르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서 강렬한 경험을 하기를 기대했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느낌을 받았으며 저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누구나, 어디서든 몰몬경을 읽고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간증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 압니다. 오히려 간증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몰몬경을 반복해서 읽고도 아직 강력한 증거를 얻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큰 영광 중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찼으나 “이를 알지 못[한]”(제3니파이 9:20) 몰몬경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십시오.”(*리아호나*, 2005년 5월호, 6~8쪽)

-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몰몬경을 읽을 때 질문을 던지고 이를 깊이 생각하며 읽음으로써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얻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통찰을 일러 주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치를 수 있는 더 간단한 시험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과 열린 마음으로 읽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것을 요합니다. 읽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주의를 집중하기 위하여 ‘인간이 과연 이 책을 쓸 수 있는가?’ 하고 수없이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처음부터 수없이 자문해 볼 때 언젠가는 모든 진실되고 참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의 권능으로 몰몬경이 참되다는 사실과, 몰몬경이 우리 시대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각과 뜻과 음성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4년 1월호, 110쪽)

-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몰몬경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목표와 약속을 주었다.

“저는 전 세계 교회 회원들과 곳곳에 있는 친구들에게 몰몬경을 읽고 또 읽으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

주저함 없이 저는 여러분 각자가 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따른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몰몬경을 몇 번 읽었는가에 관계없이 더욱 충만하게 주님의 영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겠다는 더욱 확고한 결심이,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더욱 강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가슴 설레는 참된 간증”, 리아호나, 2005년 8월호, 6쪽)



© Busath.com

모로나이서 10:3~5

진지하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받기에 앞서 해야 하는 행동들이 있다. 이를 나타내는 동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모로나이서 10:4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 십이사도 정원회의 앨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진정한 의도”를 갖는 것에 대해 모로나이가 한 약속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모로나이는 몰몬경에 담긴 진리를 가설로 생각하거나 학문으로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록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한다 하더라도 성신이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은 주지 않았다. 모로나이가 한 약속은 영이 임할 때 그에 따라 행하려는 결심이 확고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 밖에 다른 이유에 기초한 기도는 약속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진정한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Pure in Heart [1988], 19~20)

모로나이서 10:8~18. 영의 은사

-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영의 은사를 얻는 목적과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영의 은사가 있는 목적은 충실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며, 교화하여 그들이 이생에서 평화를 얻고 다가올 세상에서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영의 은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업이 신성하다는 증거이다. 영의 은사가 없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나 왕국이 아니다. 우리는 불신앙이 아니고서는 지구가 현 상태로 존재하는 한 영의 은사가 없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다.(모로 10:19) 그러나 완전한 날이 임하여 성도들이 승영을 얻을 때 그것은 더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질 것이다.]’(고전 13:10)

충실한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하여 영의 은사를 구해야 한다. 그들은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되’(고전 12:31; 교성 46:8) [‘영적 은사를 소망하고’(고전 14:1)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교성 46:7; 마 7:7~8) 한다. 어떤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은사를 받으면 다른 사람은 다른 은사를 받는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 모든 은사를 갖게 하여 주어, 머리된 자가 있게 하여, 이로 말미암아 모든 회원이 유익을 얻게 [한다.]’(교성 46:29)’(Mormon Doctrine, 2nd ed. [1966], 314)

-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1915~1994) 장로는 영의 은사들이 더 있다고 설명했다. “항상 분명하고 눈에 띄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영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여러분이 받은 은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실제로 존재하며 가치가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은사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질문하는 은사, 귀 기울이는 은사,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듣고 활용하는 은사, 울 수 있는 은사, 다툼을 피하는 은사, 동의하는 은사, 중언부언을 피하는 은사, 의로운 것을 구하는 은사, 판단하지 않는 은사,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은사, 제자가 되는 은사,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은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사, 기도드리는 은사, 강한 간증을 전하는 은사, 성신을 받는 은사 등이 있습니다.”(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22쪽)

•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영적인 은사를 얻는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은사라는 낱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사는 요구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은사이기를 그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주어질 때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는 선물이기에, 은사를 받는 조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께서 정하십니다. 영적인 은사는 강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은사는 강요되거나 돈을 지불해서 우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배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입하거나 ‘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더 멀어지게 할 정도로 끈질기게 그런 은사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끈질김과 결심 탓에 그들은 영적으로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은사를 받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옵니다.

브리검 영은 우리 [시대]에도 확실히 적용되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계시에 따라 산다면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영적인 일은 물론 현세적인 일에서 그 사람이 의무를 수행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 주신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특권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Discourses of Brigham Young, p. 32)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은사와 그 존재는 복음 진리에 대한 위대하고도 영구한 증거들 중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은사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모로나이는 영적인 은사가 없다면 ‘사람의 상태가 참담하리라고 가르쳤습니다. ……

우리는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 은사들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방법대로 영적 은사들을 구해야 합니다.”(“Gifts of the Spirit”[unpublished remarks at a 16-stake fireside, Brigham Young University, Jan. 4, 1987], 5~6)

모로나이서 10:17~18. 우리는 영의 은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 진 알 쿡 장로는 각 개인이 받은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할 때 발휘되는 힘에 대해 말씀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밟는 가장 큰 과정 중 하나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중 가장 작은 부분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은사들에 문을 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우리 중 일부는 마음속에 가상으로 한계를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내부에는 숨어 있는 천재성이 있습니다. 그 누가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도 믿지 마십시오.”(“Trust in the Lord,” Hope [1988], 90~91)

• 십이사도 정원회의 팔리 피 프랫(1807~1857) 장로는 영의 은사를 얻음으로써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성령의 은사는 모든 신체 기관 또는 특질에 맞추어집니다. 모든 지적 능력을 활발하게 하며, 증가시키고, 확대하고, 확장하며, 모든 육욕적인 열정과 애정을 순화시키며, 지혜의 은사로 그것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조절합니다. 영의 은사는 잘 조절된 동정심, 기쁨, 취향, 감정, 애정에 영감을 주고, 발전시키며, 양육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영의 은사는 덕성, 친절, 선함, 온유, 부드러움, 자애를 고양시킵니다. 영의 은사는 사람의 아름다움, 외형, 용모를 발전시킵니다. 영의 은사는 건강, 활력, 생기, 사회적 감정을 향상시킵니다. 영의 은사는 인간의 모든 신체적 지적 능력을 활성화시킵니다. 영의 은사는 신경을 강화시켜 가장 적합한 상태로 만듭니다. 간단히 말해서 영의 은사는 뼈에 골수, 마음에 기쁨, 눈에 빛, 귀에 음악, 전신에 생명입니다.”(Key to the Science of Theology [1979], 61)

모로나이서 10:20~21. 신앙, 소망, 사랑

•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위스린(1917~2008) 장로는 신앙, 소망, 사랑을 한 단계씩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신앙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덕성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우리] 영혼을 적실’[교성 121:45] 것이므로 우리는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흠 없고 점 없는”(베드로전서 1:19) 상태로 자신 있게 설 준비를 갖추어 것입니다. ……

이것은 우리가 구하는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특성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린도전서 13:8]고 한 바울의 가르침을 잘 압니다. 분명히 우리는 생활에서 영적으로 시들지 않는 힘이 필요합니다. 모로나이는 다음과 같은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신앙, 소망 그리고 사랑이 나, 곧 모든 의의 근원인 내게로 인도함을 보이리라’(이더서 12:28)

오늘날 지상에 회복된 주님의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우리를 구주께 인도하며,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거룩한 성품들을 키우고, 배양하며, 강화하도록 돕습니다.”(성도의 빛, 1999년 1월호, 26쪽)

모로나이서 10:22. “절망은 죄악으로 인하여 오는도다”

•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절망을 피하기 위해 선을 행해야 하는 필요성에 관한 통찰을 나누었다. “몰몬경에서 우리는 ‘절망은 죄악으로 인하여 오는도다(모로나이서 10:22)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는 기분이 좋고 나쁜 일을 할 때는 기분이 나쁘다.’ 죄는 인간을 절망과 낙담으로 끌어내립니다. 죄악 가운데서 일순간 쾌락을 맛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불행합니다.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느니라’(엘머서 41:10) 죄는 하나님과 불화를 초래하며 영을 억압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느 율법이나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특정한 축복이 옵니다. 율법을 어겼을 때는 그에 따른 어려움을 겪습니다. 무거운 절망을 짊어진 사람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명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마태복음 11:28~30 참조)”(“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빛, 1987년 3월호, 2쪽)

모로나이서 10:27.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나를 볼 것이요”

• 몇몇 선지자들은 몰몬경 독자들에게 그들이 심판의 날에 우리를 볼 것이라 간증하라는 느낌을 받았다.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의 말이 진실함을 우리에게 증거하실 것이다. 몰몬경에서 비슷한 언급을 한 사람은 니파이(니파이후서 33:10~14 참조), 야곱(야곱서 6:12~13 참조), 몰몬(몰몬서 3:20~22 참조)이다.

모로나이서 10:7~8, 18~19, 26, 30
반복은 경전에서 사용된 중요한 교수법이다.
모로나이가 반복해서 말한 권면하더라도 단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는가?

모로나이서 10:31~32.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 칠십인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는 왜 우리가 모로나이의 마지막 권고를 따라야 하는지 설명했다.



사진 © 크리틱 리나

“의롭게 살려는 노력 속에는 큰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은 그들이 이 세상에 와서 율법을 배우고 그에 순종하며 살고자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통해

그들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순종을 통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최선을 다하는 동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적 평안과 위안이 뒤따릅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보다 더한 기쁨과 행복은 인간에게 없습니다.”(리아호나, 2000년 1월호, 103~104쪽)

• 연차 대회 마지막 말씀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생활을 함으로써 구주께 나아갈 필요성을 말씀했다.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으로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사려 깊고, 조금 더 예의 바르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혀를 통제하여 분노로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왼쪽 뺨을 돌려 대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면서 십 리를 동행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지닐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103쪽)

모로나이서 10:32~33

모로나이는 “거룩하며 흠 없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언급했다. 그것은 무엇이며, 여러분은 생활에 그 일을 어떻게 적용하겠는가?

모로나이서 10:32~33. “하나님의 은혜로”

•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리셀 벨라드 장로는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쁜 선택으로 생긴 결과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속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우리가 이생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순종하고,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 깊은 은혜가 없으면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혼자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선행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의존하지 않으면 그 선한 행위들이 무의미하다는 점을 잊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Building Bridges of Understanding,” *Ensign*, June 1998, 65)

모로나이서 10:34.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

• 물문경 표제지에는 물문경의 목적 중 하나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에 대한 마지막 증거로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본다. 물문경에 나오는 전체 6,607개 구절 중에서 3,925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그리스도의 이름이 대략 매 1.7절마다 한 번씩 언급되었다는 뜻이다.(Susan Ward Easton, “Names of Christ in the Book of Mormon,” *Ensign*, July 1978, 60~61 참조)



생각해 볼 점

-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은사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은사들을 받거나 계발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모로나이서 10장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간대]”(모로나이서 10:30)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물문경을 읽는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물문경 소개)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깊은 구절들을 나열한다.
- 그리스도의 은혜와 완전해지려는 우리의 목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언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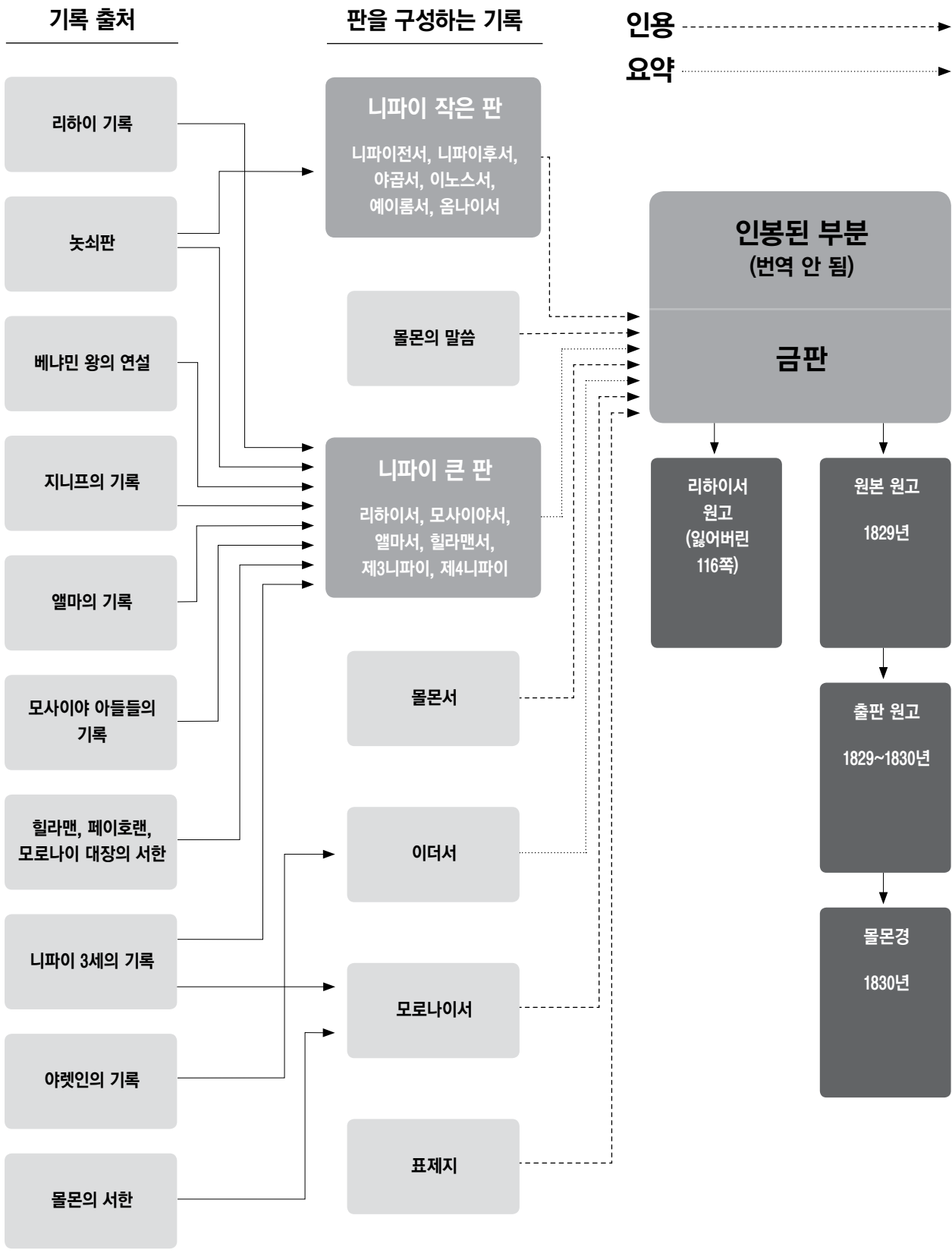
- 순서대로든 주제별로든 매일 물문경을 공부할 시간과 일정을 정한다.
- 여러분이 받은 축복사의 축복을 다시 읽는다. 그런 다음 가족 등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방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그 은사들과 여러분이 바라는 다른 은사들을 어떻게 계발할지 계획을 세운다. (주: 여러분이 받은 축복사의 축복은 개인적이며 성스러운 것이므로 친구들과 나누지 않는다.)

부록

다음 부록은 몰몬경의 특정 일면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일부는 복잡한 내용을 단순한 형태로 보여 주는 시각 자료를 제공한다. 일부는 폭넓은 주제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몰몬경에 나오는 통찰, 연관성, 일정한 방식이나 유형 및 주제들을 제공한다.

몰몬경 판과 기록	406
니파이인 기록 작성자들	407
몰몬경 판의 증인들	408
리하이 가족의 추정 여행 경로	409
몰몬경 쪽수 및 기간	410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막대기	411
욘나이서부터 모사이야서에까지 포함된 사건에 대한 서술	412
의로움과 간악함의 주기	413
이스라엘의 흩어짐에 대한 약사	414
이스라엘의 집합	415

몰몬경 판과 기록



© FARMS. 허락을 얻어 사용함. 존 더블류 웰치 및 제이 그레고리 웰치, *Charting the Book of Mormon* (1999)의 도표 13을 개작함

니파이인 기록 작성자들

니파이

선지자, 지도자, 교사, 니파이인 기록 개시자(니파이전서~니파이후서)

니파이 작은 판

예언과 영적 경험에 대한 개인 일지

- 주전 600년경 ▼ **니파이, 리하이의 아들**
선지자, 니파이전서~니파이후서 저자
- 주전 544년 ▶ **아곱, 니파이의 형제**
선지자, 아곱서 저자
- 주전 544~421년 ▼ **이노스, 아곱의 아들**
선지자, 이노스서 저자
- 주전 420년 ▼ **에이롬, 이노스의 아들**
선지자이자 에이롬서의 저자
- 주전 361년 ▼ **옴나이, 에이롬의 아들**
니파이인 옴사이며 옴나에서 첫 세 절을 기록함
- 주전 279년 ▼ **애메이론, 옴나이의 아들**
당대에 주님께서 사악한 자들을 멸하신 내용을 다섯 구절로 기록함
- 주전 279년 ▶ **케미시, 애메이론의 아들**
한 절만 기록함
- ▼ **아빈아돔, 케미시의 아들**
두 절만 기록함
- 주전 130년 ▼ **아멜레카이, 아빈아돔의 아들**
열아홉 절을 기록하고, 구주에 대한 열렬한 간증을 전했으며, 니파이 작은 판을 베냐민 왕에게 넘겨줌

주전 130년
주전 191~124년

주전 91~72년

주전 72~56년

주전 56~39년

주전 39년~주후1년

주후 1~?년

주후 ?~111년

주후 111~194년

주후 194~306년

주후 306~321년

주후 345~385년

주후 385~421년

다음은 관계를 나타낸다.

- ▼ 부자지간
- ▶ 형제지간
- 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물려준 판들

니파이 큰 판

사회적,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역사

- ▼ **왕이 작성함**
- ▼
- ▼
- ▼
- ▼
- ▼
- ▼
- ▼
- ▼
- ▼
- **베냐민, 모사이야 일세의 아들**
- ▼ **모사이야 이세, 베냐민의 아들**
니파이인의 마지막 왕
- **엘마 이세, 엘마 일세의 아들**
선지자이자 첫 번째 대판사
- ▼ **힐라맨 일세, 엘마 이세의 아들**
선지자이자 군대 지도자
- ▶ **시블론, 엘마 이세의 아들**
- ▶ **힐라맨 이세, 힐라맨 일세의 아들**
- ▼ **니파이 이세, 힐라맨 이세의 아들**
레이맨인 사무엘과 동시대 인물
- ▼ **니파이 삼세, 니파이 이세의 아들**
니파이인 수석 제자이자 부활하신 주님의 사도
- ▼ **니파이 사세, 니파이 삼세의 아들**
- ▼ **아모스 일세, 니파이 사세의 아들**
- ▼ **아모스 이세, 아모스 일세의 아들**
- ▶ **엘마론, 아모스 이세의 형제**
주후 321년에 시므 산에 판을 숨김
열 살이었던 몰몬에게 스물네 살이 되면 기록을 계속하라고 위임함
- **몰몬**
니파이 판들을 요약함
- ▼ **모로나이, 몰몬 이세의 아들**
부친의 기록을 완성함
자신의 기록을 추가함
아랫 백성의 기록을 요약함(이더서)
요약한 기록을 쿠모라 산에 묻음

몰몬경 판의 증인들

세 증인들이 서로 관계가 없는 반면, 여덟 증인들은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들은 스미스가 휘트머가의 확대 가족들로 구성된다. 조셉과 에머 스미스는 휘트머 가족들과 함께 그들의 농장에서 살았다. 휘트머 가족은 조셉이 번역하는 동안에 그를 도와 주었다. 크리스찬 휘트머, 제이콥 휘트머,

피터 휘트머 이세, 그리고 존 휘트머는 모두 피터 휘트머 일세와 메리 휘트머의 아들들이다. 후에 하이럼 페이지는 피터 휘트머 일세와 메리 휘트머의 큰 딸인 캐더린 휘트머와 결혼했다. 조셉 스미스 일세, 하이럼 스미스, 그리고 새뮤얼 스미스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부친과 형제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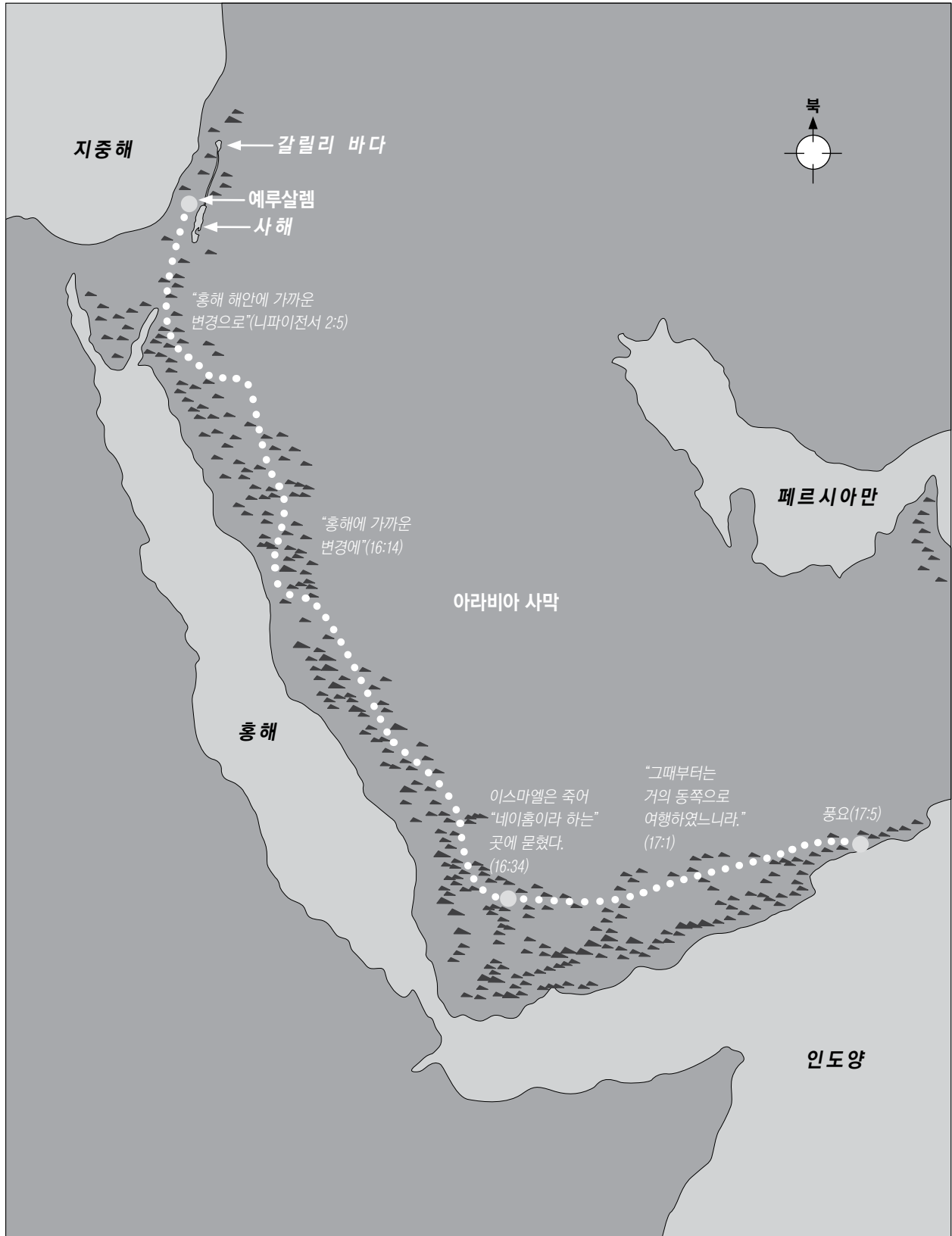
세 증인

생년월일	출생지	판을 보았을 당시 나이	직업	교회 회원 가입	사망
올리버 카우드리 1806년 10월 3일	버몬트 주, 러틀랜드 카운티, 웰스	23세	학교 교사, 변호사	1829년 5월 15일에 침례 받음 1838년 4월 12일에 파문됨. 1848년 10월에 다시 침례 받음. 활동 회원으로서 사망함. 몰몬경에 관한 자신의 간증을 결코 부인하지 않음.	1850년 3월 3일 미주리 주, 리치몬드
데이비드 휘트머 1805년 1월 7일	펜실베이니아 주, 해리스버그	23세	농부	1829년 6월에 침례 받음 1838년 4월 13일에 파문됨. 교회로 돌아오지 않음. 자신의 간증을 결코 부인하지 않음.	1888년 1월 25일 미주리 주, 리치몬드
마틴 해리스 1783년 5월 18일	뉴욕 주, 사라토가 카운티, 이스트타운	45세	농부	1830년 4월 6일 침례 받음 1837년 12월 마지막 주에 파문됨. 1842년 11월 7일에 다시 침례 받음. 판에 관한 자신의 간증을 결코 부인하지 않음. 활동 회원으로서 사망함.	1875년 7월 10일 유타 주, 클라크스톤

여덟 증인

생년월일	출생지	판을 보았을 당시 나이	직업	교회 회원 가입	사망
크리스찬 휘트머 1798년 1월 18일	펜실베이니아 주, 해리스버그	30세	제화업자	1830년 4월 11일 침례 받음 계속해서 충실한 교회 회원이었음	1835년 11월 27일 미주리 주, 클레이 카운티
제이콥 휘트머 1800년 1월 27일	펜실베이니아 주, 해리스버그	28세	제화업자	1830년 4월 11일 침례 받음 1838년에 배도함.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음. 판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결코 부인하지 않음.	1856년 4월 21일 미주리 주, 리치몬드
피터 휘트머 이세 1809년 9월 27일	뉴욕 주, 페이엣트	20세	재단사, 농부	1829년 6월에 침례 받음 계속해서 충실한 교회 회원이었음	1836년 9월 22일 미주리 주, 클레이카운티, 리버티
존 휘트머 1802년 8월 27일	펜실베이니아 주, 해리스버그	27세	농부	1829년 6월에 침례 받음 1838년 3월 10일 파문됨.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음. 판이나 교회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결코 부인하지 않음.	1878년 7월 11일 미주리 주, 파웨스트
하이럼 페이지 1800년	버몬트 주	29세	의사, 농부	1830년 4월 11일 침례 받음 1838년 배도함. 자신의 간증을 결코 부인하지 않음.	1852년 8월 12일 미주리 주, 액셀서어 스프링스
조셉 스미스 일세 1771년 7월 12일	메사추세츠 주, 에섹스 카운티, 탐스필드	58세	농부	1830년 4월 6일 침례 받음 계속해서 충실한 교회 회원이었음.	1840년 9월 14일 일리노이 주, 나부
하이럼 스미스 1800년 2월 9일	버몬트 주, 툰브리지	28세	농부	1829년 5월에 침례 받음 계속해서 충실한 교회 회원이었음	1844년 6월 27일 일리노이 주, 카테지
새뮤얼 에이치 스미스 1808년 3월 13일	버몬트 주, 툰브리지	22세	농부	1829년 5월에 침례 받음 계속해서 충실한 교회 회원이었음.	1844년 7월 30일 일리노이 주, 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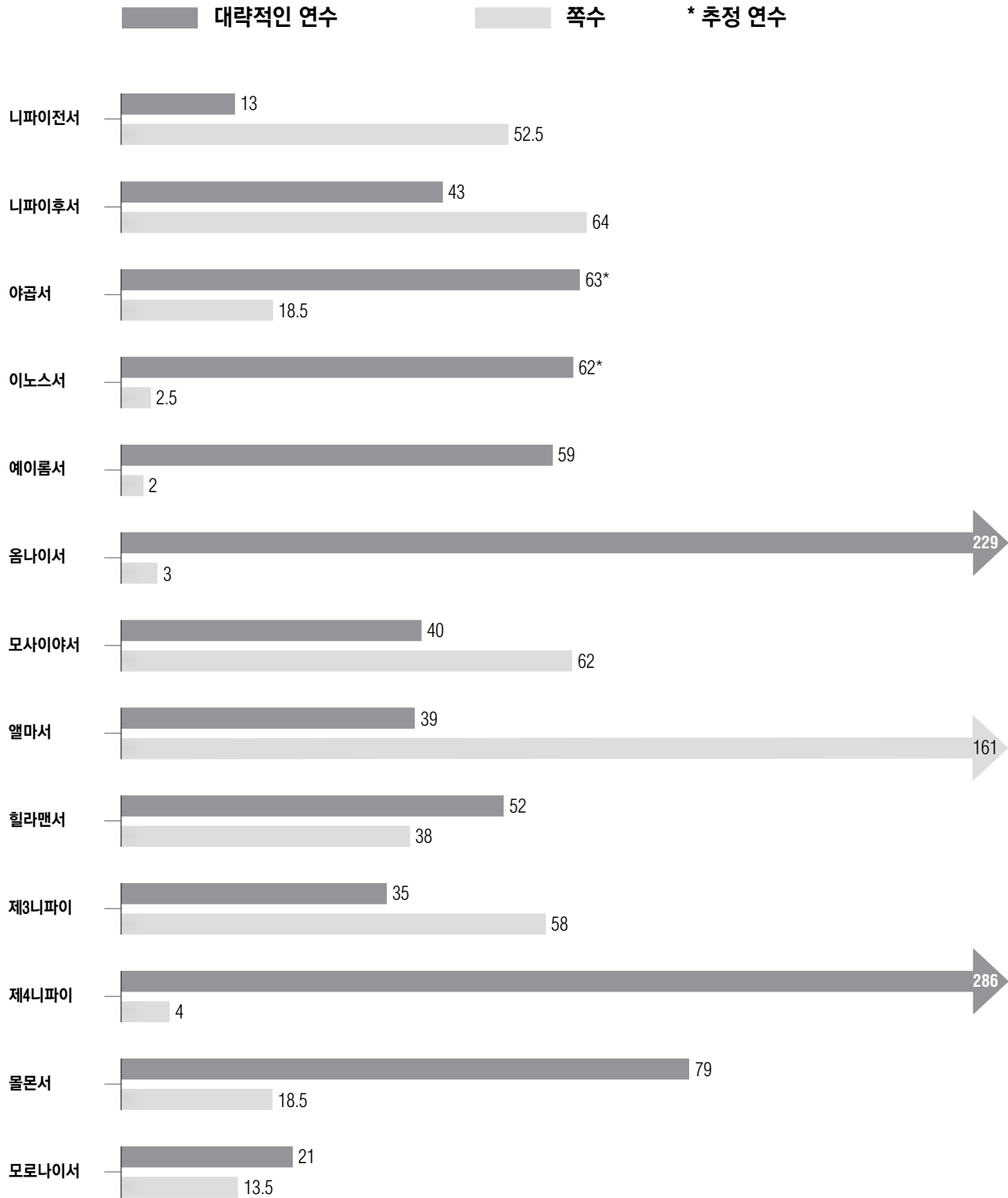
리하이 가족의 추정 여행 경로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가 편집한 Encyclopedia of Mormonism, 5권. (1992), 1:144에 나오는 지도를 개작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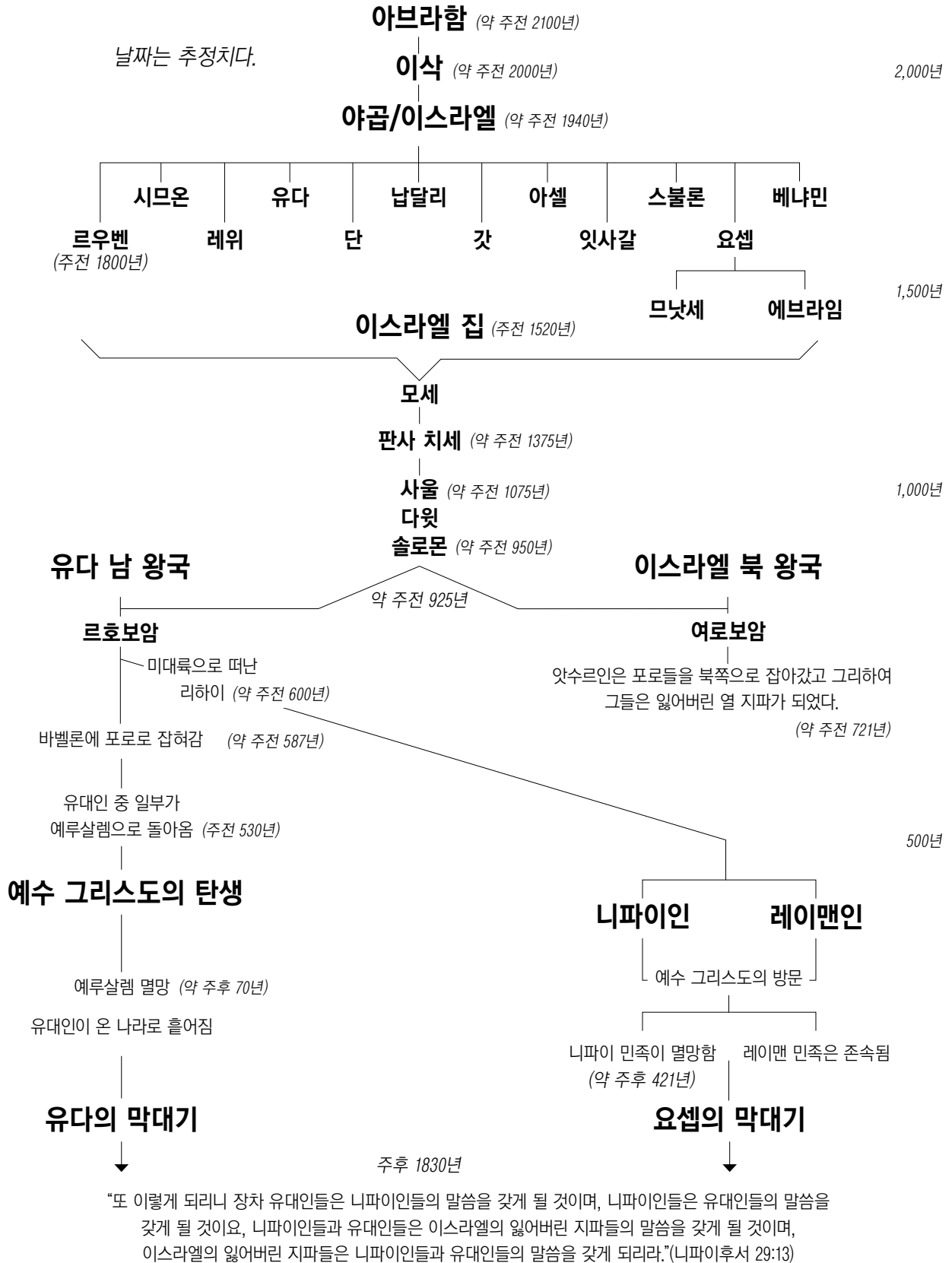
물문경 쪽수 및 기간

이 도표에서는 물문경에서 몇 쪽이 각 저자와 기간에 해당하는지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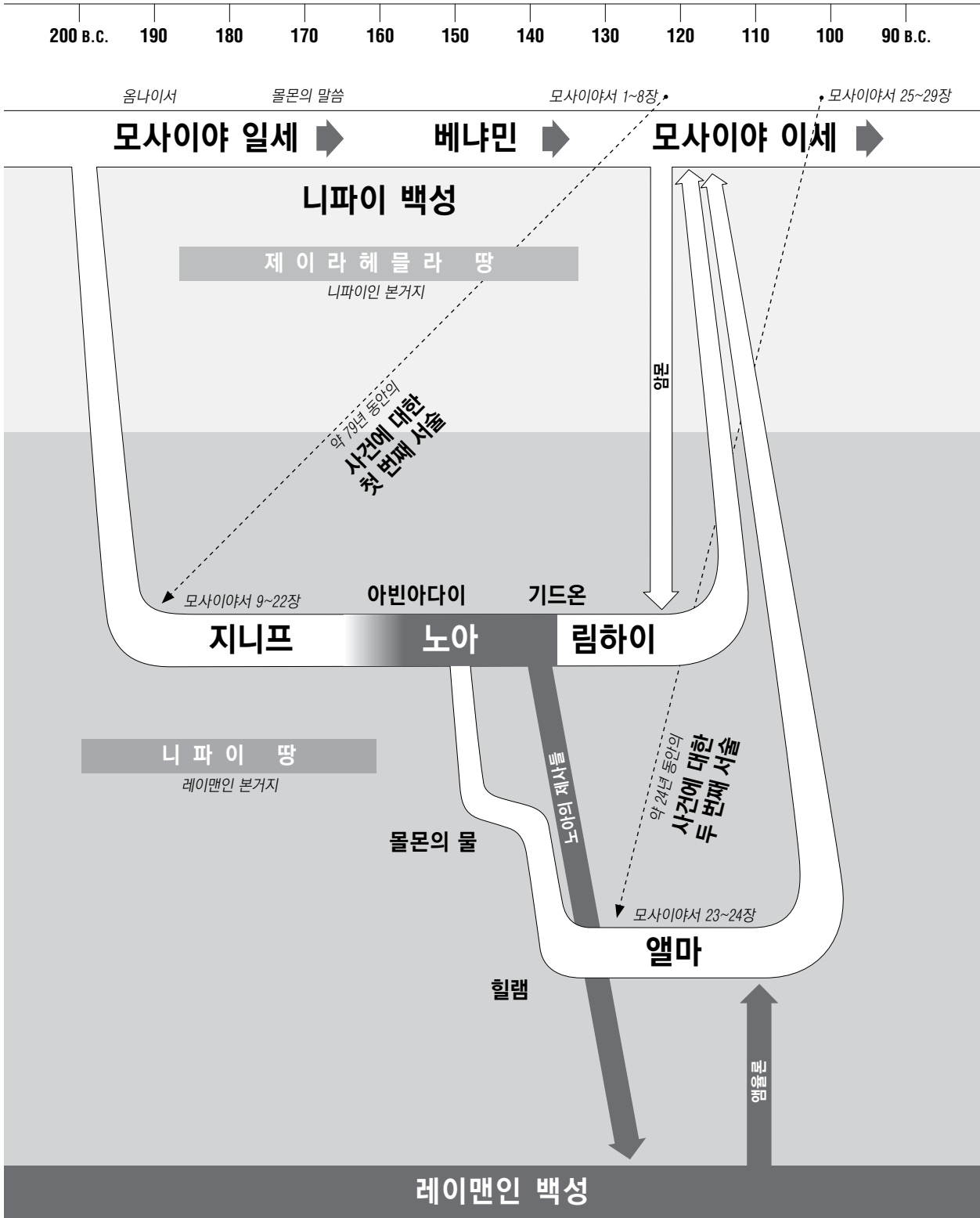
다음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본다. 물문은 왜 이 기록들을 포함시켰는가?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막대기



옴나이서부터 모사이야서에까지 포함된 사건에 대한 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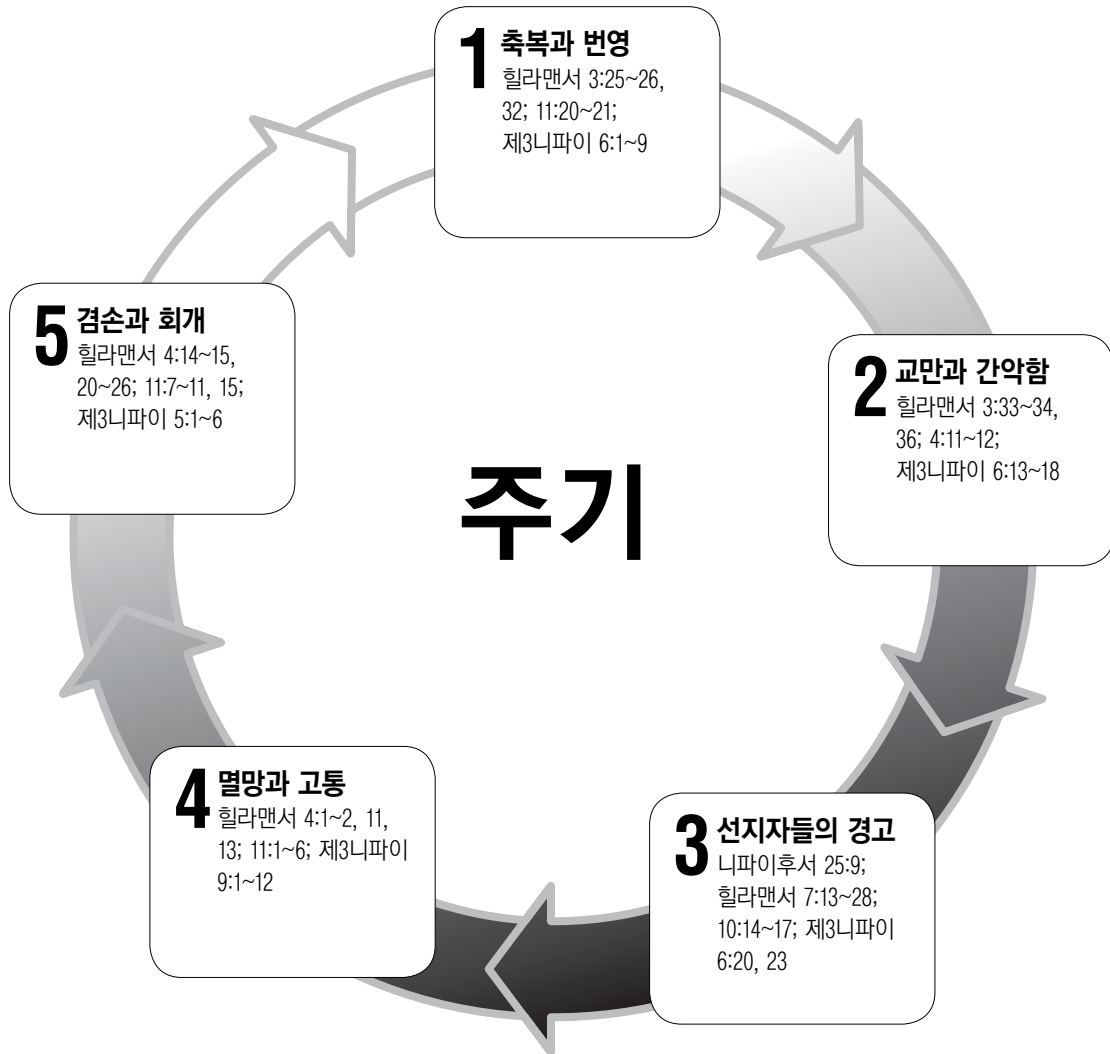
옴나이서부터 모사이야서에까지 나오는 사건들의 순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음 도표를 살펴본다.
이 도표에는 책들이 나뉘어 있어서 겹치는 기간 동안에 기록된 서로 다른 역사 기사들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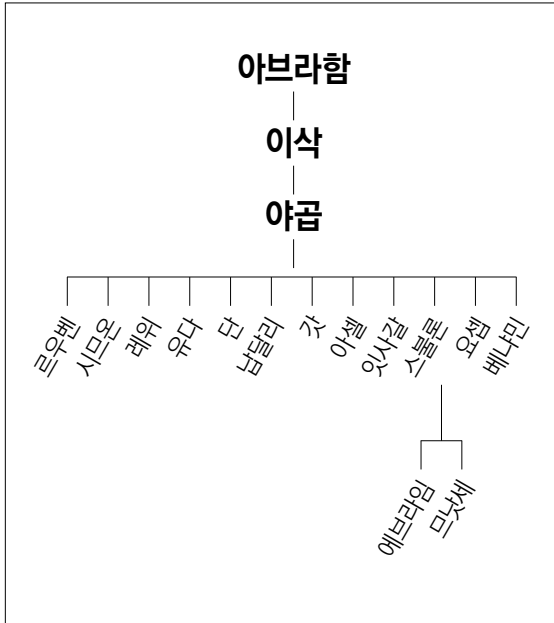
의로움과 간악함의 주기

물문경 역사에서는 되풀이하여 발생하는 한 가지 주기가 드러나는데, 이것은 국가와 개인의 흥망성쇠의 기초가 된다. 이 주기는 특히 힐라맨서 3~12장과 제3니파이 5~9장에 명확하게 나온다. 물문은 이 주기를 힐라맨서 12장 2~6절에서 요약했다. 니파이인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불의함에서 의로움으로, 그리고 다시 불의함으로 돌아갔는지 주목한다. 이와 똑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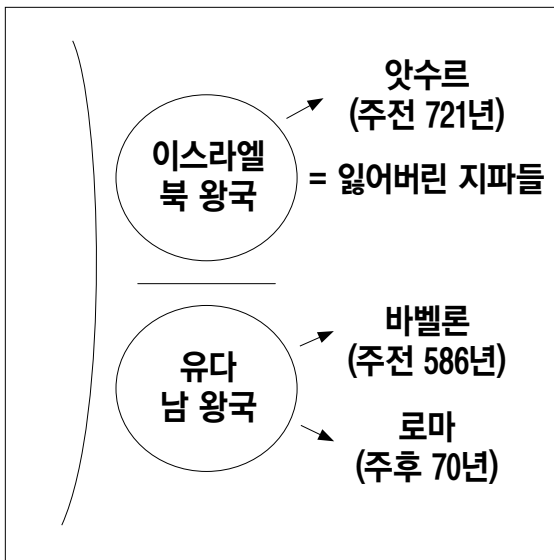
비극적인 주기가 야렛 백성에게도 일어났다. 다음 도해는 힐라맨서와 제3니파이에서 반복되는 의로움과 간악함의 주기를 보여 준다.



이스라엘의 흩어짐에 대한 역사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맺은 성약을 재확인하셨다. 주님께서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다. 이스라엘은 아들 열둘을 두었는데 이들이 각각 이스라엘의 열두 가족 또는 열두 지파가 되었다. 이스라엘 가족은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하여 기근에서 살아남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생육하여 큰 민족이 되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고 여러 해가 지난 후, 여호수아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 이때, 레위 지파는 아론 신권 소유자로 지정되었다. 여호수아 18장 7절에는 레위 지파가 땅 대신에 신권을 상속받았다고 나온다. 더욱이, 요셉에게 준 약속이 성취되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들이 번성하도록 상속의 땅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두 나라 곧, 이스라엘 북 왕국과 유다 남 왕국으로 나뉘고 말았다.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그들이 그분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등졌고 정복당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다. 앗수르는 이스라엘 북 왕국을 주전 721년에 정복했다. 결국 그들은 잃어버린 열 지파로 알려지게 되었다. 후에 유다 남 왕국(또는 유대인)은 주전 587년경에 바벨론에게 정복당하여 흩어졌다. 약 70년 후, 많은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여러 세대 동안 국가로 존속했다. 주후 70년과 주후 135년에 다시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유대인을 모든 국가로 분산시켰다. 놀랍게도, 많은 유대인이 한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했다. 그러나 잃어버린 지파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채로 남아 있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스라엘의 집합

이스라엘 집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집”은 일반적으로 야곱의 후손들을 이르는 말이다. 야곱의 이름은 구약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창세기 32:27~28 참조) 구주께서는 물몬경에서 이 정의를 확대하여 이스라엘 후손뿐만 아니라(제3니파이 20:25~27 참조) 회개하여 침례 받고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모든 이방인까지 포함시키셨다.(제3니파이 21:6 참조)

이스라엘은 집합하여 성약을 성취할 것이다

후기에 이스라엘이 집합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맺으신 성약이 성취되는 것이다.(이사야 11:12; 예레미야 31:10; 에스겔 34:12; 니파이전서 19:15~16; 아브라함서 2:9~11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약속을 제3니파이 20장 12~13, 29절에서 반복하셨다. 여기서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을 모으시겠다는 성약을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맺었다고 말씀하셨으며, 이것은 아브라함 성약 중 일부이다.(니파이후서 29:14; 제3니파이 20:25; 아브라함서 2:9~11 참조)

이스라엘의 집합에서 물몬경이 담당하는 역할

제3니파이 21장 1~7절에서 구주께서는 물몬경 출현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성약을 성취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점을 전 세계에 알리는 표적이라고 가르치셨다.(또한 제3니파이 29:1; 이더서 4:17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물몬경은 이 사업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집합이라는 교리를 선언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고, 그분의 복음을 믿으며, 그분의 교회에 가입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실, 물몬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약속된 집합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80쪽)

이스라엘의 집합은 영적 집합과 물리적 집합 모두를 말한다

이스라엘의 영적 집합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될 때 일어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영적 집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영적 집합은 물리적 집합에 선행한다. 인간은 어느 곳에 살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으면 어디에 살든지 구원받을 수 없다.”(*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1985], 567)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궁극적인 집합의 중심지는 두 군데가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하나는 새 예루살렘이며 다른 하나는 옛 예루살렘이다.(제3니파이 20:21~22, 29 참조) 여러 나라에서 회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은 오늘날 집합 장소는 그들이 사는 곳이라고 가르쳤다. “멕시코인을 위한 이스라엘의 집합은 멕시코에서 일어나며, 유럽 북부인을 위한 이스라엘의 집합은 스칸디나비아에서, 독일인의 집합은 독일에서, 폴리네시아인의 집합은 그들의 군도에서, 브라질인의 집합은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인의 집합은 아르헨티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성도의 벗*, 1975년 8월호, 30쪽)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는 우리의 책임

“아브라함의 성약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선택된 사람’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을 맡도록 선택된다는 뜻이다.”(*Bible Dictionary*, “Abraham, Covenant of,” 602) 이스라엘을 모으는 약속은 오늘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주님의 이름과 그분의 성역과 신권을 지상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의 축복 …… 구원의 축복 곧 영생의 축복”(아브라함서 2:11)을 제공함으로써 성취되고 있다.

“경고를 받은 각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에게 경고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교성 88:81)

주제 색인

7

가족 선언문

가족은 영원한 계획의 중심, 11, 18
결혼은 자녀들을 위해 마련한 계획에서
중심이다, 33
자녀를 가르칠 부모의 책임, 57, 142

가족

자녀들이 주님을 섬기도록 양육함, 18

가족에 대한 선언문. 가족 선언문 참조

가증한 교회, 26

간증

간증을 얻는 단계, 95
순수한 간증을 전할 때 사람들은 의로운 일을
하게 된다, 175

감람나무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함, 122

감람나무의 비유, 121~122

감사

가난한 자를 축복하는 정도가 감사의 정도를
나타냄, 117
감사와 겸손은 행복을 이루는 두 가지 특징이다,
369
기도는 감사로 가득 차야 함, 13
기도는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 320
지상 생활이라는 맥락에서 고난을 이해함, 49

값진 진주

모세서가 실려 있는 경전, 28
성경 및 물론경과 마찬가지로 참된 경전, 7

강철

강철 생산의 증거, 34, 372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막대기, 19, 104, 411

개인적인 계시

경전과 개인적인 계시 간의 연관성, 357
물론경을 공부하는 것은 개인적인 계시로
이어짐, 1

개정된 애굽어

리하이와 니파이가 사용한 언어의 변경, 11
판의 공간이 부족하여 사용됨, 358

개종

마음의 변화가 요구된다, 178

거듭남, 165~167, 233

거짓 선지자, 310

젯세마네 동산, 229

결혼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 33

겸손

겸손의 중요성, 222, 369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큰 자가 된다,
221~222
우리의 재능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라는 인식, 265
정의, 377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강화시킴, 159~160

경전

경전 공부의 중요성, 93
쇠막대, 21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상고하라고 명하신다,
330

경전을 왜곡함

정의, 193

계명

구원은 계명을 지키는 것 이상이 요구된다, 151
모든 세대에게 주어진 십계명, 150
순종하기 위해 기도와 신앙이 필요하다, 14
어기면 불행은 낳는다, 281
우리가 어기면 청소년들이 따라할 것이다,
118~119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목적, 51
지키려 하지 않을 때 아버지와 아들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290
지키면 단합이 이루어진다, 156
지키면 번영한다, 14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188

계시

계시와 경전, 357
계시의 영, 131
모든 교회 회원에게 주어짐, 91
현대 계시의 필요성, 103

고결성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함, 341
영적 힘의 기초, 15~16

고난

고난의 목적을 안다, 220
고난중에 주님께 충실하고 감사함, 11
유익을 위해 성별됨, 49
정화시키고 순화시킬 수 있다, 44
하나님께서 성별하실 것이다, 59

고레스 왕

바벨론을 멸망시킴, 45, 88

곡식 단

개종자들을 뜻함, 208

공의

자비는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킴, 50~51, 228

관용

관용의 미덕이 왜곡됨, 168

교리와 성약

성경 및 물론경과 마찬가지로 참된 경전, 7

교만 주기. 의로움과 간악함의 주기 참조

교만

교만의 여러 측면, 277~278
교회에 미치는 영향, 263
때때로 마음속에 있는 큰 죄로 불린다, 117
번영과 화평은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음, 291
크고 넓은 건물, 20

교육

가능한 모든 교육을 받으라, 68

교차대구법

히브리 문법 형식, 231~232

구원

모든 인간에게 가능함, 69
육적 사망과 영적 사망에서 구원됨, 49, 283~284

구원의 계획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알려짐, 239~240
암몬이 라모나에게 가르침, 201

군 복무, 254

그레슬리, 미켈린 피

선행을 함으로써 영적 감각을 훈련시킴, 390
어린이들이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능력, 315

그랜트, 히버 제이

물론경 증인들의 중요성, 9~10
사진, 60, 333

십일조를 바치는 축복, 333

주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천사의 방문이
효과가 없음, 179

진정한 번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는
것이다, 60

그로버그, 존 에이치

결정을 내릴 때 주님을 신뢰함, 14~15
성찬을 합당하게 취한다, 318

회개하고 침례받고 기타 의식을 수행하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필요하다, 290

그림

하늘의 창조물을 대표하는 형체, 188

그릇된 전통

니파이인들에 대한 레이맨인들의 영원한 증오,
149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참조

그리스도의 빛

Bible Dictionary(성경 사전)에 나오는 정의, 388
그리스도의 십자가형, 91, 271, 294, 353

그리스도의 씨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의 아들 또는 딸이 되는가,
152

그리스도의 재림

개종한 사람만이 재림 전에 꾸준히 남아 있을 것이다, 287, 294
 니파이후서의 이사야 부분은 재림을 주요 주제로 강조한다, 73, 75
 바벨론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영적 상태를 상징한다, 88
 엘리야는 재림 전에 신권 열쇠를 회복했다, 334
 이사야는 재림에 대해 예언했다, 75, 86
 자연의 대격변은 재림이 다가온다는 신호이다, 294
 재림 시에 의인들의 부활, 242
 재림 전에 새 예루살렘의 건립, 379
 재림 후 유대인의 개종, 105
 하나님께서 재림 때에 그분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실 것이다, 326

금식 헌금

얼마만큼 헌금해야 하나, 117

금식

우리 영혼을 겸손하게 함, 184
 조지 맥로글린은 지부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했다, 198

금판

그것을 보지 않고 그 진실성을 앎, 9
 늦쇠판 기록의 일부가 쓰여짐, 15
 립하이아가 발견한 스물네 장, 360
 모로나이는 조셉 스미스에게 지시함, 28
 애굽어로 쓰여짐, 135

기

나라들, 77

기도

기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임, 227
 노력이 요구됨, 363
 이노스가 밝은 기도의 절차는 그의 신앙을 증진시킴, 129
 조지 맥로글린은 지부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했다, 198
 주님의 기도, 308
 하나님께 연결된 생명줄, 110

기드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 170

기이하고도 가장 기이한 일

기이한 일의 중심인 교회 회원들, 29
 후기에 복음의 회복, 92

기적, 321

깊이 생각하기

경전을 효과적으로 읽는 것, 58
 매일 경전을 깊이 생각하기, 331
 명상과 깊이 생각하는 것에서 얻는 유익, 273
 신중하게 생각함, 314

L

나훔

유다 왕국에서 증언한 선지자, 12

납달리

메시아가 거주하신 갈릴리 지역에 살았음, 84

나이훔

이스라엘이 죽어 묻힌 곳, 409

넬슨, 러셀 엠

개인적으로 신앙을 발전시키고, 계명을 지키며 회개함, 265
 개종은 거듭남으로 이어진다, 178
 경전에서는 부모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르치라고 지시한다, 142~143
 교회 회원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263
 구주께서는 성도와 죄인을 모두 사랑하신다, 284
 구주조차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 284

그리스도께 나아가 때 평화를 누린다, 303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함, 108

기도를 생각할 수 있음, 322

기도하고 나서 일하러 나가라, 363~364

깊이 생각하는 것은 성신을 불러온다, 273

물몬경 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함, 5

물몬경 번역에 관한 정보, 4

백성은 계명을 지킬 경우에만 변영한다, 12

부름에는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필요하다, 14

분쟁이라는 길 끝에는 실로 큰 위험이 있다, 252

성신의 권능으로 복음 진리를 배움, 24

속죄는 그 범위가 무한하다, 65, 227

우리가 숙고하고 기도할 때 성신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한다, 2

전연성이 강한 분쟁이라는 독소, 285

절제할 때 지나침에서 벗어지는 결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182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무기를 드는 교회

회원들에게 주는 권고, 254

집합의 교리에 대한 중요성, 70

창조, 타락, 속죄는 구원의 계획에 필수적임, 201

타락이 필요한 이유, 53

편견으로 이어지는 꼬리표 사용을 피함, 345

하나님의 사랑은 화평의 근원이다, 342

황금률, 309~310

노래하기

주님께서는 적절한 노래를 인정하신다, 39

노아 왕

그의 백성에게 속박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158
 왕정제를 없애는 주요 이유가 됨, 149
 자신의 백성에게서 죽임을 당함, 158

노아

리하이-니파이 땅의 지도자, 148

놋뿔

별을 받아 뱀에 물린 이스라엘 자녀들, 271

느부갓네살

유다는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됨, 75

니만, 몬테 에스

복천년에는 어린이들이 죄 없이 성장한다, 46~47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의 기록 425개 절 중에 391개 절의 주제이다, 42

니블리, 휴

니파이가 조렘에게 한 맹세의 기적적인 결과, 16
 니파이인의 실제 문제는 레이맨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지 않는 데 있었다, 255
 아멜리카이아인들과 조렘인들은 레이맨인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어 니파이인들을 대적함, 248
 야렛인들 사이에 있었던 코끼리, 372
 코리호어 철학에 대한 논고, 213

니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관해 예언함, 41
 예언이 보전됨, 17

니파이 판

1인칭에서 3인칭 시점으로 바뀜, 135
 기원, 16~17
 니파이가 작은 판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유, 133
 세속적인 역사와 왕들의 기록이 포함된 큰 판, 23, 41, 112, 133, 351, 407
 아멜리카이는 베냐민 왕에게 작은 판을 주었다, 134
 종교 역사가 실려 있는 작은 판, 23, 41, 71, 112, 132, 359, 407

니파이

구속주를 보았다, 42
 니파이의 시편, 58
 니파이인 역법, 287

니히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 꾀변에 의존함, 96
 종교 운동을 피하기 위해 사제술을 이용함, 169

D

다른 양, 313

다브엘, 아들

예루살렘의 꼭두각시 통치자, 81

다윗의 집

정의, 81

다툼

논쟁과 다툼을 피하라, 216, 251~252, 299

다툼과 이반으로 니파이 민족은 위협에 빠졌다, 247, 251, 398
 다툼은 파괴적이고 사탄이 조장한다, 193, 261, 286
 물몬경이 다툼을 가라앉힌다, 212
 백성들 가운데 다툼과 논쟁이 없음, 340, 342, 345

단합
 계명을 지킬 때 단합이 일어남, 156

던, 로렌 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존중하고 공통된 관심사 위에 쌓기, 201

돌아오십시오
 길을 잃은 사람들이 우리로 들어오도록 도와줌, 165
 돌아오는 것은 가능하다, 270
 제일회장단의 권유, 164, 322~323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옴, 292

돕다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관심을 설명함, 182

동성애
 동성애 행위는 심각한 죄이다, 236
 성적 자극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118

들째 사망, 243

듀, 웨리 엘
 소망과 행위의 연관 관계, 303
 속죄가 있기에 우리는 짐을 홀로 질 필요가 없다, 208
 주님께서는 세상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대하시지만 더 많이 주신다, 184~185

디글랏 빌레셀 2세(불)
 앗수르 왕, 81

디디어, 찰스
 간증을 얻는 단계, 94~95

땅
 북쪽, 260
 상속의 땅, 312, 324

땅의 티끌
 인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한다, 141

르

라모나이 왕
 봉사의 가치를 보여 줌, 200

라반
 라반을 죽이라고 명령받은 니파이, 15

라스, 던 엘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풋대를 지나쳐 갔는가, 120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포도원의 마지막 일꾼이다, 126
 주님께 충실한 것과 번영 간의 관계, 263
 하나님께 거역하는 이유는 개인에게서 비롯된다, 348

래미움프롬, 218, 227, 314

랜트, 첼럴 시
 경전을 효과적으로 읽는 세 가지 방법, 58

런드, 제럴드 엔
 구주의 낮추어 오실, 24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의 불가능성, 216
 현대에도 코리호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212

레이맨인 사무엘, 280

레이맨인
 사악함 때문에 저주받음, 61

로빈스, 린 지
 분노할지 안 할지 선택함, 396

로빈슨, 스티븐 이
 크고 가증한 교회는 하나 이상의 단체를 구성함, 26

롭니, 매리온 지
 개종은 마음의 변화를 요구함, 177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함, 273
 깊이 생각하는 힘, 314
 물몬경을 통해 영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았다, 7
 사탄의 실재성, 102
 성신의 은사를 받음, 107
 성약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 죄 사람을 유지할 수 있다, 174
 순수한 동기로 의로운 일을 하는 중요성, 388
 악마를 불쾌하게 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봉사하려는 개인들, 107
 유다의 집합, 326
 인색하게 주는 것을 극복하는 방법, 157
 주님의 권고를 계속 받아들임, 119
 참된 개종의 정의, 340
 풍성하게 나눔, 117
 헌납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은 가난한 자를 높여 주고 부자를 겸손하게 하는 것임, 341

루드로우, 다니엘 에이치
 물몬경은 구약에 기록된 기적을 입증한다, 37
 바다의 섬들은 미국을 뜻한다, 45~46
 야렛인 땅과 니파이인 땅의 지리적 관계, 370
 요셉의 후손은 예루살렘에 계속 살고 있었다, 185
 호산나의 정의, 229

루시퍼, 사탄 참조

르신
 연기 나는 부지깽이, 81

리, 해롤드 비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사람, 177
 물몬 시대의 사악한 백성은 성신과 그리스도의 영을 잃어버림, 351
 사진, 171, 351
 산상수훈은 완전에 대한 주님의 청사진이다, 301
 선지자에게 늘 계시된 새 계명, 15
 "심령이 가난하다"의 정의, 302
 야렛의 형제는 기도하는 방법과 원하는 축복을 얻는 방법을 받았다, 363
 이생에서 소유한 신권 직분은 다음 세상에서도 그 효력을 갖는다, 192
 자기 연민 또는 절망 때문에 옳다고 알고 있는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298
 전세에서 했던 행위는 현세에서 축복의 근원임, 191
 죄는 가장 무거운 짐이다, 77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영적 의의, 249

리아호나
 리아호나에 비교되는 그리스도의 말씀, 109
 성신에 비교됨, 34
 신앙과 부지런함에 따라 작동함, 33
 양심에 비교됨, 235

리차즈, 리그랜드
 니파이후서 15장에 나오는 이사야 구절의 상징성, 77~78
 주의 집의 산, 73

리하이
 리하이 가족의 여행 추정 경로, 37, 409
 리하이서, 12, 406
 므낫세의 후손, 19, 185

릭스, 스티븐 디
 물몬경 시대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재판식의 유사성, 135~136
엔타이-니파이-리하이 이름의 의미, 206

림하이 왕
 엘마의 백성과 비교되는 림하이 백성, 158
 제이라헤물라의 지도자, 146

로

마지막 심판
 책에서, 337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완전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245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물몬경 선지자들을 봄, 403

마헬살랄하스바스
 정의, 83

말
 서반구의 말, 39

매드슨, 존 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337~338

- 매서, 칼 지
알프스를 건너면서 눈 속에 박아 둔 막대기들을
신권에 비유함, 297
- 매튜, 로버트 제이
거짓말의 심각성, 217
니파이는 기록이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알았다, 93
이른 초기부터 훼손된 성경, 28
- 맥스웰, 닐 에이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둬, 143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감각도 없는” 상태가
되는가, 397~398
개인적 희생은 우리 안에 있는 동물과 같은
본성을 기꺼이 제단에 바치는 것이다, 132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의 징계를 받아들임, 33
공의와 자비는 최후의 심판에서 온전해질
것이다, 245
교리적 문맹은 불평을 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257
교회 회원들은 성도답고 성결하게 행동해야
한다, 29
교회는 이미 완전해진 사람들을 위한 휴식처가
아니다, 259
구주의 성품을 본받으려고 노력함, 317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약점을
짚어지셨다, 181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을 규정하는 특성,
345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비밀번호를 입력해
자물쇠를 여는 것과 같다, 130
“너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의 정의, 305
늦깎이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271
대적은 우리가 그에게 직접적으로 못하게 한
일을 간접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 292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41
문을 지키시는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시니라, 68~69
반대되는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51
부름받고 준비된 사람들은 또한 충실함을
증명해야 한다, 191
부모는 자신에게 있는 것만 줄 수 있다, 256
사탄은 우리가 표적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쓴다, 288
사회의 간악함에 무관심해져서는 안 된다, 168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한다, 21
성결은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225
세상 학자들은 물론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98
“세상의 십자가”의 정의, 66
소망, 신앙, 지식의 관계, 223
소망은 개인적인 발전과 영원한 축복에 영향을
미침, 210~211
- 신성한 진리의 확실성을 알 수 있다, 225
신앙, 소망, 사랑이 함께 연결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된다, 392
신앙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신뢰를 포함한다,
99
신앙의 방패를 들다, 22
아직 계시되지 않은 경전, 97
약점을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오는 과정이다,
377
영적으로 불안정한 이유, 277
예수님과 속죄에 결부된 궁극적 소망, 398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셨다, 137~138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양을 돌보시고 가르치신다,
313
우리 자신을 과대선전하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기가 두 배로 힘들어진다, 350
우리 종교가 일상이 되면, 우리 마음과 정신이
자연스럽게 다른 것에 쏠리게 된다, 314
우리가 알아야 할 진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점이다, 66
위대한 교훈은 종종 어려움을 겪은 뒤에 온다,
34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림, 139
육욕적인 마음은 감각도 없는 상태로 이어진다,
217
이반자들은 교만해져서 교회를 비판했다, 252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에 대한 기록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314
일부 사람들은 복음의 단순성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337
일시적이지만 고의적인 방탕한 생활은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철학이 깔려 있다, 100
잃어버린 책은 앞으로 올 보물 가운데 있다, 104
자녀는 들은 말을 간직한다, 223~224
자주 주기적으로 회개함, 142
정절을 지키지 않을 때 따르는 파괴적인 결과,
118
조셉 스미스가 밝힌 감추어진 진리의 예들, 55
주님께서서는 “열방의 눈에 그 거룩한 팔을
드러내실 것이다”, 326
충실한 교회 회원들 사이에도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 259
풋대를 지나쳐 바라보는 것은 단순한 가르침을
지나쳐 바라보는 것을 수반한다, 120
하나님께서서는 그분께서 질책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362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정죄받은 자들의
슬픔을 대조함, 348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의 선택에 관계없이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98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다, 23
- 맥케이, 데이비드 오
리하이 자녀 중의 일부는 태평양제도도
인도되었다, 260
-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116
사진, 76, 116
하늘의 별을 피할 수 있는 죄는 없다, 76
- 맥쿱기, 브루스 알
거듭남의 기적, 178
구주의 사명은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332
그리스도의 참된 교리, 276
“너희를 밀같이 체질하려고”의 정의, 317
다른 사람들이 우리 심판에 참여할 것이다, 350
때때로 기적이 그치는 이유, 358
리하이와 니파이가 사용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용어, 30
모든 국가가 그 백성을 위한 집합 장소이다, 70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구원, 69
물론경에는 제사와 대제사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190
물론경의 힘, 234
미래가 모두 감미롭고 밝고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다, 76~77
백성의 의로움으로 사탄이 결박됨, 47
복천년 동안 가지로서의 그리스도, 87
불의함은 영이 물러나게 함, 395
“산들의 꼭대기”의 정의, 73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51
성신의 은사를 향유하는 것은 필멸의 생에서
받는 하늘의 은사이다, 319
속죄는 그 범위가 무한하다, 227
스랍의 정의, 78
엘마는 변화되었을 것이다, 250
야렛의 형제는 선택의지를 사용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364
영적 은사를 얻는 목적과 이유, 401
영적 집합은 물리적 집합에 선행함, 63
예수님께서서는 모세가 놓은 기초 위에 세우셨다,
305
유대인의 개종, 105
유대인이 현재 국교에 집합한 것은 정치적
집합이며, 제3니파이 20장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는 아니다, 325
이방인의 정의, 313
이사야 52장과 제3니파이 20장에 나오는 구주의
말씀 중 복천년 상황, 326
이사야는 거룩하신 이가 재림 때에 포도원을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했다, 86
이사야를 진지하게 공부하는 것은 삶을 바꾸고
완전하게 하는 데 중요함, 44
이스라엘의 흩어짐과 집합, 23
이혼을 권장하는 율법은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306
임마누엘은 구원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한다,
84
적그리스도의 정의, 212
전능하신 정의, 137

- 조셉 스미스는 이새의 뿌리이다, 87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만이 안전을 약속받음, 46
 증인의 법, 9
 창조, 타락, 속죄는 영원의 세 기둥이다, 201
 창조, 타락, 속죄에 대한 통찰, 49
 “크고 가증한 교회”의 정의, 26
 타락의 영향은 모든 창조물에게 미친다, 51~52
 하나님의 비밀, 187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방법, 303
 후기의 이스라엘 집합에서 물몬경이 하는 역할,
 5
- 백공키, 오스카 윌터
 청소년들은 어른이 어긴 작은 계명을 빌미로
 심각하게 계명을 어길 수도 있다, 118
- 백공키, 조셉 필딩
 교만은 분열로 이어진다, 344
 물몬은 우주의 물리적 법칙을 이해했다, 278
 코리호어는 교회 교리를 공격하기 위해 허수아비
 논쟁을 사용했다, 215~216
- 맥키, 조지 엠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 312
- 맹세
 니파이 시대와 문화에서는 맹세를 매우 진지하게
 여김, 16
- 매대
 바벨론을 멸망시킴, 88
- 메시아
 정의, 69
- 멜기세덱 신권
 니파이인들은 리하이 시대부터 멜기세덱 신권
 직분을 수행했다, 61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은 예임되었다, 190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로서 의롭게 생활하는 것의
 중요성, 182
 엘마는 대제사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193
 의로운 이들은 영원히 대제사가 된다, 193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라, 190
-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272
- 모로나이 대장, 247~251, 255, 406
- 모로나이
 니파이인의 마지막 선지자, 381
- 모리슨, 알렉산더 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것은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행하는
 것을 뜻한다, 202
- 모리엔쿠머, 마혼리, 361
- 모사이야의 아들들
 복음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주요 요소를
 구함, 197
- 모세 율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심, 296, 304~305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시하기 위한 목적임,
 228, 305
- 모세
 조셉 스미스의 계시에서 모세에 대해 알 수 있다,
 28
- 모세의 책
 늦춰판에 포함됨, 16~17
- 몬슨, 토마스 에스
 결정은 영원한 결과를 낳는다, 19
 과부에게 성역을 베푸는 것의 중요성, 332
 교회 회원이 되면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요구받음, 384
 다툼을 피할 때 축복이 온다, 229~300
 독일민주공화국이 선교사들을 허가함, 204~205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114~115
 사진, 281, 307, 384
 신앙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실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 183~184, 378
 익명의 봉사가 지니는 가치, 307
 축복사의 축복은 리아호나와 같다, 235
- 물몬경 복음 교리반 교사 교재, 166
- 물몬경
 가장 놀랍고도 중요한 종교 기록, 3
 개인과 가족이 큰 축복을 받는다, 8~9
 개인적 계시로 이어진다, 1
 교리적 종석, 6
 구약에 기록된 기적들을 입증한다, 37
 그리스도의 적이 드러난다, 126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의 집합이 담당하는
 역할, 5
 매리온 지 롬니는 물몬경을 통해 영적 안전을
 지켰다, 7
 물몬경 공부를 게을리하는 것은 영원한 결과를
 낳는다, 93
 물몬경 번역, 133
 물몬경을 거부하는 것은 시대의 표적이다, 104
 물몬경을 공부할 때 모로나이가 우리 시대를
 보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56
 물몬경의 큰 가치를 인식하는 방법, 100
 새로운 성약을 제공한다, 6
 씨앗에서 자라는 간증, 7~8
 우리 시대를 위해 쓰였다, 3~4
 우리 종교의 종석, 3, 6, 400
 우리가 적용해야 할 훌륭한 표준이다, 103
 인봉된 부분, 29~30, 365~366
 전쟁 시기에 의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친다, 247
 증인의 중요성, 9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게 된다, 7
 진실성을 시험하는 방법은 그것을 읽는 데 있다,
 8
- 하나님 아들에 대한 더 강한 간증을 얻는다,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성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증명한다, 4
- 몸에 피어싱하기
 헝클리 회장은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몸을
 성스럽게 간직하라고 권고했다, 173
- 문신
 헝클리 회장은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몸을
 성스럽게 간직하라고 권고했다, 172~173
- 문화적 다양성, 343
- 물레크인
 리하이가 떠난 후 예루살렘에서 인도되어 움, 17
 형제들과 떨어짐, 70
- 므낫세
 리하이는 므낫세의 후손임, 19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막대기의 상제 사항, 411
- 미국 헌법, 46
- 미국
 건국자들은 미국에 종교의 자유를 확립하도록
 영감받음, 46
 “바다의 섬들”의 정의, 46
 복음 회복을 위해 건립됨, 27
- 미름
 영생의 도둑, 229
- 미겔슨, 린 에이
 불의 침례를 통해 죄로부터 깨끗해진다, 107
 속죄를 통해 깨끗해지는 것과 더러운 옷을
 세탁하는 것 사이의 유사성, 179
- 밀레, 로버트 엘
 교만은 분열로 이어진다, 344
 물몬은 우주의 물리적 법칙을 이해했다, 278
 코리호어는 교회 교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허수아비 논쟁을 사용했다, 215~216
-
- 바벨론
 멸망, 89
 세속적인 것과 사탄의 왕국 상징, 45
 이사야는 멸망을 예견했다, 45
- 바사
 바벨론을 멸망시킴, 45
- 반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고난을 지상 생활의
 목적이라는 맥락에서 보게 된다, 49
 반대되는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51
 선택을 제공한다, 51
 우리가 더욱 강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 51

- 백성의 소리
회원들은 투표할 성스러운 의무가 있음, 172
- 벨라드, 멜빈 제이
이생에서 회개하는 것의 중요성, 229
- 벨라드, 엠 러셀
가족 중심적 시각이 부모들에게 도움이 된다, 57
간악한 추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다, 172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자, 310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인다, 281
기도는 간절한 열망과 감사를 보여야 한다, 13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선교사와 만나도록 주선할 날짜를 정한다, 167
깊이 생각하고 명상하는 가치, 273
두려움을 신앙으로 대체하라, 289
사탄의 유혹에 귀 기울이는 데 따른 위험, 292
선지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제술, 96
선지자의 권고에 응할 때 안전, 평화, 번영을 누리게 된다, 297
선행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수반해야 한다, 404
순수한 간증을 전한다, 175
신앙, 소망, 사랑 간의 관계, 391
아버지이자 아들인 그리스도, 152
아비아다이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이 개종했다, 149
악한 행위를 피함, 327
엘마의 말씀을 시험해 보는 것은 개종으로 이어진다, 224
예수님께서 기꺼이 고통을 당하셨으므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 151~152
오늘날에 존재하는 비밀 결사, 261
우리 신앙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이웃이 된다, 199
유행을 따르는 의복은 신권 소유자에게 부적절하다, 173
작고 단순한 것에 귀 기울인다, 234
조지 맥로글린은 지부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했다, 198
주님의 일을 할 때 인도를 구한다, 198
지금 죄를 짓고 나중에 회개하겠다는 계획은 덧이다, 265
친구들과 복음 대화 시작하기, 200
침례 성약은 의로움을 요한다, 155
편한 대로 살면 영적 힘이 없다, 255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를 동등하게, 무한히 사랑하신다, 96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알기를 바라신다, 144
- 버튼, 디어도어 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같은 모습을 지닌다, 178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성역, 165
- 버튼, 에이치 데이비드
온유함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데 필수적이다, 391
- 번영, 14, 60, 263, 276~278, 291, 371~372, 413
- 범법
죄와 범법의 차이점, 53
- 베가
연기 나는 부지깽이, 81
- 베나민 왕
제이라해블라의 지도자, 146
- 베드나, 데이비드 에이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에는 평생에 걸친 순종이 필요하다, 108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도와 보호를 제공한다, 234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제한된 능력을 넘어서는 힘을 부여한다, 278~279
리아호나 같은 성신의 은사, 236
리아호나는 신앙과 부지런함에 따라 작동했다, 33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영으로 받아들이고자 해야 한다, 110
복음을 가르칠 때 자신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사제술이다, 170
성찬은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한다, 382
영을 거스리는 것을 피함, 24
영의 침례를 위해 노력한다, 107
주님의 친절하신 자비, 12
페이호랜처럼 우리도 상처받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258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든다, 21
- 베이트맨, 메릴 제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을 경험하셨다, 153
- 베컴, 자네트 헤일즈
영의 가르침을 분별하는 방법을 배움, 225
- 백, 줄리 비
성약을 지키는 어머니들은 큰 힘과 영향력을 갖는다, 257
- 벤슨, 에즈라 테프트
개인과 가족에게 중요한 경전 공부, 219
거듭나는 경험은 경전에서만큼 극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165
겸손은 더 높은 권능에 대한 의존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159~160
교만, 264
구주께서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신 것은 우리 시대에 필적한다, 287
그릇 안을 깨끗이 하라, 259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라, 109
많은 사람은 영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자신의 발전을 인식하지 못한다, 296
- 모로나이는 우리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 4
몰몬경 학습은 영원한 결과를 낳는다, 93
몰몬경에 나오는 어린이들은 구원 진리를 배웠다, 129
몰몬경에는 그리스도의 적들이 드러난다, 126
몰몬경에서는 전쟁 시기에 의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친다, 247, 255
몰몬경은 종석이다, 3, 6
몰몬경을 통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간다, 7, 18, 100, 284, 359
반대는 선택을 제공한다, 51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라, 103
부도덕적, 선정적, 또는 외설적 영향을 피함, 238
사진, 264, 285
사탄의 주요 결점, 89
선조들은 이사야의 예언에 영감받았으며, 그 예언을 성취했다, 62~63
성경에 대한 사랑, 354
세 가지 질문을 하여 속임을 피함, 127
순종은 성가신 일이 아니라 추구하는 바가 되어야 한다, 14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구절, 18
우리 백성들 가운데 자유의 표준을 심을 필요가 있다, 251
우리 영혼의 적을 정복하고자 노력함, 394
이방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규정된 콜럼버스, 26~27
절망은 간악함 때문에 온다, 403
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고치고 회개하는 것보다 낫다, 257~258
지상 보물의 일시적 특성, 309
축복과 권고를 받기 위해 아버지에게로 향함, 35~36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드문 경험, 298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의 은사이다, 348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특성, 232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혹에 저항할 힘을 얻는다, 29
회개는 마음이 변화되는 그 이상이다, 383
회복에 필요한 미국 건국자들과 입헌 정치, 48
- 변형
정의, 338
- 변화
정의, 338
- 복수 결혼
교회는 복수 결혼을 실행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음, 118
- 복음 회복
몰몬경은 복음의 회복을 확실히 증거함, 7
미대륙이 복음 회복을 위해 자유의 땅으로 성별됨, 48
복음 회복의 일환으로 천사가 지상에 올 것임, 28
복음 회복의 전개 시간표, 3

복음의 회복을 위한 미국의 건립, 27
 복음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종교의 자유, 46
 역사상 복음 회복의 영향, 30
 종교의 자유를 확립하도록 영감받은 미국 건국자들, 27
 크고 기이한 일, 29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
 물문경에서 증거함, 18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필요한 조건임, 96

복장과 용모
 몸차림과 예절, 172

복천년
 물문경은 복천년을 안내할 것이다, 234
 복천년 동안 사람은 묶일 것이며 아무 권능도 갖지 못한다, 89, 371
 복천년의 상태를 깊이 생각함, 105
 이사야 예언의 성취, 84~85
 자녀들은 복천년 동안 성장할 것이다, 46
 첫째 부활이 계속된다, 153
 하나님 왕국의 두 수도, 74

봉사
 다른 사람들을 위해 현세적 일을 하는 영적 가치, 200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 387~388

부
 니파이인들은 부 때문에 많은 죄를 저질렀다, 112

부모의 본분
 반항하는 자녀를 다룸, 22

부활
 부활 시기, 242~243
 부활을 통해 필멸의 삶의 어려움을 견딜 힘과 시각을 얻음, 186
 세상에 태어난 모든 영혼은 부활할 것임, 49
 속죄를 통해 부활이 온다, 246
 정의, 186, 338

분노
 가장 피해야 할 일, 305
 영을 잃는 결과를 낳는다, 396

불과 유황 못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대한 묘사, 126

불순종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고 간증이 약화된다, 48

불평하기
 교회 회원들 가운데 야기됨, 257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단계, 13

브라운, 휴 비
 각자는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이 있다, 115

브래드포드, 윌리엄 알
 의롭게 생활할 때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다, 403
 이생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는 데 있다, 244

브랜트, 에드워드 제이
 야곱서 7장에 나오는 adieu(잘 있으라)라는 말의 의미, 127~128

비냐스, 프란시스코 제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특징, 395

비밀 결사
 비밀 결사에 대한 통찰, 261~262
 야렛인 사이에서, 370~371

스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으로 알려진 포로들, 82

사망
 영적 및 육체적, 49
 영적 사망은 둘째 사망이다, 119

사제술
 니허, 170
 사제술의 죄, 96

사형
 교회 입장에 관한 1889년 선언문, 170

산상수훈
 구주의 설교는 선언문으로 시작한다, 302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 138
 구주의 중심 역할, 64

상호부조회
 모든 개종자는 양육되어야 한다, 384

새 예루살렘
 미대륙에 세워짐, 324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더의 설명, 378~379
 시온에서 율법이 나아갈 것이요, 74

생명나무
 상징과 해석, 21

선견자
 정의, 54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감추신 것들을 본다, 55, 146

선교 사업
 개종자들이 활동적으로 남도록 도움, 205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준비시킬 날짜를 정함, 167
 니파이후서에 나오는 이사야 구절의 상징, 77~78
 독일에서 선교 사업 개시를 위한 허가, 204~205
 모든 회원은 선교 사업을 해야 한다, 167
 물문경에서는 선교 사업 방법을 가르친다, 100

선교 사업에 온전히 헌신함, 157
 실재성, 208~209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평화를 공포한다, 327

선지자
 거부할 경우 결과, 19

선택의지
 모든 인간은 선택권이 있다, 19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의지와 힘이 있다, 59
 전세에 있었다, 191
 하나님께서는 선택의지를 언제나 존중하신다, 52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선택의지를 취소하지 않고도 성취될 것이다, 98

성결
 마음의 성결, 264
 모든 죄를 극복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함, 192

성경. 또한 조셉 스미스 역 참조
 매우 일찍 훼손됨, 27~28
 잃어버린 명백하고 귀중한 글, 27~29

성신
 리아호나와 비교, 33~34
 성신의 동반을 지속적으로 구함, 95
 성신의 은사는 충분히 인식되지 않음, 296
 성신의 음성은 듣기보다 느끼는 것이다, 38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간증을 굳건하게 함, 156
 천사의 방문보다 더 강력함, 179

성신의 은사
 구주께서는 이것을 받는 사람들을 보살피심, 385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려 침례 받으셨다, 106
 그리스도의 빛과 성신의 은사 간의 차이점, 389
 복음대로 살기 위해 이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 24
 불의 침례, 107
 신권을 조직하는 데 필요함, 382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소망의 근원, 391
 이것을 받아서 누려야 한다, 95
 이와 비교되는 리아호나, 236
 일부 회원들은 이 특권에 못 미치게 생활함, 38
 제자들이 이를 위해 기도함, 319
 충분히 인식되지 않음, 295

성약
 영원한 진보에 필수적임, 155
 중요성, 255

성역을 베푸는 천사들, 390

성찬
 성찬식을 통해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함, 382
 성찬을 취하는 주요 목적은 그분을 기억하는 데 있다, 316
 영으로 충만하게 되리라는 성찬 약속, 322

- 세 증인, 증인, 세 참조
- 소돔과 고모라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간악하고 타락했다, 97
- 소렌슨, 데이비드 이
어떻게 사랑의 상실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396
- 소망
소망을 품을 때 고단한 삶에 평화가 온다, 391
신앙과 사랑의 관계, 391~392
신앙과 지식의 관계, 223
- 속죄
몇 가지 면에서 무한하다, 50, 65, 137, 227~228, 404
물문경은 속죄를 증거한다, 18
속죄 권능을 이해함, 64~65
속죄에 대한 통찰, 49, 98
속죄에 대해 기뻐해야 한다, 64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적적인 권능이 있다, 50
- 솔트레이크 성전
사진, 62, 73
주의 집의 산, 73~74
- 수리아
왕국, 80
- 순결
결혼 밖에서 성적 관계는 죄이며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118
모든 것 중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397
정의, 236
- 스노우, 로렌조
사진, 220
시련을 통해 오는 축복, 220
- 스노우, 로웰 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인도하신다, 21
- 스노우, 에라스투스
이스라엘 혈통의 중요성, 19
- 스랍
정의, 78
- 스미스, 사무엘 에이치
물문경 판의 증인, 408
- 스미스, 에머
조셉의 초기 서기, 4
- 스미스, 조셉 에프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경고, 62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지지하시고 번영시키심, 14
굳건히 남아있기 위해 표적이 필요한 회원들은 미끄러지는 길을 걷는 것이다, 217
-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음, 127
복음 회복을 위한 미국의 건립, 27
불구는 부활 때에 없어질 것이다, 243
사진, 127, 211
소망에 대한 훈련은 행복에 중요하다, 211
아버지와 아들: 제일회장단이 전하는 교리적 해설, 152
적혀 있는 기록이 심판에서 담당할 역할, 337
주님께서서는 자연 재해를 이용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신다, 374~375
“주의 안식”의 정의, 387
후기 성도에게서 없어진 죽음에 대한 두려움, 194
- 스미스, 조셉 일세
물문경 판의 증인, 408
조셉 스미스의 이름은 부친의 이름을 따라 지어졌다, 56
- 스미스, 조셉 필딩
감람나무에 대한 지노스의 비유는 기록된 가장 위대한 비유 중의 하나이다, 121
니파이는 야곱과 요셉을 성별하여 니파이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게 했다, 114
니파이인들은 구주께서 방문하시기 이전에는 아론 신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382
니파이인들은 멜기세덱 신권으로 집행했다, 61
니파이후서 29장에서 언급된 두 민족, 104
단순한 복음 원리들은 영의 인도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신비이다, 187
많은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갖고 있다, 313
모사야가 사용하고 조셉 스미스를 위해 감추어 둔 우림과 둠뎀, 365
모사야서 8장에 나오는 해석기의 역사적 개요, 146
미대륙은 시온이다, 361
미루는 것은 영생의 도둑이다, 229
사진, 187, 290
성신은 교회 회원들이 예언의 영을 지닐 수 있도록 주어졌다, 91
시온에서 율법이 나아갈 것이요, 74
시온의 딸들, 76
엘마에게는 침례를 베풀 권세가 있었음, 156
야곱서 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분산, 125
“영혼의 멸망”의 정의, 48~49
“예루살렘에서 …… 나시리니”의 정의, 181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버지로 여길 수 있다, 143~144
예수님이 니파이인들에게 다시 침례 받으라고 명하신 이유, 319
이사야가 말한 “기”의 정의, 77
인간은 죄 지은 상태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356
인간을 제외한 우주의 모든 것이 주어진 법칙에 순종함, 278
인봉 권능, 275
- 자녀들은 복천년 동안 죄나 유혹을 받지 않고 자랄 것이다, 46
전세에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선택의지가 있었다, 191
제자라는 단어가 물문경에서는 어떻게 쓰였는가, 290
주님께서 아담에게 열매를 따 먹는 것을 금하신 이유, 51
주님께서서는 미대륙을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셨다, 324
책임질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죽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구원, 395
천사의 방문보다 더욱 강력한 성신, 179
첫째 부활은 서로 다른 시기와 사건들로 이루어진다, 242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인 타락, 54
“하나님께서로 테러감”의 정의, 241
후기 성도들은 포도원의 종으로서 세상 곳곳으로 가고 있다, 128
- 스미스, 조셉
거듭남은 의식을 통해 온다, 178
거짓 영의 영향력은 영적으로 위험하다, 217
게시의 영이 처음 암시를 줄 때 그것을 깨닫는다면 유익을 얻을 수 있음, 131
교회에 가입하는 것은 중립 지대를 떠나는 것을 뜻함, 207
기적은 신앙의 열매이다, 275
낙담의 고통은 불로 타는 못과 같다, 126
니파이인들은 구세계의 교회와 같은 반차와 신권을 지녔다, 381
니파이후서 3장에 설명되어 있는 선택된 선전자, 54
리버티 감옥에서 잊혀지고 고립되었다고 느낌, 84
말라기 4장과 제3니파이 25장에 나오는 돌이키다의 정의, 334
모로나이는 조셉 스미스에게 성역을 베풀었다, 354
물문경 표제지는 문자 그대로의 번역이다, 3
물문경은 우리 종교의 종석, 3, 6, 400
물문경의 교차대구법, 231
물문은 더 많은 선을 뜻한다, 347
물의 침례는 침례 중 절반에 불과하다, 107
사람이 완전히 근접할수록, 시야가 맑아진다, 58
사진, 5, 6, 77, 97, 127, 146, 237, 242
“사하심을 얻지 못할 죄”의 정의, 237~238
성경의 부족한 점, 103
성신의 은사의 필요성, 382
시온 건설은 모든 시대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대명이다, 324
신권 열쇠를 회복하는 엘리야에 대한 설명, 334
악마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를 다스릴 권능이 없다, 371
악마는 하나님에 반대되는 자신의 왕국을 세운다, 26, 276

- 예급의 요셉이 조셉 스미스에 관해 한 예언, 55~56
 야벳 형제의 이름을 계시받음, 361
 어린아이들의 구원, 154
 여호와께서는 지구와 관련하여 전체 사건을 구상하셨다, 239~240
 우리 종교의 근본 원리, 72
 유럽과 돌림을 받음, 365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 성의 회복, 325
 유아 침례는 하나님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음, 395
 육신으로 계속 살게 해 달라는 사랑받던 자, 요한의 요청, 338
 이 경륜의 시대를 감리하도록 예임됨, 55
 인생에서 부름에 성임된 사람들은 예임되었다, 190
 즐기, 가지, 어린 가지 인용이 성취됨, 87
 진리를 알려는 마음이 없는 자들과 논쟁과 분쟁을 피하라, 216
 참된 교리를 분별하는 것과 좋은 것을 맛 보는 것의 비교, 225
 참된 하나님의 특성을 배움, 3
 표적을 구하는 예를 보여 줌, 127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음란하다, 217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다, 15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까지 매달려라, 362
 하나님께서는 믿고 회개하며 자신을 낮추는 이들에게 자비로우시다, 160
 해의 왕국의 안식처는 인간이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곳이다, 131
 행복은 존재의 목적이며 계획이다, 60
 회복된 명백하고 귀한 것들, 29
- 스미스, 조지 앨버트
 사진, 267
 할아버지께서 물으시기를, “내 이름으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267
- 스미스, 하이럼 엠
 비밀의 정의, 135
- 스미스, 하이럼
 물문경 판의 증인, 408
 선교사 봉사를 준비함, 197~198
- 스바냐
 유다 왕국에서 증언한 선지자, 12
- 스블론
 메시야가 거주하신 갈릴리 지역에 살았음, 84
- 스코트, 리차드 지
 개종 주기의 지속적인 필요성, 292~293
 결혼 생활 밖의 성적 관계는 죄이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임, 118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삶을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차게 함, 390~391
 깊이 생각할 조용한 장소를 찾음, 273
 너희는 높은 곳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느니라, 369
- 느낌에 따라 행동할 때 확실한 증거를 받는다, 375
 무거운 짐 속에서 구속주로부터 위안을 얻음, 91~92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니는 가치, 305
 성신으로부터 오는 교통을 인식함, 179~180
 성적 학대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권고, 397
 세상에 살되 사악함에 물들지 않는 방법, 59~60
 순종은 행복을 낳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그렇지 않다, 281
 심각한 범법은 신권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함, 239
 양심의 화평은 진정한 회개와 의로운 생활에서 나온다, 141~142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과 자비, 50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음, 268
 온전한 회개를 할 때 속죄를 통해 용서를 얻음, 130
 의로운 성품은 영적 힘의 기초가 됨, 15~16
 죄의 결과, 232
 주님께서는 신성한 권능으로 구해 주심, 195
 필멸의 삶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의지함, 160~161
 하나님께서는 성장과 이해를 촉진시킬 경험을 주심, 34~35
 학습 일지는 정전 공부의 힘을 증가시킬 수 있음, 198
 혈통은 귀중한 유산이 될 수 있음, 149, 344
 회개의 다섯 가지 요소에 관하여 스펜서 더블류 김볼의 말씀을 인용함, 282~283
 회개하라는 계명을 받은 이유, 58~59
- 스타헬러, 도널드 엘
 매일 간절한 기도와 개인적이며 진지한 경전 공부가 필요하다, 219
 복음 원리에 순종할 때 행복에 이른다, 14
- 스톤, 데이비드 알
 자신을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지키는 방법, 180~181
- 스페리, 시드니 비
 경전에 나오는 계보, 360~361
- 슬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의 은사이다, 232
- 시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반대됨, 179
- 시드기야
 역사적 배경, 12
- 시렘
 물문경에 나오는 첫 번째 직 그리스도, 126
- 시련
 고통이나 시련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 160
- 시몬스, 데니스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에 관계없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 257
- 시온
 마음이 청결한 자, 25
 미대륙이 시온임, 324, 361
 사회, 342~343
 새 예루살렘, 324, 378
 시온으로 집합함, 291
 시온의 딸들, 76
 후기, 45, 62, 73
- 시편
 니파이의 시편, 58
- 시험의 상태
 지상 생활은 배움과 시험의 기간임, 188
- 신권. 아론 신권 또는 멜기세덱 신권 참조
- 신앙
 신앙, 소망, 사랑 간의 관계, 387
 신앙과 기적, 376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390
 표적을 구하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 222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이 포함됨, 98
 행동으로 나타낸다, 37
- 신앙개조
 거짓말을 조금 하려는 유혹을 이겨야 한다, 200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집합, 324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 벌을 받는다, 53
 우리는 정직을 믿는다, 68
 주권자에게 충성을 바친다, 247
- 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
 겸손, 265, 377
 고백, 163
 구원, 243
 그리스도의 빛, 388
 기도, 308
 안식일, 157
 육체적 사망, 241~242
 은혜, 399
 행복, 243
- 실, 스티링 더블류
 부활체의 특징, 186
- 실로아, 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83
- 심판
 마지막 심판과 우리의 깨끗함에 대한 조건, 65~66
 심판대, 111
 정의, 187~188
- 심판하다
 책들로부터, 337

- 십계명
모든 세대에게 주어짐, 150
- 십일조
더 높은 헌납의 범을 준비함, 332~333
십일조를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여 줌, 332~333
-
- 아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 202
레이맨인들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기 위해 수년간 노력함, 167
- 아론신권
니파이인들은 구주의 방문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382
- 아멜리카이아, 251
- 아브라함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막대기의 상서 사항, 411
조셉 스미스의 계시에서 배울 수 있다, 28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성약, 54, 263
- 아알라, 에두아르도
충실한 회원들은 자국 백성에게 축복이 된다, 8
- 아이어링, 헨리 비
겸손은 재림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이다, 75
계명을 지킬 때 단합이 이루어진다, 156
교회는 항상 멸망되기 직전 세대였다, 287
구주께서는 그분께 나아오려 노력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것이다, 296
구주를 기억하고 항상 기도함, 317
기도와 신앙은 계명에 순종하는 데 도움이 된다, 14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상고하라, 331
번영은 교만과 영적 자족감으로 이어진다, 291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결속을 차단하고 간증을 약화시킨다, 48
선지자의 권고에 안전이 있음, 374
신앙은 선택이지 유산이 아니다, 162
어린이가 같이 되는 것은 영적 안전으로 이어진다, 139
여러분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현세적인 일을 잘 하라, 200
우리의 구속에서 구주의 중심 역할, 385
주님께서는 종을 부르시어 백성들에게 위험을 경고하신다, 370
주님을 기억함, 383
주님의 기도에 실린 원리들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다, 308
즉각적인 순종은 영적 복지에 필요하다, 184
진정한 의도로 하는 기도에는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이 포함된다, 388
충실한 경전 공부는 성신을 불러온다, 110
-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지속적으로 기도함, 227
하나님께서는 리하이의 성약의 자녀들에게 손을 뻗어준다는 약속을 지키셨다, 57~58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재빨리 사라질 수 있다, 277
하나님의 권고를 거절하는 것은 또 다른 영향력을 선택하는 것이다, 215
하나님의 영은 결코 다름을 일으키지 않는다, 261
허영심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된다, 270
- 안식일
준수, 157
- 안톤, 찰스 교수, 98
- 암몬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 202
담대하게 이야기했다, 200
레이맨인들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기 위해 수년간의 노력, 167, 199
오직 선견자만이 특별한 해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54
주님의 모범적인 종, 197
지니프 식민지를 찾기 위한 원정, 145
- 앗수르
주님의 도구 역할을 했다, 83
하나님의 심판, 86
- 애굽어
금판에 기록된 언어, 11
늦쇠판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언어, 135
- 에블리싸이인
그들의 몸에 표식을 했다, 172~173
정부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였다, 169
- 애쉬튼, 마빈 제이
사탄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용하도록 유혹한다, 102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선택한다, 291
이유를 알지 못할 때조차도 순종한다, 23
참된 사랑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얻는 것이다, 378
추가적인 영의 은사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401~402
- 엔타이-니파이-리하이, 204~207
- 엘마 이세
대제사와 대판사로서 겪는 어려움, 169
회개, 166
- 엘마 일세
교회 범법자를 다루는 책임, 233
립하이 백성과 비교되는 엘마 일세의 백성, 162
- 야곱, 니파이의 형제
구속주를 보았음, 43
-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이라는 성약의 이름을 얻음, 74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막대기의 상서 사항, 411
- 야렛의 형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이셨다, 364~365
이름은 마흔리 모리엔쿠머였다, 361
주님으로부터 우림과 돔뎀을 받았다, 146, 167~168, 365
주님의 꾸지람을 받았다, 362
항해할 배에서 사용할 빛을 받았다, 363~364, 368
- 야렛인
형제들과 분리됨, 70
- 약함, 377
- 양심
그리스도의 빛, 388~389
리아호나에 비유됨, 236
양심의 가책, 245
양심의 평안, 141~142
우리의 영을 인도한다, 292, 357, 395
- 어머니들, 256~257
- 에녹
에녹성, 340, 343, 379
에녹의 경전 기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97
조셉 스미스의 계시는 에녹에 대해 가르친다, 28
- 에텐 동산, 51, 53
- 에브라임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막대기의 상서 사항, 411
이스마엘은 에브라임의 후손이었다, 19
- 에이시, 카를로스 이
개종자들에게 소중한 구원 진리를 나누는 전파자들, 153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귀중하므로 우리도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 222, 268
반복적인 잘못은 끊기 힘든 사슬을 형성한다, 95
세상의 소급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304
주님의 말씀은 니파이인의 의로움과 간악함의 주기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222
- 에즐리, 리차드 시
오늘날 세상에 만연한 세속적 욕망, 102
위대함은 겸손과 유순함에서 시작된다, 221~222
적의 공격의 실제성, 101
행복의 특징인 겸손과 감사, 369
- 여덟 증인
각각에 관한 신앙 정보, 408
세 증인에 더하여, 97
이더서 5장에 구체적으로 언급됨, 366
중요성, 10

- 여덟 증인, 증인, 여덟 참조
-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참조
- 역경
 영향, 259
 필수적인 부분, 244
- 연단하는 자의 불, 332
- 영, 브리검
 거룩한 소망은 행동으로 드러남, 211
 경전을 기록하는 뜻이 있음, 355
 매일 불의와 싸움, 194, 210
 사진, 54, 353
 성결은 모든 죄를 극복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시키는 것을 뜻함, 192
 성경은 참되고 물몬경은 참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음, 353
 성신에 관한 우리의 특권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함, 402
 영의 세계의 위치와 하나님 처소 간의 차이점, 242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의 노력의 범위, 67
 조셉 스미스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감리하도록 예임됨, 55
 죄를 용서받으면 얼굴이 밝아짐, 76
 타락은 하나님 아버지 계획의 일부임, 54
- 영광의 세 등급
 교성 76편에 명칭이 나타남, 32
- 영육, 242
- 영의 세계
 위치, 242
 전세에도 있었던 선택의지, 191
- 영의 은사, 400
-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비밀, 187
- 영혼의 멸망
 조셉 필딩 스미스의 정의, 48
- 예레미야
 늦쇠판에 인용됨, 17
 리하이 및 니파이와 동시대 선지자, 12
- 예루살렘
 니파이는 가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
 멸망됨, 132
 “목에까지”라는 표현은 예루살렘 정복을 상징함, 83
 “예루살렘에서 …… 나시리니”의 정의, 181
- 예수 그리스도
 개인에 대한 공의를 충족시키고 용서를 하실 수 있다, 130
- 경전에는 부모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르치라고 지시한다, 142~143
 계속해서 길을 표시하고 인도하신다, 21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단합을 이루는 것이 성신임을 알 수 있다, 320
 그분의 이름을 받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336~337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매일 일어난다, 358
 모든 것이 예표임, 72
 모든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심, 106
 모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됨, 296
 물몬경의 주요 인물, 5
 무한한 속죄를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 65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138
 속죄는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다, 206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정의, 18
 안식일 준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측정하는 확실한 척도이다, 157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죄, 152
 예수 그리스도는 문을 지키시는 이시다, 68~69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151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는 복잡하지 않음, 106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음, 268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뻗어 있다, 86
 예표와 그림자의 정의, 227
 우리 아버지, 143~144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이름이다, 82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 153
 칭호에는 경이로운 모사, 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평강의 왕 등이 포함된다, 85
 하나님의 다른 어떤 자녀에게도 없는 공덕을 지니셨음, 50
- 예임, 190~192
- 예표
 정의, 227
- 오염
 음란물은 정신을 오염시킨다, 238
 후기의 오염, 355~356
- 옥스, 델린 에이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고난을 지상 생활의 목적이라는 맥락에서 보게 된다, 49
 “거듭남”의 정의, 166
 경전 읽기는 배울 준비를 갖추는 것임, 7
 경전과 개인적 계시의 연관성, 357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50, 150~151
 고난을 겪으면서 정제되고 정화될 수 있다, 44
 교회 선도의 목적, 163~164
- 교회 지도자들의 훈계에 따를 회원의 책임, 115~116
 그리스도의 아들 또는 딸이 되는 것, 152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세 가지 방법, 144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 321
 기적은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으며 참된 교회에 나타난다, 358
 마음을 불태우는 작은 음성, 297
 물몬경 1억 부에 실린 세 증인들, 97
 물질주의와 영성에의 관계, 280
 복음 교사들은 구주에 대한 학생의 관점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 169~170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지상 생활의 어려움을 견딜 힘이 생긴다, 186
 부활을 확신하면 견딜 힘이 생긴다, 243
 사탄이 사용하는 속임수, 371
 성신을 통해 오는 계시를 거절하는 것은 배움을 제한하는 것임, 187
 성찬을 취하는 것과 관련된 축복, 322
 성취된 이사야의 예언, 81
 세 증인의 간증, 366
 속죄를 통해 약속받은 불멸, 72
 시온 사회의 상태, 342
 심판은 주님의 것임, 355
 영원한 목적이나 결과가 없는 큰 역경은 없다, 259~260
 영적 진리를 판단할 때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줌, 285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봉사의 동기가 되어야 함, 387~388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 382~383
 예언과 경전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님, 81
 예표의 정의, 227
 완악한 마음은 우리의 영성을 제한한다, 29
 우리 마음에 사악한 것을 허용하는 일의 위험성, 238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는 우리 행동의 결과이다, 187~188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의지와 힘을 가지라, 59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후기 성도의 믿음, 93~94
 의식은 하나님과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함, 381
 자애는 행위가 아니라 상태이다, 392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준비함, 289
 재림 후에 지상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74
 죄와 범법의 차이점, 53
 죄 지은 다음 회개하는 것은 사악한 것임, 101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십일조를 바침, 333
 지상과 하늘에 있는 최고의 보물은 우리 자녀와 후손이다, 309
 지상은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찰 것이다, 87~88
 “진정한 의도”의 정의, 387~388
 집합의 의미와 목적, 290~291

- 최후의 심판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관정이다, 187~188
 큰 지진은 재림의 표적임, 295
 표적을 구하는 것은 위험을 수반한다, 222
 항상 충실한 것의 중요성, 256
 헛된 것들에 사로잡히는 것에 대해 경고함, 180
 헛된 것들에는 재물, 교만, 우월, 권력 등이 있다, 277
- 옴너
 레이멘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일에 수년 동안 수고함, 167
- 외설물
 사악한 괴물, 66
 악마의 도구, 238
- 요셉, 야곱의 아들
 그의 후손에 관한 위대한 약속이 주어짐, 54, 70
 요셉의 막대기에 관한 상제 사항, 411
 조셉 스미스에 관해 예언함, 55
- 용모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욱 그분과 같은 모습이 된다, 178
- 용서받을 수 없는 죄, 237
- 우드, 레이 에이치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향력을 거두신다, 349
- 우드럽, 윌포드
 벨기세텍 신권 소유자들은 예입되었음, 190
 사진, 118, 164
 성신을 받는 것이 천사의 방문보다 더욱 중요함, 164
 주님의 도움으로 예언을 성취할 방법에 관해 유대인들에게 말함, 92
- 우림과 들판
 사랑받던 자 요한은 육체로 머물러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338
 선견자는 특별한 해석기를 사용할 수 있음, 54
 야렛의 형제와 모사이아가 사용함, 조셉 스미스를 위해 감추어 둔, 146, 167~168, 365
- 우흐트도르프, 다이어 에프
 교회 회원들은 고국에 남아 있어야 한다, 323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 226
- 위스런, 조셀 비
 가난한 자를 축복하는 정도가 감사의 정도를 나타냄, 117
 겸손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369
 교회 회원이 되는 유익은 성도들과 교우 관계를 맺는 것이다, 385
 구주께 진 빚을 결코 갚을 수 없다, 137
 기도가 수반된 금식은 강력하다, 184
 기도는 암송이 아니라 소통이어야 한다, 308
- 기도를 개선하라, 183
 끝까지 견디기 위해 온 마음을 쏟아야 함, 108
 다툼은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이다, 261
 “마음이 청결한 자”의 정의, 303
 성신의 동반은 얻어야 하는 권리이다, 95
 세상의 것들은 영의 것들을 밀어낼 수 있다, 38
 쇠막대를 굳게 붙잡으라, 21
 신앙, 소망, 사랑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킴, 403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이다, 221
 주님께서서는 생수의 근원이시다, 88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 163
 진심으로 주님을 따름, 107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소망을 품으라, 391
- 워크먼, 에이치 로스
 불평은 세 단계로 구성됨, 13
- 웨튼, 로버트 제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영의 은사이다, 392
 우리가 베푸는 봉사는 개인적 개종의 깊이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136
- 웰스, 로버트 이
 구원받기 위해 회개하는 신앙이 필요함, 228
- 윗소, 존 에이
 선견자는 진리를 해석하고 명확하게 해 주는 사람이다, 146
- 유다
 유다 왕국, 11~12, 78
 유다의 막대기에 관한 상제 사항, 411
- 유대인
 물문경에 자주 나옴, 30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신시킴, 5
 흠어짐, 75
- 유브라데 강
 바벨론을 함락시키기 위해 패쇄시킴, 45, 88
 위험하고 파괴적인, 83
- 유아 침례, 395
- 유혹
 리하이 꿈에서의 악마의 유혹, 20
- 육에 속한 사람
 정의, 138
- 은혜
 견딜 힘을 줌, 399
 교리, 93
 신앙을 통해 구주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해짐, 50
 신앙이 있는 자들은 영적 사망에서 구원받음, 49
 하나님에게서 오는 힘, 378
- 의로움과 간악함의 주기, 222, 261, 276, 278,
- 292~293, 344, 368, 371~372, 374, 413
- 의식
 중요성, 381
- 이반, 252, 279
- 이방인
 물문경에서 이에 관해 자주 읽음, 30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신시킴, 5
 주님의 가르침을 거부함, 339
- 이사야
 그의 생애 동안의 주변 환경, 43
 니파이 시대보다 100년 전에 쓰여짐, 71
 니파이가 인용한 이유, 42~43
 모든 선지자 기록 중 가장 많이 인용됨, 73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관해 예언함, 41
 예언의 중의적 성격, 80
 예언하도록 부름 받음, 78
 이사야의 말씀은 위대함, 330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43
 이해하기 위한 지침, 43~44
-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4, 314
- 이스라엘의 집, 415
- 이스라엘의 집합
 개요, 415
 이사야의 가르침, 328
 이사야의 기록, 323
- 이스라엘의 흠어짐
 약사, 414
 죄악에서 기인함, 69
- 이스마엘
 에브라임의 후손, 19
- 인내
 성공으로 연결된다, 208
- 인봉 권능, 275
- 잃어버린 원고 116쪽
 리하이서라 불림, 12
-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82
-
- 스**
- 자비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킴, 50, 229, 244~245
- 자애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341
 발전시키고 경험해야 한다, 157
 사랑은, 378

- 자연 재해, 374~375
- 자유의 가치, 251
- 저주
표와 저주의 차이점, 61, 173
- 적 그리스도
절반의 진리를 사용한다, 215
참된 복음 계획을 가장한다, 212
- 전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선택의지가 있었음, 191
- 전쟁
때때로 민족들은 싸우는 것이 정당화되고 그럴 의무가 있다, 250
몰몬경에서는 전쟁 시기에 의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친다, 247
- 접붙이기
비유에서 백성들을 나타냄, 125
- 정당성
온전함은 정당성의 필요 조건이 아님, 264
정의, 50
- 정직
거짓말하는 죄의 심각성, 217
- 제이라헤블라
백성, 132
- 제일회장단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11, 18, 33, 57, 142
군복무 중인 교회 회원들에게 주는 권고, 247~248, 254, 256, 258
돌아오라는 권유, 164, 322~323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빛은 구원에 도움이 됨, 389
문신과 피어싱을 못하게 함, 172~173
사형에 관한 1889년 선언문, 170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64, 138
성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교회를 세운다, 323
영감을 주는 음악의 힘을 설명했다, 369
이 경륜의 시대의 재판관이 됨, 350
이것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301
- 조램
니파이가 조램에게 한 맹세의 기적적인 결과, 16
- 조램인
레이맨인들과 동맹을 맺음, 248
엘마와 그의 형제들이 조램인에게 전파함, 221
조램인의 배도적 신앙, 219
코리호어와 비슷한 신앙, 217
- 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많은 명백하고 귀한 진리를 회복시킴, 29
- 아름의 아들 요셉, 그의 후손에 관한 위대한 약속이 주어짐, 54, 70
- 종교의 자유, 46
- 중석
몰몬경은 중석이다, 3, 6, 400
- 죄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이다, 77
범법과 죄의 차이점, 53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난 뒤에 인생이 더 나아진다는 것은 사악한 거짓말이다, 101
회개하겠다는 의도로 죄를 저지름, 265
- 죄의 고백
회개 과정에서 요구되는 부분, 163
- 죄책감, 206
- 주의 안식
정의, 193, 387
- 주의 집의 산
미대륙이 주의 집의 산이다, 73~74
- 주의 친절하신 자비
매우 개인적인 축복, 12
- 즈위크, 더블류 크레이그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이 암시하는 상징과 축복, 351
- 증인, 세
각각에 대한 신상 정보, 408
몰몬경 1역 부에 실림, 97
이더서 5장에 구체적으로 언급됨, 366
중요성, 9
- 지노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관해 예언함, 41
예언이 보존됨, 17
유대인 선지자, 121
- 지노크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관해 예언함, 41
예언이 보존됨, 17
- 지니프
기록, 148
제이라헤블라의 지도자, 146
- 지성
지식의 유일한 근원은 아님, 67
- 지식
신앙, 소망, 지식 간의 관계, 223
- 지에즈룸
엠본아이아의 부정직한 변호사, 195
- 지옥의 사슬
엘마의 정의, 177
- 지워진 이름
교회 선도 조치의 목적, 163
- 질책, 362
- 집합, 후기
바야흐로 성취됨, 88
- 징계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함, 33
-
- э**
- 차일드, 셸든 에프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한다는 말의 정의, 341
- 창조
조셉 스미스의 계시는 창조에 관해 가르친다, 28
창조에 관한 통찰, 49, 53
- 책임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의지와 힘, 59
우리의 행동에 대해 구주께 책임짐, 68
올범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 67
- 천사들
간약한 자들에게 회개를 외친다, 164
아론 신권 의식은 천사의 성역에 필수적이다, 316
천사의 성역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 164
천사의 일과 성역의 실재성, 193~194, 390
- 천사의 방언
성신의 영향력을 받아 말할 때 그것은 곧 천사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다, 109
- 첫째 부활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다, 153, 242
- 청년 병사들, 255~257
-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
깨끗한 몸차림과 정숙한 옷차림, 172
성적 범죄와 회개, 236, 239
여러분이 듣는 음악을 주의 깊게 선택하라, 39
- 축복사의 축복
리아호나에 비유함, 235
- 춤
적절한 춤은 주님께서 인정하신다, 39
- 친숙한 영
죽은 사람의 영, 84, 95
- 침례
영생을 얻기 위해 모든 영혼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108
중요성, 299
-
- ㅋ**
- 카, 더블류 룰프
그리스도의 말씀은 개인적인 리아호나가 될 수 있다, 109, 235

- 카우드리, 올리버
그의 증언이 물문경 1억 부에 실려 있음, 97
물문경 판들에 대한 증언, 9~10, 71, 366, 408
사랑받던 자 요한은 육체로 머물러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338
엘리아가 신권 열쇠를 회복했을 때 예언이 성취되었다, 334
조셉 스미스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98
초기 선교사들 중의 하나, 381
- 카훈, 레이놀즈
태어나서 마흔리 모리엔쿠머라는 이름을 받은 아들, 361
- 카훈, 윌리엄 에프, 361
- 캐넌, 조지 큐
하나님이 계신 본향으로 간다는 것은 그분의 면전으로 바로 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241
- 캡, 아테스 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368
- 코리엔투머
모든 전술을 연구했다, 379
야벳인의 마지막 왕, 132
- 코리호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꾀변에 의존함, 96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죄가 아니라고 가르침, 213
코리호어의 철학은 현대 철학과 일치함, 213
- 코포드, 크리 엘
아빈아다이는 특별함, 150
- 콘디, 스펜서 제이
경전 공부는 인생의 결정들을 직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10
성약을 지키면 선을 행하려는 의향이 강해진다, 262
팔복은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302
- 콜드웰, 시 맥스
사랑은 발전시키고 경험해야 한다, 157
- 콜럼버스, 크리스토퍼
주님으로부터 영감 받음, 26~27
- 쿠모라, 351, 381, 407
- 쿡, 진 알
개인적인 영의 은사를 발견함, 402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을 때 결박에서 구함을 받을 것이다, 20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깨끗하고 완전해질 수 있다, 279
니파이인 제자들이 많은 말을 더하지 않고 기도함, 320
신앙과 겸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생각함, 400
- 쿡, 쿠엔틴 엘
성도의 정의, 139
- 크고 가증한 교회, 26
- 크리스텐슨, 조 제이
교만은 불의한 비교와 몰락으로 이어진다, 278
마지막 시대의 환경적 및 영적 오염, 355~356
- 크리스토퍼슨, 디 토드
교만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첫 번째 단계, 264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된다, 320
정당함, 성결함, 그리고 온전함, 264
주님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선물로 드린다, 296
- 킴볼, 스펜서 더블류
간절한 기도는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 393
경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돕는 힘이 있다, 218
교회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위험을 경고한다, 131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이유를 찾기 위해 우리 삶을 살펴봐야 한다, 362
기적은 오늘날 교회의 일부이다, 342
뉴질랜드 사람들은 헤이고드 후손들이다, 260
다툼과 논쟁이 없는 사회를 이룩하는 방법, 340
민감한 양심의 가치, 245~246
사망, 육체적 및 영적, 283
사진, 206, 218
양심은 리아호나와 같다, 235
영원한 관점은 현세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4~195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탄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의 보호막이 된다, 269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다, 303
온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07
용서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 온다, 233
우리가 선지자로 지지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임, 249
우리는 추가 경전을 얻기 전에 이미 계시된 것을 믿어야 한다, 335
의로운 자들의 기도는 세상을 멸망으로부터 지킨다, 185
이스라엘의 집합은 참된 교회에 속하는 것을 포함한다, 323
일부 성도들은 뿌리를 키우는 데 필요한 단련도 하지 않고 축복을 원한다, 123
전세에서 주어진 임무, 190~191
죄는 습관처럼 형성되므로 사람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비참한 지점까지 이를 수 있다, 349
죄를 버린다는 것은 종종 생활 방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206~207
죄를 지은 사람이 죄책감과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 357
- 주님께서는 기후를 이용하여 그분의 백성을 징계하신다, 276
회개의 다섯 가지 필수 요소, 282~283
-
- E**
- 타락
모든 창조물에 미치는 영향, 52~53
물문경은 타락을 증거한다, 18
타락에 관한 통찰, 49~50
타락이 필요한 이유, 53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 54
- 탈매지, 제임스 이
교회의 이름, 336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여호와이시다, 151
책임을 지는 일에서 지식의 역할, 67
- 태너, 엔 엘돈
다른 사람 대하기를 바르게 한다는 말의 의미, 341
선지자를 거부하면 고통받게 됨, 295
- 테일러, 존
누가 우리를 심판할 것인가, 350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지켜야 함, 25
사진, 25, 370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할 수도 있었을 사람들에게 대해 책임을 물으심, 115
- 팅기, 얼 시
육체적 사망을 정의함, 283
-
- F**
- 파라, 에프 더블류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구주의 고통을 묘사, 138
- 파우스트, 제임스 이
거짓말하는 죄의 심각성, 68
계획적인 회개는 속수무늬, 101
교회 선도조직가 필요한 범범, 164
구주에 대한 지식은 신앙과 영의 증거를 통해 얻는다, 9
구주의 모범을 따르면 힘든 시기에 쓴잔을 건디는 데 도움이 된다, 298
금식을 하면 우리 영혼이 겸손해진다, 184
기도는 하나님께 연결된 생명줄이다, 110
다양성이 있어도 단합은 증진될 수 있다, 343
다툼은 주님의 영이 물러나는 원인이 된다, 261
루시퍼는 어떻게 타락했는가, 52
물문경은 우리 종교의 종석이다, 6~7
물문경의 개종시키는 힘, 9
문화와 인종의 차이를 극복할 필요성, 96
사탄의 비밀에 흥미를 갖는 것을 경고했다, 348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와 같이 행할 때 성결하게 된다, 264
소망을 품을 때 고단한 삶에 평화가 온다, 391
속죄를 공부하고 받아들임, 142

속죄의 권능을 이해함, 64~65
 신앙이라는 영적 씨앗을 키움, 224
 아예코 세키의 가족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다, 60
 영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남, 38
 에루살렘 센터에서 브리검 영 대학교 학생들의 모습, 178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77
 이스라엘의 분산으로 많은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 123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보고함, 68
 주님 앞에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준비하라, 352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과정, 171
 지금 온전을 추구해야 한다, 307
 지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창조주와의 직접적인 교통으로부터 단절시킬 수 없다, 309
 타락은 아담과 이브와 그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53
 표준 경전은 진리 회복의 주요 수단이다, 28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라는 구주의 권유, 301
 현대 계시의 필요성, 103

파킨, 보니 디
 성약은 마음의 표현이다, 155~156

판
 금, 4, 10, 97, 351, 360, 406
 늦쇠, 16~17, 406
 물문의 판(금판), 134, 381

판사 치세
 니파이인들은 판사 치세와 연관시켜 시간을 측정함, 168

패커, 보이드 케이
 계시는 듣기보다 느끼는 형태의 말로 온다, 39, 280
 관용이라는 덕목은 왜곡되었다, 168
 교리를 이해할 때 태도와 행동에 변화가 생긴다, 218, 276
 구주의 희생은 공의에 저촉되지 않고 자비를 허락한다, 244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25
 그리스도의 빛은 선악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389
 기쁨은 부모가 되는 신성한 모형을 따를 때 온다, 18~19
 니파이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맥락에서 자신의 고난을 이해했다, 11
 합당하지 못한 근원으로부터 오는 영감에 속지 않도록 경계하라, 389
 도덕적인 오염이 급증하고 있다, 356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함, 322
 물몬경에 대한 간증은 하나의 씨앗에서 자란다, 7~8
 물몬경에 대한 간증을 얻음, 400
 물몬경을 공부하는 것은 개인적인 계시로 이어진다, 1

물몬경의 주요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는 것이다, 313
 물몬경의 출현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역할, 355
 반대는 우리가 더욱 강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 51
 불경스러운 것은 계시의 미세한 통로를 막음, 398
 삶의 선택은 명성과 무명 사이에서가 아니라 선과 악 중에 선택하는 것이다, 116
 선지자들을 따르는 이들에게 축복이 온다, 297
 성신의 영향력을 받아 말할 때 그것은 곧 천사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다, 109
 성신의 은사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음, 296
 성약을 지키면 안전할 것이다, 255
 소돔과 고모라에서 현재의 사악함을 능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97
 속죄를 적용하여 죄책감을 없앴, 206
 속죄의 치유하는 권능, 141
 신권 소유자로서 의롭게 생활하는 것의 중요성, 182
 신앙의 정의, 223
 신앙이 자라도록 기다리는 동안 인내하는 것의 중요성, 225
 양심의 고통은 회개를 통해 영적 치유를 구하는 동기가 된다, 245
 영은 외치거나 흔들어서 주의를 끌지 않는다, 297
 영적 느낌을 설명함, 131, 38
 영적 은사를 얻는 것에 관해 권고함, 402
 영적 장애는 큰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 196
 율법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 67
 이사야서의 어려움, 71
 이사야의 예언이 하는 역할, 330
 창조의 권능과 구원의 계획 간에 판, 237
 침례는 영생을 향한 길의 시작이다, 108
 침례의 중요성, 229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다, 188

페더스토운, 본 제이
 신권 소유자들은 항상 깨끗해야 한다, 294
 청소년들은 어른이 어진 작은 계명을 빌미로 심각하게 계명을 어길 수도 있다, 118~119

페리, 엘 톰
 가장 불가사의한 일 중 하나는 왜 인류가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가이다, 276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안식일 활동과 제안, 157
 경전을 기록하는 뜻이 있음, 354~355
 물질적인 소유에 사로잡히는 것에 대한 경고, 22
 선교사들에게 던져진 돌, 119~200
 성약을 지키겠다는 결심은 다른 사람의 개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7
 여러 해가 흐른 뒤에 첫 번째 선교사 동반자와 만난 이야기, 197
 영원한 삶을 얻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한 배움과 시험의 시간인 지상 생활, 188, 244
 용기는 쉽고 인기 있는 것보다 옳은 일을 선택하는 데 필요하다, 169
 우리 시대를 위해 쓰여진 물몬경, 3~4

제자의 정의, 290
 지상 생활의 한 가지 목적은 영이 육신과 결합하는 데 있다, 188

페이스, 글렌 엘
 계명의 목적, 22
 물몬은 그의 백성들에 대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지녔다, 350

페이지, 하이림
 물몬경 판의 증인, 408

포울먼, 로날드 이
 인생은 상반된 것을 배우고 그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다, 244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사악한 행위로 빚어진 결과를 겪게 허락하신다, 194

포터, 브루스 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의 정의, 383~384

포터, 엘 알딘
 선지자들은 경고하지만 선택의지를 찾아가지는 않음, 370

표백하는 자의 잿물
 연단하는 자의 불, 332

표적
 간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함, 289
 간악한 이들이 때때로 표적을 보는 이유, 288~289
 표적을 믿지 않음, 288

프랫, 팔리 피
 개인에게 미치는 성신의 영향, 402
 물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이해함, 1

피네가, 패트리샤 피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녀, 328

피터슨, 마크 이
 안식일 준수는 속죄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반영한다, 157

핍박
 핍박을 견디는 이들은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171

ㅎ

하나님
 그분의 전지하심이 필요한 이유, 272
 큰 선하심, 65
 특성, 395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232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32장의 중심 요점임, 221

-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구원하는 원리들을 포함함, 135
- 하박국
유다 왕국에서 증언하던 당대 선지자, 12
- 하워드, 에프 버튼
그는 엘마서 26장을 읽고 물문경에 대한 간증이 강화되었다, 208~209
물문경의 개종시키는 힘에 대한 제임스 이 파우스트의 이야기, 9
주님께서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보다 현재 어떤 사람인지에 더 관심을 기울이신다, 270
- 하이드, 올슨
감람산 정상에서 사도의 기도를 드림, 325
- 하넬, 브루스 시
더 풍부하고 깊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격정을 다스림, 236
말씀을 가꾸는 것의 측면, 226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성역, 390
신성한 도움과 진실한 회개를 통해 해의 왕국의 삶을 준비할 수 있다, 50
- 할레
다 이루어진 율법, 394
- 해리스, 마틴
그의 증언이 물문경 1역 부에 실려 있음, 97
물문경 판의 증인, 9~10, 71, 366
잃어버린 원고 116쪽, 133
학자를 방문함, 98
- 해석기, 또한 우림과 돌뭍 참조
선견자는 영원한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함, 146
- 해의 왕국
신성한 도움과 더불어 진실한 회개가 필요하다, 50
인간은 해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131
준비되어 있는 빛과 영광과 예지, 154
해의 왕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매일 전쟁을 치러야 한다, 210
- 현남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복종시킴, 265
현남의 법에 따라 생활함, 262, 341~342
현남의 법에 따른 참고, 332
- 헌터, 하워드 더블류
모든 사람은 좀 더 용서를 잘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209
모든 의로운 봉사는 하나님께 동일하게 받아들여진다, 253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소망은 개인적 개종의 자연스런 결과이다, 167
사진, 136, 253
선견자의 정의, 146
- 인정이 아닌 의로움에, 지위가 아닌 봉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136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의지를 존중하신다, 52
- 헤이트, 데이비드 비
영은 우리의 예배와 성찬식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385~386
- 헤일즈, 로버트 디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보이는 것이다, 319~320
개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일을 함, 130
경전을 붙잡음, 109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함, 109
그리스도의 빛과 성신의 은사 간의 관계, 389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 중의 하나이다, 336~337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음, 304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 143
모든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들은 기꺼이 죽음을 무릅쓴다, 154
반항하는 자녀를 다룸, 22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면 인기가 없는 것일지라도 선포해야 한다, 370
성신의 동반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156
세 가지 대수술로부터 얻은 교훈, 44
속죄는 사망에 직면한 의로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 준다, 210
시련에 직면할 때 주님께 향함, 35
십일조의 법은 우리가 헌납의 법에 따라 살도록 준비시킨다, 341
야렛의 형제는 가족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방식을 보여 준다, 363
영적 힘은 주님을 신뢰할 때 온다, 84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모범을 보이셨다, 106
이노스가 신앙을 키우기 위해 거친 과정, 129~130
종교의 자유를 확립하도록 영감받은 미국 건국자들, 27
- 호산나
정의, 299
- 홀랜드, 제프리 알
가정과 교회에서 받는 영감 어린 가르침으로 양육받음, 384
개인적인 간증은 조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다, 216
거하다의 정의, 378
구주께서 우리를 잊으시는 것은 불가능함, 45
구주의 칭호의 중요성, 85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물문의 마지막 기원, 353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가장 신나는 일이다, 94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만 집중함, 106
- 그리스도의 교리는 복잡하지 않음, 106
기이하고 기이한 업적의 중심인 교회 회원들, 29
질책에 대해 야렛의 형제가 보인 반응, 362
나이 많은 교회 회원들은 젊은 회원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준다, 162
니파이, 야곰, 이사야는 물문경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 증인이다, 71~72
니파이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회개의 날은 지나갈 수 있다, 348~349
니파이인들의 죄 많은 상태와 대조되는 물문의 영적 성숙도, 347~348
단합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320
대가 이상으로 가치있는 회개의 결과, 166~167
둑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점을 설명한다, 182
“명백하고 극히 귀한”의 정의, 27
모세의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데 기여했다, 151
물문경은 새로운 성약이다, 6
물문경은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도 중요한 종교 기록이다, 3
물문경은 이스라엘의 성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338~339
물문경은 천사의 실재성을 드러낸다, 390
복음에 대한 지식 없이 죽은 자들을 위해 방편이 예비됨, 67
부모는 신앙과 의로움을 보여야 한다, 119
사도와 선지자의 기초로 우리가 보호받음, 301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기 위해 마련된 모세의 율법과 더 높은 율법, 311
“산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답고요”의 정의, 327
새로 침례받은 사람이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해야 하는가, 155
선지자들은 니파이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버리고 속죄를 따르도록 준비시켰다, 311
성적 범죄가 그토록 심각한 이유, 237
성적 죄의 결과와 순결의 중요성, 237
성찬 성약을 새롭게 하는 동안 주님을 기억하는 방법, 316
속죄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 중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 64
시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반대됨, 179
신앙은 종종 알 수 없는 미래의 경험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375
십일조의 법에 순종하는 다섯 가지 이유, 332~333
엘마서 32~34장을 전체로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 221
야곰서 5장은 이스라엘의 흠어짐과 집함 그리고 속죄를 다룬다, 121
야곰은 가르침에 대한 중요한 요소를 채택했다, 6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힌 상처를 그대로 지니고 계시는 이유, 298
예수님께서 야렛의 형제 이전에 자신을 보이신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설명, 364~365

-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고치시고 축복하셨다, 314~315
-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구주의 권유의 정의, 295
-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심, 125
-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은 속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283
-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참된 사랑이다, 392~393
-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숭고한 선언문이다, 151
- 인봉 권능으로 우리는 조상 및 후손과 연결된다, 334
- 임마누엘의 증의적 예언, 82
- 작은 판은 116쪽보다 복음에 대한 더 큰 시각을 제공했다, 133~134
- 정사가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임, 84~85
- 제4니파이에는 의로운 백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가 잘 드러난다, 340
- “주의 기구를 메는 너희여, 깨끗할지어다”의 정의, 327
- 천사의 일과 성역의 실재성, 193~194
- 코리호어는 조랙인의 그릇된 가르침에 영향을 미쳤다, 218
-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감람나무, 122
- 합당한 신권 소유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다, 294
- 허영심은 영적으로 위험하다, 180
- 홍해
- 리하이와 그의 가족이 홍해를 지나 여행함, 12
- 지도, 409
- 회개
- 계획적인 회개는 속임수임, 101
- 구원받기 위해 회개하는 신앙이 필요함, 228~229
-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됨, 278~279
- 더 큰 평안과 기쁨을 얻음, 59
- 신앙은 회개로 이어짐, 290
- 회개의 조건을 알게 함, 282~283
- 휘트니, 율슨 예프
- 고통이나 시련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 160
- 미대륙은 영원한 작은 언덕이다, 312
- 휘트머, 데이비드
- 물몬경 판의 증인, 9, 71, 97, 366, 408
- 휘트머, 제이콥
- 물몬경 판의 증인, 408
- 휘트머, 존
- 물몬경 판의 증인, 408
- 휘트머, 크리스찬
- 물몬경 판의 증인, 408
- 휘트머, 피터 이세
- 물몬경 판의 증인, 408
- 히브리어
- 니파이 시대와 모로나이 시대 사이에 변경됨, 11
- 합나이
- 레이맨인들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기 위해 수년간 봉사함, 167
- 헝클리, 고든 비
- 2001년 공격 후에 미국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함, 275~276
- 가능한 한 모든 교육을 받으라, 68
- 가족 기도의 중요성, 318
- 개종자가 활동적으로 남아 있도록 도움, 205~206
- 거짓말을 약간 하려는 유혹에 저항함, 101
- 교회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328~329
- 교회는 복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117~118
- 교회와 이름과 책임의 신성한 연관성, 336
-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94
-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이다, 65
- 그리스도의 속죄에 견줄 행위는 없다, 245
- 기뻐하심을 입는 축복, 351
- 깨끗하고 고결한 언어를 사용함, 131~132
- 대회가 끝난 후 집으로 가서 더욱 의롭게 생활하라, 404
- 더욱 자비로운 사람이 됨, 143
- 모든 세대에 주어진 십계명, 150
- 모든 형태의 부정직에 대해 경고함, 68
- 물몬경 독자들에게 주는 약속, 401
- 물몬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이다, 350
- 물몬경은 삶을 영원히 변화시킴, 103~104
- 물몬경을 읽으면 더 강한 간증을 얻는다, 1
- 물몬경을 읽으면 영적으로 견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8~9
- 물몬경의 진실성은 읽어야 알 수 있다, 8
- 물몬의 이름과 관련된 의미, 347
-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 일어서서 일하러 나감, 303
- 무지는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에 대한 변명이 못됨, 102
- 문신과 신체 피어싱에 대해 경고함, 172~173
- 복음을 나눌 때 개인이 이미 지닌 선함에서부터 시작함, 201
- 불확실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닳아, 375
- 사진, 66, 94, 401
- 새로운 개종자들은 돌봄이 필요하다, 384~385
- 선교 사업을 할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함, 198
- 순결을 유지함, 397
- 순종을 조건으로 미대륙에 주어진 약속, 362
- 시온에서 율법이 나아갈 것이요, 74
- 신앙보다 지성을 신뢰하는 것을 경고함, 67~68
- 십일조와 학비 사이에서 선택한 여성, 375~376
- 역사에서 회복이 미치는 영향, 30
- 영으로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 110
- 오늘날 세상에는 순수한 간증의 힘이 필요함, 175
- 음란물을 극복하기 위해 도움을 간구함, 66
- 음란물의 사악함, 238
- 이혼은 가장 큰 비극 중의 하나이다, 306~307
- 일부 상황에서 싸우는 것이 정당화된 민족들, 249~250
- 전쟁에 대해 하늘에서 느끼는 슬픔, 247
- 정의와 품위를 위해 일어서야 할 때, 262
- 지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창조주의 솜씨를 증거한다, 217
- 직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자, 63
-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피하는 방법, 287~288
- 진지한 경전 공부는 영을 교화시키고 앙양시킨다, 331
- 커피를 마시면서도 성전 추천서를 받으려는 여성, 137
-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27
- 행복은 의로움에서 온다, 60~61
- 확고하게 남아 있는 것의 중요성, 257
- 회복의 기적과 이를 전진시킬 책임, 328
- 회복의 놀라운 사건들, 92
- 후기 성도들에게서 푸대접받은 것을 극복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남자, 17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